

#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

A History of Korean 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조동호 지음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

---

# A History of Korean 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DONG HO CHO

Christian Church Studies, 2014, 2016,  
2017

20-10 Beonyeong 8-gil Umsamyun

Gyeryongsi Choongnam,

Republic of Korea 32815

Tel(042)841-9697

## 머리말

필자는 순복음교회에서 성장하였고, 신앙생활에 열심이어서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막연히 목사가 될 생각을 품고 있었다. 보고 자란 사람이 목사와 선교사밖에 없어서였는지 모른다. 선교사로부터 대학을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몇 차례 받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필자는 자력으로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선교사의 제안을 거절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생활은 출발부터 녹록치 않았다. 그 와중에 공부에 대한 열망이 커졌다. 그래서 찾아가 상의 드린 분이 최요열 담임목사님이셨다. 그분은 순복음신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서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신 최요한 목사님의 동생이셨고, 김은석 목사님의 주례로 혼례를 치르신 분이였다. 졸업 후 서울 이태원 순복음 교회에서 시무하시다가 1960년대 기간에 힘 요한 선교사님이 막 시작한 한국성서신학교에서 교수로 섬기셨다. 그분의 말씀이, “자력으로는 대학을 다닐 수 없으니 내가 써주는 편지를 가지고 대전으로 내려가서 김찬영 목사님을 만나 뵙고 이 편지를 전해 드려라. 그러면 그분한테서 무슨 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다.

그래서 필자가 찾아가간 곳이 한국성서신학교였고, 김찬영 목사님은 미국에서 공부를 끝내시고, 가족과 함께 1970년 11월 15일에 귀국하신 30대 중반의 젊고 멋진 분이셨다. 1972년 6월에 힘 요한 선교사님은 은퇴를 하시고 미국으로 돌아가실 생각이었기 때문에, 김찬영 목사님이 그해 1월 21일에 한국성서신학교 제2대 교장에 취임하셨다. 교장 취임 후 첫 입학시험이 있던 날에 필자와 첫 만남이 이뤄졌다. 이후 필자는 졸업 때까지 학교의 온갖 굵은일을 하면서 김찬영 목사님을 도와 학교발전에 미력하나마 힘을 보탤다. 20대의 필자와 30대 중반의 김찬영 목사님과의 특별한 관계는 그렇게 온갖 굵은일 속에서 형성되어갔다.

졸업 후, 최초의 원룸강의실이었던 가장동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전도사와 한성고등기술학교 학생과장 겸 교사로 일하였다. 이 무렵 김찬영 목사님의 주선으로 1982년 1월 20일에 미국에 건너가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1987년 8월 1일에 귀국하였다. 세 가지 신학분야를 최종 점검하는 신학대학원 구두 졸업시험 때, 성서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세 분야에 응시하였다. 필자가 가장 선호했고, 가장 많이 공부했던 분야는 조직신학분야였다. 역사신학분야는 공부의 양이 많고 어려워 미국인들조차 기피하는 분야였지만, 역사신학 교수님의 격려에 힘입어 응시하기로 마음먹고 공부했던 분야였다.

귀국 후 한성신학교에서 말아 가르친 분야는 성서신학이었다. 많이 부족한 분야였지만, 조직신학은 이미 담당자가 있어서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후 26년간 성서신학분야를 연구하면서 가르칠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성서신학분야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펼치는 신약성서교회운동에 가장 적합하였기 때문이다. 필자가 미국에서의 공부와 귀국 후 한국에서의 공부를 통해서 역사신학에 관심을 갖게 하신 분도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 가톨릭교회와 유대교에 관한 공부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감사드리고 있다. 이러한 공부들이 모두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를 소개하고 이해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군가가 진 십자가에 기대어있다. 제 힘이나 능력으로 선 것이 아니다. 그 누군가가 예수님일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친인척이나 선배일 수도 있고, 목사나 교우일수도 있고, 이름도 성도 모르는 무명인일수도 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가 짊어진 십자가에 기대어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닌 것이다. 작고 초라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오늘이 있기까지 수많은 선배 목회자들의 십자가와 눈물과 땀과 배고픔과 고달픔과 외로움이 켜켜이 쌓이고 섞이고 다져져 던고 설만큼 단단한 돌이 되었다.

필자는 1999년 3월에 그리스도의 교회 사이버 연구소를 인

터넷에 개설하였는데, 장성우 교수님의 격려가 매우 컸다.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문외한에 가깝던 필자는 이후 16년째 선배 목회자들의 헌신적인 삶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였고, 때로는 탄식과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였다. 또 밤낮 없이 자료를 찾고 만들어 소개하는 일에 매진하면서 병도 나고 탈진상태에 빠져 결국 2008년 12월 31일자로 신학교로부터 명예퇴직을 선택하였다. 그 같은 노력과 헌신과 눈물이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잇대어진다면, 우리가 희망하는 ‘큰 바위의 얼굴’ 같은 그 누군가가 반드시 나오게 될 것이다.

필자가 마음속에 늘 간직한 생각은 누군가가 반드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사를 써야 한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잡학을 하는 수준이지, 역사가가 아니기 때문에 필자가 직접 이 과제를 수행한다는 것은 언감생심(焉敢生心) 혹은 감불생심(敢不生心)이었다. 연구소도 그래서 시작한 일이었다.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과업을 수행해줄 혹은 논문을 쓸 그 누군가들을 위해서 자료들을 수집해 주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더는 미룰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서울기독교대학교의 백종구 박사께서 2016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 그리스도의 교회 대회를 기념하여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역사를 세 파트로 나눠서 써보자는 제안도 있고 해서 이 과업을 직접 수행해 보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백종구 박사의 제안은 충청이북지역(협의회, 총회)의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사와 충청이남지역의 그리스도의 교회 역사(협의회, 총회) 그리고 전국(교역자회)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사들을 내부사정을 잘 아는 소속 구성원 세 사람이 나눠서 써보자는 것이었다. 백종구 박사의 제안은 이후 <스톤-캠벨운동대사전> 번역작업과 협의회 측의 사정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진척되지 못했지만, 필자는 개인적으로 그 제안이 언젠가는 다시 있을 것이라 믿고, 과제를 수행하고 싶었다.

필자가 의도한 작업은 ‘충청이남지역(협의회, 총회)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이다. 그렇다고 충청이남지역의 모든 이야기들이 여기에 포함된 것은 아니다. 필자가 갖고 있는 자료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이뤄진 미완성 작업일 뿐이다. 이일 또한 미래의 누군가를 위해서 놓는 초석일 뿐이다. 많이 부족한 작업이지만, 그나마 다행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작업을 통해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역사의 많은 퍼즐조각들이, 비록 여전히 제자리를 찾지 못한 퍼즐조각들이 많지만, 제자리를 찾았다는 점이고, 비록 여전히 오류가 많다고 보지만, 오류들의 상당 부분이 바로 잡혔다는 점이다. 이렇게 조금씩 진행시켜나가다 보면, 반드시 언젠가는 바람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숫한 역경과 극한 가난 속에서조차 손에 쥘 성서를 내려놓지 않았던 선배들이 이 작업으로 인해서 기쁨과 편안한 안식을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

2014년 8월 7일

소광(素光)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 증보 및 수정판에 대하여

필자가 지난 2014년 8월에 <충청이남지역(협의회, 총회),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를 끝낸 후 얼마쯤 지나 미국 텍사스 주 포트워스 소재 브라이트 신학대학원의 교회사 교수 이상훈 박사(Dr. Timothy Lee, Brite Divinity School of Texas Christian University, Fort Worth, Texas)로부터 일본 동경 요츠야선교부에서 발행한 월간 선교지 <도쿄 그리스도인>(Tokyo Christian)이 담긴 CD 한 장을 받아보게 되었고, 또 얼마쯤 지나 미국 인디애나 주 인디애나폴리스 소재 크리스천신학대학원의 교회사 교수 스코트 씨에이 박사(Dr. Scott Seay, Christian Theological Seminary, Indianapolis, Indiana)로부터 4장의 CD를 증정 받게 되었다.

그로부터 필자는 지난 수개월간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 윌리엄 D. 커닝햄 선교사와 한국선교 및 내국인 사역자들,’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 존 T. 채이스 선교사와 한국인 성서 훈련원’ 및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 해롤드 테일러와 서울성서신학교’의 작성에 전력을 집중하여왔다.

따라서 이들 세 개의 글들은 미국의 두 분 교수들이 보내준 자료들, 곧 윌리엄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 존 채이스(John T. Chase),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 선교사들이 발행한 선교지들을 읽고 쓴 글들으로써 이들 선교지들을 수집하여 디지털화시켜 CD들을 보내준 스코트 씨에이 박사와 이를 주선하고 별도의 자료까지 보내준 이상훈 박사의 공로에 힘입은 것이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숲과 나무들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책을 신약성서기독교 회복에 일생을 바쳤거나 헌신하고 계신 선후배 목회자님들께 조심스런 마음으로 바칩니다.

2016년 1월 1일

소광(素光)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 재수정판에 붙이는 글

2016년 1월 1일에 ‘증보 및 수정판에 대하여’를 쓴 필자는 이제 더 이상의 자료 곧 초기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한 자료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한 종들의 이야기를 거기서 끝내기를 원치 않으셨다. 2016년 10월 하나님께서는 <일제시대 복음전도관 선교현황(성결교회역사연구회, 2010)>, <성결교회 이야기(에디아, 2012)> 등을 저술하신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임흥근 목사님을 통해서 필자를 온라인 자료들을 제공하는 국가기록원으로 인도하셨고, 수백 쪽에 달하는 유용한 자료들을 찾게 해주셨다. 필자가 발견한 자료들은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 및 국사편찬위원회가 제공하는 온라인 문서들로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윌리엄 D. 커닝햄, J. 마이클 셸리, 존 T. 채이스와 같은 외국인 선교사들과 그들의 내국인 사역자들 그리고 그들이 세운 교회들과 주소들이 담긴 것들이었다.

한자와 일본어로만 쓰인 이들 문서들은 일본식민지시대의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역사 조각그림들을 맞추는 일에 매우 유용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이들 문서들을 연구하여 2016년 말에 자료집 <조선총독부 기록으로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를 엮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을 채운 2017년 말까지 아쉽게도 필자는 조선총독부 기록에 맞춰 본서의 내용 일부를 수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이제라도 필요한 수정을 마치고 재수정판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2017년 11월 24일

소광(素光)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 목 차

머리말 .....	3
들어가는 말 .....	17

### 제부 윌리엄 D. 커닝햄 선교사와 한국선교 및 내국인 사역자들

1. 윌리엄 D. 커닝햄과 한국인 선교 .....	27
1) 윌리엄 D. 커닝햄과 요츠야선교부 .....	27
2) 한국인 선교 .....	33
2. 일본에서의 한국인 선교사역 및 내국인 사역자들 .....	37
1) 삼하도조선기독교교회와 사역자들 .....	37
(1) 김상준(金相濬) 목사와 조선인성서훈련원 .....	44
2) 횡빈조선기독교교회와 사역자들 .....	51
(1) 유재현 목사 .....	55
3) 심천조선기독교교회와 사역자들 .....	56
3. 한국에서의 한국인 선교사역 및 내국인 사역자들 .....	60
1) 서울지역 선교사역 .....	60
(1) 서울 제1교회와 성서훈련원 .....	67
(2) 서울 제2교회 .....	71
(3) 서울 제3교회 .....	73
(4) 서울 제4교회 .....	73
(5) 서울 제5교회 .....	74
(6) 이인범 목사 .....	75
2) 인천지역 선교사역 .....	77
(1) 송현기독교교회(인천 제1교회)와 성서훈련원 .....	79
(2) 유동기독교교회(인천 제2교회) .....	82
(3) 금곡동기독교교회(인천 제3교회) .....	85

(4) 인천 제4교회 .....	86
3) 평안북도지역 선교사역 .....	87
(1) 구성군 방현기독교회 .....	88
(2) 구성군 오봉기독교회 .....	91
(3) 구성군 평지동기독교회 .....	92
(4) 정주군 용포동기독교회 .....	92
(5) 정주군 근담동기독교회 .....	94
(6) 정주군 약수포기독교회 .....	95
(7) 정주군 문인동기독교회 .....	95
(8) 신의주기독교회 .....	95
(9) 평안남도 중화군 대류리기독교회 .....	96
(10) 이원군 목사 .....	97
4) 경상남도 지역 .....	99
(1) 마산기독교회 .....	99
(2) 대구기독교회 .....	100
4. 요츠야선교부의 태평양 전쟁 전후 조치들 .....	100
1) 일본의 기독교회들 .....	101
2) 동경선교성서신학교 .....	102
3) 한국의 기독교회들 .....	102
5. 한국에서 활동한 초기 선교사들 .....	105
1) J. 마이클 셸리(J. Michael Shelley) 가족 .....	105
2) 존 T. 채이스(John T. Chase) .....	108
3) 토마스 G. 히치(Thomas G. Hitch) 가족 .....	110
4) 오웬 스틸(Owen Still) 가족 .....	113

**제2부 존 채이스와 한국인 성서 훈련원 119**

1. 은둔의 나라에 신약성서기독교 전파자가 되기까지 .....	120
------------------------------------	-----

2. 입국 후 선교활동 .....	123
3. 출국 후 선교활동 .....	128
4. 선교부 건물의 매입, 몰수, 환원까지 .....	147
5. 한국인 성서 훈련원 .....	149
6. 격월간 <한국인 전령> .....	150
7. 기독교회 선교부 .....	151
8. 요츠야 선교부 사역자들과의 관계 .....	154
9. 토마스 G. 히치와 오엔 스틸 선교사 가족들 .....	158
10. 은퇴 후 생활 .....	159
11. 채이스 부부에 대한 추모 .....	160
12. 존 T. 채이스 선교사와 내국인 사역자들 .....	163
1) 김요한 목사 .....	166
2) 최상현 목사 .....	169
3) 성낙소 목사 .....	173
4) 김문화 목사 .....	180
5) 박관조 목사 .....	181
6) 백낙중 목사 .....	182
7) 성수경 목사 .....	183
8) 이난기 목사 .....	184
9) 윤낙영 목사 .....	185
13. 힐 요한 선교사의 서울에서의 사역 .....	186
1) 한국 선교사에 지원 .....	186
2) 한국 선교사로 입국 .....	186
3) 강제 철수 후 목회활동 .....	187
4) 군목으로 미 육군에 입대 .....	188
5) 제대 후 버틀러대학교 신학대학원 입학 .....	189
6) 한국에 재입국 .....	189
7) 힐 선교사의 서울에서의 사역 .....	191
8) 송월동 선교부 재산의 환원 .....	192

14. 김은석 목사 .....	193
------------------	-----

**제3부 해롤드 테일러와 서울성서신학교/199**

1. 존 T. 채이스 선교사와 존 J. 힐 선교사의 분열 .....	202
1) 신학교 .....	202
2) 채이스 선교사와 힐 선교사의 분열의 원인 .....	206
2. 선교사들과 내국인 사역자들 사이의 이견 .....	210
1) 수도권외 동파(East)와 서파(West) .....	210
2) 충청이남권의 반선교사 정서 .....	213
3) 반선교사 정서의 원인 .....	216
3.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 선교사 .....	218
1) 한국입국 전(前) 사역 .....	218
2) 한국입국 후의 사역 .....	221
3) 은퇴 후 생활 .....	250
4.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의 내국인 사역자들 .....	250
1) 최순국 목사 .....	250
2) 김동수 목사 .....	258
3) 최윤권 목사 .....	261
4) 안재관 목사 .....	266
5) 김진문 목사 .....	267
6) 독립투사 오현팔(吳鉉八) 목사 .....	267
7) 정인소(鄭寅笑) 박사 .....	272
8) 이기구 목사 .....	276
9) 사랑의 원자폭탄 진성구 장로 .....	277

제4부 김은석과 신화신학 성경연구회/281

1. 1950년대까지의 힐 요한 선교사의 활동 .....	281
2. 1950년대의 김은석 목사 .....	286
1) 신화신학 성경연구회 .....	289
2)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의 특징 .....	290
3)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 .....	295
4) 신약성서교회들의 개척자 .....	297
5) 김은석의 박애정신 .....	301
6) 김은석의 하나님과의 관계 .....	302
7) 김은석의 성서통독과 전도활동 .....	304
8) 성서낙서를 통해서 본 김은석의 신학 .....	306
9) 김은석의 인간관계 .....	309
10) 김은석의 세상사 .....	311
11) 김은석 목사가 끼친 충격과 .....	314
12) 부장 그리스도의 교회 .....	318
13)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 .....	319
3. 김은석 목사의 동료들 .....	320
1) 김명석(김주일) 목사 .....	321
2) 박점상 장로/목사 .....	321
3) 김교인 장로 .....	326
4) 신현창 장로 .....	328
5) 정찬성 목사 .....	328
6) 김상호 목사 .....	331
7) 맨발의 성자, 만교 최춘선 목사 .....	333
8) 창현 함태영 목사 .....	337
9) 이신 목사/신학박사 .....	345
10) 김광수 목사/장로 .....	352
11) 김정만 목사 .....	356

12) 장주열 목사 .....	359
13) 최요한(용환) 목사 .....	361

### 제5부 힐 요한 선교사와 한국성서신학교/373

1. 힐 요한 선교사 .....	373
1) 힐 요한과 제인의 생애 .....	374
2) 힐 요한 선교사의 유품 .....	379
3) 재단법인 한국 크리스찬 밋손 .....	381
4) 모금의 어려움 .....	381
5) 1960년대 충청이남지역 교회 상황 .....	385
6) 힐 요한 선교사가 후원한 기독교 학교들 .....	390
7) 힐 요한 선교사가 설립했거나 후원한 보육원들 .....	391
2. 한국성서신학교 .....	392
3. 힐 요한 선교사의 제자들(1960-71년) .....	401
4. 힐 요한 선교사의 교회 후원 .....	407
5. 힐 요한 선교사의 동료들 .....	413
1) 고팡석 목사 .....	416
2) 지철희 목사 .....	418
3) 노봉욱 장로 .....	421
4) 심영진 목사 .....	424
5) 김치연 목사 .....	426
6) 김희영 교수 .....	428
7) 고재운 목사 .....	430
8) 안일승 목사 .....	430
9) 김순철 목사 .....	431
10) 오재건 장로 .....	433
11) 버지니아 힐(Virginia Hill) .....	435
12) 해남 그리스도의 교회 .....	439

6. 힐 요한 선교사의 1976-77년 복귀 .....	441
--------------------------------	-----

**제6부 김찬영과 한성신학교/445**

1. 1970-1990년대의 김찬영 목사와 한성신학교 .....	446
2. 2000년대의 조준상 목사와 한민학교 .....	451
3.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의 출범 .....	454
1)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 인준 한성신학원 .....	456
2) 1970-90년대 한국성서(한성)신학교 졸업생들 .....	456
3)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를 통해서 개척된 교회들 .....	457
4. 김찬영 목사의 동료들 .....	461
1) 이춘식 목사 .....	461
2) 정일호 목사 .....	463
3) 장성우 목사 .....	464
4) 최용호 목사 .....	476

**제7부 부산, 경상도, 광주/487**

1. 장성만 목사와 동서대학교 .....	487
1) 민석(民石) 장성만(張聖萬) 목사의 생애와 업적 .....	487
2) 리처드와 멜바 래쉬 선교사 .....	494
2. 부산에서의 라디오 방송선교 .....	500
1) 알렉스와 베티 빌즈(Verlen Alex & Betty Bills) ..	500
(1) 알렉스 빌즈의 생애와 방송선교에의 비전 .....	500
(2) ‘크리스찬 라디오 밋손’ .....	503
(3) CRM 법인설립 .....	509
(4) 한국 CRM의 성과 .....	510

2) 알렉스 빌즈의 동료들 .....	512
(1) 엑시 제인 폴츠(Exie Jane Fultz) .....	512
(2) 플로라 매이 구른지(Flora Maye Guernsey) .....	513
(3) 조 세겔키(Joshep & Maxine Seggelki) .....	514
(4) 버트와 마조리 엘리스(Bert & Marjory Ellis) .....	519
3) CRM 선교사가 되려고 준비 중이던 가족들 .....	521
4) 한국 CRM의 실패의 원인 .....	522
3. 김동열 목사와 광주 그리스도님의 교회 .....	526
나오는 말 .....	536
부록: <신약교회 목회학> 편집자(조동호) 서문 .....	541
참고서적 .....	551



#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

## A History of Korean 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조동호(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 들어가는 말

사도행전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지역 선교와 시대별 핵심 인물인 베드로와 바울의 선교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베드로 이야기 속에 스테반이나 빌립 같은 사역자들 이야기가 삽입되고, 바울 이야기 속에 바나바를 비롯한 많은 수의 동료 사역자들 이야기가 삽입되었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전개되는 과정과 그 과정을 주도한 베드로와 바울의 활동을 중심으로 꾸며졌다. 또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요한 같은 히브리파(팔레스타인) 유대인들에서 시작된 복음이 바울과 바나바 같은 헬라파(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로, 헬라파유대인들로부터 유대교에 개종한 헬라인 ‘하나님 경외자들’에게로, 또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로 옮겨간 과정의 기술이자, 유대교인들에게서 시작된 복음이 기독교(그리스도의 교회)로 발전된 과정의 기술이다.

지난 2천년 기독교 역사에서 여러 형태의 신약성서교회운동이 ‘남은 자’ 또는 비주류 속에 항상 있어왔지만,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그 정점에 서 있다는 것이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 또는 그리스도인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Churches of Christ)의 일부 역사가들의 입장이다. 개신교전래이후 이 땅에도 자생한 신약성서교회운동이 몇 차례 있었다.

캐나다 사람으로 침례교 출신이었던 말콤 펜웁(Malcolm C.

Fenwick)은 1889년 7월에 입국하여 250여개의 교회를 세웠으나 어떤 교단에도 속하지 않은 채, 자신이 세운 교회들의 이름을 ‘대한기독교회’(Dai Han Kitock Kyouhay)로 불렀다. 이 이름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The Church of Christi in Corea)를 한자로 고쳐 부른 것이었다. 이들 교회들은 1936년 펜윅이 죽은 이후로 1950년까지도 침례교와는 어떤 연관도 없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로 이어지기보다는 침례교회로 흡수되었다.

1868년 평북 의주출생이었던 한석진은 백홍준과 서상륜의 전도를 받고 1891년에 마펏에게 세례를 받았다. 비록 그는 장로교 목사였지만, 이 땅에서 자생한 신약성서교회 운동가였다. 그는 1909년 일본 도쿄에 유학생들의 한인교회를 설립할 때 교단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설득하여 연합교회로 만들었고, 1915년에는 경기충청노회에 ‘조선예수교장로회’란 교단명칭을 “조선기독교회로 바꿀 것”을 헌의하였다. 한석진은 목회말년에 금강산 기독교 수양관 건립을 위해 헌신하였는데, 1926년부터 모금을 시작하여 1930년에 2층짜리 웅장한 돌집 수양관을 건립하였다. 기금은 모두 장로교회에서 나왔지만, 수양관 간판만큼은 ‘장로교 수양관’이 아닌 ‘기독교 수양관’으로 할 것을 고집하여 그대로 되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장로교회 목사로 남았다.

최태용은 감리교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한 강명석과 최상현 등이 펴낸 동인지, <신생명>(新生命)에 글을 발표하다가 28살에 <천래지성>(天來之聲)을 펴냈는데, 그는 여기에 “사람은 다만 그리스찬이란 일흠 외에 무삼 째 일흠으로써 신자를 부르기 십허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리스찬 이외의 일흠으로써 여배(余輩)를 부르랴거든 여배(余輩) 또한 한 일흠을 제공하리라.... 여배(余輩)는 교회주의라는 것이 비진리오 악마의 오묘(奧妙)임을 주장한다.”고 적었다. ‘오직 그리스도인!’(Christian Only!) 운동을 펼친 신약성서교회 운동가였던 셈이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기독교대한복음교회’의 창시자가 되었다.

성낙소는 홍주성 의병군에 가담하려했다가 기회를 놓치자,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구세군사관이 되었다. 1919년 독립만세운동 때 영동지방의 유지와 청년들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가 왜경에게 쫓기게 되자, 구세군은 1920년 7월 30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성낙소의 포교폐지계를 신고하였다. 포교폐지를 당한 성낙소는 그해 8월 경성성서학원(성결교)에 입학하여 1922년 3월에 마친 후 구세군에 백의종군하였다. 성낙소는 구세군 하사관을 경유하여 정사관에 복직되었으나 1926년 1월에 스스로 구세군 사관직을 사임하였다.

성낙소는 “기독교 각파가 기독교 정신의 골자인 박애(博愛)로 속죄구령의 목적을 충각(忠覺)하고 각기 자파(自派)의 교세만 확장하려는 동시에 자파가 아닌 교회는 이단시할 뿐만 아니라, 시기와 질투심이 농후함으로 상대하는 입장에 소원(疏遠)함을 유감으로 생각하였다.” 이에 성낙소는 1927년 정월 초에 충남 부여군 세도면 화수리 2구 290번지 처가(妻家) 사랑방에서 구세군교회가 아닌 무교파 ‘기독교교회(基督之教會)’를 시작하였는데, 이 교회출신으로서 동경신학교에 유학한 청년이 1930년에 성낙소를 ‘기독교교회’(그리스도의 교회) 선교사 윌리엄 D. 커닝햄에게 소개하였고, 커닝햄이 도항증과 뱃삿을 보내 성낙소를 일본에 초청함으로써 요츠야선교회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후 성낙소는 1964년 11월 30일 74세로 소천 때까지 만 34년간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였다.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에 의하면, 최요한이 1946년 2월 영흥장로교회 부흥집회 때 김은석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4월에 전남 함평군 엄다면 신흥리와 10월에 손불면 주포리(함평면 석성리로 이전)에 자생적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세웠다고 한다.

위에서 언급된 강명석, 최상현, 성낙소, 최상현 뿐 아니라, 동석기, 김은석, 이신처럼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작된 배경에는 교파교단 출신의 목회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당대의 교회가 신약성서교회(기독교)로 복원되어야 할 필요성을 의식했던 인물

들이었고, 신약성서교회에 잇대기를 원했던 개혁가들과 그 줄기에 붙은 ‘남은 자’ 교회들은, 비록 소수였고, 비주류였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기독교역사 속에서 면면히 이어져 왔음을 인식한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20세기 중반기에 그 같은 운동을 펼치는 교회들이 미국과 세계 여러 나라에 있다는 소식과 그 내용을 듣게 되었고, 그들이 이미 발견한 사실들과 결합하여 한국적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들 인물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Churches of Christ)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의 기술에 제한을 두었고, 사도행전의 기술 방식을 따라 시대별 중심인물들과 그들과 함께 한 동료 사역자들과 지역별 중심인물들 이야기로 기술하였다. 이 기술은 또 앞으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를 정립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세계의 큰 줄기들 가운데 두 개(협의회, 총회)를 다룬 것이다. 나머지 한 개는 그리스도의 교회들(교역자회)의 역사이며, 이것은 내부사정을 잘 아는 소속 구성원들에 의해서 다뤄져야 할 과업이다.

본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는 시대별로 제1부 윌리엄 D. 커닝햄 선교사와 한국선교 및 내국인 사역자들, 제2부 존 T. 채이스와 한국인 성서 훈련원, 제3부 해롤드 테일러와 서울성서신학교, 제4부 김은석과 신화신학 성경연구회, 제5부 힐요한과 한국성서신학교, 제6부 김찬영과 한성신학교, 제7부 부산, 경상도, 광주, 그리고 부록: 신약교회의 선구자 성낙소 목사 로 구성되었다. 이 작업에서 특기할 점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역사의 많은 퍼즐조각들이, 비록 여전히 제 자리를 찾지 못한 퍼즐조각들이 남아있지만, 많은 수의 퍼즐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점이고, 비록 여전히 오류가 남아있다고 보지만, 잘못 알려졌거나 잘못 기술된 많은 오류들이 바로 잡혔다는 점이다.

##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

A Story of Korean Christian Churches: Missionary  
William D. Cunningham, His Korea Mission and His  
Native Evangelists

조동호(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 제1부 윌리엄 D. 커닝햄 선교사와 한국선교 및 내국인 사역자들

신약성서기독교(New Testament Christianity), 곧 그리스도의 교회(Disciples of Christ 혹은 Christian Churches) 소속 그리스도인 혹은 사역자가 한국 땅에 발을 디딘 것은 일본에 파송된 선교사들이었던 윌리엄 D.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과 M. B. 매든(Madden)이 처음이었다. 그 때가 1907년이었다. 그들은 중국 상해에서 4월 25일부터 5월 8일까지 열리는 중국개신교 선교일백주년대회(China Centenary Missionary Conference)에 참석차 가는 길이었지만, 그들이 배를 타고 상해로 곧바로 가지 않고 한국을 방문한 것은 한국이 선교사들에게는 기회의 땅, 곧 수확을 기다리는 황금들판으로 알려져 있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그들이 평양에 체류하여 교회들을 방문한 시기는 평양대부흥운동이 최절정에 달했을 때였다. 그들이 한국에서 받았던 첫인상은 충격 그 자체였다.

그 이후로 한국은 커닝햄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행 16:9)는 동양의 마케도니아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비의 부족으로 그 비전을 당장에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기회를 엿보며 기도만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2년 후인 1909년에 간접 선교의 기회가 주어졌다. 일본 동경주재 요츠야선교부(Yotsuya Mission)에서 침례를 받고 성서훈련을 받았던 어떤 한국인이

서울 YMCA에서 총무로 일하고 있는 동안에 몇 명의 한국인 개종자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는데, 이것이 한국에서 이뤄진 최초의 비교파 신약성서기독교 개종자들이었다. 그러나 이 작은 시작도 지속적인 사역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커닝햄의 기도는 16년만인 1923년에 가서야 비로소 응답되었다. 미국 아이오와(Iowa) 주에 거주하는 한 그리스도인이 한국에 선교기지(포교소)를 세울 수 있도록 2천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힘입어 커닝햄은 그해 9월에 선교기지를 세우기 위한 '땅 밟기'를 계획하였으나 불행하게도 9월 1일에 동경과 요코하마 일대에 대지진이 발생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한국에 선교기지를 세우는 일은 지진피해수습이 거의 끝난 이듬해 1924년 3월 말에 가서야 실행에 옮겨질 수 있었다.

이후 커닝햄은 미국에서 안식년을 보낸 1936년 6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한국 땅에 선교기지(포교소)를 세운지 만 12년 동안 내국인 사역자들에 의해서 인천에 3개(송현동, 유동, 금곡동), 서울에 3개(아현동, 용산, 기타), 평북 구성군에 2개(방현면, 오봉면), 평북 정주군에 2개(용포동, 근담동), 평안남도 중화군 동두면 대류리에 1개, 경남 마산에 1개, 총 12개의 교회와 일본 동경에 2개(삼하도, 심천), 횡빈(요코하마)에 1개, 총 3개가 세워지는 과정을 총괄하였다. 이 15개의 교회는 커닝햄이 1901년부터 1935년까지 미국인 선교사들과 일본인 및 한국인 사역자들을 통해서 35년간 세운 총 28개 교회들의 약 54퍼센트에 달하며, 그것도 커닝햄의 총 선교 사역기간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이뤄진 업적이었다. 커닝햄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한국에 12명, 일본에도 조선인교회들과 유치원 및 일요(주일)학교들에 다수의 한국인 사역자들이 요츠야선교부에 고용되어 있었다.

커닝햄은 사망하기 직전까지 35년간 빛 없이 침례 4,800명, 교회 28개(자립교회 14개), 일요학교 66개, 토지매입 12곳, 건물 25동을 세웠다. 커닝햄 사후 부인 에밀리 보이드(Emily

Boyd) 커닝햄이 요츠야선교부를 맡아 관리하였고, 일본과 한국에 새로운 종교법이 시행되어 해외선교가 중단된 1941년 3월까지 17년간 한국에 교회 17(19)개, 선교기지(포교소) 30개, 성경훈련원(Bible Training School, 신학교)을 세워 운영하였고, 한국인 사역자 13명과 다수의 여전도사들을 후원하였다. 교회들은 인천에 4개, 서울에 5개, 평북 구성군에 2(3)개(방현면, 오봉면, 평지동), 평북 정주군에 3(4)개(용포동, 문인동, 약수포, 근담동), 신의주에 1개, 마산에 1개, 대구에 1개가 있었다. 그리고 일본 동경에 2개(삼하도, 심천) 교회와 유치원 및 일요학교들이 있었다. 이와 별도로 한국에는 1936년부터 1940년까지 존 채이스 선교사가 세운 5개의 교회들과 동석기 및 강명석 전도자가 세운 교회들이 추가로 더 있었다.

1941년 4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새로운 종교법으로 인해서 일본과 한국의 교회들은 해외로부터 후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그해 말에 터진 태평양전쟁으로 인해서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일본에서도 선교사들이 모두 본국으로 철수하여 1947년에 이르기까지 최소 5년간 모든 선교부가 폐쇄되고 후원이 중단되어 미자립교회들이 문을 닫거나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동방요배와 신사참배 및 ‘일본기독교조선교단’에로의 통합에 반대했던 한국의 기독교회(그리스도의 교회)들의 목회자 상당수가 경찰서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거나 투옥되었다. 요츠야선교부의 포교책임자였던 이인범 목사도 모진 매를 맞았다<1940년 9월호>.

요츠야선교부의 월간지, <도쿄 그리스도인>(Tokyo Christian)에서 한국선교를 중단한 1941년 이후 한국교회들에 관한 기사는 일체 없었다. 선교부가 본국으로 철수한 5년간의 공백은 너무 컸고, 세계대전 중이어서 생존 자체가 힘겹던 시절이었다. 1940년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유무약기 통틀어 30여개 미만이었고, 이 가운데 자립이 가능했던 교회는 평북 구성군의 방현교회와 인천의 송현교회 정도였다. 이뿐 아니라, 이들 교회들은 일본기독교조선교단에 가입하는 것과 신사참배

를 꺼려하여 대부분 흩어지거나 지하로 숨어버렸다. 그리고 해방 후까지 생존했거나 복원된 교회는 신신근 목사의 인천송현기독교교회, 이난기 목사의 용산교회, 윤낙영 목사의 아현동교회 정도였다. 평안북도에 세워진 교회들에 대한 소식은 <도쿄 그리스도인>지에 전혀 언급이 없는데다가 남북분단으로 인해서 생사를 알 길이 없다. 인천유동교회와 금곡동교회는 일제의 탄압을 견기지 못하고 인천송현기독교교회와 통합하였고, 담임목사 신신근이 소친한지 8일 만인 1946년 12월 10일에 기독교대한성결교회로 재건되었다. 인천송현기독교교회가 성결교회가 된 데에는 이인범과 이원균을 비롯해서 김상준, 신신근, 박영선, 주정국, 윤낙영 등 요츠야선교부의 대부분의 한국인 사역자들이 성결교회 출신들이었고, 요츠야선교부는 한국에 재산을 소유하지 않았으며, 1941년 3월말 이후 한국선교를 중단하였을 뿐 아니라, 채이스 선교사 측의 사람들과 교제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커닝햄이 한국인 여호수아와 알렉산더 캠벨로 불렀던 조선기독교교회 포교책임자 이인범 부흥 목사마저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수하겠다고 맹세한 약속을 저버리고 장로교회로 넘어갔기 때문이었다. 성결교단으로부터 제명당한 후에 기독교교회(그리스도의 교회)의 사역자로서 젊음을 바쳤던 이인범 목사의 1941년 이후의 흔적은 금산제일교회 연역에 나타난 것이 전부이다. 그는 1949년 1월 3일 금산제일교회에 부임하였고, 1951년에 금산에서 별세하였다. 성낙소 목사는 그가 소친한 곳이 전북 여산이라고 자신의 자서전에 적었다. 역시 커닝햄이 한국인 갈렙과 발톤 스톤으로 불렀던 평안북도에 5개 교회를 세웠던 이원균 목사는 1941년경 동경 삼하도조선기독교교회를 사임하고 귀국하여 장로교단에 있다가 1955년에 침례교단으로 옮겨 마지막 열정을 불태웠고, 1969년 12월 6일 향년 82세로 소친하였다.

커닝햄의 요츠야선교부에 소속되었던 사역자들 가운데 채이스 선교사와 다시 손을 잡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남은 목사들은 김문화, 성낙소, 이난기(용산교회), 윤낙영(아현동교회)이며, 여기



에 테일러 선교사가 1956년경에 건축비를 지원했던 대구교회가 포함될 수 있을지는 추정만 가능할 뿐이다. 요츠야선교부의 한국교회들이 살아남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가난 때문이었다. 그나마 소수의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채이스 선교사와 다시 손을 잡았던 것도 선교후원과 결부되어 있다. 신념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배고픔일 것이다.

한편 요츠야선교부의 일본교회의 사역자들은 한국교회의 사역자들과는 달리 3명(제1, 4, 5교회의 목회자들)을 빼 나머지 6명 즉 일본인 사역자 4명과 조선인교회 사역자 이원균(삼하도조선교회)과 이성영(심천조선교회)이 일본기독교단예의 가입을 다수결로 밀어붙였다. 그러나 이들 교회들은 모두 전쟁 중에 피폭당하여 파괴되었고 교인들은 흩어지고 말았다. 피폭을 면하였을 뿐 아니라 끝까지 생존한 교회는 오히려 통합교단에 가입을 거부한 제4교회 한 곳뿐이었다. 담임목사 신한유는 징집당하여 종전 때까지 6년간 중국에서 복무하였고[John T. Chase, "Open Doors in Japan and Korea," *Christian Standard*, 15 February 1947, p. 105], 사모는 일본기독교단에 가입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교단에 가입한 목회자들로부터 탄압을 받았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교회를 지켜냄으로써 1947년에 선교사들이 재입국하였을 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교회가 되었다. 이후 기존의 교회들이 재건된 곳은 제5교회와 삼하도조선기독교회 뿐이었다. 이 무렵 한국인들은 귀국했거나 흩어짐으로써 남아 있던 성도는 테니스화를 만드는 한국인 공장주 이식주 가족뿐이었다. 이식주가 예배장소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예배당 재건에 헌신하였고, 자신의 공장 사무실 2층 방 5개짜리 아파트에 젊은 선교사 부부 해롤드와 로이스 심즈(Harold and Lois Sims)를 거주토록 하였다. 해롤드 심즈는 한국인 목회자가 초빙될 때까지 이곳 조선인교회에서 통역을 두고 설교하였다.

전후에 요츠야선교부는 재산을 모두 회수하였으나 일부 허락 없이 팔려버린 재산들이 있었고, 오구교회를 담임하다가 병든 아들을 위해서 시골지역으로 옮긴 다나카 목사가 불에 타버린

오구교회를 복원하거나 다른 목적에 쓰라며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은 3,000엔과 자신의 돈 2,000엔을 보태서 5,000엔을 선교부에 돌려주었다.

이 글의 목적은 이상과 같은 윌리엄 D. 커닝햄과 그의 요츠야선교부의 한국인 선교사역에 대해서 기술하려데 있다. 먼저 ‘윌리엄 D.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과 한국인 선교’를 다룬 후에 ‘일본에서의 한국인 선교사역 및 내국인 사역자들’ 그리고 ‘한국에서의 선교사역 및 내국인 사역자들’을 차례로 다루고자 한다. 커닝햄 선교사와 관련된 이 글은 모두 월간 <도쿄 그리스도인>(Tokyo Christian)을 참고한 것이다. 따라서 <>안의 년 월호는 모두 <도쿄 그리스도인>의 발행연월임을 밝혀둔다.

요츠야선교부(Yotsuya Mission)의 <도쿄 그리스도인>(Tokyo Christian)에 실린 한국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말로 옮김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지명과 인명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 작업이 힘들었던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강점기에는 한국의 지명들이 일본어로 많이 불렸다. 지명에 대한 한자표기를 일본어로 발음하였기 때문이다. 예: Jinsen(인천), Hoken(방현), Nando(남동), Yanagicho(유동), Keijo(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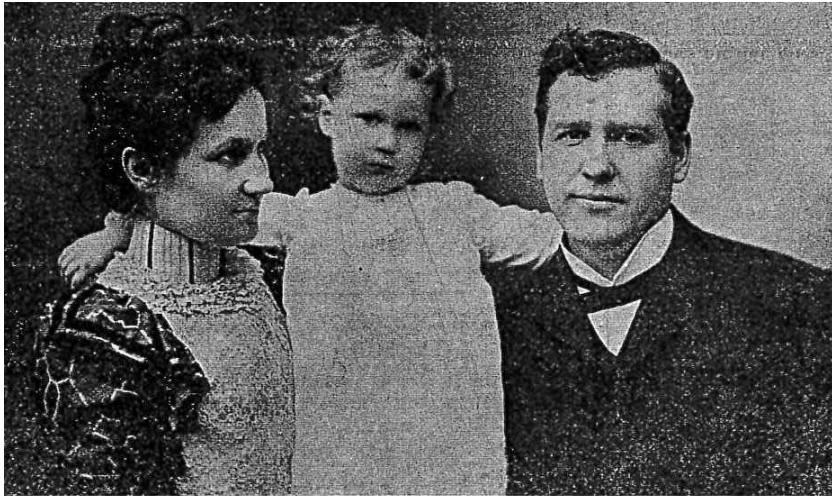
둘째, 일본말을 하는 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어 발음과 일본어 발음을 혼용하였고, 자신들의 서투른 발음을 영어로 표기하였기 때문이다. 예: Shin Shin Gun(신신근), Ho Cheh(채호), Won Kyun Lee(이원균).

셋째, 선교사들로서는 많은 수의 한국의 지명과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거나 발음하기가 쉽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의 이름은 대부분 머리글자(initial)를 썼고, 지명들은 도시명이나 군면읍(郡面邑)까지만 적음으로써 정확한 이름과 읍,면,동,리를 알아내기가 힘들었다. 머리글자의 예: M. W. Kim(김문화), S. S. Chung(정삼선). 지명의 예: 구성교회(평북 구성군 방현면 교회), 난도교회(경기도 부천시 남동면 교회), ‘난도’는 일본말로

‘남동’이란 뜻), 제물포교회(인천시 송현동 교회), 서울교회(구, 동명이 전혀 없음).

넷째, 선교사들은 본토의 후원자들에게 선교지에 세워진 구체적 지역과 교회명칭들을 알려주기보다는 숫자로 알려주는 방법을 택하였다. 예: 동경 제1교회, 서울 제1교회, 인천 제1교회.

이러 이유들 때문에 필자는 정확한 지명과 교회명칭 등을 파악하여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기우렸지만 모두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우측부터 윌리엄, 멜로이즈, 에밀리 보이트 커닝햄

## 1. 윌리엄 D.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과 한국인 선교

### 1) 윌리엄 D. 커닝햄과 요츠야선교부(Yotsuya Mission)

윌리엄 D.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은 1864년 7월 19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티론 타운십(Tyrone Township)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1881년 사범학교에 입학하여 임시교



사 자격증을 얻어 교사로 일하였고, 1884년 12월 7일에 침례를 받았다. 1887년 사범학교 졸업 후 교사로 일하였다.

커닝햄은 1891년 9월 21일 알렉산더 캠벨이 세운 베다니대학(Bethany College) 2학년에 편입하여 신학을 마쳤고, 1894년 7월 29일 캐나다 온타리오 주 세인트 토마스(St. Thomas)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였다.

<도쿄 그리스도인>(Tokyo Christian) 1930년 9월호와 1936년 10월호를 종합해 볼 때, 커닝햄은 베다니대학에 재학 중이던 1893년 여름에 펜실베이니아 주 코넬스빌(Connellsville)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학생설교가로 섬기고 있었고, 에밀리 보이드(Emily Boyd)는 그 교회의 청년이었다. 그 무렵 에밀리 보이드는 선교사가 되려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커닝햄이 그 교회 마지막 설교에서 자신은 선교사가 되고 싶다면 함께 할 배후자를 구한다고 했고, 에밀리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 1898년 6월 2일 결혼식을 올렸으며, 그해 9월 4일에 첫 딸 엘로이즈(Eloise)가 태어났다.

커닝햄 부부는 신행여행 기간에 해외 그리스도인 선교회(Foreig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 1875년 창립)에 지원하여 합격한 후 일본 선교를 제안 받고 준비하였으나 커닝햄의 몸에 갑자기 이상이 생겨 결과적으로 선교사 불가판정을 받게 되었다. 이후 커닝햄 부부는 총 4년에 걸쳐 네 차례나 지원하였으나 동일한 이유, 곧 건강상의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부부는 포기하지 않고, 단 1달러의 후원약정도 받지 못한 채로 독립선교사로서 일본에 가기로 결심하였고 작은 인쇄기를 마련하여 1901년 9월 12일 차이나(China)호를 타고 샌프란시스코 항을 출발하여 1901년 10월 1일 일본 요코하마 항에 도착하였다.

<도쿄 그리스도인> 1905년 11월호와 1917년 11월호를 중

합해 볼 때, 커닝햄 부부는 동경에 도착하자마자 생계와 선교를 목적으로 영어를 가르쳤고, 귀족대학에 영어강사로 채용되어 생계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 사이에 그들은 주택과 예배당을 건축하였고, 일본어도 배웠다. 본국에서 후원이 이뤄지면서부터는 영어강사직을 그만두고 선교사역에 전념하였다.

동경에 도착한지 한 달 만인 1901년 11월 1일 커닝햄은 “빛을 보내고(send the light), 진리를 외치며(sound out the truth), 그리스도를 드높이기(uptlift the Christ)” 위한 목적으로 월간 <도쿄 그리스도인>의 제1호를 발행하였다. 1902년에는 선임 선교사들로부터 선교부를 인수받아 요츠야선교부(Yotsuya Mission)를 설립하였다. 선교부는 동경중심부에 가까운 언덕 위에 있었고, 나중에 길 건너편에 일왕의 궁전이 세워졌다.

커닝햄은 <도쿄 그리스도인>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심지어



윌리엄 D. 커닝햄이 제작하여 배포한 1936년도 달력  
커닝햄은 이 달력을 배포한 해에 미국에서 소천하였다.  
천안 독립기념관 소장자문실에서 이 달력을 볼 수 있다.

생애 마지막 해이자, 자신이 직접 제작하여 배포한 일본선교 35주년 기념 1936년 달력에서 조차, 해외그리스도인선교회에 제출한 선교사파송신청서가 4년에 걸쳐 네 차례나 연속으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거부된 사실과 자신이 건강상의 아무 문제없이 35년째 일본에서 선교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해외 그리스도인선교회 또는 연합 그리스도인선교회

(United Christian  
Missionary Society)

1919)를 우회적으로 비판하였다.

커닝햄이 일본에 선교사로 건너간 1901년은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가 공식적으로 분열되기 이전이었다. 그리스도의 교회(Churches of Christ, 아카펠라)가 그리스도의 제자들(Disciples of Christ)에서 갈라선 것은 그로부터 5년 후인 1906년이었고,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Churches of Christ)이 그리스도의 제자들(Disciples of Christ)에서 하나 둘씩 탈퇴하여 독립교회로 갈라지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과반세기가 지난 1920년대 이후부터였다.

어쩌면 커닝햄은 에큐메니컬 성향을 보인 해외그리스도인선교회가 보수성향의 자신의 일본파송을 꺼려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1920년대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열린 구성원제와 중앙집권제의 폐해에 실망하여 탈퇴한 독립교회들, 곧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몽치기 시작하면서 직접후원선교(Direct-Support Missions)의 생계비전담후원(Living Link) 방식이 대안으로 부각되었고, 커닝햄의 요츠야선교부는 이들로부터 직접후원방식의 생계비전담후원을 받기 시작하였다. 요츠야선교부 산하의 60-70여명에 이르는 일본인과 한국인 사역자들이 받았던 사례비가 바로 이 직접후원방식의 생계비전담후원방식이었다.

커닝햄의 요츠야선교부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침례와 주의 만찬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였다.

둘째, 60-70여명에 이르는 내국인 사역자들을 고용하여 그들에게 연봉 100-600달러를 지불하였다. 이들에게 지불할 비용은 특정인의 생계비후원을 전담해줄 후원교회나 개인후원자를 대부분 미국에서 모집하였으나 요츠야선교부 산하의 교회들도 참여시켰다.

셋째, 내국인 사역자들에게 임대건물에서 선교기지(포교소)를

세우게 하여 일요(주일)학교(Bible schools), 야간학교(night schools), 유치원, 영어성경강좌 등을 열게 하였고, 선교기지가 발전되면 교회로 승격시켰다.

넷째, 요츠야선교부는 커닝햄의 사망 전까지 신학교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사역자들은 대부분 타 교단출신들이었다. 요츠야선교부는 정기적인 주례회와 월례회를 통해서 사역자들에게 신약성서기독교를 교육하였다.

다섯째, 요츠야선교부가 신학교운영을 시작한 것은 커닝햄이 소천한지 수년이 지난 다음 해부터였다. 서울성경훈련원(Bible Training School)이 헛치 선교사와 이인범 목사에 의해서 1938년에 시작되었고, 동경선교성서대학(Tokyo Mission Bible College)은 선교사들이 복귀한 다음 해인 1948년에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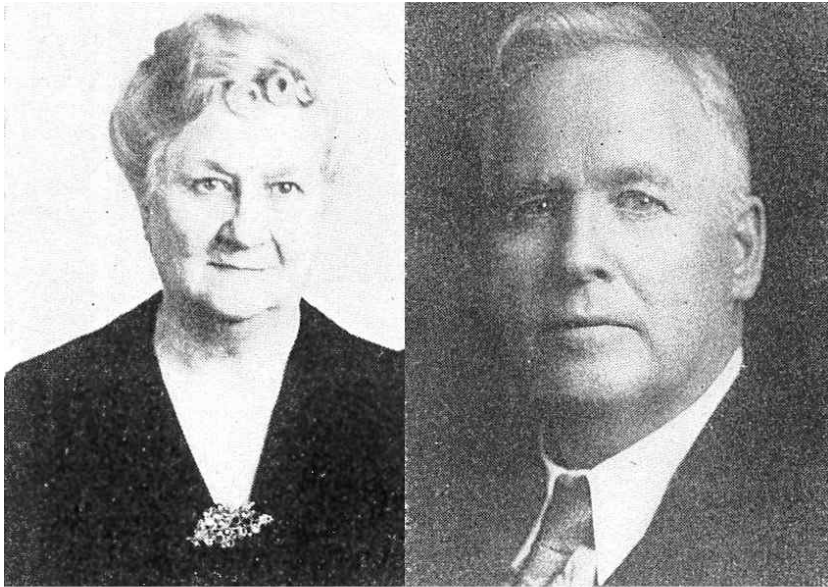
요츠야선교부 선교사들

앞줄 좌측부터 슈노버(Ruth Schoonover), 커닝햄(W. D. Cunningham) 부부, 페안함(Farnham) 뒷줄 좌측부터 존 채이스(John T. Chase) 부부, 레몬(Vivian Lemmon),

여섯째, 커닝햄은 선교부에 빛이 생기지 않도록 재정을 철저히 관리하였다. 커닝햄은 1920년대 말부터 시작되어 30년대 내내 불어 닥친 경제대공황 때문에 후원금이 지속적으로 줄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내지 않았고, 그 대신에 급여와 사역 규모를 대폭 줄였다. 이 충격파로 1934년 말에 존 채이스 가족을 비롯한 대부분의 미혼여성 선교사들이 요츠야선교부에 등을 돌리는 사태가 빚어졌다.

요츠야선교부는 선교사들이 6개월에 한 번 정도 한국의 교회들을 순회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도쿄 그리스도인> 1935년 6월호에 따르면, 커닝햄 자신은 1935년 4월에 네 번째 한국을 순회 방문한다고 하였고, 1936년 3월에도 히치 선교사와 함께 한국을 찾았으며, 이 한국방문을 마치자마자 6개월 정도 안식년을 갖기 위해서 4월 24일 동경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였다. 이날 동경 역에는 100여명이 나와 환송하였고, 그 가운데 60여명이 요코하마 항까지 기차를 타고 가서 환송하였다. 아마 아무도 이것이 그와의 마지막 작별이 될 줄을 몰랐을 것이다. 그로부터 꼭 3개월만인 1936년 6월 24일 커닝햄은 미국에서 암으로 사망하였다.



에밀리 보이드와 윌리엄 커닝햄 선교사 부부

커닝햄 부부는 미국에 도착하여 5월 14일부터 선교여행을 시



작하였다. 캘리포니아 주 임페리얼(Imperial) 카운티와 애리조나 주 피닉스(Phoenix)를 거쳐 콜로라도 주 포트콜린스(Fort Collins)에서 몸의 이상을 느꼈고, 의사의 조언을 받아드려 선교 여행을 중단하였으며, 5월 22일 미네소타 주 로체스터(Rochester)에 도착하였다. 5월 23일 암이 번져 수술할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왔고, 엑스레이 치료를 11차례 받았지만 몸 상태가 더 나빠져 오랜 기간 쉬었다가 한 차례 더 엑스레이 치료를 받았으나 소용이 없자 6월 22일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결국 커닝햄은 6월 24일 저녁 8시 45분, 향년 72세로 일본을 떠온 지 꼭 두 달 만에 로체스터에서 소천하였다. 시신은 펜실베이니아 주 코넬스빌(Connellsville) 그리스도의 교회로 옮겨져 장례가 치러졌다. 윌리엄 D. 커닝햄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몸 바쳤던 모든 지역, 곧 일본에서 한국, 다시 한국에서 일본, 일본에서 미 서부, 미 서부에서 동부까지 마지막 순회를 온전히 다 마치고 그가 처음 선교의 꿈을 품고 사랑하는 아내 에밀리 보이드와 함께 일본을 향해 출발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영면하였다.

## 2) 한국인 선교

윌리엄 커닝햄 선교사가 처음 한국선교에 관심을 갖게 된 때는 1907년이였다. 동년에 중국 상해에서 4월 25일부터 5월 8일까지 ‘중국 개신교 선교 일백 주년 대회’(China Centenary Missionary Conference)가 열렸다. <도쿄 그리스도인> 1924년 6월호에 따르면, 커닝햄은 오사카의 M. B. 매든(Madden)과 함께 이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상해로 가던 길에 평양에서 한 집회에 참석하였다. 그들은 그곳에 모인 1,200명이 일제히 그러나 일사분란하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1907년은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평양대부흥운동이 있었던 해였다. 1907년 1월 장대현교회에서 시작된 평양대부흥운동은 1907년 1월부터 6월까지 절정에 달하였다.

커닝햄과 매든이 바로 그 평양대부흥운동의 폭풍의 핵을 목격하였던 것이다.

이후, <도쿄 그리스도인> 1917년 11월호와 1927년 7월호에 따르면, 일본 동경의 요츠야선교부는 1909년에 처음으로 서울에서 간접사역을 하였다. 요츠야선교부에서 침례를 받고 훈련을 받았던 어떤 한국인이 서울 YMCA 총무로 일하고 있으면서 몇 사람의 개종자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는데, 이것이 한국에서 이뤄진 최초의 비교파 신약성서기독교 개종자들이었다. 특히 <도쿄 그리스도인> 1917년 11월호에서는 이 작은 시작이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수확을 기다리는 세계 최고의 황금들판인 한국선교를 위해서 매년 1,000달러의 후원이 필요하다고 홍보하였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열린 것은 1923년이였다<1923년 9-10월호>.

첫째, 아이오와(Iowa) 주에 거주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한국에 선교기지를 세울 수 있도록 2,000달러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커닝햄은 이 돈으로 우선 동경 제3교회에 출석하는 두 명의 한국인을 한국에 보내 임대건물에 선교기지를 세울 것이고, 9월말에 땅 밟기를 위해서(to spy out the land) 한국에 다녀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 한국에 파송할 선교사들의 생계비전담(Living Link)후원을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동경에 거주하거나 학업 중인 한국인들 가운데 일본인 기독교회(그리스도의 교회)에 출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러 있었다.

셋째, 동년 9월 1일에 관동지역에 대지진이 발생하여 동경의 3분의 2가 파괴되었고, 9,700구 시신이 수습되었으며, 410,000채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고, 150만 명이 집을 잃었으며, 51채의 교회건물과 다수의 선교가옥들이 소실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다행히도 요츠야선교부에서는 인명피해나 가옥피해가 없었다. 다만 부상자들이 다수 있었고, 소속 건물 12채가 피해를 입었으며, 요츠야선교부와 유치원 건물들은 임시 대피소로 사용되었다. 이로 인해서 세 개의 서점들에서 판매하

던 책들이 모두 분실되는 피해를 입었다<1923년 9-10월호>. 참고로 이 재난이 있고난 직후 일주일간 한국인 6,661명이 일본인들에게 피살되는 끔찍한 범행이 이뤄졌다.

넷째, 한국선교를 위한 목적으로 600달러가 입금되었다 <1924년 3월호>.

그러나 1923년 9월말에 계획됐던 커닝햄의 한국방문이 실제로 이뤄진 것은 1924년 3월이었다. 대지진의 피해로 인해서 요츠야선교부와 운영되고 있던 유치원들이 모두 임시대피소로 사용되었고, 피해내용 파악과 복구가 그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급무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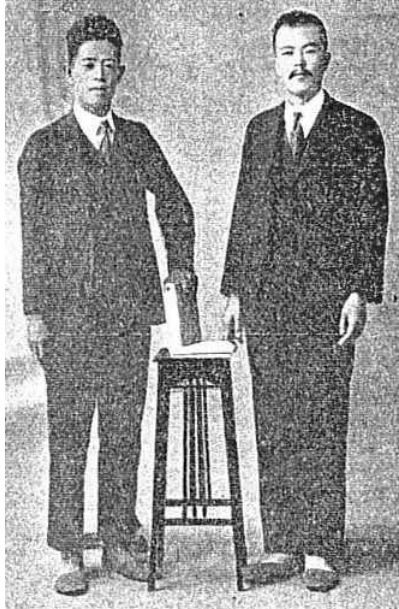
이원균 전도자  
커닝햄 선교사가 한국의 발돋움  
또는 한국의 갈렙으로 치켜세웠던 인물

커닝햄 부부는 1924년 3월 25일 일본을 떠나 한국에서 수일간 머물며 직접 선교기지(포교소)를 세우기 위한 장소를 물색하며 예비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일을 위해서 박제곤이 커닝햄 부부보다 일주일전에 서울에 들어와 필요한 일들을 처리하였다<1924년 6월호>. 요츠야선교부는 1924년 5월에 동경 제1교회에 다니는 박제곤을 한국에 보내 선교기지를 개척하도록 하였다<1927년 7월호>. 그러나 박제곤은 복음사역을 반대한 부친

의 반대로 사역을 중단하였고, 그를 대신해서 이원균이 10월에 파송되었는데, 그는 1927년까지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사역하였다. 이원균이 신학교 입학 을 위해서 사임함으로써 1927년 중반부터는 김광춘이 이어받아 사역하였고, 동경 삼하도조선기독교회 박흥순 목사가 그의 뒤를 이어받았다. 박흥순 목사는 1929년 3월 36일 귀국하여 4월부터 조선기독교회 포교책임자로 섬겼고, 서울에 선교기지(포교소)가 출범한 지 6년만인 1930년 4월 27일 드디어 최초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조직되었으며, 이

시기에 이성록이 추가로 서울에 투입되었다. 이 무렵 서울 제1교회 말고도 6개의 선교기지들이 더 운영되고 있었다<1930년 6월호>.

한편 재일본 한국인 선교사역도 한국에서의 사역과 거의 동시에 시작되었다. <도쿄 그리스도인> 1927년 1월호에 따르면, 1924년 학생 박경순이 동경 일 본인 제5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조선인 일요학교를 시작해 보라는 권유를 받게 되었다. 박경순은 혼조와 미가와지마(삼하도) 두 곳에서 일요(주일)학교(Bible schools)를 시작하였다. 요츠야선교부가 집회소를 임대하여 주고 침례탕도 마련해 주었다. 삼하도선교기지의 개종자가



박경순 전도자(좌)와 박흥순 목사 형제(1926년)

45명 정도에 이르자 요츠야선교부는 1926년 8월에 정식으로 삼하도조선기독교교회로 승격시켜 주었다. 그리고 두 곳의 일요학교들과 두 곳의 야간학교들도 개교하였다. 삼하도조선기독교회는, 요츠야선교부의 주장에 따르면, 동경에 세워진 자기 건물을 가진 최초의 조선인교회였다. 곧이어 요코하마(횡빈)와 심천에도 선교기지들이 세워졌고, 이후 교회들로 승격되었다.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횡빈조선기독교회는 유재헌 목사 때 폐쇄된 것으로 추정되고, 기존의 동경 삼하도교회와 심천교회 이외에 채호 전도자가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남은 두 개 교회들 가운데 전후에 재건된 것은 삼하도조선기독교회 뿐이다. 오늘날 이 교회는 초교파로서 '동경복음교회'란 이름으로 남아있다.

## 2. 일본에서의 한국인 선교사역 및 내국인 사역자들

### 1) 삼하도조선기독교교회와 사역자들



박경순 변현자 부부가 사역했던 동경 혼조 및 미가와지마 주일학교 피크닉(1925-26년경 우에노공원)

<도쿄 그리스도인> 1934년 4월호에 따르면, 박경순은 1924년에 한국에서 동경으로 건너왔고, 그해 학생 박경순이 동경 일본인 제5교회에 출석하게 하였으며, 조선인을 대상으로 일요(주일)학교(Bible school)를 시작해 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이에 박경순은 부인 변현자와 함께 혼조와 미가와지마(삼하도) 두 곳에서 일요학교를 시작하였다<1927년 1월호>. 학생이었던 박경순은 학비와 숙식비를 벌기 위해서 틈틈이 외국인들에게 한국산 유기를 판매하며 주일학교를 운영하였다<1925년 10월호>.

요츠야선교부는 박경순 부부에게 집회소를 임대하여 주고 침례당도 마련해 주었다. 자기 건물을 갖기까지는 천막에서 일요학교를 열었다. 삼하도선교기지의 개종자가 45명 정도에 이르자 요츠야선교부는 1926년 8월에 정식으로 삼하도조선기독교교회로 승격시켰다. 동시에 요츠야선교부는 미국 신시내티성서신학교(Cincinnati Bible Seminary)로 유학을 떠나는 박경순 대신에 그의 친형인 박홍순 목사를 담임으로 초빙하였고<1926년

11월호>, 예배당, 사택, 유치원을 짓기 위해 토지매입을 협상하였다. 삼하도조선기독교회는 1927년 6월 26일 예배당 헌당 예배를 드렸다. 사택과 유치원 건물은 아직 미완상태였다. 이 무렵 요츠야선교부는 이 교회 말고도 조선인 선교기지를 5곳 더 운영하고 있었다<1927년 8월호>.



1924년에 시작된 동경 삼하도 조선인 일보학교(천막집회소, 1926년)

이 사진은 결혼식 사진으로서 앞줄 중앙이 신랑 연정취, 신부 전정숙이다. 가운데 줄 네 번째(신랑과 신부 사이)가 박경순의 형 박홍순 담임목사이며, 뒷줄 좌측에서 두 번째가 미국 신시내티 성서신학원에 유학을 준비 중이던 개척자 박경순이다. 요츠야선교부가 세운 최초의 조선인교회로서, 선교부는 이 무렵 예배당과 사택 및 유치원을 짓기 위해 협상 중에 있었다.

박경순의 형 박홍순은 장로교회 목사로서 1926년 여름에 동경으로 왔다. 12년 전 즉 1914년에 박경순은 형 박홍순 목사로부터 약식세례를 받았으나 1926년에는 거꾸로 형 박홍순 목사가 동생 박경순으로부터 침수세례를 받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동생의 뒤를 이어 삼하도조선기독교회의 담임자가 되었다.

1926년경 동경에는 7만여 명 정도의 한국인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최소 2만여 명이 학생들이었다. 동경의 항구도시 횡빈(요코하마)에도 7천여 명의 한국인들이 살고 있었다.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매우 가난하여 위로와 도움이 절실하였으나 그들을 위한 교회나 학교가 없었던 때였다. 그들을 위로하고 섬

긴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요츠야선교부가 운영하는 교회와  
 일요학교들과 야간학교들이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이들  
 교회들은 재일본 동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특별행사를 마  
 려하고 음식과 의류와 돈을 나눠주었다. 그러나 1926년 크리스  
 마스 행사는 일왕의 사망으로 인해서 애도분위기였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이 취소되었으나 동경 한인사회에 대한 몇 가지  
 기증은 여전히 이뤄졌다. 미국성서공회(ABS)가 5백 권의 한국  
 어 성경책과 1천권의 한국어 복음서들을 기증하였고, 한 유제품  
 회사가 120벌의 내복과 양말을 기증하였다. 성공회여학교에서  
 1백 엔의 현금기증도 있었다. 횡빈에서도 크리스마스 때 이주익  
 전도자가 이 지역의 사업가들에게 한국인들을 돕도록 호소하고  
 다녔다.

<도쿄 그리스도인> 1927년 9월호에 따르면, 박경순은  
 1927년 7월 8일에 신시내티에 도착하였다. 동년에 감리교회  
 소속의 동석기 목사도 미국에 건너갔고, 신시내티성서신학교에  
 서 최소 1년 이상 체류하며 1929년에 석사논문(The Early  
 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을 쓰고 졸업하였기 때문에 박경순은 동석기 목사와 함  
 께 수업을 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신시내티성서신학  
 교에는 유명한 보수주의 교수들이 가르치고 있었다. 랄프 레코  
 즈(Ralph Records), 루퍼트 포스터(Rupert C. Foster, 조동호  
 목사의 은사 Dr. Lewis Foster의 부친), 제임스 드포레스트 머  
 치(James DeForest Murch)가 있었다. 머치는 박경순을 똑똑  
 한 학생이라며 커닝햄에게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도쿄 그리스도인> 1934년 4월호에 따르면, 박경순은 미국  
 에서 신시내티성서신학교(Cincinnati Bible Seminary), 보스턴  
 의 매사추세츠 기술학교(Mass. School of Technology), 애틀  
 랜타의 조지아 기술학교(Georgia School of Technology)를  
 수학하고 1934년 2월에 일본으로 돌아와 삼하도조선기독교회  
 에서 사역하였다.

1927년 박경순, 변현자 부부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기 때문

에 선교기지를 사임할 무렵에 선교기지를 섬기고 있던 소재근 양도 사임하였다. 이 때문에 이인범 목사는 박경순의 동창생 이동하와 함께 1927년 8-9월경부터 삼하도조선기독교회 선교기지에 투입되었다가 1929년 11월부터 선교기지에서 교회로 승격된 심천조선기독교회의 담임목회자로 옮겨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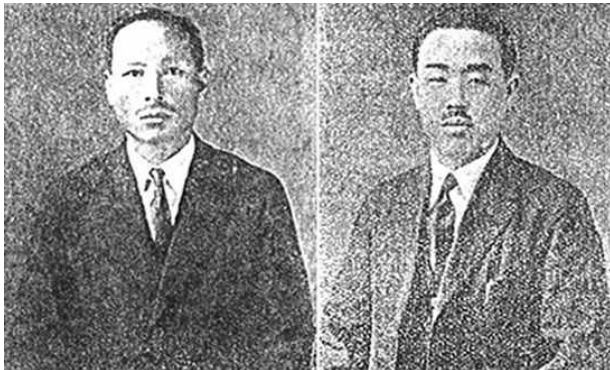
좌측부터 심천기독교회 이인범, 존 T. 채이스, 삼하도기독교회 유지풍, 윌리엄 D. 케닝햄(1930년초)

<도쿄 그리스도인> 1929년 11월호에 따르면, 삼하도조선기독교회의 박홍순 목사가 서울 선교기지를 책임 맡아 3월 26일 서울로 옮겨감에 따라 그의 뒤를 이어 서울에서 유지풍 목사가 초청을 받아 4월 10일 일본에 도착하였다. <도쿄 그리스도인> 1931년 1월호에 따르면, 유지풍의 뒤를 이어서 성결교회 목사이자 1930년 봄에 성

결교단을 떠난 박영선이 초청을 받아 1931년 1월부터 4월까지 담임하였으나 가족상황으로 인해서 한국으로 돌아가 박홍순을 도왔다<1931년 6월호>. 이 때문에 황빈조선기독교회의 선교기지에서 일하고 있다가 박홍순 목사가 서울로 옮겨갈 때 삼하도조선기독교회의 선교기지로 옮겨졌던 유재현이 임시로 두 달간 사역하였고, 그를 이어 성결교회 창립멤버였던 김상준 목사가 1931년 7월 5일에 담임을 맡았다. 이후 유재현 목사는 성낙소 목사가 사임한 황빈기독교회를 1931년 11월 8일부터 담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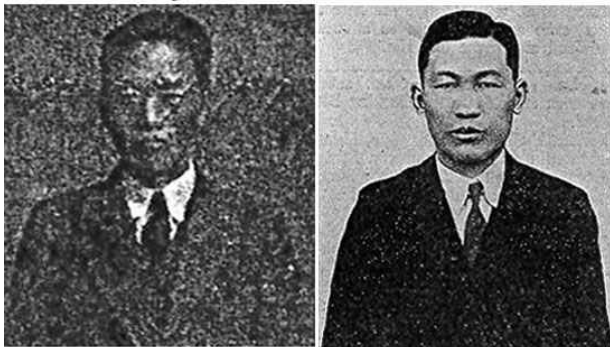
이 C. H. 목사가 김상준에 이어 삼하도조선기독교회에 1933년 4월 2일에 부임하였고<1933년 5월호>, 박경순이 1934년 2월에 미국에서 돌아와 삼하도조선기독교회를 섬겼으며<1934년 4월호>, 신 Y. C.가 담임으로 와서 김 M. 양과 1월 18일 결혼하였다<1935년 2,3월호>. 그를 이어 진(Chin) 목사가 1936년 4월부터 담임을 맡았고, 1937년 초부터는 평북 방현기독교회의 이원균 목사가 부임하였다. 이원균 목사가 동경 삼하도조선기독교회로 온 것은 성장한 자녀교육 때문이었으며, 선교부가 그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었다<1937년 1월호>. 대신 평북 방현기독교회에는 48세의 김성산 목사가 1937년 4월에 부임하였다. 이원균 목사가 추천하고 이인범 목사가 추천함으로써



박경순 목사(1930년말)  
1931년 1월부터 4월까지 동경 삼하도조선기독교회를 담임하였다.

이 C. H. 목사  
1933년 4월 2일 김상준 목사에게 이어 삼하도조선기독교회에 부임하였다.

이 뒤 겠 으 나 <1937년 6월호>. 김성산 목사가 방현교회에서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하자 <1937년 12월호> 주정국 목사가 대신 담임을 맡았다 <1938년 4월호>.



신 Y. C. 목사  
이 C. H. 목사에게 이어 삼하도조선기독교회를 담임하였다.

이원균 목사  
1937년에 삼하도조선기독교회에 부임하여 1941년경까지 담임하였다.

이원균 목사가 삼하도조선기독교회에 언제까지 남아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1940년 4월 25일 전체 모임에 참석해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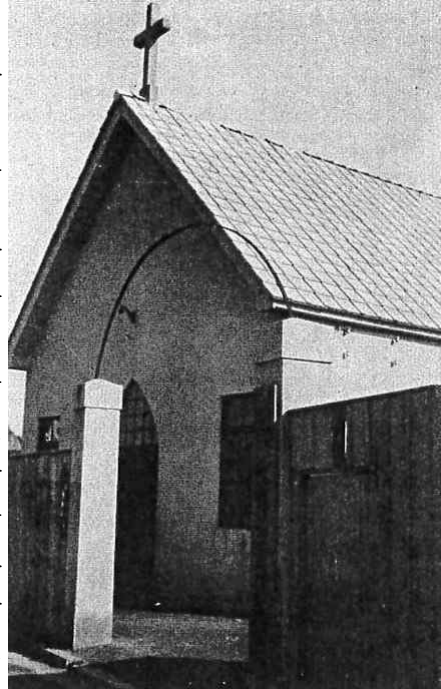


오다 나라찌 목사 조선선교15주년기념(1944년, 삼하도조선기독교회)

도 찍었고,  
<도쿄 그리스도인>  
1940년 8월  
호에 부흥회  
개최소식도  
실렸다. 그리  
고 그는 심천  
조선기독교회  
의 이성영 목  
사와 함께 일

본기독교단에 가입하는 문제로 개최된 1941년 1월 21일 회합  
에도 참여하였고, 선교사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입하  
자는 편에 서서 다수결로 밀어붙이기까지 하였다. 그는 아마

1941년 4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된 새로운 종교법에 따라  
선교부의 급여지급이 중단되  
자 교회를 사임하고 조국으로  
돌아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후 일본인 목사 오다(Oda, 한  
국명 전영복)가 1941년 일본  
신학교(현 동경신학교)를 졸업  
하고 삼하도조선기독교회를  
1946년 4월까지 담임하고 있  
다가 사임하고 한국으로 돌아  
갔다가 이후 교토한인교회를  
담임하였다. 오다는 일본인으  
로서 한국인에게 사죄하는 마  
음으로 한국인 교회를 섬긴  
것으로 유명세를 탄 목사였다.



동경 삼하도조선기독교회(1949년)

제2차 세계대전 때 파괴된 후에 재건된 모습

1947년 선교사들이 돌아왔

을 때 예배당은 전쟁 중에 폭격을 받아 파괴되고 없었고, 해방 후 한국인들이 조국으로 돌아갔거나 흩어져 남아 있는 교인은 테니스운동화를 제조하는 한국인 이식주 공장주와 가족뿐이었다. 그의 사무실 2층에 방 5개짜리 주택이 있었는데, 이곳에 젊은 해롤드 심즈(Harold and Lois Sims) 가족이 세 들어 살았다. 삼하도조선기독교회는 그의 집에서 다시 모이기 시작하였으며, <도쿄 그리스도인> 1949년 1-2월호에 따르면, 이종근 전



동경 삼하도조선기독교회(1947년)

1947년 재건 당시 교인들이 조국으로 돌아갔거나 흩어져 이식주 사장 가족만 남아 있었고, 목적으로 파괴된 예배당을 복원할 때까지 그의 테니스화 공장에서 예배를 드렸다. 첫줄 중앙이 이식주 사장 부부, 그 옆이 해롤드 심즈 가족이다. 심즈 가족은 이 건물 2층에 살았으며 목회자였다.



6.11. 東京三河島朝鮮基督教會直轄幼年主日學校聯合記念 1939

동경 삼하도조선기독교회 직할 유년주일학교 연합기념(1939년 6월 11일, 담임목사 이원근)

도자가 1948년 9월까지 담임하였으나 대가족의 생계문제 때문에 사임 후 직업을 찾아 떠났다. 이후 공장주 이식주의 헌신으로 예배당이 건축되었으며 또 다른 목회자 부임해 올 때까지 해롤드 심즈가 통역을 두고 설교하였다.

1960년에는 교회를 후원했던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 요츠야선교부로부터 독립하고 재산을 양도받아 초교파 교회로 종교 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하였다. 1969년 8월에는 요츠야선교부의 명의로 되어 있었던 부지와 건물을 삼하도교회로 명의를 변경하였고, 1970년 12월에 현 교회당을 헌당하였으며, 1974년 11월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때 대한예수교 동경복음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 (1) 김상준(金相濬) 목사와 조선인성서훈련원



김상준 목사 가족

<도쿄 그리스도인> 1933년 12월호에 요츠야선교부 제7교회(조선인)의 목회자요, ‘조선인성서훈련원’(Korean Bible Training School)의 원장이었던 김상준 목사가 한국에서 10월 12일 사망하였다는 부고가 실렸다.

김상준 목사의 사망 소식이 가장 마음 아파하였던 분들 가운데 성낙소 목사가 포함된다. 성낙소 목사는 자신이 일본 횡빈(横浜)조선기독교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의 교역자로 섬길 당시 동경 심천(深川)조선기독교교회의 교역자였던 이인범 목사와 함께 동경 삼하도(三河島)조선기독교교회의 새 교역자로 김상준 목사를 천거한 사람이었다. 김상준은 한국 성결교회의 제1대 목사였을 뿐 아니라, 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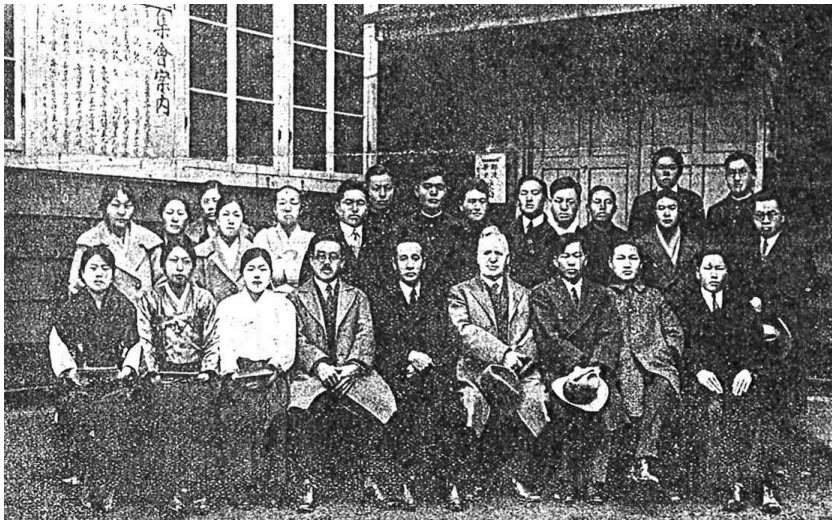


김상준 목사 환영예배(1931년 7월 5일 동경 삼하도기독교회)  
 체이스 선교사(첫줄 중앙) 우측에 김상준 목사, 좌측에 이인범 목사, 그 좌측에 류재현 목사  
 창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나 일찍부터 비교파운동에 뜻을 품고 교단을 떠나 독립적으로 또는 초교파적으로 부흥회를 이끈 인물이었으므로 구세군 사관직을 버리고 신약교회기독교 운동에 뛰어든 성낙소가 존경해 마지않는 목사였고, <도교 그리스도인> 1931년 9월호에 따르면, 이인범이 그로부터 성경을 배운 적이 있었다.



재일조선기독교회(그리스도의 교회)관동연립기독교양회  
 김상준 목사가 1931년 7월 1일 동경 삼하도기독교회에 부임한 직후 개최한 연합집회

성낙소는 <자서전>에서 김상준 목사가 삼하도 교회에 부임 하자마자 김상준을 강사로 동경과 횡빈(橫濱)의 조선인 교회들이 삼하도 기독교회에서 2주간동안 연합부흥집회를 개최하였다고 하였다. <도쿄 그리스도인>에 따르면, 김상준은 1931년 7월 1일에 부임하였고, 7월 5일에 환영예배를 드렸으며, 7월 20-30일 기간에 제일조선기독교회관동연합하기수양회를 개최하였다. 집회는 새벽기도회(4:30), 성경공부(오전 9-12시, 오후 2-4시) 및 저녁집회(8-9시)로 진행되었다. 출석인원은 평균 40여명이었고 9명의 결신자가 있었다. <도쿄 그리스도인> 1931년 10월호에 따르면, 이 집회는 9일간 지속되었으며, 동일한 집회가 성낙소 목사가 시무하는 횡빈(요코하마)기독교회에서도 연이어 열렸다.



조선인성서훈련원, 1931년말-1932년초

윌리엄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과 교장 김상준 목사(커닝햄 좌측)

김상준 목사는 1931년에 자신이 부임하여 시무하는 동경 삼하도교회에서 9월 21일에 '조선인성서훈련원'(Korean Bible Training School)을 개교하여 1년 6개월간 원장으로 섬겼다. <도쿄 그리스도인> 1933년 5월호 기사에서 이(Lee) C. H. 목사가 요츠야선교부의 제7교회인 동경 삼하도조선기독교회의 교

역자로 부임하여 4월 2일 오후에 환영회가 있었던 것으로 볼 때, 김상준 목사는 3월 중 즉 부임한지 1년 9개월여 만에 사임하고 귀국한 것으로 추정된다.



요지(延禧)신교부 사역자대회(1932년)  
뒷줄 중앙에 선 몇몇 사람들이 김상준 목사를 비롯한 한국인 사역자들이다.

성낙소는 1931년 9월 중순경에 조선기독교회(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포교책임자로 임명받고 귀국할 때에 경성부근에 신학교를 세우기로 김상준 목사님과 내약했었다고 다음과 같이 적었다.

성낙소 자신은 먼저 귀국하여 경성에서부터 각 지방까지 교회를 설립할 테니, 김 목사님은 추후로 귀국하시어 신의주로부터 부산까지 전 조선 각 교회 중 200명 이상 집회하는 곳에 교파를 막론하고 부흥사경회를 하도록 기독교신보와 활천잡지(活泉雜誌)에 광고하여 김상준 목사를 강사로 초빙하자고한 후 전 조선을 통과하여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매 1인당 1원씩을 헌금하도록 하여 경성부근에 야지(野地) 만평 가량을 매수(매 평당 가격 3전)하여 우리 손으로 신학교를 건축하고(왕하 6:14), 김 목사님이 교장이 되시고, 동지자들을 청하여 교수하고, 기타는 신학교 선생을 강사로 시간 교수하도록 하며, 양계, 양돈, 양봉, 양어, 야채농, 과수원, 화초재배, 우유목장 등을 신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실습하여 기숙, 식사하도록 하여 졸업 후에는 각지 농촌교회를 교역하되 농촌개량운동에 정막국(丁抹國)과 같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토지를 사랑하고, 셋째 가정을 사랑하는 기독교의 교회가 되어 영적 신앙과 육적 생활을 보존하여 삼천리강산을 복음화 합시다!”한즉, 김상준 목사님은 희색이 만연하면서 감사한 뜻과 감격한 어조로 “나의 평생소원과 포부의 복안을

발생하시니,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성 목사님이 선차 귀국하시어 착수하시면 오역중차 거의(吾亦從此 去矣)하리라” 하시며 우수로 성의 우수를 견고한 약속의 표시로 유력(有力)하게 착수(着手)하시고 작별하였다.

또 성낙소 목사는 김상준 목사가 소천할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적었다.

성은 김상준 목사를 신앙의 동지로 신뢰하고 이상의 약속을 성취키 위하여 분투하던 중에 ... 뜻밖에 하루는 외출하였다가 해가 저물어 귀가 한 즉, 어떤 신학생이 명함을 주고 갔다 하여 실인이 명함을 주기로 취견(取見)하니, 동지 김상준 목사의 명함이다. 내용은 명일 9시에 성서학원으로 오시어 나의 신병이 위중하니 성형이 진찰 처방하여 귀가하는 대로 치료해 주시오 라 하였다.

다음날 1시간 전 8시에 달려갔다. 명함을 전달한 학생 최 집사라는 형제를 찾아 김상준 목사님의 숙소를 물으니, 오계 동계(五階 東齋) 7호실이라 하여 올라가 본 즉 빈방이었다. 누구에게 묻고자 하나 그 시간은 성결교회 연회중이라 대 강당에 모여 있어 한 사람도 볼 수가 없었다. 아래층에 내려와서 누구에게 물은즉 “네. 김 목사님의 병증세가 야간에 악화 위급하시어 7시경에 경성역으로 갔는데, 8시 급행차로 귀가하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발차 기적성이 들렸으니, 이제는 멀리 가셨을 겁니다.”라고 한다. 성은 낙심천만으로 귀가하였다.

김상준 목사님은 가자마자 본댁에서 별세하였다. 그 후 소식을 듣건대 동경에서 성과 결탁한 약속을 실현할 용기를 가지고 귀국하여 기독신보와 활천잡지에 부흥강사 초빙광고를 내고, 안동현(安東縣) 조선인 교회에서부터 신의주 선천, 정주까지 쉬지 않고 계속 부흥회를 하신 바, 노쇠한 몸으로서 하루도 쉬지 않고 노력하모로서 신체는 부지중에 극도로 쇠약하여 초기에는 소변색이 적황이더니, 얼마 후에는 소변 출혈이 되어 기력탈진으로 즉시 상경하여 성목사의 의학의 특수기술을 알고 진찰하려는 것과 적회(積懷)를 설화(說話)하고자 한 것. 병세가 급전악화(急轉惡化)함으로 자기 생명이 시간문제임을 자각하고 이날 급행차로 귀가치 않으면 객사할 것 같아서 귀가한 것이다.

얼마 후에 경성 무교동 성결교회당에서 고 김상준 목사 추도식을 갖는다는 소식을 듣고 정각에 참석하였다. 그 교회는 고 김상준 목사님이 창설한 것이요, 성결교회를 조선에 시작한 원로자 중 1인인 고로 이 단체에서 이 교회당에서 추도식을 하였다. 성군은 말석에서 무언의 추도와 추억을 하면서 부지중에 뜨거운 눈물이 쏟아짐을 금치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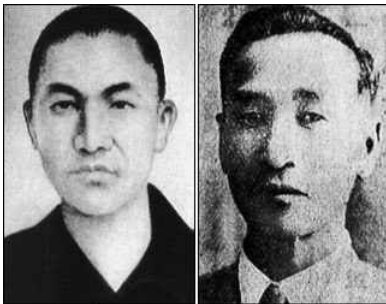


동경 약속은 중대하지만, 그렇게 무리하게 노력한 것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기독교의 교회 신학교 설립할 동지자를 상실한 것이 더욱 애달파서 낙망 중에 빠졌다. 얼마간은 무위적(無爲的) 상태로 지내다가 묵상과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상사(喪事)라면 낙망할는지 모르거니와 김목사가 상사한 것으로 낙망하는 것은 생존하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자각이 생겨 하나님께서 동역하심을 견고히 신앙하고 용기를 회복하고 용전분투하였다.

최규명 목사(성결교회 역사자료연구소장)의 ‘김상준(金相濬) 목사의 생애와 신학’을 비롯한 <월간 조선>, <크리스천투데이>, <뉴스앤조이>, <크리스천데일리뉴스> 등에 실린 인터넷 기사들을 종합해 볼 때, 김상준은 1881년 11월 11일, 평안남도 용강군 오신면 구룡리에서 부친 의성 김씨와 모친 진주 강씨 사이에서 외아들로 태어났다. 1897년에 그는 연안 이씨의 여성녀와 결혼하여 1남 6녀를 두었다.

김상준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만 20세 때인 1901년 평양에서였다. 부모의 심부름을 갔다가 집회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것이다. 부친은 외아들 김상준을 명석말이할 정도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완강히 반대하였으나 오히려 김상준은 상투를 자르고 제사를 폐하였다.

1902년에는 일본으로 건너가 1903년 봄에 동경성서학원에 입학하였다. 1905년 7월에 정빈, 1906년에 이장하, 김혁준, 강태은 등도 입학하였다. 그리고 그해 11월에 일본에서 동양선교회가 조직되었다.



정빈(좌) 전도자와 김상준(우) 목사

1907년 5월 2일에 귀국한 김상준은 정빈과 함께 5월 30일부터 서울 종로 염곡에 정빈을 주임으로 한 ‘조선 야소교 동양 선교회(Oriental Missionary Society) 복음전도관’(현 중앙성결교회)을 세워 복을 들고 거리로 나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기만

하오. 예수를 믿기만 하오”라고 외치면서 노방전도에 힘썼다.

1911년 3월에는 복음전도관 내에 경성성서학원이 개교되었고, 이듬해 3월에는 아현동으로 옮겼다. 김상준과 정빈은 복음전도관 활동은 물론 이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1914년 4월 22일 김상준은 이장하, 강태은, 이명직, 이명현과 함께 목사안수를 받고 조직교회에로의 첫발을 내딛는데 동참하였으나 복음전도관이 교파로 발전하는 것에 반대한 정빈은 안수를 받지 않았다.

정빈은 황해도 해주 출생으로써 10세부터 고향에서 예수님을 믿었으며, 1908년 8월에 동양선교회 카우만(C. E. Cowman)의 내한 때 주례를 부탁하여 결혼식을 올렸다. 정빈은, 추정컨대 동양선교회의 교파화문제로, 1914년 9월 30일 김상준과 의견충돌을 일으켰고, 킬버른(E. A. Kilbourne)의 중재와 김상준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칠판에 12개 조문을 기록한 채 성결교회를 떠났다가 1917년 복귀해 안성복음전도관을 창립하였다. 1919년에는 인천복음전도관을 창립하였으나 복음전도관이 1921년 9월에 '조선예수교동양선교회성결교회'라는 교파교회로 변질되자 다시 성결교회를 사직하고 북간도로 넘어가 자유전도자가 되었다.

김상준은 목사안수를 받은 이후 1916년까지 경성성서학원의 교수와 원감직을 수행하면서 1914년 중앙(염곡)복음전도관 주임, 1915년 아현복음전도관 주임, 1916년 개성복음전도관 주임으로 있다가 1917년에 사직하고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을 떠나 비교파 또는 초교파적인 부흥목사로 활동하였다. 1919년에는 독립운동으로 인해서 평양형무소에서 1년간 옥고를 치렀다. 1920년에는 이장하도 목사직을 사임하고 해외로 유랑하였다.

호주성산성결교회 임운규 목사는 이들이 성결교회를 떠난 이유를 '동양선교회'의 비교파적 정신을 버리고 "기존 교단들과 같이 목사라는 성직제도와 교단조직을 가진 기존 교단, 즉 제도화된 전통교회의 성격을 지니게" 된 때문이라고 추정하였다. 김상준 목사가 일본의 '비교파'(non-denominational), '오직 그리

스도인'(Christians only), '신약성서기독교'(New Testament Christianity)를 주창하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초빙을 받아드려 동경 삼하도조선기독교회를 1931년 7월 1일부터 1933년 3월 까지 섬긴 것은 동일한 정신을 공유한 때문이었을 것이다.

김상준 목사는 성결교회를 떠난 후 <묵시록강의>(1918), <사중교리>(1921) 및 <다니엘서 강의>(1932)를 저술하였다. 성결교회의 대표적 교리인 '4중 복음'(중생, 성결, 신유, 재림)은 김상준 목사가 쓴 <사중교리>에 힘입은 바가 크다.

김상준 목사는 당뇨병과 과로로 인해서 향년 52세로 1933년 10월 12일에 소천하였다.



삼하도조선기독교회는 1960년에 요츠야선교부에서 독립하여 초교파교회가 되었으며, 1974년 11월 창립 50주년에 맞춰 명칭을 '동경복음교회'로 변경하였다.

## 2) 횡빈조선기독교회와 사역자들

삼하도에 이어서 횡빈(요코하마)에서도 이주익에 의해서 1926년 초부터 2개의 일요(주일)학교들과 1개의 야간학교가 운영되고 있었다. 이주익은 동경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고, 미국 유진성서대학교에 유학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1926년 6월호>.

이주익은 김원식에게 전도하여 침례를 베풀었는데, 김원식은 한국인 여성들을 많이 고용한 횡빈 실크방직공장의 부장이었다.



횡빈(요코하마) 실크방직공장 안에 설립된 그리스도의 교회 야간학교(1927년)  
 이주익(모자를 들고 있는 사람)과 김원식(이주익의 좌측, 이주익의 동역자이자 한국인 여성들을 많이  
 고용한 이 방직공장의 부장) 및 홍소고 양이 횡빈조선기독교교회와 야간학교 및 일요학교들을 섬겼다.

이 공장주의 배려와 요청으로 이 실크방직공장 응접실에 일요 학교와 야간학교가 설립되었다. 이주익 전도자와 김원식 부장, 홍소고 양이 횡빈선교기지의 2개의 일요학교와 1개의 야간학교를 섬기고 있었다<1926년 12월호>.

요코하마에 7천여 명의 한국인이 살고 있었다<1927년 1월호>. 크리스마스 때 이주익은 이 지역의 사업가들에게 한국인들을 돕도록 호소하고 다녔다. 횡빈조선기독교교회는 YMCA와 실크방직공장에서 모였는데, 1928년 크리스마스 때 350여명이 모였지만, 크리스마스 때마다 구호의류를 나눠주었다.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40달러씩 나눠주었다. 참고로 삼하도조선기독교교회에는 크리스마스 때 1,500여명의 몰려들었다.

<도쿄 그리스도인> 1929년 7월호에 따르면, 요즈야선교부가 적당한 임대건물을 세내어 이 횡빈 선교기지를 1929년 6월 2일 교회로 승격시켰다. 교회의 담임자는 이주익이었고, 일요학교들은 탁영록과 서남용(부인)이 섬겼다. 횡빈조선기독교교회는 한 달에 두 번씩 <서광>이란 잡지를 발행하였다<1930년 5월

호>.

<도쿄 그리스도인> 1929년 5월호에 따르면, 이주익과 그의 가족이 부친병환으로 1929년 3월 14일 한국을 방문하였고, 1929년 11월호에서는 부친이 사망하여 다시 한국에 나갔다고 전하였다. <도쿄 그리스도인> 1930년 1월호에서는 횡빈조선기독교회의 담임자로 탁영록의 이름이 올랐고, 1930년 12월호에 따르면, 탁영록은 병으로 사임한 후에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한국에 돌아가 모친과 함께 지내면서 건강회복에 힘썼다. 탁영록의 뒤를 이어 성낙소 목사가 1931년 1월부터 9월 사임할 때까지 담임하였다.



횡빈기독교회(1929년)

성낙소가 동경 요츠야선교부의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 선교사로부터 초청을 받고 일본에 건너간 때는 1930년 5월이었다. 이 무렵의 요츠야선교부에는 선교사 7명, 일본인 사역자 46명, 한국인 사역자 21명이 연봉 100-600달러를 받고 사역하고 있었다. 이들 사역자들은 목사, 전도자, 교사, 여전도자, 유치원교사들로서 교회 12개, 일요학교 80개, 유치원 등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이었다<1930년 9월호>. <도쿄 그리스도인> 1927년 10월호에 따르면, 삼하도조선기독교회 박홍순 담임목사가 연봉 450달러, 선교기지를 맡고 있던 이인범 목사가 180달러, 임종호 양이 210달러, 명신흥 전도자가 150달러를 받았다. 횡빈조선기독교회의 이주익 전도자는 270달러를 받았다.

성낙소 목사는 구세군 출신의 사관으로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쫓기던 중에 1927년 1월 1일 충남 부여군 세도면 화수리의 처가 사랑방에서 기독교교회(基督之教會)를 개척하여 시무하였다. 그러던 중에 일본에 건너간 한 청년이 커닝햄에게 부여에 기독교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였고, 이 소식을 접한 커닝햄이 성낙소를 초청함으로써 그의 일본행이 성사되었다. 이 무렵 이미 서울에 1개 교회와 6개 선교기지(포교소)가 있었고, 동경에는 이인범 목사가 시무하는 심천조선기독교교회와 류지풍 목사가 시무하는 삼하도조선기독교교회가 있었으며, 요코하마에 탁영록이 시무하는 횡빈조선기독교교회가 있었으나 성낙소는 그 존재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성낙소가 1930년 5월에 일본에 건너가 신병으로 사임한 탁영론에 이어서 횡빈조선기독교교회를 담임한 것은 동년 11월부터 이듬해인 1931년 9월까지였다.



일본 횡빈조선기독교교회 유재현 목사 부임 환영기념(1931년 11월 8일). 성낙소 목사는 이 교회를 1930년 5월에 부임하여 11월부터 1931년 9월 포교관리자로 귀국할 때까지 주임목사로 섬겼다.

성낙소 목사에 이어 횡빈조선기독교교회를 담임한 목사는 유재현이었다. 유재현은 횡빈교회의 선교기지에서도 일하다가 박흥순

목사가 서울로 옮겨갔을 때, 성결교회 창립멤버였던 김상준 목사가 1931년 7월 5일에 담임을 맡아 부임할 때까지 삼하도교회로 옮겨 임시로 두 달간 사역하였고, 성낙소 목사가 사임한 횡빈조선기독교교회를 1931년 11월 8일부터 담임하였다. 유재헌 목사 부임이후 횡빈조선기독교교회에 대한 소식이 <도쿄 그리스도인>에서 완전히 끊겼다.

### (1) 유재헌 목사



유재헌 목사(1931년말)  
1931년 5-6월 삼하도기독교교회를 임시로 섬기다가  
1931년 11월 8일에 횡빈기독교교회에 부임하였다.

유재헌은 1904년 3월 21일생으로써 경신학교를 졸업하였고, 피어선성경학교 재학 중에 반일운동을 펼쳤으며, 이로 인해서 학업을 중단하고 일본에 건너가 구두수선을 하면서 관서성서신학교(고베)를 마쳤다. 1930년경 요츠야선교부의 선교기지들을 섬기던 중 1931년 5-6월에 삼하도조선기독교교회를 두 달 동안 임시로 담임하였으며, 성낙소 목사가 조선기독교교회 포교책임자로 서울 제1교회에 부임해 감으로써 1931년 11월 8일에 횡빈조선기독교교회에 담

임으로 부임하였다. 그는 삼하도조선기독교교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면, 그 시점은 아마 그가 목사신분으로서 횡빈조선기독교교회에 부임한 1931년 11월 8일 이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재헌 목사가 횡빈조선기독교교회에 부임한 이후로 이 교회와 야간학교 및 일요학교들에 대한 언급이 <도쿄 그리스도인>에

서 사라진 것으로 보아 그간에 무슨 변고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예장뉴스와 기타 인터넷 글들에 따르면, 유재헌 목사는 일본에서 조선인들에게 애국사상을 고취시킨다는 죄목으로 잡혀 고베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다가 조선으로 추방되었고, 해방 전까지 요시찰 인물로 감시의 대상이 되어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였다고 한다.

유재헌 목사는 1941년에 한국에서 활동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삼하도조선기독교회 담임 이원균 목사와 마찬가지로 그의 귀국도 1941년 4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한 일제의 종교법과 연관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유재헌 목사는 해방 후에 부흥사로 활동하면서 용인교회를 시무하였고, 1945년 8월에 강원도 철원군에 '대한수도원'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이곳이 38선 이북지역이어서 왕래가 점차 어려워지자 1950년 5월에 서울 삼각산에 '임마누엘수도원'을 설립하였다. 유재헌 목사는 6.25 전쟁 중에도 피난가지 않고 이 수도원에 머물러 있다가 1950년 8월 15일 공산군에게 납치되어 끌려간 후 소식이 끊겼다. 그는 114편의 복음성가를 썼다.



유재헌 목사(1904.03.21-1950.09.28 순교)  
요츠야선교부의 삼하도조선기독교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1931년 11월 8일 횡빈조선기독교회에 복임하였다.

### 3) 심천조선기독교회와 사역자들

이인범 목사가 요츠야선교부의 사역자로 등장하는 시점은 박경순의 동창생 이동하와 함께 1927년 8-9월경부터 삼하도조선



기독교회 선교기지들에 투입된 때였다. 이인범은 커닝햄에게 신임을 받아 1929년 11월부터 선교기지에서 교회로 승격된 심천조선기독교회의 제1대 담임자가 되었다. 이인범은 1933년 9월



이인범 목사

에 조선기독교회 포교책임자로 서울로 파송될 때까지 거의 4년간을 심천조선기독교회를 맡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 무렵 이인범에 대한 커닝햄의 신임은 절대적이였다. 이인범은 1930년 4월 19일 큰 딸을 폐병으로 잃었다. 이인범이 섬기던 심천조선기독교회는 이인범의 조력자였던 채호(Ho Cheh)가 맡게 되었다.

채호는 자신이 개척한 교회의 제1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심천조선기독교회를 사임하고, 그 대신 서울에서 이인범의 신학교 동기인 주정국 목사가 초빙되어 제3대 목사가 되었다. 이 무렵 그는 49살이었다. 부인과 외아들을 두었고, 20년의 목회경험을 갖고 있었다.

<도쿄 그리스도인> 1935년 4월호에 따르면, 채호는 이 무렵에 안수를 받지 아니한 전도자였다. 교파교회 목사가 심천조선기독교회를 방문하여 채호가 주의 만찬을 집행할 자격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소란스러워졌고, 이에 북한에서 사역하는 정 T. S. 목사가 초빙되어 부흥회를 인도함으로써 교파주의를 물리쳤다. 그러나 정 목사의 가르침에 대한 논쟁 역시 뜨겁게 달아올랐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채호(1933-34년)

심천조선기독교회 제12대 담임 전도자



주정국 목사(1935년)  
 동경 심천조선기독교회 제3대 담임 목회자,  
 평북 방현교회 제3대 담임 목회자

채호 전도자는 교회를 사임하고 자신이 개척한 교회로 옮겨갔으나 이듬해 이마저도 사임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쿄 그리스도인> 1936년 2월호에 실린 사진에 이 교회의 목회자가 채호 대신에 김 C. W.로 바뀌어 나왔기 때문이다.

<도쿄 그리스도인> 1940년 2월호에 따르면, 심천교회에 거의 2년간 분열이 있었다. <도쿄 그리스도인> 1939년 4월호에 따르면, 심천조선기독교회가 6개월간 목회자를 구하지 못하다가

1938년 어느 시점부터 이성영이 부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쿄 그리스도인> 1937년 5월호에 따르면, 담임 목사였던 주정국이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하였고, 1937년 어느 시점에 평북 신의주기독교회로 옮겨 간 것으로 추정되나 1938년에는 방현교회에 있었다.



심천조선기독교회(1930년)  
 신교기지(포교소)에서 2-3년만인 1929년 11월에 교회로 승격되었고, 그 때부터 이인범 목사(어린이들 사이에 앉은 분)가 담임을 맡아 1933년 6월 조선기독교회 포교책임자가 될 때까지 섬겼다.



심천조선기독교교회(1939년)  
오웬 스틸 선교사(둘째 줄 중앙) 우측에 앉은 분이 담임목사 이성영이다.

이성영 목사가 심천조선기독교교회에 언제까지 남아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그는 삼하도조선기독교교회의 이원균 목사와 함께 일본기독교단에 가입하는 문제로 개척된 1941년 1월 21일 회합에 참여하였고, 선교사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자는 편에 서서 다수결로 밀어붙였다. 그는 아마 1941년 4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새로운 종교법에 따라 선교부의 급여지급이 중단되자 교회를 사임하고 조국으로 돌아갔을 지도 모른다. 아무튼 심천조선기독교교회는 1941년 선교사들이 일본에서 철수한 후 어느 시점에 삼하도조선기독교교회처럼 목회자와 성도들이 흩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아쉬운 것은 1947년에 선교사들이 일본에 복귀한 후에도 심천조선기독교교회를 재건할 의지가 없었다는 점이다.

결국 요즈야선교부가 동경에 3개, 횡빈(요코하마)에 1개를 세웠던 조선인기독교교회들은 삼하도조선기독교교회 한 개만 생존하게 되었고, 그마저도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 교회가 아닌 '동경복음교회'란 이름의 초교파로 남아 있다.



일본 동경 선천조선기독교회 여성도들(1932년초). 둘째 줄 좌측에 선 사람이 담임목사 이인범이다.  
 그는 성낙소 목사에 이어 1933년 6월부터 해방 전까지 조선기독교회(그리스도의 교회)의 포교책임자로 일하였다.  
 중앙에 앉은 선교사들은 좌측이 체이스 선교사 부인 와네타 아이퀸, 우측이 루스 슈노버 양이다.

### 3. 한국에서의 한국인 선교사역 및 내국인 사역자들

#### 1) 서울지역 선교사역

커닝햄의 요츠야선교부가 한국에 선교기지(포교소)를 개설한 것은 1924년이였다. <도쿄 그리스도인> 1924년 6월호에 따르면, 커닝햄 선교사 부부는 1924년 3월 25일 일본을 떠나 한국에서 수일간 머물며 직접 선교기지를 세우기 위한 장소를 물색하며 예비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일을 위해서 박제곤이 커닝햄 부부보다 일주일전에 서울에 들어와 필요한 일들을 처리하였다. <도쿄 그리스도인> 1927년 7월호에 따르면, 요츠야선교부는 1924년 5월에 동경 제1교회에 다니는 박제곤을 한국에 보내 선교기지를 개척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박제곤은 복음사역을 반대한 부친의 반대로 사역을 중단하였고, 그를 대신해서 이원균이 10월에 파송되었는데, 이원균은 경서신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사임한 1927년까지 서울에 선교기지를 세우고 일요학



서울조선인기독교회(1924-45)를 섬긴 요츠야선교부의 사역자들  
 상좌부터 이원균(1924.10-27, 박재만의 뒤를 이임), 김광춘(1927중반-29.03)  
 박흥순(1929.04-31, 1930년 4월 27일에 선교기지에서 교회로 승격시킴),  
 이성록(1930.04-31), 성낙소(1931.09-33.05, 조선기독교회 포교책임자),  
 이인범(1933.06-43, 조선기독교회 포교책임자)

교들을 여는 사역을 수행하였다. 그가 사임한 1927년 중반부터  
 는 김광춘이 이어받아 사역하였고, 동경 삼하도기독교회 박흥순  
 목사가 김광춘의 뒤를 이어받았다. <도쿄 그리스도인> 1929

년 11월호에 따르면, 박홍순 목사는 1929년 3월 36일 귀국하여 4월부터 한국기독교회 포교책임자로 섬겼다. 곧이어 이동혁이 추가로 서울에 투입되었다. 이동혁은 일본 제1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삼하도조선기독교회의 선교기지에서 사역하던 형제였다<1929년 7월호>. 박홍순 목사는 서울에 예배당과 침례당을 마련해 줄 것을 요츠야선교부에 요청하였다. 1929년 서울에는 4개의 선교기지가 운영되고 있었다.

<도쿄 그리스도인> 1930년 6월호에 따르면, 서울 선교기지는 출범된 지 6년만인 1930년 4월 27일 최초의 그리스도의 교회로 조직되었다. 선교기지도 늘어서 6개가 되었다. 이 때문에 이성록이 추가로 투입되어 늘어난 선교기지 두 곳을 맡아 운영하였다.

1931년 9월 하순에는 성낙소 목사가 요츠야선교부로부터 조선기독교회 포교책임자로 안수 받고 귀국하여 박홍순 목사의 바통을 이어받아 서울기독교회를 담임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채이스 선교사가 서울을 순방하였다<1931년 11월호>. 채이스는 서울에 1개의 교회와 여러 개의 일요(주일)학교들(Bible Schools)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갔다.

<도쿄 그리스도인> 1931년 12월호는 성낙소 목사가 한국으로 돌아가고, 그가 설교했던 황빈조선기독교회를 유재헌(劉載獻)이 맡게 된 이유가 성낙소 가족의 병 때문이었다고 전하였다. 이 무렵 요츠야선교부는 박홍순 목사를 교체할 능력 있는 설교자를 찾고 있었다. 마침 황빈기독교회의 사역자 성낙소 목사가 부인의 병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사표를 내자 그를 서울교회의 목회자로 임명하고 인천 난도(남동)교회를 돌볼 책임을 맡겼다. 성낙소 자신도 2개의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도쿄 그리스도인> 1932년 5월호가 서울기독교회(선교부의 제13번째)에서 성낙소와 함께 사역하는 전도자로 김영배를 소개한 것으로 볼 때 박홍순과 서상록이 이미 사임한 것으로 추정된다. 성낙소 목사는 선교사 한 가족과 세 명의 내국인 사역

자들이 더 필요하다고<1932년 6월호> 요청할 정도로 사역에 열정을 쏟았다.

성낙소 목사가 조선기독교회 포교책임자로 귀국하여 임무를 수행한 20개월 동안 행한 일들은 서울 제1교회 담임목회, 인천 남도(남동)교회 개척협력(침례 52명), 서울 송4동에 주일학교(유치원) 설립(1932년 3월 14일), 인천 송현동교회 개척협력(침례 18명 및 제16번째 교회로 승격), 조선기독교회를 조선총독부에 등록시킨 것 등이다.



성낙소 목사(뒷줄 우측 끝)가 조선기독교회 포교책임자로서 1932년에 개교시킨 경성기독교 송4동 주일학교

1932년 초에 성낙소 목사는 조선총독부 종교과에 포교계를 제출하고 ‘사곡선교회 기독교의 교회’를 등록하였으나 이를 이인범 목사가 나중에 ‘조선선교회 기독교의 교회’로 바꿔 등록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조선총독부 종교과에서 이를 승인한 날짜는 1932년 6월 11일이며, 이인범이 조선기독교회 포교책임자로 임명받기 1년 전의 일이고, 예비답사를 위해 이인범이 한국을 방문한 날짜보다 2개월이나 앞선다. <도쿄 그리스도인> 1937년 1월호는 미국의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Churches of Christ)의 월간지, <환원 전령>(Restoration Herald)의 편집인 리온 마이어즈(Leon

Myers)가 조선총독부에 편지를 보내 요츠야선교부의 한국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문의하였고, 이에 조선총독부는 요츠야선교부의 한국에서의 사역이 정식으로 승인되었고, 1932년 6월 11일 이후로 중단 없이 기독교 사역이 수행되고 있으며, 3개의 교회가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기사가 <환원 전령>에 실렸다고 소개하였다. 이 정부 확인 교회숫자가 이듬해에 히치(T. G. Hitch) 가족이 한국 상주 선교사로 들어가게 된 것을 소개한 <도쿄 그리스도인> 1938년 3월호에서는 11개로 재확인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성낙소 목사의 <자서전>에 “계동, 공덕동, 청엽동, 내수동, 인천 송현동 외 2곳과 평북 구성(平北 龜城)에 기독교 교회를 1년 반 동안 7개 교회를 설립하였고, 부여 지방에는 기성(既成)한 교회였다.”는 기록이 있다. <도쿄 그리스도인>에 실린 기사들을 종합해 볼 때, 성낙소 목사가 조선기독교회 포교책임임을 맡은 기간은 대략 1년 8개월 정도가 된다. 그리고 이인범이 포교책임자의 직책을 넘겨받은 직후 얼마 못되어 인천(송현동, 유동, 금곡동)에 3개, 서울에 3개, 평북 구성군에 2개(방현면, 오봉면), 정주군에 2개(용포동, 근담동), 평안남도 중화군 동두면 대류리에 1개, 마산에 1개, 총 12개의 교회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자서전>에 언급한 7개의 교회들이 온전한 교회가 아닌 주일(일요)학교 형태였을지라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보인다. 그러나 성낙소 목사가 귀국 초기에 보고했던 인천의 난도교회 즉 남동교회에 대한 소식은 이인범이 포교책임자가 된 이후로는 더 이상 보고되지 않았다.

성낙소 목사에 이어 서울기독교회를 담임한 목사는 이인범이었다. <도쿄 그리스도인> 1932년 8월호와 1933년 8월호에 따르면, 커닝햄이 이인범을 한국에 보내 2차례에 걸쳐 예비답사를 하게한 결과에 고무되어 요츠야선교부와 심천조선기독교회(제10교회)는 이인범을 한국에 보내 서울에 튼튼한 교회를 세우게 하고, 한국에 세워진 요츠야선교부의 교회들을 돌보는 순회전도자와 조력자가 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요츠야선교부는



1933년 6월 5일 월례회에서 한국에 상주할 한 선교사 가족을 요청한다는 제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인범이 섬기던 심천조선기독교교회(제10교회)는 이인범의 조력자였던 채호(Ho Cheh)가 맡게 되었다. 이인범은 1933년 9월에 한국으로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이인범 조선포교책임자 가족

커닝햄 선교사가 한국의 캄벨 또는 여호수아로 치켜세웠던 인물 한국 선교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교파를 버리고 순수한 신약성서교회로 환원하고자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누누이 소개하면서 그 증거로 이인범의 전도여행의 성과를 제시하였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커닝햄의 주변 인물들 가운데 영향력을 가진 일본인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조선총독부 총독과 일본정부의 수상을 지낸 사이토(Saito, 자작)와 그의 부인은 요츠야선교부의 한국선교를 허용해주었을 뿐 아니라, 성탄절 선물로 카드와 한국 사과 상자

커닝햄은 이인범을 한국의 알렉산더 캠벨 또는 “추수를 기다리는 지상 최고의 황금들판”(the ripest mission field on earth today)을 접수할 여호수아라며 절대적으로 신뢰하였다. 이 무렵 한국에서는 감리교와 장로교 선교사들이 선교지역분할을 합의한 선교협정(Comity Agreements, 敎界禮讓)을 들어 요츠야선교부의 한국선교를 박해하고 있었고, 실제로 선교국에서 요츠야선교부에

를 보내 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1936년 1월호>. 이런 이유로 해서 커닝햄은 이인범이 요즈야선교부의 한국 대표자로서 한국에서의 선교사역을 감독하도록 조선총독부가 승인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한 서울 창동교회(1932년)

<도쿄 그리스도인> 1932년 9-11월호에 따르면, 이인범은 8월 1일 선교탐방을 위해서 한국에 들어갔고, 그 기간에 8월 21일 하루에만 인천 송현기독교회에서 93명에게 침례를 베푸는 것을 비롯해서 2개월 체류기간에 총 138명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이뿐 아니라, 이 탐방기간에 이인범은 여러 교파교회들로부터 청빙 제안을 받았다. 그리고 1933년 2-3월호에서는 한국에서 3개의 교회가 신약성서기독교어로 환원하였고, 그들 중 한 교회가 서울 창동교회인데, 이인범이 목회자가 되어주기를 바랐으나 이인범은 오히려 성낙소 목사를 추천하였고, 성낙소 목사도 이 제안을 수용하였으며, 창동교회는 몇 차례의 공동회의를 통해서 11월 20일에 성낙소 목사를 초청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기로 공동의회를 통해서 결정하였다. 또 <도쿄 그리스도인> 1933년 3-5월호는 이인범이 제2차 선교탐방을 위해서 한국에 들어갔고, 3월 24일까지 2월 19일에 27명, 3월 8일 서울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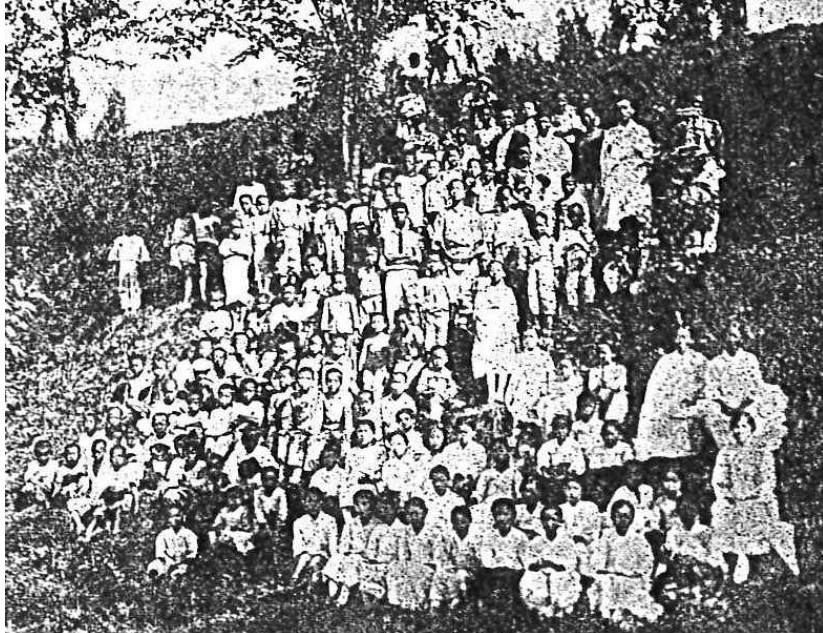
8명, 3월 12일 제물포(인천)에서 13명에게 침례를 베풀었다고 전하였다.

이인범 목사가 1933년 9월에 입국하여 요츠야선교부의 후원이 완전히 끊긴 1941년 3월까지 7년간 이룬 업적은 그의 영향력 아래서 서울에 4개 교회, 인천에 3개 교회, 마산에 1개 교회, 대구에 1개 교회, 총 9개 교회가 더 세워지게 한 것이다. 1940년까지 요츠야선교부가 한국에 세운 그리스도의 교회들 총 17(19)개[인천 4개, 서울 5개, 평북 구성군 2(3)개, 정주군 3(4)개, 신의주 1개, 마산 1개, 대구 1개] 남아있었으나 북한의 6(8)개의 교회들은 이원균 목사의 영향아래 세워진 것들이어서 그가 비록 조선기독교회 포교책임자였을지라도 그의 영향력은 주로 서울과 인천에 국한되었다. 재직기간동안 이인범은 자신의 부흥강사 자질로 큰일을 해냈으나 정작 자신이 담당한 서울 제1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지는 못하였다. 선교부에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그는 후원이 끊기면 부족한 생계비를 채우기 위해서 일주일에 3일만(수, 토, 일) 교회를 위해 일하고, 나머지 4일은 나가 돈을 벌겠다고 말할 정도로 교회사정이 어려웠다. 서울에는 이인범 목사가 시무한 서울 제1교회 말고도 4개가 더 있었으며, 성경훈련원(신학교)도 3년 정도 운영되었다. 그러나 이들 교회들이 정확히 어느 지역에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 (1) 서울 제1교회와 성경훈련원

서울 제1교회는 1924년 5월에 선교기지(포교소)로 출발하여 출범 6년만인 1930년 4월 27일에 최초의 그리스도의 교회로 조직되었다. 1933년 9월부터 폐쇄 때까지 이인범 목사가 시무하였다. 또 서울 제1교회는 서울 여러 지역에서 운영되는 선교기지들도 관리하였다. 그리고 제2교회로부터 제5교회까지가 모두 선교기지들에서 발전되어 교회로 승격되었다. 성경훈련원의 졸업생 임화순 양이 다년간 이 교회에서 여전도사로 시무하였다. 이처럼 역사가 가장 오랜 한국 최초의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한국의 중추적인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폐쇄될 때까지도 임대 교회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서울 선교회 알파학교 어린이들과 교사들  
(1929년 8월 4일 촬영, 조선기독교회 포교책임자 박흥순 목사)



경성(서울)기독교회 주일학교(1930년 12월 6일)

<도쿄 그리스도인> 1941년 2월호에 실린 이인범 목사가 요츠야선교부에 보낸 마지막 편지를 보면, 교회가 임대료를 28엔, 사례비로 10엔을 지불하기로 결정하였고, 자신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일주일에 4일간 일하고, 3일간(수, 토, 일)은 교회를 섬길 생각이라고 밝혔다. 평북의 방현기독교회와 문인동기독교회는 평소처럼 잘 유지될 것이지만, 신의주기독교회는 지속되기가 어려울 것이고, 서울의 제3, 제4교회만 빼고는 서울과 인천의 기독교회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살아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제3교회(김상익 목사)의 경우 일 년 치 임대료 200엔이 해결만 된다면, 제3교회도 무난히 살아남을 수 있으라고 밝혔다. 또 성경훈련원도 계속 운영해 나갈 것이고, 3월에 5명이 졸업할 것이며, 월동비로 30엔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인범 목사는 자신은 죽을 때까지 주님께 신실하겠으며, 죽을 때까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크게 부흥하리라고 확신한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장로교로 넘어감으로써 이 모든 약속을 저버렸다.



서울 제기독교회(1939년)  
장소미정, 임대건물 좌측에 앉은 사람이 담임목사 이인범

서울성서훈련원(Bible Training School)이 헛치 선교사와 이인범 목사에 의해서 1938년에 시작되었고<1940년 1월호>, 3년 정도 지속되었다.



요츠야선교부의 서울 성경훈련원의 교수들과 학생들(1938년)

1938년에 히치의 딸 에밀리(Emilie)가 한국에 합류함으로써 히치의 가족은 네 명으로 늘었다. 히치 부부는 두 딸, 애니, 에밀리와 합심하여 서울성서훈련원(신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쳤다 <1938년 12월호>. 에밀리가 합류한 이후 서울성서훈련원은 서울의 다른 두 교회들에서 가까운 아현정 소재 2층을 임대하여 서울 제1교회로부터 분리하였다. 주간에 남자 7명, 여자 5명이 수업을 받았고, 야간에 남자 11명, 여자 2명이 수업을 받았다. 이들 중에는 현직 목회자와 여전도자들이 다수였으며,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재학 중 혹은 졸업 후에 파송을 받았다.

1939년에는 홍종숙 목사가 교수 겸 직원으로 영입되었다. 그는 미국 에모리에서 공부한 남감리교회 출신의 목사 김요한의 친구였다. 홍종숙은 김요한을 찾아가 신앙 상담한 후에 남감리교회의 교인이 된 자로서 1911년 감리교신학교를 졸업한 이후 네 곳에서 25년간 목회한 경력자였다. 홍종숙 목사는 서울성서

훈련원에 영입되기 이전에 이미 1936년 말에 채이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한 김요한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한 상태였다. 홍종숙 목사는 다른 한국인 사역자들과 마찬가지로 1941년 초에 종교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요츠야선교부에 도움을 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서울 성경훈련원 학생들과 오웬 스틸 선교사(1939년)

## (2) 서울 제2교회

1948년경 용산교회를 가지고 채이스 선교사의 ‘기독교회 선교부’(The Korean Christian Mission)에 합류한 이난기 목사가 서울 제2교회의 담임자였다. <도쿄 그리스도인> 1936년 5월호에 따르면, 이 교회는 선교부의 지원 없이 건물을 구입하였다. 또 건물에 덧대어 사람들이 마당에까지 앉을 수 있도록 집회장소를 넓혔다.

1941년 4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종교법 때문에 선교후원이 불가능해지자 요츠야선교부는 이난기 목사에게 9개월 치 임



이난기 목사: 모츠야선교부 서울 제교회

대표인 190엔을 한몫에 보내 주었는데, 교회는 이 돈에 700엔을 보태 빛 890엔을 모두 갚고 예배당을 구입한 것으로 <도쿄 그리스도인> 1941년 5월호가 보도하였다. 또 회갑을 갓 넘긴 이난기 목사는 교회가 자신에게 사례비로 매월 20엔을 주고, 생계비를 별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지만, 자신은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감사하는 인사편지를 선교부에 보냈다. 이난기 목사는 이

약속을 굳건히 지켰다.

체이스 선교사가 1948년 10월 17일 서울에 도착하여 1949



서울 제교회 성경공부반(이인범이 매일 2시간씩 강의, 1937년) 뒷줄 좌측부터 커녕함 부인, 이난기 담임목사, 이인범 목사, 슈멜 양



년 2월 중순까지 한국에 체류할 당시에 이난기 목사와 그의 용산교회는 이미 기독교회 선교부 산하 그리스도의 교회들에 합류되어 있었다. 당시 이난기는 만 68세였다. 그는 협성신학교를 졸업하였으나 신약성서교회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였다. 채이스가 본 용산교회의 특징은 남녀가 구별된 자리에 앉았는데 한국의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여성신도 숫자보다도 남성 신도가 더 많다는 점이었다.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남녀의 숫자가 동일하였다고 전했다.

### (3) 서울 제3교회



김상익 목사(서울 제3기독교회 담임, 1936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익은 장 M. Y. 전도자에 이어 제3교회를 담임하였다. 김상익이 제3교회를 맡아 목회하는 동안 서울성경훈련원에 등록하여 공부하였고, 1940년에 졸업하였다. 그 역시 요츠야선교부의 후원이 끊길 무렵에 선교부에 편지를 썼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으나 임대료가 문제라면서 임대료만 해결되면 어떻게든 교회를 꾸려나

### (4) 서울 제4교회

서울 제4교회는 윤낙영 목사에 의해서 12명이 침례를 받고 1938년 5월 8일 아현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도쿄 그리스도인>에 실린 사진으로 볼 때 아현기독교회는 이미 1936년 이전에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윤낙영이 이 교회를

선교기지의 주일학교로 개척하여 발전시켜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권신 여전도사가 이 교회를 도왔다. 따라서 1936년 3월 22일에 촬영된 예배당은 해방 후 채이스 선교사가 그의 교회를 방문하여 촬영한 아현동 그리스도의 교회 예배당과는 크게 다르다.

윤낙영 목사는 1920년에 세례를 받고 동경성서학원에서 공부하였다. 그는 슬하에 9명의 자녀를 두었다. 해방 후 그는 성낙소 목사의 인도로 '기독교회 선교부' 산하 그리스도의 교회에 합류하였다. 채이스에 의하면, 아현동교회는 좁고 가파른 흙길 언덕에 있었다. 채이스가 방문했을 때, 80여명의 교인들이 2층의 천정이 낮은 두 개의 방을 메우고 있었는데 천정이 너무 낮아 채이스는 상체를 꼳꼳이 세우지 못한 채로 설교를 마쳐야 했다. 1949년 당시 성낙소 목사의 필운동교회가 윤낙영 목사의 생활비를 후원하였다.



서울 아현기독교교회(1936년 3월 22일)

(5) 서울 제5교회

서울성서훈련원에 재학 중이던 임공철이 자신의 작은 집의 칸막이들을 없애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서울 제5교회가 탄생하였다. 서울성서훈련원에 재학 중이던 평화일 양이 서울 제5교회의 여전도사로 섬겼다. <관련사진 118쪽 참고>

## (6) 이인범 목사

<도쿄 그리스도인> 1935년 6월호에 따르면, 이인범은 이미 19세 때부터 설교를 시작하였다고 한다. 한국기술교육대 건축학부 김기주 교수의 글, '20세기 초 4칸(4×4칸) 교회의 평면구성 및 구조 형식에 관한 연구'에 실린 각주 내용을 참고해 볼 때, 이인범은 황해도 곡산사람으로서 (성낙소 목사의 자서전에도 곡산사람으로 나옴) 1917년 경성성서학원에 입학하여 김상준 목사 밑에서 배웠으며, 1920년에 졸업하였다. 졸업 직후 경안교회에 부임하였고 동년에 무교정교회에 부임되었다가 1921년에 강경교회로 오게 되었다. 1924년에는 동막교회로 전근되었다가 1926년에 면직되었다. [이명직, <조선 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 약사>, 1929, 157쪽.] 이 무렵 이원균은 동경 요츠야선교부의 서울 선교기지를 운영하고 있었다.

성결교회에서 면직된 후 일본에 건너와 10여년 가깝게 요츠야선교부 산하 조선기독교교회들의 발전을 위해서 젊음을 불태웠다. 그는 커닝햄이 자신을 '신약성서기독교로 조선을 정복할 여호수아' 혹은 '조선의 알렉산더 캠벨'이라며 열광하게 만든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에 남긴 흔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성결교에는 두 곳이나 남아있다.

한곳은 충남 논산시 강경읍 북옥리 96번지에 남아있는 북옥성결교회당이다. 이 교회당은 초기 한옥교회로써 이인범 전도사가 1922년에 부임하여 1923년에 건축한 대지 92평에 건평 36평으로 지어진 현존하는 유일한 정사각형 한옥교회당이다. 강단을 중심으로 2개의 큰 기둥이 남녀를 구별해 '칸막이'로 예

배드리는 형태이다.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42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감리교회가 1953년에 매입해 예배당으로 사용하다가 원래의 주인인 성결교회 측에서 다시 사들여 보존하고 있다.



이인범 전도사가 1923년에 건축한 북옥성결교회당(등록문화재 42호, 논산시 강경읍 북옥리 96번지)

두 번째 흔적은 인천 송현성결교회(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87-2번지)이다. 이인범 목사가 개척한 곳은 아니지만, 동경 심천조선기독교교회 담임목사로 재직시 요츠야선교부의 한국선교 탐방을 위해서 1932년 8월 1일 한국에 들어왔고, 요츠야선교부의 서울 선교기지의 정삼선 집사가 개척한 이곳에서 8월 21일에 93명에게 침례를 베풀었던 곳이다<1932년 9-11월호>.

1930년대 송현기독교교회(현 송현성결교회)는 인천지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모 교회였고, 선교사 윌리엄 커닝햄, 마이클 셸리, 헛치, 에밀리 보이드 커닝햄, 쉘멜, 오웬 스틸 등이 다녀간 곳이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곳이다. 송현성결교회 교회약력에 초대 담임목사(1930. 07-1932. 09)로 이인범의 이름이 적혀 있으나 실제로는 조선기독교교회 포교책임자였던 박홍순 목사와 성낙소 목사가 관리하였다. 이인범 목사가 이 교회를 처음 알고

방문한 때는 1932년 8월 하순이었다.

이인범은 1926년 성결교에서 면직된 후 일본에 건너왔고, 1927년 8-9월경에 요츠야선교부의 동경 삼하도조선기독교회 선교기지에 투입되었다. 이인범은 커닝햄 선교사에게 신임을 받아 1929년 11월부터 1933년 8월까지 근 4년간 동경 심천조선기독교회를 제1대 담임자로 섬겼고, 1933년 9월부터 1943년 9월까지 만10년 동안(합법적으로는 7년 8개월간) 조선기독교회(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포교책임자로 섬겼다.

이인범 목사는 1941년 초에 선교부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은 죽을 때까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교회가 크게 부흥할 것을 확신한다고 적었지만, 선교부의 후원이 끊긴 어느 시점에 장로교로 넘어감으로써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는 1949년 1월 3일 금산제일교회(충남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 1394)에 부임하여 1951년에 금산(혹은 여산)에서 별세하였다.

## 2) 인천지역 선교사역



정삼선 전도자(1934년)

인천지역의 선교는 서울 제1교회 집사 정삼선이 1931년 전기사업 차 인천에 내려가 전도하고 침례를 베풀으로써 시작되었다. 이 무렵 서울교회는 박흥순 목사가 담임하고 있었고, 1931년 9월부터는 성낙소 목사가 포교책임자로 사역하였다. 성낙소 목사는 1931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서울과 인천을 오가며 교회들을 돌보았다.

인천지역의 첫 교회는 난도교회(선교부의 제15번째)였다. ‘난

도'의 영어명칭 'Nanto' 혹은 'Nando'는 일본어로 '남동'이란 뜻이므로, 당시 이 교회는 경기도 부천군 남동면, 현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쿄 그리스도인> 1933년 3월호에서 이 교회를 제물포 교회로 소개한 점을 봐서도 이 교회가 남동교회였음을 알 수 있다. 성낙소는 1931년 10월에 남도교회에서 9명의 성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고<1932년 1월호>, 이듬해에는 43명에게 침례를 베풀었다<1932년 6월호>. 그러나 이 교회는 성낙소 목사가 이인범 목사에게 직임을 넘긴 이후부터는 소식이 끊겼다.

인천지역의 두 번째 교회가 송현교회(선교부의 제16번째)이다. 인천 송현성결교회의 약력을 보면, 1930년 3월 1일 유진우와 정삼선이 송현동 52번지에 있던 청년회관을 임대하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고, 5월에 '기독교 송현교회,'(정확히는 송현기독교교회)로 개칭하였다고 적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 교회는 서울 기독교회의 정삼선 집사에 의해서 시작되어 일년 이내에 교회로 발전된 그리스도의 교회였다<1934년 11월호>.

<도쿄 그리스도인> 1932년 8월호에 따르면, 성낙소 목사가 1월 1일 이후로 제물포(송현동)에서 18명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매월 세 번씩 주일 오후에 설교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 성낙소는 성인 40-60명이 모여 집회함으로 이 교회를 요츠야선교부의 제16번째 교회로 승격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고, 1932년 4월 9일에 승격된 것으로 추정된다. <도쿄 그리스도인> 1933년 6-7월호가 제물포교회(제16교회)가 4월 9일 1주년을 맞았다고 보도하였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제물포교회 곧 송현기독교교회 혹은 인천 제1교회가 설립된 시점이 이인범이 한국에서 1932년 8월 이후 2개월간 활동하면서 8월 21일 이 교회에서 93명에게 침례를 베풀은 날보다 앞서고, 그가 조선기독교교회 포교책임자로 서울 제1교회에 부임한 1933년 9월보다 훨씬 앞선다는 점이다. 이인범은 제2차 선교탐방 기간이었던 1933년 3월 12일에도 이곳 제물포교회에서 13명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1933년 3-5월호>.

### (1) 송현기독교교회(인천 제1교회)와 성서훈련원



인천 송현기독교교회 담임 신신근 목사(1936년)

송현기독교교회는 인천 제1교회로써 인천에 세워진 다른 세 교회들의 모 교회였다. 설립자 정삼선 집사가 전기사업자였기 때문이었는지 이 교회의 예배당에는 1930년대 입에도 불구하고 전기시설이 되어 있었다.

이 교회에 정식으로 담임목사가 파송된 것은 신신근이 처음이었다. <도쿄 그리스도인>지에 신신근이 인천 제1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사진과 함께 소개된 것은 1936년이 처음이다. 이 때문

에 1934-35년에 촬영된 사진들에서 신신근 목사의 얼굴을 찾아볼 수가 없다. 송현성결교회의 약력에 신신근 목사가 1932년 12월에 제2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고 적고 있으나 이것은 정확한 내용이 아닌 듯이 여겨진다. 1936년에 신신근 목사가 부임하기 전까지 송현기독교교회와 주변에 세워진 선교기지(포교소)들은 성낙소 목사에 이어 이인범 목사의 감독을 받으며 김영배와 정삼선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었다. 김영배와 정삼선은 모 교회인 송현교회를 섬기는 동시에 각각 선교기지를 맡아 관리하고 발전시키고 있었다.

<도쿄 그리스도인>는 송현기독교교회가 땅을 매입하고 1934년 초부터 건축에 들어갔으며, 비용의 대부분을 교회가 감당함으로써 요츠야선교부는 부족한 부분만 채워주었다고 후원자들

에게 보고하였다.



인천 송현기독교회(1934년 5월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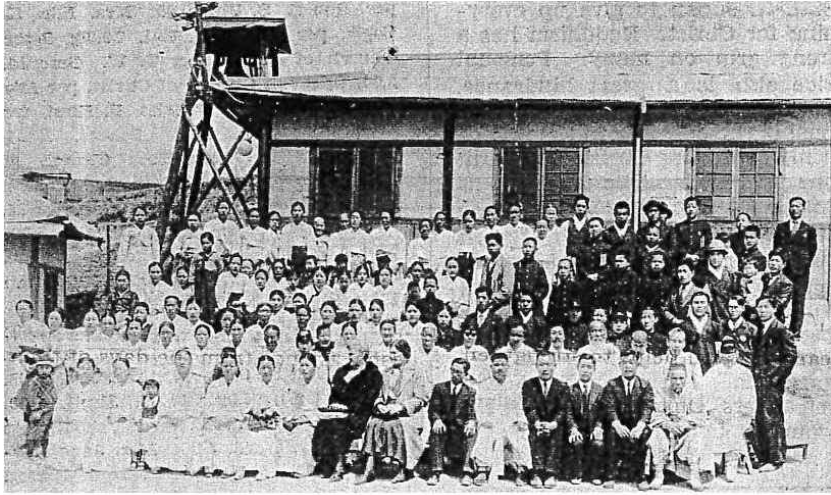
앞줄 좌측에서 세 번째가 김영배 집사, 네 번째 검정복차림이 설립자 정삼선 집사(전도자)이다. 정집사는 서울기독교회 출신이며, 1931년에 제주도에 내거와 전기시업을 하면서 전도하여 교회를 조직하였다. 그 때문이었는지 인천송현기독교회 예배당에는 전기시설이 되어 있다.



커닝햄 선교사가 소헌 3개월 전 헛치 선교사와 함께 방문했던 인천송현기독교회(1936년 3월)

교회와 선교기지(포교소)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더는 목회자를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신신근 목사가 부임한 1936년에 제1교회(송현동)에 교인이 100여명, 제2교회(유동)에 30여명, 제3교회(금곡동)에 20여명<1936년 12월호>이나 되었기 때문이다. 선교사들은 신신근 목사가 비록 체구는 왜소하지만 확고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소개하였다.





인천 송현기독교회(1937년 4월)  
 동탕이 새로 세워졌다. 슈멜 양 열자의 왜소한 사람이 담임목사 신신근이다.

신신근 목사가 부임한 1936년에 송현기독교회(인천 제1교회)에 성서훈련원이 개설되어 주 4회 야간에 한 시간씩 성서교육이 실시되었다. 이 때 학생이 16명이었고, 김영배 전도자, 신신근 목사, 박사은 집사가 가르쳤다.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인천 송현기독교회와 평북 구성군 방현기독교회에 유치원이 세워져



인천(송현)기독교회 신학교 창립기념(1936년 10월 5일)  
 앞줄 중앙이 토마스 헛치, 헛치 우측이 김영배, 헛치 좌측부터 이인범(어린이), 담임목사 신신근

있었다. 송현기독교회 유치원에 등록 어린이가 170명이나 되었다.

194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종교법에 따라 한국선교를 지속할 수 없었던 요츠야선교부는 임대건물에 세 들어 있는 8개 교회들에게 1941년 치 임대료를 한 묶에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신신근 목사에게도 같은 액수를 보냈다. 송현기독교회는 이때까지도 목사 사택임대료를 지원받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 송현기독교회 주일학교 학생들(1939년, 담임목사 신신근)

송현성결교회의 약력에 따르면, 신신근 목사는 1946년 12월 2일에 소천하였으며, 그로부터 8일 만인 1946년 12월 10일에 송현기독교회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로 재건되었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요츠야선교부에서 일한 한국인 사역자들의 상당수는 경성성서학원 곧 성결교 출신들이었고, 요츠야선교부와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후임자가 성결교 출신으로 결정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결교단은 일제 때 폐쇄되었다가 해방 후 재건되었는데, 송현기독교회가 그 때 성결교회로 재건된 것으로 여겨진다. 일제의 탄압과 태평양전쟁으로 인해서 요츠야선교부의 후원이 끊긴지 불과 5년 만에 생긴 가슴 아픈 사건이다.

## (2) 유동기독교회(인천 제2교회)



김영배(인천2교회)

유동기독교회는 인천 제2교회로서 김영배 전도자가 선교기지로 개척하여 교회로 발전시켜 1936년 6월에 담임 목회자로 부임하였으나 일제의 종교법 시행이후 송현기독교회에 통합되었다. 송현성결교회 약력은 1943년 5월에 금곡동교회와 유동교회가 일제탄압에 의해 본교회로 병합하였다고 적고 있다. 더 엄격하게 말하자면, 일제의 탄압으로 선교후원이 끊긴 상황에서 태평양 전쟁까지 겪었던 극난의 시기에 교인들이 목회자들의 생활을 책임질 형편이 못되었고, 대부분의 미자립 소규모 교회들은 탄압을 피해 모임을 폐하고 지하로 숨는 것만이 살길이었다. 이 때문에 커닝햄의 요츠야선교부 산하의 다수의 교회들은 물론이고 채이스의 기독교회 선교부 산하의 교회들도 모임을 폐하고 지하로 숨어 지내다가 해방 후 재건되었거나 목회자들이 사역을 포기 또는 타 교단으로 옮긴 경우들이 많았다. 이 과정에서 소수의 목회자들이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로 복귀하였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신사참배, 동방요배, 일본기독교조선교단 가입 등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다수의 목회자들이 끌려가 고문을 당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목회를 포기하거나 할 수 없었던 사례들이 있었다.



김영배 전도자가 선교기지를 세워 교회를 발전시킨 인천유동기독교회(1933년)

유동기독교회 담임자였던 김영배 전도자는 1932년부터 요츠



김영배 전도자가 개척한 유동(Yanagicho)기독교회 주일학교(1936년)

야선교부의 후원을 받으며, 성낙소 목사와 함께 서울기독교회를 섬겼다<1932년 5월호>. 이후 김영배는 1935년 3월 24일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최초의 선교사였던 마이클 셸리 가족과 함께 송현기독교회 앞에서 촬영된 단체사진에 셸리의 통역으로 인천에 등장하였다. 이후 김영배는 유동교회의 목회자로서뿐 아니라, 한국을 방문한 선교사들의 통역으로서 또 한국인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의 서신들을 번역하는 사역가로서 활동하였다.



인천 유동기독교회 성경공부반(1937년 4월 11일)  
좌측 끝이 김영배 전도자, 그 옆이 에밀리 보이트 커닝햄 여사와 슈멜 양

김영배 전도자는 송헌교회와 관련된 기독교학교에서 매주 6일간 하루에 2시간씩 가르치면서 주일에 유동교회에서 두 번 설교하였고, 규모가 큰 일요(주일)학교를 관리하였으며, 또 저녁에는 성서훈련원에서 가르치거나 집회를 인도하는 일들로 바쁘게 일하였다. 또 김영배는 149명이 다니는 초등학교의 설립자이자 교장이었고, 3명의 교사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앞에 언급된 기독교학교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1937년 7월호>.

<도쿄 그리스도인> 1936년 12월호에 따르면, 김영배는 동경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중국 상해 성요한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또 1938년 사역자들 소개에서는 김영배가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라고 적었다. 선교사 켈리는 김영배가 공립학교 교사라고 하였고, <도쿄 그리스도인>은 그가 월 100엔의 급여를 받는 교사직을 포기하고 요츠야선교부의 사역자가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 (3) 금곡동기독교교회(인천 제3교회)



인천금곡동기독교회를 개척시위한 정삼선 전도자(1937년) 서울기독교회 출신으로 인천송헌기독교회를 시작하였다.

금곡동기독교회도 유동기독교회와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어 교회로 발전된 곳이다. 송헌기독교회의 창립자인 정삼선 전도자가 개척하고 1936년 5월에 부임한 곳이다. 정삼선 전도자는 요츠야선교부의 후원을 받지 않고 예배당을 건축하였다.

정삼선 전도자는 처음 인천에 전기사업자로 내려갔으나 전도자로 헌신하였고, 1938년에 시작된 서울성서훈련원을 인천에서 서울까지 46마

일(약 74km)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매일 출석하여 1940년에 졸업하였다.

송현성결교회 약력은 1943년 5월에 금곡동교회가 유동교회와 함께 일제탄압에 의해 본교회로 병합하였다고 적고 있다. 또 1945년 11월에 인천 송학동 소재 일본 감리교회를 인수하여 정삼선 목사, 유진우 장로(인천 제1교회 창립멤버), 조의환, 유효식, 진순애 집사의 70여명의 성도를 파송하여 교회를 개척하였고, 후에 제일 장로교회가 되었다고 적고 있다.



인천금곡동기독교회 유년주일학교(1937년 4월 11일)  
중앙의 두 외국인은 커닝햄 부인과 슈멜 양, 우측이 정삼선 전도자

#### (4) 인천 제4교회

인천 제4교회는 서울성경훈련원 학생인 임전식이 1939년 4월에 개척하여 담임으로 부임하였으나<1940년 11월호>, 1940년 말에 선교부는 일제의 종교법이 발효됨에 따라 선교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 교회는 자연스럽게 흩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 3) 평안북도지역 선교사역



임전식 전도사(이원준 제4교회, 1940년)

1924년부터 1927년까지 서울에 선교기지(포교소)를 세우고 자리를 잡아 발전하는데 기여했던 이원준이 1927년 중반까지 서울 선교기지를 섬기다가 사임하고 중단했던 신학을 마치기 위해서 경성성서학원에 들어가 공부하였다. 이원준이 학업을 마치는 동안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던 요츠야선교부는 이원준을 평북 구성으로 파송하였다. 성

낙소 목사가 <자서전>에서 자신이 1931년 10월부터 1933년 8월 사이에 조선기독교 포교책임자로 사역할 때 구성에 교회를 세웠다고 진술하였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이원준이 그곳에 파송을 받았는지, 아니면 이원준이 방현면에 세운 교회를 포교책임자였던 성낙소 목사가 방문하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자신이 포교책임자였던 시기에 구성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언급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이원준 목사가 평북 구성군 방현면에 들어간 것은 성낙소가 포교책임자였던 시기인 1932년 말 혹은 1933년 초였다. <도쿄 그리스도인> 1933년 7월호는 이원준이 구성에 파송된 지 채 일 년이 되지 않았다고 했고, 1936년 2월호에서는 구성에 신약성서교회 복음이 들어간

때가 1933년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이원균 목사는 1937년 자녀교육을 위해서 동경 삼하도 조선기독교교회로 자리를 옮길 때까지 4년 반 정도 기간에 구성군에 2개(방현, 오봉), 정주군에 2개(용포, 근담), 황해북도 중화군(대류)에 1개, 신의주에 1개 교회, 선교기지 10개<1935년 10월호>를 세우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 (1) 구성군 방현기독교교회



자전거 선물을 받은 이원균 목사(1934년 12월 13일)

방현기독교회는 이원균 목사가 1933년 초에 개척하여 1937년까지 시무한 요츠야선교부 산하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 가운데 가장 큰 교회였고, 평북지역에 세워진 6개 교회들의 모 교회였다. 이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부자가 다 내과의사인 채(Y. D. Cheh) 원로장로와 채(R. R. Cheh) 시무장로가 있었고, 부목사, 여전도사, 장로 3명, 집사 10명, 교인 170여명, 유치원이 있는 탄탄한 교회였다. 자체 예배당 건물과 유치원 건물, 사택을 보유하고 있었

다.

방현(芳峴)은 일본 말로 '호겐'(Hoken)이라 불렸으며, 인구 4,000여명이 사는 구성군의 방현면 면소재지에 교회가 있었다. 그러나 이곳은 외국인의 발길이 전혀 단지 않았던 외진 곳으로써 정주역에서 내려 버스로 25킬로미터 정도 가야하는 거리에 위치하였다. 커닝햄, 히치, 에밀리 보이드 커닝햄과 쉘렐, 오웬 스틸 등이 이곳을 방문하였고, 1940년에 오웬 스틸이 방문하였



을 때는 체육회가 열리는 때였는데, 전 주민의 관심이 스틸에게 쏠림은 물론이고 일경의 눈초리까지 받아야 해서 자리를 피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였다<1940년 9월호>. 이때의 충격을 오웬 스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방현을 방문했을 때 체육회가 열렸는데, 아이들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 심지어 일경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일경들이 의식을 큰 소리로 진행시켰는데, 체육회는 황국신민서사의 낭독과 제창 및 동방요배로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경찰까지도 백인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 현장을 떠나야 했다. 방현은 4,000여명이 사는 면소재지였다.

스틸이 목격한 의식은 정확히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1)국가합창(일본국가 기미가요), 2)동방요배(일왕이 사는 곳을 향한 궁성요배), 3)전사 장병 묵도, 4)황국신민서사 낭독, 5)식사(武辭), 6)천황폐하 만세 삼창.

일제는 1937년부터 공식화된 ‘황국신민의 서사’를 모든 조선인들에게 암기, 제창하게 하고 출판되는 모든 서적에도 반드시 실을 것을 강요하였다. 동방요배는 이미 191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1942년 이후 군국주의 정책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는 각 교회들이 예배 시작 전에 동방요배를 하라는 강요를 받았다.



평북 방현기독교회 1935년 4월 21일

담임목사의 사례비는 방현교회와 선교부가 절반씩 나눠서 책임을 졌다. 원로장로 채(Y. D. Cheh) 의사는 이원균의 활동에 고무되어 구성에 선교사가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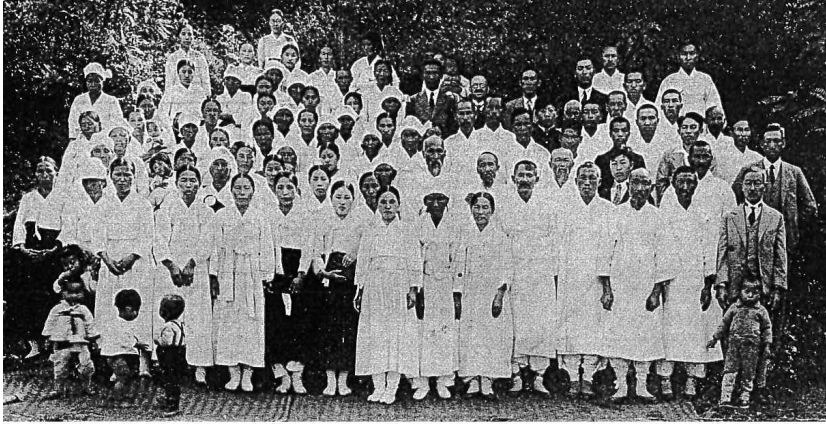
이원균 목사가 성장한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동경 삼하도조선기독교회로 자리를 옮겨감에 따라<1937년 1월호> 48세의 김성산 목사가 1937년 4월 제2대 목사로 부임하였다<1937년 6월호>. 그러나 김성산 목사가 방현교회에서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하자<1937년 12월호> 주정국 목사가 제3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1938년 4월호>.



평북 구성군 방현기독교회 제2대 목회자 김성산(1937년)



평북 구성군 방현기독교회는 이원균 목사가 개척하여 성장시켰으며, 요즈음 선교부 내에서 가장 컸다. 우측 건물은 600명이 앉을 수 있는 본당(1935년)이며, 좌측은 유치원 제1회 졸업기념사진(1935년 3월 23일)이다. 유치원은 구 예배당 건물에서 운영되었다.



평북 구성군 방현기독교회 일부 성도들(1936년, 교인 173명, 장로 3명, 집사 7명). 헛치(헛돌 중앙) 좌측이 이원관, 헛치 우측이 김영배(통역)와 이인범이다. 우측 양복차림의 두 사람이 내과의사 가족 장로들로 추정된다.

## (2) 구성군 오봉기독교회

오봉기독교회는 방현기독교회의 선교기지(포교소)로 출발하여 <1933년 10월호> 1933년에 땅을 매입하고 1934년에 건축하여 설립된 교회였다<1934년 6월호>. 방(H.C. Pang 평지도 부임) 목사가 부임하였으나<1933년 10월호> 그가 신구약성서가 동일하다고 집요하게 고집함으로 요츠야선교부는 그를 해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후임으로 장신주 목사가 부임하였고, 교인 50명에 장로들이 있었지만, 오르간이 없었다. 1935년 4월에는 부지를 더 확보하였다<1935년 6월호 및 11월호>. 오봉



평북 구성군 오봉기독교회: 담임목사 장신주(1936년)와 예배당

은 일본말로 ‘요호도’(Yohodo)로 불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평북 오봉기독교회 1934년 2월 24일

### (3) 구성군 평지동기독교회

평지동기독교회는 평북 구성군 서산면 평지동에서 20여명이 모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여 세워진 곳이다. 이용섭이 목회자로 부임하였다.

### (4) 정주군 용포동기독교회

평북 정주군 고현면 용포동에 세워진 기독교회로서 윤형구 과부집사가 기증한 마을 언덕의 큰 부지에<1935년 11월호 2면> 작은 예배당을 1934년에 지었다<1935년 6월호>. 류(W. K. Ryu) 목사가 부임하여 섬겼으며, 그는 부임 중에 오봉교회의 박(K. E. Pak) 장로의 딸과 결혼하였다.

용포동기독교회는 교인이 50명이었고, 1935년 4월 7일에는 김규련 집사가 장로로 장립되었지만<1935년 6월호>, 오르간이 없었다. 1935년에 예배당을 새로 건축하였는데, 건축비용의

3분의 1을 선교부로부터 지원받았다<1935년 11월호>.



평북 정주군 고현면 용포동기독교회: 건축부지를 기증한 윤형구 집사(1935년)와 예배당  
 <도쿄 그리스도인> 1937년 5월호에 따르면, 에밀리 보이드 커닝햄과 쉘멜 양이 구성지역의 교회들을 순방하였는데, 숙식문제보다 더 어려운 점이 교통문제였다. 그 때의 사정을 커닝햄 부인은 다음과 같이 적었다.

방현기독교회를 방문하여 예배를 드린 후 주변 교회들을 순차적으로 순방하려했지만, 교통수단과 도로사정에 일기까지 받쳐주지 않았다. 결국 오봉기독교회의 담임목사와 집사들이 20여리(6마일)가 넘는 눈길을 걸어서 유기를 선물로 들고 방문해 주었다. 이번에는 방현(Hoken)에서 버스를 타고 용(룡)포에 가려했으나 두 번이나 버스가 만원이어서 포기하고 말았다. 그러자 용포기독교회 집사이자 버스노선 주인이 택시를 대절하여 가지고 와서 용포기독교회를 방문할 수 있게 해주었다. 택시에서 내려 예배당까지 가는 길이 질퍽거리는 자갈길이어서 용포기독교회가 가마를 가져왔으나 커닝햄 부인은 타기를 거절하였다. 용포에서는 윤형구 과부집사의 집에 머물렀다. 교회는 윤 집사의 집에서 가까운 언덕에 있었다. 교회에 건축 부지를 기증한 윤형구 집사는 과부로서 긴 단칸방에 부엌이 딸린 허름한 집에 살면서 경건한 삶을 영위하였다. 잠은 윤집사의 단칸방에 칸막이를 하고 선교사들과 여자 신도들이 나눠졌는데, 서양여자들을 처음 보는 여신자들의 호기심이 대단하였다.

커닝햄이 소천하던 해인 1936년에 만들어 배포한 달력에 이 윤형구 과부집사의 경건한 모습의 사진이 담겼다.



평북 정주군 고현면 동포동기독교회의 김규현 장로 장립식기념(1935년 4월 7일)

(5) 정주군 근담동기독교회

평북 정주군 관주면 근담동의 선교기지였다<1936년 4월 호>.



평북 정주군 관주면 근담동 선교기지(1935년 9월)

## (6) 정주군 약수포기독교교회

약수포기독교교회는 10여명이 모인 곳으로 집사인 호텔주인에 의해서 여름휴양지에 지어졌으나 여름에는 교회에서 모이고, 겨울에는 집사의 집에서 모였다. 담임목사는 없었다<1938년 11월호>.



방현기교회의 장로 최성진(1937년)  
평북 정주군 용포동기독교교회와 문인동기교회를 섬겼다.

## (7) 정주군 문인동기 독교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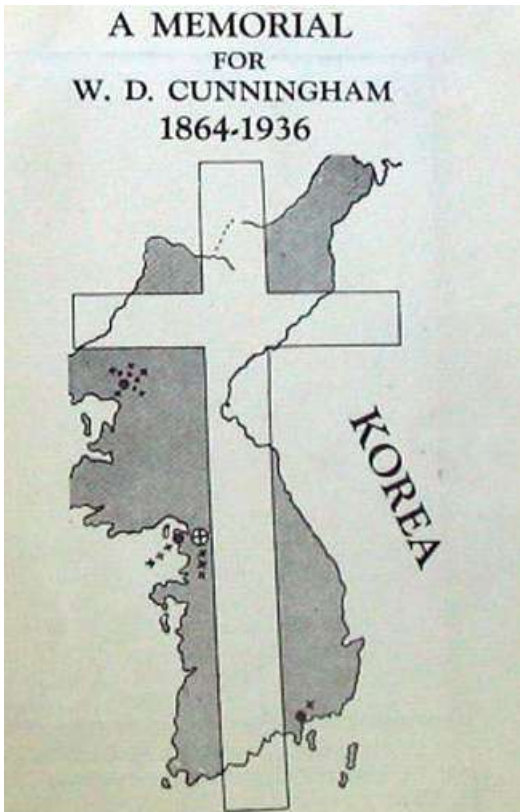
문인동기독교교회는 평북 정주시 옥천면 문인동에 세워진 교회로서 교인 30여명이 모였다. 접근이 쉽지 아니한 곳에 위치하였지만, 이곳에서 두 명이 서울성서훈련원에 입학하였다. 최성진 장로가 담임하였다.

## (8) 신의주기독교교회

김명철이 신의주에서 매주 3번 예배를 인도하였다. 동경 심천조선기독교교회를 섬겼던 주정국 목사가 신의주기독교교회 설립을 위해서 선교부에 모금을 요청하였다<1938년 11월호>. 또 1939년에 방현기독교교회에서 장로들 가운데 한 분을 보내 그의 집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가 떠난 후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모르는 이들이 이끌어갔다.

(9) 평안남도 중화군 동두면 대류리기독교교회

이원균 목사에 의해서 1933년에 평안남도 중화군 동두면 대류리에 세워진 교회였다<1934년 12월호>. 장로 1명, 집사 3명이 선출되었고, 채(K. P. Cheh) 목사가 부임하여갔으며, 건축도 이뤄졌으나<1935년 1월호> 중도에 선교부와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인다.



윌리엄 D. 커닝햄 선교사를 추모하는 한국지도  
 한반도 지도 속의 별 표시들은 일본 요츠야선교부가  
 평북 구성, 서울, 인천, 마산 지역에 세운 교회들

소개한바와 같이 북한에 9개의 교회들이 세워졌거나 세워져가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3개는 요츠야선교부가 교회숫자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선교부가 후원을 중단한 1941년 초까지 한국에 세워진 교회가 17개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이들 가운데 미자립교회들은 후원이 끊긴 일제 말에 흩어졌을 것이고, 방현기독교회와 같은 자립교회들은 공산화이후 폐쇄 당하였을 것이다.



## (10) 이원균 목사

이원균牧사는 김갑수牧사가 쓴 <한국침례교 인물사>(요단출판사, 2007)에 실릴 만큼 침례교단에서는 유명인사이다. 그는 1887년 함경도 북청에서 태어났다. 그는 38살 무렵에 일본 동경에서 요츠야선교부의 윌리엄 커닝햄 선교사를 만나 알게 되었고, 1924년 10월 박제곤 대신에 서울선교기지(포교소)에 파송되어 1927년 중반까지 섬기다가 사역을 중단하고 수년전에 중단했던 신학을 마치기 위해서 경성성서학원에 들어가 공부하였다. <도쿄 그리스도인> 1934년 2월호에 따르면, 이원균은 신학을 마치는 동안 요츠야선교부로부터 경제적인 후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신학을 마친 이원균은 요츠야선교부로부터 1932년 말 혹은 1933년 초에 평북 구성에 파송을 받았다<1933년 7월호 및 1936년 2월호>. 이후 이원균牧사는 1937년 자녀교육을 위해서 동경 삼하도조선기독교교회로 자리를 옮길 때까지 4년 반 정도 기간에 구성군에 2개, 정주군에 3개, 신의주에 1개 교회를 세우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이원균이 동경 삼하도조선기독교교회에 재직할 당시에는 선교부의 주목을 크게 받지 못하다가 1941년 1월 21일 일본인 목회자들 4명과 이성영 심천조선기독교교회 목회자와 더불어 선교부의 강경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기독교단’이란 통합교단에 가입하기로 가결시켰다<1941년 4월호>. 그러나 이때는 해외로부터의 선교후원을 금지한 종교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었고, 실제로 그 법은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로써 이성영과 이원균에게 주어지던 선교부의 후원은 중단되었고, 동포들이 조국으로 귀국하거나 흩어짐으로써 생활이 어렵게 되어 귀국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귀국 후 이원균이 평북 구성으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 무렵 선교사들은 모두 본국으로 철수하였고, 일본과 한국의 교회사정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도쿄 그리스도인>

에서조차도 일체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한국침례교 인물사>에서는 이원균이 1955년 침례교단으로 이적하기 전까지 평양신학교 이사장과 예수교 장로회 함남 노회장을 역임한 것으로 적고 있다.

이 무렵에 이원균은 <율법과 복음>이란 책을 펴냈는데, 이 책은 비교파 신약성서기독교를 위해서, 윌리엄 커닝햄 선교사로부터 한국의 갈렙 또는 한국의 발톤 스톤 혹은 알렉산더 캠벨이라 불리며, 20여 년간 헌신한 자신의 사역들에 대한 배신의 글이었으며, 알렉산더 캠벨이 1916년 9월 1일 레드스톤 침례교협의회(Redstone Baptist Association)에서 행한 ‘율법에 관한 설교’와는 상반된 내용이었다. 결과적으로 이원균은 비교파 신약성서교회에서 침례교단으로, 알렉산더 캠벨은 침례교단에서 비교파 신약성서교회로 자리바꿈을 함으로써 피차 상반된 길을 걸었다.

이원균 목사는 1955년 침례교로 이적하여 부산 충무로침례교회를 담임하였다. 침례교 총회에서 두 차례 교육부장을 역임하였고,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대한침례신학교에서 가르쳤으며, 1966년에는 신학교 교장으로 봉직하였다. 이원균 목사는 1969년 12월 6일 향년 82세의 일기로 소천하였다.

이원균 목사는 성결신학,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 장로교 신학을 거쳐 결국 침례교단에 안착하였다. 그리스도의 교회와 침례교회는 칼뱅주의를 빼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하고, 그리스도의 교회처럼 펜윅도 교파명이 아닌 ‘기독교회’란 명칭을 고집하였으므로 많이 닮아 있었다. 이원균 목사가 펜윅의 가르침을 받고 “고민하던 의문점들이 하나씩 풀려지면서 가슴이 후련해졌다”고 하였지만, 펜윅 선교사는 침례교회를 세운바가 없고, 그가 한국에 세운 교회들도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침례교회가 아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원균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가르침과 달리, 그의 <율법과 복음>이란 책의 저술에서 보듯이, 어느 정도는 칼뱅주의에 경도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4) 경상남도 지역

##### (1) 마산기독교회



마산기독교회의 김태희 목사(1936년)

<도쿄 그리스도인> 1935년 7월호에 따르면, 이인범 목사는 대구를 방문하였고, 이듬해 1936년 4월호에서는 마산기독교회와 담임 김태희 목사(당시 57세)가 소개되었다. 이 무렵 마산기독교회의 교인은 30명이었으나 1936년 말에는 49명으로 늘어났다. <도쿄 그리스도인> 1939년 4월호에 따르면, 마산기독교회에 송송기 목사가 담임으로 부임하였고, 대신 김태희

목사는 새로 세워진 대구기독교회를 맡아 옮겨갔다.



마산기독교회



마산기독교회(1937년)

앞줄 우측부터 김태희 목사, 심멜 양, 커닝햄 부인, 통역 김영배 전도사

## (2) 대구기독교회

대구기독교회는 건물을 임대하여 1938년 7월 31일에 시작되었고, 마산기독교회를 담임하였던 김태희 목사가 파송되었다.

### 4. 요츠야선교부의 태평양 전쟁 전후 조치들

요츠야선교부는 1941년 4월 1일 종교법이 시행된 이후 본국으로 철수하여 <도쿄 그리스도인>을 계속해서 발간하였으나 1947년에 입국비자가 나와 복귀할 때까지 요츠야선교부는 일본교회이든 한국교회이든 교회들에 대한 언급을 일체 하지 않았다. 이뿐 아니라, <도쿄 그리스도인>은 1944년부터 잠정적으로 <그리스도인 지평>(Christian Horizon)이란 새로운 이름으로 발행되었다. 1946년 7월호부터 다시 원래의 이름인 <도

교 그리스도인>으로 발행을 시작하였다. <그리스도인 지평>으로의 발간과 동시에 요츠야선교부는 재단법인 커닝햄선교부로 개명되었다.

### 1) 일본의 기독교회들

일본 교회들은 1941년 6월 24일 일본 후지미 마찌 교회(富士見町教會)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일본기독교단’이란 이름으로 통합되었다. 요츠야선교부 산하의 일본인 교회들 가운데 동경 제1, 4, 5교회들을 빼 나머지 4개와 조선인교회 2개가 교단통합에 참여하였으나 전쟁 중 연합군의 포격으로 모두 파괴되고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다. 오히려 통합에 반대했던 제4교회만이 건재하게 살아남았으며, 담임목사 신한유는 강제 징집되어 6년간 중국에서 복무하다가 전후에 귀국하였다. 교회를 끝까지 지켜낸 신한유의 부인은 교단통합에 참여한 목회자들로부터 강한 탄압을 받았다. 신한유 목사가 강제 징집되어 중국으로 보내진 것을 보면, 일본기독교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목회자들에게, 한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탄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후 선교사들이 일본이든 한국이든 빨리 들어올 수 없었던 이유는 이들 국가의 사회가 안정될 때까지 미군정에서 입국비자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츠야선교부에서 일본에 가장 먼저 들어온 선교사는 오웬 스틸이었다. 그는 1947년 2월 14일 일본에 돌아왔다<1948년 5-6월호>. 부인 설리는 5월 31일, 딸 루스는 1947년 9월에 합류하였다. 에밀리 보이드 커닝햄은 6월 14일에 도착하였다. 이듬해 1948년 초에는 이미 일요학교가 15개로 늘어났고, 선교부의 재산도 모두 환속시켰다. 그러나 일부 무단으로 팔려버린 재산을 찾는 데는, 서울 송월동 선교부 재산을 되찾는 데 수년이 걸렸듯이, 긴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었을 것이다.

선교사들이 돌아왔을 때, 생존해 있었던 교회는 동경 제4교회 하나뿐이었다. 조선인교회들 가운데는 삼하도조선인기독교회가

복구되었고, 지금까지 동경복음교회(초교파)로 남아있다. 동경의 일본교회들 가운데 복구된 곳은 제5교회뿐이다.

## 2) 동경선교성서신학교

커닝햄 선교사 생존 시에는 별도의 신학교가 없었다. 동경에서 성서훈련학급(Bible Training class)이 운영되기 시작한 것도 커닝햄 사후에 이뤄졌다. 따라서 요츠야선교부에는 항상 사역자 수급에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경에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을 위한 야간학교가 시작된 것은 1939년 11월 13일이었다. 이 사업을 위해서 동경 제1교회에서 1939년 11월 5일에 학교설립모임을 가졌다.

1941년 4월 1일 이후 종교법이 시행됨에 따라 선교사들은 모두 본국으로 돌아갔고, 동경 성서훈련학급은 더 이상 열리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5년만인 1947년에 일본에 복귀한 선교사들이 신학교 설립을 추진하였고, 이듬해인 1948년 4월 10일에 야 비로소 ‘동경선교성서대학’(Tokyo Mission Bible College)이란 이름으로 첫 학기가 시작되었다<1948년 5-6월호>.

## 3) 한국의 기독교회들

한국에 세워진 17(19)개의 교회들은 194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일제의 종교법에 따라 더 이상의 해외후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에 요츠야선교부는 한국교회와 사역자들에게 주던 후원을 1941년 한해 치를 한 뭉에 앞당겨 지불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기금은 1936년 이후 모아뒀던 커닝햄 한국기념기금에서 충당하였다.

이 무렵 요츠야선교부는 한국인 목회자들에게 7.50달러에서 15달러를 매월 지급하였다. 여전도사들에게는 1.15달러에서 5.75달러를 지급하였다. 이에 더해서 자체 건물이 없는 교회들에게는 임대료를 지원해왔다. 임대료는 매월 평균 4.50달러였

다. 그리고 선교기지의 임대료 또한 선교부가 모두 지원해왔다.

이에 선교부는 1940년 11월 28일자로 한국 사역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냈다.

형제에게,

형제와 형제의 가족이 모두 무고하리라 믿습니다.

11월 23일 토요일 열린 선교사들의 모임에서 현 상황들과 일본과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1941년 3월 31일이후로는 해외재정지원을 거부해야한다는 잘 알려진 사실 때문에 모든 한국인 사역자들의 급여를 1941년 1월부터 매월 25퍼센트씩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교회들과 선교기지들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선교부에서 형제에게 지불하는 급여가 1월에 00엔, 2월에 00엔, 3월에 00엔이 될 것이란 뜻입니다. 3월 이후부터는 선교부로부터 급여든 임대료든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의 마음은 정말 슬프습니다.

형제가 한국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해 온 것은 우리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그간 해온 사역을,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한국에서 매우 빠르게 또 매우 성공적으로 성장해 온 장로교회들은 오랜 기간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목회자들과 여전도사들의 사례비를 지불해왔고, 그들 자신의 예배처소들을 마련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도들이 장로교회들만큼이나 그들의 교회들에 충성하고 사랑하리라고 믿습니다.

커닝햄 부인과 요츠야선교부의 한두 명의 선교사들은 일본에서 지속적으로 사역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과 자매된 한국인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형제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신실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우리가 한국의 교회들을 경제적으로 도울 수가 없어서 서로의 사랑을 중단하고, 우리가 모두 같은 위대한 그리스도의 교회의 구성원이란 사실을 잊으려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죽을지라도 그리스도께 대한 신실함에서 떠나는 그 어떤 일도 없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서신을 보내주십시오. 주님께서 형제와 한국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복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동일한 편지가 한국의 다른 사역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우송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에밀리 B. 커닝햄, 오웬 스틸, 폴 닐슨(Paul Nielsen), 마르시아 닐

슨(Marcia Nielsen).

<도쿄 그리스도인> 1941년 2월호에 위의 서신에 대한 한국인 사역자들의 답신이 요약되어 실렸다.

이인범 목사(서울 제1교회, 조선기독교회 포교책임자)는 교회가 임대료로 28엔, 사례비로 10엔을 지불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자신은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일주일에 4일간 일하고, 3일간(수, 토, 일)은 교회를 섬기겠다고 밝혔다. 죽을 때까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크게 부흥하리라고 확신한다고도 했다. 그리고 서울 제3교회의 김상익 목사에게 일 년치 임대료 200엔과 서울성서훈련원의 월동비 30엔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신신근 목사(송현기독교회)는 송현기독교회의 여집사 한 분이 제4교회를 위해 그녀의 집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수리비로 200엔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정삼선(인천 금곡동교회) 전도자는 교회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희생을 감수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하였다. 나중에 그의 교회는 유동교회와 더불어 송현기독교회에 통합되었다.

오곽은 전도자(대구교회)는 비록 목회자는 생활이 궁핍해질지라도 전처럼 예배장소만은 가질 수 있도록 임대료를 해결해 주면 좋겠다고 적었다.

김상익 목사(서울 제3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으나 임대료가 문제라고 했다. 그는 임대료만 해결되면 어떻게든 교회를 꾸려가겠다고 도와줄 것을 부탁하였다.

최성진 장로(문인동교회)는 교회가 약해서 걱정이지만, 세상 끝까지 신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송종숙 목사(서울성서훈련원)도 자신의 이력을 소개하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들 편지를 받은 후 선교사들은 8개 교회들의 1941년 임대료를 앞당겨서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신신근 목사에게도 같은 액수를 보내고, 최성진 장로에게도 100엔을 보내기로 하였다.



최성진에게 보내는 돈은 사택 지을 땅 구입금액의 일부와 생활 비로 보낸 것이고, 또 다른 교회의 건축완공을 돕기 위해서 100엔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1936년부터 모은 커닝햄 한국기념기금에서 충당하기로 결정하였다. 그간 모아진 돈은 2691.19달러였다.

그리고 <도쿄 그리스도인> 1941년 5월호에 이난기 목사가 요츠야선교부의 오웬 스틸 선교사에게 보낸 편지가 실렸다.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도쿄 그리스도인>에 한국교회에 대한 언급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요츠야선교부는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한국의 장로교회들 처럼 자립의 길을 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또 선교부는 이난기 목사가 그 본보기가 될 수 있다면서 그의 이야기를 소개하였다. 이 무렵 이난기 목사는 회갑을 갓 넘긴 목회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요츠야선교부에 보낸 편지는 매우 고무적인 본보기로 여겨졌던 것 같다. 내용인즉, 요츠야선교부는 이난기에게 190엔을 미리 보냈고, 교회가 700엔을 마련하여 예배당 매입가격으로 2월에 400엔을 그리고 3월 14일에 490엔을 이인범에게 지불함으로써 빚을 모두 다 갚고 예배당을 구입할 수 있었다는 것과 9개월 치 임대료를 한 묶에 보내줘서 고맙다는 인사였다. 또 교회는 자신에게 사례비로 매월 20엔을 주고,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지만, 자신은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썼다. 이난기 목사는 이 약속을 지켰다.

요츠야선교부에서 일했던 한국인 사역자들이 해방이후 채이스 선교사와 다시 손을 잡고 일한 사람은 김문화 목사, 성낙소 목사, 용산교회의 이난기 목사, 아현교회의 윤낙영 목사뿐이었다.

## 5. 한국에서 활동한 초기 선교사들

### 1) J. 마이클 셸리(J. Michael Shelley) 가족



마이클 쉘리(J. Michael Shelley) 선교사 가족(1935년)

한국에 최초로 파송된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사로서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안 요츠야선교부를 후원하였으며, 선교사로 오기 직전에 실행위원이었다.

<도쿄 그리스도인> 1933년 11월호에 따르면, 쉘리는 캘리포니아 주 코로나(Corona) 교회를 사임하고 오리건 주 유진(Eugene)으로 이주하였고, 요츠야선교부의 실행위원회 위원으로 봉사하였다 <1934년 1월호>. 캘리포니아 주 코로나 교회는 홀리스터 밀러(Hollister B. Miller)가 쉘리를 이어 목사가 되었으며, 삼하도 조선기독교회 이(C. H. Lee) 목사를 후원하였다.

<도쿄 그리스도인> 1934년 3월호에 따르면, 한국에 파송될 선교사 모집에 세 목사 가족들이 지원하였는데, 그 가운데 한 가족이 마이클 쉘리(J. Michael Shelley) 가족이었다. 쉘리는 1934년 1월 16일부터 한국에 들어갈 준비를 착실히 하였다. 그러나 경제대공황시기여서 모금이 쉽지 않았다. 그리고 이들 지원자들 가운데 실제로 한국 땅을 밟은 가족은 쉘리 가족뿐이었다.

쉘리 가족은 1935년 2월 21일 샌프란시스코 항에서 대요마루(Taiyo Maru)호를 타고 요코하마 항구에 3월 10일 도착하였다 <1935년 4-5월호>. 쉘리 가족은 동경에 도착하여 커닝햄의 집에 3월 18일까지 머물며 요츠야선교부의 활동을 견학하였다.

마이클 쉘리(J. Michael Shelley)는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로서 한국에 최초의 선교사로 오기 수년 전부터 선교사가 되기를 꿈꾸며 요츠야선교부를 적극 후원하고 있어서 그의 이름을 <도쿄 그리스도인>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도쿄 그리스도인>

두 곳의 일본인 교회와 한 곳의 한국인 교회를 방문하였고, 두 곳에서 설교하였다. 요즈야선교부의 월요일 사역자 모임에도 두 차례나 참석하였다. 두 곳의 에밀리 보이드 커닝햄의 성경클래스에도 참석하였다.

셸리는 서울에 도착하여 요즈야선교부와는 별도의 선교부를 설립하였다. 셸리의 선교부는 요즈야선교부가 세운 12개의 한국교회들과도 재정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별도의 선교부였다.

셸리 가족은 3월 20일경에 한국에 도착하여 한국어 공부에 매진하였다<1935년 6월호>. 3월 24일에 이인범 목사와 함께 인천 송현기독교교회를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요즈야선교부가 한국에 세운 교회들을 둘러보았다. 이 때 김영배 전도자가 셸리의 통역을 맡았다.



마이클 셸리 선교사 환영 기념 사진(1935년 3월 24일)  
인천(송현)교회로써 커닝햄이 소년 3개월 전에 헛처와 방문했던 곳이다. 셸리의 유족이 딸 레이철이고 그 딸이 이인범이다. 셸리 부인 옆은 공립교사 출신이어서 셸리와 선교부를 도왔던 김영배 집사이다.

셸리가 미국 오리건 주, 바이다에서 1963년 1월 23일에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에게 쓴 편지에 따르면, 셸리는 선교본부를 서울에 두고, 성경공부 반을 개설하여 가르쳤고, 성경공부에 참여했던 세 사람에게 서울 변두리에 있는 강에서 침례를 베풀었

다. 또 쉘리는 북한지역에서 2개월가량 사역하였다.

쉘리 가족은 비교과 신약성서기독교에서 파송된 최초의 선교사였지만 그들이 한국에 체재한 기간은 7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 J. 마이클 쉘리와 가족은 1935년 10월 28일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갔다<1936년 1월호>.

쉘리 가족은 한국에 오기 수년 전부터 요츠야선교부의 적극적인 후원자였고, 한국사역에 열정을 품고 선교사가 되어 한국에 왔지만, 두 가지 중대한 이유로 선교를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첫째는 “드러난바 대로 도쿄 주재 커닝햄 선교부의 감독 아래 허락된 부정직과 비기독교인다운 행위들로 인해서 한국에서의 선교 사역은 매우 유감스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가족의 건강문제 때문이었다. 쉘리는 폐병에 걸려 3년간 미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고, 그의 딸 레이첼은 혈우병을 앓았다.

쉘리는 비록 한국에 오래 남아서 사역하지 못하였지만, 존 T. 채이스가 한국에 나가 사역할 수 있도록 두 가지 큰 도움을 주었다. 첫째는 채이스의 명예를 회복시켜준 것이었다. 이 무렵 채이스는 커닝햄과 빛은 갈등으로 인해서 요츠야선교부에서 해고당하여 본국으로 돌아간 상태였고, 둘 사이의 논쟁이 미국 본토에서까지 달아오르던 때였다.

첫째, 쉘리는 본국으로 돌아가기에 앞서 여러 날을 서울과 도쿄에서 증거자료 수집에 매달렸고, 수집된 자료들을 문서형태로 미국에 가져가 사람들에게 보임으로써 커닝햄이 존 채이스의 이력에 깔아놓은 먹구름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둘째, 자신을 돕던 후원자들에게 채이스를 돕도록 부탁하였다. 존 채이스가 1936년 말에 한국에 선교사로 나올 수 있었던 데에는 마이클 쉘리의 이런 노력이 한 몫을 하였다.

## 2) 존 T. 채이스(John T. Chase)

<도쿄 그리스도인> 1927년 4월호에 채이스가 실은 글에 따

르면, 그의 가족이 일본에 도착한 때는 1927년 3월 4일이었다. 체이스에 대한 사람들의 인상은 키가 크다는 것이었다. 그의 키는 190센티미터 정도였다<1927년 10월호>.

체이스 가족은 1932년 3월 아삼아 마루(Asama Maru)호를 타고 요코하마(횡빈) 항을 떠나 미국에 도착하여 안식년을 갖고 이듬해 5월 25일에 일본에 복귀하였다<1933년 7월호>. 이후 커닝햄과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였는데 원인은 경제대공황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다. 후원금 감소로 급여가 삭감되고 사역 규모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커닝햄이 빚지는 것을 몹시 꺼려하였고, 게다가 한국사역의 규모는 날로 늘어만 갔기 때문이다. <도쿄 그리스도인> 1934년 12월호에서 커닝햄은 요츠야선교부의 선교사들과의 분열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지난 2년간 요츠야선교부의 ‘빛 만들지 않기’ 정책이 젊은 선교사들의 심사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다. 최근 겪은 경제대공황 때 안전우선으로 견지해온 재정정책, 많은 후원자들(rope-holders)의 권고,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한국선교모험, 세 가족들의 선교사 영입이 완고한 반대에 부딪혔고 방해를 받았다. 선교부가 취한 보다 올바른 판단에 대한 반대가 선교부의 성공과 안전이 위협에 처해질 때까지 용인되었다. 체이스는 자신이, 분명코 솔직히, 더 현명한 정책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주 제시하고 고집하였다. 그의 시도되지 않은 계획들이 선교부를 재정적으로 위협에 빠뜨리거나 혹은 한국선교를 심각하게 조율하거나 포기하게 만들 것이라는 말을 해주었다.

지난 8월 커닝햄 부부는 그들에게 선교부의 일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돌아가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끝없는 협동은 사역을 더욱 그르치게 하였고, 무조건적인 해고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나중에 파악된 여러 가지 오해들을 가지고 일을 했던 미혼여성 선교사들은 사임하였다. 체이스 가족은 11월 2일에 파나마운하를 거쳐 뉴욕으로 가는 실크익스프레스 호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테네시 주 브리스틀까지 가는 경비는 선교부가 지불하였다. 그들을 위해 C.P.R. 러시아특급을 구입했지만, 체이스의 요청으로 더 작은 선박으로 바꿨다. 미혼여성 선교사들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도쿄에 남아있다.

<도쿄 그리스도인> 1935년 12월호에 커닝햄은 <그리스도인 표준>(Christian Standard) 1935년 3월 2일자에 실린, 커닝햄이 편파성 기사라고 판단한, 기사에 대응하는 서신을 보내준 커닝햄을 지지하는 캘리포니아 주 롱비치의 조지 터브먼(George P. Taubman, 요츠야선교부의 실행위원) 목사의 글을 소개하였다. 터브먼은 그 글에서 34년의 선교경험을 가진 커닝햄이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보다 상황파악이나 판단에 있어서 더 낫지 않았겠느냐, 채이스를 택할지, 선교부를 택할지를 놓고, 선교부를 택한 커닝햄의 선택을 지지한다며 지속적으로 후원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 3) 토마스 G. 히치(Thomas G. Hitch) 가족

토마스 G. 히치(Thomas G. Hitch)와 딸 애니(Annie)가 요



히치 선교사 부부와 딸 애니(Annie)

츠야선교부에서 일하기 위해서 일본에 도착한 것은, <도쿄 그리스도인> 1936년 4월호에 따르면, 1936년 3월 3일이었다. 히치는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3월 19일부터 커닝햄과 함께, 또 커닝햄 사후 10월에도 한국의 교회들을 순방하였다. 부인 E. 히치와 딸 엘리스(Alice)가 일본에 합류한 것은 일 년 늦은 1937년 3월 2일이었다. 막내 딸 루스(Ruth)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이

었다. 토마스와의 부인 E. 그리고 딸 애니가 한국에 상주 선교사로 파송된 것은, <도쿄 그리스도인> 1938년 5월호에 따르면, 각각 1938년 2월과 3월이었다. 히치는 2월 18일에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먼저 갔고, 부인과 두 딸은 한국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3월 24일 고베로 가는 기차를 탔다. 또 다른 딸 에밀리(Emilie)도 서울성서훈련원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1938년에 한국에 왔다.

<도쿄 그리스도인> 1938년 3월호 기사에 실린 히치의 소개서를 보면, 그들은 서울에서 성서훈련원을 열어 일주일에 4일간 하루에 세 시간씩 가르치게 될 것이고, 한국정부가 확인해 준 11개 교회와 다른 작은 모임들을 순방하게 될 것이며, 영어성경공부반도 개설할 것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서울성서훈련원은 3-4년이란 짧은 기간만 생존했지만, 다수의 목회자들과 여전도사들을 배출하고 파송하였다. 히치의 또 다른 딸 에밀리(Emilie)가 성서훈련원에 합류한 1938년에는 성서훈련원을 아현정 소재 2층을 얻어 제1교회로부터 독립하였다. 1층이 식료품가게여서 배고픈 신학생들에게는 고통이었지만, 서울의 다른 두 교회들이 가까운 곳에 있었다. 주간반 학생이 남자 7명, 여자 5명, 야간반 학생이 남자 11명, 여자 2명이었다.

히치는 영국인이며, 부인 E.는 독일에서 태어났다. 그들은 캐나다 침례교회의 선교사들로서 티베트 국경지대에서 다년간 사역하였다. 그들은 또한 일본에서 7년간 사역을 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도쿄 그리스도인> 1937년 1월호는 부인 E. 히치가 일본과 중국에서 19년간 선교사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하였고, 호주 멜버른 에센돈(Essendon)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파송받아 온다고 소개하였다. 히치 부부는 커닝햄의 부름을 받기 전에 8년 동안 딸들의 교육을 위해서 호주에 거주하고 있었다.

1934년에 채이스를 비롯한 다수의 선교사들이 요츠야선교부를 떠났기 때문에 W. D. 커닝햄으로서는 협력자가 절실히 필요하였다. 설상가상으로 히치가 선교부에 부임한지 석 달 만인 6월 24일 암으로 사망함으로써 히치의 책무는 더욱 무거워졌다.

히치는 일본에 부임하여 1937년까지 선교부 소식지 <도쿄 그리스도인>의 편집과 회계를 임시로 맡아보면서 한국 선교지를 감독하기 위하여 일 년에 1-2차례씩 순방하던 중 1938년 3월부터 한국에 상주하였다. <도쿄 그리스도인> 1938년 3월호는 그들이 한국으로 가게 된 것은 요츠야선교부에 속한 구성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하였다.

히치 가족은 힐 요한 선교사 가족이 한국에 도착한 1939년 7월말부터 8월초까지 여름을 화진포에서 채이스 가족, 힐 가족, 일본에 건너온 다수의 선교사들과 함께 보낸 후에 요츠야선교부를 사임하고 호주로 떠났다.



히치의 두 딸, 에밀리(Emilie, 좌)와 앨리스(Alice, 우)(1938년)  
애니(Annie)와 에밀리는 서울에서, 앨리스는 동경에서 사역하였다.

히치가 한국사역을 포기한 것은 신경쇠약 때문이었다. 토마스 G. 히치는 티베트 국경지대에서 사역할 때 두 명의 아들을 잃었다. 그 때 받은 충격이 너무 커서 신경쇠약에 걸려 있었고, 그 일 이후로 두 세 차례 신경쇠약으로 고생을 했었다. 한국에서의 선교사역이 너무 과중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어서 또 다른 신경쇠약으로 쓰러지고 말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그는 결국 한국사역을 접고 1939년 8월말에 한국에서 함께 사역한 가족을 데리고 호주로 돌아가야 했다<1939년 9월호>.



그러나 일본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히치의 또 다른 딸 앨리스(Alice)는 히치 가족과 함께 호주로 돌아가지 않고 일본에 남아 사역하였다. 그녀가 사역을 포기한 것은, <도쿄 그리스도인> 1940년 12월호에 따르면, 영국정부의 권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무렵 일본과 한국에 거주하던 수백여 명의 외국인들이 전쟁이 일어날 징후로 인해서 본국 대사관의 권고에 따라 본국에서 마련해준 배편으로 귀국을 서두르던 때였다. 앨리스도 이 때문에 1940년 10월 30일에 호주로 떠났다. 셸리 스틸과 자녀들도 오웬 스틸 2세의 건강문제로 미 대사관의 권고에 따라 1940년 10월 31일 미국으로 돌아갔다.

히치 가족은 찬양을 잘해서 가끔씩 교회에서 특송을 하였다.

#### 4) 오웬 스틸(Owen Still) 가족

오웬과 셸리 스틸(Owen & Shirley Still) 가족이 일본에 선교사로 온 것은 토마스 G. 히치(Thomas G. Hitch) 가족의 공백 때문이었다. 그들은 1937년 10월 9일 샌프란시스코 항을 출발하여 일본 요코하마 항에 10월 24일 도착하였다. 오웬 스틸은



오웬과 셸리 스틸(Owen & Shirley Still) 선교사 부부  
요츠야선교부의 한국선교를 감독했던 스틸은 부인의 건강  
악화로 1950년 5월 3일 미국 하와이로 사역을 옮겼다.

환원협의회(Restoration Association)의 전도자로 사역해왔고, 셸리 스틸은 <환원전령>(Restoration Herald)에 기사를 많이 썼다<1937년 11월호>.

요츠야선교부의 한국선교를 담당했던 오웬 스틸(Owen Still)은 체이스와는 같은 대학과 대학원을 나온 동문이었다. 존슨대학교(전 존슨성서대학)는 각기 다른 시기에 다녔지만, 대학원

(Cincinnati Bible Seminary)은 같은 시기에 다녔다. 스틸은 요즈야선교부의 한국 선교지를 순방하는 동안 자주 채이스의 집에 머물렀다.



오웬 스틸 가족(1937년 10월 24일 일본에 도착)  
좌측부터 리베카(8), 셸리, 오웬(14), 루스(6), 오웬, 딸리너(11)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선교했던 스틸에게 한 가지 문제점은 셸리의 건강악화였다. 셸리가 있어야 할 곳은 따뜻하고 건조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오웬 스틸은 셸리의 질병치료를 위해서 1948년 6월에 안식년을 가졌으나 의사가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만류함으로써 일본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끝내는 1949년 5월경에 은퇴해야 했다. 스틸 가족은 셸리를 위해서 따뜻한 곳인 하와이로 1950년 5월 3일 사역지를 옮겼다<1950년 5-6월 호>. 하지만 하와이에서 셸리는 폐병이 아니란 판정을 받았고, 의사는 그들에게 하와이보다는 오히려 본토의 건조하고 따뜻한 지역을 추천하였다.

1930년대 말에 오웬 스틸이 직접 겪어본 한국교회들에 대한 소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열정, 온 마음 찬양, 진실한 기도, 박력 있는 설교가 인상적이었다.

둘째, 친절과 환대에 놀랐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높다는데 놀랐다. 돈을 요구할까봐 한가득 걱정으로 한국에 갔지만, 급여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가뭄과 가난에 찌들어 있었지만, 주님의 일에 용기 있게 나섰다.

넷째, 전도의 영이 충만하였다. 한국인들은 집중적으로 전도에 힘썼다. 그들은 선교기지를 열어 주일학교를 시작하면 곧이어 교회로 발전시켰다.

‘일본기독교단’이란 통합교단이 만들어진 것은 1941년 6월 24일 일본 후지미 마찌 교회(富士見町教會)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비롯되었다. 한국에서도 1943년부터 통합을 위한 모임이 시작되어 1945년 7월 19일에 ‘일본기독교조선교단’(日本基督教朝鮮教團)이란 이름으로 완전히 통합되었다. 여기서 장로교, 감리교, 구세군 등이 가입하였으나 소규모의 교단들은 대체로 가입을 거부하여 해체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성결교단이나 그리스도의 교회도 마찬가지였다. 채이스 선교사 산하의 교회들은 가입을 거부하고 흩어졌고, 이인범, 김요한, 성낙소, 최상현 등, 목회자들의 상당수가 경찰서에 끌려가 모진 매를 맞거나 투옥되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요츠야선교부의 한국교회들은 통합교회에 가입하기보다는 대부분 흩어졌을 것으로 본다. 특히나 자체 건물이 없던 교회들은, 통합교단에 가입하지 않고 종교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임을 갖지 못하고 흩어졌을 것이다.

<도쿄 그리스도인> 1940년 12월호에 따르면, 이인범 목사는 동경에 건너가 보고하기를, 서울과 인천의 교회들이 일본기독교조선교단에 가입하기보다는 교회들의 집회를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전하였다. 요츠야선교부의 선교사들은 이런 결정이 건물을 갖지 못하고 가정집에서 집회를 갖는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통합교단에 가입할지를 강요받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필자의 생각에도 17(19)개의 교회들 가운데 자체 건물이 없는 교회들은 어려움에 직면하자, 또 일부 목회자들이 불법집회로 체포되어 모진 매를 맞고 나오거나 투옥되면서, 쉽게 집회를 접었을 것으로 본다. 그런 점에서 해방 후 이들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하기보다는 많은 수의 교회들이 그냥 문을 닫고 흩어졌다고 말해야 옳을 듯싶다.

요츠야선교부의 북한의 교회들은 공산군의 손에 넘어갔고, 인천의 교회들은 송현기독교교회에 통합되었으며, 남한의 유력한 교회였던 송현기독교회는 신신근 목사 사후에 성결교회가 되었는데, 이는 이인범을 비롯하여 많은 내국인 사역자들이 성결교단 출신이었던 점, 요츠야선교부가 소유한 재산이 한국에 전혀 없었던 점, 포교책임자였던 이인범과 서울교회들은 제대로 된 자체 건물을 갖지 못하여 흩어졌고, 궁핍함을 이기지 못하고 선교부에 한 약속을 저버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떠난 점, 1941년 이후로 요츠야선교부의 영향력이 사라진 점 등이 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도쿄 그리스도인> 1940년 12월호에서 선교사들이 송중숙 목사가 썼을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1940년 10월 14일)를 소개한 이유가 예배당 건물을 갖지 못한 교회들의 사정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작은 교회들은 통합교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집회로 체포되기보다는 오히려 흩어지게 될 것으로 본 것이다.

여기서 송중숙은 일본과 한국에서의 교단통합에 관한 소식을 접하였으나 아직 당국에 불려갔거나 가입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는 않았으며,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언제까지나 그리스도의 교회로 남겠다고 하였다. 그 전에 선교부가 작은 예배당이라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그게 안 된다면, 평화의 시기가 도래하기까지 주택가를 찾아가 집회를 갖겠다고 전하였다. 그것도조차도 당국에 의해서 막힌다면 주님 다시 오

실 때까지 개개인 가정에서 집회를 갖겠다고 전하였다.

요츠야선교부가 한국선교를 함에 있어서 받았던 외적 장애들이 많았다. 이 점은 채이스 선교사의 ‘기독교회 선교부’(The Korean Christian Mission)도 마찬가지였다.

첫째, 세계경제대공황으로 후원금이 감소하여 사역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선교부는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 내내 재정부족의 어려움을 겪었다.

둘째, 일제의 탄압과 박해로 인해서 많은 내국인 사역자들이 매를 맞거나 투옥되었으며, 사역에 위축을 가져왔다. 일제는 동방요배, 신사참배, 황국신민서사 암기 및 낭독 등을 강요하였고, 이를 거부하거나 거절한 사역자들은 탄압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서 문을 닫아야했던 교회들도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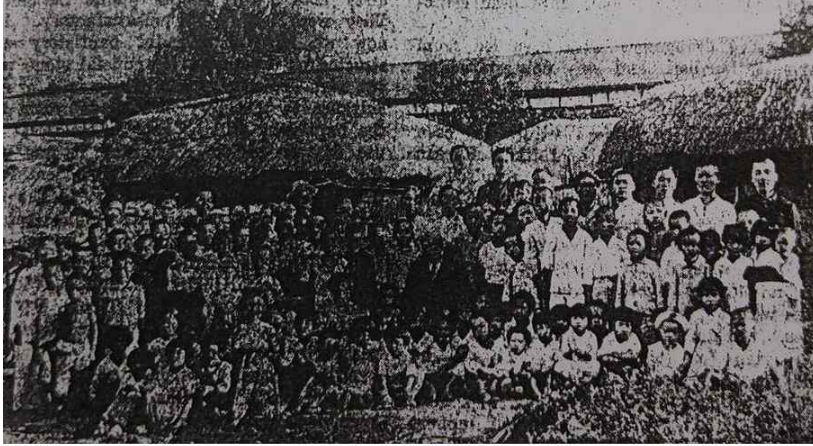
셋째, 북한지역의 공산화로 인해서 평북 구성과 정주 및 신의주 등에 공들여 세운 교회들을 잃게 되었다.

넷째, 목회자 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요츠야선교부의 내국인 사역자들의 상당수는 성결교 출신의 목회자들이었다. 커닝햄은 이들 사역자들이 신약성서기독교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기를 바랐고 교육하였으나 평북 구성군 오봉기독교회 방(H.C. Pang) 목사 같은 분은 신구약성서가 동일하다고 집요하게 고집함으로써 요츠야선교부가 해임하기에 이르렀다. 또 심천조선기독교회의 채호 전도자가 교회를 사임하게 된 것도 신약성서기독교를 잘 알지 못한 타 교단에서 유입된 사람들의 공격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섯째, 신념이나 교리 또는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배고픔이었다.

이 같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해방 후에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로 복귀했거나 남아있었던 목회자들은 김문화, 성낙소, 이난기, 윤낙영 뿐이었으며, 교회들로는 이난기의 용산교회, 윤낙영의 아현동교회, 성낙소의 내수정(동석기와 무관한)교회가 있었다. 김문화 목사는 채이스의 도움으로 새로 개척하였고, 다른 이들은 자신이 섬기던 기존의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회 선교

부'로부터 보조를 받았다.



요즈야 선교부의 서울 제5교회(1939년)

임공칠 전도자가 자신의 집에서 1939년 8월에 서울 제5교회의 제8주일학교로 개척하였다.  
1940년에 이 교회는 서울 제5교회로 소개되었다. 사진은 1939년 가을 오웬 스틸 선교사  
방문 때 촬영된 것이다. [자료: Christian Standard, 25 November 1939]

##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

A Story of Korean Christian Churches: Missionary John  
T. Chase and His Korean Bible Training Institute

조동호(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 제2부 존 채이스와 한국인 성서 훈련원

이 글은 대부분 채이스 선교사가 1937년부터 1949년까지 발행한 격월간 선교지, <한국인 전령>(The Korean Messenger: Korea for Christ)을 기초하여 쓴 글로써 <한국인 전령> 발행분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디지털화시켜 CD들을 보내준 스코트 씨에이 박사(Dr. Scott Seay, Christian Theological Seminary, Indianapolis, Indiana)와 이를 주선하고 별도의 자료까지 보내준 이상훈 박사(Dr. Timothy Lee, Brite Divinity School of Texas Christian University, Fort Worth, Texas)의 공로에 힘입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필자가 사용한 이들 자료들에 누락된 발행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글만으로는 한국 초기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든 조각 그림들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은 아니란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2012년에 작성된 서울기독교대학교의 백종구 박사의 연구논문, ‘윌리엄 D. 커닝햄과 한국인 선교-동경



존 채이스(John T. Chase) 선교사

요시아선교회를 중심으로'와 2012년 7월에 제출된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의 2011학년도 석사학위논문인 김경중의 '존. T. 채이스(John Trawrick Chase)의 한국선교: 한국기독교선교회(Korean Christian Mission)를 중심으로' 그리고 필자가 연구하여 발표하게 될 '윌리엄 D. 커닝햄 선교사와 한국인 사역자들' 및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와 서울성서신학교' 등은 이 글과 더불어 1924년부터 시작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 과반세기 역사를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펼쳐보이게 될 것이고 보다 분명한 그림, 곧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숲과 나무들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 1. 은둔의 나라에 신약성서기독교 전파자가 되기까지 (1905-36)

존 T. 채이스(John T. Chase)는 1905년 9월 17일 미국 켄터키 주 루이빌(Louisville)에서 출생하였고, 다섯 살에 고아가 되었으며, 채이스가 <도교 그리스도인> 1933년 3월호에 실은 글에 따르면, 만 6세부터 LA에 거주하는 이모(Mr. and Mrs. A. D. Shipp)의 집에서 양육되었다. 15세에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고, 테네시 주 녹스빌(Knoxville)에 소재한 현재의 존슨대학교(Johnson University)에서 수학하던 중 켄터키 주 루이빌에 소재한 맥가비성서학교(McGarvey Bible Institute)로 옮겼으며, 이 학교가 1924년에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에 소재한 신시내티성서학교(Cincinnati Bible Institute)로 통합되면서 지금의 신시내티기독교대학교(Cincinnati Christian University)와 성서대학원(Bible Seminary)을 1926년에 졸업하였다. 그곳에서 래쿤 존 스미스(Raccoon John Smith)의 후손이자 성서대학원생이던 와네타 스미스(Wahneta Smith) 양을 만났다. 스미스는 채이스보다 일 년 먼저 졸업하였다.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 William D. Cunningham의 생애(1864-1936)를 중심으로> (한성신학교, 1991), 119-124쪽;



김경중, '존. T. 채이스(John Trawrick Chase)의 한국선교: 한국기독교선교회(Korean Christian Mission)를 중심으로'(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 2011학년도 석사학위논문, 2012년 7월), 8-10쪽]

<한국인 전령>(Christian Messenger) 1937년 8월호에 따르면, 채이스의 부인은 테네시 주 출신으로서 밀리건대학을 나온 후 신시내티로 옮겨 성서대학원을 제1회로 졸업하였다. 채이스는 1926년 졸업 직후 루이지애나 주 배턴루지(Baton Rouge)로 내려가 목회를 시작하였고, 곧이어 7월에 스미스와 결혼하였다.

채이스 부부는 신시내티성서대학원 졸업생들로서는 부부 선교사 1호가 되었다. 1927년에 일본 도쿄로 건너가 1934년 10월까지 W. D. 커닝햄(Cunningham)의 요츠야선교부에서 월급 선교사로 헌신하였다. 참고로 요츠야선교부에 소속된 모든 사역자들은 선교부에 고용된 직원들이었다.



이인범 전도자와 이원균 전도자  
커닝햄 선교사가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인물들

커닝햄은 1923년을 시작으로 도쿄와 요코하마에 조선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고, 채이스의 감독아래 성낙소 목사가 1930년 5월부터 1931년 9월까지 요코하마 미야다마치에 소재한 조선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맡아 사역한 바가 있어서 일찍부터 조선인들과의 접촉이 있었다. 이뿐 아니라, 커닝햄이 이원균을 1924년부터, 도쿄 조선인 교회(제10교회) 담임자 이인범을 1932년 8월부터 두 달간, 1933년 2월 중순부터 한 달 이상 한국에 보내 예비답사를 하게한 결과와 이때 이인범이 거둔 놀라운 성과에 고무되어 요츠야선교부와 제10교회가 이인범을 한국에 보내 서울에 탄탄한 교회를 세우게 하고, 조선에

세워진 요츠야선교부의 교회들을 돌보는 순회전도자와 조력자가 되도록 결정하기 위해서 요츠야선교부가 1933년 6월 5일의 월례회에서 한국에 상주할 한 선교사 가족을 요청한다는 제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과 그로 인해서 얻어진 성과에 대해 크게 만족하고 있었으므로 채이스는 이 모든 상황을 껴고 있었다.

또 채이스는, <도쿄 그리스도인>(Tokyo Christian) 1931년 11월호와 1932년 2월호에 따르면, 1931년 9월 하순에 요츠야선교부의 한국에서의 선교사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한 바가 있었다. 이 무렵 요츠야선교부는 한국을 “추수를 기다리는 지상 최고의 황금들판”(the ripest mission field on earth today)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채이스는 한국방문 후 소감을 말하기를, 한국은 반드시 신약성서기독교를 전파할 선교사가 필요한 곳이라고 하였다. 또 채이스는 재일본 조선인 교회들에서 자주 설교하였다. 이런 연유로 채이스는 일본 선교 7년만인 1934년에 커닝햄과 결별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한국 선교를 준비하였으며, 독립선교사로서 1936년 11월 7일에 서울에 도착하였다.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가 한국에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로서 1935년 3월에 입국하여 건강문제와 커닝햄의 절대적 신뢰를 받고 파송된 조선인 포교 책임자 이인범에 대한 실망감으로, <도쿄 그리스도인> 1936년 1월에 따르면, 1935년 10월 28일에 귀국한 J. 마이클 셸리(J. Michael Shelley)는 채이스 가족의 한국행을 적극 지지하였다.

커닝햄은 모든 사역자들을 고용하여 썼고, 그 대부분이 교파 출신들이었다. 그러던 커닝햄에게 시련이 닥친 것은 1930년대 초에 미국에 불어 닥친 대공황의 여파로 모금 액수가 3분의 2로 줄어든 때문이었다. 급여가 삭감되어 생활비가 빠듯했던 채이스는 커닝햄에게 급여 인상을 요구하였고, 커닝햄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채이스는 이 문제를 미국 교회들에 공론화시켰다. 그러자 커닝햄은, 일본 가고시마에서 사역했던 베테랑 선교사 마크 맥시(Mark Maxey, 동서대학교 설립자 장성만 목사의

멘토)가 쓴 ‘일본 선교 100년(1883-1983)’[Christians in Japan 100 Years (1883-1983)]이란 글을 보면, 채이스를 1934년 10월에 그의 집으로 불렀고, 찾아온 채이스를 문밖에 세워놓고 파면을 선언하였다. 이에 항의하여 커닝햄의 다른 고용 선교사들인 비비안 레몬(Vivian Lemmon), 그레이스(Grace), 팸함(Farnham), 루스 슈노버(Ruth Schoonover)도 사임하였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일본에서 독립 선교사로 활동을 다시 시작하였다. 이뿐 아니라, 10개 처의 일본인 교회들도 선교부와 단절을 선언하였다.

<한국인 전령>(Christian Messenger) 1937년 8월호에 따르면, 채이스는 1934년 말에 본국으로 돌아가 캘리포니아 주 잉글우드하이츠 그리스도의 교회(Inglewood Heights Church of Christ)에서 사역하였다. 이후 잉글우드하이츠 교회는 채이스의 한국 선교사역을 적극 도와주었고, 전쟁으로 인해서 그가 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담임 목회자로 청빙하였다. 이뿐 아니라 교회는 채이스가 한국에 단기 입국을 하거나 입국을 목적으로 모금 여행을 할 때마다 3개월 또는 6개월씩 긴 휴가를 주었다. 이런 후원에 힘입어 채이스는 1936년 3월에 교회를 사임하고 기금모금에 돌입하였고, 그해 10월 11일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온 가족이 한국행 배에 승선할 수 있었다. 그의 꿈은 인구 2천만이 사는 은둔의 왕국에 신약성서기독교(New Testament Christianity)가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었다. 이 무렵에 채이스는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케네스(Kenneth)는 10살, 로버트(Robert)는 7살로써 둘 다 일본에서 태어났으며, 네이딘(Nadine)은 4살로써 미국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나중에 로이스(Lois)가 한국에서 태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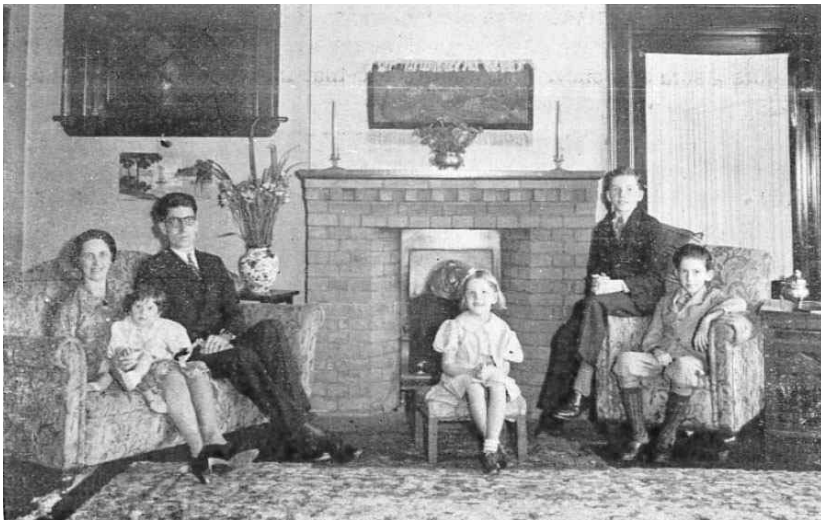
## 2. 입국 후 선교활동(1937-1940)

<한국인 전령> 1937년 2월 제1호에 따르면, 채이스는 1936년 11월 7일에 서울에 도착하였으나 12월말에 가서야 서

을 송월동, 곧 게이조 쇼게추조 32-6번지에 위치한 큰 건물(영국 해외성서공회 소유)을 임대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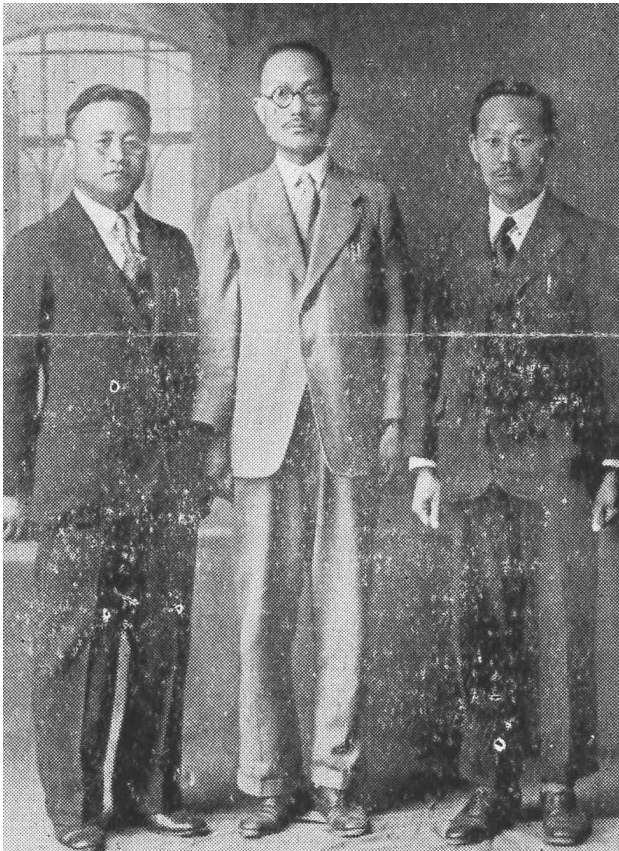
존 채이스 가족은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 도쿄에서 1927년 3월부터 1934년 10월까지 7년 8개월간 사역하였다. 따라서 채이스는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었고, 한국인들의 상당수가 일본어를 알아듣는데 문제가 없었다. 이런 장점으로 채이스는 1937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에 돌입하여 ‘기독교회 선교부’(The Korean Christian Mission), 격월간지 <한국인 전령>(The Korean Messenger: Korea for Christ) 및 ‘한국인 성서 훈련원’(The Korean Bible Training Institute)을 설립하였다.

채이스 부부는 한국어를 익히기 위해서 한국어 교사를 채용하였는데, 그에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르쳐 한국인성서훈련원 제1호 학생과 제1호 개척교회 사역자로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그는 김요한 목사로서 미국 에모리 대학교에서 B.D.(오늘날의 M.Div)를 마친 감리교 목사였다. 그는 매일 채이스 가족에게 한국어를 가르쳤고, 채이스는 그에게 신약성서기독교를 가르쳤



1939년 송월동자택, 좌측부터 사모 와네타(Wahnetta Smith)와 로이스(Lois), 존 T. 채이스(John T. Chase), 네이딘(Nadine), 케네스(Kenneth), 로버트(Robert)

다. 김요한 목사는 선교사의 가르침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자주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선교사에게 말하였다. 결국 그는 사도행전 8장을 공부하던 날 선교사에게 물었다. “선생님, 어째서죠? 저는 결코 침례를 받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이 문답이 있고나서 김요한 목사 부부는 공중목욕탕을 세내어 침례를 받았고 채이스 선교사의 첫 번째 학생과 제1교회의 사역자가 되었다. 송월동 선교부 지하실에 설립한 한국인성서훈련원에서 일주일에 4일씩 신약성서기독교에 대해서 학습하던 김요한 목사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제가 내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그들은 이 같은 것을 전에 들은 적이 없습니



채이스 선교사의 제1교회 신당정교회 담임 김요한 목사(1937년), 제2교회 동남정교회 담임 최상현 목사(1937년), 제3교회 내수정교회 담임 성약소 목사(1939년)

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제1호 교회가 1937년 3월 7일에 첫 예배를 드린 신당정 그리스도의 교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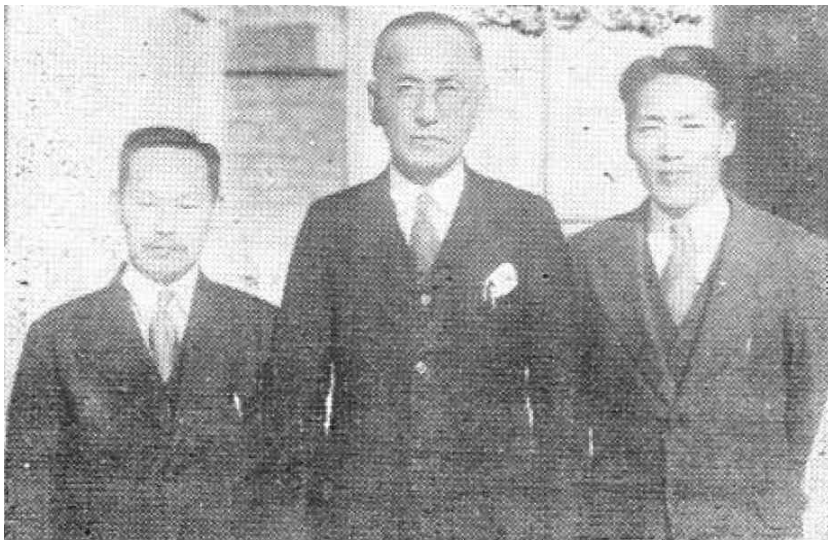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또 다른 감리교회 목사가 자신이 저술한 계시록에 관한 소책자들을 팔려고 채이스를 찾아왔다. 그가 바로 연희전문학교(제1회)와 협성신학교를 졸업하고

다년간 신학교에서 강사와 감리교 잡지 <신학세계>의 편집인을 지냈던 최상현 목사였다. 그 방문의 결과로 최상현 목사 역시 한국인성서훈련원에서 학습하기 시작하였고, 머지않아 성서적인 침례를 받겠다고 자청하였으며, 1937년 9월 1일에 한강에서 침례를 받았다. <한국인 전령> 1937년 12월 제6호에 따르면, 어느 날 최상현 목사가 채이스에게 말하기를, 자신은 감리교회를 탈퇴하였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인(Christian only)으로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자 선교사가 말하기를, “아 그러세요. 자랑스럽겠군요?” 그러자 최상현 목사가 대답하기를, “예, 신약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상현 목사는 채이스 선교사의 제2교회 사역자가 되어 1937년 10월 17일에 첫 예배를 드린 돈암정 그리스도의 교회를 창립하였다.

채이스의 제3교회는 늦어도 1939년 4월 중순 전에 편입된 성낙소 목사의 내수정 그리스도의 교회였다. 성낙소 목사는 구세군신학교를 졸업한 사관으로서 1927년 1월 1일 충남 부여군 화수리 2구 290번지 처가 사랑채에서 기독지교회를 시작한 것을 계기로 1930년 5월부터 1931년 9월까지 채이스의 감독을 받으며 일본 횡빈조선인기독교회를 섬겼고, 1931년 9월부터 33년 5월까지 20개월 동안 조선포교책임자를 지낸바가 있다. 그리고 1933년 11월 말경에 서울창동교회에 부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낙소는 조선예수교회에 가담하여 있던 1938년경에 채이스와 재회하였고, 1938년 11월 4일에 채이스로부터 침례를 받았으며, 늦어도 1939년 4월 중순 전까지 채이스의 제3교회로 편입되었다. 또 성낙소는 1938년경부터 한국인성서훈련원에 재학하여 1940년 3월 25일에 졸업하였다. 참고로 성낙소는 자서전에서 채이스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전갈을 “1936년 4월경”에 받은 것으로 적었으나 채이스가 한국에 도착한 것은 그해 11월이었으므로 연도를 잘못 기억한 것으로 추정된다.

체이스의 제4교회는 박판조 목사가 1939년에 개척만 하고, 담임은 김문화 목사가 맡았던 산 돈암정 그리스도의 교회였다. 김문화 목사는 장로교 출신의 목사로서 1937년 말에 촬영한 한국인성서훈련원 제1회 2학기 단체 사진에 들어 있을 정도로 일찍부터 체이스 선교사와 관계를 맺었다.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289쪽)는 김문화 목사를 김동열 목사의 부친으로 적고 있다.



1940년초, 좌측부터 체이스 선교사의 제3교회 내수정교회 담임 성낙소 목사  
제4교회 산돈암정교회(박판조 목사가 개척) 담임 김문화 목사, 제5교회 청량리교회 담임 박판조 목사

체이스의 제5교회는 박판조 목사가 1939년에 개척한 청량리 그리스도의 교회였다. 체이스 선교사가 총애하고 아꼈던 젊은 전도자였다. (체이스의 글에는 ‘청량리’라는 말이 없으나 힐 요한 선교사의 증언에 따라 필자가 박판조 목사의 교회를 임으로 청량리교회로 적었음을 밝힌다.)

체이스 선교사 가족이 1940년 6월 1일 안식년과 모금을 위해서 서울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가기까지 3년 7여개 월에 이룬 가장 큰 업적은 바로 이들 다섯 명의 사역자들과 다섯 개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었다. 나중에 체이스는 일본기독교회 조선교단 가입과 신사참배 및 동방요배를 거부한 것과 그로 인해서



존(John)과 에스더(Esther) 힐(Hill)씨부, 1939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박해와 폐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송월동 그리스도의 교회와 내수동 그리스도의 교회가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것을 소식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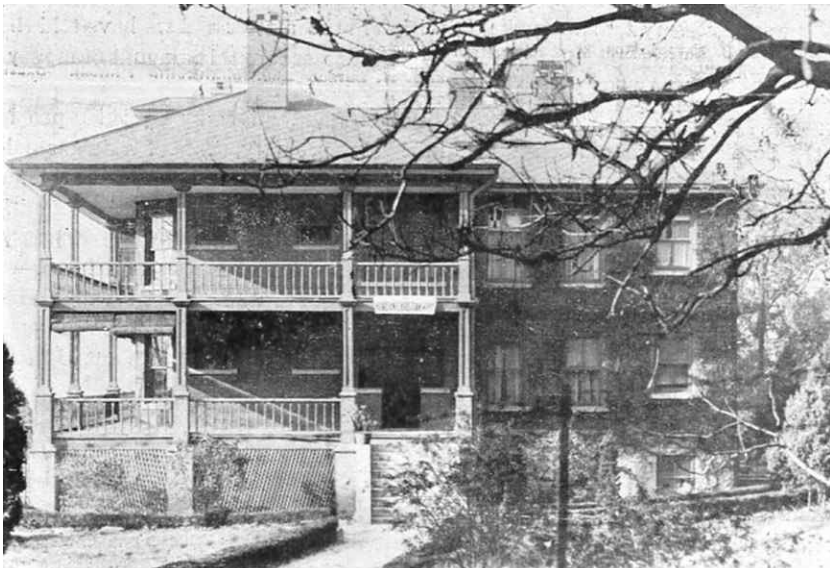
듣고, 눈으로 확인한 체이스는 자신이 한국인성서훈련원에서 이들에게 신약성서기독교를 철저히 교육한 결실이라고 생각하였다. 이후의 선교는 살아남은 이 두 개의 교회를 기반으로 확장되어나갔다. 이밖에 업적으로는 기독교회선교부와 한국인성서훈련원을 설립한 것과 송월동에 소재한 선교부 건물을 매입한 것 그리고 힐 요한 선교사를 발굴한 것 등이었다.

### 3. 출국 후 선교활동(1940-1950)

체이스는 1939년 초에 영국해외성서공회로부터 송월동 선교부 건물을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모금활동을 시작하여 그해 말에 약정 금액의 절반인 5,000달러를 갚았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금액을 모금하기 위해서 안식년을 갖기로 하고 <한국인 전령> 1940년 12월 4호에 따르면, 1940년 6월 1일에 서울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갔다. 이 결정이 가능했던 것은 힐 요한 선교사 가족이 1939년 6월 21일 오후 3시에 서울에 도착하여 사역을 시작하고 있었고, 선교부의 일을 그들에게 맡겨놓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해 10월에 미국정부는 한국에 체류하는 모든 자국민들에게 전쟁의 위협이 커지고 있으므로 한국



을 떠날 것을 충고하였고 배를 보내 철수를 도왔다. 이에 힐 선교사 가족은, 김경중의 논문, ‘존. T. 채이스(John Trawrick Chase)의 한국선교: 한국기독교선교회(Korean Christian Mission)를 중심으로’ 32쪽에 따르면, 그해 11월 16일에 마리포사(Mariposa) 호를 타고 인천항을 떠나 미국으로 철수하였다. <그리스도인 표준> 1940년 11월 16일자에 따르면, 영국 해외성서공회에 갚아야 할 잔금 5,000달러 가운데 부족금액이 150달러뿐이었기 때문에 이 무렵에 청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해외성서공회가 소유했던 이 건물에 세들어 살고 있던 채이스 선교사는 1939년부터 대입을 추진하였다.

전쟁이 임박한 위기상황 때문에 미국 정부는 선교사들의 한국 입국을 엄격하게 제한하였고, 가족들의 입국은 불허하였다. 채이스로서는 애써 마련한 선교부 건물과 두고 온 가재도구들 그리고 5명의 목회자들의 생계와 그들의 교회들이 걱정이 되어 미국에 남아 있을 수가 없었다.

채이스는 1941년 2월 24일 가족을 미국에 남겨둔 채 혼자서 서울로 돌아왔다. 교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와 선교부의 재산을 보호할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였다. 채이스가 돌아왔을 때 교회는 하나 더 늘어나 있었다. 채이스는

이들 교회들을 차례대로 방문하여 위로하고 권면하였다. 그러나 채이스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형사들이 붙어 다녔고, 목회자들이 경찰서에 불려가 일제가 스파이로 의심하는 선교사와 나눈 교제 때문에 매를 맞고 선교사와 만나 나눈 모든 내용을 써서 제출해야 했다. 채이스는 상황의 심각성 때문에 체류기간을 겨우 한 달만 채우고 3월 마지막 날 언제 다시 만날지도 모른 채 목회자들과 송별해야 했다. 그러나 힐 요한 선교사의 글, ‘힐 요한 선교사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 약사’(A Short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Korea)[<썬메론>(한국성서신학교, 1972년 4월 18일)]에 따르면, 채이스는 이 짧은 체류기간에 선교부 건물을 그 곳에 난로공장을 세운 전항섭에게 임대 놓았고, 임대료를 받아 목회자들의 활동비에 보태도록 하였으며, 두 선교사가 사용하던 가구와 은제식기류, 침대보, 재봉틀 등을 모두 팔아서 1941년 말까지 목회자들이 쓸 수 있는 활동비를 마련하였다. 채이스가 전쟁 전에 이들 목회자들로부터 마지막으로 연락을 받은 것은 1941년 10월이었다. 그리고 12월 7일 아침에 일본이 미국 하와이 주의 오아후 섬 진주만에 있는 미군 기지에 기습 공격을 가함으로써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후 1946년 5월호 <한국인 전령>이 발간되기 전까지 근 4년 반 동안 한국과의 연락은 두절되었다.

존 T. 채이스가 한국에 신약성서기독교를 도모하기 위해서 편집하고 발행한 <한국인 전령>(테네시 주 브리스톨) 1941년 5월호에는 한 달간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소감이 다음과 같이 실렸다<*The Korean Messenger*(Bristol, Tennessee, May 1941), Published in the Interest of New Testament Christianity in Korea, by J. T. Chase, Editor and Publisher>.

테네시 주 브리스톨, 1941년 4월 22일

사역에 함께 하는 분들께,

우리는 아래의 ‘한국의 상황’이란 글에서 우리가 한국에 가서 파악한 정황들을 간략하게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글에 실린 사진들은 과거 몇 년간 우리가 교육한 신실한 한국인 전도자들에 의해서 사역이 수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신실하고 역량 있는 설교가들이고 신약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들의 장래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사역할 수 없는 시기가 오겠지만,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들은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기에 마땅히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이 잘 세워져왔고, 이들 전도자들도 잘 훈련되어서 사역이 우리 없이도 발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성낙소 목사의 <자서전> “제7장 기독의 교회 선교사와 신학교 시작”에 따르면, 김요한(金約翰/與範), 최상현(崔相鉉), 김문화(金文和), 성낙소(成樂紹), 박판조(朴判祚) 등이 채이스가 1937년 4월에 개교한 한국인성서훈련원에서 4년여 간 교육을 받고 1940년 3월 25일 졸업하였다. 이때 성낙소 목사의 나이가 51세였다.] 당분간 우리는 우리가 가진 역량을 다해서 이곳 미국의 교회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다니며 그간 한국에서 이뤄진 사역들과 되어져가고 있는 사역들을 선교 보고하는 일로써 섬기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방법으로 우리의 형제들에게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사역은 여전히 지원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글에서 언급된 사역에 대한 자금지원은 값아야할 용자로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 후 또 선교사들을 위한 지원이 마련된 후에 여러분의 돈은 한국에서의 사용을 위해 비축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한국에 있는 이들 우리의 형제들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박해의 시기에 그들이 믿음에 굳건히 서기를 위해서 우리와 함

께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은 한국에서 승리하였고, 승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난관의 시기에 마음이 약하여지지 맙시다. 우리가 한국인들의 비옥한 마음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는 사실을 아시고 남자든 여자든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 어느 때보다 한국의 희망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놓여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영원할 것이라는 그분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굳건합니다.

한국에서의 여러분의 동료

존 T. 채이스

### 한국의 상황

지난 6월에 우리는 잘 진행되던 사역을 뒤로하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최근 몇 달 동안 보았던 것과 같은 발전들과 긴박한 국제관계들에 대한 징후는 그 무렵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소 충격적인 소식, 곧 미국 정부가 극동에 나가 있는 자국민들에게 귀국할 것을 촉구하였다는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한국과 만주국에 머물던 다른 2백 명이 넘는 선교사들과 함께 힐 선교사 부부도 지난 11월에 돌아왔습니다. 이로써 그곳에서의 사역은 선교사의 감독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불가피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날아오는 소식들 중에는 상충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엄중한 검열과 다른 이유들 때문에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정확한 견해를 얻기가 가장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은 결론은 한국에 가서 우리가 작년 5월에 떠난 이후 한국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이 최상의 일이었습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우리는 미국정부로부터 가도 좋다는 허가를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7일에 샌프란시스코 항에서 배를 탔습니다. 물론 가족이 함께 가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저는 일본에 2월 21일에 도착하여 도쿄와

오사카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일본제국에 머무는 동안 면전에서 매우 정중한 대우를 관리들로부터 받았습니다.

한국 서울에 2월 24일에 도착하자마자,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의 설교가들이 나를 서울역으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 친구들은 말하기를 “그들은 그렇게 할 만큼 용감한 사람들이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보자 기뻐하였고 매우 위험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꺼이 집회들에 참석토록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당혹스런 일이란 것을 나는 이내 알아챘습니다. 한국인이 외국인과 가깝게 지내면 그는 “외국인 스파이”와 연계되어 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설교가들과 몇 차례 회의를 가졌는데, 그 때마다 각각의 설교가들은 회의에서 나왔던 말과 일들을 각각의 관할 경찰서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대개의 그 같은 모임들과는 달리 담당형사나 경찰이 이들 모임들에 단 한 번도 임석하지는 않았지만, 곧이어 나는 여러 증거로 볼 때, 당분간은 내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함께 하는 것보다 교회들이 더 잘 꾸려갈 수 있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채이스 선교사의 제교회: 신당정 그리스도의 교회, 설교자: 김윤환 목사(1941년 2월말-3월중순경 촬영)  
CHURCH NO. 1, Y. H. KIM, PREACHER





체이스 선교사의 제5교회: 함양리 그리스도의 교회, 설교자: 박단조 목사(1941년 2월말-3월중순경 촬영)  
 CHURCH NO. 5, P. J. PAK, PREACHER

이제 선교사의 도움 없이 지낸 수개월 후 그 사역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년간 가르치고 훈련시킨 설교자들은 남녀무론하고 누구에게나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침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나는 네 번의 주일들을 서울에서 지켰습니다. 네 주일들 중 두 주일에는 침례탕이 사용되었습니다. 침부한 사진들은 3월 16일에 찍은 것들로써 각각 교회가 평균 출석률 또는 평균이하의 출석률을 보였지만, 이들 교회들이 살아 있고,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출석률이 조금 떨어진 것은 불신자들이 집회들에 참석하는 것을 종종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고, 그들의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애석하게 여기는 한편, 우리는 선한 뜻이 이 진통의 시기에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많은 씨가 옥토에 떨어졌습니다. 이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연단 받고 있고 엄격하게 연단 받을 것입니다.

신사참배를 해야 했던 한국 교회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회자되었습니다. 나는 가능한 철저하게 조사하였고, 기독교회선교부와 관련된 교회들은 신사참배하려하지 않고 있다고 확신합니다.(The churches connected with The Korean Christian Mission ARE NOT GOING TO THE SHRINE.)

그들은 동방요배하지 않습니다.(They ARE NOT BOWING TO THE EAST.)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찬미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교회연합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전 진술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들 교회들은 이 질문에 괴롭힘을 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종교들 법안(Religions Bill)은 한국에서 보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조사와 관찰에 의하면, 몇 가지 사실들이 두드러져 보입니다. 첫째, 교회들과 설교가들은 일종의 성서적 방식에서 수행해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둘째, 그들은 여전히 후원이 필요하고, 확실히 그 같은 혜택이 필요합니다. 셋째, 이 시점에서 선교사가 체류하는 것은, 설사 선교사가 체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사역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방해가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선교사가 돕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닥칠 일체의 의심 때문입니다. 넷째, 후원이 필요하고 전적으로 그럴만한 가치가 있지만,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매달 후원금을 보내는 것은, 설사 가능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는 그것이 회의적이므로, 매우 어리석은 짓일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후원금을 마련해줘야 하는 가였습니다. 힐 선교사 부부가 지난 11월에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그들의 가구와 피아노 등을 놓고 나왔고 그것들을 팔아서 사역에 충당하라고 일러두었습니다. 이 지시는 실행에 옮겨졌고, 돈은 사역에 쓰였으며 조심스럽게 쓰였습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 이타적인 선교사를 결코 안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힐 선교사 부부는 미시건 주 스톨지스(Sturgis)에 있고, 처음부터 다시 살림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들이 최소한으로라도 필요한 것이 채워졌으면 합니다.

우리의 확신은 우리가 한국에 기금을 남겨서 사역이 수행되



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였습니다. 정말 시급한 일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들 설교가들과 교회들, 믿음으로 낳은 우리의 자녀들, 그들 중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홀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들은 이제 겨우 기어 다닐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그들이 일어서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을 부양해야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았습니다. 침대들, 테이블들, 재봉틀, 침대보들, 은그릇들, 양탄자들, 기타 팔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1941년 말까지 사역을 후원할 충분한 돈을 한국에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만약 우리가 여전히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우리가 바라기는 그들에게 지속해서 기금을 전달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사역은 우리가 신뢰하는 김요한, 최상현, 박관조 세 사람의 위원회에 일임하였습니다. 김요한은 교회들의 법적 대표로서 저자(본인)를 대신합니다. 박관조는 협력자인 최상현과 더불어 회계를 맡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충성심과 진실성에 있어서 완벽한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는 미국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가구와 집기들을 판 이 절차가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조치들이었음을 지속적으로 지지해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방법밖에 다른 방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같이 훌륭한 방법으로 성장해온 사역의 지속을 보장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와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지혜를 짜서 모든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전도자 박관조는 우리가 없는 동안 재산의 책임자로서 기독교 회선교부 건물에 들어가 삽니다. 채플실과 침례당은 교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계획들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마땅히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확히 언제 우리가

돌아가게 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사이에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들을 방문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오늘날 형제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진정으로 싸우고 있는 신약성서 그리스도인들이 수백 명이나 됩니다. 박해가 그들에게 임박해 있고, 그들 앞에는 우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놓여 있습니다. 형제님들이여,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미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3월 23일 주님의 날 저녁에 이들 형제들과 헤어질 때 우리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남녀 그리스도인들이 홀로 전쟁에 나가 싸우게 두고 떠나야하는 우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과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가 그들 중에 계속 체류하는 것은 그들의 짐만 더욱 무겁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아래에 첨부한 몇 장의 사진들을 제시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것이 전해진 곳에서 성취되었습니다.

J. T. 채이스

기독교회 선교부

테네시 주 브리스톨

채이스 선교사가 1941년 3월말 이후 한국에서 편지를 받은 것은 1946년 봄이었다. <한국인 전령> 5월호에 따르면, 채이스는 최상현 목사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았고, 두 사람으로부터는 간접적으로 연락을 받았다. 최상현 목사는 편지에서 1941년 후반기에 일제의 명령으로 모든 교회들이 폐쇄 당하였다고 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개의 교회들은 전쟁 중에도 매 주일 비밀리에 모여서 말씀선포와 주의 만찬을 빠트리지 않았다고 전하였다.

믿을만한 정보에 따르면, 일본군정이 선교부 재산을 194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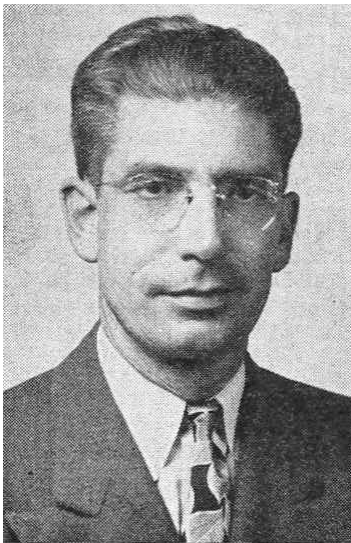
에 적산으로 선포하였고, 몰수하여 1943년에 한국인에게 팔았다. 채이스 선교사는 선교부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1947년 1월 중순부터 2월말까지 서울에서 한 달 반 가량 체류한 때와 1948년 10월 17일에 서울에 도착하여 1949년 2월 중순경에 떠날 때까지 미군정과 대사관에 여러 차례 호소하였고 필자가 확보한 <한국인 전령> 가운데 가장 최근의 것인 1949년 7월호가 발간될 때까지도 기대했던 소식을 듣지 못하였다. 힐 요한 선교사의 글, ‘힐 요한 선교사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 역사’(A Short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Korea)[<썬메론>(한국성서신학교, 1972년 4월 18일)]에 따르면, 서대문구 송월동 32번지에 소재했던 선교부 건물을 완전히 되찾게 된 때는 1952년경이었다. 힐 선교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그러나 1951년 7월 3일까지 남자 선교사들이 한국에 돌아 오기 시작하였고, 필자도 바로 그 날 서울에 돌아왔습니다. 필자는 부산에서 고아원을 시작해 보려고 하였습니 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 영부인을 만나 뵈려고 갔었을 때, 그분은 필자더러 서울에서 시작하도록 권유를 하셨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필자의 오랜 친구, 당시 젊은 청년이었던 성수경을 찾았으며, 서대문 근처 송월동 32번지에 있었던 구 선교부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동행하였습니다. 전향섭은 탄환이 장전된 연발권총을 들고 우리를 쫓아왔으나 우리가 합법적인 재산 소유자임을 알고 물러갔습니다. 우리가 건물의 절반을 차지했고, 전향섭도 나머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약 일 년 후에 미국 대사관과 영국 해외성서공회의 도움으로 우리는 마침내 전씨를 몰아냈습니다. 그 대신 전씨는 정부가 일본인 자산에서 지불한 정착금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필자는 끝내 재산을 되찾게 된 것을 무척 기뻐했으며, 전쟁 중 폭격으로 부분적으로 파손된 구 건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많은 돈을 들여 수리를 마쳤습니다.

채이스는 미군정이 몰수당한 재산을 되찾아 줄 것이라고 확신하였고, 재산을 되찾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한국인 전령> 1946년 5월호에 따르면, 채이스 선교사가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들어오지 못한 것은 미국정부가 한국의 불안한 정세를 이유로 허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한 미군 장교가 선교부 건물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갔고, 채이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

한국인이 거주하는 동안 건물과 대지는 황폐해졌습니다. 그렇다고 건물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조그만 고치면 그 집은 쓸만할 집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수도설비를 고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대지를 깨끗이 정리하는 것 또한 필요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의 구조를 조금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인 전령> 1946년 5월호에 따르면, 이 무렵 채이스는



1946년경  
MR. J. T. CHASE

잉글우드하이츠 그리스도의 교회 (Inglewood Heights Church of Christ, Inglewood, Calif.)에서 목회사역을 하였고, 퍼시픽성서신학교 (Pacific Bible Seminary)에서 매주 하루씩 강의를 하면서 거의 매일 강연을 다녔으며, 모금과 선교사 모집까지 병행하였다. 그 결과 모금 잔액이 1402.07달러에 달했으며, 기독교회선교부 소속 선교사들로서 채이스 가족과 힐 가족 및 클라이드 아담스(Clyde Adams) 가족이 포함되었다.

<한국인 전령> 1946년 10월호

에 따르면, 선교부 재산을 되찾기 위한 청구가 법무부 청구국(Claims Bureau of the Department of Justice)에 접수되었다는 편지가 ‘한국 주둔 미국군정 본부, 문민 통치자를 위한, 군무국장국’(Adjutant General's Department, For the Civil Administrator, Headquarters,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으로부터 왔다.

<한국인 전령> 1947년 5월호에 따르면, 채이스는 1946년 12월 23일 워싱턴 주 시애틀에서 ‘머린 팰컨’(Marine Falcon: 바다의 송골매)을 타고 심한 폭풍과 거친 파도와 빗멀미에 시달리며(배 안에서 2명이 사망) 예정보다 많이 늦은 1월 7일 일본 요코하마 항에 도착하였다. 배를 탄 첫 주일날 설교를 맡았지만, 배가 요동을 치는 바람에 서 있기가 너무나 힘든 상태였다. 일본에서는 에롤 로호즈(Errol Rohodes) 대위와 할 마틴(Hal Martine) 군목이 마중을 나와 주었다. 할 마틴(Hal Martin) 군목은 일본 큐슈에서 복무하고 있었다. 할 마틴은 수개월 후에 김포 미항공기지로 전근을 하게 되어 1947-48년 사이에 선교사의 부재를 메우게 된다. 채이스는 일본에서 1주일을 머문 후에 1월 중순에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비행기가 히로시마 상공을 날았지만, 두터운 구름층에 가려 볼 수는 없었다. 한국입국 수속은 미군이 장악하고 있어서 예전에 비해 너무나 쉬었지만, 비싼 경비를 지불하고 타고 온 비행기에 난방시설이 없어서 엄청난 추위에 떨면서 서울에 도착하여 군부대 숙소에 여장을 풀었다. 1941년에 다녀간 지 꼭 6년 만에 다시 밟는 한국 땅이었다.

채이스는 서울에서 한 달 반가량 체류한 후 3월 1일에 인천항에서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미육군 수송선인 ‘캡스 제독’(Admiral W. L. Capps)호에 승선하여 3월 5일 배 안에서 ‘선교사의 발자취’(Missionary Footsteps)란 글을 썼다. 이 글에 보면, 채이스는 서울에서 머무는 동안 선교부 재산을 되찾기 위한 모든 가능한 일을 다 하였지만 최종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최종결과는 1952년에 가서야 나

타났다. 서울에 도착한 첫 주에만 수차례 교회들을 방문하였고, 최상현 목사와 성낙소 목사와 수차례 회합을 갖고 앞으로의 사역을 계획하였다. 보충대(Replacement Depot)로 향하기 위해서 서울을 떠나기 전날 밤 채이스는 내수정 교회의 사택에서 최상현 목사와 성낙소 목사와 만나 기도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성낙소 목사는 사도행전 13장을 읽고 말하기를, “주님께서 최 형제와 나를 불러 한국에서 신약성서기독교어로 길을 인도하라는 분명한 사명을 주셨다고 느낀다”(I feel that the Lord has called Brother Choi and myself to a definite work, that of leading the way to New Testament Christianity in Korea.)고 하였다. 이어 최상현 목사도 말하기를 “나는 디모데후서 4장 1-2절의 말씀에 따라서 더욱 가치 있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라는 압박을 항상 받는다”(I am constantly feel spurred on to more worthy endeavor by the words of II Tim. 4:1,2.)고 하였다. 이 두 목회자들은 고난과 시련도 많이 겪었지만, 경제적으로도 몹시 어려웠기 때문에 채이스는 서울에 머무는 동안 매주 힘닿는 대로 필수품을 공급해 주었다. 채이스는 3월 13일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였으나 한국에서부터 후두염에 걸려 상당기간 고생하였다.

<한국인 전령> 1947년 5월호에서는 기독교회선교부(the Korean Christian Mission) 소속 직원으로 채이스 선교사 가족과 힐 선교사 가족 그리고 최상현 목사와 성낙소 목사만 열거되었다. 일제의 모진 압제와 탄압이란 불같은 시험을 견디고 끝까지 살아남은 교회는 돈암동(1936년 4월 1일에 돈암리에서 돈암정으로 바꿨다가 1946년 10월 1일부로 돈암동으로 개칭)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낙소 목사의 내수동 그리스도의 교회뿐이었다. 채이스는 1947년 1월 중순경에 주일날 최상현 목사의 돈암동 교회를 방문하여 설교하였다. 당시 돈암동 교회는 일본 적산가옥을 임대하여 살고 있는 한 성도의 가정에서 모이고 있었다. 난방도 되지 않는 집 2층에 있는 두 개의 방에 성인남녀와

학생들까지 40여명이 모였다. 참석한 다수의 성도는 채이스가 1936-41년 사이에 침례를 베푼 성도들이었다. 그날 채이스는 빌립보서 3장 13-14절을 본문으로 설교하였다. 전쟁과 박해와 군 칙령과 심지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켜낸 이들과 함께 드린 이 예배는 채이스에게 남다른 감회와 깊은 감명을 준 자신의 희생을 값지게 한 보람찬 경험이었다.



채이스 선교사가 1947년 2월 초에 방문했던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  
채이스는 이 교회를 예전처럼 내수동교회로 불렀으며, 선교지원금 없이 마련된 이 예배당을 희생의 결과라고 적었다.



채이스 선교사가 1947년 2월 9일에 초청받아 설교한 일본인 거주지였던 대방동의 임대건물에 세워진 교파교회.  
담임목사 D. W. Choi는 최상현 목사로부터 재침례를 받고 이곳에 교회를 세웠으며, 신약성서교회에 관심을 보였다.

그 다음 주에는 성낙소 목사의 내수동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설교하였고 (채이스는 1948년 말에 가서야 비로소 내수동교회를 필운동교회로 고쳐 불렀다), 이어진 주일에는 미군부대에서

설교하였다. 주중에는 선교부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였다. 2월 9일 주일 낮 예배 때 교파교회에 초청을 받아 설교를 하였는데, 최상현 목사가 침례를 베푸는 채(D. W. Chai)라는 이름의 감리교 목사가 일본인들이 모여 살던 대방동에 건물을 임대하여 개척한 교회였다. 이 교회에는 각종 교단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채이스는 이 교회가 머지않아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할 것으로 믿었다.

<한국인 전령> 1947년 5월호, '예전 사역자들과의 접촉'(Workers Contacted)이란 글에 따르면, 채이스는 1947년 1-2월 중 서울에 머무는 동안 예전의 사역자들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최상현 목사와 성낙소 목사는 사역을 지속해왔기 때문에 쉽게 만날 수 있었지만, 다른 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몹시 추운 날 채이스가 서울거리를 걷고 있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김요한 목사였다. 김요한 목사는 그 무렵 사역을 쉬고 있었다. 김요한 목사는 해방 전 세 차례나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다고 했다. 김문화는 서울을 떠나 시골(김동열 목사의 부친이 맞는다면, 김문화 목사는 신사참배 거부로 장로교 목사들로부터 고발당하여 여러 해 동안 투옥되었다가 풀려나, 지철희 목사의 회고에 의하면, 부강교회에 머물렀으며, 그곳에서 소천하였다)에 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또 채이스는 박판조 목사를 찾아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해 보았지만,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가 소련군정이 통치하고 있는 북한에 머물며 한의 업에 종사한다는 것뿐이었다. 이 기간에 채이스는 동석기 전도자도 만났다. 동석기 전도자는 소련군정이 입북하기 이전에는 북한에 머물러 사역을 펼쳤으나 소련군이 입북하기 직전에 남하하였다. 그러나 사모와 자녀들 일부가 북한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동석기 전도자는 말하기를, 소련군이 자신의 전 재산을 몰수하여 한국인 공산주의자들에게 나눠줬다고 하였다.

1947년 12월호에 따르면, 1947년 초가을에 군목 할 마틴(Hal Martin)이 한국근무 명을 받고 부인 에버린(Evelyn)과 아



들 게리(Gary)를 데리고 김포 항공기지에 근무하게 되었다. 할은 한국 근무기간 동안 최상현 목사를 비롯하여 그리스도의 교회 관련자들을 자주 만났고 그들을 찾아 도움을 주었다. 채이스 선교사는, 1947년 말까지도 미국정부가 한국에 선교사 가족들이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군목 할 마틴을 한국으로 보내 내국인 사역자들과 교회들을 돕게 하신 것으로 생각하였다.



좌측부터 군목 할 마틴(Hal Martin)과 최상현 목사  
선교사가 없던 1947년 후반기에 전권을 명 받고 가족  
(Evelyn, Gary)과 함께 김포 항공기지에서 47-48년  
사이에 근무하면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많이 도왔다.

<한국인 전령> 1947년 12월호에 따르면, 최상현이 침례를 베푼 친구가 충청지역에 세운 교회에서 40명이 침례를 받았고, 인근에 두 개의 교회들이 더 세워졌다고 하였다. 채이스는 최상현 목사의 친구란 사람이 장로교인 내과의사라고 하였다. 추정컨대 이 사람은 부강교회에서 김은석 목사와 함께 신화신학연구회를 조직하여 목회자들을 양성한 신현창 장로가 아닐까싶다.

채이스 선교사는 미국에 머물며 목회를 하는 동안에도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 구호물자를 수집하여 한국에 보내는 일에 힘썼다. 구호물자들은 필운동 289번지의 성낙소 목사와 필동 2가 124번지의 최상현 목사에게 보내졌다.

<한국인 전령> 1949년 3월호의 내용은 대부분 채이스가 1948년 10월 17일에 서울에 도착하여 1949년 2월 중순경에 떠날 때까지 한국에서 지낸 보고들로 채워졌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힐 요한 가족이 1949년 2월 15일에 한국에 도착한다는 것이고, 김문화 목사가 1949년 2월 초에 사망하였다는 소식이다. 채이스는 존 힐 선교사 가족이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한국에 머물러 있었다. 채이스는 또 <한국인 전령> 1949년 3월호

에서 여순반란사건과 손양원 목사의 사랑과 용서의 실천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채이스는 한국인성서훈련원의 운영을 힐에게 맡기고 자신은 미국에 남아 1949년 9월 1일까지 주간지 <그리스도인 표준>(Christian Standard)과 함께 ‘한국에 예배당을’(Chapels for Korea)이란 캠페인을 펼치며 50,000달러 기금조성에 힘쓸 계획이었다. <한국인 전령> 1949년 3월호에 실린 채이스 선교사 부인의 글에 의하면, 채이스는 1949년 3월 1일 이후에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할 것이고, 몇 개월 더 모금운동에 전념한 후에 두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채이스는 1948년 10월에 한국으로 떠날 때 7년간 섬겼던 잉글우드 하이츠그리스도의 교회를 8월말에 사임하고 떠난 것으로 보아 1949년 중에는 가족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힐도 채이스 가족이 9월에 한국으로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도 썼다<“Overcoming Obstacles in Korea,” KM, 1949년 7월호>. 그러나 채이스 가족은 예정했던 기간에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였다. 그해 10월 9일을 “Chapels for Korea” Day(주일)로 정했는데, 그 이유는 채이스 가족이 한국에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탄 날이 1936년 10월 11일이었기 때문이다<CS, 8 October 1949: 650>. 그러나 이때까지 모금된 총 액이 2만 달러에 그쳤다. 이 2만 달러 모금을 위해서 채이스는 150개 교회, 6개 대학, 4개의 캠프 집회, 2개의 미션스쿨, 5개의 컨벤션에서 설교하였고, 개인들과 접촉하였다<“Missionary Visits 150 Churches to Present Korean Work,” CS, 22 October 1949: 678>. 그리고 모금 목표금액이 달성된 것은 6.25동란이 터진 직후인 1950년 7월이었다. 모금된 돈은 총 5만 62달러 90센트였다<“Proposed Goal Reached in ‘Chapels for Korea’ Campaign,” CS, 8 July 1950: 420>. 이 기금은 전후 군대지원프로그램(Armed Services Aid Program)에 3천 달러가 사용되었고, 일본으로 피신한 힐 가족과 폴 잉그램 가족의 거주지를 구입하는데 일시



존 채이스 가족(1944년경)  
 한국에 재입국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몇 차례 단기 입국을 시도하였다.  
 Mr. and Mrs. J. T. Chase and Family

사용되었다가 해롤드 테일러 (Harold Taylor) 선교사에게 모두가 양되었다. 채이스는 자신의 뜻에 반하여 모금이 늦어져 6.25동란 이전에 이 기금이 쓰이지 않게 된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었다. 만일 채이스가 그 돈을 자신이 계획했던 시기에 교회건축에 사용했다라면, 교회들이 전쟁 중에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것이고, 그 돈은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 4. 선교부 건물의 매입, 몰수, 환원까지(1939-49)

송월동 선교부 건물은 채이스 선교사 가족이 서울에 도착해서 처음 임대하여 1936년 연말부터 살면서 1937년에 '기독교회 선교부'(the Korean Christian Mission)를 설립하였고, 동년에 지하실에서 한국인인성서훈련원을 개교하였다. 이곳에 침례당도 설치하였다.

1939년 초에 건물의 소유주였던 영국해외성서공회가 선교차원에서 싼값에 매도할 의향을 비치자 채이스는 이를 크게 반기며 매입을 추진하였다. 이 건물은 대지 225평 위에 세워진 2층 반 건물이었다. 화장실 2개와 방들이 있는 훌륭한 지하실(건물 바닥의 3분의 2크기)과 난방설비가 갖춰진 건물이었다. 채이스는 액면가격 17,000달러짜리 이 건물을 10,000달러에 넘겨받

데, 매입자금 마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939년 말까지 갚기로 하였다.

채이스 선교사는 1939년 한 해 동안 이 건물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고, 그 결과 1939년 말에는 약정 금액의 절반인 5,000달러를 갚을 수 있었다. <한국인 전령> 1940년 12월 4호에 따르면, 채이스 가족이 안식년을 갖기로 하고 1940년 6월 1일에 서울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간 것은 갚지 못한 나머지 절반의 금액을 모금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때 채이스 가족이 안식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힐 요한 선교사 가족이 1939년 6월 21일에 서울에 도착하여 선교사역을 시작하였으므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해 전운이 감돌면서 미국 정부가 한국에 배를 보내 자국민들을 철수시킴으로써, 김경중의 석사논문 32쪽에 따르면, 힐 선교사 가족도 11월 16일에 인천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마리포사 호에 승선해야 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체류할 수 없게 되고, 건물이 비게 되자, 채이스는 단신으로 1941년 2월 24일 서울에 입국하여 팔 수 있는 모든 기물을 팔고 선교부 건물을 난로공장 사장 전항섭에게 임대를 놓아 1941년 말까지 목회자들에게 지원금을 줄 수 있는 돈을 만들어 놓고 3월 마지막 날에 서울을 떠났다. 선교사가 머문 한 달간 목회자들이 박해에 너무나 시달렸기 때문에 채이스로서는 도저히 더 이상 남아 있을 수가 없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포격함으로써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에 일본은 미국인들의 재산을 적산으로 취급하여 몰수한 후에 매도하였다. 이에 1943년에 선교부 재산도 몰수를 당하였고, 그곳에 세 들어 난로공장을 운영하던 전항섭에게 팔렸다. 이에 채이스는 이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힐 요한 선교사 가족이 한국에 돌아가 활동하던 1952년경에 몰수당한지 10여년 만에 환수가 이뤄졌다. 힐 요한 선교사가 가정문제로 1955년 귀국하자 테일러 선교사 가족이 일본에서 하던 선교를 그만두고 그 해 11월에 내한하였고,

테일러 선교사는 이 선교부 건물을 포함해서 1958년에 새로 지은 신학교 건물까지 모두 팔았으며, 북서울 역천동(현재 신사동)에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지어 서울성서신학교(현 서울기독대학교) 시대를 열었다.

## 5. 한국인 성서 훈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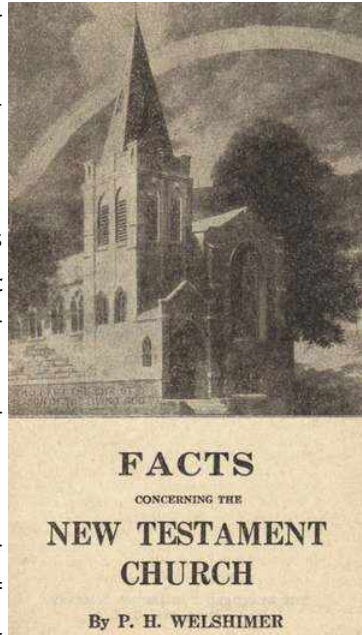
<한국인 전령> 1937년 4월 제2호에 따르면, 채이스는 선교부 지하실에 '한국인성서훈련원'(The Korean Bible Training Institute)을 개설하고 14명의 학생으로 일주일에 4일씩 신약성서기독교를 강의하였다. 최초의 학생은 김요한 목사였고, 곧 이어서 최상현 목사, 김문화 목사, 백낙중 목사, 박판조 목사(당시 20대 중반의 청년)가 합류하였으며, 이듬해 1938년에는 성낙소 목사도 합류하여 이곳에서 공부하였다. 위에 거명된 여섯 명



채이스 선교사의 사역자들/신학생들(1938년 1월경, 성낙소(1939년 분함성) 조축부터 성수경(성낙소의 아들), 박판조 목사(정릉리교회), 백낙중 목사(왕십리교회), 김요한 목사(신당정교회), 채이스 선교사, 최상현 목사(돈암정교회), 김문화 목사(산돌암정교회), 성낙소 목사(내수정교회)

가운데 백낙중 목사를 뺀 다섯 명은 한국인성서훈련원을 1940년 3월 25일에 졸업하였다.

이 한국인성서훈련원에서 사용한 최초의 교재는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저명한 목사 P. H. 웰시머(Welshimer)가 저술한 20쪽 짜리 전도책자 <신약성서교회에 관한 사실들>(Facts Concerning the New Testament Church)이었다. 미국 에모리 대학교에서 목회학석사(B.D.)를 마친 김요한 목사가 번역하여 교재로 사용하였다. 이후 훈련원에는 미국에서 보내온 영문서적들이 쌓여갔다.



체이스는 이들 목회자들에게 수 년씩 재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신약성서기독교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믿음을 심어주었다고 자부하였다. 그 열매가 바로 그들이 일본 기독교회 조선교단에 가입하지 않고,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교회들이 폐쇄를 당한 후에도 2-3개의 교회들이 비밀리에 주일을 성수하고 주의 만찬을 빠뜨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유지한 이유라고 믿었다. 이것은 체이스 자신이 7년간이나 고용 선교사가 되어 일하다가 결별했던 W. D. 커닝햄이 교파배경을 가진 사역자들을 고용해서 쓰고 신학교를 세우지도 자기 일군을 키우지 아니한 결과와 비교가 되었다.

## 6. 격월간 <한국인 전령>

체이스 선교사는 선교지인 <한국인 전령>(The Korean Messenger: Korea for Christ)을 1937년 2월부터 격월간으로 서울에서 발간하였다. 그리고 1940년 6월에 미국에 들어가

# THE KOREAN MESSENGER

## KOREA FOR CHRIST

Vol. I

Seoul, Korea, February 1937

No. I



AN OLD KOREAN TEMPLE

존 채이스 선교사가 1937년 초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한국인 전령: 그리스도를 위한 한국> 발간호  
서 태평양 전쟁과 6.25동란으로 한국에 나오지 못한 근 10년간  
은 미국에서 계속해서 발간하였으나 격월간으로 이어지지는 못  
하였다.

### 7. 기독교회 선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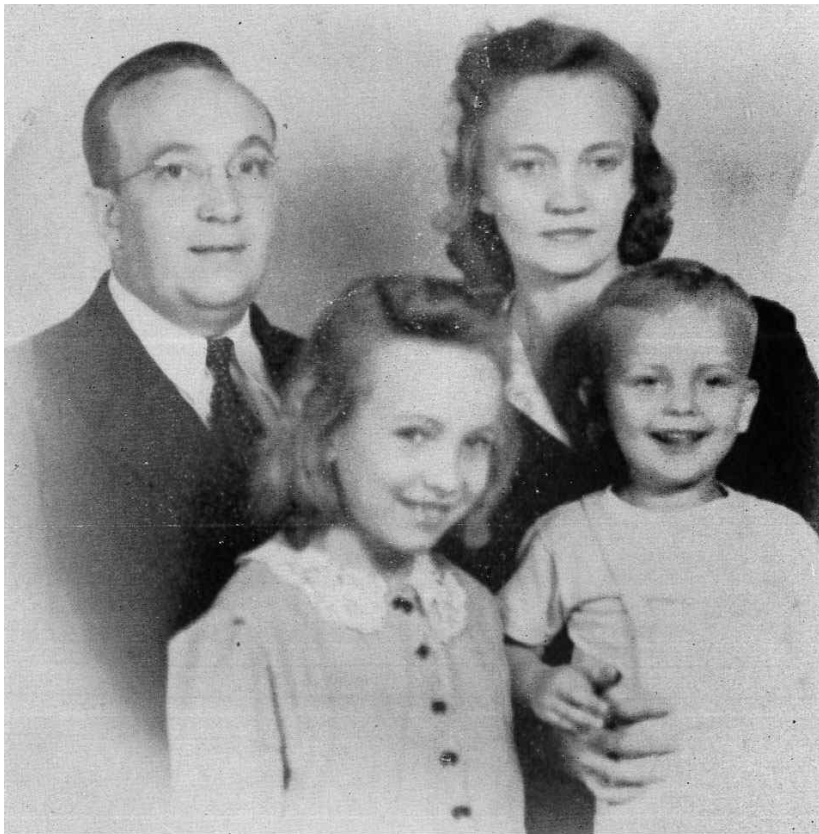
채이스 선교사는 1937년에 서울  
서대문구 송월동 32번지, 곧 게이조  
쇼계추조 32-6번지에 '기독교회 선교  
부'(The Korean Christian Mission)  
를 설립하였다.

1930년대 초 미국에 불어 닦친 대



채이스 선교사가 1936년에 설립한 기독교회선교부  
(The Korean Christian Mission) 직인

공황의 격랑기에 급여문제로 커닝햄과 갈라섰던 채이스는 기독교회 선교부의 정체성을 독립(independent)과 협력(co-operative)의 원칙에 두었고,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의 상호 의존성(dependent upon God and His people)에 두었다. 채이스는 또한 '그리스도를 위한 한국'(Korea for Christ)에 '신약성서기독교'(New Testament Christianity)를 세우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선교부의 사역을 세워나갔다.



클라이드 아담스 가족(1944년경)

클라이드는 한국에 선교사로 입국하려고 모금운동을 펼치던 중인 1946년 5월에 갑자기 사망하였다.  
Mr. and Mrs. Clyde Adams and Family

채이스는 협력 선교사들을 모집하는 일에도 게을리 하지 않았는데, 그가 존슨 대학교(당시 존슨성서대학)를 방문하여 졸업을



수개월 앞둔 우등생 힐 요한을 한국의 선교사로 모집한 것은 그가 남긴 여러 업적 가운데 가장 탁월한 것이었다. 그는 또 클라이드와 테사 아담스(Clyde and Tessa Adams) 부부를 선교사로 모집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한국에 들어 올 준비를 하면서 미국정부의 허락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던 중에 클라이드 아담스가 1946년 5월에 갑작스럽게 사망함으로써 아담스 가족은 결국 한국에 선교사로 가려던 계획을 포기해야 했다. 끝내 한국에 돌아온 가족은 힐 요한 선교사 가족으로서 1949년 2월 18일에 서울에 도착하였다. 김경중의 석사논문 39쪽에 따르면, 아담스



하워드 켈리 부부(1944년경): 한국에 선교사로 나올 계획을 가졌던 가족  
Mr. and Mrs. Howard Kelly

가 한국에 나오기 위해서 모금한 금액은 3천 1백 2달러 97센트로써 전액 기독교회선교부 재건을 위해서 쓰였다고 한다.

체이스는 힐과의 관계를 바울과 바나마처럼 상하 또는 주종 관계가 아닌 철저히 독립적인 관계로 설정하였다. 1930년대 독립 교회들(그리스도인들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연합그리스도인선교회(United Christian Missionary Society)가 실시한 선교방법에 반대하여 취했던 직접후원선교방식을 택하였다. 따라서 힐 요한 선교사 가족은 체이스 선교사 가족과는 개별적인 선교후원을 받음으로써 급여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선교할 수가 있었다.

체이스는 한국을 다녀간 1947년경부터 한국에 예배당들을 건축하기 위해 ‘한국에 예배당을!’(Chapels for Korea)이라는 모금운동을 주간지 <그리스도인 표준>(Christian Standard)과 공동으로 펼쳤고, 1949년 9월 1일까지 이 50,000달러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김경중의 석사논문 41쪽에 따르면, 목표했던 모금액이 달성된 것은 6.25동란이 터진 직후인 1950년 7월이었다. 모금된 돈은 총 5만 62달러 90센트였다. 이 기금은 전후 군대지원프로그램에 3천 달러가 사용되었고, 일본으로 피신한 힐 가족과 폴 잉그램 가족의 거주지를 구입하는데도 사용되었다. 물론 이 돈은 주로 한국의 교회개척과 예배당 수리 및 건축비용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체이스는 이 돈을 다 사용하지 않고 남겨서 18,424달러 88센트를 테일러 선교사에게 인계하였다. 테일러 선교사의 선교지 <한국에 그리스도를!>(For Christ in Korea) 1957년 6월호에 따르면, 추가로 모금된 10,432달러 95센트를 더해서 총 28,857달러 83센트로 39개 교회에 도움을 주었고, 여전히 지원받지 못한 교회들을 위해서 부족분 5,000불을 채울 수 있도록 더 후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8. 요츠야 선교부 사역자들과의 관계

채이스는 커닝햄이 세운 요츠야선교부가 1924년 이후 펼친 한국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본인이 요츠야선교부에서 1927년부터 1934년까지 7년간이나 사역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이스는 전부터 잘 알고 지냈던 한국에서 일하는 이인범이나 이원균과 같은 사역자들과 교회들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았고, 인정하지도 않았다. 이 무렵 한국에는 요츠야선교부가 파송한 이원균과 이인범 등이 세운 교회가 제물포 3개, 서울 3개, 평북 구성군에 5개, 마산 1개, 총 12개나 있었다. 이원균은 서울에서 먼 평북 구성군에 상주하였으므로 크게 관심을 끌 일이 없었겠으나 이인범은 조선지역 포교책임자일 뿐 아니라, 제물포와 서울 및 마산에 교회들을 세운 인물이었으므로 전혀 관심이 없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1932년 초에 성낙소 목사는 조선총독부 종교과에 포교계를 제출하고 ‘사곡선교회 기독교 교회’를 등록하였으나 이를 이인범 목사가 나중에 ‘조선선교회 기독교 교회’로 바꿔 등록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조선총독부 종교과에서 이를 승인한 날짜는 1932년 6월 11일이며, 이는 성낙소 목사의 공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1937년 1월까지 요츠야 선교부에 보고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숫자는 앞서 열거한 대로 12개였으나 미국 신시내티에서 발행되는 월간지 <환원 전령>(Restoration Herald)의 편집인 리온 마이어즈(Leon Myers)에게 조선총독부가 확인해 준 숫자는 3개뿐이어서 요츠야선교부는 이를 거듭 확인해 보고하도록 촉구한바가 있다. 그리고 2개월 후 토마스 히치가 요츠야선교부 한국 선교사로 부임한 1938년 3월에는 조선총독부가 11개의 교회를 확인해 주었다. 이런 분명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전령> 1937년 10월 제 5호에서 채이스는 1936년 10월까지 “한국에는 선교사 가족도 없고, 설교 사역자 양성소도 없고, 내국인의 교회도 없고, 내국인 전도자도 없고, 선교소식지도 없었다”(No Missionary Family in Korea; No Preacher Training School; No Native Congregation; No Native Evangelist; No Missionary Paper)고 적었다. 그러나

1937년 10월 현재는 선교사 한 가족이 서울에 상주하고 있고, 한국인성서훈련원(The Korean Bible Training Institute)이 제 2학기 과정을 진행 중이며, 신당정 그리스도의 교회와 두 명의 전도자들과 다수가 훈련을 받고 있고, <한국인 전령>(The Korean Messenger)이 2,250부씩 격월간으로 발행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 보도는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요츠야선교부의 한국사역에 대해서 열광하던 현실에서 채이스 선교사가 미국에 거짓보고를 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이인범이 포교책임자로 있는 12개나 되는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신약성서기독교로 인정하지 않으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커닝햄은 이인범과 이원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였다. 커닝햄은 그들을 한국의 캄벨과 스톤 또는 가나안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에 비교할 정도였다. 이러한 상황을 채이스 본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마크 맥시가 '일본 선교 100년(1883-1983)'에서 지적한 것처럼, 채이스를 파멸한 1934년까지가 커닝햄 선교의 정점이었고, 커닝햄을 후원했고 또 그에게 영향을 받아, 수년 전 채이스가 선교사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대로, 한국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 1935년에 한국에 왔던 J. 마이클 셸리(J. Michael Shelley)와 1939년에 호주로 돌아간 토마스 히치(Thomas G. Hitch) 등이 모두 채이스의 편에 섰다. 그들은 모두 이인범을 부정한 인물로 보고, 이를 요츠야선교부에 알렸으나 선교부는 이들 선교사들보다는 이인범을 더 신뢰하였다.

이런 여러 사실들 때문에 채이스는 이인범과 그가 세운 교회들을 신약성서기독교로 간주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이인범 또한 커닝햄을 궁지로 몬 채이스 선교사를 멀리 했을 것이다. 그러나 1948년 말에 채이스는 요츠야선교부에서 지원을 받았던 이난기 목사와 그가 시무하는 용산교회가 기독교회 선교부에 소속된 것을 기뻐하였고, 그를 기꺼이 도왔다.

채이스와 다른 선교사들과의 관계는 매우 좋았다. 채이스는 미국의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 아카펠라)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는 동석기 전도자와 강명석 전도자 그리고

일본 요츠야선교부에 소속된 토마스 히치 선교사와 이인범 목사에게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할 때 그 누구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채이스는 쉐리나 히치로부터 부정한 인물로 낙인이 찍힌 이인범하고만 교제하지 않았을 뿐, 다른 이들과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강명석 전도자를 신당정 그리스도의 교회 1주년 기념 예배에 초청하여 설교를 들었고 교제의 끈을 놓지 않았다. 성낙소 목사도 강명석 전도자와 매우 친밀한 관계였다. 일본 커닝햄의 요츠야 선교부가 파송한 토마스 히치(Thomas G. Hitch)와도 사이가 좋았고, 히치가 한국에 올 때마다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히치의 빈자리를 채운 오웬 스틸(Owen Still)과는 존슨대학교 학부와 신시내티성서대학원의 동문이었으므로 더더욱 관계가 좋았다. 이뿐 아니라, 채이스는 커닝햄의 요츠야선교부에서 1934년에 함께 사임한 후 일본에 남아 독립 선교사로 사역하는 팰햄(Farnham)과 루스 슈노버(Ruth Schoonover) 그리고 오사카성서대학에서 사역하는 해



1939년 여름 뒷줄 우측 끝에 채이스가 있고, 앞줄에 그의 가족들이 도열하였다.  
좌측부터 사모 와네타(Wahnetta Smith)와 로이스(Lois), 로버트(Robert), 케네스(Kenneth), 네이딘(Nadine).  
뒷줄 좌측부터 해롤드 콜 부부(Harold Cole of Osaka), 중앙에 루스 스노버 양(Ruth Schoonover of Tokyo),  
에스터 비번즈와 존 J. 힐 부부(Esther Beavens and John J. Hill), 존 T. 채이스(John T. Chase)

롤드 콜(Harold Cole) 가족 등과도 긴밀하게 교제하였다.

### 9. 토마스 G. 히치와 오엔 스틸 선교사 가족들

토마스 G. 히치(Thomas G. Hitch)와 딸 애니가 일본에 요츠야선교부에서 일하기 위해서 일본에 도착한 것은 <도쿄 그리스도인> 1936년 4월호에 따르면, 1936년 3월 3일이었다. 히치는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3월 말경부터 커닝햄과 함께 한국의 교회들을 순방하였다. 부인 E. 히치와 딸 엘리스(Alice)가 일본에 합류한 것은 일 년 늦은 1937년 3월 2일이었다. 토마스과 부인 E. 그리고 딸 애니(Annie)가 한국에 상주 선교사로 파송된 것은 <도쿄 그리스도인> 1938년 5월호에 따르면, 1938년 2월과 3월이었다. 히치는 2월 18일에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먼저 갔고, 부인과 두 딸은 한국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3월 24일 고베로 가는 기차를 탔다. <도쿄 그리스도인> 1938년 3월호 기사에 실린 히치의 소개서를 보면, 그들은 한국에서 훈련원을 열어 일주일에 4일간 하루에 세 시간씩 가르치게 될 것이고, 한국정부가 확인해 준 11개 교회와 다른 작은 모임들을 순방하게 될 것이며, 영어성경공부반도 개설할 것이라고 하였다.

히치는 영국인이며, 부인 E.는 독일에서 태어났다. 그들은 캐나다 침례교회의 선교사들로서 티베트 국경지대에서 다년간 사역하였다. 그들은 또한 일본에서 7년간 사역을 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도쿄 그리스도인> 1937년 1월호는 부인 E. 히치가 일본과 중국에서 19년간 선교사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하였고, 호주 멜버른 에센돈(Essendon)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파송 받아 온다고 소개하였다.

1934년에 채이스를 비롯한 다수의 선교사들이 요츠야선교부를 떠났기 때문에 W. D. 커닝햄으로서는 협력자가 절실히 필요하였다. 이러한 때에 커닝햄은 다년간 알고 지낸 히치 가족을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에서 일본으로 불러들였다. 히치 가족이

일본에 도착하여 요츠야선교부 소속 선교사로 사역을 시작한 것은, <도쿄 그리스도인> 1937년 1월호에 따르면, 1937년 3월 2일부터였다. 커닝햄 가족은 히치가 부임하자마자 선교부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한 달이 조금 지난 4월 24일에 안식년을 보내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갔고, 커닝햄은 그해 6월 24일 암으로 사망하였으므로 히치 가족의 책무는 더욱 무거워졌다.

히치는 일본에 부임하여 1937년까지 선교부 소식지 <도쿄 그리스도인>의 편집과 회계를 임시로 맡아보면서 한국 선교지를 감독하기 위하여 자주 순방하던 중 1938년 3월부터 한국에 상주하였다. <도쿄 그리스도인> 1938년 3월호는 그들이 한국으로 가게 된 것은 요츠야선교부에 속한 구성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하였다.

히치 가족은 힐 요한 선교사 가족이 한국에 도착한 1939년 7월말부터 8월초까지 여름을 화진포에서 채이스 가족, 힐 가족, 일본에서 건너온 다수의 선교사들과 함께 보낸 후에 요츠야선교부를 사임하고 호주로 떠났다.

토마스 G. 히치(Thomas G. Hitch)에 이어서 요츠야선교부의 한국선교를 담당했던 오웬 스틸(Owen Still)은 채이스와는 같은 대학과 대학원을 나온 동문이었다. 존슨대학교(전 존슨성서대학)는 각기 다른 시기에 다녔지만, 대학원(Cincinnati Bible Seminary)은 같은 시기에 다녔다. 요츠야선교부의 한국 선교지를 순방하는 동안 자주 채이스의 집에 머물렀다.

오웬 스틸은 부인의 병 치료를 위해서 안식년까지 가졌으나 의사가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만류함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1949년 5월경에 은퇴하였다. <도쿄 그리스도인>(Tokyo Christian) 1950년 5-6월호에 따르면, 스틸 가족은 1950년 5월 3일 하와이로 사역지를 옮겼다.

## 10. 은퇴 후 생활

채이스가 한국선교에서 완전히 손을 떼 시점은 1956년 1월

3일이었다. 채이스는 1947년경에 시작한 ‘한국에 예배당을’(Chapels for Korea) 짓기 위한 캠페인으로 조성된 기금의 잔액 전부를, 김경중의 석사논문 47-48쪽에 따르면, 이날 오클라호마 주 마이애미의 제일 그리스도의 교회에 보냈다("Final Report on 'Chapels Fund'," *Christian Standard*, 28 January, 1956, p. 60). 그리고 이 기금은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해롤드 테일러에 의해서 한국교회들의 건축과 수리와 보수를 위해서 사용되었다.

채이스는 목회에도 성공적이어서 1951년부터 1968년까지 17년간 시무한 캘리포니아 주 도우니의 제일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형교회로 성장시켰다. 김찬영 목사의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 119-124쪽에 의하면, 채이스는 은퇴 후 필리핀 세부(Cebu)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고, 전미선교대회(National Missionary Convention)의 창립멤버와 대회장직을 역임하였다. 그는 또 교회연금제도(Church Development Fund)의 창립이사였고, 산호세 성서 대학(현 William Jessup University)의 이사였으며, 북미주 그리스도인 대회(NACC)의 유지회원이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1982년 NACC로부터 ‘올해의 목회자’(Churchman of the Year) 상과 1984년 신시내티기독교대학교 및 성서대학원에서 ‘저명한 동문’ 상(Distinguished Alumni)을 수상하였으며, 도우니(Downey)와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의 시의원직에도 당선되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자, 신약성서기독교의 참 선교사였던 채이스는 1987년 12월 23일 캘리포니아 주 로디(Lodi)에서 82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소천 하였다.

## 11. 채이스 부부에 대한 추모

1) 존 T. 채이스(John Trawrick Chase)

출생: 1905년 9월 17일. 미국 켄터키 주 루이빌

사망: 1987년 12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디(Lodi)



부친: 로완 F. 채이스(Rowan F. Chase)

모친: 헬렌 로버츠 채이스(Helen Roberts Chase)

아내: 와네타 아이린 스미스 채이스(Wahneta Irene Smith Chase, 1901-2002)

장지: 포플러 릿지 묘지공원(Poplar Ridge Cemetery), 미국 테네시 주 설리번 카운티 파이니 플래츠(Piney Flats Sullivan County Tennessee, USA)



존 T. 채이스 부부의 추모비

2) 와네타 아이린 스미스 채이스(Wahneta Irene Smith Chase)

출생: 1901년 10월 28일(미국 테네시 주 설리반 카운티 파이니 플래츠)

사망: 2002년 7월 18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카운티 레몬 그로브(Lemon Grove San Diego County California, USA)

부친: 존 라이트 스미스(John Wright "Rite" Smith,

1842-1916)

모친: 미니 조지 요스트 스미스  
(Minnie George Yost Smith,  
1860-1937)

남편: 존 T. 채이스(John Trawrick  
Chase, 1905-1987)

장지: 포플러 릿지 묘지공원(Poplar  
Ridge Cemetery), 미국 테네시 주  
설리번 카운티 파이니 플래츠(Piney  
Flats Sullivan County Tennessee,  
USA)

3) 2002년 7월 23일(화)자 Lodi  
News-Sentinel 8쪽에 실린 와네타  
아이린 스미스-채이스에 관한 부고기  
사

와네타 스미스-채이스가 만 100세  
로 2002년 7월 18일 잠자던 중에 조  
용히 사망하였다. 그녀는 1901년 10  
월 28일 테네시 주 포플러 릿지의 존  
과 미니 스미스의 14자녀들 가운데  
12번째로 태어났다. 1899년에 태어난  
그녀의 자매 릴리 버논 스미스는 아직  
건강하게 살아 있으며 테네시 주 존슨  
시티에 거주하고 있다.

스미스-채이스는 신시내티성서대학  
원에서 신학석사학위를 받고 졸업하였  
으며, 졸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존  
T. 채이스와 결혼하였다. 그들은 캘리  
포니아 주에서 목회자로 일본과 한국  
및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일생을 함께



**WAHNETA IRENE  
SMITH-CHASE**

Wahneta Smith-Chase,  
100, died quietly in her  
sleep on July 18, 2002.

She was born October 28,  
1901, the twelfth of fourteen  
children of John and Minnie  
Smith of Poplar Ridge,  
Tennessee. One sister, Lillie  
Vernon Smith, born in 1899,  
remains alive and well in  
Johnson City, Tennessee.

Mrs. Smith-Chase gradu-  
ated from Cincinnati Bible  
Seminary with a degree in  
Religion and shortly thereaf-  
ter married fellow-graduate,  
John T. Chase. Together  
they began a lifetime of  
Christian service which  
included pastorates in  
California and missionary  
work in Japan, Korea and  
the Philippine Islands. After  
retirement they moved to  
Lodi where husband, John,  
died in 1987.

Wahneta Chase is sur-  
vived by all of her four chil-  
dren, nine grandchildren,  
twelve great-grandchildren  
and three great-great-  
grandchildren.

She was a kind and gen-  
tle person who made the  
world a better place for hav-  
ing been with us.

와네타 채이스의 부고기사

보냈다. 은퇴 후 그들은 1987년에 남편 존이 사망한 로디로 이주하였다.

와네타 채이스의 4명의 자녀들은 모두 생존해 있으며, 그들에게서 9명의 손자손녀, 12명의 증손자녀, 3명의 고손자녀를 두었다. 그녀는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으로서 동시대를 살면서 세상을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었다.

## 12. 존 T. 채이스 선교사와 내국인 사역자들

신약성서기독교를 표방하는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초기 목회자들은 성서의 가르침에 철저하였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였다. 몇 분 되지 않은 목회자들 가운데 동석기, 최상현, 성낙소, 김문화, 오현팔, 최춘선과 같은 애국지사 또는 독립투사들이 있었고, 존 T. 채이스 선교사의 협력으로 1937-40년 사이에 세워진 다섯 개의 교회들<신당정교회(김요한 목사, 미국 에모리 대학교 목회학석사 출신), 돈암정교회(최상현 목사, 연희전문학교 제1회 졸업생), 내수정교회(성낙소 목사, 한의사), 산돈암정교회(김문화 목사) 및 청량리교회(박관조 목사)>은 모두 일본기독교회 조선교단에 가입하기를 거부하였고, 동시에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거부하였다. 이로 인해서 1940-45년 사이에 성낙소 목사를 필두로 이들 목회자들은 일경에 불려가 모진 매를 맞았고, 김요한 목사는 세 차례나 투옥되었으며, 김문화 목사는 옥고를 치렀다. 1941년 후반기에는 다섯 개의 교회가 모두 폐쇄 조치를 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암정 그리스도의 교회의 최상현 목사와 내수정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낙소 목사는 비밀리에 주일을 성수하면서 주의 만찬예배를 빠트리지 않았다. 채이스 선교사는 이 사실을 1941년 초와 1947년 초에 단기간 입국하여 직접 확인한바가 있다.

한때 <신학세계>의 편집인이었던 최상현 목사는 해방 후 미군정 때 연락관으로 활동하면서 교회를 지켜냈고, 한의사였던 성낙소 목사는 일제의 핍박에 굴하지 않고 한약방을 열어 생계

유지를 하면서 교회를 지켜냈다. 더불어 성낙소 목사의 필운동(46년에 개명)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었고, 독립투사 오현팔 목사의 후손들이 필운동 교회에 출석하였다. 이런 인연으로 오현팔 목사의 손자인 오수강 목사는 성낙소 목사의 손녀와 결혼하였다. 1919년에 장로교회로 개척했다가 1940년에 일제에 의해 폐쇄 당했던 자신의 교회를 해방 직후에 그리스도의 교회로 복원한 오현팔 목사는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온전히 교회를 위해 바친 김은석 목사와 연락하고 지낸 사이였고, 미국 일리노이 주 소재 링컨기독교대학교 출신과 재학생들이 합심하여 서울기독교대학교의 전신인 대한기독교신학교를 설립할 당시 설립상임위원회의 회원으로도 활동하였다. 김포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 애국지사 최춘선 목사는 김포지역에 거대한 토지를 소유한 거부였으나 6.25동란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데 전 재산을 사용하였다. 그는 소천 직전 30년간을 맨발로 다니며 전도하였고, 소천 직전 몇 년간 세상에 ‘맨발의 천사’로 알려졌다.

성낙소 목사의 <자서전> ‘제9장 대동아 전쟁과 교회 박해’에 따르면, 1940년 가을에 총독부가 ‘일본기독교회 조선교단’이라는 명칭으로 기독교의 모든 교파를 통합하기 위해서 각 교파의 대표들을 피어선 성경신학교내 장로교 총회장 사무실에 모이게 하였다.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도 김문화 목사, 최상현 목사, 성낙소 목사가 참석하였으나 가입에 반대하였고, 이로 인해서 성낙소 목사는 모진 매를 맞았으며, 한의사였던 성낙소로부터 병고침을 받았던 형사가 풀어주어 다행히 옥고는 면하였으나 김요한 목사와 김문화 목사는 나중에 투옥되어 옥고를 치렀다. 당시 각 교파는 일본기독교회 조선교단에 가입할 뿐 아니라, 신사참배와 동방요배에 면죄부를 주었으나 신약성서기독교를 표방한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조선교단에 가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거부하였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교회들로 남았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강제로 폐쇄당한 이유가 이 때문이었다.

한편 일본 요츠야선교부에서는 1941년 1월 21일 일부 목회자들의 갑작스런 요구에 의해 회합을 가졌는데, 요구한 측에서 다른 3개 교회 목회자들에게는 고의로 통보를 누락한 모임이었다. 이 모임에서, 커닝햄 부인과 다른 선교사들이 강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사역자 4명과 조선인교회 사역자 이원균과 이성영이 일본기독교단에의 가입을 다수결로 밀어붙였다. 서울기독교대학교 백종구 교수의 논문, ‘윌리엄 D. 커닝햄과 한국인 선교-동경 요시야선교회를 중심으로’에 의하면, 한국에 있는 17교회들도 이인범의 주도로 1945년 7월 19일 ‘일본기독교회 조선교단’에 가입하였다. 다만 일본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종전 후 ‘일본기독교단’으로부터 탈퇴하였고, 이 가운데 문을 닫은 몇 개의 교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리스도의 교회들로 살아남았다고 한다. 반면에 ‘일본기독교회 조선교단’에 가입한 요츠야선교부 소속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해방 후 그리스도의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채이스가 1948년 10월 17일에 서울에 도착하여 1949년 2월 중순까지 한국에 체류할 당시에 요츠야선교부 소속이었던 이난기 목사와 그의 용산교회는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에 합류되어 있었다.

1940년 6월초에 채이스 선교사 가족이 안식년으로 미국으로 들어가고, 힐 선교사 가족조차 미국정부의 철수 명령으로 그해 11월 16일에 본국으로 돌아가 선교사들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그 해 가을에 채이스가 협력하여 세운 다섯 개의 교회들은 일본기독교회 조선교단에 가입하라는 압박을 받았고, 이를 거부한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불법집회를 연다는 명목으로 탄압을 받기 시작할 무렵 채이스 선교사는 선교부 재산을 보호하고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듬해인 1941년 2월 24일에 서울에 도착하여 3월 23일까지 한 달간 체류하였다. 그 기간에 형사들이 선교사를 따라 붙었고, 채이스와 만나는 사람들을 경찰서에 불러 조사하고 주고받은 모든 이야기를 써서 제출토록 하였다. 이에 채이스는 자신의 존재가 이들 목회자들과 교회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귀국하였다. 채

이스는 이때의 상황을 <한국인 전령> 1945년 2월호에서 한국인 목회자들이 선교사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끌려가 매를 맞았다고 적었다. 성낙소 목사도 <자서전>에서 경찰서에 끌려가 심하게 매를 맞고 풀러난 사실을 기록하였다.

체이스가 떠난 이후 그 해 말에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거부한 이들 다섯 개의 모든 교회들이 폐쇄조치를 당하였고, 김요한 목사와 김문화 목사는 투옥되어 옥고를 치렀다. 그러나 돈암정교회와 내수정교회만큼은 비밀리에 주일마다 집회를 열었다. 결국 이 두 개의 교회만이 끝까지 살아남았다. 체이스는 <한국인 전령> 1946년 5월호에서 이 사실을 전하며 신약성서기독교의 승리임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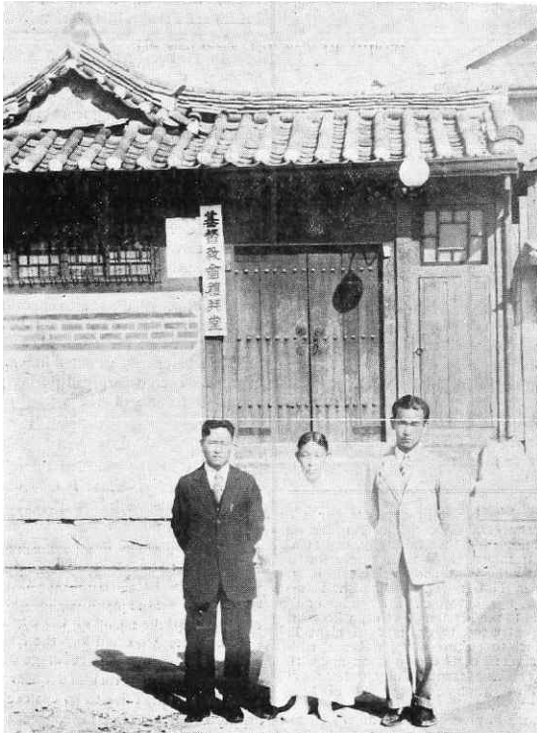


김요한 목사, 1937년 미국 에모리대학에서 목회학석사(B.D.)를 받았다.

김요한 목사는 해방 전에 세 차례나 옥고를 치른 후에 교회를 쉬고 있었고, 김문화 목사는 해방 전에 치른 옥고의 후유증으로 1948년 말 또는 1949년 초에 사망하였으며, 박판조 목사는 소련군정이 들어선 이북에 넘어가 내려오지 않았고, 최상현 목사는 6.25동란 때 납북되었으며, 백낙중 목사는 피살됨으로써 체이스의 사역자들 가운데 끝까지 살아남은 목회자는 환갑을 갓 넘긴 성낙소 목사뿐이었다.

## 1) 김요한 목사

<한국인 전령> 1937년 4월 제2호에 따르면, 김요한(金約翰/與範) 목사는 미국 에모리 대학교(Emory University)에서 B.D.(오늘날의 M.Div)를 받고 돌아온 감리교 목사로서 체이스 선교사가 한국에 왔을 때 한국어 가정교사로 채용되면서 그리



체이스 선교사의 제1교회: 신당정 그리스도의 교회(사택7점용/임대)  
 김요한 목사가 이 건물에서 1937년 3월 첫 주일부터 예배를 시작하였다.  
 (좌측부터 김요한 목사, 사모, 아들)

스도의 교회를 접하게 되었다. 체이스와 매일 만나 성경을 공부하던 중에 빌립이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침례를 베푸는 장면에 이르렀을 때, 김요한 목사는 체이스에게 자신도 내시처럼 침례를 받고 싶다고 피력하였고, 체이스는 김요한 목사 부부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1937년 2월에 서울시 안에 인구 3만여 명이 살지만 교회가 없는 곳에 가정집을 임대하였고, 김요한 목사가 가족이 그곳으로

이사하여 살면서 그 집에서 3월 첫 주부터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체이스의 제1교회가 신당정 그리스도의 교회였다.

체이스 선교사는 선교부 건물 지하실에 한국인성서훈련원(The Korean Bible Training Institute)을 개설하였는데, 김요한 목사는 이 학교의 제1호 학생이 되어 4년간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그리고 김요한 목사는 체이스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에 제1호 교재로 소개한 소책자를 한글로 번역하였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저명한 목사 P. H. 웰시머(Welshimer)가 저술한 20쪽짜리 전도 용으로써 제목이 <신약성서교회에 관한 사실들>(Facts Concerning the New Testament Church)이었다.



신당정 그리스도의 교회 (창립 9개월만의 모습, 1937년 12월경)



신당정 그리스도의 교회 창립 1주년 기념 (1938년 3월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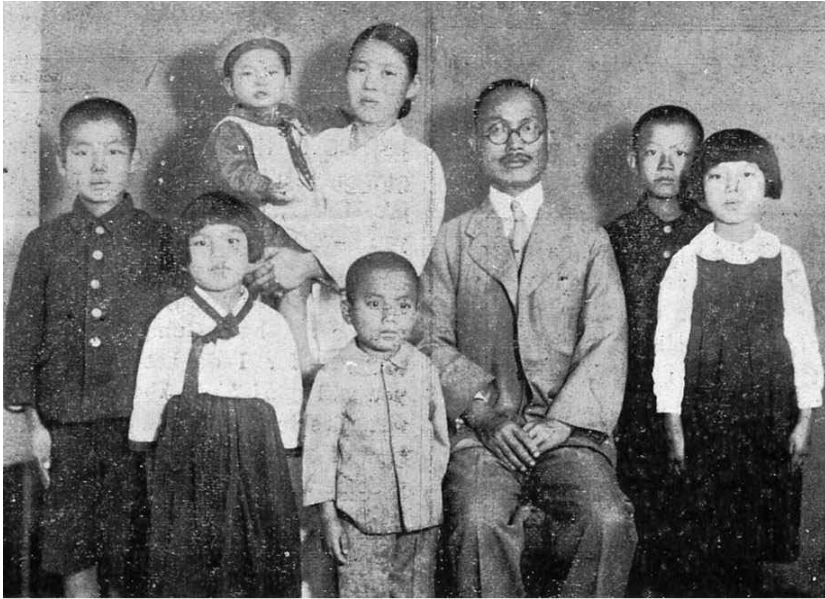
우측에 존 채이스 선교사, 그 앞에 김요한 목사, 그 옆에 강명석 목사("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 설교), 좌측 끝에 백만조 전도자

채이스 선교사는 교회들이 폐쇄된 1941년 말부터 소식이 끊긴 사역자들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한국인 전령> 1947년 5월호 '예전 사역자들과의 접촉'(Workers Contacted)에 따르면, 채이스는 1947년 1-2월 중 어느 몹시 추운 날 서울 거리를 걷고 있다가 우연히 김요한 목사를 만났다. 김요한 목사는 채이스에게 자신은 목회사역을 쉬고 있고, 해방 전에 세 차



레나 옥고를 치렀다고 말했다.

## 2) 최상현 목사



최상현 목사 가족, 1937년

<한국인 전령> 1937년 10월 제5호에 따르면, 어느 날 한 감리교회 목사가 자신이 저술한 계시록에 관한 소책자들을 팔려고 체이스를 찾아왔다. 그가 바로 연희전문학교(제1회 졸업), 중국 북경 연경대학교(수학)와 협성신학교를 졸업하고 다년간 신학교에서 강사와 감리교잡지 <신학세계>의 편집인을 지낸 최상현 목사였다. 최상현이 체이스를 만난 시점은 1929년 본처 사역자로 미감리회 조선연회에서 집사목사안수를 받고, 궁정교회에 부임하여 첫 목회를 하다가 1931년 체부동교회로 옮긴 후 1935년 목회를 사임하고 성서공회에 관련된 일을 보던 중이었다. 그 방문의 결과로 최상현 목사는 한국인성서훈련원에서 학습하기 시작하였고, 머지않아 성서적인 침례를 받겠다고 자청하였으며, 1937년 9월 1일에 한강에서 침례를 받았다.



채이스 선교사의 제2교회: 도암정 그리스도의 교회 창립기념  
1937년 12월 19일(10월 17일 창립)



<한국인 전령> 1937년 12월 제6호에 따르면, 어느 날 최상현 목사가 채이스에게 말하기를, 자신은 감리교회를 탈퇴하였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인(Christian only)으로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자 선교사가 말하기를, “아 그러세요. 자랑스럽겠군요?” 그러자 최상현 목사가 대답하기를, “예, 신약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역시 임대건물에 입주하여 교회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해서 1937년 10월 17일에 탄생한

체이스의 제2교회가 돈암정 그리스도의 교회였다.

<한국인 전령> 1946년 5월호에 따르면,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1941년 말에 일본기독교회 조선교단 가입 거부와 신사참배 및 동방요배를 거부한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폐쇄시키자 최상현 목사의 돈암정교회는 성낙소 목사의 내수정교회와 마찬가지로 은밀히 모여 주일을 지켰다.



1938.10.16日  
 1939.10.15日  
 돈암정 그리스도의 교회 창립기념사진  
 제주년 기념(1938년 10월 16일) 및 제주년 기념(1939년 10월 15일)



<한국인 전령> 1946년 5월호에 따르면, 최상현이 그해 봄에 체이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은 미군정에 소속되어 한국인과의 연락책으로 일하고 있다고 소식을 전하였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47년 1월 중순경에 체이스 선교사가 주일날 최상현 목사의 돈암동교회를 방문하여 설교하였는데, 당시 돈암동교

회는 일본 적산가옥을 임대하여 살고 있는 한 성도의 가정에서 모이고 있었다. 난방도 되지 않는 집 2층에 있는 두 개의 방에 성인남녀와 학생들까지 40여명이 모였다. 참석한 다수의 성도는 채이스가 1936-41년 사이에 침례를 베푼 성도들이었다. 그날 채이스는 빌립보서 3장 13-14절을 본문으로 설교하였다. 채이스로서는 돈암정 그리스도의 교회가 일제의 압살정책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신약성서교회란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는 감명깊은 순간이었다.

채이스는 1948년 12월 12일 돈암동교회의 집회소인 개인주택 2층이 너무 협소하여 70-80명이 앉을 수 있는 꽤 큰 널찍한 집을 임대하는 데 필요한 돈의 절반 정도를 협조하였다.

이뿐 아니라, 채이스는 그해 2월 9일 주일 낮 설교를 최상현 목사가 침례를 베푼 감리교의 채(D. W. Chai)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에 초청받아 행하였는데, 이날은 채이스에게 최상현 목사가 또 하나의 그리스도의 교회의 탄생의 가능성을 보여준 날이었다. 이 교회는 전에 일본인들이 모여 살던 대방동에 건물을 임대하여 쓰고 있었는데, 각종 교단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채이스 선교사가 1947년 1월 중순에 서울에 도착하여 2월말까지 머문 후에 3월 1일 미국으로 떠난 수개월 후에 일본 큐슈에서 복무하던 공군 군목 할 마틴(Hal Martin)이 김포 미항공기지로 전근을 오게 되어 1947-48년 사이에 채이스의 부재를 메웠는데 최상현 목사의 협력이 컸다.

최상현 목사와 성낙소 목사의 노력의 결과로 채이스 선교사가 단기방문으로 1948년 10월 17일에 서울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돈암동 교회(최상현 목사, 침례 14명)와 필운동교회(성낙소 목사, 침례 30명)뿐 아니라, 위동교회(성수경 목사, 침례 8명), 공덕교회(백낙중 목사, 침례 19명), 용산교회(이난기 목사, 침례 28명), 아현동교회(윤낙영 목사, 침례 17명)로 발전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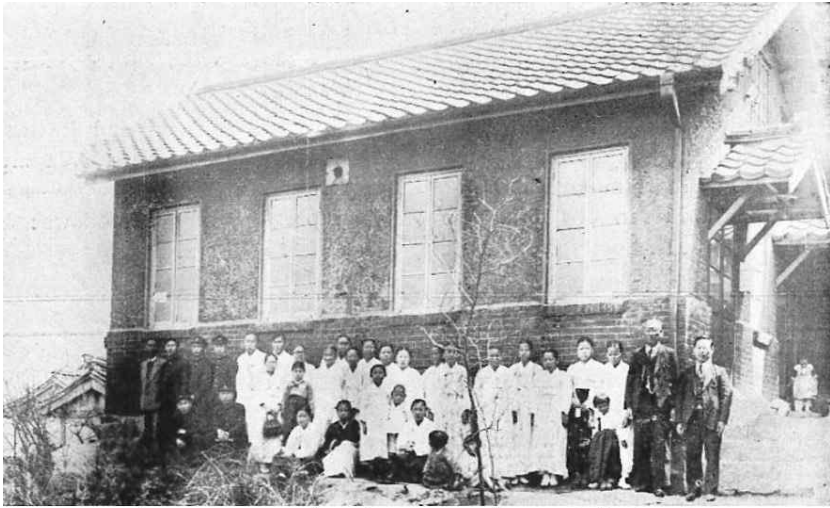
힐 요한 선교사 가족이 1949년 2월 18일 서울에 도착하고, 채이스 선교사가 1948년 10월 17일에 서울에 도착하여 1949

년 2월 중순경에 떠날 무렵 최상현 목사는 만 57세였으며, 9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매우 불행하게도 이듬해 1950년 6.25사변이 터지고 그해 8월 최상현 목사는 공산군에 의해 납치된 후 행방불명이 되었다.

### 3) 성낙소 목사

성낙소는 홍주성 의병군에 가담하려했다가 기회를 놓치자, 구세군에 가입하였다. 기미년 독립만세운동 때 영동지방의 유지와 청년들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여 왜경에게 쫓기다가 처가에 피신하고 있던 중 1927년 1월 1일 충남 부여군 세도면 화수리 2구 290번지 사랑채에 ‘기독교교회’(基督之教會)를 개척하였다. 곧이어 성낙소는 이 교회출신 재일유학생에 의해 커닝햄에게 소개되었고, 커닝햄의 초빙을 받아 1930년 5월에 일본에 건너갔으며, 커닝햄이 안식년으로 미국에 가 있는 동안 채이스의 감독아래 횡빈조선기독교교회를 1931년 1월부터 9월 사임할 때까지 담임하였다.

성낙소 목사는 1931년 9월 하순에 박홍순 목사를 대신하여 요츠야선교부로부터 조선지역 포교책임자로 임명받고 귀국하였다. 성낙소는 “11월 15일에 경성에 도착하여 계동에 거주하며” 포교책임자 직책을 수행한 20개월 동안 서울 제1교회를 담임하며, 인천의 난도(남동)교회(침례 52명, 요츠야선교부 제15번째 교회)와 송현기독교교회(침례 18명, 요츠야선교부 제16번째 교회)를 도와 교회로 승격시켰으며, 서울 송4동 주일학교(유치원)를 설립(1932년 3월 14일)하였다. 또 조선기독교교회를 조선총독부 종교과에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 교회’로 등록하여 1932년 6월 11일 승인을 받아냈다. 성낙소가 거주한 계동에 서울 제1교회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도쿄 그리스도인> 1932년 1, 6, 8월호, 1933년 6-7월호, 1937년 1월호; 성낙소, ‘제5장 본국에 포교 임명(1931),’ <자서전: 기독교의 교회와 성낙소와의 관계>]



채이스 선교사의 제교회, 내수정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낙소 목사(1939년)

성낙소 목사의 <자서전>에 “계동, 공덕동, 청엽동, 내수동, 인천 송현동 외 2곳과 평북 구성(平北 龜城)에 기독교 회를 1년 반 동안 7개 회를 설립하였고, 부여 지방에는 기성(既成)한 회였다.”는 기록이 있다. <도쿄 그리스도인>(Tokyo Christian)에 실린 기사들을 볼 때, 성낙소가 조선지역 포교 책임을 맡은 기간은 대략 1년 8개월 정도 되어 보인다. 또 성낙소가 이인범에게 포교 책임자 직책을 넘긴 직후 얼마 못되어 제물포에 3개, 서울에 3개, 평북 구성군에 5개, 마산에 1개, 총 12개의 회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서전>에 언급된 7개의 회들이 다수가 완전한 회가 아닌 성경공부모임 형태였을지라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보인다. 성낙소 목사가 일본에서의 사역을 마친 1931년 9월 하순에, <도쿄 그리스도인> 1931년 11월호에 따르면, 채이스 선교사가 서울을 순방하였다. 이때 채이스는 서울에 1개의 회와 여러 개의 성경공부모임(Bible Schools)이 있다고 전하였다. <도쿄 그리스도인> 1931년 12월호는 성낙소 목사가 한국으로 돌아오고, 그가 설교했던 요코하마 조선인회를 류재헌(劉載獻, Chai Hun Ryu)이 맡게 된 것은 성낙소 가족의 병 때문이었다

고 전하면서 한국에 이성록이 시무하는 서울교회가 있고, 난도교회(‘난도’는 ‘남동’이란 뜻의 일본말)가 있다고 하였다. 성낙소는 이 서울교회와 제물포의 난도교회를 돌봤던 것으로 보인다. 난도교회는 신생교회로서 40여명이 가정에서 모였다. 그밖에도 요츠야선교부와 연관된 교회들이 총 15개가 있다고 하였다. 이어진 1932년 1월호는 성낙소 목사가 1931년 10월 난도교회(제15교회)에서 9명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2개의 교회들을 섬기고 있으며, 다른 13개의 교회들은 각각의 목회자들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15개 혹은 13개로 언급된 교회들은 대부분 소규모의 성경공부 모임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더불어 1933년 6-7월호에서는 제물포교회(제16교회)가 4월 9일 1주년을 맞았다고 하였고, 38세로 소개된 이원균이 구성에 간지 채 일 년도 안돼서 인근에 6개 교회를 세웠다고 보도하였다. 중요한 것은 제물포교회가 설립된 시점이 이인범이 한국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1932년 8월 이전이란 점이다.



커닝햄, 이인범(좌), 이원균(우)(1936년경)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성낙소 목사가 일본에서 돌아온 직후 그의 증언대로 1년 반 정도 포교 책임자의 직책을 수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요츠야선교부를 조선총독부에 등록하여 1932년 6월 11일자로 승인을 받게 한 것도 성낙소 목사인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이 확신은 이어지는 <도쿄 그리스도인>의 기사들에서 확인한 결과이다.

<도쿄 그리스도인> 1933년 8월호에 따르면, 커닝햄이 이인범을 한국에 보내 2차례에 걸쳐 예비답사를 하게한 결

과에 고무되어 요츠야선교부와 제10교회는 이인범을 한국에 보내 서울에 튼튼한 교회를 세우게 하고, 조선에 세워진 요츠야선교부의 교회들을 돌보는 순회전도자와 조력자가 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요츠야선교부는 6월 5일 월례회에서 한국에 상주할 한 선교사 가족을 요청한다는 제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인범이 섬기던 조선인교회(제10교회)는 이인범의 조력자였던 채호(Ho Cheh)가 맡게 되었다.

커닝햄은 이인범을 한국의 알렉산더 캠벨 또는 “추수를 기다리는 지상 최고의 황금들판”(the ripest mission field on earth today)을 접수할 여호수아라며 절대적으로 신뢰하였다. 이 무렵 한국에서는 감리교와 장로교 선교사들이 선교지역분할을 합의한 선교정책을 이유로 들어 요츠야선교부의 한국선교를 박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교파를 버리고 순수한 신약성서교회로 환원하고자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누누이 소개하면서 그 증거로 이인범의 전도여행의 성과를 제시하였다.

<도쿄 그리스도인> 1932년 9-11월호에 따르면, 이인범은 8월 1일 선교탐방을 위해서 한국에 들어갔고, 그 기간에 8월 21일 하루에만 93명에게 침례를 베푼 것을 비롯해서 2개월 체류기간에 총 138명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이뿐 아니라, 이 탐방기간에 이인범은 여러 교파교회들로부터 청빙 제안을 받았다. 그리고 1933년 2-3월호에서는 한국에서 3개의 교회가 신약성서기독교어로 환원하였고, 그들 중 한 교회가 서울 창동교회인데, 이인범이 목회자가 되어주기를 바랐으나 이인범은 오히려 성 목사를 추천하였고, 성 목사도 이 제안을 수용하였으며, 창동교회는 몇 차례의 공동회의를 통해서 11월 20일에 성 목사를 목회자로 모시기로 결정하게 되었다고 전하였다. 또 <도쿄 그리스도인> 1933년 4-5월호는 이인범이 제2차 선교탐방을 위해서 한국에 들어갔고, 3월 24일까지 2월 19일에 27명, 3월 8일 서울에서 8명, 3월 12일 제물포에서 13명에게 침례를 베풀었다고 전하였다.



성낙소 목사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성낙소 목사가 내수정교회를 언제 시작했느냐이다. 성낙소는 <자서전>에서 1932년에 서울 종로구 내수정 106-1번지에 내수정 기독교회를 개척한 것처럼 기술해 놓았지만, 이 기술은 구체적인 것이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포괄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성낙소 목사가 채이스 선교사의 제3교회로 편입된 것은 1939년 초였다. 성낙소는 자서전에서 병자년(1936년) 4월에 김문화(金文和) 목사의 전갈로 채이스와 상면한 것으로 언급하였으나 채이스가 한국에 도착한 것은 그해 11월이었으므로 성낙소 목사가 1937년 2월 10일까지가 병자년이었던 것 때문에 착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인 전령> 1949년 3월호와 <그리스도인 표준> 1939년 3월 18일자 및 6월 17일자에 의하면, 성낙소는 1938년 11월 4일 채이스로부터 침례를 받았고, 그 이전부터 한국인성서훈련원에서 학습한 것으로 되어 있다. 채이스는 1939년 4월 20일(6월 17일자)에 쓴 글에서 성낙소의 내수정교회가 제3교회로 편입되었음을 보고하면서, 성낙소는 편입 몇 년 전 이 교회를 동일 장소에서 ‘조선예수교회’(the Korean Jesus Church)로 개척하였으나 그의 교회가 기독교회선교부의 제3교회가 된 것은 그가 3년째 한국인성서훈련원에서 신약성서 교회를 학습한 결과라고 하였다. 또 채이스는 성낙소가 이 교회를 1939년 그리스도의 교회로 개명하기 전부터 신약성서의 가르침대로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고 전하였다.

성낙소 목사와 내수정(46년부터 필운동)교회는 모든 면에서 가장 확실히 신약성서교회를 실천하였고, 끝까지 살아남았으며, 채이스와 힐이 미국의 형제들에게 크게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었다. 또한 많은 수의 유능한 목회자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배출된 것은 성낙소 목사와 필운동교회가 내세울만한 업적이다.

또 교역자 측에서는 “동석기 전도자가 1939년 9월에 내수동 106번지 건물을 3,000원에 구입했으나 인적자원이 부족하여 성낙소 목사에게 빌려주었는데 해방 때까지 사용하였다. 해방

후 건물을 회수하여 동석기 전도자가 1945년 9월 내수동교회를 시작하였다.”(박규현(1962),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역사’, <그리스도의 교회>2권, 19-20.)고 말한다. 기록들로 볼 때, 성낙소는 1937년 4월경 채이스 선교사와 연락이 닿아 한국인성서훈련원에 출석하기 직전에 이미 내수동에서 조선예수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1939년 초에 가서야 기독교회 선교부의 제3교회가 되었다. 채이스가 1941년 2월 24일에 서울에 도착하여 한 달간 머물면서 촬영한 3월 10일자 사진에는 내수정교회 제2주년으로 되어 있어서[참고, 오수강, <기독교의 교회와 성낙소와의 관계>, 6쪽] 성낙소 목사가 조선예수교회를 떠나 내수정 그리스도의 교회란 이름을 갖게 된 것은 1939년 초가 확실해 보인다. 그리고 그해 9월 이후에 동석기 전도자로부터 내수동 106번지 건물을 임대하여 해방 전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운동교회의 창립 연도를 1937년으로 잡은 것은 성낙소가 1937년에 채이스와 재회한 직후부터 조선예수교회의 간판만 늦게 내렸을 뿐이지 내용은 사실상 그리스도의 교회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1968년 1월 7일자, 28일자, 2월 4일자 필운동 교회 주보(담임 최순국 목사)에 다음과 같은 글이 성낙소 목사의 사진과 함께 연속해서 실렸었던 이유도 이런 이 정황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 성낙소 목사님: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초대 목사 중의 한 분으로서 필운동 교회에서 1937년도부터 별세하신 해 1964년도까지 시무하신 제1대 목사님이십니다.”

성낙소 목사의 교회는 채이스 선교사가 단기 입국한 1947년 2월 이전까지는 채이스와 힐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내수정교회로 불렸다. 그리고 <한국인 전령>에 실린 1939년과 1941년 사진의 내수정교회 건물은 동석기 전도자가 소유한 건물로써 1947년에 실린 필운동 교회 건물과는 전혀 다른 건물이었다. 성낙소의 내수정교회는 일본기독교회 조선교단에 가입하기를 거부하고,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1941년 후반기에 폐쇄 당하였다. 이후 성낙소는 매주일 예배와 주의 만

찬을 비밀리에 진행하던 중에 오수강 목사의 증언[<주간 기독교>, 제1285호, 1998년 3월 22일자]과 책에 의하면, 1943년 7월 7일 종로구 내수정교회를 필운동 289번지로 옮겨 1946년에 필운동교회로 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로 보건데 성낙소 목사의 내수정교회는 채이스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1939년에 시작되어 채이스의 제3교회가 되었고, 동석기 전도자의 내수정교회는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에 시작되었다. 힐 요한 선교사는 1940년에 이 내수정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영어성경공부를 개설한바가 있다. 1941년 후반기에 폐쇄당한 이후에는 비밀리에 교회를 유지해오다가 1943년에 종로구 필운동 289번지에 대지 42평 초가를 매입하여 7월 7일 옮겨간 후 해방 후 그곳에 내수정교회를 복원하였고, 이듬해 1946년에 개명하여 본격적으로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 시대를 연 것으로 추정된다. 1947년 2월에 채이스가 촬영한 사진은 필운동교회로 알려진 건물이었다. 그리고 이 필운동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는 가장 확실하게 살아남은 자기 건물을 가진 유일한 교회였다. 힐 요한 선교사는 1949년 2월 18일에 입국하여 거주하던 연지동의 임대주택에서 개교한 신학교를 이곳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1949년말-50년대초)

필운동교회로 옮겨 이어갈 수 있었다.

체이스 선교사가 1948년 10월 17일에 단기 입국했을 때 성낙소 목사는 만 58세였다 (1890년 5월 16일생). 성낙소 목사의 필운동교회는 1948년 11월 21일 주일 오후에 체이스의 한국방문환영회를 성대하게 열어주었다. 또 이 무렵 필운동교회는 윤낙영 목사의 아현동 교회의 목사 생활비를 후원하고 있었다.

#### 4) 김문화 목사

<도쿄 그리스도인> 1933년 10월과 11월호에 체이스가 쓴 김문화 목사의 영문이름 이니셜(M. W. Kim)과 동일한 인물이 언급되어 있다. 이 글에 따르면, 그는 일본 요츠야선교부 소속의 교회들로부터 후원을 받고 한국의 교회개척지에서 사역하고 있었으며, 그해 8월에 7명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만일 이 사람이 김문화 목사였다면, 그가 어떻게 체이스 선교사의 초기 사역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게 된다.

김문화 목사는 1938년에 촬영된 한국인성서훈련원 학생들의 단체 사진에 포함되어 있고, 체이스 선교사가 찾는다는 소식을 성낙소 목사에게 전한 사람이기도 하다. 체이스는 1939년경에 박관조가 개척한 산 돈암동 교회를 김문화 목사가 맡게 하였으며, 1940년 가을에 총독부가 소집한 각 교단 대표들의 모임에 최상현 목사, 성낙소 목사와 함께 참여하여 일본기독교회 조선교단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이로 인해서 1941년 후반기에 교회가 폐쇄 당하였다. 만일 김문화 목사가 김동열 목사의 부친인 것이 확실하다면[<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289쪽)], 그는 이 당시 치른 옥고의 후유증으로 김은석 목사가 시무하던 부강교회에서 소천하신 분과 동일인이 된다(지철휘 목사, '내가 보고 알고 들은 김동열 목사님,'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이 무렵 김은석 목사는 최상현 목사, 성낙소 목사, 할 마틴 군목 등과 교류를 하고 있었다. 다만 체이스 선교사는 서울에서 사역하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김은석 목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최상현 목사를 통해서 지방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이다.

<한국인 전령> 1947년 5월호 ‘예전 사역자들과의 접촉’(Workers Contacted)에 따르면, 채이스는 1947년 1-2월 중 서울에 머무는 동안 예전의 동역자들과 접촉하려고 애썼는데, 김문화는 서울을 떠나 시골에 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1948년 10월 17일에 서울에 도착하여 1949년 2월 중순경까지 한국에 체류하고 있을 때 채이스는 김문화 목사의 부고를 접하게 되었다. 장례는 그의 아들의 집(신탄진교회)에서 이뤄졌고, 성낙소 목사가 주관하고 최상현 목사와 채이스 선교사가 보조하였다. 김문화 목사는 사망하기 한 주전에도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설교하였고, 성서의 단순한 가르침으로 청중을 집중하게 만드는 훌륭한 설교가였다고 전한다.

## 5) 박판조 목사



박판조 목사의 결혼사진(1938년 5월 3일)

인성서훈련원에서 교육을 받기

<한국인 전령> 1937년 12월 제6호에 따르면, 박판조는 29살 때인 1937년 여름에 채이스로부터 침례를 받았으나 여전히 장로교회에 출석하던 중에 채이스를 찾아와 장로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하였다는 것과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겠다고 피력하였다. 박판조는 다년간 성서공회에서 여러 비서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일하였으며, 채이스에게 추천된 인물이었다. 박판조는 1937년 11월 1일부터 한국인성서훈련원에서 교육을 받기 시작하였다. 채이스 선교사는 그

를 디모데가 될 재목으로 뽑았고, 채이스가 마음을 준 젊고 능력 있는 일꾼이었다.

<한국인 전령> 1938년 6월 제3호에 따르면, 박판조는 1938년 5월 3일에 결혼하였다. 채이스는 박판조 목사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들려오는 소식은 그가 소련군정이 통치하고 있는 북한에 머물며 한의 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무렵 북한을 장악한 소련군들은 주둔기간 내내 강간, 폭행, 약탈을 일삼았다. 그 상황이 일제치하보다 더 나빴다고 한다. <한국인 전령> 1947년 5월호, '예전 사역자들과의 접촉'(Workers Contacted)이란 글에서 채이스는 동석기 전도자가 전해준 이야기를 전하였다. 동석기는 북한에 체류하면서 사역을 펼치고 있다가 부인과 일부 자녀들을 북한에 남겨둔 채로 소련군이 입북하기 직전에 남하하였다면서 두고 온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였으며, 소련군들이 동석기 전도자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한국인 공산주의자들에게 나눠줬다고 하였다.

## 6) 백낙중 목사

백낙중 목사는 1938년에 촬영된 한국인성서훈련원 학생들의 단체 사진에 포함되어 있고, 당시 최상현 목사가 개척한 돈암정 교회에 출석하였다. 그는 외국어학교를 졸업한 후 오랜 기간 공립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백낙중은 당시 두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이 무렵에 교사였던 부인과 함께 최상현 목사로부터 침례를 받았다. 그도 한국인성서훈련원에서 태평양전쟁 직전까지 교편을 잡고 있던 기간에 시간을 쪼개서 근 4년간 신약성서기독교에 대해서 학습하였다. 채이스는 1941년부터 48년까지 그에 대해서 소식을 듣지 못하다가 1948년에 만났을 때, 공덕교회를 개척하여 시무하고 있었다. 교인들은 그가 세운 공명학교의 학생들이었고, 집회소는 그가 운영하는 학교의 교실이었다.

힐 요한 선교사는 1972년에 남긴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선

교 약사'에서 초기 교회들 가운데 백낙중 목사가 시무한 왕십리 교회가 나중에 세워졌다고 하였는데, 이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는 분명치 않다. 백낙중 목사는 힐 요한이 1949년 2월 18일에 입국하여 연지동에서 개교했다가 학생이 많아져 필운동교회로 옮긴 '한국인 성서 훈련원' 또는 '한국인 기독교 성서 신학교'(Korean Christian Bible Seminary)의 교수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1949년 12월 9일자 사진들에 의하면, 이 신학교의 교수들은 힐 요한, 성낙소, 최상현, 백낙중 네 사람이었고, 이때의 학생들 중에는 최춘선도 포함되어 있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열거된 한국인 교수들이 모두 체이스가 한국인성서훈련원에서 교육하고 협조하여 신약성서교회를 개척하게 한 사람들이고, 일제의 탄압을 이기고 살아남은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목회자들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최상현 목사는 6.25동란 중에 납북되었고, 백낙중 목사는 피살되었다. 최상현은 미군정 때 연락관을 지낸 인물이었고, 백낙중은 미군이 들어왔을 때 그들의 통역관으로 일한 교육가이자 목회자였다. 그런 그들의 경력이 빨갱이들에게 납북되고 피살된 원인이었는지도 모른다.

## 7) 성수경 목사

성수경 목사는 성낙소 목사의 아들이다. 체이스는 성수경을 7-8세 무렵부터 보아왔는데, 체이스가 1948년 말경에 성수경을 만났을 때 그의 나이는 이미 만 29살이 되어있었고, 결혼해서 두 자녀를 두고 있었다. 성수경은 다년간 중학교 교사로 교편을 잡았으나 당시 서울대학교에서 연장교육을 받고 있었다. 성수경은 아버지처럼 목회자가 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아버지와 번갈아가며 필운동교회와 위동교회에서 설교하였다.

성낙소 목사는 한약방을 운영하여 생계를 유지하였고, 필운동교회는 80여명이 앉을 수 있는 허름한 건물이었다. 체이스가 1947년에 방문했을 때 필운동교회는 옅은 흙벽으로 빛이 새어

들어왔었으나 1948년 말과 1949년 초에 방문했을 때는 벽이 수리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제대로 된 예배처소가 필요했던 것은 다른 교회들과 다름이 없었다.

위동교회는 시골에 위치하였고 산과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 무렵 위동교회는 개척된 지 6개월 정도 되었으며, 예배처소는 교회에 다니지 아니하는 친구가 소유한 집이었다. 채이스 선교사가 1947년에 한국에 왔을 때, 성수경은 날조된 살인 누명을 쓰고 서울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성수경은 채이스에게 수감 중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할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였다. 성수경은 아버지 성낙소와 교대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위동교회를 섬겼다.

## 8) 이난기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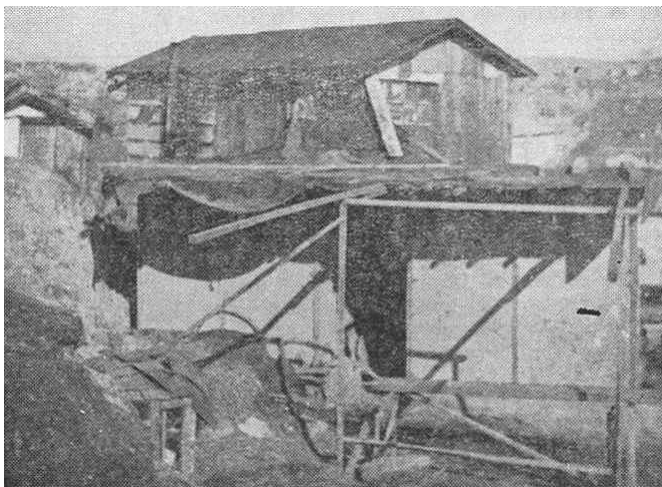
채이스 선교사가 1948년 10월 17일에 서울에 도착하여 1949년 2월 중순까지 한국에 체류할 당시에 요츠야선교부 소속이었던 이난기 목사와 그의 용산교회는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에 합류되어 있었다. 이난기는 당시 만 68세였다. 협성신학교를 졸업하였으나 신약성서교회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였다. 탄탄한 교회로서 불교사원으로 일본인이 건축한 건물에서 모였다. 정부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였다. 채이스가 처음 방문해서 느낀 용산교회의 특징은 남녀가 구별된 자리에 앉았는데 한국의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여성신도 숫자보다도 남성 신도가 더 많다는 점이었다. 한 번 더 방문했을 때는 남녀의 숫자가 동일하였다.

<도쿄 그리스도인> 1941년 5월호에 이난기 목사가 요츠야선교부의 스틸 선교사에게 보낸 편지가 실렸다. 이 무렵 한국의 교회들은 일제의 간섭으로 외국으로부터 선교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데다가 요츠야선교부도 재정압박이 심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요츠야선교부는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한국의 장로교회들처럼 자립의 길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랐다. 또 선교부는



이난기 목사가 그 본보기가 될 수 있다면서 그의 이야기를 소개하였다. 이 무렵 이난기 목사는 회갑을 갓 넘긴 목회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요츠야선교부에 보낸 편지는 매우 고무적인 본보기로 여겨졌던 것 같다. 내용인즉, 요츠야선교부는 이난기에게 190엔을 미리 보냈고, 교회가 700엔을 마련하여 예배당 매입가격으로 2월에 400엔을 그리고 3월 14일에 490엔을 이인범에게 지불함으로써 빚을 모두 다 갚고 예배당을 구입할 수 있었다는 것과 9개월 치 임대료를 한 묶에 보내줘서 고맙다는 인사였다. 또 교회는 자신에게 사례비로 매월 20엔을 주고,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지만, 자신은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썼다.

### 9) 윤낙영 목사



윤낙영 목사가 시무하던 아현동 그리스도의 교회(1948년말-1949년초 사이)  
 밤 동안까지 2층이 집회소였고, 80여명이 참석해 예배를 드렸다.  
 천정이 낮아 채이스 선교사는 상체를 세우지 못했고,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다.

윤낙영 목사는 1920년에 세례를 받고 동경성서학원에서 공부하였다. 요츠야선교부 서울 제4교회 담임목사로서 슬하에 9명의 자녀를 두었다. 채이스 선교사가

1948년 10월 17일에 서울에 도착하여 1949년 2월 중순까지 한국에 체류할 당시에 윤낙영 목사와 그의 아현동교회는 성낙소의 인도로 '기독교회선교부'의 교회들에 합류되어 있었다.

윤낙영 목사의 아현동교회는 좁고 가파른 흙길 언덕에 있었다. 채이스는 1949년 1월 12일 수요일 밤에 설교하기 위하여 이 교회에 가야했다. 감기에 걸린 상태인데다가 눈까지 쌓인 밤이었다. 교회에 오가는 길이 너무 더럽고 미끄러웠다. 그러나 일행이 도착할 무렵에 80여명의 교인들이 2층의 천정이 낮은 두 개의 방을 메우고 있었고 힘차게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 천정이 너무 낮아 채이스는 상체를 꼳꼳이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설교를 마쳐야했고, 예배 후 아래층에서 다과를 먹는 중에 채이스는 예배가 파했는데도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고 2층에 남아 여전히 힘차게 부르는 찬송소리를 들으면서 집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을 해야 했다. 1949년 당시 성낙소 목사의 필운동교회가 윤낙영 목사의 생활비를 후원하고 있었다.

### 13. 힐 요한 선교사의 서울에서의 사역

#### 1) 한국 선교사에 지원

<한국인 전령> 1938년 10월 5호에서 채이스 선교사는 힐 요한(John J. Hill)을 소개하였다. 채이스가 1936년 봄에 존슨 대학교(전 존슨성서대학)에 방문하였을 때 선교사역에 관해서 대화를 나눈 훌륭한 학생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당시 그는 졸업을 앞두고 장래사역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던 중이었다. 학장 브라운(Brown)이 힐을 적극 추천하였다. 힐은 1936년 5월에 졸업 후 캐나다 온타리오 주 에일머(Aylmer, Ont. Canada)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으나 그를 필요로 하는 곳은 캐나다나 미국보다는 한국이었다.

#### 2) 한국 선교사로 입국

힐 요한 선교사 가족은 1939년 6월 1일 로스앤젤레스를 출발하여 6월 16일 금요일에 일본 요코하마 항에 도착하였다. 고

쿠사이 여객선(Kokusai Line)인 가노마루(Kano Maru)라 불리는 일본 화물수송선을 탔다. 12명의 승객 가운데 3명은 교파교단의 선교사들이었다. 뽀함(Miss Grace Farnham) 선교사가 요코하마까지 마중 나와 도쿄로 안내하였다. 힐 선교사 가족은 도쿄에서 히치 선교사의 딸 엘리스(Alice Hitch)와 한국으로 건너간 히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요츠야선교부에 투입된 오웬 스틸(Owen and Shirley Still) 선교사 부부 그리고 존스(Miss Jones) 선교사를 만났다. 고향(Lowell, Indiana) 사람이자 감리교 선교사인 메이 베일리(Miss May Bailey)도 만났다. 이튿날 요코하마에서 출발하여 배로 오사카에 6월 18일 주일날 도착하였다. 선교사 매든(Madden)이 마중을 나와 이민국수속과 세관 검사에 많은 수고를 해주었다. 화요일까지 매든 가족과 콜(Cole) 선교사 가족 그리고 브래리(Braley) 가족을 방문하였고, 오사카의 명소와 선교지를 둘러보았다.



힐 요한 선교사 가족(1944년경, 관공 입대를 앞둔 시점)  
Chaplain and Mrs. J. J. Hill and Family

오사카에서 화요일에 기차를 타고 밤에 시모노세키에 도착하였다. 밤새 배로 이동하여 수요일 아침 6시 가량에 부산에 도착하였다. 채이스 선교사가 박판조 형제를 부산에 보내 힐의 가족을 서울로 안내하게 하였다. 6월 21일 오후 3시에 서울(Keijo, 게이조)에 도착하였다. 채이스와 히치 부부가 서울역으로 마중 나와 주었다. 채이스 부인은 중국에 가고 없었으므로 며칠 지난 후에 만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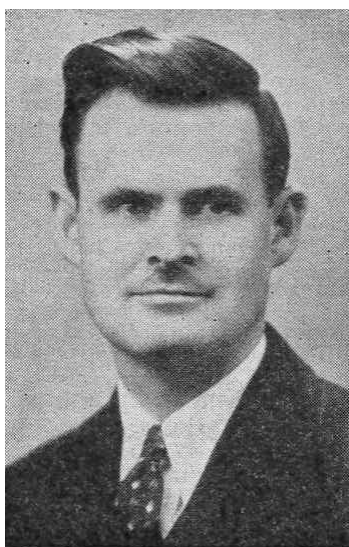
### 3) 강제 철수 후 목회활동

1940년 11월 16일에 한국에서 미국인들이 모두 철수한 지 13개월만인 1941년 12월 7일 아침에 일본이 미국 하와이 주 오아후 섬 진주만에 있던 미군 기지를 기습 공격함으로써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 무렵 힐 선교사는 한국 상황을 주시하면서 목회에 매달렸다. 힐은 미시간 주 스텐지스(Sturgis)에서 1941년 1월부터 1943년 4월경까지 설교하였고, 웨스트버지니아 주 파이던 시티에서 1944년 9월까지 설교하였다.

#### 4) 군목으로 미 육군에 입대

그리고 1944년 10월 5일에 미육군 군목으로 입대하였다. 매사추세츠 주 포트 디번즈(Fort Devens)에 입대하여 5주간 훈련을 받고 나서 루이지애나 주 클레이본 캠프(Camp Claiborne, LA)에 배치되었다. 이때쯤에 <한국인 전령> 1945년 2월호는 힐 요한이 군목으로 미육군에 복무한다는 소식을 실었다.

힐은 1945년 3월 6일부터 해외근무를 시작하였고, 힐이 탄 배는 몇 차례 잠수함을 잘 피한 끝에 4월 7일에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하였다. 필리핀에서는 각각 북부 전투지역과



1946년경  
MR. J. J. HILL

남쪽 민다나오 잠보안가(Zamboanga, Mindanao)에 주둔하였다. 1945년 9월 말쯤에 필리핀을 떠나 3주쯤 후에 일본에 도착하였다. 도중에 역사적인 바탄(Bataan, 제2차 세계대전의 격전지), 코레히도르(Corregidor, Manila만 입구의 화산섬)와 오키나와를 보았다. 일본에서는 최초로 원자폭탄이 투하된 히로시마를 둘러보았는데, 재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일본

에서 6개월간 주둔하는 동안 히로(Hiro)에 이어서 마츠(Matsue), 오노미치(Onomichi), 마츠야마(Matsuyama), 오카야마(Okayama)에 차례대로 주둔하였다. 1946년 4월 1일에 일본을 떠나서 미국 시애틀에 12일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19개월간의 군복 근무를 마치고 5월 14일에 제대하였다.

힐은 군복무 중에 민다나오 섬 해안 바다에서 6명의 군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17명에게는 재헌신을 이끌어냈다. 한 주 일날에는 425명에 설교하였고, 10명이 신앙을 고백하였다. 두 개의 일본목욕탕에서 5명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5명이 재헌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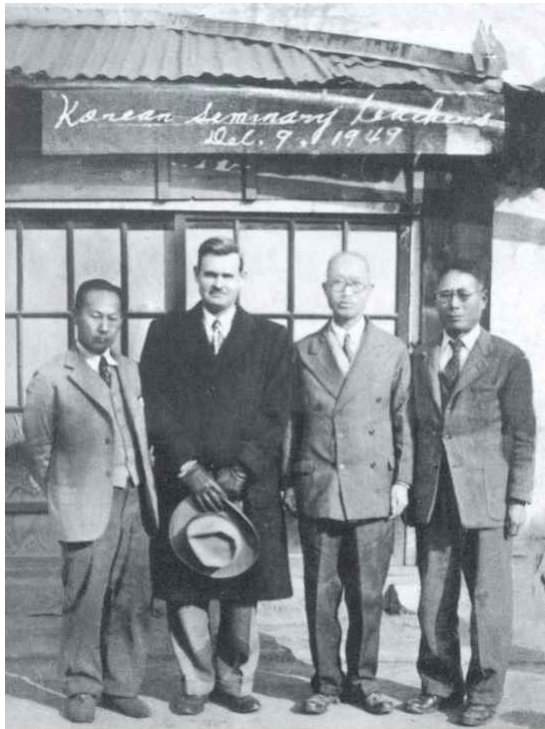
#### 5) 제대 후 버틀러대학교 신학대학원 입학

힐 선교사는 제대 후 미국정부로부터 한국에 가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동안 1946년 7월부터 인디애나 주 월턴(Walton)과 온워드(Wonward)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 설교하였다. 9월 9일부터는 제대군인지원법(Army G. I Bill of Rights, 2차 대전 종전을 앞둔 1944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제대군인지원법을 만들어 전역 군인에게 대학진학 등록금 전액지원, 주택, 의료, 직업훈련 등을 지원한 권리장전)에 따라 장학금을 받고 버틀러대학교의 신학대학원(School of Religion, Butler University)에 입학하였고, 이듬해인 1947년 8월에 과정을 마치고 M.A. 학위를 받았다.

#### 6) 한국에 재입국

힐은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길게 공부할 수 없었다. 1년 만에 마칠 수 있는 학위과정을 택한 이유가 그 때문이었다. 힐은 제대 후부터 섬겨왔던 인디애나 주 월턴(Walton)과 온워드(Wnward)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1948년에 사임하고 본격적으로 선교모금 여행에 돌입하였다. 이런 노력과 기도

끝에 힐 요한은 1940년 11월 16일에 한국에서 강제로 철수한 지 8년 3개월만인 1949년 2월 18일에 서울에 도착하였다. 이 무렵 브루스(Bruce)가 일곱 살, 버지니아(Virginia)가 다섯 살, 수잔(Susan)이 4살이었다.



한국성서신학교 교수진: 좌측부터 성낙소 목사, 힐요한 선교사, 최상현 목사(6.25동란 때 납북), 백낙중 목사(6.25동란 때 피살)

체이스도 7년간 섬겼던 잉글우드 하이츠 그리스도의 교회를 1948년 8월말에 사임하고 10월에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활동하다가 힐 가족이 서울에 도착한 그달, 곧 1949년 2월 중순에 50,000달러 모금활동을 그해, 곧 1949년 9월 1일까지 끝낸 후 전 가족이 한국으로 돌아올 목적으로 귀국하였다. <한국인 전령>

1949년 3월호에 실린 체이스 선교사 부인의 글에 의하면, 체이스는 1949년 3월 1일 이후에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할 것이고, 몇 개월 더 모금운동에 전념한 후에 두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인 전령> 1949년 7월호에서 힐은 체이스 가족이 9월에 한국으로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시점, 곧 시한을 2개월 정도 남긴 6월경까지 모금액수는 대략 17,500달러 정도가 모금되고 있었다.

그러나 체이스 가족은 예정했던 기간에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

하였다. 김경중의 석사논문 41-42쪽에 따르면, 목표했던 모금액이 달성된 것은 6.25동란이 터진 직후인 1950년 7월이었기 때문이다. 전쟁으로 인해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채이스는 캘리포니아 주 도우니(Downey)에서 목회를 다시 시작하였고, 모금된 돈은 은행에 예치하였다(“Chase Called to California Church Will Return to Korea When Possible,” *Christian Standard*, 17 February, 1951, p.101).

## 7) 힐 선교사의 서울에서의 사역

힐 요한 선교사의 서울에서의 사역은 1949년 2월 18일부터 1955년까지 이어졌다.

힐 가족은 1949년 2월 18일에 서울에 도착하여 연지동에 있는 건물, 곧 송월동 선교부 건물과 사이즈가 비슷한 건물을 남장로교회로부터 월 75달러의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였다. 힐 가족은 그 건물에 들어가 살면서 그곳에서 3월 15일 한국인성서 훈련원을 개교하였다. <한국인 전령> 1949년 7월호에 따르면, 18명의 남학생들이 등록하였고, 야간학생들은 50여명이 넘었다. 강의는 오전에 3시간씩 일주일에 네 번, 야간에 2시간씩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20시간 정도 이뤄졌다. 과목은 성서과목들, 기본교리, 설교학, 영어성경 등이었다.

힐 선교사는 이 연지동 건물에 침례당을 만들고 침례를 베풀었는데, 이 신학교의 학생이기도 했던 김포교회의 최춘선 목사의 부인이 힐이 구입한 천으로 5일간에 걸쳐 여섯 벌의 침례복을 꿰맸다고 소개하였다.

힐은 학생이 많아지자 신학교를 성낙소 목사의 필운동교회로 옮겨 본격적으로 목회자 양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또 다시 불행하게도 이듬해인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갑작스런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일본으로 피난해야 했다. 김경중의 석사논문 42쪽에 따르면, 힐 가족은 26일 새벽 3시경에 인천에서 배로 출발하여 일본 후쿠오카(Fukuoka)의 군병원으로 피신

하였다고 한다(“Mr. and Mrs. John J. Hill Are Safe in Army Hospital in Japan,” *Christian Standard*, 15 July, 1950, p.436).

힐은 일본에 머무는 동안 한국어 공부에 주력하였다. 9월 28일 서울수복 후 11월에 한국에 돌아와 5주간 머무는 동안 서울 장충동의 임대건물에서 신학교를 개교하였으나 중공군의 전쟁 개입으로 전쟁이 악화되어 그해 12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다. 포기를 모르던 힐은 이듬해인 1951년 7월 3일 한국으로 돌아와 서울 송월동 선교부에서 8월 4일 전쟁고아들을 돌보는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Christian Mission Orphanage)을 시작하였고, 이후 선교부에 제휴된 여러 고아원들(인천, 대전 판암동 및 대구)의 설립과 유지에 도움을 주었다.

1954년에 부인 에스더 비반즈가 신학생 2명과 부적절한 혼외관계에 빠졌다. 그 중 한 명은 결혼한 두 아이를 가진 아빠였다. 1955년에 에스더는 4명의 자녀를 가진 한국인 남자 친구와 살기 위해 둘 사이에서 난 아이를 데리고 가출함으로써 선교사역이 위태롭게 되는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되었다. 결국 힐은 1955년에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던 후임자 테일러 해롤드(Harold and Ada Taylor) 선교사 부부에게 새로 지은 신학교 건물을 포함한 송월동 선교부 재산을 모두 물려주고, 쫓기다시피 한국을 떠나야 했다.

## 8) 송월동 선교부 재산의 환원

체이스 선교사는 일제에 빼앗긴 선교부 재산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지만, 1949년까지도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힐 선교사는, <한국인 전령> 1949년 7월호에 따르면, 4월 22일에 재산관리인으로부터 5-6월경에 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재산은 힐 요한 선교사의 증언에 따르면, 1952년경에, 곧 몰수당한지 10여년 만에 비로소 환수가 이뤄



졌다. 1955년에 힐 요한 선교사의 사역을 이어받은 테일러 선교사는 이 선교부 건물을 포함해서 1958년에 새로 지은 신학교 건물까지 모두 팔아서 북서울 역천동(현재 신사동)에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지어 서울성서신학교(현 서울기독교대학교)를 건립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채이스가 눈물과 수고로 마련하고 지켜내려고 했던 이 건물은 많은 아쉬움을 남긴 채 남의 손에 넘어갔다.

#### 14. 김은석 목사



김은석 목사 (For Christ in Korea, 1957년 9월 촬영)

채이스는 <한국인 전령> 1949년 7월호에서 당시의 현황을 선교사 4명(두 가족을 말함), 10개의 교회, 7명의 목회자와 성서훈련원이 존재한다고 하였고, 1948년에 116명이 침례를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추가로 타이프라이터로 쓴 편지를 한 장 첨부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1949년 전반기에 150명 이상이 침례를 받았고, 전쟁 중에 2개만 남았던 교회가 지금은 19개로 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1949년 9월 1일까지 미국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주간지 <그리스도인 표준>(Christian Standard)과 함께 ‘한국에 예배당을’(Chapels for Korea)이란 캠페인으로 모금하는 50,000달러 가운데, 6-7월경까지 대략 17,500달러 정도가 모금된 것으로 보고 하였다.

채이스 선교사가 부강교회의 김은석 목사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교회숫자가 갑자기 10개에서 19개로 늘어난 배경에는 부강교회의 김은석 목사가 있었다는 점이다. 힐은 남부의 세워진 교회들의 상당수가 김은석 목사의 공덕이라고 하였다.

체이스는 1947년 10월에 최상현 목사로부터 충청도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고, 40명이 침례를 받았으며, 인근에 두 개의 교회들이 더 세워졌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 보고를 받고나서 체이스 선교사는 이 사람이 최 목사로서 장로교 내과의사였으나 최상현 목사가 가르쳐 침례를 베푼 사람이라고 쓴 것을 보면, 체이스가 남부의 상황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최상현 목사가 보고한 인물이 김은석 목사였을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힐 요한 선교사는 1949년 상황에서 김은석의 공을 크게 인정하였다.

박점상 목사의 증언에 따르면, 김은석 목사 가족이 서울 북아현동에 있을 때 박점상 목사는 이웃에 방을 얻어 살고 있었다. 김은석 목사가 아직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기 이전인지라 재건교회를 비롯한 몇몇 교회들을 탐색하였는데, 자신의 신앙과 맞지 않음을 깨닫고 1946년 박점상 목사와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였다. 김은석 목사는 비록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령운동에서는 자신과 뜻이 맞지 않지만, 침례와 성만찬 등의 교리가 성서적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리고 박점상 목사는 1947년 부강으로 내려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일하며 부강교회 건축에 힘을 쏟았다고 하였다. 최상현 목사의 보고와 박점상 목사의 증언으로 볼 때, 김은석 목사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한 시점이 1946년인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 무렵 곧 1947-48년은 미 공군 군목 할 마틴(Hal Martin)이 김포 항공기지에 근무하면서 한국 교회들을 돕고 있었던 때이다. 김찬영 목사의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 William D. Cunningham의 생애(1864-1936)를 중심으로>(한성신학교, 1991) 132쪽에 따르면, 김은석 목사가 할 마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알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최상현

목사의 보고와 맞물려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이 무렵의 <한국인 전령>에 실린 글을 볼 때, 채이스는 장소와 인물을 명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할 마틴, 최상현, 성낙소 등이 김은석 목사의 초청으로 부강을 왕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948-49년 사이에 채이스 선교사가 알고 보고한 교회숫자는 6개에 불과하였다. 1947년 10월에 최상현 목사가 채이스에게 보고한 충청지역의 3개 교회를 더한다고 해도 9개에 불과하였다. 채이스는 <한국인 전령> 1949년 7월호에서 10개 교회라고 했다가 갑자기 19개 교회로 수정하여 보고하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로부터 7년밖에 지나지 아니한 1956년에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는 <한국에 그리스도를!>(For Christ in Korea) 이란 선교지 6월호에서 교회숫자를 75개로 보고하였다. 이렇게 갑자기 교회숫자가 많이 늘어난 배경에는 충청이남지역에서 헌신적으로 사역한 김은석 목사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가 있었다. 테일러는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8년 2월호에서 김은석 목사를 “남한에 약 25개 교회를 세운 복음의 옹호자”(Gospel father)라고 보고하였다.

크든 작든 오늘의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존재와 발전은 신학교와 같은 목회자 양성소를 통해서 이뤄졌다. 그 출발이 존 T. 채이스 선교사가 1937년에 서울 송월동에서 시작한 한국인 성서훈련원(Korean Bible Training Institute)이었고, 이를 힐 요한 선교사와 테일러 선교사가 1950년대 말까지 이어갔다. 이어서 충청이남지역에서 활동했던 김은석 목사와 이신 목사의 이동 신학교였던 신화신학 성경연구회가 1940년대 말부터 1950년대 말까지 교단에 엄청난 발전을 가져다주었다. 충청이남지역에 산재한 70-80여개의 교회들이 김은석 목사의 직간접적인 지도력으로 세워진 교회들이었다.

1950년대 말에 시작된 최수열(Haskell Chesshir)의 한국기독교독학교(Korea Christian Institute, 현 KC대학교), 힐 요한의 한국성서신학교, 1960년대에 세워진 테일러와 배도은의 서울성

서신학교, 최윤권, 최순국 등의 서울기독신학교, 김찬영의 한성신학교, 최윤권의 서울기독대학교가 존재했음으로써 오늘의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생존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지난 2012년에 한민학교(전 한성신학교)가 폐교되었고, 신학교를 운영하는 남은 두 대학교들조차 교과부의 정책에 흔들리는 상황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발전에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잘났든 못났든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존재와 발전은 철저한 신약성서기독교에 대한 교육에서 비롯되었다. 채이스 선교사나 맥시 선교사는 커닝햄의 요츠야선교부의 선교정책을 따르지 않게 생각하였다. 그 이유는 커닝햄이 신학교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고, 자기 사람들이 없다보니까 대부분 교파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고용해서 썼다는 점이었다. 커닝햄은 한국선교를 맡았던 이인범과 이원균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결과는 앞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와 다름없었다. 그들이 한국에 세운 최소 12개에서 많게는 17개까지 되던 교회들 가운데서 해방 후 그리스도의 교회로 돌아온 교회는 이난기 목사의 용산교회와 윤낙영 목사의 아현교회뿐이었다.

따라서 채이스 선교사는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신학교부터 세웠고, 이미 모든 학업을 마치고 안수를 받은 목사들에게 4년간 꼬박 신약성서기독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였다. 물론 한국인 목회자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당시에 선교부의 후원이 절실하였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채이스는 달리 생각하였다. 그러한 철저한 교육의 결과가 최상현과 성낙소이고, 박해를 무릅쓰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켜낸 영웅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한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

구멍가게라도 파는 물건이 명확하고 믿을만해야 사람들이 찾게 된다. 역사도 없고 정체성도 없는 교단, 브랜드도 없고, 신념도 믿음도 없는 교단은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법이다. 신학대학들과 교회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해내야 할 일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사를 밝혀보려는 사람으로서 필자가 늘 아쉽게 느낀 것은 1950-60년대까지만 해도 신약 성서기독교에 대한 정체성이 명확했는데, 그 이후시대 곧 필자의 시대부터는 그 같은 것들이 사라지고 없었고 모두가 다 눈을 밖으로만 돌리고 살았다는 것이다. 이런 현 상황에 비춰볼 때, 소속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학교를 일궈냈던 선배들의 믿음과 열정이 아닐까 생각된다. 부모가 일군 기업을 자식이 맡아먹듯이 목회자들의 배출이 중단되거나 눈을 밖으로만 돌린 채 알맹이가 없는 교육으로 일관하는 불행이 더 이상은 없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

A Story of Korean Christian Churches: Missionary  
Harold Taylor and His Seoul Bible Seminary

조동호(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 제3부 해롤드 테일러와 서울성서신학교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 선교사는 1955년 한국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중국과 일본에서 선교사역을 여러 해째 지속해왔고, 러셀 몰스(Russell Morse)나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과 같은 베테랑 선교사들의 사역을 곁에서 지켜봤던 경력선교사였다. 테일러는 중국이 공산화가 되는 과정과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1959년경)

제2차세계대전후 일본의 복구과정을 지켜봤고, 6.25전쟁 직후인 1955년 11월에 한국에 들어와 1960년 4.19혁명과 1961년 5.16혁명을 거쳐 1972년 유신체제까지 격동기 20여년을 한국에서 보냈다.

테일러는 존 T. 채이스, 존 J. 힐, 폴 잉그람(Paul Ingram), 메리 반힐(Mary Barnhill), 리라 톰슨 힐러(Lila Thompson Hiller)가 했던 기독교회선교부(Korean Christian Mission)의 모든 사역을 인수받았다. 채이스는 1949년 이후로 한국에 돌아오지 못했고, 잉그람은 1955년 1월 8일에, 힐은 7월 5일에 한국을 떠났으며, 1955년에 반힐과 톰슨은 둘 다 간염에 걸렸다. 이 때문에 반힐은 10월에 한국을 떠났고, 톰슨은 히람 힐러

(Hiram Hiller) 미군 중사와 1955년 10월에 결혼하였다. 해롤드 테일러가 1955년 11월에 한국에 입국했을 때 서울에 남아 일하고 있었던 선교사는 한 달 전에 결혼한 리라 톰슨 힐러뿐이었다. 힐러는 이듬해인 1956년 3월에 미국으로 돌아갔다. 이 때문에 테일러가 한국에서 떠맡은 일들은 그가 중국과 일본에서 하던 사역들보다 훨씬 책임이 컸고, 또 자신의 뜻과 역량을 마음껏 펼쳐 보일 수 있는 커다란 기회였다. 게다가 1949년 이후 채이스 선교사가 <그리스도인 표준>(Christian Standard)지와 함께 모금운동을 펼쳐 모아놓은 거액의 ‘한국에 예배당을’ 기금까지 인수받음으로써 마음껏 날 수 있는 날개까지 얻은 셈이었다.

그렇다고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상황이 테일러 선교사에게 만만한 것은 아니었다.

결음마 단계에 있던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 선교사들의 도움은 아기들에게 필요한 엄마들의 도움처럼 절실한 것이었지만, 선교사들 간에 생겼던 분열로 인해서, 일부 내국인 사역자들의 저변에는 선교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일정 부분 깔려 있었다. 게다가 테일러 선



해롤드 테일러 가족(Harold Taylor Family, 1950년경).  
해롤드, 러렌드(Leland), 글렌(Glenn), 에이더(Ada)

교사가 모든 일에 주도권을 쥐고 토착적 문화와 정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후원방식에서 미국식 정책으로 몰아가려는 태도에 반발하는 목회자들이 있었다. 이런 정서가 서울지역에서는 성낙소 목사를 중심으로, 충청이남지역에서는 김은석과 이신 목사들을 중심으로 표출되었고, 심지어는 테일러 자신이 주선해서 미국에 보낸 내국인 사



역자들에게서조차 표출되었다. 테일러 선교사는 일부 내국인 사역자들의 이런 태도를 분열주의 또는 교파주의로 보았고, 일치를 위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스스로 판단한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했다. 한편 테일러 선교사가 분열파로 여겼던 내국인 사역자들도 현실적으로 선교사들과의 관계를 긴밀히 유지시켜 나감으로써 심각한 분열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변증법적인 발전이 돋보였다. 선교부에 인접한 수도권에서보다는 오히려 토착적이고 자생적인 김은석, 이신, 최요한 목사들이 주도한 충청이남지역에서 교회와 목회자 숫자가 더 빠르게 늘어났다.

테일러는 1950년대 후반기에 충청이남지역의 교회들을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순회하면서 관계를 쌓아갔으나, 1960년대에는 미국에서 돌아와 대전에다 '한국 크리스천 미션'(Christian Mission to South Korea)과 한국성서신학교를 세운 존 J. 힐이 옛정과 내국인들의 사정을 이해할 줄 아는 인간적인 면과 거리상의 이유들로 인해서 이들 지역의 사역자들과 더 긴밀히 연대함으로써, 선교사 일인체제에서 누렸던 리더십을 힐 선교사와 나눠 가져야 했다. 또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돌아온 최윤권 목사, 최순국 목사, 안재관 목사 등에 의해서 선교회들이 늘어나고, 용산에 대한기독교신학교가 세워짐으로써 리더십은 더욱 다변화되었다.

1960년대 전반기에 테일러와 힐은 신학교를 세우고 키우는 일에 전력을 쏟고 있었으므로 그들의 관심을 외부로 돌릴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충분치 않았다. 따라서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감이나 경쟁심이 크게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들이 대부분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생긴다는 점에서도, 서울 선교부와 대전 선교부 사이에 어느 정도 경쟁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런 경쟁심조차도 오히려 한국 그리스도인의 교회들 / 그리스도의 교회들에 변증법적인 발전을 가져다주었다. 반면에 서울성서신학교와 대한기독교신학교는 같은 수도권에 있었던 데다가 테일러 선교사로서는 대한기독교신학교가 서울성서신학교

에서 일해 줄 것으로 믿었던 내국인 사역자들, 곧 자신의 주선으로 미국에 들어가 학업을 마치고 돌아온 내국인 사역자들에게 의해서 세워진 신학교였으므로 마음이 불편하였을 것이다. 이런 불화에도 불구하고 테일러는 수도권에 ‘최초’와 ‘전통’이란 수식어가 주어진 기독교회선교부와 서울성서신학교를 갖고 있었고, 배도은(Gorden Patten) 선교사 때인 1981년 3월 학기부터 서울성서신학교와 대한기독교신학교가 서울성서신학교 캠퍼스에서 대한기독교신학교란 이름으로 통합됨으로써 한국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의 리더십을 취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가 1955년 11월부터 1974년 은퇴할 때까지 한국에서 쏟은 헌신과 남긴 업적들은 후대인들에게 기리 기억되고 존경받을만한 족적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토착적 문화와 정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후원방식에서 미국식 정책으로 몰아가려한 점과 그로 인해서 내국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점은 그의 업적을 가리는 그림자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펠자에게 주어진 자료들이 1962년 3월까지 뿐이어서 그 이후 12년간의 이야기를 펼칠 수 없는 것이 많이 안타깝다. 앞으로 더 많은 자료들이 발견이 돼서 못다 채운 한국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조각그림들이 채워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 1. 존 T. 채이스 선교사와 존 J. 힐 선교사의 분열

### 1) 신학교

1950년대 전반기에 있었던 채이스(John T. Chase) 선교사와 힐(John J. Hill) 선교사의 분열은 협의회와 총회로 나뉜 분열의 전조적 사건이었다.

힐은 채이스의 발굴에 의해서 선교사가 되었을 뿐 아니라, 채이스의 기독교회선교부(Korean Christian Mission)에 소속된

선교사였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직접후원방식의 선교정책에 적극적이었던 채이스의 신념 때문에 힐의 신분은 채이스에게 예속된 것이 아니라, 독립된 것이었다.

태평양전쟁의 발발조짐으로 선교사들이 1940년 11월 16일 인천항을 통해서 철수한 이후 1949년 2월 18일 힐이 재입국하기까지 대략 8년간은 선교사들이 장기 체류할 수 없었던 공백기였다. 그 기간에 채이스가 몇 차례 입국하여 단기선교를 펼치긴 하였으나 신학교는 폐쇄된 상태였다. 그리고 그 신학교를 다시 연 것은 존 J. 힐 선교사였다. 입국직후 힐은 채이스의 한국인성서훈련원(Korean Bible Training Institute)을 다시 열었으나 후에 그 이름을 서울성서신학교(Seoul Bible Seminary)로 변경하였다. 이 신학교는 1949년 3월 15일 연지동에 마련된 힐의 임대저택에서 시작되었으나 학생이 많아져 필운동교회로 옮겨졌으며, 6.25전쟁 직후에 다시 잠시 중단되었다.

신학교는 채이스가 송월동 선교부에 1937년에 한국인성서훈련원이란 이름으로 처음 설립되었으며, 1940년 3월 25일에 첫 졸업생들인 김요한 목사, 최상현 목사, 성낙소 목사, 김문화 목사, 박판조 목사를 배출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이미 타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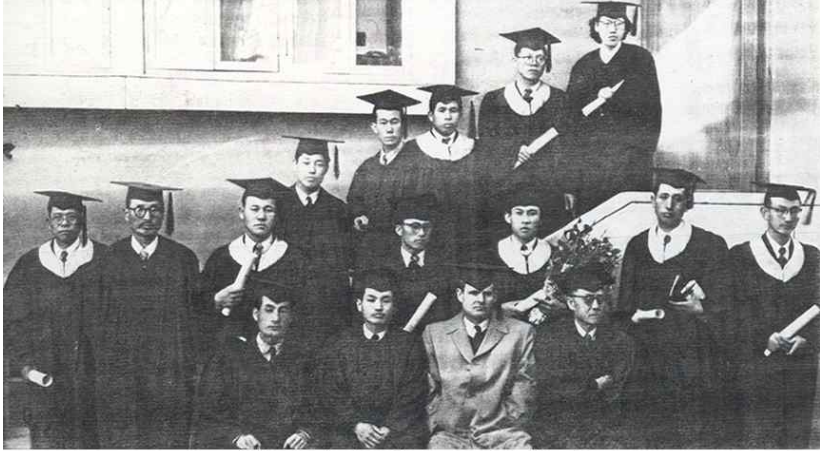


서울성서신학교는 1937년 채이스에 의해서 한국성서훈련원으로 시작되었으나 1940년 3월 25일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선교사들의 철수로 문을 닫았다가 1949년 보람기에 개교하였으며, 6.25전쟁과 캠퍼스 이전으로 몇 차례 중단되었었다

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목회자들이었고, 박판조만 학생전도사였다. 이듬해에 이 신학교는 일제에 의해서 폐교되었다.

해방직후 성낙소 목사는 자신의 신학교

를 열어볼 뜻을 품었으나 그 뜻을 펼치는데 실패하였고, 이 신학교가 다시 문을 연 것은 훨씬 요한 선교사로서 1949년 3월이었다. 이때 힐은 '훈련원'(institute)대신에 '신학교'(seminary)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서 서울성서신학교가 힐에 의해서 1949년에 세워진 것으로 여겨졌고, 따라서 1955년 3월



송월동 선교부 신학교 졸업식(1955년 3월 3일)

앞줄 좌측부터 이신, 김동걸, 존 할, 김동수 통역. 졸업생(무순): 함태영(좌측 세 번째), 김현숙(뒷줄 끝), 최병식, 김태수, 송창현, 조국형, 성수경, 정희건, 이종운, 김봉선, 유현성, 변승택



1959년 3월 13일 서울성서신학교(송월동) 졸업식

3일의 졸업식을 제1회로, 1960년 4월 1일 졸업식을 제4회로 본 것은 옳은 판단이 아니었다고 본다. 송월동 선교부 재산을 되찾지 못해서 6.25전쟁 이전에는 잠시 연지동과 필운동에서 신학교가 개교되었으나 힘이 1949년에 다시 연 신학교는 이름만 ‘institute’에서 ‘seminary’로 바꿨을 뿐 채이스 선교사가 세운 송월동 선교부 신학교의 연장이었고, 또 송월동 선교부가 팔릴 때까지 신학교가 그곳에 있었으며, 힐 선교사는 채이스 선교사가 하던 일을 맡아 지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울성서신학교의 시작은 1949년이 아니라, 1937년이라야 옳다. 서울기독교대학교의 연역은 이 점을 반영하여 개교연도를 1937년으로 잡고 있다. 참고로 1955년까지 힐을 도와 신학교에서 교수와 교감을 지낸 성낙소 목사는 자서전, <기독교의 교회와 성낙소와의 관계>와 <신약교회 목회학>에서 이 신학교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라고 불렀다.

서울성서신학교는 송월동 선교부의 재산(토지 396평과 그 위에 세워진 선교부 건물과 신학교 건물)을 1959년 6월 3일까지 모두 팔고, 7,087평의 역촌동 땅위에 새 캠퍼스를 마련하여



송월동 선교부 신학교 졸업식(1960년 4월 1일)

앞줄 가운데 에이더와 래홀드 테일러 부부, 김동수 동역, 리처드와 멜바 래쉬 부부

1963년에 개교할 때까지 잠시 중단되었으며, 그 공백기에 목회

자가 양성된 곳은 힐 선교사가 1959년 12월에 대전에서 시작한 한국성서신학교였다.

## 2) 채이스 선교사와 힐 선교사의 분열의 원인

채이스와 힐의 분열은 힐의 부인 에스더 비반즈(Esther Beavans)의 외도 때문이었다. 1949년 이후로 채이스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한국교회들의 예배당건축에 필요한 기금과 구호물자를 모아 보내는 일에 관여하면서 여전히 한국선교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채이스 가족의 본래 계획은 ‘한국에 예배당을’ 기금 5만 달러가 모금되는 1949년 9월에 온 가족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모금이 늦어지고, 설상가상으로 이듬해 터진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입국이 지속적으로 미뤄지고 있었다.

한편 힐 선교사는 1949년 3월에 시작한 신학교에 학생이 많아지자 신학교를 성낙소 목사의 필운동교회로 옮겨 본격적으로 목회자 양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또 다시 불행하게도 이듬해인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갑작스런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일본으로 피난해야 했다. 김경중의 석사논문 42쪽에 따르면, 존 J. 힐 가족은 26일 새벽 3시경에 인천항을 출발하여 일본 후쿠오카(Fukuoka)의 군병원으로 피신하였다고 한다("Mr. and Mrs. John J. Hill Are Safe in Army Hospital in Japan," *Christian Standard*, 15 July, 1950, p. 436). 또 <도쿄 그리스도인>(*Tokyo Christian*) 1950년 7-8월호에 실린 해롤드 심즈(Harold Sims) 선교사의 증언에 따르면, 힐 가족은 전쟁소식을 듣고 옷가지만 겨우 챙겨서 만산의 부인과 함께 급히 일본으로 피난을 했어야 했고,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부인 에스더가 린다(Linda)를 출산하였으며, 힐 가족의 안위와 출산한 지 6일밖에 되지 아니한 갓난아기를 걱정한 해롤드 심즈가 힐 가족을 잠시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배려했다고 한다. 때마침 심즈 가족은 일어공부와 휴식을 위해서 산속 별장으로 가서 잠시

지낼 계획이었기 때문에 힐의 가족은 그들의 집에서 갓난아기를 돌보며 편안히 쉴 수가 있었다. 또 그들이 산장에서 내려오면, 힐 가족이 산장으로 옮겨 좀 더 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체이스는 ‘한국에 예배당을’ 기금을 쪼개서 존 J. 힐과 폴 잉그람(Paul and Joan Ingram) 선교사 가족들이 한국에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일본에서 체류할 수 있는 주택들을 마련해 주었다. 나중에 이 주택들은 처분되어 기금으로 환원되었다. 잉그람은 가족과 함께 힐의 한국선교를 돕기 위해서 1952년에 일본 도쿄에 도착하였으며, 힐의 가족과 함께 잉그람의 가족도 1953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일본에 체류하였다. 그러나 힐과 잉그람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가족을 일본에 남겨둔 채 한국에 들어가 사역하였다. 잉그람 가족에게 한국입국이 허락된 것은 1954년이였다.

한편 힐은 일본에 머무는 동안 한국어 공부에 주력하였다. 9월 28일 서울수복 후 11월에 한국에 돌아와 5주간 머무는 동안 서울 장충동의 임대건물에서 신학교를 열었으나 중공군의 전쟁개입으로 전쟁이 악화되어 그해 12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포기를 모르던 힐은 이듬해인 1951년 7월 3일 한국으로 돌아와 서울 송월동 선교부에서 8월 4일 전쟁고아들을 돌보는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Christian Mission Orphanage)을 열었다. 이 보육원은 나중에 리라 톰슨(Lila Thomson)의 주도아래 부평으로 옮겨갔다. 힐은 이후 선교부에 제휴된 여러 보육원들(인천, 대전, 대구)의 설립과 유지에 도움을 주었으며, 신학교를 오픈하였다. 1952년경에는 10여 년 전에 일본에 몰수당했던 선교부 재산도 환수 받았고, 전쟁 중 폭격으로 파손된 곳들의 수리도 이뤄졌다. <도쿄 그리스도인>(Tokyo Christian) 1952년 7-8월호에 따르면, 힐의 부인 에스더 비반즈는 자녀들과 함께 일본에 머물고 있었다. 힐이 안식년을 마치고 1954년에 돌아왔을 때에는 추가로 매입한 선교부에 붙은 땅에 폴 잉그람이 미군의 도움으로 3층짜리 신학교

건물을 세웠고, 메리 반힐(Mary Barnhill)과 리라 톰슨(Lila Thompson)이 다섯 개의 보육원들을 돌보는 일에 관여하였다.

에스더 비반즈(Esther Beavans)는 힐이 태평양 전쟁기간에 육군 군목(중위)으로 1944년 10월 5일부터 1946년 5월 14일까지 재직한 19개월간 아무런 스캔들 없이 잘 지낸 것으로 여겨진다. 또 6.25전쟁 중에 일본으로 피난 가서 있을 때, 힐이 한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도, 물론 육아에 정신이 없었지만, 아무런 탈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그녀에게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 성낙소 목사는 <자서전> ‘제21장 두 선교사 귀국과 신학교 휴교와 유무약기과 합동 건’에서 힐이 안식년을 가졌던 1953년 5월 이전에 이미 에스더가 운전수 왕씨와 비행을 저질렀다고 적었고, 노봉욱 장로의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 24쪽에 의하면, 1954년에 신학생 2명과 부적절한 혼외 관계에 빠졌고, 그 중 한 명은 결혼한 두 아이를 가진 아빠였으며, 1955년에 4명의 자녀를 가진 한국인 남자 친구와 살기 위해 가출했다고 전하였다. 이 내용들로 볼 때, 에스더와 관계했던 한국인은 최소 2명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에스더는 힐이 1955년 7월에 세 자녀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언제까지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서울에 남아 있었다고 한다.

힐의 딸 버지니아 힐(Virginia Hill)은 오자크기독교대학(Ozark Christian College)에서 기독교교육학을 전공한 후에 한국 크리스천 미션(Christian Mission to South Korea)에 소속된 선교사로서 1966년 8월 29일 입국하여 1969년 5월 30일 귀국하기까지 3년간 대전에서 사역하였다. 이로 보건데 힐과 자녀들 사이에는 힐의 재혼이후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낙소의 <자서전>에 따르면, 에스더의 비행을 채이스에게 보고한 사람은 폴 잉그람이었다. 그는 힐이 1953년 5월경에 안식년으로 미국에 돌아간 공백기에 힐을 대신하였다. 성낙소는 그가 연소하고 경험이 없는 자여서 채이스에게 에스더와 왕씨와의 관계를 고발하였고, 이 일로 인해서 힐이 귀국 후 잉그람



과 다뒀으며, 이를 참을 수 없었던 당시 교감이었던 성낙소 목사는 1954년 6월 25일에 신학교를 휴교 조치하는 동시에 채이스에게 서신을 써 보내 내한토록 하였다. 채이스는 1954년 9월 하순에 내한하여 성낙소, 힐, 잉그람 등과 함께 회의를 열고 힐과 잉그람을 모두 귀국하도록 조치하였다고 한다. 폴 잉그람은 1955년 1월 8일에 귀국하였고, 힐은 귀국하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은 1955년에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던 후임자 해롤드 테일러(Harold and Ada Taylor) 선교사 부부에게 새로 지은 신학교 건물을 포함한 송월동 선교부 재산과 부평보육원까지 모두 물려주고, 1955년 7월 5일에 쫓기다시피 한국을 떠나야 했다.



앞줄 좌측 2번째 폴 잉그람(Paul Ernest Ingram)  
네 번째 김동수 목사(통역), 다섯 번째 성낙소 목사(1953년경)

이 일로 인해서 채이스 선교사는 힐 선교사와 갈라섰다. 채이스와 힐 사이의 분열 관련 기사들이 1953-54년에 미국에서 기사화되곤 하였다. 그 무렵에 해롤드 테일러 가족은 안식년으로 미국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 기사들을 모두 읽고 있었다. 테일러는 1953-55년 사이에 채이스와 힐 사이에 양립할 수 없는 입장차가 있음을 알고 자신이 한국에 오기 전에 두 사람 모두 기독교회선교부(Korean Christian Mission)에서 은퇴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테일러가 한국에 왔을 때, 내국인 사역자들이 테일러에게 채이스 편인지, 아니면 힐 편인지를 묻곤 했다고 한다. 이신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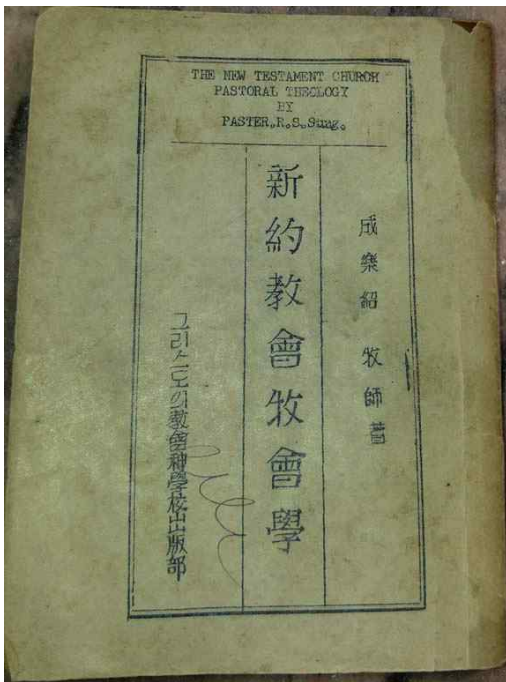
는 힐 선교사에게 테일러 선교사가 한국의 문화와 관습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적어 보냈다고 한다. 존 J. 힐 선교사는 이신 목사의 편지를 비롯해서 한국인들이 자신을 선교사로 와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신시내티에서 발행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월간지 <환원전령>(Restoration Herald) 1956년 5월호에서 밝혔다. 그 기사는 힐 선교사가 자신의 입장을 변호한 글이었다. 그러나 테일러 선교사는 진짜 문제가 내국인 지도자들이 믿고 실천하는 것들이 무슨 기독교인지를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던 데 있었다고 하였다. 내국인 사역자들이 선임 선교사들, 곧 채이스와 힐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테일러 자신이 어느 한 쪽 편에 서서 일하게 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었다고 하였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내국인 사역자들은 테일러를 진심으로 환영하지 않았다. 1956년 2월 7일까지는 테일러의 한국에서의 사역이 매우 불투명하였으나 그 이후 내국인 사역자들 가운데 아무도 채이스나 힐에게 한국어로 돌아오라는 편지를 보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상황을 장악하였고 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실례로 서울 종로구 관수동교회의 임 목사는 신학교 이사장으로서 힐에게 편지를 썼던 분이지만 매우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고 확신하였다.

## 2. 선교사들과 내국인 사역자들 사이의 이견

### 1) 수도권권의 동파(East)와 서파(West)

테일러 선교사는 종종 분열이란 단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가 한국에서 활동한 20여 년간 실제로 분열은 없었다. 그가 말한 분열이란 대개가 불화, 이견 혹은 견해차라고 말해도 좋을 만한 것이었다. 필자의 은사인 신시내티성서대학원(Cincinnati Bible Seminary of the Cincinnati Christian University)의 역사학자 제임스 노스(James North)는 수업 중에 미국의 비교파주의 신약성서기독교를 미국식 민주주의 교회라고 말한바 있

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이식하고자 했던 신약성서기독교가 바로 이 미국식 민주주의 교회였던 것이다. 반면에 일부 내국인 사역자들이 생각한 비교파주의 신약성서기독교는 한국식 그리스도의 교회였던 것이다. 한국적 토양과 기후에 잘 맞는 토착적 그리스도의 교회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테일러 선교사는 일부 내국인 사역자들의 이런 시도를 교파주의 또는 분열주의로 보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목회자들은 교파교회들의 제도를 많이 차용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 점에 있어서는 조금도 다르지 않다



테일러 선교사가 계획했던 비교파주의 플랜은 한국문화와 종교상황 속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날의 협의회도 총회도 테일러 선교사가 원했던 조직은 아니며, 개 교회들의 조직과 직책도 마찬가지로 선교사가 원했던 미국식 신약성서기독교는 아니기 때문이다. 단언건대 단 한 번도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미국식 신약성서기독교였던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 헌신 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과는 다른 한국적 상황을 조금씩 이해하고 수용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선교 초기에 테일러 선교사가 가졌던 내국인 사역자들에 대한 오해는 점차 누그러졌으리라고 본다. 게다가 내국인 지도자들도 선교사들이 강조한 비교파주의 신약성서기독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고, 신약성서교

회에 대한 사명감도 분명하였기 때문이다. 성낙소 목사가 1952년에 출판한 목회학 책의 제목이 <신약교회 목회학>인 것과 1961년 8월 17일 부강교회에서



개최된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힐 선교사 참석)의 주제가 '신약교회에로의 환원'인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테일러는 자신이 발행한 선교지 <한국에 그리스도를> 1960년 2월과 5월호에서 수도권 목회자들을 성낙소 목사를 따르는 동파(East)와 자신을 따르는 서파(West)로 분류한바가 있다. 성낙소 목사는 근본적으로 채이스의 사람이었다. 채이스의 사람들 가운데 해방 후에도 사역을 지속한 사람들은 최상현 목사, 성낙소 목사, 백낙중 목사 세 사람이었으나, 6.25전쟁 중에 최상현 목사는 납북당하고, 백낙중 목사는 피살당하여 끝까지 남은 사람은 60살이 갓 넘은 성낙소 목사뿐이었다. 한학자요, 한의사(무면허)였던 성낙소 목사는, 비록 체구는 왜소했지만, 성격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1957년경)

이 곧고 날카로워 선교사들에게 쓴 소리를 하는 목회자였다.

테일러는 이런저런 이유로 성낙소 목사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 예를 들어서 필운동교회는 가



좌측부터 조충연 목사와 방집사(1960년)

이들은 필운동 교회를 나온 후 신학교 건축에 참여하였다.

1959년 3월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필운동교회를 떠나 홍재동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던 조충연과 또 필운동교회를 떠난 방집사를 서울성서신학교 건축현장에 투입시켰다.

장 오래된 교회들 가운데 하나이지만, 장로를 세우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또 테일러는 부교역자였던 조충연과 한 명밖에 없던 방(Pang) 집사까지 필운동 교회를 떠난 것은 성낙소 목사가 테일러의 비교파주의 플랜, 곧 신약성서기독교를 뿌리내리게 하려는 플랜에 반대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고 하였다. 테일러 선교사는

## 2) 충청이남권의 반선교사 정서

또 충청이남지역에 기반을 둔 김은석 목사와 이신 목사 등은 성령운동을 하는 목회자들인데다가 선교사들(채이스, 힐, 테일러)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아니한, 스스로도 자생적이고 토착적인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들임을 자긍하는 이들이었다. 그들은 채이스를 만나 교류한 적이 없고, 1947-48년 사이에 미 공군 군목 할 마틴, 1949년 이후 힐 요한 그리고 1956년 이후부터는 해롤드 테일러와 집회 때 또는 도움을 청하려고 갔을 때 얼굴을 보는 정도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선교사들의 지시를 받는데 익숙하지 않았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배타적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신화신학성경연구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서울성서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사이에 교리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

다는 사실에도 불편해하였다. 1950년대 초에는 이런 불편을 참지 못하여 정찬성 목사, 김상호 목사(오산리 금식기도원 주임목사로 섬김), 최요한 목사(몇 년 후 돌아와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움), 김교인 장로(부강교회 창립멤버, 함평 석성리 신생교회를 순복음교회로 바꿈) 등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떠나 순복음으로 넘어갔다.

테일러 선교사는 채이스와 힐 사이에서 빗어진 분열을 일치와 평화로 바꿔보려고 노력했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 또 테일러는 목포 유달교회(최요한 목사가 진성구 장로의 집 2층에 개척한 순복음교회)에서 열리는 신화신학성경연구회에 몇 차례 참석하여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였다. 테일러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협화음은 지속되었다.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7년 2월호에서 테일러는 말하기를, 1956년 8월에 목회자 대회(수련회)가 소집되었는데, 교단을 장악하려는 한 그룹이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고, 선교사들을 배척했다고 하였다. 목회자 대회 후에 테일러가 들은 이야기는, “만약 테일러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면, 기금과 물자를 우리에게 넘겨 우리가 그것들을 배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신학교 운영도 우리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1955년 12월에 누군가가 테일러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의 가르침을 원치 않는다. 우리는 단지 당신의 돈을 원할 뿐이다.”고 했다고도 한다. 테일러는 이 요청을 거절하였고, 이후 그는 그들의 조직, 곧 총회장, 부총회장, 총무, 회계, 목사안수위원회, 목사심의위원회 등이 적힌 계획서를 보았다고 한다. 이에 테일러는 전국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 그 같은 조직은 신약성서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 편지의 결과로 소수의 교회들만이 그 조직에 가입하였고, 나중에 10여개의 교회들이 다시 탈퇴하였다고 적었다.

테일러는 이 새로운 조직, 곧 협의회가 성서학교를 시작하였고, 서울에서 남쪽으로 80여마일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하였다.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한 목사에게 맡겼던 돈의 얼마를 차지하는데도 성공하였다고 적었다. 그들은 또 힐 요한 선교사가 한국

에 와서 그들과 함께 일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 같은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테일러 선교사가 지목하여 말한 곳은 부강의 신화신학성경연구회였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테일러 선교사는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7년 6월호에서 이제 협의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협의회의 리더와도 이전의 친교를 회복하였다고 적었다. 더 이상 총회장 따위는 한국에 존재하지 않으며 비교과주의 플랜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테일러가 생각하고 판단한 것처럼 이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8년 2월호에 따르면, 1957년 8월에 테일러 선교사는 한국에 온지 두 달도 채 되지 아니한 래쉬 선교사와 통역 문(대연)과 함께 전남 지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열리는 신화신학성경연구회에 참석하였다. 이신과 김은석 목사가 가르쳤는데, 12명의 목회자들과 2명의 여전도사들(Bible women)이 수업에 참석하고 있었다(김은석, 이신, 김재순, 임남규, 이안식, 도주일, 김규상, 박병우, 안영숙, 임혜숙, 등). 테일러와 래쉬의 시간에는 이신 목사와 문(대연) 형제가 통역하였다. 수업이 모두 끝난 후 테일러는 이신과 함께 작은 배를 타고 제주도로 향했는데, 밤새도록 12시간을 향해한 끝에 제주도에 닿았다. 기독교회선교부 선교사로서는 최초로 제주교회(천막) 방문을 마치고 목포로 돌아오는 배를 탔는데, 파도가 높아 고생이 많았다고 적었다. 그런데 이 같은 정황이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메모에서 방증되고 있다. 다만 다른 점은 선교사가 주도하는 이 연합집회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는 내국인 사역자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김은석 목사는 1957년 8월 30일(금)자 메모에서 “고린도후서 1-2장을 목포 유달교회당에서 봉독함. 이번 집회는 진행해가기가 극난인 것인데 지금 전쟁 중입니다. 이유는 선교사 주축라 함이다.”고 하였고, 31일(토)자 메모에서는 “아침은 또한 목포성경연구소에서 7:5-8장까지 봉독함.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한 것은 선교사들에(의) 행사가 불이(의)함으로 동참 아니 하려는

마음을 가지는데 몇 분은 같이 하자하고, 어떤 분은 곧 그만 두자 함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은 복잡함을 금할 수 없으며, 알고 보며(면) 부족함은 누구에도 있습니다. 저녁때에 목포 진(성구) 장로님 방에서 고린도후서 9-12장까지 봉독함. 김재순, 임남규, 이신, 김은석 4인이 결의 부강서 9월 17일부터 성경공부 시작하기로 함”이라고 적었으며, 9월 1일자 메모에서는 “이 주일 아침은 목포교회당에서 예레미야애가 1-2:7까지 봉독함. 금번 목포에 도착하여 있음은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전남 전도자 수양회 중에 강사로 옴이다.”고 하였다. 또 9월 2일(월)자 메모에서는 “아침에 목(포) 교회당에서 고린도후서 13장을 봉독함. 금번 목포 모임은 태일라 선교(사)가 주최로 전남 교역자 수양회. 목포 어떤 냉면집에 가서 선교자(사) 내슈와 문대연 통역 형 같이 함. 냉면은 일기(一器) 2백환이다.”고 하였고, 9월 3일(화)자 메모에서는 “아침은 갈라디아서 3:1-4:11까지를 목포교회당에서 봉독함. 오후에 4:12-6장까지를 목포교회 진(성구) 장로 방에서 봉독함. 선교자 태일러 씨에게서 돈 6천환을 여비로 받았다. 태일러씨는 000(이신)와 같이 제주도에 가심과 금번 교역자집회는 금일로 마쳤다.”고 적었고, 9월 4일(수)자에서는 “아침은 목포교회당에서 에베소서 1:1-2:12까지 봉독함. 선교사 내슈, 문대연씨도 서울에 가시고, 이안식, 도주일, 김규상, 박병우, 안영숙, 임혜숙, 다 작별하고”라고 적었다.

### 3) 반선교사 정서의 원인

태일러 선교사와 내국인 사역자들 사이의 이견 또는 내국인들의 반선교사 정서의 원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첫째, 앞서서도 언급되었듯이, 태일러 선교사는 모든 일에 주도권을 쥐고 토착적 문화와 정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후원방식에서 미국식 정책으로 몰아가려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는 이전의 선교사들, 곧 채이스와 힐이 취했던 방식, 곧 도움이 필요한 목회자들과 교회들에게 매월 후원금을 주던 방식을 폐지하





가좌교회 김순계 전도사와 딸 조영자(1959년)  
충북 청원군 오창면 가좌리에 있었으며, 김은석  
목사의 제자 전도희 전도사가 스승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뫼뫼박이 심한 개척"(1955년경)을 하였다.

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기한을 정해서 일시적으로 혹은 단회적으로 후원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 점은 테일러 선교사가 초기에 취한 '한국에 예배당을' 기금을 사용한 방식에서도 잘 드러났다. 그는 전국의 교회들에 설문지를 보내 각 교회의 상황파악에 나섰다, 각각의 교회가 예배당을 짓거나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자조자립을 원칙으로 하되 교회가 부담할 수 없는 부분만 보충해 주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로써 테일러는 보다 많은 교회들을 짓거나 보수하는

일에 기금을 사용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 방법이 내국인 사역자들의 마음을 얻는 데는 실패하였다.

둘째, 서울성서신학교와 신화신학성경연구회 사이의 이견은 이미 테일러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기 이전인 1950년대 초 존 J. 힐 선교사 때부터 있어왔다. 이견의 핵심은 성령론이었고, 교단조직의 필요성을 느낀 목회자들도 있었다. 1953년 4월 8일 하나님의 성회 창립총회가 광주에서 있었는데, 이때 이미 김상호 목사와 정찬성 목사, 최요한 목사가 순복음 교단으로 넘어갔고(자신의 유달교회를 신화신학성경연구회 집회소로 쓰게 할 정도로 김은석 목사, 이신 목사 등과 교제를 끊지 않았던 최요한 목사는 결국 몇 년 후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함으로써 다시 돌아옴), 테일러 선교사가 한국에 입국한 초기에 김교인 장로도 마을 주민이 모두 그리스도의 교회 교인들이었던 전

남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 신생교회를 가지고 순복음 교단으로 넘어갔다. 그는 이 순복음교회에 땅까지 기증하였다.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 선교사 가족  
좌측부터 페니 루(Penny Lou), 해롤드(Harold),  
에이더(Ada), 러랜드(Leland), 글렌(Glenn)

충청이남 지역에 세워진 대부분의 교회들은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아니라 성령의 카리스마를 강조하는 김은석, 이신, 최요한의 영향 하에 세워진 교회들이었다. 선교사의 영향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선교사의 돈이었지, 가르침은 아니었다는 말이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었다.

테일러가 분열주의자로 주목한 목회자들은 바로 이들 충청이남지역 목회자들이었다. 그들은 조직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고, 신화신학성경연구회를 통해서 목회자들을 육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서울성서신학교를 운영하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실제로 그들은 충청이남 지역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주도하고 있었다.

### 3.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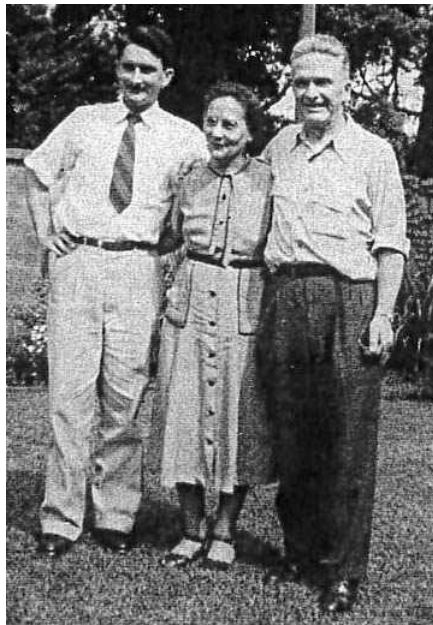
#### 1) 한국입국 전(前) 사역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는 1904년경에 태어났다. 그는

토마스 와 마리아 세이어(Thomas S. and Maria Etta Hoffa Sayer)의 딸인 에이더(Ada Maryellen Sayer)와 1924년경에 결혼하였다. 에이더는 1906년 1월 18일에 태어났다. 테일러는 에이더와의 사이에서 두 아들 러렌드(Leland)와 글렌(Glenn)을 두었고, 한국에서 페니 류(Penny Lou)를 입양하였다.

<도쿄 그리스도인>(Tokyo Christian)과 마크 맥스(Mark Maxey)의 ‘일본 선교 100년(1883-1983)’[Christians in Japan 100 Years (1883-1983)]에 따르면, 테일러 선교사는 한국에 오기 전, 1945-1946년경에 티베트(Tibet)족의 선교로 유명한 러셀 폴스(Russell Morse)를 도와 중국에서 ‘윈난성 중국인기독교선교부’(Yunnan Chinese Christian Mission)를 이끌었고, 1949년부터 한국에 들

어온 1955년까지 도쿄 세타가야구 가미우마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이끌었다. <도쿄 그리스도인>(Tokyo Christian) 1949년 9-10월호에 따르면, 중국에서 공산주의가 세력을 크게 확장하자 미국 영사가 선교사들에게 중국을 떠나라고 충고하였고, 이에 테일러는 가족을 미국에 보내놓고 자신은 중국에 남아 상황을 지켜 보고 있었다. 이 무렵 요츠야 선교부의 해럴드 심즈(Harold Sims)가 테일러에게 일본으로 올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테일러는 상황이 좋아져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요츠야선교부에서 협력하기로 하였다. 테일러는



러셀 폴스 선교사 가족(1952년 6월말)  
위의 사진은 러셀(Russell)이 미얀마 접경지대인 중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중에 공산군에게 체포되어 알지도 말하지 못한 채 15개월간 독방에 갇혔다가 풀려난 직후 일본 요츠야선교부에서 부인 게트루드(Gertrude)와 아들 라벤(La Verne Morse, 조로호목사의 은사)과 함께 찍은 사진이다.



러셀 몰스 선교사의 석방을 축하하려고 모인 일본 거주 선교사들(1952년 6월 27일, 요츠야선교부) 앞줄 좌측부터 그레이스 벤틀햄, 로프 심즈, 로이스 심즈, 실비아 심즈, 케닝햄 여사, 스티븐 플리노어, 플리노어 여사(줄리어스 모친), 줄리아 플리노어(Fleenor), 게트루드(Gertrude)와 러셀 몰스(Russell Morse) 부부. 둘째 줄 좌측부터 마벨 버트레이(Mabel Buttray), 에스더 힐 이사벨 디트모어(Dittmore), 에이다 테일러, 라번 몰스, 제인 키넬(Kinnett) 셋째 줄 좌측부터 스텐리 버트레이, 폴 퍼트레이, 줄리어스 플리노어, 해롤드 심즈, 해롤드 테일러, 비반즈 여사(에스더 힐의 모친), 버지니아 플리노어.

1949년 10월 18-20일에 도쿄에서 개최된 일본 그리스도인 대회에 강사로 참석하였고, 이후 한국으로 사역지를 옮기기 전까지 요츠야선교부에서 협력자로서 사역하였다.

<도쿄 그리스도인> 1956년 겨울호에 따르면, 테일러 부부는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 이름을 따서 가미우마 그리스도의 교회를 시작하였다. 교인이 20여명쯤 되었을 때인 1953년에 테일러 가족은 안식년을 맞이하여 미국에 돌아갔고, 그 사이에 커닝햄 사후에 요츠야선교부가 설립한 동경성서신학교에 다니는 젊은 신학생이 교회를 맡았으나 교회가 퇴보하였으며, 새로 부임한 젊은 신학생 나카무라(M. Nakamura)가 맡은 다음부터 다시 부흥하기 시작하였다. 테일러 선교사 가족이 1954년에 도쿄로 돌아와 부흥회를 개최하면서 교회는 더욱 부흥되었다. 이듬해인 1955년 봄에 나카무라는 신학교 졸업을 앞두고 그 교회

에 출석하던 자매 야에코 가마다(Yaeko Kamada)와 결혼하였고, 신학교 졸업과 동시에 혼슈지방으로 목회를 떠났다. 나카무라가 떠난 후 테일러가 그 교회를 다시 맡아 1955년 11월 기독교회선교부(Korean Christian Mission)를 맡아 한국에 입국할 때까지 섬겼다. 테일러가 한국으로 떠난 후 그 교회는 요츠야선교부와 합의하에 일본양식으로 건축된 선교사 주택을 예배당으로 매입하였다. 매입비의 절반은 교회가 다른 절반은 테일러 선교사가 부담하였다.

## 2) 한국입국 후의 사역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가 한국에 도착한 것은 1955년 11월이었다. 그가 한국에서 행한 사역들은 다음과 같이 12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테일러는 추락된 기독교회선교부의 지도력 복원과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테일러는 존 T. 채이스, 존 J. 힐, 폴 잉그람(Paul Ingram), 메리 반힐(Mary Barnhill), 리라 톰슨 힐러(Lila Thompson Hiller)가 했던 기독교회선교부(Korean Christian Mission)의 모든 사역을 인수받고, 추락된 기독교회선교부의 지도력 복원과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존 T. 채이스가 모금한 ‘한국에 예배당을’ 기금은 테일러가 기독교회선교부의 지도력을 복원시키고 분열을 치유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2) 전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순회하였고, 교회들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였다.**

### <1956년 1월 24-28일>

테일러 선교사가 한국에서 발행한 선교지,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6년 6월호에 따르면, 테일러는 1월 중에 이신 목사와 함께 5일간 전라남도 지역의 교회들을 순방하였다. 전남에 19

개(56년 연감에는 17개)의 교회들이 있었으나 5곳을 방문하였다고 적었다. 기차로 12시간 걸려 도착한 함평에서는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였던 고등학교 교장을 만났고, 이분이 마련해준 오래된 군용 트럭을 타고 날이 어둡고 길이 미끄러워 위험천만한 시골길을 달려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 신생마을 교회에 도착하였다. 함평에서 7마일(11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상점도 의사도 없는 40호 정도의 시골마을이었다. 신생이란 이름은 “새 삶”이란 뜻으로써 마을사람 전체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테일러와 이신이 방문한 날은 100일 저녁 집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이었다. 김은석 목사가 남긴 성경메모에 따르면, 김은석은 1월 22일 신생마을에 도착하였고, 1월 25일(수) 아침에 침례식이 있었다. 이 언급으로 보아 테일러와 이신이 신생마을에 도착한 날은 24일 화요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요일 아침에 국내 목회자들은 테일러에게 침례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5명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김은석은 테일러의 방문에 대해서 아예 침묵하였다. 테일러 선교사는 이날 수요일 오후에 영광교회를 방문하였고, 다음날 26일(목)에 115명의 아이들이 수용되어 있었던 보육원을 방문하였다. 테일러는 이곳에 의류구호품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목요일 밤에 목포에 도착하였다. 테일러는 그곳에 아직 그리스도의 교회가 없지만, 한 장로를 만났다고 하였는데, 테일러가 방문한 곳은 최요한 목사가 시무하는 유달교회(순복음)였을 것이고, 그가 만난 장로는 목포시 죽교동 399번지의 진성구 장로였을 것이다. 유달교회는 진성구 장로의 집 2층에 있었고, 이 유달교회에 ‘그리스도의 교회 성경연구소’가 있었다. 테일러는 진 장로를 통해서 목포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들어서게 되기를 기대하였다. 테일러는 다음날 27일(금)일에 대전에 도착하여 대전보육원(관암동에 있었던 애생원)과 교회를 방문하여 설교하였다. 그리고 28일 새벽 4시 30분 기차로 서울로 귀경하였다. 그리고 일주일의 상당부분을 감기로 침대에 누워 지냈다.

**<1956년 3월 31일-4월 4일>**



대구교회 예배당과 사택(1956년경)

테일러 선교사는 3월 31일(토) 최순국(통역)과 함께 대구교회를 방문하여 새로 건축한 예배당의 입당예배에 참석하였다. 일주일간 지속된 부흥회 마지막 날이었던 이날 7명의 새신자가 침례를 받았다.

대구교회는 구 건물을 팔아 건축기금을 마련하였고, 부족한 돈은 '한국에 예배당을' 기금에서 지원받았다. 4월 1일(부활주일) 오후에 버스로 김천터미널까지 가서 또 한 시간을 걸어서 김천교회에 도착하여 저녁 설교를 하였다. 이날 밤에 4명의 결신자가 생겨 다음날 월요일에 저수지에서 침례식을 가진 후, 기차로 신탄진에서 내려 김동렬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를 방문하였다. 화요일에는 김은석 목사가 시무하는 부강교회를 방문하였다. 그때 부강교회에서는 신화신학성경연구회가 열리고 있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강의하고 저녁에 두 번 더 강의하였다.

이날 테일러는 총 5시간을 강의(설교)하였다. 그리고 새벽 2시 기차를 타고 귀경하였다. 김은석 목사는 이날부터 한 주간 동안 부강교회에 머물렀으나 테일러 선교사의 방문에 관해서 성경통독메모에 적지 않았다.



김천 그리스도의 교회(1957년)

### <1957년 초>

테일러 선교사는 1957년 초 신학교가 겨울방학에 들어가는 기간을 이용하여 제2차 남부순회전도여행을 계획하였다. 광주와

목포, 제주(2개 교회가 있었음), 부산, 대전으로 이어지는 전도 여행이었다.

### <1957년 3월 19-26일>

테일러 선교사의 선교지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7년 6월 호에 의하면, 테일러는 최순국과 함께 경상도와 강원도지역 교회들의 방문길에 나섰다. 그들은 3월 19일(화) 밤에 부산행 기차를 탔다. 이튿날 테일러와 최순국은 부산에서 방송국 설립을 추진하고 있던 빌즈(Verlen Alex & Betty Bills) 선교사 가족을 만나 몇 시간 함께 시간을 보낸 후에 울산으로 향했다. 울산 교회는 기독교회선교부로부터 '한국에 예배당' 기금에서 1956년에 1,400달러를 후원받아 장로교회로부터 헌 예배당을 매입하였던 곳이다. 테일러는 그 교회에서 수요일 저녁집회 때 설교를 했는데 120여명이 출석하였다. 이후 테일러와 최순국의 교회순방은 영양, 삼척, 강릉, 주문진, 38선 이북 고성으로 이어졌고, 26일 화요일 밤에 서울에 도착하였다.

그들이 울산에서 기차, 트럭, 버스를 타고 위험한 도로들을 달려 도착한 곳은 산 속에 자리 잡은 1,000여 호의 마을로 이뤄진 영양이었다. 영양에 외국인이 온 것은 처음이어서 아이들이 예배 중에 외국어를 듣고서는 신기해하면서 웃었다. 작은 흙집 예배당에 사람들이 꽉 들어찼다. 그 밤에 테일러와 최순국은 오(현팔)목사가 운영하는 한약방에서 묵었다.

테일러와 최순국은 토요일(23일)에 네 개의 다른 노선의 버스들을 갈아타고 동해안의 가파른 도로들을 달렸다. 목적지까지 3시간을 남겨놓은 지점에서 밤이라서 버스가 끊겼다. 주일날 아침 5시에 다시 출발하여 삼척교회에 일찍 도착하였다. 아침 9시에 삼척교회의 이 아무개 할머니가 해주는 아침식사를 먹었다. 삼척교회는 서울성서신학교에 다니는 박병호 형제가 집에 와 있는 동안에만 섬기고 있는 곳이었다. 최순국은 이곳에서 한 차례 말씀을 전파했는데, 고향에 온 듯이 편안한 모습이었다고 적었다.

그들은 주일날 정오쯤에 교회를 나와서 버스를 타고 강릉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주문진으로 향하였다. 저녁에 주문진교회에 집회가 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주문진에는 김 아무개 형제의 집이 있었고, 그곳에서 교회가 모였다. 그 주일저녁에 12명이 결신하였고, 이튿날 3월 25일(월)에 바닷가로 나가 12명이 침례를 받았다. 거대한 바위가 매서운 바닷바람을 막아줬지만 추위에 떨어야 했다. 그러나 구세주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소리만큼은 드높았다고 적었다. 월요일 저녁에도 자정까지 집회를 열었다. 주문진교회는 서울성서신학교에서 일 년간 공부한 여전도자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그날 오전에 침례를 받은 여신도들도 이 여전도사의 결실이었다.

3월 26일 화요일 아침 6시에 그들은 열 번째 버스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38선 넘어 고성에 갔다가 산을 넘어 서울로 오는 길에서 버스에 세 개의 타이어가 펑크가 났고 다른 문제들까지 겹쳐 서울도착시간이 많이 지연되어 밤 9시야 도착하였다. 주문진교회를 떠나던 아침에 점심에 먹으라고 찢은 계란 12개를 싸줬는데, 최순국 형제는 먹지를 앓았고, 테일러에게는 너무 많은 양이었으며, 이 여행에서 50대 초반의 테일러는 적어도 20대 초반의 최순국보다 자신이 더 잘 어려움을 견뎌낸 것 같다고 소회하였다.

#### <1957년 4월 29일>



김포 그리스도의 교회(1957년)

1957년 4월 29일에 서울과 인근 지역의 목회자, 장로 및 집사들의 연합집회를 열었고, 40명이 참석하였다. 테일러는 집회의 주제와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모든 지도자들이 참여토록 하였으며, 집회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였다. 다음 집회는 새로 지은 인천교회에서 모이기로 계획을 세

왔다고 적었다.

<1957년 6월 3-10일>

테일러는 6월 3일에 충청도, 5일과 7일에는 전남, 9일에는 제주도에서 연합집회를 열 계획을 세웠다. 테일러는 이들 집회들을 통해서 전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절반 이상과 만나게 되기를 희망하였다. 그리고 7월말까지는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만남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테일러는 가능하다면 전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순회할 계획이었다.

<1958년 5월 18-25일>

테일러 선교사의 선교지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8년 8월 호에 따르면, 테일러는 한길사 직원 방 아무개(통역) 씨와 동행하여 1958년 5월 18일 주일에 부강교회를 방문하였고, 송(조순) 형제가 운영하는 판암동 애생원을 방문하였다. 5월 19일에



하이도 교회(1958년)  
(임해숙 전도사, 전남 무안군 하의면 하태리)

광주로 내려갔고, 20일(화)에 전남 해남군 화산면 방축리교회(최용호 목사의 박정자 사모의 출석교회)를 방문하여 100여명이 참석한 수요일 저녁집회에 설교하였다. 22일(목)에 강진, 23일(금)에 진성구 장로의 모교회이자 6.25 전쟁 때 순교자들이

많이 나온 전남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교회, 24일(토)에 전남 무안군 하의면 하태리 하이도교회(임해숙 전도사)를 방문한 후, 25일(주일) 오후에 상경하였다.

<1959년 6월 8-10일>

테일러 선교사는 1959년 6월 8-10일 전라도지방을 순회하여 박지(치)환 형제가 새로 개척한 곳에서 설교하였는데 이날 읍장을 비롯해서 21명이 결신하였다.

**<1962년 2월 7-8일, 2월 16-23일, 3월>**

테일러 선교사의 선교지 <한국에 그리스도를> 1962년 3월 호에 따르면, 2월 7-8일 홍성으로 선교여행을 하였다. 안양교회 장주열 목사와 안재관 목사가 동행하였다. 홍성에 장 아무개 목사가 시무하는 1년이 채 안된 교회가 있었다. 테일러는 2월 16-23일 순회 때 목포교회를 가는 길에 홍성에 들러 3명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주일(18일)에는 목포교회에서 설교하였고, 월요일에는 임 아무개 통역과 함께 전주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였으며, 목요일(22일)에 군산을 거쳐 23일 상경하였다. 또 3월 중에는 전주를 다시 방문할 것과 목포에서 열리는 일주일 성경 공부에 참석하여 최윤권 목사와 함께 강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모임은 22개 교회들에서 2명씩 참석하는 모임이라고 소개하였다.

**(3) ‘한국에 예배당을’ 기금을 적절히 배분하였다.**

존 T. 채이스 선교사는 1949년 초부터 주간 <그리스도인 표준>(Christian Standard)과 함께 ‘한국에 예배당을’(Chapels for Korea)이란 캠페인을 펼쳤다. 채이스는 1949년 2월 중순부터 9월 1일까지 주간지 <그리스도인 표준>(Christian Standard)과 함께 ‘한국에 예배당을’(Chapels for Korea)이란 캠페인을 펼쳐 50,000달러 기금이 모이면 가족과 함께 한국에 재입국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금마련이 늦어진데다가 이듬해엔 한국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입국을 포기해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1953-54년 사이에 존 힐의 부인 에스더 비반즈가 일으킨 스캔들 문제를 풀 잉그람이 채이스에게 보고함으로써 삼자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서 세 사람 모두 1955년에 동반 사퇴하였다.

채이스 선교사는 기금마련이 늦어지고 자신이 재입국할 수 없

게 된 상황을 이렇게 말했다. “아마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까지 보실 수 있는 그분의 섭리 때문에 우리는 한국 전쟁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들 예배당을 짓지 않았다. 만약 우리가 예배당들을 지었더라면 전란 중에 모두 파괴되었을 것이다.”

해롤드 테일러가 한국에 왔을 때, 채이스는 선교부와 연관된 모든 것들을 테일러에게 인계하였고, 쓰고 남은 ‘한국에 예배당을’ 기금은 테일러 가족을 후원하는 오클라호마 마이애미 제일 그리스도인의 교회에 넘겼다. 1955년 11월에 입국한 테일러는 이듬해 2월에 전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에 설문지를 보내 교회 상황들을 면밀히 파악한 후에 후원계획을 세웠고, 마이애미 교회는 테일러에게 이 기금을 보냈다.

테일러의 후원 계획은 개교회가 할 수 없는 부분만큼만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그는 그의 선임 선교사들이 목회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주던 후원금을 끊고 긴급 상황에서만 후원을 하였다. 테일러의 이 후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 선교사 가족  
좌측부터 러렌드(Leland), 에이다(Ada), 페니  
루(Penny Lou), 글렌(Glenn), 해롤드(Harold)

원정책은 채이스가 ‘한국에 예배당을’ 기금을 조성할 때 세웠던 계획, 곧 꽤 훌륭한 예배당을 10여 채 이상 세우겠다는 계획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게다가 그의 정책은 많은 내국인 사역자들에게 그를 배척하는 원인이 되었다. 반면에 테일러의 이 정책으로 인해서, 채이스가 원했던 것만큼 훌륭한 건물은 아니었지만, 11개의 새 예배당이 건축되었고, 1개의 구 건물이 장로교회로부터 매입되어 그리스도의 교회로 사용되었으며, 34개의 교회

들이 신축 또는 수리를 위한 보조금을 받았다. 테일러는 이 사실을 1959년 10월호에 실은 ‘기독교회선교부의 역사’(History of the Korean Christian Mission)에서 밝혔다.

테일러 선교사의 선교지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6년 6월호에 따르면, 테일러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처음 6개월 동안 보고 느낀 소감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시골에 있었고, 가난하고 작은 교회들이었다. 그러나 교인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에 열심을 내는 훌륭한 성도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담임목사의 생활을 책임질 만큼 넉넉하지 못했고, 일부 교회들은 일주일 내내 체류하는 목회자를 두지 못하였다. 테일러는 이 무렵 전국에 교회가 75개 있었지만, 그 가운데 5개 정도만 도시에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시골이나 도시들의 공유지를 점유한 관



북동 그리스도의 교회(1957년)

자촌 또는 피난민촌에 있었다고 전하였다. 2년 후인 1958년 2월호에서 테일러는 ‘한국에 예배당을’ 기금을 후원 받은 교회들이 대부분 텐트나 초라한 건물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초가지붕이거나 마루도 없는 교회들이었다고 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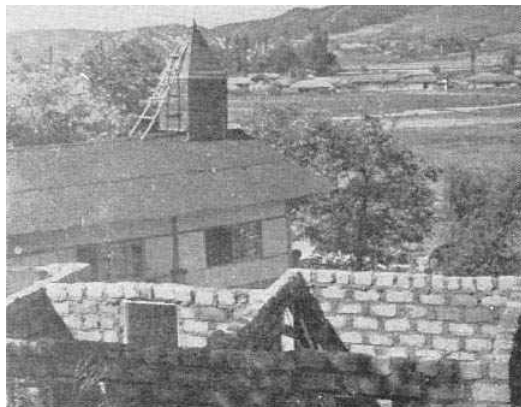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6년 6월호에 따르면, 테일러는 ‘한국에 예배당을’ 기금을 적절히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전국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 설문지를 보내 교회의 형편을 조사하였다.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후원이 시급한 세 개의 교회들에게는 건축 또는 매입자금을 지원하였다. 오클라호마 주 마이애미 교회로부터 받은 10,000달러 가운데서 은행 수수료로 10달러, 대구교회 예배당 건축에 460달러, 울산교회 예배당 매입에 1,400달러, 용신교회예배당에 101달러 72센트를 지불하

고 8,028달러 28센트의 잔액이 남았음을 보고하였다.

<한국에 그리스도를>(For Christ in Korea) 1957년 6월호에 따르면, 테일러는 1956년 2월에 전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 설문지를 보내서 교회들의 역사, 재적인원, 출석과 건물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답장을 보내온 교회들 가운데 침례 교인이 1,379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10명 미만인 교회가 9개, 20명 미만인 교회가 22개, 50명 이상인 교회가 4개였다. 출석 교인들은 이보다 10배 정도 많았다. 이들 가운데 몇몇 교회들만이 적절한 크기의 건물을 갖고 있었고,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일정부분 도움을 필요로 하였다. 테일러는 기금이 헛되게 쓰이지만 않는다면 가능한 많은 교회들에게 도움을 줄 생각이었다. 또 그 계획에 대해서도 교회들에게 알렸다.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7년 6월호가 발행될 시점까지 테일러가 도움을 준 교회는 39개였다. 아직 돕지 못한 교회들까지 다 후원하려면 5,000달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이 시점까지 테일러가 받은 기금은 총 28,857달러 83센트였다. 이 가운데 존 T. 채이스로부터 넘겨받은 돈은 18,424달러 88

센트였다. 그리고 39개의 교회들을 건축하거나 수리 또는 보수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26,776달러 51센트였고, 송금료 22달 41센트, 환전료 10달러 11센트, 기타(순회 및 국내 송금료) 119달러 12센트였으며, 잔액은 1,929달러 79센트였다.



조동 그리스도의 교회(1957년)

테일러 선교사의 선교지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8년 2월호에서 테일러는 ‘한국에 예배당을’ 기금을 후원받은 교회들이 대부분 텐트나 초라한 건물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추가

지붕이거나 마루도 없는 교회들이었다고 전하면서 여전히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00달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덧붙여서 테일러는 1만 달러를 더 모금해서 쓰게 되면 총 5만 달러를 쓰게 되는 것이지만 (그간 쓰인 기금이 4만 달러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5만 달러는 미국에서 예배당 하나 짓는 비용에 불과하고, 한국의 교파교단들의 큰 교회 예배당 두 개 정도를 짓는 비용에 불과하다고 적었다.

테일러의 선교지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9년 10월호에 실은 '기독교회선교부의 역사'(History of the Korean Christian Mission)를 근거로 볼 때, '한국에 예배당을' 기금으로 11개의 새 예배당이 건축되었고, 1개의 구 건물이 장로교회로부터 매입되어 그리스도의 교회로 사용되었으며, 34개의 교회들이 신축 또는 수리를 위해 보조금을 받았다.

(4) 선교지 <한국에 그리스도를> (For Christ in Korea) 일년에 1-3차례 발행하였다.

FOR CHRIST IN KOREA

JUNE 1956

Thank You

Some of you may think of "Taylor's out there all alone." But we don't feel that way. We are conscious of the fact that there is a great number of Christian friends back of us in prayer, and, too, it is by your giving that we are able to be here and to do what we can in Korea. It is a great fellowship in the ministry of the Word and in the ministry of Mercy to these people. We give thanks for you and pray for you daily. From your letters we see that you are aware of the fact that we need help. We are glad to say that we indeed have help. God is with us! It is His work and He is working. We have faced big problems and there are still more, but we are relaxing. We see that we are to do only the difficult (and that with help from above), while the Lord Himself is doing the impossible. All glory is for Him!



On Palace Grounds in Seoul



Opening Day at Pachen Middle School

house reminded us of a Korean bus, filled twice without unloading! I understand that two whole villages tried to get inside that night. It was a good meeting, with four responses to the Gospel. After walking 8 miles, riding fifty (rough) miles and preaching twice, I was ready for bed. But, no, we will first have a meeting with the young people and go to bed later!

On Monday we had a baptismal service in a pool beside the rice fields. Then we walked back to Kimchon and took the train to Shintan where Bro. Kim Dong Yui has been pastor. I spoke on "The Bride of Christ," and learned afterwards that there were two Methodist preachers in the audience! The next day we had an early start with our first message at the 4:30 a.m. prayer meeting.

Then some more sleep before breakfast and trip to the next

joy for you folk and for us to help these innocent victims. Surely as Christians we can do no less.

Two more handicapped children were pointed out to us. They are deaf and dumb. Another, a small girl, though she is 12 years old, is blind and deaf. She was inside one of the rooms and we noticed that she seemed to be in distress. Although she might easily be judged one of the prettiest children among the 150 in the Inchon Orphanage, she wore an expression which dug deep into one's sympathy. We thought, "What would the folk in the States do if they could see her?" But we knew the answer, from the many responses which have been made to the call of Korea's needs, both through missionaries and by the U.S. servicemen. The next day we made an appointment at the hospital in Seoul and she entered there the following week. She is now back at the orphanage, in a cast after an operation on her back. They said it was "T.I.R. of the bone." Bro. Do, in charge of the orphanage, says that this girl has good faith in the Lord, and we know that the Lord is able, so let us pray for Miss Kim Hyun J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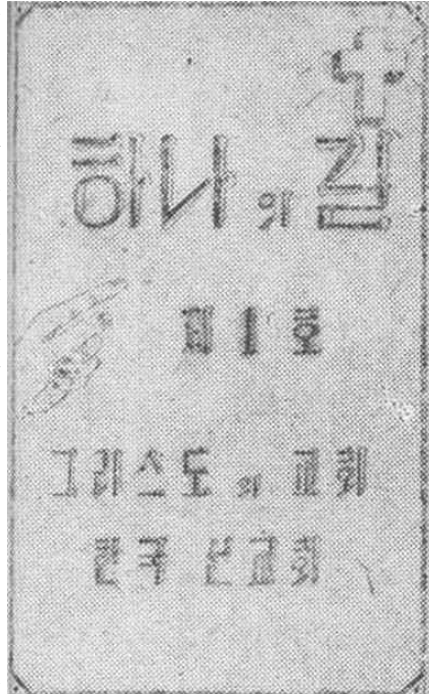
We have had one other similar decision to make with another girl, this one the small daughter of one of the preachers. We saw her at her home at Kimchon on April 1st. She is 10 years old and says that there was something wrong with her eyes. They said that she was slowly losing her sight. Knowing that this

필자가 쓴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의 상당부분은 선교사들이 발행한 선교지들 덕분에였다. 이 선교지를 받아본 미국인 성도들이 이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보관하여 디지털화하지 않았다

다면, 한국 그리스도의 이야기 상당 부분이 밝혀질 수 없었을 것이다.

**(5) 1957년에는 월간 <한길>(One Way)을 창간하였다.**

테일러는 내국인들의 이견을 좁히고, 자신이 주도하는 비교과교회 플랜 곧 신약성서기독교를 전국에 소개하고, 목회자들의 설교준비와 목회사역을 돕기 위해서 월간 <한길>을 발행하였다. 월간 <한길>은 1957년 3월에 창간되었으며, 4월에 1,500부가 메일로 발송되었다. 테일러는 <한길>이 목회자들에게 신약성서의 계획과 교리들을 이해하고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1957년 3월에 창간된 한길 표지

<한길>은 처음에는 신문형식으로 발행되다가 13호부터는 잡지형식으로 바뀌었다. 매호마다 목상(QT), 교리, 선별된

기사들이 담겼고, 12-16쪽으로 구성되었으며, 연말에는 합본을 만들어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그리스도의 교회들 뿐 아니라, 많은 교파교회들, 학교들, 군목들에게도 발송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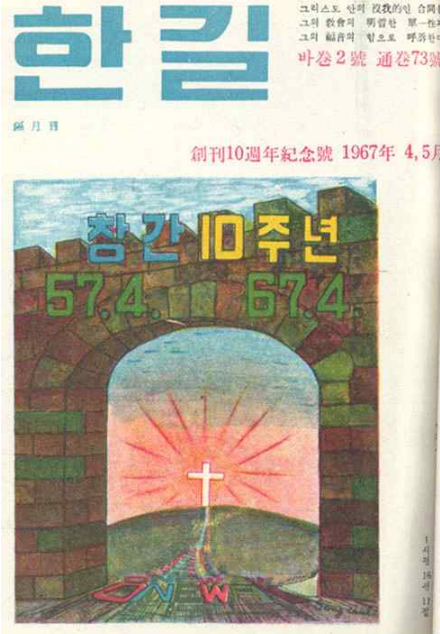
**(6) 신학교 캠퍼스 이전 프로젝트(New Seminary Project)를 실행에 옮겼다.**

테일러 선교사가 한국에 왔을 때, 전국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75개였고, 서울성서신학교 학생들은 40여명이었으며, 일본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이 서울에까지 와서 가르쳐야했기 때문에 교과과정은 과목당 6주씩 집중교육을 받는 형식으로 운영되었다.

테일러는 1955년 11월 한국에 입국하여 기독교회선교부를 인수받고, 1959년 6월 3일까지 신학교 3층 건물을 포함해서 서대문구 송월동 32-6번지의 선교부재산을 모두 팔았고, 그 때



문에 북서울 역촌동(현재 신사동)에 캠퍼스부지를 매입하여 교사와 기숙사를 짓기까지 몇 년 동안 신학교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다. 그러나 테일러는 처음부터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문교부인가의 필요성을 깨닫고 있었고, 또 인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넓은 캠퍼스와 시설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일을 추진하였다. 이런 점에서 오늘의 서울기독교대학교는 테일러 선교사의 선견지명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길 창간 10주년 기념호

테일러의 선교지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6년 6월호에 따르면, 1956년에 신청한 인가신청이 부지가 8분의 1밖에 되지 않아 거부되었다. 이때부터 테일러는 신학생들이 늘어나 장소가 협소다면서 송월동 부지와 건물을 팔고 더 싸고 넓은 부지를 물색하여 선교부와 신학교를 이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야 정부로부터 대학인가를 받을 수 있고, 인가를 받아야 좋은 학생들을 받을 수 있으며, 재학생들이 병역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혜택들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테일러는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8년 8월호에서 자신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두 개의 확연이 드러난 문제들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첫 번째 문제는 70여개의 어린 교회들이 있었고, 그것들 대부분이 2-3명의 신실한 목회자들의 열정에 의해서 세워진 것들로서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목회자들이 돌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양떼를 제대로 돌볼 훈련된

목회자들이 필요하였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대개의 교회들이 시골이나 피난민 지역들에 있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도시들에 교회들을 세워야할 필요가 분명히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10개의 대도시들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단지 6개뿐이었는데, 그 가운데 2개만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었고, 오직 한 개의 교회만이 한명의 장로를 두었다고 하였다. 시골에 있는 교회들조차도 단지 몇 개만이 상태가 좋은 교회였고, 그들 가운데 5월 22일에 방문했던 전남 해남군 화산면 방축리 교회는 80여명의 성도에 2명의 장로가 있었으나 애석하게도 장로들이 목회자를 내보냄으로써 그 목회자가 인근지역의 타교단으로 갔다고 하였다. 테일러는 작은 교회들을 아우를 수 있는 만형교회들이 대도시에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신학교, 정부로부터 인가가 난 신학교가 필요하다고 확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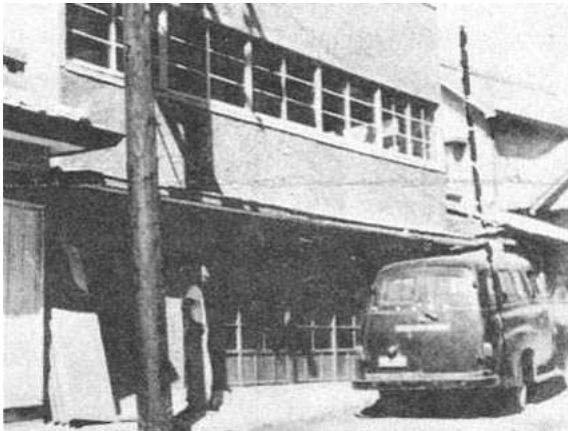


역촌동의 7,087평의 서울성서신학교 새 부지(1960년).  
구 송월동 '기독교회선교부' 부지는 총 396평이었다.

테일러는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8년 8월호에서 월드비전의 래츠(Raetz)가 '그리스도인 미군센터'로 쓰기 위해서 송월동 선교부를 매입하겠다고 하여 계약서까지 쓰고, 7월 한 달 동안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돌아다녔다고 하였다. 그런데 1959년 5월호에서는 1958년에 선교부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려던 사람에게 할부금 형식으로 계약하였으나 매입하려던 계획이 실패로 끝남으로써 1,500달러의 수입이 생겼으나 거의 일 년에 가까운 시간을 낭비했다고 하였다. 테일러는 또다시 부동산소개소에 부

지와 건물을 팔려고 내놓았고, 그세 시세가 올라 4만 달러 정도는 되어보였다. 그 돈이면 송월동 선교부의 부지보다 20배 정도와 초기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비용이 된다고 하였다.

이 무렵 송월동 선교부신학교의 학생수용능력이 25명이었으나 새 캠퍼스의 수용능력은 250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고 테일러는 교수충원과 관련해서 최윤권이 산호세 신학대학 졸업을 1년 남겨놓았고, 최순국이 링컨성서대학으로 유학을 떠날 준비를 마쳤으며, 김진문이 1960년부터 교수진에 합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시점에 신학교는 휴교상태였다.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9년 10월호와 1960년 2월호 따르면, 선교부 건물과 토지는 1959년 6월 3일에 팔렸다. 60일 이내에 집을 비워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사할 곳을 찾아야했다.

송월동 32-6번지를 팔고 141번지에 전세를 냈던 **각 건물** 테일러는 집을 비워줘야할 날짜를 이틀 남기고 방 8개짜리 집을 일 년간 전세로 얻었다. 2층 건물로 송월동 32-6번지에서 가까운 141번지에 있었다. 그곳에 선교부, 한길 사무실, 2층에 집회소(Gospel Hall)와 전도센터를 두었다. 나머지 짐은 특히 신학교의 책걸상은 이전 송월동 신학교 건물의 지하실에 12월 1일까지 임시로 둘 수 있도록 새 주인에게 허락을 받았다. 테일러 가족은 그곳에서 가까운 곳에 작은 집을 전세 내어 이사하였다.

테일러 선교사는 누구보다도 훌륭한 신학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또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새로운 캠퍼스부지가 1959년 후반기에 구입되었다. 테일러는 서울 변두리 역촌동

에 6천여 평의 토지를 매입하였다. 그곳에 27평정도 되는 절연체인 알루미늄 콘센트 막사를 지어 그곳으로 신학교 책걸상을 옮겼다. 이 막사는 학교가 이전하면 임시로 여기숙사나 식당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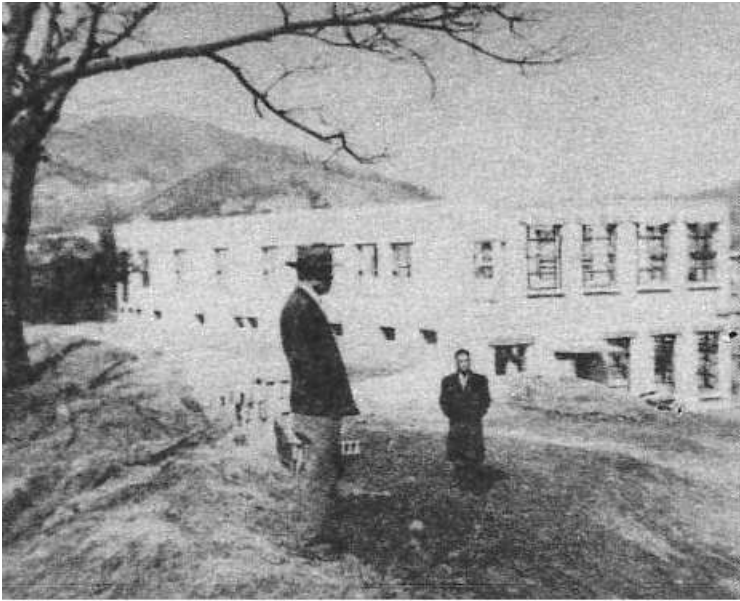


서울성서신학교 기공식(1961년 8월 28일)  
12개 교회들의 대표들이 기공식에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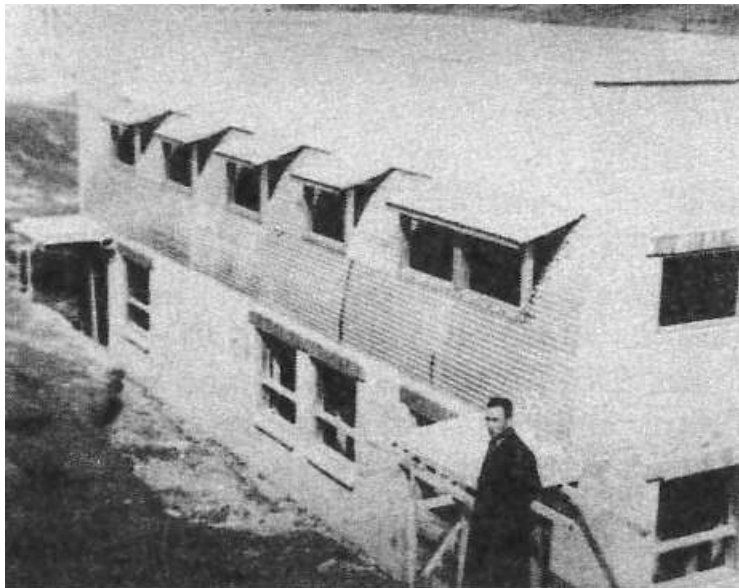
<한국에 그리스도를> 1961년 10월호에 따르면 테일러 가족은 안식년을 마치고 6월에 한국에 돌아왔다. 그리고 테일러는 동년 8월 28일에 12개 교회들의 대표들과 함께 기공식을 갖고, 2층 교사와 남녀기숙사 및 식당을 건축하였으며, 그동안 중단되었던 서울성서신학교는 새 캠퍼스에서 1963년 3월에 개강하였다. 교수들은 테일러 선교사, 최윤권 목사, 1962년에 입국한 고든 패튼(Gorden Patten) 선교사, 박두진 시인 등이었다.



서울성서신학교 본관과 남자기숙사 조감도



건축 중인 서울성서신학교 도서관(1961년 12월)



건축 중인 서울성서신학교 여기숙사(1961년 12월)



1963년 서울성서신학교 개교식  
 앞줄 우측부터 김진문 목사, 박두진 시인, 정인소 박사, 최윤권 목사, 해롤드와  
 에이더 테일러 선교사 부부, 고든과 샤론 패튼 선교사 부부, 한 사람 건너 차원봉 목사



서울성서신학교 졸업식 기념(1964년 3월 9일)  
 앞줄 우측부터 이종만, 패튼, 둘 건너 최윤권, 구광서, 테일러, 성낙소(이상 목사)

(7) 그리스도의 교회들 보육원을 직접운영(부평) 또는 후원(인천 송의동, 대전 판암동)하였고, 구호물자를 보급하였다.

부평보육원은 힐 요한 선교사와 리라 톰슨 힐러(Lila Thompson Hiller)가 송월동 선교부에서 시작한 보육원으로써 리라 톰슨이 부지매입과 건축을 책임지고 부평으로 옮긴 것이어서 기독교회선교부가 모든 살림을 책임졌다. 또 기독교회선교

부는 대전 애생원을 직접 관리하였고, 인천 보육원과 함께 학비, 책값, 기성회비 등을 후원하였다. 하지만, 재원부족으로 전적인 책임을 질 수가 없어서 월드비전의 도움을 받도록 주선하였다.



에이더와 입양딸 페니 루(1959년경)

테일러는 이들 보육원생들에게 매주 1회 예배와 연 2회 성경학교

를 개최하여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로 인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만 18세가 되어 퇴원하는 원생들 중에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있었다. 실제로 서울성서신학교에는 보육원 출신의 신학생들이 여러 명 있었다.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9년 5월호에 따르면, 1958년 10월에 부평보육원의 원생들이 원장에 반대하여 데모를 일으켰고, 그 수습책으로 설하운 목사가 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설목사는 이 보육원을 도내 최고 보육시설 가운데 한 곳이라는 평가를 받아냈다.

설하운 목사는,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7년 2월호 따르면,

1956년 12월 27일 김형옥 자매와 테일러 선교사의 주례와 김동수 목사의 통역으로 혼례를 치렀다. 신학생 때 설하운은 선교부신학교 관리과장으로 섬겼고, 구호의류를 보육원들과 목회자



설하운 목사의 결혼식(1956년 12월 27일)  
신학교 졸업을 앞두고 테일러 선교사 주례로 김형옥과 결혼하였다.

들에게 보내는 업무를 관장하였다. 1957년 3월에 선교부신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도원동교회를 시무하다가 부평보육원 원장 및 부평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로 취임하였다.



도원동 그리스도의 교회(1950년대)

부평보육원에서 발생한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1958년 12월 대전 관암동 애생원에서 발생하였다. 이 문제는 일간지에 기사화가 되고, 법적문제로까지 번졌다. 테일러 선교사는 해결책으로 전에 부평보육원에서 총무로 일하다가 일이 힘들어서



부평 보육원(1957년)

사임하고, 서울에서 전에 했던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던 박정훈 형제를 불러 원장으로 앉혔다. 테일러가 1960년 1월 11일에 애생원을 찾았을 때, 애생원은 월드비전의 도움으로 건물에 대한 담보권이 풀렸고, 새로운 이사진,

새로운 원장과 새 이름을 갖게 되어 마치 새로운 장소 같았다고 전하였다.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7년 6월호에 따르면, 테일러는 보



육원들에 보낼 헌옷들을 1956년 여름부터 일 년에 두 차례 10월과 4월에 보내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맞춰 미국의 형제들이 구호물자를 보내주기를 요청하였다. 10월에는



인천보육원 송의동 교회  
1957년 10월 21일 제2차 경기지방 연합집회 때

보내줘야 보육원들이 겨울채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테일러는 이 옷들을 수선할 재봉틀도 보내 줄 것을 미국 교회들에



대전 판암동 애성원(1959년)  
1959년 초에 전 부평보육원 박정훈 총무가 원장으로 새로 취임하였다.

요청하였다. 보육원 아동들의 숫자만큼이나 수선이 많다보니까 재봉틀의 수명이 짧았던 것이다.

(8) 세 개의 중학교들의 설립을 돕고 순회하였으며 후원하였다.



박혁 목사가 운영한 포천중학교(1956년 개교일)

테일러가 발행한 선교지 <한국에 그리스도를>(For Christ in Korea) 1956년 6월호, 1957년 6월호, 1959년 5월호에 따르면, 테일러는 세 개의 중학교를 돕고 있었다. 테일러 선교사는 이들 학교들이 받

전하여 고등학교를 설치하게 되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목회자 지망생들을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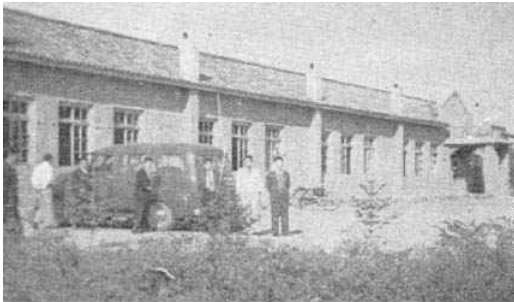
두 곳은 필요한 도움을 줬고, 한 곳은 매월 75달러씩 지원하였다. 이 액수는 교사들 봉급의 절반이 조금 못되는 액수였다.

매월 지원했던 학교는 영광농축기술학교로서 38선 근처 포천에 있었다. 테일러 선교사가 설립자였고, 박혁 목사가 교장이었다. 그곳에 박혁 목사가 시무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도 있었다. 이 학교는 학생 17명으로 시작되어 62명으로 늘었고, 대부분 남학



영광농축기술학교(포천중학교) 제1회 졸업생 (설립자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 교장 박혁 목사)

생들이었다. 농업을 강조하는 중학교로써 매일 성경공부를 가르쳤다. 이 학교 캠퍼스 안에 고등공민학교가 별도로 하나 더 있었다.



신갈중학교 및 신갈 그리스도의 교회(1957년)

신갈에는 이기구 목사가 운영하는 중학교가 있었다. 금광을 운영하는 동서의 도움으로 교사를 건축하였지만, 5천 달러 정도의 빚 때문에 거의 팔릴 뻔하였다. 졸업생들 가운데 서울성서신학교에 입학하기를 원

하는 이들이 있었으나 테일러는 입학을 거부하면서 고등학교 설치를 주문하였다. 1957년 봄에 시작된 고등학교에 10명의 신입생들이 입학하였고, 그 가운데 7명이 신학교 지망생들이었다. 이 무렵 전교생이 95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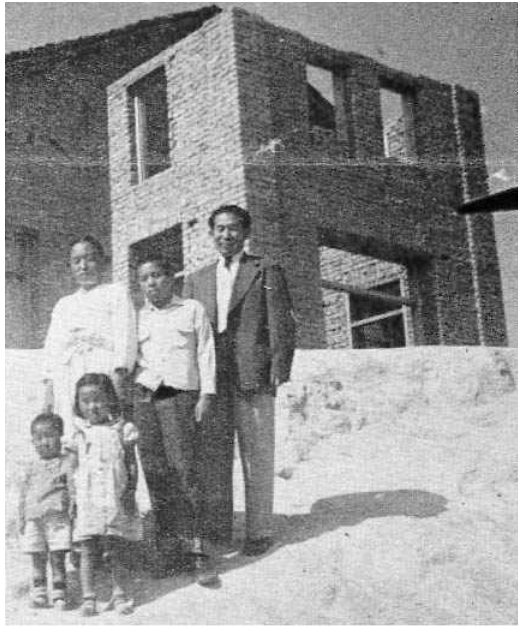
서울 근교에 김 아무개 형제가 운영하는 학교가 있었다. 300여명의 학생들이 대부분 북에서 넘어온 가족들의 자녀들이었다. 난로도 없는 세 개의 천막교실에서 수업이 이뤄졌다.

**(9) 그리스도의 교회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재산을 보호하고, 신약성서교회 조직에 힘썼다.**

테일러는 <한국에 그리스도를> 1960년 2월호에서 창립 22돌을 맞이한 돈암동 교회가 1959년에 겪었던 시련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한국의 다른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돈암동교회도 역시 구성원들의 견해와 행동에 의해서 또는 상충하는 교리들에 의해서 혼란에 빠져들었다. 7월에 돈암동교회의 대표자들이 선교사를 찾아왔다. 그들의 설교자가 교회를 침례교회로 끌고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절반가량의 교인들이 예배를 보이콧하고 있었다. 그들은 선교사가 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랐다.

테일러 선교사는 양진영이 모인 자리에서 입장을 전했고, 수요일에 침례교 목사는 사임하였다. 그 이후 테일러는 돈암동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자로 혹은 치리목사로 사역하였다. 27명이 침례를 받았고, 출석인원 25명이 50명으로 배가되었다. 9월에는 성경공부 반을 조직하여 기본 교리를 가르쳤다. 또 제대로 된 신약성서교회를 조직하기 위해서 최초로 부수정관이 포함된 정관(조직플랜)을 만들었다. 테일러는 돈암동교회를 모델로 삼아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신약성서교회로 조직될 수 있기를 바랐다.



돈암동 그리스도의 교회(1958년)와 이순호 목사 가족  
테일러는 100여명이 모이는 돈암동교회 건축을 마지막으로 '한국에 예배당을' 기금프로젝트를 종결시키려고 하였다.

**(10) 선교사 가족들을 모집하여 한국교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였다.**

테일러는 리처드 래쉬(Richard and Melba Lash) 가족과 고든 패튼(Gorden and Sharon Patten, 배도은) 가족을 선교사로 영입하여 한국교회 발전에 크게 기여토록 하였다.

래쉬 가족은 1957년 5월 27일 배로 미국을 출발하여 6월 24일 부산에 도착하였으며, 27일 서울에 도착하였다. 래쉬 가족은 1년 정도 기독교회선교부에 머물며 한국말을 익히는 동안 서울성서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한국교회 상황도 살폈다. 그리고 나서 1958년 5월 10일 강릉으로 이사하였다. 신학교에서는 9월 12시 30분에 송별파티를 열어 환송하였다. 이후 래쉬는



래쉬 선교사 가족(좌측부터 리처드, 동, 도로시, 딸바, 1957이전)

부산으로 옮겨 장성만 목사와 더불어 경남정보대학을 일구는데 힘썼으며, 서울성서신학교와 대전의 한국성서신학교 모두에 필요에 따라 협력하였다. 래쉬 가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필자가 쓴 <충청이남지역(협의회, 총회)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http://kccs.info>)를 참고해 주기 바란다.

고든 패튼은 1954년에 미군으로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한국의 물적 영적 궁핍을 깨닫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였다. 미국으로 돌아가 신학대학에 입학하여 1960년에 과정을 마쳤고, 1962년 5월 25일 부인과 두 딸과 함께 미군이 아닌 선교사로서 한국 땅을 다시 밟았다. 한국에 도착한지 2개월 후에 셋째 딸이 태어났다.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의 선교지 <한국에 그리스도를>(*For Christ in Korea*) 1962년 3월호와 김찬영 박사의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 151-153쪽에 따르면, 고든 패튼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였다. 아직 젊은 나이에 국가의 부름을 받고 오리건 주 코티지 그로브(Cottage Grove, Oregon)의 집을 떠나 군에 입대하였다. 그가 근무를



배도은 선교사 가족(1962년)

좌측부터 레이철 마리(Rachel Marie), 샤론(Sharon)과  
고든 패튼(Gorden Patten) 부부, 리베카 루스(Rebekah Ruth)

희망한 나라들 가운데 극동이 가장 마지막 희망지였고, 한국이 희망 근무지 목록의 가장 마지막 나라였다. 그러나 군이 그를 보낸 곳은 바로 한국이었다. 그때가 1954년 6.25전쟁직후라 한국이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전쟁고아도 많았던 때였다. 패튼은 준비가 되는대로 한국에 다시 오겠다는 포부를 갖고 미국에 돌아가 제대하자마자 캘리포니아 주 산호세성서대학에 입학하였다. 패튼은 산호세성서대학에서 오리건 주 유진

(Eugene Oregon)의 대학가(College Street) 그리스도의 교회 출신인 샤론 콜버(Sharon Collver)를 만나 결혼하였다.



백묵길 목사(동역)와 고든 패튼 선교사



좌측부터 박점상 목사, 고든 패튼 선교사, 윤덕중 목사  
(2007년 8월 6일 75주년 기념대회장에서)

(11) 장래가 촉망한 내국인 젊은이들을 지도자들로 키우기 위해서 미국에 유학을 주선하였다.

테일러는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며, 서울성서신학교를 역촌동으로 이전하여 발전시키는 동시에 내국인 교수진과 교회지도자 확보를 위해서 인재발굴에도 힘썼다. 테일러는



1956년경, 최윤권(중위)과 최순국(동역)

최순국, 최윤권, 김진문, 안재관 등을 발굴하여 미국유학을 주선하였을 뿐 아니라, 그의 선교지 <한국에 그리스도를>에서 기회를 때마다 장래가 촉망한 내국인 젊은이들을 사진과 함께 기사화하여 미국 성



안재관 목사 가족(1959년경)

도들에게 소개하고 유학생활동에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비록 테일러 선교사가 한국문화와 내국인들의 정서를 잘 헤아리지 못하여 트러블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신학교와 인재를 키우고자 했던 그의 간절한 기도와 노력은 높이 평가받을만 하였다.

**(12) 여성들의 친교모임을 조직하여 월1회씩 모임을 갖도록 장려하였다.**

1961년 10월호에 따르면, 서울지역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7개 있었다. 상호 독립적이었고, 교제도 별로 없었다고 전하였다. 이유가 두 가지였는데, 한 가지는 교통비 문제였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모여야 할 진짜 목적 또는 동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국 교회들의 성도는 여성들이 다수였다. 테일러는 여성들의 친교 모임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월1회 모임을 갖도록 장려하고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61년 9월 29일에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제1회 여성모임을 가졌다. 특별강사는 서울여자대학의 (초대)학장 고(황경) 박사였다. 고 박사는 여성으로서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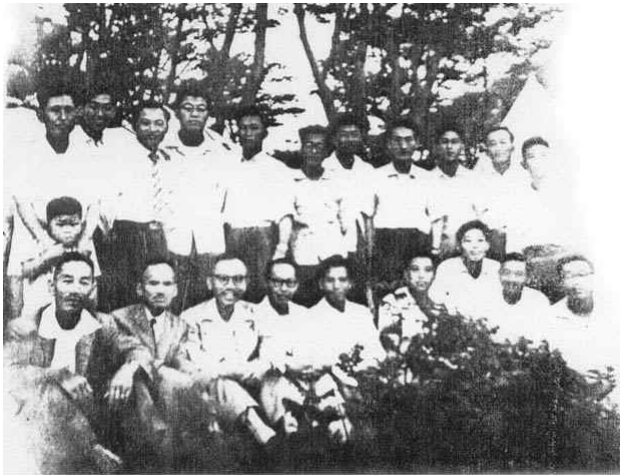


1959년 10월 19-21일에 도암동 교회에서 모인 목회자 친목회 '축' 창립 22해 돌맞이'는 도암동교회 창립(1937년) 22주년을 뜻한다.

여행가이자 제네바 유엔회담의 한국대표였다. 첫 모임에 60여 명이 참석하였고, 매월 1회씩 모이기로 결정하였다.

이 무렵에 그리스도인대회 및 교역자 수련회 등이 활기를 띄었다. 최윤권 목사는 <내가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역사>(2003) 68쪽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교역자회도 생기를 찾기 시작하였고 그리스도인대회도 시작되



제1회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1959년) 심영진, 장성만, 최효열 이신, 성낙소(이상 목사) 등이 참석하였다.

었다. 제2회 그리스도인대회 및 교역자회는 신탄진에서 있었고, 제3회 및 제4회는 서울 임마누엘수도원에서 있었다. 제3회 때는 최윤권 목사가 회장을 하였고, 제4회 때는 최

순국 목사가 하였다. 이때처럼 화기에애한 분위기 가운데 환원 운동의 진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있었던 때도 없다. 이때에 수고한 동역자들 중에는 4.19때 국회의원을 지낸 정인소 박사도 있다.

### 3) 은퇴 후 생활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 부부는 1955년 이후 19년간 서울에 머물면서 활동을 하였고, 모든 선교부 일을 후임자인 배도은(Gorden Patten) 선교사에게 넘기고 만 70세 때인 1974년에 은퇴하였다. 그러나 부부 모두 은퇴 후의 여생이 길지 못하였다. 테일러는 1976년 5월 15일 교회 제직소풍 중에 심장마디로 쓰러진 후 오후 8시 13분에 만72세로 별세하였고, 에이더(Ada Maryellen Sayer)는 캘리포니아 주 샌타클래라 카운티(Santa Clara County)의 산호세에서 1980년 10월에 만74세로 영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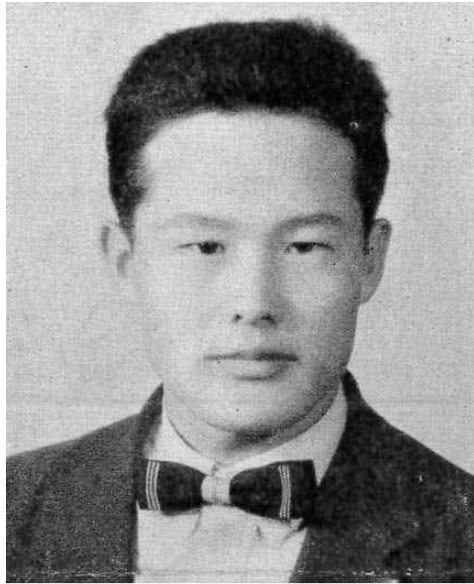
## 4.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의 내국인 사역자들

여기에 소개되는 테일러 선교사의 내국인 사역자들은 테일러가 <한국에 그리스도를>에서 언급한 인물들에 국한되었다. 서울성서신학교 초기 졸업생들 가운데는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발전에 기여한 훌륭한 사역자들이 많지만, 자료의 부재로 인해서 부득이 이 글에서는 테일러 선교사가 남긴 자료와 필자가 이미 작성해 놓은 자료에 국한하였다.

### 1) 최순국 목사(1933.02.08-2002.09.16)

테일러 선교사는 최순국 형제를 자신의 오른팔로 소개하였다. 테일러는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7년 2월호에서 통역 최순국을 자신과 밀접하게 일하는 사역자라고 하였고, 최순국이 요

츠야선교부 동경성서신학교의 학생이었다고 전하였다. 테일러 가족이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오기 전에 최순국이 찾아와 기독교회선교부(Korean Christian Mission)의 상황과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고 했다. 상황은 복잡했지만, 최순국에게는 분명했다. 테일러 가족이 한국에 와서 상황분석을 할 수 없게 되자, 최순국의 도움을 바라고 기도했는데, 195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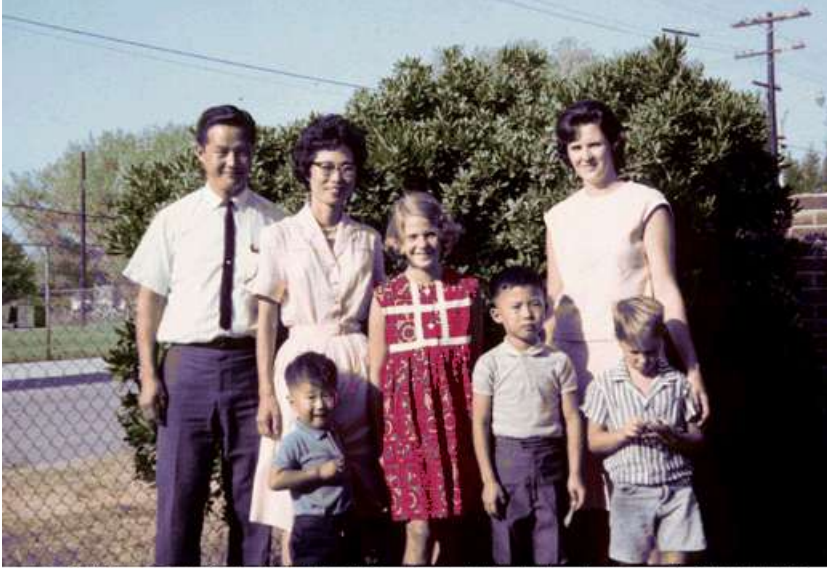
미국으로 유학가기 직전의 최순국 목사(1959년)

12월 31일에 최순국이 집으로 찾아왔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말하였다.

최순국은 장로교 교인이었고, 한국에서 군복무 중이던 어윈 브라운(Irwin Brown)에 의해서 좀 더 완벽하게 주님의 길을 인도받았다고 하였다. 여기서 테일러는 데일(Dale)를 어윈(Irwin)으로 잘못 기재하였다. 최순국은 6.25전쟁 중에 미군부대에 편입되어 미 공군사병이었던 데일 브라운(Dale Brown)을 만나 친구가 되었다. 최순국이 1959년에 미국에 유학할 수 있었던 데는 데일의 도움이 컸다. 이후 데일은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Disciples of Christ)에서 목회하였다.

테일러는 최순국이 내국인 사역자들과 자신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하였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있었다고 하였다. 테일러는 성경의 사건들을 비유로 들어가며 최순국의 등장을 하나님의 큰 섭리와 은총으로 이해하였다. 최순국이 서울에 온 것은 마리아의 집에 베드로가 온 것과 같고, 최순국이 그의 부모가 살고 있는 일본에 일 년 전에 여행한 것은 유라굴라의 광풍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바울의 로마행 여행에 비교될 수 있다고도

하였다.



1960년대 초 최순국 목사 가족과 데일 브라운(Dale Brown) 목사 가족

테일러 선교사가 발행한 선교지 <한국에 그리스도를>(For Christ in Korea) 1957년 2월호 내용에 비춰볼 때, 최순국은 송월동 기독교회선교부에 분열이 있었던 어느 시점에 부모님이 계신 일본으로 건너가 요츠야선교부의 동경성서신학교에 다니던 중에 테일러 선교사 가족이 송월동 기독교회선교부를 맡아 1955년 11월에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테일러를 찾아가 선교부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 본인도 1955년 12월 31일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테일러에게 신실한 협력자가 절실히 필요했던 시점에 맞춰 최순국이 찾아왔고, 테일러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받으며 선교사를 도운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테일러는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7년 6월호에서 최순국이 4월 20일에 군사훈련을 받기 위해서 한국군에 입대하였다고 전하면서 자신들이 1955년 11월에 입국해서 직면했던 난관들을 놀랍도록 지혜롭게 처리해준 23살의 젊은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채이스 선교사가 20대 후반의 박판조에게 보인 애정이 훌륭한 미래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도자감이란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던가, 테일러 선교사가 20대 초반의 최순국에게 보인 애정은 그가 입증한 지혜와 헌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최순국은 이미 서울성서신학교의 학생신분으로서 힐 선교사의 통역을 맡아 일을 했던 경력자였고, 기독교회선교부가 분열에 휩싸였을 때 그 싸움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인물이었으며, 젊지만 지혜가 많고 테일러에게 헌신적이어서 분열에 휩싸였던 기독교회선교부에 평온을 되찾게 하고, 내국인 목회자들이 자신의 리더십아래서 연합할 수 있도록 도운 공신이였기 때문이다. 테일러는 최순국이 1955년 12월 31일에 일본에 돌아와 자신을 찾아온 일을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섭리하신 일이라고 굳게 믿었다.



1950년대 최순국 목사

미국 텍사스 주 포트워스 시에 소재한 브라이트신학대학원(Brite Divinity School)의 이상훈 교수의 “우리의 대선배 최순국 목사”(Soongook Choi: Our taesonbae), “최순국 목사의 생애”(A Brief History of Soongook Choi), “북미주태평양아시아인제자들의 약사”(A Brief History of the North American Pacific/Asian Disciples, 1891-2010)에 의하면, 최순국 목사는 1933년 일본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유교신자였고, 모친은 불교신자였다. 그러나 그는 중학교 1학년 담임교사의 영향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담임교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손톱이 모두 뽑히는 고문을 당하였지만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 사실에 최순국은 깊은 감명을 받았고, 기독교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부모의 종교들은 정의와 평화를 갈망하는 그에게 그 어떤 단서도 제공하지 못하

였지만, 기독교는 그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최순국은 독립심과 의지가 강하고, 종종 별난 사람으로 여겨질 만큼 인정이 많았다. 이런 성품 때문에 6.25전쟁 중에는 공산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재일본 한인 34명으로 구성된 의용군(학도병)에 자원입대하여 전투에 참여하였고, 생존자 3명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최순국은 한국에서 힐 요한(John Hill) 선교사가 운영한 한국기독교성서신학교(Korea Christian Bible Seminary)를 다녔다. 그의 결혼식 주례도 김은석 목사가 맡았다. 이 때문에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메모(1953-58)에 최순국의 이름이 몇 곳에 적혀있다. 그는 1953년 8월 4일 힐요한 선교사의 통역으로 창현 함태영 목사가 세운 충남 논산면 신교리교회와 복음중학교를 방문하였고, 테일러의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7년 6월호에 의하면, 최순국은 군 입대를 꼭 한 달 앞둔 시점에서 테일러와 함께 1957년 3월 19일 밤기차로 부산에 내려가 이튿날 방송국 설립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던 빌즈 가족을 만나 환담을 나눴고, 울산을 거쳐 영양, 삼척, 강릉, 주문진, 38선 이북 고성까지 돌아 26일 화요일 밤에 서울로 돌아온 교회순방 일정을 소화하였다. 1958년 3월 30일 주일에는 리처드 래쉬(Richard Lash) 선교사의 통역으로 김은석 목사가 시무하는 충남 부강교회를 방문하였다. 버트 엘리스와 조 세걸키의 1959년 7월 부산방송 선교서신에 의하면, 최순국은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의 통역관이었다. 이런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최순국은 6.25전쟁 직후 그리스도의 교회에 출석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순국은 미국에 유학하여 1961년에 링컨기독교대학에서 문학사(A.B), 1962년에 신약신학을 전공하여 문학석사학위(MA)를 받고, 동년에 목사안수도 받았다. 이어 1965년에 밴더빌트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석사(B.D)를 받고 1966년 8월 1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항을 떠나서 동년 9월 1일경에 부산에 도착하였다. 귀국하여 1969년까지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시

무하면서 대한기독교신학교(현 서울기독교대학교)의 설립협의회 회장과 교수 및 제2대 교장을 역임하였다.

최순국은 1964년 8월 26일 조직된 대한기독교신학교 설립협의회(Korea Christian College Planning Association)의 회장직을 맡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다. 대한기독교신학교는 최윤권 목사의 리더십으로 최순국, 안재관과 같은 링컨기독교대학 출신 또는 재학생이 중심이 되어 1965년 3월에 설립되었다. 상임위원회에는 안재관, 최윤권(실무 학장), 장성만, 조충연, 최순국, 최요한, 이종만, 임명진, 강병천, 김현숙, 김진문(설립협의회 서기 겸 교무처장), 김규상, 김태수, 구광서(설립협의회 총무), 오현팔, 심영진, 성수경, 양해문이었고, 미국인 고문에 단 드웰트(Don DeWelt), W. L. 제섭(Jessup), 빌 전킨즈(Bill Junkins), 존 피얼스(John R. Pierce), 아이러 리드(Ira B. Read)였다. 대학설립과 동시에 <환원>지도 발간되었다.



인천 보육원에서 그리스도의교회 수련회 중에 인천 해변에서 좌측부터 김진문목사, 이종만목사, 최순국목사, 장혁(목사), 김순옥사모, 장성우목사, 김문태장로

최순국은 한국복음선교회(Korea Evangelistic Mission)를 설립하여 교수와 목회자와 방송선교사로 왕성하게 사역하였다. 1968년부터 라디오 기독교 방송국의 시간을 사서 최윤권, 김일엽(KEM 라디오방송 담당자)과 함께 방송설교와 '이형과 더불어

어'라는 프로그램을 내보냈다. 설교는 서울, 대구, 부산, 이리, 광주에서 주일 오후 5시에, 서울을 제외한 대구, 부산, 이리, 광주에서는 주일 오전 8:30에도 방송이 나갔다. '이형과 더불어'는 CBS에서 매주 2회 10분간 방송되었다. 1970년에 송출된 방송결과를 보면, 청취자들로부터 2,729통(평균 매주 52통)의 편지를 받았고, 182통의 전화를 받았으며, 26번 개최된 모임에 297명이 참석하였다. 그 결과 243명이 생애 처음으로 교회에 나갔고, 172명이 침례를 받았다.

최순국 목사는 1974년 미국 시카고로 이민하여 10월 20일에 시카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여 23년간 섬겼다. 이 교회도 다른 한인 그리스도의 교회들처럼 중도에 그리스도의 제자들 교단에 가입하였다. 유근희 박사(태평양아시아인 사역 실행목사), 노동국 박사(제자들신학원 동문, 일리노이 주 알링턴 하이츠에 소재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소속 에버그린 그리스도의 교회 개척 목회자), 이상훈 박사(텍사스 주 포트워스 시 소재 브라이트신학대학원 교수) 등이 최순국 목사의 영향을 받은 미국 한인 그리스도의 교회 지도자들이다.

최순국 목사는 1989년에 노트르담 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시카고 한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는 동안 시카고 파크리지(Park Ridge)에 소재한 루터교종합병원(Lutheran General Hospital)의 정규직 원목으로 사역하였다.

최순국은 일본에서 당한 인종차별, 한반도에서 겪은 동족상잔의 뼈저린 경험을 거울삼아 일찍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를 수 있는 인종화합과 평화를 위해 헌신하였다.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진 민족들 간의 분쟁의 아픔을 겪으면서 타민족 공동체들 사이의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최순국은 "이웃을 섬기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감동을 주며, 평화롭게 하고, 용서를 실천하며, 화해를 도출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방법이다."라고 하였다. 이런 신념으로 최순국은 한인 제자들 총회(Korean Disciples Convocation)를 설립하였고, 제자들신학원



(Disciples Divinity House)의 동문들인 데이비드 가기와다(David Kagiwada), 조 앤 가기와다(Jo Anne Kagiwada) 등과 협력하여 현재 80여개 교회들이 가입해 있는 북미주태평양 아시아인 제자들(North American Pacific/Asian Disciples, NAPAD)을 조직하였다.

최순국은 그리스도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 교단의 총괄 이사회의 회원을 역임하였고, 제자들신학원(Disciples Divinity House)의 이사를 1989-97년에 역임하였다. 그는 또 미국 인디애나 주 인디애나폴리스 시 파티마 연수원(Fatima Retreat)에서 1984년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개최된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Disciples of Christ) 산하 아시아계 미국인 제자들(American-Asian Disciples, AAD)의 제3차 회의 때 회장(소집자)으로 선출되어 아시아계 미국인 교회들을 이끌었다. 또 최순국은 1993년에 결성된 그리스도의 제자들 한국인 목회자회(Disciples of Christ Korean Fellowship)의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봉사하였다. 2000년에는 이 친목회가 한국인 제자들 총회(Korean Disciples Convocation)로 발전되었다.

최순국은 1990년에 찾아온 뇌졸중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던 사역을 내려놓고 1997년 3월에 은퇴하였다. 은퇴식은 그가 23년간 섬겼고, 한인 교회들에 지도력을 제공했던 시카고 한인 그리스도의 교회(Chicago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에서 개최되었다. 이때 북미주태평양아시아인제자들(NAPAD)로부터 감사패를 증정 받았으며, 그의 삶과 사역을 기념하기 위해서 '국내사역국'(Division of Homeland Ministries, DHM)에 '최순국장학기금'이 설립되었다. 북미주태평양아시아인 제자들(NAPAD) 사역에 소속된 학생들이 정규 신학대학원에서 정식학생으로 등록한 경우에 이 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최순국은 또 2000년 그리스도의 교회 교단에서 평가한 지난 1백년간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긴 36명의 사역자 중에서 아시안 남성으로는 유일하게 선발되었고, 지난 20세기 그리스도의 제자들 100대 목사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최순국 목사

시카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창립자이자 서울기독대학교(구 대학기독교신학교)의 공동설립자인 최순국牧사는 2002년 4월 14일 알링톤 하이츠 소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서울기독대학교로부터 명예신학박사학위를 수여 받았다.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점을 감안하여 서울기독대학교 이강평 총장이 직접 시카고를 방문하여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수여하였다.

최순국 목사는 2002년 9월 16일 소천 하였다. 사모 명희로

부터 미동과 데이비드(선동) 두 아들을 두었다

## 2) 김동수 목사

테일러 선교사는 자신이 발행한 <한국에 그리스도들>(For Christ in Korea) 1957년 6월호에서 김동수 목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김동수 형제는 나이가 67세이다. 육신은 날로 쇠하여가지만, 그의 신념만큼은 더욱 새로워지고 강해지고 있다. 그는 이미 9년간 선교부의 통역과 교수로 섬겼으며, 부인이 병약하여 간호에도 힘쓰고 있다.



김동수 목사(1950년대에 할라 테일러의 통역)

또 김동수는 행방불명된 아들들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김동수 목사를 사진에서 볼 수 있는 년도는 대략 1952년에서 부터 60년경까지이다. 테일러와 김동수가 언급한 9년은 실제로 는 8년이다. 힐 요한 선교사가 재입국한 해가 1949년 2월 18 일이기 때문이다. 힐 선교사를 도왔던 김동수 목사는 최순국이 군에 입대하면서 다시 테일러 선교사를 돕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테일러가 소개한 김동수 목사의 간증이다.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내 모든 죄악에서 건져 주셨는가를 생각할 때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밖에는 달리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나는 한 때 큰 죄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죄 악에서 빠져나올 희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부드러우셨 고 능히 나를 죄의 나락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 시다!

나는 영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지 일 년 되던 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았지만, 술을 끊지 못했고, 중독이 되도록 마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 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구세군에서 예수 그리스도님을 만날 때까지는 술을 끊어보려는 나의 노력이 번번이 허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내려놓 고 굴복했을 때 그분은 나에게 술을 거부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고,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 신 구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 개인의 구세주로 발견하였고, 그분이 내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 에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나는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구세군에서는 결코 사 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지 않고, 또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는지 궁

금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만족도 얻지 못했습니다.



김동수 목사(통역), 이기다 목사(신갈 그리스도의 교회 1952년 10월 3일 개척)

나는 구세군 사역에 오랜 기간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략 9년(실제로는 8년) 전에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힐 요한 선교사를 만났고, 그분이 나에게 신약성서의 가

르침에 따라 제대로 침례를 베풀어주었습니다. 비로소 나는 마음에 만족을 얻었고, 그로부터 나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교회 사역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 해 동안 나를 인도하시고 온전한 구원을 얻게 해주신 주님께 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6.25동란이 터지자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모두 피난을 가야했습니다. 모일 모시에 서울이 폭격을 받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길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난길에 나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되돌아오고 있었고, 그들이 말하기를 더 이상 어느 곳에도 숨을 곳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살던 집으로 가지 않고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곧바로 공산군들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공산군들이 우리가 살았던 곳 근처에까지 와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후 3-4시까지 총질을 해댔습니다. 나중에 내가 나가봤을 때 나는 우리가 살았던 곳이 포탄을 맞아 박살이 나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나는 하늘을 우러러 보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제게 무슨 목적을 갖고 계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뜻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전에 살던 집으로 가지 않은 것은 정말 놀랍고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때가 1951년 1월 4일 공산군들이 두 번째 남침한 때였습니다. 이것은 내 삶의 많은 체험들 가운데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나는 전쟁 중에 네 명의 아들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같은 사실을 마지막 줄에 쓰게 되어 송구합니다만, 그것은 정말 비극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 3) 최윤권 목사



1956년 12월 31일 부산을 떠나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1961년 11월에 귀국한 최윤권 목사

최윤권 목사는 최상현 목사의 둘째 아들로써 군에서 연락장교로 복무한 후에 제대하여 서울성서신학교에서 영어 강사, 통역, 한글 잡지 편집 등의 일을 하다가 1956년 미국 산호세 성서대학으로 유학하였고, 1960년에 졸업하였으며, 링컨기독교대학원을 1961년에 졸업하고, 1961년 11월 8일 귀국하여, 1962년 2월 5일 결혼하였다.

최윤권 목사는 귀국 후 도원동교회에서 목회하면서 1963년에 통신신학을 개설하였고, 1964년에 <환원>지를 창간하였다. 그리고 1965년에 대한기독교신학교를 창립하였다. 대학설립에 대해서 최윤권 목사는 <내가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역사>(2003) 61쪽에서 다



대한기독교신학교 부설 대한기독교동신신학 제13회 졸업식(1968년 9월 3일)

음과 같이 적었다.

일 년 후 테일러 선교사와 갈라진 최윤권 목사는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더불어 대한기독교대학 기성회를 조직했다. 기성회 회장은 최순국 목사가 맡았고, 1965년 3월 18일 서울 용산구 원효로에 임시 교사를 마련하여 대한기독교신학교를 개교하였다.

최윤권 목사가 교장을 맡았고, 구광서 목사, 강병천 목사, 성수경 목사, 심영진 목사, 이신 목사, 김진문 목사, 최윤환 목사, 김규상 목사 등이 교수하였다. 물론 이 학교가 개교되기까지 선교사들로부



대한기독교신학교(원효로 임시교사, 1965년경)



대한기독교신학학교 교수 및 학생들(원호로 임시교사, 1965년경)

교수진: 좌측부터 김진문 목사, 성수경 목사, 최윤권 목사, 김규삼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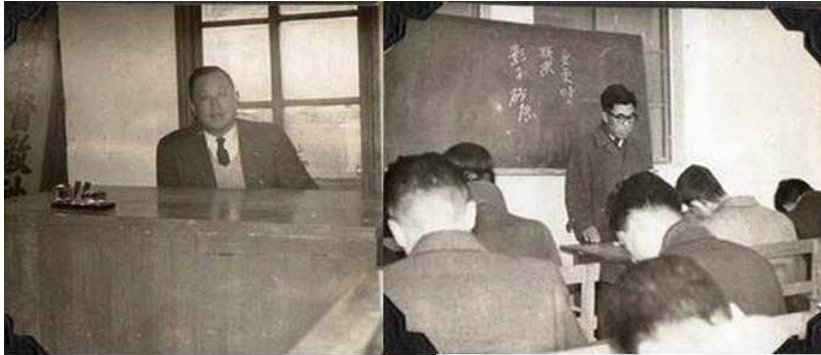
터, 혹은 반대하는 교역자들로부터 핍박과 방해공작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무수한 협박장과 신체적 위협까지 느꼈다. 그러나 학생들은 모여들었고 교수들은 보수 없이도 열심히 가르쳤다. 그리하여 공백 되었던 교회와 교회 없던 농어촌들을 메



대한기독교신학학교 제1회 졸업식(1965년 12월 10일)

교수진(목사): 좌측부터 최윤환, 김규삼, 심영진, 이신, 최윤권, 구광서, 강병천, 성수경, 김진문

위줄 훌륭한 인재들이 양성 되었고 앞으로 그리스도의 교회 발전을 도와줄 여러 가지 행사들이 계획되고 준비되고 실행되었다. 1965년 여름에는 최윤권 목사 소유 가옥과 최윤희 권사 소유 가옥을 팔아 효창동에 전 철도청 관사를 사들여 교사를 만들었으며, 최윤권 목사도 아주 그곳에 이주해서 살았다.



대한기독교신학교 교수, 구광서 목사(좌)와 강병천 목사(우)



대한기독교신학교(원호로 임시교사, 1965-66년 사이)

목회자들과 교수들(좌측부터 이신 목사, 성수경 목사, 최윤권 목사)이 포즈를 취했다.

대한기독교신학교는 1972년 2월 학교법인 환원학원과 4년제 각종학교 설립인가를 받았다. 1981년 3월부터는 배도은 (Gorden Patten) 선교사가 테일러 선교사의 대를 이어 운영하



던 서울성서신학교와 통합하여 서울성서신학교 캠퍼스에서 대한기독교신학교란 이름으로 새 출발하였다. 이후 1985년 4년제 대학학력인정교로 지정되었고, 1997년 12월 대한기독교대학교로 승인을 받은 후, 1999년 12월 서울기독교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최윤권 목사는 이곳에서 교장, 학장, 총장, 이사장 등을 역임하였다.



도원동 그리스도의 교회(1950년대), 좌측에 최윤권 목사(동역)

1966년에는 지온보육원을 설립하였다. 최윤권 목사의 <내가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에 63쪽에 따르면, 결혼 후 도원동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그 곳은 빈민동네라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도 많았고 버려진 아이들도 있었다. 교인들 가운데 정신장애를 가진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녀의 네 명의 자녀들을 집에 데려다가 돌본 것이 첫 출발이었다. 1981년에 소천한 민지은 여사의 이름을 딴 지온보육원은 대한기독교신학교 캠퍼스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나 강서구 개화동 325-11번지로 옮겨 오늘에 이르고 있다.

최윤권 목사는 방송선교와 출판에도 열정을 보였다. <내가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역사>(2003) 65쪽에 따르면, 70년

대에 기독교방송을 통해서 최순국 목사, 김일엽 목사 와 함께 ‘이형과 더불어’를 진행하였고, 그 후 단독으로 기독교방송 혹은 극동방송을 통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교회 아워,’ ‘성서로 돌아가자,’ ‘기쁜 소식’ 등을 방송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심야에 대북방송까지 하였다. 1988년부터 90년대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생활 속의 성경’이라는 텔레비전 종교 프로그램도 방송하였다. 저서로는 <깨어진 십자가> 1, 2, 3권과 <내가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역사> 등이 있다.

#### 4) 안재관 목사



안재관 목사

안재관 목사는, 테일러 선교사가 최순국 목사를 자신의 오른팔이라고 말하였듯이, 서울성서신학교 근무 시절 송월동 부지와 재산에 엉킨 실타래를 풀어 매도가 가능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신학교가 문교부로부터 인가를 얻는 데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법전에 근거하여 일을 처리한 테일러 선교사의 수족이었다. 미국에 유학하여 링컨기독교대학을 마치고 돌아와 최윤권 목사의 대한기독교신학교에서 설립협의회 상임위원과 제2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미국에 이민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목회 하면서 ‘제자들’ 즉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 <Christian Church(Disciples of Christ)>에 가입하였고, 유약기 한인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제자회로 결집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 5) 김진문 목사

김진문 목사는 1933년 2월 11일생으로서 평남 용강군 신녕면 신암리가 고향이며, 1950년 진남포 제일 고등학교, 1960년 서울성서신학교, 1961년 중앙신학교, 1963년 숭전대학교 영문과, 1975년 미국 임마누엘기독교대학원(전 Immanuel School of Religion) 신학석사, 1984년 미국 국제신학대학원 신학박사 과정을 각각 졸업하였다. 그리고 1962-1964년 서울성서신학교 교수, 1965-1971년



학장 김진문 박사

대한기독교신학교 교장, 1982-1985년 한성 신학교 교장, 1983-1984년 한국 기독교 신학 연구원 교수, 1976년 한국 복음 선교회 대표, 1985년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1966년 8월 4일 목사 안수를 받고, 1957-1962년 남산동 그리스도의 교회, 1962-1967년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 1968-1971년 도원동 그리스도의 교회, 1976-1985년 신설동 그리스도의 교회를 각각 시무하였다. 김진문 목사는 지병으로 1985년 11월 10일 낮 12시에 소천 하였다.

## 6) 독립투사 오현팔(吳鉉八, 1895-1972) 목사

신약성서기독교를 표방하는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초기 목회자들은 성서의 가르침에 철저하였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였다. 몇 분 되지 않은 목회자들 가운데 동석기, 최상현, 성낙소, 김문화, 오현팔, 최춘선과 같은 애국지사들이 있었고, 존 J. 채

이스 선교사의 협력으로 1937-40년 사이에 세워진 다섯 개의 교회들<신당정교회(김요한 목사, 미국 에모리 대학교 목회학석사 출신), 돈암정교회(최상현 목사, 연희전문학교 제1회 졸업생), 내수정교회(성낙소 목사, 한의사), 산돈암정교회(김문화 목사) 및 청량리교회(박판조 목사)>은 모두 일본기독교회 조선교단에 가입하기를 거부하였고, 동시에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거부하였다. 이로 인해서 1940-45년 사이에 성낙소 목사를 필두로 이들 목회자들은 일경에 불려가 모진 매를 맞았고, 김요한 목사는 세 차례나 투옥되었으며, 김문화 목사는 옥고를 치렀다. 1941년 후반기에는 다섯 개의 교회가 모두 폐쇄조치를 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암정 그리스도의 교회의 최상현 목사와 내수정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낙소 목사는 비밀리에 주일을 성수하면서 주의 만찬예배를 빠트리지 않았다. 채이스 선교사는 이 사실을 1941년 초와 1947년 초에 단기간 입국하여 직접 확인한바가 있다.

한때 <신학세계>의 편집인이었던 최상현 목사는 해방 후 미군정 때 연락관으로 활동하면서 교회를 지켜냈고, 애국지사였던 최춘선 목사는 김포지역에 거대한 토지를 소유한 거부였으나



6.25동란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데 전 재산을 사용하였다. 그는 소천하기 직전 몇 년간 세상에 ‘맨발의 천사’로 알려졌다. 한의사였던 성낙소 목사는 일제의 핍박에 굴하지 않고 한약방을 열어 생계유지를 하면서 교회를 지켜냈다. 더불어 성낙소 목사의 필운동(46년에 개명)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었고, 독립투사 오현팔 목사의 후손들이 필운동 교회에 출석하였다. 이런 인연으로 오현팔 목사의 손자인 오수강 목사는 성낙소 목사의 손녀와 결혼하였다. 오현팔 목사는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온전히 교회를 위해 바친 김은석 목사와 연락하고 지낸 사이였고, 미국 일리노이 주 소재 링컨기독교대학 출신과 재학생들이 합심하여 서울기독교대학교의 전신인 대한기독교신학교를 설립할 당시 설립상임위원회의 회원으로도 활동하였다.

오현팔(吳鉉八, 1895-1972) 목사는 자가 여경(呂卿)이며, 호는 호암(虎巖)인데, 본적은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이다. 연희전문학교를 1919년 3월에 졸업한 최상현 목사보다 4년 늦은 1923년에 연희전문학교(현 연세대)를 졸업하고 목사안수를 받았다. 1913년 9월부터 의성인 김원교, 청송인 윤용암 등과 항일모의 군사훈련을 시작하였고, 1915년 2월에 광복단 본부 밀사로부터 경북도책 간부 및 영양군책에 임명되어 민족정신 고취 밀명을 받아 활약하였으며, 1919년 2월에 교회를 영양읍 서부동에 창립하였다. 같은 해 3월에는 독립만세운동 밀령을 받아 영양읍 현동 앞 시골에서 시위하였고, 이후 월남 이상재, 민세안재홍 등 재경인사와 남정석 등과 항일운동단체를 조직하여 영양군 청기면 및 영양읍 시장에서 독립만세 시위를 주도하다가 영양경찰서에 체포 구금되었다. 같은 해 10월 광복단 밀사이자 상해임정 밀사인 영해사람 이겸호 등과 연락하여 극비리에 소총 등 50여점을 들여왔으며, 본군 석보면 포산리에서 만세운동 중에 군중에게 발포하던 왜경 및 헌병들에게 호암 오현팔 목사의 매부인 안성룡 외 2명이 전사하였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구금되어 3년간 옥고를 치렀다. 특히 1930년 1월 조선일

보, 동아일보, 시대일보 등에 민족단결과 항일애국운동에 관한 시론(詩論) 논문을 게재하여 그 필화(筆禍)로 경상북도 경찰부에 체포 구금된 일이 있었다. 그 후 굴원동지회라고도 하는 오오회(五五會)를 권국찬(權國燦), 이철호(李喆浩), 주원술(朱元述), 조훈석(趙薰錫)과 함께 조직하였고, 오오회를 일방만우회(一方晩友會)로 확대하여 항일독립에 노력하는 한편, 국산품 장려운동과 일제의 농지매입을 반대하는 연사로 활약하면서 애국심을 고취하였다.

오현팔 목사는 신사참배를 반대하였다. 이 때문에 영양교회는 1940년 4월 일제에 의해 강제로 철거당하였다. 1942년에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동양의 간디'라는 죄목으로 장기 구금되기도 했다.



오현팔 목사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의 지역분할 정책도 비판하였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영양에 교회를 개척하였다. 1919년에 개척한 장로교회가 1940년에 일제에 의해 강제로 폐쇄된 것을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복원한 것이었다.

오현팔 목사는 “지금까지는 나라를 빼앗긴 슬픔과 독립 쟁취를 위해 싸웠으나 이제 나라를

찾고 국권을 회복했으니 더 이상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 각 정당의 초대와 국회의원 공천 등의 유혹을 일체 거절하였다. 더욱이 가족들에게 자신의 항일투쟁사나 그간의 고통과 압박에 대한 이야기를 일체 함구하도록 하는 등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는 결코 나서지 않았다.

오현팔 목사는 자신의 설교문에서 말하기를, “모리적(謀利的) 신앙가와 사대적(事大的) 신앙가들에게 속지 말고 성경대로 살려고 힘써야 할 것 아닌가. 하나님 앞에 통일교니 감리교니 천주교니 성결교니 장로교니 안식교니 하는 교파가 곧 당파가 용인될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교회뿐이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교회로 모이자. 이것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신 그리스도의 뜻일 것이다.”고 하였다. 오현팔 목사는 또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란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되심으로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순종하려는 교회다. 성경을 이탈해 규칙을 만들어 교인을 구속하고 마취시키는 수단과 방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어그러진 시대에서 예수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하였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풍요로웠던 재산을 독립을 위해 모두 사용하고 남은 것이 별로 없었을 때에도 오현팔 목사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신앙의 본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오현팔 목사는 목회자이면서 한의사로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았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의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약을 3첩 이상 짓지 않았고 심지어 돈을 받지 않을 때도 많았다.

주일이면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보리갱죽을 해놓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전도자로 삼아 월급을 쥐가면서 함께 살았다. 오현팔 목사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성도의 모임이라는 것과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삶과 신앙을 나뉘야 한다는 생각을 확고히 하였다.

오현팔 목사는 1963년 3월 1일 영양군수로부터 항일독립운동 공적표창을 받았고, 1971년 7월 경상북도지사로부터 항일독

립운동 공적에 대한 표창을 받았으며, 같은 해 12월 20일 대한  
민국 정부로부터 항일독립운동 및 사회유공자 국민훈장(목련장)  
을 수여받았다.

## 7) 정인소(鄭寅笑, 1907.11.11-1977.8.27) 박사

<대한민국 인사록>, <(사진으로 본) 국회 20년 부록: 역대  
국회의원 약력>, <역대 국회 의원 총람> 등에 따르면, 정인소  
는 소년시절부터 민족해방운동으로 일제 때 특별 고등요시찰인  
(日帝時特別高等要視察人)이 되어 128회의 검속투옥이 있었다.  
특히 세계어(에스페란토)보급, 금주, 단연(斷煙), 아편, 공창(公  
娼), 축첩(蓄接) 등을 폐지하는 운동을 활발히 펼쳤다. 광복 후  
에는 군정청 학무국 계몽강사로 활약하였다. 사재를 투자하여  
애지세계사(愛之世界社), 국제금주동맹, 한국세계어총연맹 등을  
창립하여 총재에 취임하였다.

정인소는 조선행정 사찰관, 아마 세계어 전문학관 관장, 국학  
대학 교수, 국민대학 교수, 푸람파싸 대학 학장, 국제웅변대학  
학장, 청주대대학원 원장, 신생활일보사 이사장을 역임하였고,  
자신이 설립한 한국세계어협회(Korea Esperanto-Asocio) 회  
장을 역임하였으며, 오랫동안 방송설교를 하였다.

정인소 박사는 청주대학대학원 원장을 지냄으로써 보궐선거에  
서 5대 국회의원(지역구 충청북도 음성, 소속정당 무소속)으로  
당선했으나 5·16군사정변으로 인해서 의원선서를 하지 못하였  
다. 2013년 7월 13일자 경향신문, '48시간 국회의원 아시나  
요?'와 2013년 12월 8일자 중앙일보, '48시간 국회의원 괴산  
김사만·음성 정인소…DJ도'에 따르면, 정인소는 1961년 5월  
13일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충북 음성에서 제5대 국회  
의원에 당선되는 기쁨을 누렸다. 이날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정  
인소, 김사만, 김성환, 김종길, 김대중(전 대통령) 총 5명이었  
다. 이들은 선거 다음날인 5월 14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의원 당  
선증을 받았다. 하지만 5월 16일 군사정변이 일어났고, 곧바로



국회는 해산되어버렸다. 이 바람에 이들 다섯 명은 금배지도 달지 못하고, 본회의장 단상에서 의원선서도 하지 못한 채, 세비도 한 푼 받지 못하고 의원직을 마감해야했다. 이들이 의원 신분을 유지한 것은 1961년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이었으나 시간상으로는 48시간 정도에 불과하였다. 이후 정인소는 8번 고향과 서울에서 총선에 도전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였다.

정인소 박사는 일본 대관 부립중학교, 중국 북경 외국어 전문학교 세계어과, 일본 구주제대(九州帝大) 법대 법문학부 정경과(政經科)를 각각 졸업하였고, 미국 피플스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정인소는 자주독립국가 건설과 더불어 세계평화 수립에 분투 노력하였으나 반민특위가 조선총독부 경무부 촉탁, 황민생활사 사장을 지낸 경력을 문제 삼아 기소한바가 있다. 그러나 6.25 전쟁으로 인해서 재판은 중단되었다.

정인소는 ‘한국에스페란토학회’(Korea Esperanto-Instituto, KEI)와는 별도로 1945년에 또 다른 조직인 ‘한국세계어협회’(Korea Mondlingvo-Asocio, KMA)를 독자적으로 설립하였다. 1947년 4월에는 ‘아마 세계어 전문학관’을 개관하여 관장으로 취임하였고, <세계어 문법>(36쪽, 프린트 판)을 내고, 6월 14일에는 서울 YMCA에서 ‘세계어 대강연회’(주제: 조선의 장래와 세계어)를 개최하였다. 8월 14일에 ‘아마 세계어 전문학관’ 제1기 졸업생이 배출되었고, 9월에 그의 <세계어 사전>(228쪽)과 <세계어 문법>(40쪽)이 애지세계사 출판으로 발행되었다. 시조사가 발행하는 1948년 9월호 <시조>(時兆)에 ‘문명국가의 금주정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52년 한국세계어협회를 사단법인화하고 <세계어의 사명>이란 책도 출판하였다. 1956년에 <세계어 문법 강의>(64쪽, 한국신생활사), 1957년에 <세계어 교과서>(96쪽, 한국신생활사)를 출판하였다.

참고로 ‘에스페란토’는 폴란드의 안과 의사 루도비코 라자로 자멘호프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만

들 목적으로 창안한 세계어, 곧 인공어이다. 자멘호프는 고등학교 때인 1878년에 시험판을 만들었으며, 10여년에 걸쳐 에스페란토의 문법과 어휘를 개량하여 1887년에 <첫 번째 책>(Unua Libro)를 발표하였다.

정인소 박사가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와 서울성서신학교에 얼마나 관여하였는지는 1963년 개교식에 참석한 것 외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반면에 정인소 박사는 1960년대 초 존 J. 힐 선교사와 연관된 한국성서신학교 및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행사들에 집중적으로 모습을 보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정인소는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의 동역자이기보다는 존 J. 힐 선교사의 동역자로 분류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중요한 인물이었다. 아래의 사진들은 그가 한국성서신학교의 이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선교사들과 내국인 동역자들, 특히 충청 이남지역 사역자들과 고루 교제하였음을 보여준다. 정인소 박사의 옷차림은 늘 소박하였고, 검정 고무신을 즐겨 신었다.



1960년대 초 한국성서신학교 이사진과 교수진  
 앞줄 왼쪽부터 이종만 목사, 김현숙 집사, 힐 제인 선교사, 김희영 교수 사모, 최요한 목사  
 뒷줄 왼쪽부터 힐 요한 선교사, 최요열 목사, 임훈봉 목사, 임영진 장로, 이신 박사, 정인소 박사, 심영진 목사



1963년 서울성서신학교 개교식  
 앞줄 우측부터 김진문 목사, 박두진 시인, 정인소 박사, 최윤권 목사, 해롤드와  
 에이더 테일러 선교사 부부, 고든과 샤론 패튼 선교사 부부, 한 사람 건너 차원봉 목사



1961년 8월 17일 부강 부영초등학교 운동장  
 좌측부터 이종만 목사, 정인소 박사, 성낙소 목사, 이신 목사, 장성만 목사



1962년(?)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신약집)

앞줄 왼쪽부터 심영진 목사, 한숙자, 최보열 목사 부부, 이종만 목사, 뒷줄 할요한 목사, 한사람 건너  
임훈봉 목사, 정인소 박사, 성낙소 목사, 이신 박사, 고광석 목사, 장주열 목사, 소교민 통역

### 8) 이기구 목사

이기구 목사는 1952년 10월 3일 신갈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기구 목사 가족(1956년경)

개척하였고, 같은 지역에 중학교를 세워 건물을 짓고 운영하던 중에 해롤드 테일 선교사로 부터 가끔씩 지원을 받았으나, 최윤권 목사의 <내가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에 의하면, 그는 훗날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로 넘어 갔다. 테일러 선

교사가 발행한 선교지 <한국에 그리스도를> (For Christ in

*Korea*) 1956년 6월호에 의하면, 6.25전쟁 당시 이기구 목사의 사모가 숨어 지내던 동굴입구에 포탄이 떨어져 100여명 이상이 죽었고, 사모도 죽었다고 판단되어 무덤까지 봤으나 숨이 붙어 있음을 알고 리어카에 실려 피격 장소에서 벗어난 후 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했어야 했다. 그녀의 모친 또한 포격의 희생자로서 반신불수로 지내야했다.



이기구 목사(신갈 그리스도의 교회 1952년 10월 3일 개척)

### 9) 그리스도의 교회가 낳은 사랑의 원자폭탄 진성구 장로

진성구는 전남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 그리스도의 교회의 창립자이자 장로였다. 6.25동란 때인 1950년 11월 6일에 마을 빨갱이들에 의해서 교인 25명(주변에 40여명)이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한 교회이다. 1950년대 초에 이동 신학교였던 신화신학 성경연구회(그리스도의 교회)가 최요한 목사의 유달교회(당시 순복음교회)에서 모였었는데, 그 장소가 바로 진성구 장로가 제공한 목포시 죽교동의 건물 2층이었다. 진성구 장로는 최요한 목사의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1957년 9월 창립 때부터 교회

를 떠난 1968년까지 10여 년간 섬겼고, 김은석 목사가 자주 그의 집에서 묵었다. 김은석 목사와 그의 동료들에게 김교인 장로(전남 함평)와 더불어 진성구 장로의 집(목포)은 바울과 그의 동료들에게 드로아의 가보의 집과 빌립보의 루디아의 집처럼 선교의 허브들이었다. 또 진성구 장로는 1957년 무렵 테일러 선교사가 운영했던 서울성서신학교의 이사로 섬겼다.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 선교사가 발행한 선교지 <한국에 그리스도를>(*For Christ in Korea*) 1957년 2월호에 이 진성구 장로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실려 있어서 이곳에 소개할 목적으로 번역하였다.

진성구 장로는 1950년 10월 말 어느 아침에 수확을 앞둔 벼를 살펴보고 논으로 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 명의 마을 사람들이 나타나 진성구 장로를 에워쌌다. 그리고 “거만하게 굴지 마라. 세상이 바꿨다. 양키의 똥개들인 너희 그리스도인들을 말살해 버리겠다.”며 주동자가 엄포를 놓았다. 그들의 눈은 살벌했고 강경했으며 냉정했다. 그들의 이 소행은 마을의 나지막한 언덕 너머에 진을 치고 있는 공산군 지도자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꾸민 짓이 분명해 보였다.

그들은 그날 밤 진성구를 작은 방에 가뒀다. 내일 진성구를 인민재판에 세울 심산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진성구를 납치하기 전부터 이미 그의 운명을 결정해 놓고 있었다. 진성구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제 이 땅에서의 내 삶은 끝이구나!”라고 생각하였다. 진성구는 최후를 잘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그러자 주님의 평안이 임했고, 마음이 안정되었다.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진성구는 자기 자신이 산중턱 동굴에 버려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 그곳까지 왔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진성구는 쪼그리고 앉아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돌연 살아온 지난날이 회상되었다. 특히 그가 결혼직후에 꿔던 꿈이 생생하게 기억났다. 그때 그는 꿈에서 두 개의 가지가 돌아난 큰 나무를 보았는데, 한 가지에는 세 개의 열매가 매달려 있었고, 다른 가지에는 다섯 개의 열

매가 매달려 있었다. 그런데 세 개의 열매를 매단 나뭇가지의 열매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꿈이었다.

정신을 차려 진성구는 산에서 기어서 내려왔고, 별목꾼에게 발견이 되어 그들 부부로부터 수일간 정성스런 간호를 받았다. 그 사이에 공산군들이 쫓겨 북쪽으로 퇴각하였고, 마을은 그들로부터 해방되었다. 진성구는 가족들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지만, 자신의 세 아들이 이미 마을 빨갱이들로부터 살해된 후였다. 마을의 빨갱이들은 곧 체포되었다. 친구들은 진성구에게 충을 건네주면서 그들에게 복수하라고 등을 떠밀었다.

이 목불인견의 상황에 처한 진성구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세 명의 아들을 모두 잃은 그의 마음엔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찬 듯싶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성구는 그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그리스도인인 자신에게 웬일인지 낯설게만 느껴졌다. 자신의 눈앞에는 금지옥엽 같은 아들을 묻은 세계의 무덤들이 있고, 또 그들을 죽인 살인마들이 있었으며, 자신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이 일을 어찌해야 하는가?

마을 밖에 언덕 주변으로 세 사람이 끌려갔고 또 한 사람이 권총을 들고 그들을 뒤따랐다. 얼마쯤 후에 세 발의 총소리가 났다. 그 총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누구나 보복살인이 이뤄졌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었던 진성구는 그들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6개월 후에 각자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1951년 봄철에 세 사람이 말없이 세 개의 작은 무덤위에 꽃다발을 놓고 가는 것이 목격되었다. 그 무덤들은 진성구의 집에서 가까운 언덕비탈에 있었던 것이다.

금년 봄(1957)에 진성구 장로와 그의 부인은 6.25동란이후 낳은 다섯 번째 아이의 출산을 기다리고 있다. 진성구 장로는 적어도 몇몇 꿈들은 이뤄진다고 믿고 있다.

잊혀 있던 역사를 되살리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과연

그 일이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할 만큼 가치가 있고 중요한 일인가? 잊힌 그대로 두어도 누구도 아쉬울 것이 없고, 어쩌면 발 굴하지 않고 묻힌 그대로 두어 영원히 잊히도록 방치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지 않는가? 이 질문은 필자가 종종 자신에게 던졌던 물음이다. 하물며 독자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어찌 없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 민족의 한이 맺힌 서글픈 역사에서조차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코끝을 찡하게 만들며 눈가에 이슬이 맺히게 하는 가슴시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이 바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들 속에 담긴 감동이요, 한이며, 안타까움이다. 잘난 선배이든 못난 선배이든 우리 모두는 선배들이 몸 바쳐 겹겹이 쌓아올린 지층위에 발을 딛고 서 있다. 우리가 딛고 선 지층들 속에 무엇이 매장되어 있는지, 그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들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 속에 어떤 보물과 고증학적 파편들이 숨어있는지 어찌 궁금하지 않겠는가!

만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나라가 실재함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하고 누추하게 살면서도 작지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온몸을 바친 선배들의 상급이 어찌 명예와 부를 누린 이들의 것보다 작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롬 8:18).



##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

A Story of Korean Christian Churches: Minister Eunsuk  
Kim and His Bible Training Institute

### 제4부 김은석과 신화신학 성경연구회

#### 1. 1950년대까지의 힐 요한 선교사의 활동



힐 요한 선교사(1913.03.22-2009.11.04)

힐 요한(John Hill, 1913-2009)은 테네시 주 녹스빌에 소재한 존슨대학교(전 존슨성서대학) 4학년에 재학하던 1936년에 존 채이스(John Chase) 선교사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 한국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였다. 동년에 대학을 졸업한 힐은 2년간 온타리오 지방에서 목회를 시작하였으나 1938년에 사임하고 본격적으로 선교사가 될 준비를 갖췄다.

1939년에 에스더 비반즈(Esther Beavans)와 결혼하였고, 동년에 일본 도쿄에서 활동하고 있던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 1864-1936) 선교사 부부의 일대기, <타오르는 횃불>을 읽었으며, 특히 한국 관련 부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윌리엄 커닝햄 선교사가 처음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때는 1907년이였다. 동년에 중국 상해에서 4월 25일부터 5월 8일까지 중국 개신교 선교 일백주년 대회(China Centenary Missionary Conference)가 열렸다. 25개국 대표들을 포함해서 1,170명이 참석하였으나 중국인 대표는 10여명에 불과하였고, 대부분은 중국에서 활동 중인



윌리엄 커닝햄(1864-1936)

선교사들이었다. 이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상해로 가던 길에 한국에 온 커닝햄은 처음으로 한국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제일조선인대학살이 있었던 1923년 도쿄에 제일조선인교회를 설립하여 고통 받는 조선인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였다. 1924년 10월에 이원균이 한국에 파송되었고, 1931년 9월 성낙소 목사가 포교책임자로 파송되었으나 1933년 9월에 이인범에게 권한이 넘어갔다. 태평양전쟁직전(1941)까지 이어진 커닝햄 선교부의 후원으로 ‘조선선교회 기독교회’에 교회 17(19)개 [서울5, 인천4, 대구1, 마산1, 평북 구성2(3), 정주3(4), 신의주 1]와 사역자 13명이 있었다. 이들 중 서울 2곳에서만 채이스가 주도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에 합류하였다.

1935년 3월에 마이클 셸리(J. Michael Shelley) 가족이 최초의 선교사로 입국하였으나 그가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 선교사에게 답장형식으로 보낸 1963년 1월 23일자 서신에 의하면, 건강문제와 “커닝햄 선교부의 감독아래 허락된 부정직과 비 그리스도인 행위들로 인해서” 그해 10월 28일에 미국으로 돌아갔다. 셸리는 커닝햄 선교부의 잘못을 입증할만한 자료들을 서울과 도쿄에서 수집하여 미국으로 가져갔고, “커닝햄이 존 채이스의 이력에 깔아놓은 먹구름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또 셸리는 자신의 후원자들에게 한국으로 건너가기를 원하는 채이스를 후원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커닝햄은 1936년 존 채이스(John Chase) 가족의 한국입국 수개월 전에 소천하였다. 채이스는 1927년 3월부터 7년간 커닝햄의 요즈야선교부에서 사역하였으나 1934년 결별하고, 1936년 말부터 1955년 말까지 한국선교에 헌신하였다. 그가 한국을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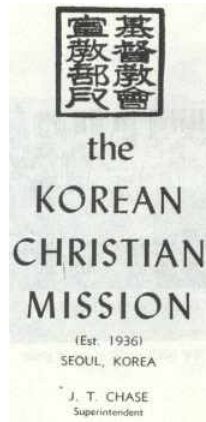
1935년 한국에 온 채이스 선교사 부부



성낙소 목사 (1890.5.16-1964.11.30)

2회의 선교지로 선택하게 된 데에는 성낙소와 마이클 셸리의 영향이 컸다. 성낙소는 커닝햄의 초청으로 1930년 5월부터 1931년 9월경까지 동경과 횡빈의 조선기독교교회들을 섬겼다. 이 기간은 커닝햄의 안식년이었으므로 커닝햄의 직무를 대리한 채이스와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을 수 있었다.

커닝햄이 소천하고, 채이스가 입국한 1936년부터 요츠야선교부의 조선기독교교회들을 시찰하기 위해서 동경에서 토마스 히치(Thomas G. Hitch)가 연 2회 정도 내한하였고, 1938년 2월부터는 가족과 함께 서울성서훈련원을 운영하였다. 1936년 채이스의 설교를 듣고 한국 선교사의 비전을 품었던 힐 요한 가족이 1939년에 한국에 도착했을 때, 토마스 히치 가족이 수개월 이내에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였고, 존 채이스 가족도 1940년에 안식년을 갖기 위해 미국으로 떠날 계획이었다. 채이스 선교사는 서울시 송월동에 설립한 기독교회선교부(Korean Christian Mission)와 교회들을 힐 요한에게 맡겨놓고 6월 1일 모금을 위해 미국으로 돌아갔다. 힐 요한은 1940년 가을학기에 채이스가 설립한 한국인성서훈련원을 개교하였으나 일제 말기의 발악적인 기독교탄압으로 인해서 수개월도 유지시키지 못한 채,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서울주재 미국 대사관의 권고를 받아들여 미국이 마련해준 배편으로 동년 11월 16일 다른 미국인들과 함께 철수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함으로써 미국이 태평양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에 휘말리게 되었다. 힐은 이 기간에 미시간, 웨스트버지니아, 인디애나에서 목회활동을 하였고, 미육군 군목으로 입대하여 19개월간 미국, 필리핀, 일본에서 복무하였다. 제대 후 입국비자를 기다리는 동안 버틀러대학교 신



학대학원에 입학하여 1947년 8월에 M.A. 학위를 받았다.



한국성서신학교 교수진: 장충부터 성석소 목사, 율요한 선교사, 최상현 목사(6.25동란 때 남북), 백낙중 목사(6.25동란 때 피살)

힐은 1949년 2월 18일 만 8년 3개월 만에 한국으로 되돌아왔고, 서울 연지동 자택에서 1949년 3월 15일 한국기독교성서신학교(Korean Christian Bible Seminary)를 개교한 후 필운동 교회로 옮겨 본격적으로 목회자 양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또 다시 불행하게도 이듬해인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갑작스런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일본으로 피난하였다. 9월 28일 서울

수복 후 11월에 한국에 돌아와 5주간 머무는 동안 서울 장충동의 임대건물에서 신학교를 개교하였으나 중공군의 전쟁개입으로 전쟁이 악화되어 그해 12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듬해인 1951년 3월 14일 서울수복 후 7월 3일 한국에 돌아온 힐 요한은 서울 송월동에서 1951년 8월 4일 전쟁고아들을 돌보는 크리스천 미션 고아원을 시작하였고, 인천, 대전 판암동 및 대구에 고아원 설립을 돕고 후원하였다. 1955년에 가정문제가 발생하여 한국을 떠났다가 제인 키넬트 선교사와 1956년 5월에 재혼하였고 1959년 8월에 부산을 통해서 재입국하여 대전에 정착하였다.

1955년 말에 일본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 부부가 입국하여 힐의 사역을 이어받았다. 그는 오자마자 새로 지은 신학교 건물을 포함해서 서대문구 송월동의 선교부 재산을 모두 팔았고, 그 때문에 현 서울기독교대학교 부지와 건물을 구입할 때까지 수년 동안 신학교 운영이 중단되는



테일러 선교사 부부

사태를 빚었다. 1955년 11월에 입국한 테일러가 수차례에 걸쳐 미국에 보고한 1955년까지의 한국교회 현황을 보면 교회가 75개로 나타나 있다.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는 불행히도 초기선교에서, 30여년의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기회나 결실을 얻지 못하였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20-40년대에 커닝햄 선교부에서 파송된 이원균, 이인범 등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나 열정이 없었던 인물들로서, 비록 그들이 17개의 교회들과 30개 이상의 선교기지들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들과 그들이 세운 교회들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에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못하였다.

둘째, 1935년에 입국한 마이클 쉘리 가족의 사역이 8개월, 1936년에 입국한 존 채이스 가족과 토마스 히치 가족의 사역이 각각 4년을 넘기지 못하였다. 이 시기는 세계가 제1차 세계대전(1914-18) 직후 찾아온 경제대공황(1929-33)을 겪은 직후였고, 일본이 만주침략(1931)을 시작으로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1937-45)을 도발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1939-45)이 치러졌던 어려웠던 시기였다. 국내적으로는 이러한 전쟁을 치르기 위한 물자수탈, 강제동원, 일본 천황(가미사마)을 향해 절하는 동방요배와 신사참배 강요가 극에 달하여 각 교단의 총회에서 신사참배결의가 통과되던 때였으며(1938-39), 창씨개명과 일본 어사용(1940-45)이 강요되던 어려운 시기였다.

셋째, 1939년에 입국한 힐 요한 가족은 일 년밖에 머물지 못하고 태평양전쟁으로 인해서 1940년에 한국을 떠나야 했으며, 1949년이 돼서야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1년을 갓 넘긴 1950년에 6.25전쟁이 일어났고, 1951년부터는 교회와 신학교 일 못지않게 전쟁고아들을 돌보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했다. 힐 요한은 1953년에 안식년으로 미국에 들어갔다가 1954년 여름에 돌아왔고, 송월동 선교부 옆에 추가로 매입한 땅에 폴 잉그람이 미군의 도움으로 3층짜리 신학교 건물을 세웠으나 가정문제로 1955년 7월에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해롤드 테

일러가 이전할 곳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채이스가 마련한 선교부 건물과 폴 잉그람이 새로 지은 3층 신학교 건물을 팔아버림으로써 수년간 목회자가 배출되지 못하였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 커닝햄 선교부에서 파송된 조선포교 책임자들의 신약교회정신의 결여, 일제말기에 벌어진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제2차 세계대전, 국내에서의 몰자수탈과 강제동원, 동방요배와 신사참배 및 창씨개명과 일본어사용의 강제, 이어진 6.25전쟁에 더해져 언어와 문화충격과 같은 제약들로 인해서 초기 선교사들의 활동이 매우 짧고 불안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낙소, 동석기, 강명석, 최상현, 김은석, 함태영, 이신, 최요한과 같은 초기 내국인 목회자들의 분투와 헌신으로 <한국 종교사>(김득중)에 의하면, 1943년에 6개(교역자 6명, 교인 909명)에 불과하던 것이,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291쪽에 의하면, 1950년 말에 42개로, 또 태일러 선교사가 수차례에 걸쳐 미국에 보고한 기록에 의하면, 1955년까지 75개로 발전할 수 있었다.

## 2. 1950년대의 김은석 목사



김은석 목사  
(1902.05.14음력-1963.01.21)

전술한바와 같이 1955년에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75개였다.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가 324쪽에서 인용한 <기독교 연감(1957)>에 의하면, 1956년 충청이남지역인 충북에 13개, 충남에 6개, 전남에 17개, 총 36개의 교회가 있었다. 힐 요한은 1972년에 쓴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 약사”에서 1949년 필운동교회에서 수업이 이뤄진 한국기독교성서신학교의 학생이 70여명에 이르렀고, 이후에



교회들이 “우이  
동, 김포, 미아  
리, 신탄진, 부  
강, 심지어는 광  
주, 목포, 부산에  
까지 세워졌다.  
김은석 목사는  
나중에 세워진  
이들 교회들 가  
운데 상당수를

세우는데 공헌하였고, 미 공군 군목, 할 마틴을 통해서도 교육과 계몽이 상당히 이루어졌다.”고 회고하였다. 이는 김포(최춘선, 1950년대), 신탄진(정찬성, 1948), 부강(김은석, 1946), 광주(최요한, 1948; 함태영, 1951), 목포(최요한, 1957)에 세워진 교회들이 김은석의 공헌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김은석이 미국 공군 군종 할 마틴(Hal Martin)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알게 되었다는 증언이 있으나 가능성이 낮다.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는 “김은석 목사와 충청 이남의 자생적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324-5쪽의 글에서 1946년부터 63년 1월까지 17년간 이뤄진 김은석의 활동의 산물로써 충청이남지역의 교회들이, <기독교 연감(1965)>을 인용하여, “1964년 충북에 16개 교회, 충남에 19개 교회, 소계 35개 교회, 전남에 24개 교회, 전북에 1개 교회, 소계 25개 교회, 도합 60개 교회”였다고 적고 있다. 1956년에 36개였던 것이, 할 요한에 의해서 대전시 서구 가장동 21-5번지에 최초의 한국성서신학교 교사가 지어지던 1964년까지 만 8년 만에 24개가 더 늘어나 60개가 되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20년 후, 김찬영에 의해서 한국성서신학교가 한성신학교로 개편된 지 만 4년이 지나고, 협의회와 총회로 나뉘지기 만 5년 전인 1985년에 발행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 교역자 수첩>을 인용하여, “충북에 31개 교회, 충남에 38개 교회, 소계 69개 교회, 전남에 58개 교

회, 전북에 13개 교회, 소계 71개 교회, 도합 140개 교회”였다고 적고 있다. 20년 만에 충청이남지역에서만 80개가 더 늘어난 숫자이다. 이 괄목할만한 발전은, 다수의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교적을 타 교단으로 옮겨간 점을 고려해 볼 때, 실제로 세워진 교회들은 이보다 월등하게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충청이남지역에서 이뤄진 괄목할만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발전은 1946년에 환원하여 1963년 1월 21일 소천 때까지 17년을 섬긴 김은석의 공로가 가장 크다. 여러 증언과 정황으로 볼 때, 김은석이 김교인 장로의 초청으로 부강 오테골 장로교회로 부임한 것은 해방직후인 1945년 가을이었다. 김은석은 부임하자마자 100일 집회를 개최하였고, 이때 성령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으며, 노회의 자제하라는 권고를 무시함으로써 제명되었다. 1801년 미국 켄터키 주 케인 리지(Cane Ridge)에서 대부흥회를 주도하였다가 노회로부터 제명당하여 1804년에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한 장로교 목사 발톤 스톤에게 닥친 동일한 상황이 한국의 발톤 스톤이라 부를 수 있는 김은석에게 닥친 것이었다. 박점상 목사의 증언에 따르면, 1946년에 김은석은 박점상과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여, 동년에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를 시작하였다. 이때로부터



▲ 초창기 부강그리스도의 교회

한국 사도 바울 김은석은, 마치 바울이 주후 46년부터 63년까지 선교여행을 통해서 키프로스, 터키, 그리스,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세운 후 장로를 택하여 목회자로 삼은 것처럼, 1946년

부터 63년까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와 한국성서신학교에서 제자들을 양육하여 파송함으로써 충청이남지역에 수많은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하였다. 이 점에 있어서 신화신학 성



경연구회는 충청이남지역 최초의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요람이요, 이동 신학교였다.

### 1) 신화신학 성경연구회



김은석 목사(우), 박점상 목사(좌)

박점상 목사에 의하면, 1946년에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가 시작되었다. 김은석은 부강에서 병원을 개업한 신현창 장로와 더불어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를 개설하였다. 박점상은 1946년에 김은석과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였지만, 이듬해인

1947년에야 부강으로 내려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일하면서 부강교회 건축에 힘을 쏟았다고 한다. 정찬성 목사는 1946년에 공부한 신화신학 성경연구회 제1기생으로 알려져 있다.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310쪽에 실린 “신화신학과 제자 양육”에 의하면,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는 처음에 ‘경천학’이라 불렀다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의 장이라는 의미”로 신화신학으로 개명하였다. 김은석이 ‘경천’이란 용어를 즐겨 사용했을 것이란 생각이 드는 것은 그가 10여년 후인 1957년 8월 26일(월)자 성서통독메모에서 “바울이 경천애인 생활한 것을 보고” 자신이 실천한 경천애인의 삶의 고달픔을 위로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에 최춘선, 김영원, 김영숙, 이종만, 설하운, 테일러, 박은병이 집에 왔고, 김은영, 최근수, 이신, 김윤구, 김영애, 고광석, 임은년이 다녀갔는데, 이들 동료들을 접대해야 했던 사모 김완례의 불만이 여간 크지 않았다. 이 딱한 사정에 대

해서 김은석은 고린도전서를 읽던 중에 “내가 크게 각성을 가지게 된 것은 4장 9절과 4장 11절 이하 바울이 경천애인 생활한 것을 보고 위안 받음. 지금 날마다 집에 당함은 생활난입니다.”라고 적었다.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초기에 공부했던 목회자들은 정찬성, 장주열, 김명석, 김재순, 최요한, 김상호, 구광서, 박점상, 김정만, 창현 함태영, 김동열, 이원노 등이었다. 10여년이 지난 1955년 4월 12일(화)자 성서통독메모에 의하면, 소수교회당에서 진행된 백일성경연구집회에 참석하여 당일 4시까지 공부한 사람들 중에는 “유경희, 곡봉예, 전도희, 최옥순, 이혜순, 정희순, 김옥희”(이상 여자), “이원노, 박장봉, 차대훈, 나연찬, 김명석, 김웅석”(이상 남자)이었다. 김은석의 성서통독메모에 의하면, 성경연구집회들에 참석한 인원이 평일 10-20명, 주말 수십여 명에 달했다.

이밖에 김교인 장로의 아들 김태수, 김철수, 김명석의 아들이자, 김은석의 양아들 김성철 등이 부강교회 출신이자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공부한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들이며, 이신(이만수)도 6.25때 광주에서 김은석의 설교를 듣고 감리교회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한 목회자였다. 이처럼 수많은 인재들이 김은석의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여 목회자와 교회개척자로서 고난의 길을 걸었다.

## 2)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은 백일성경연구집회였다. 김은석은 기회와 시간이 주어지면, 일일, 열흘, 한 달 혹은 한 달 반 등 제한 없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백일집회를 선호하였다. 그가 1945년 가을에 부강 오데골 장로교회에 부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백일집회였다. 이런 집회가 일 년에도 몇 차례씩 진행되었기 때문에 김은석은 일 년의 대부분을 집을 떠나

타지에서 동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가족을 거의 돌보지 못했다.

김은석의 성서통독메모(1953-58)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1)1953년 8월초 전남 강진군 금동면 연화동 그리스도의 교회 집회소에서 연합성경사경회를 9월 15일까지 개최하다.

(2)1954년 6월 14일부터 전남 목포시 죽교동 391번지 2통 4반 해병대 앞 유달 교회당에 ‘그리스도의 교회 성경연구처’라는 간판붙이고 백일성경연구집회 인도하다.(유달 교회는 최요한이 1953년 4월 8일 광주에서 개최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창립총회 무렵에 이적하여 세운 순복음교회였다.)

(3)1955년 2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충북 괴산군 소수면 수리 교회에서 백일성경연구집회 인도하다.

(4)1월 1일부터 3월말까지 공부하는 기간에 봉독함. (이것은 1957년 3월 6일 수요일 메모로써 1957년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 교회에서 백일성경연구집회를 인도하고 있다는 뜻이다.)

(5)1957년 8월 31일(토) 아침은 또한 목포성경연구소에서 7:5-8장까지 봉독함... 김재순, 임남규, 이신, 김은석 4인이 결의 부강서 9월 17일부터 성경공부 시작하기로 함.” (최요한은 8월과 9월에 이 목포에서 속개된 성경연구집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복귀키로 마음을 확정하고 목포시 대안동 11번지 자택에서 9월말부터 기도회 모임을 시작하여 10월 1일에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담임하던 목포 복음교회는 10월 5일 정식으로 사임하였다.)

이밖에도 1955년 10월 15일부터 전남 함평읍 함평면 석성리 신생동 교회당에서 연말까지 성경공부가 있었다. 김규상 목사의 증언에 의하면, 1951년경 영광에서 100일 집회가 개최되었다.

김은석 목사는 1958년 5월 5일에 집중강의 일정을 학생들에게 통보하고 있는데, 이 통보를 받은 이들 가운데는 지철희(충남 금산군 추부면 성당리 뽕엘교회), 김교인(전 부강 그리스도



김은석 목사의 성경책은 1920-30년대에 출판된 조선어와 한문이 혼합된 선한문주 성경책으로써 너털너털해져서 김은석 목사가 손수 수차례 계본을 다시 하였는데, 책의 앞뒤 페이지들은 떨어져 나가고 없고, 신약 성경을 흡기화 시편 사이에 끼어 넣었으며, 메모를 위해서 간지들을 책들 사이에 끼어 넣고 꿰매어 성경의 일부처럼 만들었으며, 많은 낙서들을 남겨놓았다.

의 교회 장로), 임춘봉(한국성서신학교 교수, 교가작사자), 김용순(신탄진교회), 설하운(부평보육원 원장 및 부평 그리스도의 교회), 최요열(최요한의 동생, 전 한국성서신학교 교수, 조동호의

소년시절 담임목사), 장주열(최요한의 큰 동서), 최춘선(김포교회, 사회사업가. 소천 전 30년을 맨발로 거리와 지하철에서 전도), 이종만(인천고아원), 김명석(김성철의 친부), 이신(미국 밴더빌트대 신학박사), 김정만(정찬성과 김은석의 제자), 김태수(김교인의 아들), 김동열(광주 그리스도님의 교회), 강순명(광주 천혜경로원) 등이었으며, 총 65명이었다. 또 1958년 7월 10일부터 소년성경학이 개설된다는 것과 8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성경공부가 있다는 통신을 총 54명과 6곳의 교회에 보내고 있다.

두 번째 특징은 이동 신학교였다. 김은석은 자신의 동료들과 더불어 해마다 지역을 바꿔가면서 성경연구집회를 개최하였다. 집회 장소들로는 부강, 광주, 목포, 해남, 함평, 부여, 오창, 괴산, 충주, 대구 등지였다.

(1)6.25전쟁 중이던 1951년에는 광주에서 있었다. 이때 교수는 김은석, 이신, 창현 함태영 등이었다.

(2)1952년에 광주에서 운영되던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를 이신이 시무하던 부여 합송리 그리스도의 교회로 옮겼다. 합송은 이

홍식이 1950년 3월 19일 개척하였고, 정찬성이 1951년 5월 15일 제1대 목회자로 부임하여 10월까지 시무하였다.

(3)1953년 8월초에서 9월 15일까지 개최된 연합성경사경회는 전남 강진군 금동면 연화동 집회소에서 열렸다.

(4)1954년 5월 25일에 백호리 교회에서... 공부하였다. (이 메모는 전남 해남군에서 성경연구집회가 열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5)1954년 6월 1일(화)부터 10(목)일까지 대구 동인동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김은석은 10일간 부흥회를 인도하였다.

(6)1954년 6월 14일부터는 '그리스도의 교회 성경연구처'라는 간판붙이고 최요한 목사가 시무하던 목포 유달 순복음교회에서 백일성경연구집회가 운영되었다.

(7)1955년 2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개최된 백일성경연구 집회는 충북 괴산군 소수면 수리교회에서 인도되었다.

(8)1955년 10월 15일부터 1956년 1월까지 전남 함평읍 함평면 석성리 신생동 교회당과 청학동 교회당에서 백일성경연구 집회가 있었다.

(9)1957년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와 9월 17일부터 시작된 백일성경연구집회는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교회에서 인도되었다.

세 번째 특징은 성서통독강의였다. 김은석의 성서통독메모 (1953-58)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1)1954년 4월 21일(수)... 모여든 여러분과 같이 사도행전 5-6장 공부함.

(2)1954년 4월 23일(금)... 저녁에 부강교회에서 여러 곳에서 공부 오신 분들과 같이 돌려 봉독하여 사도행전 8장 공부함.

(3)1954년 4월 30일(금)... 명(明) 5월 1일부터는 에스겔을 공부하기로 함.

(4)1955년 4월 16일(토)... 충북 괴산군 소수면 수리교회에서 2월 25일부터 시작한 백일집회에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는바 4월 16일은 수십 명이 공부하였다.

(5) 1955년 5월 19일(목)자 메모에 의하면, 2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충북 괴산군 소수면 수리교회에서 진행된 백일성경연구집회에서는 로마서를 공부하였다.

(6) 1955년 5월 24일(화)부터 26일(목)까지 남녀 16-18명이 모여 출애굽기를 공부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김은석의 학업방식은 성서통독강의였다. 백일성경연구와 집중공부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김은석은 1955년 5월 19일(목)자 메모에서 “금(今)번 이 공부 중에는 천신만고에 난관이 있었다.”고 적고 있고, 동년 10월 20일(목)자 메모에서는 “의외(意外)에 이 신생동에 성경 공부한다는 시작이 되어 일기가 치귀서(차가서) 고생이다.”고 하였다. 신생동이란 전남 함평읍 함평면 석성리 신생동을 말하며, 12월 16일(금)자 메모에서는 “금일 아침은 크게 추웠음(今朝는 大寒이 되엿슴).”이라고 적었다. 김은석과 그의 동료들이 겪었던 고충은 대개가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 또는 가족을 돌보지 못한데서 오는 가족들의 불만이였다.

네 번째 특징은 성령 충만이였다. 김은석이 1945년 가을에 부강 오데골 장로교회에 부임하자마자 100일 집회를 개최하여 성령님의 역사를 크게 일으킨 것을 문제 삼아 노회로부터 제명된 것에서 보듯이 김은석 사역의 특징은 성령 충만이였다.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307쪽에 의하면, “그 당시 함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구봉례 집사, 김규상(목사), 김교인 장로, 윤정렬 사모, 김철수(목사), 오연우 장로, 전도희 집사, 황 집사, 김복수 집사와 그의 딸 김은영, 박오덕, 장 집사, 전도 부인 민명옥 등 70여 명으로 추산된다.”고 하였다. 이들 가운데 김철수, 김복수는 김교인 장로의 자녀들이고, 구봉례 집사는 김규상의 모친이다. 여기서만 목회자가 세 사람이 나왔는데,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김규상 목사, 김철수 목사, 전도희 전도사이다. 김교인 장로의 또 다른 두 아들인 김재순과 김태수도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가 되었다.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에 의하면, 김은석이 인도하

는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된 사람들이 장주열과 최요한이다(315쪽). 김규상은 1951년경 영광에서 개최된 100일 집회에 참석하여 김동열과 함께 큰 은혜를 받고, 동년에 16살의 나이로 충곡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임하였다고 한다(320-321쪽). 이신도 감리교신학교를 마치고 1950년에 전의 감리교회에서 목회하다가 6.25전쟁 때 피난생활을 하던 중 1951년 김은석이 인도하는 광주집회에 참석하여 김은석의 성령 역사에 크게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였다(322쪽).

다섯 번째 특징은 전도실습이었다. 1955년에 충북 괴산군 소수면 수리교회에서 개최된 백일성경연구집회 때인 5월의 성서통독메모를 보면, 24일(화)부터 26일(목)까지 남녀 16-18명이 모여 출애굽기를 공부하였고, 27일 금요일에는 동리에 나가서 축호전도를 하였다. 1957년 9월 6일 금요일에는 몇몇 전도자들을 각기 다른 지역교회로 집회하게한 후에 본인도 하이도행 의령호를 타고 석양(夕陽)에 무안군 하의면 하태에서 개척하는 임혜숙 전도사를 위로 방문하여 주일까지 그곳에 머물면서 함께 심방하고 전도하였다.

### 3)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1902.05.14-1963.01.21)

김은석은 황해도 평산군 당구리(속칭 붉은 바위 마을)에서 1902년 5월 14일(음력)에 태어났으며, 1963년 1월 20일 충곡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주일 저녁 집회를 인도하고, 밤 10시가 넘어서 찢고구마와 날고구마를 먹고 탈장이 되었다. 소천하기 3년 전에 위 수술을 받았던 터라 그게 원인이 되어 복통을 일으켜 앓다가 다음 날 월요일(21일)에 충남 논산군 부적면 충곡 2구 최봉석 장로댁(고 명달재 목사 장인)에서 소천하여 충곡 2구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최봉석은 김성철에게 김은석 목사의 유언과 유품을 전하였다. 김은석은 양아들 김성철이 대를 이어

꼭 목사가 되길 바랐다. 그가 그에게 남긴 것은 헐렁한 가방 하나였는데, 그 초라하고 낡은 가방 속에는 구리돈, 납 돈 몇 푼과 가방만큼이나 낡은 성경책 한 권만이 달랑 들어 있었다. 그 성경이 46년 만에 김성철 목사



김은석 목사의 성경책과 가방

로부터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에 맡겨졌으나 연구소가 각고 끝에 펴낸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를 읽은 김은석의 양녀 김명순의 후손이 찾아와 가져가 버렸다.

김은석 목사는 함께 찍은 사진으로 볼 때, 박점상 목사보다는 작고, 심영진 목사보다는 키가 컸다. 몸도 가날 퍼서 체중이 그다지 많이 나가 보이지 않았으므로 키 170센티미터 이상에 체중 70킬로그램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뒷줄: 양녀 김명순, 양자 김성철(목사)  
앞줄: 김은석 목사, 양녀 김순희, 김완례 사모

김성철 목사의 자서전, <삶이란, 감사하면 그것으로 O.K다>에 의하면, 김은석은 6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나 16살 때 자기보다 다섯 살이나 많은 여인에게 장가를 들었으나 우울증을 앓던 가운데 살림

집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집이 몰락해 중국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신학공부를 하였고, 재혼하여 아들까지 얻었으나 아들이 세 살 때 죽고, 연이어 부인도 죽었다.

김은석은 일본으로 건너가 전도인의 삶을 살았다. 박점상에



의하면, 그의 일본 이름은 간다긴세기 신전 은석이었고, 별명은 합바지(무명바지) 조사(전도사)였으며, 시모노새끼(하관), 아사(김성철의 친부 김명석 거주), 덕산(박점상 거주), 동경지방 등 전국을 돌며 복음을 전하였다. 일본에서 만나 세 번째로 재혼한 사모 김완례(재혼)는 경성신학교를 나와 일본에서 전도부인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교우들이 접대로 떠준 얼음물을 마시고 냉병에 걸려, 자녀를 갖지 못하였다.

김은석은 해방직전에 한국에서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급전을 받고 귀국하여 전도생활에 전념하면서 서울 역전의 빨간 색 벽돌(세브란스) 빌딩을 빌려 ‘백만 귀환동포 영접위원회’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큰 술을 걸고 교회에서 쌀을 공급받아 오가는 사람을 먹이고 재우면서 귀환 동포들의 뒷바라지를 하였다. 당시에는 여관도 없던 때라 일본 중국으로부터 밀려오는 귀환 동포들의 수용소 역할을 하였다. 강신명 목사, 한경직 목사도 그때 함께 활동하였다. 또 구국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애국활동을 하였다.

#### 4) 신약성서교회들의 개척자

김은석의 충실한 동료들은 목사 이신(13회), 김재순(24회), 전도사 김명석(26회), 김은영(22회), 고광석(12회), 임남규(10회), 전도회(23회), 자매 강신규(26회), 이혜순(9회), 김숙명(12회), 박종예 등이었다. 이들은 김은석의 동료들일 뿐 아니라, 순회여행을 함께한 동행자들이기도 하였다. 이름 옆의 가로 속 횡수는 김은석의 성서통독메모(1953-58)에서 이름이 적힌 빈도수이다. 이 성서통독메모에 적힌 목회자, 전도사, 장로, 집사, 성도들의 이름만 하여도 220여명이나 된다.

김은석이 개입한 교회들은 70여 곳에 이른다. 대부분이 그리스도의 교회들이지만, 타 교단의 교회들도 섞여 있다. 타 교단들의 교회 방문은 대개가 부흥회 인도 때문이었다. 김은석의 주

활동무대는 충청도와 전남이었다. 이곳에 그의 영향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많았다. 그가 ‘백일집중성경연구회’를 주도한 지역들도 이들 지역이었다. 김은석은 제자양육을 위해서 집을 떠나 이들 지역들에 장기간 머물렀고, 특별한 일이 아니면 집엘 다녀오지 않았다. 김은석은 이들 기간에 지역교회들을 순방하며 부흥회를 인도하였고, 인근에 가정교회들을 세웠으며, 목회자를 임명하여 세웠다.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키워 임명하는 것은 사도 바울 선교의 특징적인 활동이었다. 김은석 목사는 바울과 동일한 수고를 남녀 동료들과 함께 수행하였다. 김은석이 성경에 삽입시킨 주소록에 적힌 교회들로는 경기 2, 경남 3, 경북 4, 서울 7, 전남 29(30), 충남 10, 충북 14, 장소 미확인 2, 도합 72곳이었다. 이 가운데 타 교단이 6곳 정도였다.

- 경기도 서정리(평택) 교회
- 경기도 수원시 세류동 1구 1통 30반 천막교회(\*이곳이 혹시 1952년 10월 3일 개척된 신갈 그리스도의 교회일는지 모른다.)
- 경남 진주 칠암동 318 교회(김은석 목사 동생 김경원 목사 시무)
- 경남 통영군 도산면 도선리 1구 그리스도의 교회
- 경남 함양군 안의면 안의 교회
- 경북 금릉군(김천시) 개령면 대광동 2구 대보 그리스도의 교회(장성우 목사 장모 김묘암 권사 설립)
- 경북 대구 신천동 그리스도의 교회
- 경북 대구시 동인동 교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명포교회
- 서울 마포구 아현동 교회
- 서울 이태원 순복음교회(최요열 목사)
- 서울시 도원동 교회
-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54번지 70호 성결교회
- 서울시 서대문구 평동 16의 23호 그리스도의 교회 (교역자회)
- 서울시 성동구 청량리 그리스도의 교회 (교역자회)
- 서울시 중구 도동 2가 5번 그리스도의회 대한 감리회 감남교회
- 양동교회(?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 전남 강진군 군동면 삼신리 연화동 교회
- 전남 강진군 작천면 작천 교회
- 전남 강진읍 기룡리 용동 교회

전남 광주 남구 사동 22번지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광주시 광산동 80번지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광주시 금동 46번지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목포 유달순복음교회 (최요한 목사, 그리스도의 교회 성경연구처가 이 교회당에 있었음)  
 전남 목포시 죽교동 사구 동 399번지 교회  
 전남 무안군 지도면 대조리 성결교회 (김완례 사모의 질녀 내외 시무)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 교회  
 전남 순천 오순절교회  
 전남 영광읍 교회  
 전남 영광읍 도동리 교회  
 전남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 교회  
 전남 함평군 손불면 궁산리 신흥부락 교회  
 전남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 신생동교회  
 전남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 청학동 그리스도인 집회소  
 전남 해남군 송지면 매화리 교회  
 전남 해남군 백호리 교회  
 전남 해남군 옥천면 교회  
 전남 해남군 옥천면 도림리 김응임 노부인 댁 교회  
 전남 해남군 옥천면 동리 윤철호씨 댁 동리교회  
 전남 해남군 옥천면 신죽리 교회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교회  
 전남 해남군 옥천면 팔산리 화랑교회  
 전남 해남군 옥천면 팔산리 황당 교회  
 전남 해남군 옥천면 화당 교회  
 전남 해남군 현산면 고현리 최정택 형제 예배처소  
 전남 해남군 화산면 방축리 교회  
 충남 논산군 부적면 충곡리 교회  
 충남 대전 선화동 2구 315번지 그리스도의 교회  
 충남 대전시 반암동 교회  
 충남 대전시 신탄진 교회 석봉리 집회소  
 충남 대전시 판암동 교회,  
 충남 부여군 규암면 노하리 교회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송리 교회(현 교역자회)  
 충남 연기군 동면 갈산교회  
 충남 연기군 동면 갈산리 칠미부락 교회  
 충남 연기군 동면 월산동 활골 교회  
 충북 괴산군 불정면 외령리 외령 교회

충북 괴산군 소수면 소수면 수리 교회  
 충북 증원군(충주시) 신이면 화석리 방축골 교회  
 충북 청원군 강서면 문암 교회  
 충북 청원군 남일면 방서리 교회  
 충북 청원군 남일면 황청리 교회,  
 충북 청원군 남일면 황청리 정유순 자매 집 교회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 교회  
 충북 청원군 북이면 송정 교회  
 충북 청원군 북이면 송정리 새테말 교회  
 충북 청원군 오창면 가좌리 교회  
 충북 청주시 영운동 교회  
 충북 충주시 동양면 조동리 교회  
 충북 충주군 소태면 북탄리 교회  
 형성 교회  
 화동 교회



김은석은 자신이 직접 1946년에 부강교회(충북 청원군 부용면)와 1951년 늦은 가을에 선화교회(대전시 선화동 2구 315번)를 설립하고 건축하였다. 김은석은 힐 요한이

1959년부터 대전에 정착하는 것을 도왔을 뿐 아니라, 동년 12월 1일 심영진 목사가 시무하던 대전 도마리 성화교회에서 시작한 한국성서신학교의 교수로 섬겼다. 이때의 교수진은 힐 요한 부부, 김은석, 심영진, 김태수(통역)였고, 이듬해인 1960년에 부산에서 이신이 교수진에 합류하면서 학교를 자신이 세운 선화교회로 옮겼다. 대전시 서구 가장동 21-5번지 캠퍼스부지에 건물이 들어서기까지 수업이 이곳에서 이뤄졌다.

## 5) 김은석의 박애정신

김은석의 박애(博愛) 정신을 볼 수 있는 사례들은 많다. 그의 성서통독메모들(1953-58)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 특히 교회와 전도자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경비를 써가며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첫째, 김은석은 1957년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부모 잃은 고아들을 보육원에 위탁하기 위해서 이종만 목사가 운영하던 인천시 학익동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을 오양균, 김규제, 김규성 세 아이들을 데리고 방문하고 있다. 3월 23일 토요일 아침에 수원 동생네 집에 들러 아이들에게 아침을 먹인 후 오후에 인천에 도착하였다. 이런 일이 아닐지라도 김은석은 수시로 충남 부여군 합송리 구애보육원, 판암동 애생원, 인천 학익동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 인천시 부평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 청주시 영운동 박인회 양로원 등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성경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였다.

둘째, 김은석은 1955년 7월 29일 금요일 아침에 충북 청주 예배당 구입 문제로 이한상 형제의 부탁을 받고 서울 선교부에 올라가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 일을 하루에 처리하지 못해서 오던 길 밤에 천안의 황해여인숙에서 하루 밤을 묵어야 했다.

셋째, 김은석은 1956년 7월 10일 화요일 새벽 2시경에 대전 은행동 자택에서 성경 요한복음을 봉독한 후에 새벽 4시 31분 발 서울행 제6열 급행열차를 타고 선교부에 갔다. 선교부 방문의 목적은 김명석 전도사 사모에게 급하게 도와야 할 일이 생겨서 도와줄 방도를 찾기 위해서였다. 이뿐만 아니라, 가좌교회의 일과 또 다른 일들도 함께 의논하기 위해서였다. 1955년 12월 27일자 메모에서 김은석은 가좌교회를 “핍박이 심한 개척이다.”라고 적고 있다. 따라서 김은석은 가좌교회에서 힘겹게 분투하는 전도회 전도사를 자주 위로 방문하였고, 동료들을 불러 모아 그곳에서 성경연구집회를 갖곤 하였다. 또 김은석은 1957

년 9월 6일 금요일에 몇몇 전도자들을 각기 다른 지역교회로 집회하게한 후에 본인은 하이도행 외령호를 타고 석양(夕陽)에 무안군 하의면 하태에서 개척하는 임혜숙 전도사를 위로 방문하여 주일까지 그곳에 머물면서 함께 심방하고 전도하였다. 월요일 그곳을 떠날 때 느낀 점을 이렇게 적었다. “오늘 하의에서 떠날 때 임혜숙 자매에 외로와함 보면서 동정심이 심하였다.” 주의 일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주의 일군들, 특히 여성사역자들의 노고에 대해서 김은석은 깊은 동정심을 가졌던 것 같다. 공부할 때나 전도할 때나 항상 그의 곁에는 남성 동료들과 제자들에 못지않게 헌신적인 많은 여성 동료들과 제자들이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넷째, 김은석은 병석에 누운 동료들을 찾아 위문하는 일도 잊지 않았다. 1955년 8월 16일자에는 병원에 입원한 고광석 전도사와 판암동 애생원을 김옥여, 이원노, 강신규, 김완례 사모 등과 함께 위로 방문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김은석은 자주 병이 나는 사모 김완례의 병간호에도 힘쓰고 있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볼 수 있다.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아도 김은석은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일을 잊지 않았던 것이다.

## 6) 김은석의 하나님과의 관계

김은석은 ‘하나님’이란 단어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창세기에 실린 ‘하나님’이란 단어에 일일이 체크를 해놓고 그 사용빈도수를 209회로 체크했던 그는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이란 단어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사용빈도수를 112회로 체크하였고(성경 66권 전체에 쓰인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란 단어에 동그라미 마크를 해놓았다), 총 1134절로 되어 있음을 적고 있다. 이는 그의 생각이 온통 하나님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김은석은 등불과 관련된 생각이 많았다. 등불은 말씀(계시)의 불,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을 상징할 수 있다. 출애굽기 27장 21절에서 “燈天恒常(등천항상)”, 즉 ‘하나님 앞에 항상 등불을 밝힘’이라 적고 있고, 헌금관련 성구를 적은 메모지 옆에 열왕기하 8장 19절을 근거하여 “恒常一燈(항상일등) 주심,” 즉 ‘항상한 등불을 주심’이라고 적고 있다. 또 출애굽기 29장 39절에서는 “朝夕(조석)으로 獻燈(헌등),” 즉 ‘아침저녁으로 등불을 밝힘’이라고 적고 있다. 이는 그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얼마나 희구(希求)하며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김은석의 성서통독에는 한 가지 특이한 원칙이 있다. 구약과 신약을 함께 읽을 때에는 구약의 책은 장(章)의 순서대로 읽고, 신약의 책은 장(章)의 역순으로 끝장에서 시작하여 첫 장을 향해서 읽곤 하였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구약과 신약을 함께 읽을 때에는 언제나 이 원칙을 취하고 있다.

김은석은 가정보다는 교회와 복음전도에 최우선순위를 두었다. 예를 들어, 그는 출애굽기를 통독했던 1955년 1-2월 중에서 대전 자택에 머문 날은 단 하룻밤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광주 집회소(김재순)에 있다가 대전 선화동교회로 바로 갔고, 다시 경북 금릉군(김천시) 대보교회(장성우 목사의 사모 김순옥의 모친 김묘암이 설립)를 거쳐 충북 괴산군 소수면의 수리교회(장천호)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6일을 머문 후에 대전의 집에 와서는 단 하루 밤만 지내고 다시 논산 충곡교회(안영찬)로 옮겨 가서 5일 이상을 그곳에서 머물다가 전남 영광으로 떠나 그곳에서 출애굽기 통독을 마치고 있다. 1954년 2월 2일에도 해남군에서 영산포행 차를 기다리는 중에 출애굽기 통독을 마치고 있고, 1956년 1월 19일에는 목포에서 출애굽기 통독을 마치고 있다. 출애굽기 통독을 마친 54, 55, 56, 57년의 시점이 모두 1-2월경이고, 57년만 부강교회이며, 나머지 세 번은 전남의 끝자락이어서 김은석 목사는 가정보다는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전도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던 분으로 여겨진다. 또 이런 남편과 아버지를 이해하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사모 김

완례와 양녀 명순, 양자 성철, 양녀 순희 자녀들의 희생은 김은석 목사에 못지않았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 7) 김은석의 성서통독과 전도활동

김은석은 성서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교회들과 성도들의 집에서 읽었고, 버스와 기차와 배 안에서 읽었으며, 대중식당에서도 읽었고, 기차역에서도 읽었으며, 병석에서도 그날 분량을 반드시 읽었다. 그는 “일 년 동안 매일 3장씩이면 1095장 봉독. 구약 939장, 신약 260장, 신구약 합계 1199장. 성경보감 311페이지 참고”라고 적고 있는데, 그는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성서를 읽었다. 김은석은 1953년부터 1958년까지 매 장마다 언제 어디서 어디를 읽었는지를 메모해 놓았다.

김은석 목사가 전도하는 날은 365일 매일이었다. “1955년 3월 3일 목요일 마음에 감화되어 전도하는바 매일 일인씩 할 작정”이라고 적고 이어서 한 페이지 촘촘하게 전도한 일자와 장소와 대상자의 성별, 이름, 나이를 적고 있다. 그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하였는가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가 남긴 성서의 한 페이지, 모세오경이 끝나는 신명기와 여호수아 사이의 빈 공간에 3월 3일부터 10월 말일까지 매일 일인 이상씩 전도하였다. 일일 단위로 전도한 사람의 이름과 나이를 빼곡히 적고 있다. 그는 심지어 주일에도 전도를 빼놓지 않았다. 한번 마음에 결정한 것을 실천에 옮기는데 그것을 끝까지 이루고 마는 김은석의 의지력과 실천력은 가히 놀랄만한 것이었다. 10월 26일자에 더 이상 글씨를 쓸 공간이 없어서 아주 작은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적고 있다. “26일부터 29일까지는 우연이 耳痛症(이통증)이 생겨서 外出不能(외출불능)으로 전도 못함.” 병이 들어 외출을 하지 못할 경우가 아니면, 비록 그날이 주일이든, 생일날이든, 추석 같은 무슨 특별한 날일지라도 전도를 빼놓지 않았다.





김은석 목사가 1955년에 전도한 사람들

김은석의 전도대상은 남녀노소 군인 경찰 교사부인 등,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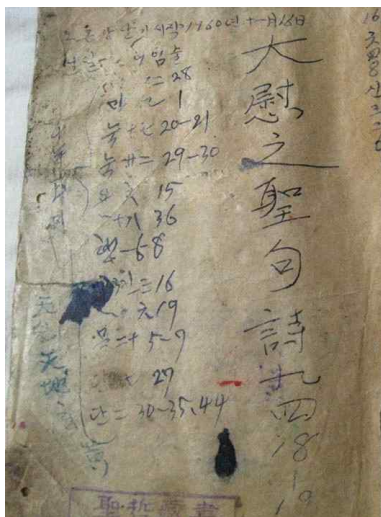
이 전혀 없었다. 4월 17일 주일날에는 “校先妻(학교 선생의 처) 一人게 전도”라고 적기도 하였다. 10월 22일 날에는 “목포 평화하숙 주인에게”라고 적고 있다.

김은석의 전도 장소는 부강, 대전, 연산, 소태, 충주, 서울, 강진, 상월, 목포 등 대한민국 구석구석이었다. 김은석은 이동이 잦았기 때문에 성서통독 때와 마찬가지로 버스와 기차를 이용하여 이동 중일 때에도 전도하였고, 출발지와 도착지에서도 전도하였다. 전도를 하지 못한 날은 “불전인” 혹은 “전불인”이라고 적고 있는데, 그 숫자가 일 년을 통틀어 몇 번 되지 않는다. 특히 8월 20일자에서는 “주님 앞에 죄송함. 금일은 불전인”이라고 적었다.

김은석의 교회순방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집회를 포함한 전도 활동과 성서강의였다. 그의 메모는 주로 성서를 어느 장소 누구의 집에서 몇 장까지를 읽었는가에 제한되기 때문에 어느 장소 어느 교회에 왜 갔었는지에 대해서는 혼인, 모친방문, 병석 등 특별한 경우들을 빼놓고서는 자세히 적어놓지 않았다. 그러나 “간다고만 하면 섭섭해 하니 답답함”이라고 적어놓은 것은 교회나 성도들이 그의 설교나 강의를 더 많이 듣지 못하는 데서 오는 서운함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에서는 항상 크고 작은 집회들이 열렸을 것으로 보인다. 목포교회 제2대 학생회장(1960년) 출신으로 1959년 12월 1일에 개교되어 54년 만인 2013년 8월 31일에 폐교된 한성신학교에서 가장 오랜 40여 년을 가르쳤던 최용호 교수와 전남 해남군 화산면 방축리 교회 출신인 사모 박정자의 증언에 의하면, 김은석 목사가 지방에 도착하면 그날로부터 일주일에서 열흘씩 밤낮없이 집회가 지속되었고, 매번의 집회마다 시간제한 없이 수 시간씩 사경회가 지속되었다.

## 8) 성서낙서를 통해서 본 김은석의 신학

김은석이 유품으로 남긴 성경책은 1920-30년대에 출판된 조선어와 한문이 혼합된 선한문(鮮漢文) 관주로써 너털너털해져서 김은석 목사가 손수 수차례 제본을 다시 하였는데, 책의 앞뒤페이지들은 떨어져 나가고 없고, 신약성서를 읍기와 시편 사이에 끼어 넣었으며, 메모를 위해서 간지들을 책들 사이에 끼어 넣고 꿰매어 성경의 일부처럼 만들었으며, 많은 낙서들을 남겨놓았다. 그의 성경책은 그의 손에서 떠난 지 46년 9개월여 만에 필자에게 전해져 필요한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의 성경책은 온통 낙서투성이다. 가죽커버를 열면, 첫 페이지에 ‘大慰之聖句詩 九四 18-19’라고 큰 글씨로 적혀 있다. 가장 크게 위로를 받는 성경말씀이 시편 94편 18-19절이란 뜻이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시편 150편 끝 여백에 남긴 메모에서 시편의 말

씀에서 받은 은혜를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1954년 7월 25일 주일에 본 시편 94편 9-150편까지 봉독하며 은혜 받음. 할렐루야! 성도의 노래 이 시편을 이와갓치 부족한 자 깃뿔으로 봉독함은 진실노 주님의 은혜로다.”

김은석 목사는 요한계시록을 자주 읽었다. 천년왕국에 관련된 성구를 적어놓은 것을 보면, 그가 전 천년설을 믿었던 것 같다. 전 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이뤄진다는 설로써 삶이 피곤하고 곤궁했던 시절에는 대부분이 전 천년설이 유행하였다.

헌금(왕하 12:14-15, 22:7)과 헌물(출 36:3-7)과 헌납물(대상 29:8-14)에 대한 성구도 적어두었다. 특히 헌금은 계수하지

않는다고 적어 놓았다. 이들 성구들을 통해서 볼 때, 김은석은 사례금에 대해서 정산하지 않았으며, 헌금과 헌물은 풍족하고 넘치게 하되,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할 것을 가르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 무렵 이와 비슷한 신념을 가졌던 목회자들이 교단 구별 없이 일부 있었는데, 궁핍해서 헌금조차 할 수 없었던 50년대의 일이었다. 그런데 교회와 경제가 동반 성장하던 1970-80년대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어서 교회에 부담을 준 사례들이 종종 있었다.

구약성서목록이 적힌 곳에 종(縱)으로 “1917년에 중국에서 느진비 성신이 임하여 참 예수교회 났타났쌌.”이라고 써놓고 있는데, 1917년은 김은석 목사가 첫 부인을 맞이했던 때이다. ‘참예수교회’란 1917년 중국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목표 아래 산둥성 출신의 장로교회 집사들이었던 안식일준수를 주장한 장빈, 침수세례를 주장한 은파, 방언은사를 주장한 장 바나바 세 사람이 창설한 ‘진야소교회’(True Jesus Church)를 두고 말한 것이다. 김은석이 참예수교회를 언제부터 알았는지, 참예수교회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또 얼마만큼의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참예수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와는 달리, 제칠 안식일(토요일) 준수와 방언 말함을 성령세례 받은 것으로 각별히 강조한다는 점을 빼나머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환원운동과 침례와 매주 성만찬에 있어서는 매우 유사하다(참고: <http://tjc.or.kr>). 특히 김은석이 성령의 은사에 관한 정통보수주의 견해와는 달리 성령체험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던 점에서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주장하는 참예수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김은석이 제칠 안식일 준수를 주장했거나 그날을 지켜 예배를 드렸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그가 남긴 성서통독메모들은 그가 주일을 철저히 지켰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은석은 교황의 호칭인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Vicarius Filii Dei)를 666으로 믿으면서 천주교가 “십계명을 꺾은 사실.

요리강령 28페이지에 참고,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한 것. 364년 7월에 나오데게아 총회에서 선언함, 천주교 대요리 문답 제2편 81-83페이지 참고, 개신교에서도 1554년 일요일을 안식일로 변함. 넷째 계명이 인침 맞는 것이다.”고 적은 것을 보면, 잠시나마 참예수교회의 안식일준수 주장에 공감했거나 그 쪽의 주장을 참고할 자료로 적어놓은 것으로 판단된다.

김은석의 강의내용 속에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관련된 침례와 매주일 주의 만찬뿐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와 교회명칭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있었다.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의 간지에 교회의 명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의미 있는 메모를 남겨놓고 있다.

교회명칭을 명시함

- (1)광야교회라. 이는 구약시대(행 7:38)
- (2)하나님의 교회라(행 20:28, 고전 1:2, 갈1:13, 고후 1:1)
- (3)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라(마 16:18)
- (4)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라(롬 16:16,
- (5)하나님 교회라(고전 11:16)
- (6)모든 성도의 교회(고전 14:33)
- (7)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딤후 3:15)

이후에 나타난 교회말고도 만코만치만 이외는 지명을 따라 말한 것과 또 장소명에 따라서 있는데,

- (1)아모개집에 있는 교회 예를 들면(몬 1:2)

(2)아모대 사람의 교회 예를 들면(살전 1:1, 살후 1:1)에 말씀 갖든 것인데 이를 드러라 말하자면 모도가 다 한분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그리스도의 교회는 것인데 지금 이 교회명칭에 대하여 신중이 생각할 바 잇는 이유는 지금 현세에 잇서서 인위적이며 인본주의의 행동을 함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갹주시고 사신 것이라고 행 20:28에 말삼되였고 고전 14:33에도 하나님은 어지로운 일에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한 일에 하나님이시라 하며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그러하시다 하였스니 우리 모든 신도는 잇태에 교회를 좀 잘 신중이 생각할 것이다.

## 9) 김은석의 인간관계

김은석의 성공적인 사역의 배후에는 인간관계가 있다. 한 인간의 성공과 실패의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 관계가 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크고 작은 공과(功過)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관계가 좋았을 경우에는 과(過)보다는 공(功)이 앞세워지게 된다. 뛰어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도 크고 작은 실수가 없지 않다. 이 점은 김은석 목사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후대에까지 존경을 받는 것은 공(功)이 과(過)보다 크고 인간관계가 좋았기 때문일 것이다.

김은석의 좋은 인간관계를 말해주는 증거들은 많다. 먼저, 그가 관계한 혼인의 일만 보더라도 중국에서 2쌍, 일본에서 8쌍, 본국에서 60쌍, 총 70쌍이나 된다. 이들 중에는 지철희, 문원섭, 이원노, 김태수, 최요열, 김은성, 김규상, 박점상, 최순국, 김은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61세의 짧은 일생을 마친 김은석 목사로서 70쌍 이상의 혼인에 관계하였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는가를 말해준다.

김은석 목사가 1960년에 연하장을 보낸 곳은 개인 38명, 교회 31곳이었다. 또 양녀 김명순의 결혼통첩을 개인 37명, 교회 25곳에 보내었다. 연하장을 보낸 곳과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이름들도 꽤 발견되었다. 이뿐 아니라, 김은석은 별세자들의 명단까지 적어두었는데, 여기에는 정찬성(1957년 4월 25일), 김재순(1958년 2월 26일), 강순명(1959년 3월 12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심지어 이신의 부친(1954년 6월 16일)과 이종만의 모친(1957년 8월 14일) 별세 일자까지 적어놓았다. 이것은 동료의 기일까지 챙기는 그의 인간적인 면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믿어진다. 이런 점 때문에 그의 전도사역은 성공적일 수밖에 없었고 동료들이 늘 곁에 있었던 것이다.

혹자는 김은석 목사가 1960년에 발송한 연하장과 양녀의 결혼통첩이 생각보다 숫자가 많지 않다고 생각할는지 모른다. 추측컨대 이때는 루머에 연루되어 얼마동안 칩거했다가 세상에 나온 터라 자신을 이해해줄 동료들이거나 꼭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만 선별해서 보냈기 때문일 것이다.

## 10) 김은석의 세상사

김은석은 주의 일로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다. 그는 예수님의 삶에 잇대어 험한 가시밭길을 걸었다. 그는 교파교단의 비난과 핍박과 가난함과 곤고함과 싸웠다. 김은석에게 갈등과 시련은 늘 있었으나 그 때마다 성경봉독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곤 하였다.

김은석은 세상 즐거움을 완전히 끊어버린 사람이었다. 그의 일상엔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이었고 교회순방을 위해서 기차타고, 버스타고, 배타고 이동하는 것이었다. 낮이고 밤이고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었다. 교회당에서, 강단 앞에서, 강단 옆에서, 강단 뒤에서, 교회의 골방에서, 목회자의 방에서, 자택의 방에서, 다락방에서, 심방한 성도의 방에서, 식사하던 식당에서, 기차에서, 버스에서, 배에서, 정류장에서, 터미널에서, 누구와 있든지, 누구와 동행하든지 상관없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어디로 향하든지 상관없이,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었다. 매일 그렇게 읽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읽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조반 전에, 조반 후에, 오후에, 늦은 밤에, 새벽에 읽었다.

김은석은 사생활이 없었다. 일 년이면 거의 대부분을 남의 교회와 남의 집에 머물렀고, 그것조차도 동료들과 함께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었다. 그가 어쩌다 자택을 찾는 경우에도 동료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마 12:50)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김은석도 함께한 주의 일꾼들이 그의 형제요 자매였다. 김은석은 자기보다 어린 동료들까지도 자주 ‘형’(兄)이라 썼고, ‘형제’라 호칭하였다. 이들 가운데는 김재순, 김명석, 이신, 최요한 등이 있었다. 진성구, 김교인 장로들을 호칭할 때는 항상 ‘님’을 붙여 썼다. 동료

들이 여성인 경우에도 ‘남’자를 붙여, 박종예 자매님, 이원화 자매님, 전도희 자매님 하는 식으로 깎듯하게 불렀다.

김은석에게 세상일은 그다지 중요치 않았다. 그는 양아들 김성철이 자신의 대를 이어서 목사가 되어주기를 바랐으나 평소 세상공부는 필요치 않다며 학교공부를 시키지 않았다. 김성철 목사가 충남상고와 충남대를 졸업한 것은 순전히 개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었다. 김성철의 친부인 김명석(김주일) 목사도 이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김은석을 일본에 있을 때부터 추종하였으므로 그 역시 처자식들을 돌보지 못하였다. 처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책망 받을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마 10:34-39).

1954년 4월 첫 주말에 전남교회(최요한)를 다녀온 김은석은 다음날인 4월 6일 화요일 아침에 사무엘상 9:9-12:25까지를 대전시 선화동 2구 315번지 교회에서 읽었는데, 마음에 무슨 변화가 일었는지 다음과 같이 적었다. “그런 중에 특별한 일리 엿슴은 나는 금일부터는 가족을 아주 떠나는 것을 선언.” 또 같은 날 부강교회로 옮겨서 저녁에 강단 앞에서 사무엘상 13-14장을 읽고는 “사랑받으며 봉독함”이라고 적고 있다. 다음 날인 7일 수요일에도 아침부터 밤까지 사무엘상을 읽었다. 그리고 10일 토요일 주일예배 참석차 대전에 왔고, 주일인 11일에는 교회를 사임하고 유호성 전도사에게 전임시키고 있다. 그리고 다음날 12일 월요일 아침에 평소 습관대로 성경을 읽고 조반 후에 부강으로 내려갈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부인 김완례 사모가 병이 났고, 병자를 두고 떠날 수 없게 된 상황이 벌어졌다. 할 수 없이 그는 13일 화요일까지 남아서 병상을 지키다가 14일 수요일 부강으로 떠나고 있다. 그러나 김완례의 병은 그 주간 내내 완쾌되지 못했고, 김은석은 16일 금요일에 돌아와 병든 사모 곁에서 성서를 읽고 있다. 그리고 18일 주일을 지킨 후 19일 월요일에 대전시 은행동 2구 1번지 10통 41반으로 이사하였다. 대전 선화동 교회는 김은석이 구호물품의 잉여물자를 알뜰히 모아 팔아서 마련한 땅에 건물을 짓고 시작한 자기



교회였다. 그러나 사임을 했으니 집을 비어줘야 했을 것이고, 사모는 이 갑작스런 결정에 충격을 받고 쓰러졌을 것이다.

이 사건이 있었던 1954년 4월은 김은석의 심경에 어떤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 이 기간에 그는 영적으로 심적으로 상당히 고무된 상태였으며, 성경을 읽는 시간도 아침에 국한되지 않고, 늦은 밤이나 한 밤중까지 계속되곤 하였다. 그러나 1958년까지의 행적을 볼 때, 그가 가족을 떠나겠다고 선언한 것은 부흥집회와 성서연구집회에 전념하겠다는 뜻이었지, 가족을 버리겠다는 뜻은 아니었던 것 같다. 어쨌든 그의 출가선언은 가족에게 적지 아니한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이렇듯 김은석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가족은 물론 재산까지도 포기할 수 있었던 희생적인 신앙인이었다.

김은석에게 설날과 추석 혹은 생일과 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은 그의 인생에 전혀 의미가 없었다. 명절에 한복을 곱게 차려입거나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앉아 명절을 맞는 일이 적어도 그의 성서메모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 1954년 2월 3일(수)부터 5일(금)까지가 설 명절이었는데도 그는 집엘 가지 않고 교회를 예방하는 요무(要務)로 2일(화) 전남 해남군 성전시장에서 대전행 차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영산포행 차를 기다렸고, 기다리는 중에서도 출애굽기를 읽고 있었다. 1955년은 1월 23일(일)부터 25일(화)까지가 설 명절이었는데 그는 22-23일(토-일)에 광주 집회소에 있었고, 24일 월요일 설날에서야 대전 선화동에 도착하여 25일까지 이틀 밤을 묵고, 26일(수)에는 다시 경북 금능군(김천시) 개령면 대광동 2구 대보 그리스도의 교회(장성우 목사의 사모 김순옥의 모친 김묘암이 설립)에 갔다가 27일(목)에 수리교회로 올라갔다. 1956년은 2월 11일(토)-13일(월)까지가 설 명절이었는데, 집에서 가까운 부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지 않고 교회에 남아 성경을 읽고 있었다. 1957년에는 1월 30일(목)부터 2월 1일(금)까지가 설 명절이었다. 그는 이때에도 부강교회당 골방에 머물며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읽었다.

김은석 목사는 기도의 용사였다. 그는 성경을 읽을 때 대부분 강단 앞과 강단 옆과 강단 뒤에서 읽었던 만큼 기도를 겸하였을 것이다. 그는 가끔씩 금식 중에 성서를 읽었다. 1955년 3월 16일 수리교회에서, 19일 부강교회에서 금식 중에 성서를 읽고 있다.

김은석의 삶은 하나님사랑, 인간사랑, 특히 인간의 영혼을 사랑한 삶이었다. 따라서 그의 삶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실천하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경을 읽었고, 인간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전국 각지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으며,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을 추구한 삶이었다. 그의 굵고 짧은 삶은 오늘 우리에게 “춘몽 같은 인생, 무엇을 하며,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묻고 있다.

### 11) 김은석 목사가 끼친 충격과

김은석은 그의 생애 마지막 17년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몸 바쳤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해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초기 교회에 큰 부흥을 만들어낸 것처럼, 1950년대 김은석과 그를 작은 예수로 생각할 만큼 그를 신뢰하고 따랐던 동료들이 해낸 수고와 헌신은 충청도와 전남에 70여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공을 세웠다.

그러나 그의 공로가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김은석 목사와 일부 추종자들은,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할 만큼 성서주의로 살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들의 가족들이 입은 고통이 상당히 컸다.

김은석의 주일날 성서통독은 평일의 성서통독과 그 내용이 달

랐다. 그는 주중에 읽던 책을 계속 읽지 않고, 다른 책들(읍, 시편, 잠언, 전도, 아가)을 읽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책이 읍기서였다. 김은석은 1954, 56, 57년에 주일마다 읍기를 읽었다. 이 읍기서 40장의 여백에 이렇게 적었다.

1955년 4월 17일 주일... 금일도 섭섭한 말을 듣게 되는 것은 김명석 형제 부인이 육적생활 불만으로 나를 원망한다 하며 또 김은성이는 활교회를 못가겠다는 뜻을 말함. 그 안해가 불만 언(言).

이 기록은 출가(出家)를 선언한 김은석 목사와 그의 동료들이 그들의 가족에게 끼친 충격이 얼마나 컸는가를 가늠케 한다. 자녀들은 물론이고 사모들의 원망과 원성이 적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1954년 4월 김은석의 폭탄선언이 김완례 사모를 충격에 앓아눕게 만든 점 등은 당시의 정황을 충분히 짐작케 하고도 남는다.

김은석 목사를 추종했던 동료들 가운데는 남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성들도 꽤나 많았다. 이점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다. 루디아, 브리스길라, 비비와 같은 여성 동료들의 사역은 사도 바울의 선교에 큰 동력이었다. 여성 동료들의 사역이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란 점에 있어서는 김은석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김은석 목사가 꽤 많은 여성 동료들의 방에서 성서를 통독하고 있는 점을 보아서 알 수 있다. 아마 그들은 김은석의 집회와 성서연구회를 돕고, 성서토론에 참여했거나 식사와 세탁을 담당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과의 잦은 접촉은 말 많은 사람들에게 루머의 빌미를 제공한다. 김은석의 몸을 아끼지 아니한 헌신과 희생으로 얻은 대가는 값으로 매길 수 없으며, 헤라클레스 처럼 무거운 운명의 짐을 짊어지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으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해냈음에도 불구하고, 호사다마란 말이 있듯이, 불행하게도 말년에는 악성루머에 휩싸이게 되었다.

김은석의 성서통독메모에 ‘강신규’란 여성의 이름이 1954년 5월 1일부터 시작되어 총 26회 등장한다. 강신규는 김은석의 충실한 여성 동료이자 김완례 사모의 올케의 올케 또는 올케의 아들인 김은영 목사의 외숙모였다.

김은석은 말년에 창병(瘡病)으로 고생하였다. 그 때 그는 창병의 치료를 위해서 ‘강신규’의 거처에 머물며 간호를 받게 되었다. 그로인해서 악성루머가 퍼졌고, 루머의 사실여부를 밝히고자하여 모인 50여명의 목회자들 앞에서 김은석은 시인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를 사랑하고 존경했던 전국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를 사랑했던 많은 성도들은 이 사건을 연민과 동정으로 받아드렸고, 일생을 가시밭길을 걸으며 복음전파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과 가족까지 돌보지 않았던 그를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이 사건은 김은석 자신에게도 극복하기 힘든 충격이었다.

루머는 진실 여부를 떠나서 치명적이기 때문에 악성이다. 예수님도 여러 가지 악성 루머로 인해서 재판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뒤집어쓰신 죄목은 신성을 모독한다는 것과 민중을 선동한다는 것이었으며,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서 세금납부를 거부하고, 신성을 주장한다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이런 몇 가지 죄목들을 이유로 십자가형에 처해지셨다. 바울도 전염병 같은 자, 유대인들을 소요케 하는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는 죄목으로 4년 가까이 옥살이를 하였으며, 석방되었다가 4년 후 67년경에 로마의 황제 네로 때에 목 베임을 당하였다.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십자가형만큼은 면했다.

김은석 목사가 창병(瘡病)에 걸렸을 때 자택에 들어가지 아니한 것은 정말 아쉬운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년에 창병으로 고생할 때 집에 들어가 김완례 사모의 돌봄을 받지 않고, 강신규 자매에게 간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김은석은 김완례 사모를 편하게 생각하지 못했다. 성서통독메모에서 김완례 사모의 이름 뒤에는 언제나 ‘씨’자가 붙어

나타난다. 혹시 연상이 아닐까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늘 존대하였다.

둘째, 김은석은 사모 김완례와 가족들에게 평생 무거운 짐만 짊어지웠다.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았고, 전도 집회와 성서강의로 인해서 한 달에 한 번도 집엘 들어가지 못하였다. 집회와 순방이 많았기 때문이다. 1954년 4월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 즉 출가선언, 교회사임, 이사로 인한 김완례 사모와 가족이 받은 충격을 언급하였듯이, 비록 그 후로도 가족관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긴 하였지만, 말년에 창병으로 거동이 불편했던 김은석 으로서는 차마 사모 김완례에게 자신의 병든 몸을 의탁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사모의 건강이 평소 좋지 않았던 점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셋째, 강신규는 김은석의 집회를 돕기 위해서 자주 동행했던 전도회, 김숙명 등 여러 여성들 가운데 한 명으로서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봉사하신 존경하는 김은석 목사의 병든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집으로 모셨던 분일 것이다. 김은석 목사나 강신규 자매 사이에 로맨스를 개입시키는 것은 매우 불경한 일이다. 김은석은 이 때 이미 60세의 나이였고, 일생동안 부부생활을 멀리하고 살았던 분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에로스의 관계로 보려는 것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은석은 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고, 날아드는 루머의 돌 세례를 온몸으로 받았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음으로써 그는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이 문제를 기정사실처럼 받아드리게 만드는 또 다른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과연 김은석 목사는 자신과 세상과 끝없이 싸우며 괴로운 가시밭길을 걸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상의 모든 고뇌를, 지상의 모든 수고를 그에게 짐 지웠으나, 저 장렬한 최후의 날까지 그는 이 수고를 훌륭하게 참아내었다. 비록 그는 한 알의 밀알로써 썩어졌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생명의 열매들이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지속적으로 맺히고 있다.

## 12)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

1945년 오데콜 장로교회로부터 제명이 된 후 추종하는 교인들과 함께 이복춘(김규상 목사의 모친) 집사의 디귤자 기와 대청마루로 예배처를 옮겼다. 김은석은 이복춘의 큰방에서 거처하였다. 가족은 서울 북아현동에 머물렀다. 오랜 지기 박점상도 이웃하여 살았는데, 박점상의 증언에 의하면, 김은석은 1946년 박점상과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였다.

이 무렵 누에를 기르던 잠실터를 매입하여 예배당을 짓고 교회명칭을 고민하던 중,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가 309쪽에 소개한 김정만 목사의 증언에 의하면, 정찬성의 제안으로 이름을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로 지었다.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도 1946년에 시작되어 충청이남지역 그리스도의 교회 발전의 잠실(산실)이 되었다.



1961년 8월 17일 부강교회에서 열린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는 1946년에 창립되었으며, 제1대 김은석을 시작으로 김상호, 함태영, 이규승, 김청자, 김재중, 김평수 등으로 이

어졌고, 현재는 한명호 목사가 현대식 2층 건물로 옮겨 목회를 하고 있다.

대전 성화교회 오재건 장로의 <신앙체험기>에 의하면, 김교인 장로는 대지 500평을 하나님께 바쳐 부강교회를 짓게 하였

으나 후대의 목회자들이 교회대지를 여러 명목으로 조금씩 매도하여 1976-77년경에는 147평만이 남았다고 한다. 이 조차도 노리는 사람이 많아 여러 번 빼앗길 뻔했던 것을 김태수와 오재건의 노력으로 되찾은바 있어서, 김태수 목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이 대지를 오재건 장로에게 관리를 위탁하였으나 오재건은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재단법인 크리스천 미션에 넘겨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였다.

### 13)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



1959년에 개최된 제1회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

1951년 봄에 광주에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교역자회가 조직되고, 김은석의 주례로 장주열, 최요한, 김재순, 창현 함태영, 이신(이만수), 김동열이

목사안수를 받은 이후 제1회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가 1959년에 개최되었다. 이 모임에 성낙소, 심영진, 장성만, 최요열, 이신 등 다수가 참석하였다. 1961년 8월 17일 부강교회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가 개최되었으며, 주제는 '신약교회로의 환원'이었다. 이 모임에 힐 요한, 장성만, 박재관, 김동열, 이종만, 정인소, 김찬영, 김성철, 심영진, 이신, 장주열, 성낙소, 안일승, 고재운 등이 참석하였다. 1962년에는 신탄진 천막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가 개최되었고, 60년대 중반에는 한국 성서신학교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가 개최되었다. 이 모임



1961년 8월 17일 부강교회에서 개최된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주제: 신약교회로의 환원)

에 덕 래시, 힐 요한, 최용호, 힐 제인, 김중현, 고광석, 천명화, 장주열, 노봉옥, 임춘봉, 장성만, 최요한, 조규석, 이종만, 안일승 등이 참석하였다.

### 3. 김은석 목사의 동료들



좌측부터 심명진 목사, 이신 목사, 고광석 목사

김은석의 동료들은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서 여기에 다 일일이 거명할 수가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자료가 가능한 인물들만 선별해서 소개하려고



한다. 이들 가운데는 김명석(김성철 목사의 친부), 박점상, 김교인(1956-57년경에 순복음교회로 이적), 신현창, 김재순, 최춘선 <김포교회, 사회사업가. 소천 전 30여년을 맨발로 거리와 지하철에서 전도. 1951년 6월 김은석, 정찬성과 함께 충주시 동양면 조동(동량)교회 설립>, 정찬성(순복음으로 이적), 김상호(순복음으로 이적), 김태수(부강교회 김교인 장로의 아들), 김재순(부강교회 김교인 장로의 아들), 함태영, 이신, 강순명(천혜 경로원), 이원노, 김정만, 심영진, 장주열(최요한의 큰 동서), 최요한, 김동열(광주 그리스도님의 교회), 장성만, 김은영, 고광석, 임남규, 전도희, 등 너무 많아 다 기술할 수가 없다.

### 1) 김명석(김주일) 목사(1906-)

김명석의 본명은 김주일이다. 그는 1931년 25살 때 일본에 건너가 부인 구봉림과 함께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가까운 바닷가 ‘야마구치깡(山口岬) 아사’라는 동리에서 살았다. 그는 김은석의 성서통독메모(1953-58)에 26회 언급되었다. 그가 김은석을 처음 만난 것은 1936년 30살 때인 어느 주일날 아침 일본 산구현(山口岬)교회에서였다. 그날 김은석은 초청강사였다. 이후 두 사람은 의형제를 맺고 늘 붙어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하였다. 해방 후 경남 밀양에 가까운 예림이란 곳에 자리를 잡았으나 김은석을 추종하였으므로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 이 무렵 자녀를 갖지 못한 김은석에게 둘째 아들 김성철(1938.5.17-)을 1948년에 때 양자로 넘겼다.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공부하였고, 충북 괴산군 소수면 수리교회에서 목회하였다. 김은석의 성서통독메모에 의하면, 1955년 후반기에 경남 통영군 도산면 도선리 1구 그리스도의 교회를, 1957년에는 충북 청주 영운동 교회를 섬겼다.

### 2) 박점상 장로/목사(1928.3.23.음력-2024.1.20)



박점상 목사

을 교회에 찾아가서 보니, 강단 옆 벽에 걸린 예수님이 바로 꿈에 본 그분이였다. 그때부터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워서 8킬로미터나 떨어진 교회를 일 년을 열심히 다녔더니, 일 년 후 알게 모르게 병이 다 나아 버렸다. 한편 아버지가 큰 외삼촌의 보증을 섰다가 집안형편이 심히 어렵게 되었으나 어머니는 맥추헌금을 넉넉히 작성하였다. 그 일을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겁도 없이 헌금을 많이 작성하였다고 비방하였다. 하루는 박점상이 아버지가 만들어준 지개를 지고 어머니를 따라 산에 올라갔다가 쓰리버섯을 발견하였는데, 두 번에 나눠서 가져와야할 만큼 양이 많았다. 장날에 내다 팔았더니 작성한 헌금을 내고도 돈이 남았다.

1937년 2월 열 살 때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도(東京都) 아다지(足立區)에 위치한 큰 강 건너 꽤 먼 거리의 일본인 교회를 출석하였는데, 그 교회는 매주일 성만찬을 거행하는 교회였다. 일본에서는 교파이름을 쓰지 않고 '기리스도노 코오카이'(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통칭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침례와 매주 성찬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교회였다.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큰 누님 맥으로 이사를 들어갔다. 그런데 주변에 교회도 없고 큰 누님은 믿지 않는 분이라 펄박이 있어 주일마다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어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교회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루는 김은석 조사(전도사)가 우연히 찾아와 도쿄에서 아주 먼 거리에 위치한 야마구찌갱(山口峯) 도구야마시(徳山) 가스가조(春一町) 8032번지를 소개해 주었다. 그곳으로 이사하여 갔더니, 몇 가구가 함께 사는 교회당이었는데, 마침 두 개의 빈 방이 있어서 그곳에서 정착하였다. 그곳 교인들이 예배당을 따로 짓기로 결정하고 건축을 시작하였을 때, 박점상의 모친은 소다제조회사에 다니며 모운 돈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벽돌을 헌납하였다.

이때부터 김은석 목사와 친분을 맺게 되었다. 이때의 김은석의 이름은 일본말로 간다긴세기 신전 은석이었다. 별명은 합바지(무명 바지) 조사(전도사)였고, 시모노세키(하관), 아사(김주일 거주), 덕산(박점상 거주), 동경지방 등 전국을 돌며 복음을 전하였다.

김은석 목사가 유명해지는 한편, 일본은 대동아전쟁 때부터 교회에 대한 간섭을 시작하였고, 목사들을 미국의 스파이로 의심했던 일본당국은 요주의 인물로 김은석을 꼽았다. 김은석은 신사참배와 동방요배(예배 시작 전에 현인신現人神으로 믿는 일본 왕이 살고 있는 동쪽을 향해 절하는 의식)를 거부하였으므로 문제가 되었다. 한번은 교회입구 통로에서 잡으러 온 왜경과 김은석이 어깨를 서로 마주치고 지나친 적도 있었다. 이후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김은석은 박점상 가족과 함께 도쿄에 집을 얻어 이사하였다. 노동을 하면서 한 집에서 방 하나씩 차지하고서 김은석, 박점상 가족, 최창신 전도사와 그녀의 외손녀 히로코(홍자) 세 가족이 함께 살았다.

박점상은 김은석이 한국에서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급전을 받고 귀국하면서 헤어지게 되었고, 동경교회를 다니다가 18살에 해방이 되어 김은석의 주소를 들고 서울로 나왔으나 혼잡한 기차에 오르면서 지갑(수첩)을 도난당하여 찾지 못하고 고향 합천으로 갔다가 다시 김은석을 찾아 김제군 망경읍으로 갔다.

박점상은 한국에 나오면서 김은석이 맡겨둔 짐 가운데 무거운 것은 가져오지 못하고 코트와 의류만 챙겨왔다. 책은 왜경이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남지 않았다. 1946년 박점상은 망경읍에서 담임목사의 도움으로 주소는 모르지만 김은석이 서울에서 300만 부흥운동의 부흥사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반가워 편지를 쓰고 받는 이의 주소를 무작정 “서울 김은석 목사님 귀하”라고만 써서 부쳤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몇 날이 못 되어 김은석으로부터 망경읍에서 40여리 떨어진 마채본 집사의 딸집에서 동짓날 만나자는 답신이 왔다. 그러나 김은석은 사정이 있어 오지 못하고 대신 다른 사람이 와서 김은석 목사의 소식을 전하였다.

김은석 목사 가족이 서울 북아현동에 있을 때 박점상은 이웃에 방을 얻어 살았다. 김은석이 아직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기 이전인지라 재건교회를 비롯한 몇몇 교회들을 탐색하였는데, 자신의 신앙과 맞지 않음을 깨닫고 1946년 박점상과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였다. 김은석은 비록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령운동에서는 자신의 뜻과 맞지 않지만, 침례와 성만찬 등의 교리가 성서적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박점상은 1947년 부강으로 내려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일하며 부강교회 건축에 힘을 쏟았다. 그는 1949년 4월 금강에서 침례를 받자마자, 정찬성 목사가 충북 괴산군 불정면 외령리에 세운 외령교회(지철희 목사의 누님 집. 당시 지철희는 12세 정도의 소년이었음. 후에 박점상이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처가 마을의 정귀남 집사의 딸을 지철희에게 소개함)를 개척하여 섬기다가 신탄진 교회로 옮겨가자, 박점상이 외령교회 2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였고 후에 수룡교회를 개척하였다. 1950년 6.25 동란 때 고향 합천으로 피난하였다가 9.28 수복 후 외령교회로 돌아갔으며, 1951년 1.4 후퇴 때 다시 합천으로 피난하였으나 살길이 막막하여 합천 세무서에서 8월까지 일하다가 김은석 목사가 이동 중에 징집 당하지 않도록 힐 요한 선교사를 통해서 미8군 종교담당자의 이름으로 통행증을 편지에 동봉하여 보내주었으므로 광주로 김은석을 찾아가 그곳 신화신학 성경연구회(김은석, 이신, 창현 함태영 등이 운영)에서 공부하던

자매 정규님과 김은석 목사의 중매로 1951년 8월 13일(음력) 결혼하여 전남 평산리 처가에 신접살림을 꾸렸다.

한편 처가 근방에 있는 전남 함평군 손불면 신흥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니던 10여명의 성도들이 평산리에 있었는데, 교회가 30여리나 떨어져 있다 보니까 교인들이 박점상이 목회하다 온 줄로 알고 교회를 세워달라고 부탁하여 힐 요한 선교사에게 개척자금을 요청하였더니, 얼마간의 돈을 보내주었다. 이에 박점상은 신흥교회를 오가면서 눈여겨 보아둔 주포의 빈 집을 사서 그 재목을 배로 운반하여 처가가 내준 땅에 평산리교회를 건축하여 개척하였다. 그 후 얼마 못되어 충북 청원군 강서면 송절리라는 곳에 이성화 장로가 교회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교회(문암교회의 전신)로 환원하자 부임하여 섬기다가 다시 이성화 장로가 교회를 가지고 침례교회로 넘어감으로써 사임하였다. 얼마 있다가 1953년에 힐 요한 선교사의 연락을 받고 서울에 올라가 마중 나온 힐 선교사의 차를 타고 도강증 없이 한강을 건너 장충동신학교에 입학하여 1년 반을 공부하였다. 1956년에 대전 침례신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식구가 일곱 명이나 되었으므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소개한 평택 서정리에 김은석의 큰 동생 집에서 서정리침례교회를 개척하였으며, 온양 온천침례교회를, 후에 장항교회를 1960년 졸업 때까지 섬겼다.



1960년 박점상의 침례신학교 졸업식 때: 박점상목사, 김은석목사, 김완례사모

침례신학교를 졸업한 후 가족이 많아 받아주는 교회가 없고, 가족부양도 문제인데다가 목회하면서 생활에 엇매이면 샅꾼 목회자가

될 것이라 믿어 목회를 그만 두었다. 그리고 나서 대전에서 기

술자를 두고 시계방을 운영하면서 어깨너머로 기술을 습득하였고, 서울 남대문에서 노점상과 업자를 상대로 시계를 수리를 하던 중에 노동청이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시계수리1급자격증을 받았다. 1967년 성동 그리스도의 교회의 전신인 남산동 교회에서 장로안수(이때 김규상 목사 안수 받음)를 받고 재무로 시무하면서 그리스도의 교회 장로회를 조직하여 총무를 맡아 보았다. 1982년에는 생활의 기반을 잡은 후여서 지온어린이집의 부속 교회에서 장로로서 무보수로 목회를 하다가 1983년 1월 남부 중앙 그리스도의 교회로 옮겼다. 남부중앙교회는 홍제 그리스도의 교회의 어떤 교인이 구입했던 것을 최윤권 목사가 재구입하여 교회가 지속되게 하였고, 후에 교회가 자금을 마련하여 최윤권 목사로부터 실비로 매입한 교회였다. 1983년 3월 14일 목사 안수를 받고 1950년대 김은석의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공부한 이원노(로) 목사와 함께 협동목사로 부임하여 은퇴할 때까지 담임하였다. 이때 명목상의 담임목사는 최윤권이였다.

박점상 목사는 서울기독교대학교 법인이사로 36년간 섬겼고, 동 대학교에서 2009년 8월 24일 선교학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 받았으며, 현재 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 이사로 섬기고 있다. 사모 정규님과 더불어 혜숙 목사(전대웅 목사 사모, 방글라데시 선교사) 성희, 성숙, 혜자, 정숙, 정희, 남숙, 남희를 두었다.

### 3) 김교인 장로(1890-1970)

김교인(金敎人)은 김은석 목사를 모셨던 부강 오데골 장로교회의 장로였다. 민 선교사로부터 전도를 받고 한문성경을 읽고 깨우친 후에 전도인 활동을 하고 선교사로부터 생활비보조금을 받다가 1936년에 부강으로 이사하여 양약방을 열었다. 오데골에는 김교인 장로가족과 김규상의 모친 구봉례 집사와 작은 어머니 정도가 모이는 장로교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인

도하며 교회를 끌고 나갔다.

1944년 집안에 어려움이 있어 부인이 실의에 빠져 있을 때, 노회가 열려 참석하였다가 김은석을 소개받아 1945년 가을에 담임목사로 모시게 되었다. 김은석은 부임하자마자 100회 집회를 선언하고 시행하여 큰 부흥을 일으켰는데, 노회로부터 자제하라는 명령이 시달되었다. 이에 굴복하지 않자, 노회는 김은석을 제명하였다. 이 일로 김교인은 김은석, 정찬성과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였고, 1946년에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대전 성화교회 오재건 장로의 <신앙체험기>에 의하면, 김교인은 대지 500평을 하나님께 바쳐 부강교회를 짓게 하였으나 후대의 목회자들이 교회대지를 여러 명목으로 조금씩 매도하여 1976년경에는 147평만이 남았다고 한다. 이 대지를 김태수 목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오재건 장로에게 관리를 위임하였고, 오재건은 관리에 어려움을 느껴 크리스천 미션 재단에 넘겨 관리하게 하였다.

김교인은 1956-57년경에 순복음교회로 이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무렵에 김교인은 전남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김교인은 최요한이 1946년 10월 전남 함평군 손불면 주포리에 개척하였다가 그 이듬해인 1947년에 함평면 석성리 청학동으로 옮겨 김교인 앞으로 등기된 땅 위에 세운 석성 그리스도의 교회를 순복음교회로 이적 시켰고, 추후 이 교회에 700평 땅을 바쳐 50평 예배당을 짓게 하였다. 이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김은석의 성서통독메모에서 1956년 12월 13일 이후에 김교인과 석성리 청학동 그리스도인 집회소와 신생동 교회, 그리고 이들 교회들을 인도했던 노의수 집사(전도사)에 대한 언급이 모두 끊겼다.

순복음교회로 이적할 당시 김교인은 이미 서울로 거주지를 옮긴 상태였다. 김은석의 1956년 7월 16일(월)자 메모에 의하면, 김교인은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산18번지에 살고 있었다. 서울에서 그는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섬겼으며, 1970년에 숙한으로

신촌교회에서 소천 하였다. 사모 김정렬로부터 김재순 목사, 김태수 목사, 김철수 목사, 김복수 집사, 외손자 엄규석 목사 등을 두었다.

큰 아들 김재순(1922-1958) 목사는 해남, 영광, 함평, 금동(광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과로로 쓰러져, 김은석 목사의 기록에 의하면, 1958년 2월 26일 광주에서 소천 하였다. 김태수 목사는 김은석의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공부하였고, 1955년 3월 3일 힐 요한이 교장으로 있던 서울성서신학교를 제1회로 졸업하였으며, 50년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와 60년대 한국성서신학교에서 교수(통역)를 역임하였다. 70년대 중반에 미국에 이민하여 LA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겼다. 김철수 목사, 엄규석 목사도 LA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겼다.

#### **4) 신현창 장로**

신현창은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된 의사였다. 그가 김은석을 만난 때는 부강으로 이사하여 병원을 개업하면서였다. 김은석과 함께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를 조직하여 강사로 섬겼고, 충남 논산시 부적면 충곡리 그리스도의 교회 개척에 공헌하였다. 1951년 6.25사변 중에 교통사고로 소천 하였다.

#### **5) 정찬성 목사(1913.05.06~1957.04.25)**

정찬성 목사는 충북 괴산군 불정면 외령리 반능(半陵)이 고향이다. 친구인 이학재(감리교 장로)의 전도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는 우체국에 근무하는 집배인이었다. 낮에는 편지를 배달하고 저녁에 교회를 다녔다. 일제가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강요하자, 정찬성은 신앙에 어긋난다면 가미사마에게 절하는 것을 회피하였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자전거를 타고 언덕길을 내려가다 미끄러





정찬성 목사(1913.05.06~1957.04.25)

저 절벽 아래로 떨어졌고, 다리가 얼음 속에 박혀 부상을 입게 되었다. 치료를 받기위해 청주 모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동안 병원에서 성경책을 주며 읽도록 권하였다. 마침 교회를 다니고 있던 터라 기도하기를, “내가 여기서 병을 낫게 되면 사도 바울과 같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고 했는데, 기도한 후에 정말 다리가 낫게 되어 김용선 자매와 결혼까지 하였다. 결혼하고 나서야 김용

선은 정찬성이 다리를 조금 전다는 것을 알았다.

이후 정찬성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노방전도를 다녔는데, 왜경들이 늘 추적하였고, 김상호 목사의 증언에 따르면, 전통을 중시하는 집안 어른들의 핍박도 상당히 심했다고 한다. 그는 믿는 사람들(목사들)의 고발로 체포되어 청주 남조동, 대전 신탄진, 충주로 이송되면서 많은 고문을 당하였다. 감옥에서 나온 후에는 처형이 사는 만주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 만주에서는 산에 올라 초근목피 하였고, 구두담이 통을 만들어 왜경의 눈을 피해가며, “일본의 가미사마를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복음을 전하였다. 이 무렵에 만주 길림성에서 김은석 조사(전도사)를 만났다.

해방 후 고향인 충북 괴산군 불정면으로 돌아와 충북 괴산군 불정면 삼방리 연못골 자택에서 반농교회를 하다가 적산건물인 사립학교를 구입해서 교회를 시작하였다. 이 무렵에 만주에서 만났던 김은석과 연락이 닿아 부강에서 해후하였다.

정찬성은 고려통신신학을 수료하였고, 1946년에 시작된 초창기부터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공부하였다. 1948년에 신탄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6.25전쟁을 만났다. 전쟁 중에 김정만 목사(정찬성을 스승으로 생각함)가 살던 충북 청원군 북이

면 송정으로 피신을 하였는데, 1950년 겨울에 북한군에 잡혀 밤새 고문을 당하였다. 북한군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놓아주겠다고 했지만, 이에 굴복하지 않자 밤새도록 총대로 구타하였다. 아침에 북한군은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은 이쪽으로 나오라고 말하고, 남은 사람들을 향해서 총으로 난사하였는데, 당시 정찬성은 기도를 하느라 머리를 들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총알이 살짝 빗나가면서 구사일생하였다. 총알 세례를 받고 난 후, 눈을 뜨고 자기 몸을 꼬집어보니,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정찬성은 충청지방에 7-8군데 교회를 세웠다. 해방 후 고향인 충북 괴산군 불정면 외령리에 돌아와 외령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고, 1948년에 예배인도 차 심방하던 충북 충주시 노은면 수룡리 동막교회(현 시골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소속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시켜 1949년 4월부터 1950년 6월까지 시무하였으며, 1951년에는 김은석, 최춘선과 함께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의 조선기독교회를 조동(현 동량제일)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시켜 건지부락 산 밑으로 예배당을 이전하여 건립하였다.



뒷줄 좌측부터 김홍선 사모, 정동순(일본 고베순복음교회 사모), 정찬성 목사, 정인자, 앞줄 좌측부터 정인순 집사, 정형기 목사(태광순복음교회, 7살), 정홍기 목사(공주 탄천순복음교회)

그 밖 에 도 소태 그리스도의 교회, 삼방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다. 정찬성은 1951년 5월 15일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송리 3구 마을

에 이홍식 전도자가 조남철의 가정에서 1950년 3월 19일에 시작한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임하여 10월까지 1대 목회자로 섬기

다가 이신에게 넘겼다. 이신은 그곳에서 김은석, 함태영과 함께 광주에서 하던 신학교를 이어갔고, 정찬성도 참석하여 공부하였다. 정찬성은 이 교회에 부임하기 위해서 약 400여리 떨어진 곳에서 오촌 조카와 가족들을 데리고 간단한 짐만 손수레에 싣고 14일 걸려 이사하였다. 그곳으로 가게 된 동기는 한 독지가로부터 수천 평의 땅을 헌납 받아 5촌 조카(정석기 장로)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고 자신은 교회를 시무하기 위함이었다.

정찬성은 부여 합송리 신학교에서 있었던 성령론 논쟁 때 그리스도의 교회를 탈퇴하여 1953년 4월 8일 광주에서 개최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창립총회 때 김상호와 함께 (추측컨대 최요한도 함께, 김교인은 그보다 3-4년 후에) 이적하여 1955년 4월 27일에 목사안수를 받고 기하성의 제1호 목사가 되었다. 이 무렵에 이신 목사도 부여 합송리를 떠났고, 김광수 목사/장로가 1954년 8월 7일 합송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임하여 1956년 12월 30일까지 섬겼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로 이적한 정찬성은 충주순복음교회의 전신인 오순절 충주교회를 개척하였고, 1957년 2월 15일에는 기하성 본부의 후원으로 신탄진 강희천의 집을 매입하여 삼정순복음교회를 개척하였으나, 삼남 정형기 목사의 증언에 의하면, 왜정 때 신사참배 거부로 매를 맞았던 것이 병이되어 복막염으로 4월 25일에 소천 하였다. 소천일자는 김은석의 <성서통독메모>에 의존하였다. 정찬성 목사는 순교자 유족회에 등록되어있으며, 김상호 목사와 함께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회년 50인 인물'에도 올랐다.

슬하에 인자(목사 사모), 용기(공주 탄천순복음교회 목사), 형기(순복음예광교회 목사), 인순(집사)과 동순(일본 고베순복음교회 사모)을 두었다,

## 6) 김상호 목사(1922-2007.11.24)



장로교회에서 집사로 섬기다가 김은석을 만나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였다.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말씀을 배우던 중 김은석의 권유로 1949년 서울 필운동교회에서 강좌를

열었던 한국기독교성서신학교를 김은석과 함께 다녔다. 김상호는 이곳 교수들(힐, 성낙소, 최요한, 백낙중)의 다른 가르침은 다 좋게 받아드렸으나 성령론이 불만스러웠다. 6.25전쟁으로 신학교가 문을 닫자, 부강에 내려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성령론 연구를 계속하며 복음을 전하였다.

이 무렵 김은석은,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309쪽에 의하면, 1951년 늦은 가을에, 대전 선화동 2구 315번지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새로 개척한 상태였다. 아마 이 무렵 어느 날에 김은석 목사가 “김 형제, 교회를 받아 수고 좀 하게.”라고 김상호에게 부탁하였고, 김상호는 극구 사양하였으나 청원에 못이겨 부강교회 제2대 교역자로 부임하였다. 김은석의 성서통독

메모에서 김상호 목사의 이름은 단 한 차례만 등장하였다. “1957년 2월 23일(토)은... 아침식사 전은 김상호 목사와 담화함.” 그러나 김상호는 이미 그리스도의 교회를 탈퇴하여 광주에서 개최된



김상호 목사, 2007년 1월 6일 오산리금식기도원

1953년 4월 8일 하나님의 성회 창립총회 때 정찬성과 함께 (추측컨대 최요한도 함께, 김교인은 그보다 3-4년 후에) 이적하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회년 50인 인물'에 올랐다.

<순복음가족신문>에 의하면, 김상호는 그리스도신학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였고, 충청도 지역에 40여 교회를 개척하였다. 남원순복음교회, 청주순복음교회, 부산순복음교회를 담임하였으며, 여의도순복음교회 교무국장, 교육처장, 교무처장,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주임목사, 엘림복지타운 원목으로 시무하였다. 김상호 목사는 2007년 11월 24일 소천 하였다.

## 7) 맨발의 성자, 만교 최춘선 목사(1921-2001.09.08)

최춘선 목사는 김은석의 제자로서 김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 시무하였고, 사회사업가였으며, 소천 전 30여년을 맨발로 거리와 지하철에서 전도하다가 소천 하였다.

최춘선은 말년에 지하철역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비의 초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의 초대... 예수 십자가는 생명의 젖 줄기, 평화의 젖 줄기, 그래서 십자가 젖 줄기 하나, 교회 하나, 교단은 여러 개가 있을지라도 교회는 하나다!”



맨발의 성자, 만교 최춘선 목사(1921-2001.09.08)

### (1) 김은석 목사와의 관계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김찬영) 131쪽에 의하면, 최춘선은, 1949년 힐 요한 선교사 가족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 김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시무하고 있었다. 힐 요한도 1972년에 쓴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 약사”에서 이 무렵에 김은석의

영향으로 김포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점을 인정하였다. 1951년에는 김은석, 정찬성과 함께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의 조선기독교회를 조동(현 동량제일)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시켰다.

최춘선의 이름은 김은석의 성서통독메모(1953-58)에 14회 등장하였다. 최초의 언급은 1953년 8월 24일자로 되어 있다. 이 날 최춘선은 김은석, 이복춘, 이시봉과 함께 충북 충주시 남주동 2구 350번지 그리스도의 교회를 시무하는 정찬성 전도자를 상봉하였다. 1957년 6월 6일에는 송안성과 함께 김은석 목사의 대전 자택에 머무른 후 7일 아침에 서울로 올라갔다. 1957년 7월 11일(목) 오후에는 김은석이 경기도 김포군 양서면 송정리 만교 최춘선의 자택에 도착하여 저녁에 김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스가라 7-8장을 봉독하였다. 13일(토)에는 김은석과 함께 경기도 부천군 오정면 도당 원경선의 자택에 머물렀다. 1957년 8월 26일에는 편지를 받고 최춘선이 김은석의 대전 자택으로 내려왔는데, 김영원, 김영숙, 이종만, 설하운, 테일러, 박은병도 참석한 자리였다.



만교 최춘선 목사  
(1921-2001.09.08)

명단에도 최춘선의 이름이 들어 있다.

최춘선의 이름은 김은석의 통신 및 신화신학 성경연구회 명단에 빠짐없이 들어 있다. 김은석은 1958년 5월 5일에 집중강의 일정을 동료들과 학생들에게 통보하였는데, 이 통보를 받은 이들 가운데 최춘선이 포함되어 있다. 또 1958년 7월 10일부터 소년성경학과가, 8월 1일로 9월 10일까지는 집중성경공부가 있다는 통신자 명단에도 최춘선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김은석 목사가 1960년도에 연하장을 보낸 자들의 명단과 양녀 김명순의 혼인 청첩자 명단에도 최춘선의 이름이 들어 있다.

또 <목포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319쪽에 실린 김정만 목사의 증언에 의하면, 최춘선은 부강교회 김은석에게 쌀가마를 직접 가져다주기도 하였다. 이토록 최춘선 목사는 김은석 목사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였다.

## (2) 무소유와 희생의 삶

최춘선은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목회자였다. 어린아이들에게도 언제나 존댓말을 하였고,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등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실천하였다.

최춘선은 김포공항으로 들어가는 큰 길에서 인천 국도까지 수십만 평의 땅을 유산으로 받았던 거부였고, 자동차를 다섯 대나 소유하였었다. 그러나 6.25 직후 길에 떠도는 노숙자들과 거지들을 집으로 데려와 거두기 시작하였고, 국가나 단체의 보조 없이 고아들을 길러냈다. 또 유산으로 받은 땅을 신향민과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었다.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땅을 조금씩 떼어주고서 남은 건 단지 3천 평뿐이었다. 땅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믿었기에 등기도 하지 않았다. 그걸 알고 누군가 그 땅을 자기 앞으로 등기해 남은 땅마저도 다 빼앗겨 버렸지만 힘든 표정 한번 짓지 않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수백 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데리고 서른 번도 넘게 이사를 다녔다.

내일 아침 먹을 쌀만 남았을 때도 누가 와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 그마저도 퍼주었다. 아내가 “우리 아이들은 무엇으로 먹이나”고 걱정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고 기록되어 있다”면서 달랬다. 새 옷을 사다드리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실 때 다 떨어진 헌옷으로 바꿔 입고 들어오고, 심지어는 “바울아(아들) 너는 따뜻한 옷이 또 있지?”라고 말하며, 아들의 잠바들도 모두 나눠줬다.

최춘선 목사는 독립유공자였기 때문에 도장하나만 찍으면 증손자까지 4대가 학비지원을 받으며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었지만, 보상을 받기 위해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닐 뿐 아니라,

나라가 반쪽인데 그 돈을 받을 수 없다며 끝까지 도장을 찍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춘선은 5남매를 목사와 교수 등으로 길러냈다.

### (3)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은 일본 와세대 대학을 나와 5개 국어를 할 줄 아는 수재였고, 가가와 도요히코와 우치무라 간조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일본 유학시절 군사훈련을 거부하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만주로 가서 광복군의 섭외부장으로 활동하였다. 해방 전후에 김은석을 만나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공부하였으며, 김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추측컨대 20여 년 가깝게 고아들을 돌보다가 1970년 초 50세 무렵에 모든 사역을 접고 문서 선교와 노방전도에만 전념한 것 같다.

최춘선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데는 2003년부터 ‘팔복’ 프로젝트를 추진하던 김우현 감독이 맨발로 길거리 전도를 하는 할아버지 최춘선을 우연히 알게 되어 그분의 일상을 다큐로 만든 동영상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한 이후부터이다.

광복군 섭외부장을 지냈던 최춘선은 대한민국이 분단 상태에 있으므로 아직 완전한 독립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1970년 초 50세 무렵에 “남북통일이 되기 전엔 절대로 신발을 신지 않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는 지하철에서 젊은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 “미스코리아 유관순, Why Two Korea? 미스터코리아 안중근, Why Two Korea?” 이 외침은 유관순과 안중근과 같은 사람이 참 한국인이며, 그런 이들만 있다면, 왜 두 개의 한국이 있겠느냐는 의미였다고 한다.

아들 최바울 목사의 증언에 의하면, 최춘선은 아들의 결혼식 때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신발을 신었고, 버스기사에게 떠밀려 골반 뼈가 부서졌을 때도, 예수쟁이라는 핏박을 받았을 때도, 발바닥에 유리조각이 박혀 피가 흘렀을 때도 결코 전도를 멈추지 않았다. 최춘선은 2001년 9월 8일 80세의 일기로 소천하던 순간까지 30년을 넘게 맨발로 다니며 전도하였고, 소천하





던 바로 그 날도 1호선 수원행 열차에서 전도하던 중에 의자에 앉은 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며, 대전 현충원 제2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되었다.

### 8) 창현 함태영 목사(1914.5.24-1983.11.28)

창현 함태영은 부친 함봉표의 항일의병전투참가로 왜경에 쫓



창현 함태영 목사(1914.5.24-1983.11.28)

기고 옥고까지 치름으로써 가세가 기울고 몇 차례 이사를 다녀야했던 환경에서 청소년시절을 보냈다. 그는 20대 초반에 부친의 유훈, “生則義士 死則義鬼”(살아서는 항일의사가 되고, 죽어서는 항일의귀가 된다)에 따라 항일운동을 피하였고, 목사가 된 이후에는 “生則福音 死則麥粒”(살아서는 복음전도자가 되고, 죽어서는 밀알이 된다)의 신조로 도시보다는 농촌, 난민촌, 빈민촌에서 목회자로, 교육 사업가로, 신약성서교회 운동가로 일생을 헌신하였다.

함태영은 전남 장성에서 태어나 순천에서 부친이 세운 사립학교에서 초등학문을 배운 후 17세가 돼서야 비로소 보통학교를 마쳤다. 18살에 부산으로 건너가 고학으로 중학과정을 21살에 마쳤고, 이 기간에 공사장에서 미장, 조적, 조각, 설계 등을 배

위 건축기술자가 되었다. 같은 해 일본군징용을 피하여 만주에 머물다가 이듬해인 1936년 22세 때 담양선 철도 부설작업 한국인 조장을 맡았는데, 칼을 찬 일본인 조장이 한국인들을 멸시 함으로 대항하여 맞서다가 일본인 조장이 빼든 칼에 함태영이 턱에 부상을 입었고, 이를 방어하던 함태영의 썩이에 일본인이 맞아 죽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담양사건은 동아일보에 보도된 사건으로써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일본인들이 복수를 하려고 함으로 피신하여 신의주로 갔다. 이때 항일운동의 일환으로 학교동창 1명과 함께 압록강철교를 절단하려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1937년(23세)에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선천으로 옮겨 기독교인 정용옥을 만나 결혼하였고, 장모 이봉녀 권사의 권유로 예수님을 믿고 이듬해 24살 때 세례를 받았다. 1941년 27세 때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경찰서에 감금되었으나 탈출 후 만주에서 숨어 지내다가 1944년(30세)에 고향 순천에 혼자 내려와 몸을 숨겼다. 그러나 발각되어 투옥되었다가 8.15광복 때 석방되었다. 함태영은 곧바로 순천고등성경학교에 입학하였고, 장로교 해룡면교회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사재를 처분하여 전남 승주군 별량면에 장로교회를 개척하였다.

1947년(33세)에 순천성경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 마포구 도화동으로 온 가족이 이사하여 월남난민촌에 임시로 기거하면서 강순명(교역자회) 목사를 도와 천막학교에서 교육과 전도에 힘썼다. 이때 김은석의 가족은 아현동에 거주하였는데, 그의 양자 김성철과 함태영의 장자 함동진이 이 천막학교에서 함께 공부하였다. 이런 이유로 이듬해 10월 19일에 발생한 여순반란사건을 피할 수 있었다. 이 무렵 마포가 내려다보이는 도화동산에 대지를 마련하여 주택을 짓고 점포를 운영하면서 종친인 함태영(咸台永, 심계원 원장 및 대한민국 부통령 역임) 목사가 학장으로 재직한 조선신학교(현 한신대)에 입학하여 장로회신학교(현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2년간 공부하였다. 장로회신학교는 1947년에 조선신학교에서 공부하던 신학생 51명이 김재준 목

사의 신학입장에 반발하자 총회가 조선신학교에서 나온 학생들을 중심으로 새로 시작된 신학교이다. 장로교는 기존세력인 통합파에서 1951년에 고려파(고려신학교)와 1953년에 기장파(조선신학교)가 떨어져 나갔다.



함태영은 이 무렵에 북에서 월남한 장로교 재건파 신자 정희건을 만나 사귄 후 학업과 생업을 위해서 함께 나무젓가락 공장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두 사람은 함께 신약성서교회

운동에 매료되어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였고, 서울성서신학교(교장 힐 요한 선교사, 현 서울기독교대학교)에 편입학하여 1955년 3월 3일 제1회로 조국형, 김봉석, 성수경(성나소 목사의 아들), 김태수(60년대 한국성서신학교 교수역임), 김현숙(60년대 한국성서신학교 이사 역임), 이종운, 유현성, 정희건(교역자회 소속), 변승택, 이홍미, 최병식과 함께 졸업하였다.

함태영은 1950년(36세)에 6.25전쟁이 터지자 홀로 고향인 전남 승주군 외서면 장산리로 피신하였다가 공산주의자인 초등 학교 친구의 밀고로 붙잡혀 옥고를 치렀으나 선친과 형제들의 도움으로 몰래 풀려나 숨어 지냈고, 가족들은 서울 함락 2주 후에 별도로 피신하였으나 사모 정용옥이 승주군 해룡면으로 친정 식구들을 찾아 나섰다가 공산주의자들의 검문에 걸려 투옥되었다가 탈출 후에 가족이 모두 안전한 부산으로 피신하였다. 부산에서는 1951년 2월 9일 기독교신보사가 주관이 되어 조직된 기독교선무원으로 발탁되어 국방부정훈국 산하에 파견되어 군목으로 종군하였다.

함태영은 1951년 3월에 전남 광주시 방림동의 서병렬(徐炳

烈) 목사의 집으로 옮겨 거주하였는데, 이곳에서 이신(李信)을 만나 사귀게 되었다. 이신은 감리교신학교를 마치고 1950년에 전의 감리교회에서 목회하다가 6.25전쟁으로 고향 돌산에 피신하여 지내던 때였다.

광주 학동에 창틀까지 축조된 상태에서 6.25전쟁으로 중단된 큰 교회당 건물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각지에서 모여든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공부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김은석의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공부하던 전라지방 젊은이들과 통합하기에는 장소에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함태영은 1951년 5월에 광주 사직동공원 및 방송국 입구에 사재를 처분한 돈과 부친의 지원금과 영광의 임모 장로의 헌금으로 일본 적산가옥 2층을 매입하여 광주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고, 이 건물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강좌를 개설하였다. 김은석과 김태수의 가족들도 같은 건물에 입주하였다. 의술을 가진 함태영의 셋째 동생 함태중이 재정을 후원하였고, 김은석, 이신, 김태수 등이 교수로 섬겼다. 이 건물에 강순명 전도자가 1952년 7월 13일에 천혜 경로원을 설립하였다. 이때 화가 지망생이었던 이신은 받침에 헬라어로 '로고스' 글자를 삽입한 '메노라'(일곱 가지 등대) 문양과 교명을 새긴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신화신학 성경연구회) 현판을 제작하였다. 10여년 후 이신은 대전 한국 성서신학교(전 한성신학교)의 현판도 동일한 모양으로 제작하였다. 그리고 동년 1951년(37세)에 김은석의 집례로 이신, 최요한, 장주열(최요한의 동서), 김재순(김교인 장로의 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로 안수를 받았다. 또 함태영은 6.25전쟁 중에 통행의 제한을 받는 젊은 신약성서교회 전도자들을 위해서 중군당시 사귀었던 미8군 군목을 찾아가 통행중에 사인을 받아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도움을 주었다.

함태영은 동년(1951) 가을에 충남 논산군 부적면으로 이사하여 충곡리 그리스도의 교회와 신교리 그리스도의 교회(현 금성교회)를 개척하였다. 동년(1951)에 이신도 정찬성이 1951년 5월 15일에 부임하여 10월까지 제1대 목회자로 섬긴 함송리 그

리스도의 교회로 이주하여 광주에서 운영하던 신학교(신화신학성경연구회)를 이곳에 개설하였고, 김은석, 함태영, 이신이 교수로 수고하여 김확실, 정찬성 등이 배출되었고, 환원신학 잡지, <로고스>를 발행하여 전국 그리스도의 교회에 배포하였다.



함태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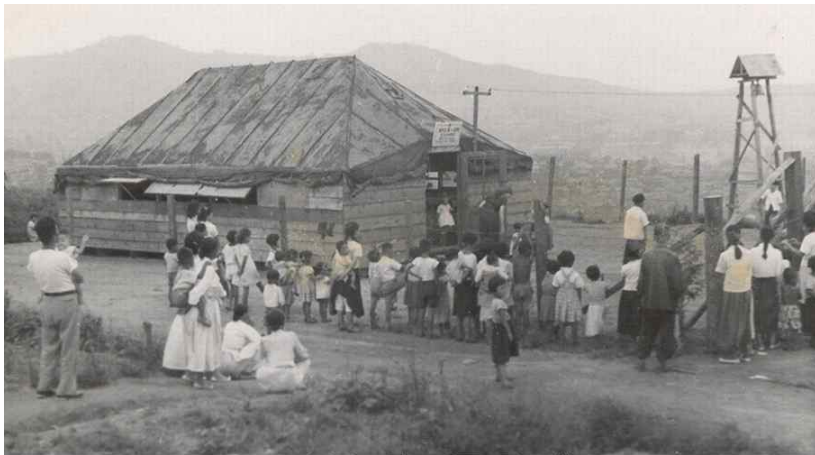
복음중학교 설립기념 사진, 1952년 11월 15일  
(중앙 함태영 목사, 좌측 이신 목사)

함태영은 이 건물에서 신교리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함태영은 1952년 11월 15일에 충남 논산군 부적면 신교리 마을회관을 빌려 복음공민중학교를 설립하였다. 함태영의 가족은 복음중학교 관리와 교사들의 식사제공문제로 거소를 충곡리 교회에서 신교리 교회로 옮겼다. 함태영의 셋째 동생 함태중은 운영후원자로, 막내 함태욱은 영어 강사로, 사모 정용옥은 교사들의 식사제공과 세탁 등으로 헌신하였다. 함태욱은 후일 서울 성서신학교를 거쳐 한국성서신학교를 나와 여러 교회들에서 목회하였다. 복음공민중학교는 후일에 창현의 후배 겸 제자인 이춘식 목사가 인수하여 대명중학교로 개명하였다.

함태영은 1953년(39세)에 부친 송암 함봉표 지사(음력 3월 24일)와 사모 정용옥(7월 13일)을 사별하였다. 함봉표 지사는 유럽에 속했으나 만아들 함태영의 목회활동을 물심양면으로 도왔으며, 사모 정용옥은 모친과 함께 함태영을 예수님께 인도하여 목회자가 되게 하였고 영양실조와 병고로 32세에 요절하기까지 헌신적으로 뒷바라지 하였다. 당시의 궁핍했던 생활을 함태영이 남긴 요약설교지가 각종 이면지, 즉 경리장부, 요금고지서, 영수증, 진단지, 켈린더, 전보지, 결혼청첩장 등이었던 것에서 엿볼 수 있다. 사모가 눈을 감는 날 함태영은 부여 귀암면 합송리 신학교에 가 있어서 임종을 보지 못했다. 사모는 장남

동진에게 “내가 죽은 후에 동생들을 잘 돌보고 아버지를 극진히 모셔라”고 유언으로 당부하였고, 고요히 찬송을 부르며 하늘 나라로 가셨다. 동년 1953년 8월 4일 힐 요한과 통역 최순국이 신교리교회와 복음중학교를 방문하였다. 이 시기에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와 복음중학교를 물질로 크게 후원하던 함태중이 중병으로 사경을 헤맸었고, 함태영은 경기도 광주군 분원리 소재 송실중학교의 교장과 교목을 맡아 이사하였다. 힐 요한은 이신과 함께 송실중학교를 찾아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함태영은 동년 11월에는 서울 마포구 도화동산의 주택을 김모 여전도사에게 기증하여 도원 그리스도의 교회의 출발점이 되게 하였다.



1960년경의 도원 그리스도의 교회.  
도원동은 마포구 도화동쪽으로 경사진 산비탈에 이루어진 동리였다.

1955년(41세) 3월 3일에 서울성서신학교(현 서울기독대학교)를 제1회로 졸업을 하였다. 이 무렵에 함태욱도 서울성서신학교에 입학하였다.

1957년(43세)에 전북 이리로 주거를 옮겨 교회개척장소를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곳이 없어, 주거지를 전주로 옮겨 금암동에 주택을 지었고, 인후동 반공포로 정착촌의 주택을 매입하여 전주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으며, 겸하여 정착촌 의무실을 개설하였다.

1958년(44세)에는 금암동의 주택을 매각하고, 전북 완산군 용진면 소양리(현 전주시 소재)에 대지 200평에 건평 100여 평의 건물을 매입하여 용진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고, 완제품 약종상을 차려 원광대학교에 다니던 장남 동진이 군입대할 때까지 운영케 하였다. 함태영은 자신보다 13세나 아래인 이신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주 초빙하여 부흥집회를 개최하고 침례를 베풀며 목회사역을 협의하였다.

1960년(46세)에 청주에서 양로원을 운영하며 교회를 개척하였다. 1962년(48세)에는 목회를 쉬며 시험을 받았다. 대전시 가오동 천변(川邊)에 판자로 움막을 짓고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시멘트블록 공장을 운영하며 노동에 시달렸고, 갓 제대한 동진이 작업을 도왔으나 경영이 부실하였다. 이 무렵 타 교단으로부터 유혹이 있었으나 물리치고 신앙노선을 지켰다.



1964년(50세)에 충북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와 남일면 방서리 그리스도의 교회를 담임하였다. 건축이 전문이므로 교회를 꾸미고 보수하는 일을 자주 하였다. 한 번은 교회의 지붕을 보수하다가 낙상하여 갈비뼈가 상하는 중상을 입기도 하였다.

1970년(56세) 1월 25일 장남 동진이 최윤권의 주례로 결혼하였고, 1974년(60세)에는 논산 대명중학교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설립자로서 공로표창과 황금메달을 부상으로 받았다.

1975년(61세)에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장자 동진의 집에서 이신, 구강서, 이종만, 조충연, 설하운, 함명덕, 임상규(이상 목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갑연을 가졌다.

1980년(66세)에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와 방서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의 목회를 마지막으로 노환(반신마비와 당뇨) 때문에 은퇴하였고, 1983년(69세) 11월 28일 충남 대전시 가오동

에서 소천 하였다.

창현 함태영(唱玄 咸泰英) 목사는 “生則福音 死則麥粒”(살아서는 복음전도자가 되고, 죽어서는 밀알이 된다)의 신조로 도시 보다는 농촌, 난민촌, 빈민촌 등지에서 목회자로, 교육 사업가로, 신약성서교회 운동가로 재물과 재능을 다 바쳐 헌신하였고, 남의 땅에 세운 시멘트 블록 움막과 낡은 찬송가와 성경책과 몇 권의 신학서적만을 남겼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07년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75주년 기념대회 때 함태영과 장자 함동진에게 환원상(메달)을 각각 수여하였다.

창현 함태영의 부친, 송암(松庵) 함봉표(咸鳳表)는 항일의병전투에 참가하여 전공을 세운 독립지사로서 일제의 핍박을 피하여 전남 승주군 외서면 장산리에 정착한 유림에 속하였으나 맏아들 함태영의 목회활동을 물심양면으로 도왔고, 사모 정용옥은 친정 모친과 함께 함태영을 예수님께 인도하여 목회자가 되게 하여 궁핍했던 시절 불평 없이 남편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하다가 영양실조와 병고로 32세에 요절하였다.



1937년, 정용옥 사모(좌), 이봉녀 장모(우)

함태영의 막내 동생 석비 함태욱(皙臂 咸泰昱) 목사는 서울성서신학교(현 서울기독교대학교)와 한국성서신학교(전 한성신학교)를 나와 창현 함태영 목사의 목회활동과 복음중학교에 기여하였고, 장남 함동수 전도자(교역자회)가 시무한 청주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고 동역하였다.

순동식 목사는 창현 함태영의 셋째 사위로서 복음중학교 출신이며, 한국성서신학교를 나와 대전과 홍성 등에서 목회활동을 하였다.

장산 함동진(長山 咸東振)은 함태영의 장자로 전북일보사 서무원, 시사통신 전북지사 무전사, 합동통신 전북지사 부무전사(副無電士) 등 주경야독으로 전주 공업 고등 기술학교 무선통신



학과를 졸업하고 원광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였다. 서울성서신학교(서울기독교대학교)와 한국성서신학교(대전)를 각각 중퇴하고, 서울기독교대학 통신신학을 나와 서울 응암동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개척교회 전도 활동을 하였고, 1970년대에 문서전도의 일환으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환원운동 본부'라는 이름으로 문서전도지를 저술하고, 서신회답도 하였으며, '신약교회'라는 연재물을 필경으로 작성하여 두 곳



함동진 아동문학가

교회의 주보에 제공하였다. 현재는 문인(시인, 아동문학가, 서예인, 한국문인협회 회원, 기독교문인협회 회원, 한국아동문학회 회원 등)으로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함동진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였다. 1991년 6월 11일(음력4월30일) <창현 함태영 목사 전기>를 작성하였고, 1993년 함태영 탄생 79주년에 수정 증보하여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 연구에 기여하였다.

### 9) 이신 목사/신학박사(1927.12.25-1981.12.17)

이신의 자녀들이 펴낸 <술리얼리즘과 영(靈)의 신학>에 의하면, 이신(李信, 1927-1981)은 전남 돌산 출신으로 그림그리기를 좋아하여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부산 초량상업학교(부산상고)를 나와 은행원으로 일하면서도 예술에 대한 탐구는 계속되었고, 이로 인해서 얻어진 '근원적인 것'에 대한 갈구는 마침내 그로 하여금 신학의 길을 걷게 하였다. 1945년에 결혼한 이신은 이듬해 1946년에 미술도구를 팔아 마련한 돈으로 감리교신학교에 입학하였고 1950년에 졸업하였다.



이신 목사/신학박사(1927.12.25-1981.12.17)

졸업 후 충남 전의에 전도사로 부임하였으나 6·25전쟁으로 고향에 피신했다가 이듬해 1951년 봄에 김은석이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공부와 집회에 참석하여 성령의 역사에 감동을 받았고, 신약성서교회로 돌아가자는 신약성서교회운동과 일치운동에 공감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였다.

1951년 늦봄에 광주에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교역자회가 조직되어 김은석이 회장으로 뽑혔고, 목사안수식도 있었다. 이때 이신도 장주열, 최요한, 김재순, 함태영, 김동열과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로 안수를 받았다. 동년 5월에 함태영이 광주 사직동공원 및 방송국 입구에 있던 일본 적산가옥 2층을 매입



하여 광주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신화신학 성경연구회)를 개교하였는데, 이때 이신은 교수로 섬기는 일을 처음

시작하였다. 또 이때 이신은 받침에 헬라어로 ‘로고스’ 글자를 삽입한 ‘메노라’(일곱 가지 등대) 문양과 교명을 새긴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 현판을 제작하였다. 10여년 후 이신은 대전 가장동의 한국성서신학교의 현판도 동일한 문양으로 제작하였다.

1951년 가을에 함태영목사가 충남 논산군 부적면으로 이사하여 충곡리 그리스도의 교회와 신교리 그리스도의 교회(현 금성교회)를 개척하였고, 이신 목사도 정찬성이 1951년 5월 15일 부임하여 10월까지 제1대 목회자로 섬긴 합송리 그리스도의 교회로 이주하여 광주에서 운영하던 신학교를 옮겨와 김은석, 함태영과 함께 운영하였고, 환원신학 잡지, <로고스>를 발행하여 전국 그리스도의 교회에 배포하였다. 이 무렵에 이름을 이만수(李萬修)에서 이신(李信)으로 고쳤다.

이신이 부여 합송리 교회에서 목회할 때, 타 교단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특별한 외적 역사, 즉 사도들과 같은 특정인에게 주어졌던 신유, 예언, 방언 말함과 같은 특별한 은사들이 신약성서의 완성과 신약교회창립이후에도 여전히 특정인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끊겼는가에 대한 견해차이,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세례의 본질이 신유, 예언, 방언과 같은 특별한 은사인가, 아니면 구원의 약속을 보증하고 인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동거하심인가를 놓고 목회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다. 이신을 포함하여 김은석을 추종하던 많은 이들은 전자, 즉 특별한 은사가 지속되고 있다는 성령론을 공유하였으나 선교사들과 성낙소를 비롯한 일부 목회자들은 후자 즉 특별한 은사가 끊겼다는 정통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성령론을 공유하였다. 이 문제는 부여 신학교에서만 아니라, 서울 신학교에서도 지속되었다.

이 논쟁으로 인해서 정찬성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탈퇴하여, 1953년 4월 8일 광주에서 개최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창립총회 때, 부강 교회를 잠시 맡았던 김상호와 함께 (김교인 장로는 그보다 3-4년 후에) 이적하여 1955년 4월 27일에 목사 안수를 받고 기하성의 제1호 목사가 되었다. 이 무렵에 이신 목사도 부여 합송리를 떠났고, 김광수 목사/장로가 1954년 8월 7일 합송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임하여 1956년 12월 30일까지 섬겼다. 최요한 목사도 이때 그리스도의 교회를 떠나 1953년 초부터 유달 교회(순복음)를 개척하여 시무하였고, 1957년 9월

까지 목포 복음교회를 담임하다가 1957년 10월 1일에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함으로써 다시 환원하였다. 반면에 1960년대 중반에 최요한의 동생 최요열(순복음신학교 제1회 졸업)은 순복음교회로 다시 넘어갔다.

이런 일련의 문제로 부여 교회를 사임한 이신은 전남 영암 상월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다시 상경하여 힐 선교사를 만나 신학교를 도와 일하면서 동역하였다. 이신은 1953년 힐과 함께 함태영이 교장 겸 교목을 맡아 옮겨간 경기도 광주분원 숭실중학교를 격려차 방문하였다. 함태영은 동년 7월 13일에 사모 정용옥과 사별한 후 자신이 설립한 충남 논산 신교리 소재 교회와 복음중학교를 떠나 이곳으로 옮겨왔다.

그 후 이신은 충북 괴산에 있는 수리교회로 옮겨 예배당을 건축하였다. 이 무렵의 상황이 김은석의 성서통독메모(1953-58)에 나온다. 이신의 이름은 1954년에 2회, 57년에 11회 나오는데, 이신은 김은석과 함께 목포 유달 교회(순복음)와 본인이 시무하는 수리교회에서 신화신학 성경연구회 강좌를 열어 가르치고 있었다. 이신과 김은석은 1954년 6월 14일부터 최요한의 목포 유달 교회(순복음) 예배당에 ‘그리스도의 교회 성경연구처’라는 현판을 붙여놓고 백일성경연구집회를 시작하였는데, 이틀 뒤 16일(수) 이신의 부친이 별세하였다. 1955년 2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수리교회에서 백일성경연구집회가 있었고, 1957년에 8-9월에도 목포 유달 교회(순복음)와 수리교회에서 가르쳤다. 이신과 김은석 등의 헌신적인 노력과 우정으로 9월 집회 후에 최요한 목사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다시 환원하였다.

최요한 목사는 1946년 2월초에 김은석을 만난 이후로 1947년 7월에 영광 무영교회를 환원시키는 등, 전남 함평군 손불면 신흥리에 신흥 그리스도의 교회, 10월초에 전남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에 석성(청학동) 그리스도의 교회(손불면 주포리에 세웠던 것을 이전), 1947년 1월초에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에 평산 그리스도의 교회(1951년 음력 8월 13일부터 거주한 박점상은 자신이 건축하여 개척하였다고 증언함), 1948년 3월초에

광주 사동 그리스도의 교회, 1950년 전북 고창에 고창 그리스도의 교회, 1952년 1월초에 전남 목포시 남교동에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고, 1951년 늦봄에 광주에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교역자회로부터 동서 장주열, 김재순, 함태영, 이신, 김동열과 함께 목사 안수까지 받았던 최요한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1953년 초에 목포시에 유달 교회(순복음)를 개척하였고, 1955년 9월 25일에는 목포 복음교회를 담임하였다. 그러던 최요한 목사는 1957년 8-9월에 김은석, 이신 등이 인도하는 집회들을 통해서 복귀하기로 마음을 확정하고 10월 1일 전남 목포시 대안동 11번지에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최요한 목사가 돌아와 오늘의 목포교회로 발전시킨 데에는 이신과 김은석 등의 헌신적인 노력과 우정과 신념과 확신의 공유(공감)가 있어서 가능하였을 것이다.

또 이신은 1957-58년에 1951년 광주에서 만나 교제한 함태영이 전주에 개척한 전주 그리스도의 교회와 용진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부흥집회를 열고 침례를 베풀었다. 함태영의 장손 함동진도 1958년 6월에 이신으로부터 침례를 받았다.

이신은 1959년과 60년 전반기에 부산문화방송을 통해서 매일 밤 10시에 방송설교를 내보냈다. 이때 행한 설교들을 모아 기독교문사를 통해서 1980년에 펴낸 책이, <산다는 것, 믿는다는 것>이다. 1959년 초에 부산에서 버트 엘리스 선교사 부부와 조세걸키 선교사 부부가 한국방송밋손(Korean Broadcasting Mission)을 설립하고 부산문화방송(HLKU)에서 시간을 임대하여 매일 하루 두 번, 일주일에 세 시간씩 방송하였다. 이 방송의 설교자로 이신은 1958년 12월에 테일러 부부, 래쉬 부부, 여러 한국인 사역자들의 추천을 받아 채용되었다.

한편 전 부인 에스더 비반즈(Esther Beavans)의 가출로 1955년 한국을 떠났던 힐 요한은 선교사 제인 키네티와 재혼 후 1959년 여름에 부산으로 입국하였다. 두 달간 알렉스 빌즈 가정에서 머물다가 대전으로 올라와 김은석, 심영진, 김태수 등과 함께 그해 12월 1일에 대전성서신학교를 지금의 대전 그리

스도의 교회당에서 20여명의 학생으로 시작하였다. 이듬해인 1960년에 이신이 부산에서 교수진에 합류하였고, 교통편을 고려하여 학교를 대전역에서 가까운 선화교회로 옮겼다.



1927년에 설립된 밴더빌트대학교 그리스도의 교회(제자들) 신학원, 밴더빌트 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하는 학생들에게 주거와 재정지원 및 교단관련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단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신학원이다. 신학원의 첫 주거지가 1942년에 매입되었으므로 이신 목사도 이곳에 거주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신은 이후 서울 돈암동 교회에 부임하여 목회하였고, 1965년 9월부터는 대한기독교신학교(현 서울기독교대학교)에서 조직신학과 희랍어를 가르쳤으며, 교

회를 사임하고 1966년 9월에 마흔 살의 늦은 나이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림을 그려 학비를 조달하고, 고국에 있는 가족의 생계까지 짊어지는 고향 끝에 1967년 5월에 네브라스카(Nebraska) 기독교대학을 졸업하고, 8월에 드레이크(Drake)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였다. 드레이크대학교를 한 해 동안 다니다가 1968년 9월 밴더빌트(Vanderbilt)대학교 신학대학원으로 옮겨 1969년 12월에 신학석사학위, 1971년 5월에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하였다.

귀국직후 삼선동의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임했다가 사임하고 자신이 1958년 6월에 전주 용진교회 부흥회 때 침례를 베푼 창현 함태영의 장손 함동진과 함께 종로2가 한국기원 건물 강당에서 서울기독교교회를 개척하여 예배를 드리다가 혜화동으로 옮겨 1973년까지 지속시켰다. 이때 함동진은 주보발행과 기타 문건을 필경 발행하였다. 이신은 또 월 2회식 회원들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주제를 발표하고 토의를 하는 ‘포이에티스

트'라는 학술모임을 결성하고 이끌었다. 이 모임에 함동진(서기, 일신제강주식회사), 강성기(효광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 광주 및 부여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에서 수학), 김소영(시인, 상록서점 운영), 김응삼(호남정유주식회사 훈련과장), 김태수(그리스도의 교회 목사), 방하식(홍제 중앙 그리스도의 교회 장로, 중앙일보 사 조사부 부장, 미국이민), 안광남(철학인), 안동수(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최승(서울영어학원장), 윤기열(그리스도의 교회 목사, 후일 기독교대한복음교회로 이적), 김송자(그리스도의 교회 목사, 미국이민) 등이 참석하였다.

1975년 여름 명륜동 산동네의 무허가 집이 시에 의해서 헐리자 수리교회로 내려가 1978년까지 목회하다가 서울 원효로의 친척집에 머물렀고, 1981년 열악한 식사와 주거 환경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설교, 강의, 번역 등의 일을 강행하다가 병을 얻어 12월 17일 오산리 순복음 기도원에서 소천 하였다.

이신은 1951년 이후 줄곧 1950년대에 김은석의 신화신학 성경연구회, 1960년대 전반기에 한국성서신학교(전 한성신학교)와 대한기독교신학교(현 서울기독교대학교)에서 가르쳤고, 목회와 방송선교활동을 겸하였다.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이후에는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강사(문화신학), 중앙신학교(현 강남대학교, 윤리학), 그리스도대학교(히브리어 및 신학), 대한기독교신학교(현 서울기독교대학교, 조직신학), 순복음신학교 등에서 강의하였고, 윤성범의 '한국종교사학회'의 연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저서로는 방송설교를 묶어 만든 <산다는 것, 믿는다는 것>이 있고, 번역서로는 니콜라이 베르자이에프(N. Berdyaev)의 <노예냐 자유냐>와 소천 후 변선훈 박사가 번역을 마무리 짓고 출판한 베르자이에프의 <인간의 운명>이 있으며, 유고집으로는 <이신의 술리어리즘과 영의 신학>과 <이신 시집: 돌의 소리>가 있다. 이밖에도 1974년 3월 25일자에 쓴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선언," 1980년에 출판된 <기독교대백과사전>에 실린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환원운동의 전개," 순복음교회 청년 선교지 <카리스마>에 기고한 "카리스마적 신학," "삶과 죽



단어를 먼저 적어놓고 시작하였다고 전한다.

음,” “이단이란 무엇인가” 등이 있다. 공직으로는 1972년에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 회장, 1979년 한국기독교신학회 회장을 각각 역임하였다.

이신 목사의 업적은 한국적 그리스도의 교회의 설립, 곧 성서가 가르치는 신앙과 교회의 원형대를 회복하여 한국적 토착화 그리스도의 교회를 만들려고 한데 있다. 그는 설교 때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논하였고, 종이에 무언가를 끄적일 때면 항상 “근본”이라는

#### 10) 김광수 목사/장로(1922.4.20~현재)



김광수 목사/장로

김광수 목사/장로는 1922년 4월 20일 출생하여 평양에서 10리 정도 떨어진 남정리 장로교회를 주일학교 때부터 출석하였다.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사범대학교에 재학하던 중에 부친이 운영하던 포목점에 불이나 전소되는 불운을 겪었다. 김광수는 이때 소명을 받고, 복음을 위하여 생애를 바치겠다는 결심으로 사범대학을 포기하고 신학교에 입학하였다.

김광수는 처가인 평안북도 강계군 만포읍에 있었던 만포장로 교회에 출석할 당시 23세의 나이로 시위원회의 파송으로 초등



학교를 관리 감독하였으나 공산당으로부터 숙청대상으로 지목되어 1946년 6월에 서울로 남하하여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산 1번지에 재건교회를 세워 시무하던 중에 성낙소 목사를 알게 되었고, 1948년 11월 성낙소 목사에게 한강에서 침례를 받고 도화동 개척교회를 1949년 11월 6일에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시켰다. 환원 후부터 피난 때인 1950년 6월 25일까지 도화동 그리스도의 교회를 시무하였다.

성낙소 목사를 만난 1948년에 한국기독교성서신학교에 입학하여 힐 요한과 성낙소 목사로부터 교육을 받았으며 1951년 졸업하였다. 입학 초기 한국기독교성서신학교의 강좌는 연지동 힐 요한 선교사의 자택에 시작되었다. 학생 수가 늘면서 곧 필운동 교회로 옮겼고, 6.25전쟁으로 중단되었다가 1950년 11월에 서울 장충동의 임대건물에서 속개되었다. 그러나 중공군의 전쟁개입으로 다시 중단되었다가 1951년 후반기에 송월동에서 속개되었다. 이때 부강교회 김은석 목사, 김상호 목사, 광주의 강순명 목사도 별과 속성과정에 다녔다.

김광수는 6.25전쟁 때 부산으로 피신하였다가 제주도로 옮겨가 그리스도의 교회 출신 피난민들을 찾아 심방하고 천막을 얻어 정희진, 김진영 전도사와 함께 1951년 2월경 제주시 삼도리 해변가에 제주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여 1951년 10월 28



제주 그리스도의 교회 주일학교 야외예배기념  
1951년 6월 24일

일까지 담임하였다(수세자 12명). 이후 부산으로 나와서 부산시 동구 수정동 대지공원에 천막을 얻어 치고 1952년 2월 20일 수정동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여 시



수정동 그리스도의 교회  
부산시 동구 수정동 대지공원, 1952년 2월 20일 개척



그리스도의 교회, 김광수 목사 장립 기념, 1952년 9월 13일

무하면서(수세자 72명) 1953년 9월 13일 목사 안수를 받았다.

1952년 봄에 일본 이바라키 국립대학의 캐논이 내한하여 부산에서 공중예배 중에 악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한 후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는 협의회(유악기)와 교역자회(무악기)로 분열되었다. 이때 동석기의 영향으로 이흥식, 김진영, 정희건, 김광수, 강

순명이 교역자회 측에 섰고, 함태영이 세운 광주 교회가 1952년 후임자 강순명 때, 합송리 교회가 1954년 이신의 후임자 김광수 때 교역자회로 돌아섰다. 김광수가 세운 수정동 교회도 1954년 7월 20일 초량교회(동석기 목사의 직제자인 이흥식 장로시무)와 통합하여 부산 중앙 그리스도의 교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교역자회로 넘어갔다.

통합 후 교회를 사임한 김광수는 1954년 8월 7일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송리 3구 마을 합송 그리스도의 교회에 이신의 후임으로 부임하였다. 부임 첫날 비가 내려 교회당이 무너져 내렸다. 돈을 모금하여 건축하고, 중등과정인 성실고등공민학교를

열어 불우한 학생들 교육에도 힘썼다. 이 학교 출신 가운데 5명이 목회자가 되었다. 김광수는 합송교회를 1956년 12월 30일까지 섬겼다.



김 광 수 는 1957년 2월 14일 부산 중앙 그리스도의 교회에 재부임하여 1963년 10월 6일 사임할 때까지, 부산시 중구 영주동 621번지 여관이 있던 곳을

구입하여 교회를 이전시켰고, 전임자 박경동 전도자와 기독교 세계봉사회 합동판매점 총무였던 김춘희가 전쟁미망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세운 승리모자원의 이사장을 1958년부터 수년간 역임하였고(수세자 105명), 1959년 부산 진구 연지동 301번지에 대지 1,501평을 구입하고 원사를 신축하여 1960년 5월 5일 총 23세대 87명을 수용하였다(원장 김춘희). 이곳에서 자란 사람들 가운데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들도 많다. 또 모자원을 기초로 1962년 7월 22일 연지동 성지 그리스도를 개척하여 1966년 11월 27일까지 시무하였다.

1967년 5월 8일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강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맡아 1968년 12월 10일까지 2년간 담임(그리스도신학대학 교목)하였고, 성경통신대학도 시작하였다. 목회기간동안에 침례를 베푼 사람이 350여명이 된다. 그러나 4남3녀라는 대식구를 거느린 탓에 자녀들 교육문제로 목회를 그만두고 울산에서 현대기계설치공업주식회사를 차려 사업하던 차에 임낙훈 목사가 시무하던 서울 내수동 교회에서 1979년 6월 24일 장로로 임직하였고, 사업에도 성공을 거두었으며, 큰 아들은 서울대학

교와 충남대학교를 거쳐 농학박사가 되었다. 말년에는 동대전 그리스도의 교회(교역자회)에 출석하면서 교회를 도왔다.

### 11) 김정만 목사(1927.5.20- )



김정만 목사

김정만 목사는 스스로를 정찬성과 김은석의 제자라고 말한다. 그의 이름은 김은석의 성서통독메모(1953-58)에 2회 나온다. 김정만은 1957년 11월 19일에 지철희의 결혼식을 위해서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까지 김은

석, 지철희와 함께 갔다. 이듬해 1958년 5월 5일 김은석 목사는 집중강의 일정을 통보하였는데, 김정만은 통보자 명단에 포함되었다.

김정만은 부강 신화신학 성경연구회 초기에 공부하였고, 정찬성 목사로부터 침례를 받았다. 김정만은 충북 증원이 고향이다. 1945년 12월 하순경에 정찬성 목사가 시무하는 이웃마을 반능교회에 김은석 목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였는데, 말씀에 취해 큰 은혜를 받았다. 부흥회 때 침례식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침례를 주면서 자신에게만 주지 않자, 이를 방관치 않고 간청하였다. 이에 김은석과 정찬성은 김정만을 넷가로 데려가 김은석이 위해서 기도하고, 정찬성은 입은 옷 그대로 물속에 들어가 침례를 베풀어 주었다. 침례를 받고 나니 너무 기뻛고, 추운 겨울이었는데도 옷이 금세 말랐다고 한다.

1946년 반능교회를 섬기던 중에 담임 정찬성의 권유로 부강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공부하였다. 3개월 후 정찬성이 김정만에게 교회를 맡기고 사임하자, 교회를 맡아 일하면서 성경공부를 위해 반능과 부강을 오갔다. 반능에서 부강까지는 80킬로

미터나 되는 먼 거리였지만, 월요일 새벽예배를 마친 다음 출발해서 저녁까지 걸어서 부강에 도착하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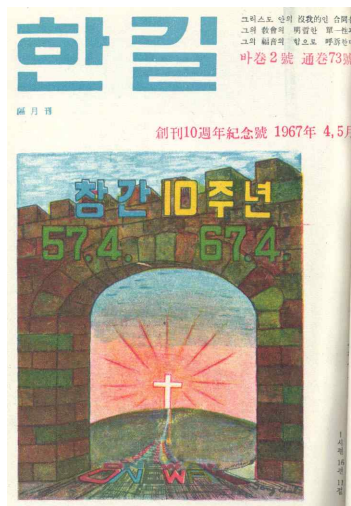
김정만은 1946년 가을 정찬성, 김은석 두 목사들과 함께 서울 필운동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성낙소, 최상현이 교수로 있던 이곳 신학교에 성령론에 관한 논쟁이 있음을 직접 목격하였다.

어느 날 저녁은 너무 추었던지 다른 사람들은 오지 않고 김정만 혼자만 부강에 도착하였다. 부강에 도착하여 평상시처럼 저녁 예배를 드린 후 식사시간이 되었지만 먹을 것이 없자, 김은석은 소금물이라도 끓여오라고 했다. 그 날 저녁은 소금물을 놓고 감사기도를 드린 후 마시는 것으로 식사를 대신하였고, 그 다음날도 새벽예배를 드린 후 아침식사로 간밤에 마시다 남은 소금물로 대신하였다. 그런데 밖에서 배달부가 왔다는 소리가 났고, 나가보니 최춘성이 쌀 한 가마를 가지고 와서는 하나님 형님네 갖다 드리라고 했다면서 놓고 갔다. 최춘성이 돌아가자마자 김은석은 쌀을 반 가마씩 나누는 후에 “반 가마는 내가 먹고 반 가마는 김형제가 가져가게.” 하면서 주었다. 그 때 김정만은 “도대체 세상에 이런 분이 또 어디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스승을 더욱 잘 모셔야겠다고 결심하였다고 한다.

그 후 충주교회에 부임하여 열심히 전도했더니 얼마 되지 않아 4-5백 명이 모이는 교회로 발전하였다. 김정만은 그 교회를 스승인 정찬성에게 넘겨주고, 사모의 친정이 있던 (충북 청원군 북이면) 송정리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여 1954년에 예배당을 짓고 헌당예배를 드렸다. 그때 김은석이 설교를 위해 참석했는데, 큰 딸 순명이 우니까 얼른 안아주었는데, 그만 어린 딸이 실례를 하여 예복이 적고 말았다. 그러나 김은석은 웃도 갈아입지 않은 채 그대로 입고 설교하시고 돌아갔다.

그 후 (충북 청원군 남일면) 황청리(김광희 집사) 교회로 옮겨갔다가 다시 반능교회로 옮겼는데, 폐병을 얻어 생명을 부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자 월간 한길사(1959)는 김정만 형제가 죽었다고 부고하였다. 그러나 김정만은 기도로 고침 받고 열성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그 결과 원근 각처에서 교인들이 모여

들어 격주로 충북 각지를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였고, 교회들도 뜻을 같이 하였다.



김정만 목사가 폐병만기로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힐 요한 선교사가 병문안으로 찾아와 약을 가져다주기도 하였다. 김정만은 최후의 수단으로 항상 기도하던 음성 고사리봉을 찾아 하나님께 매달렸다. 일주일이 지나자, 당시 눈이 내려 쌓였었는데, 김정만이 있던 곳은 눈이 녹아있었고, 앉았던 자리의 소나무는 뽑혀 있었다. 그만큼 혼신을 다하여 기도했던 것이다. 그리고 몸이 가볍고 상쾌해져 집에 내려와 보니 씻은 듯

이 병이 낳아있었다.

그 후 충북 중원군(현 충주시) 신이면 (화석리 방축골 교회)에 개척을 하고, 다시 반농교회로 왔다가 1968년에 (충북 괴산군 불정면 삼방리) 갓돈 교회(현 삼방교회)를 개척하였는데, 전주민들이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그들 가운데 김정례 집사와 지재성 집사는 갓돈교회를 이루는 기둥이 되었다.

1971년에 강원도 원주교회를 개척하고, 1973년에 서울 상계동 희망촌 교회로 부임하였다가 1981년 12월 이신이 소천하던 때에 다시 소생하기 어려운 중병을 얻어 연세대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은 고쳐주었고 오늘의 상계 그리스도의 교회 자리를 매입하는 역사를 체험케 하셨다. 김정만은 12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1993년 이 상계동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은퇴하였다.

목회자로서 김정만은 김은석, 정찬성을 스승목사로 모셨고, 김재순, 최요한, 심영진, 이신, 김상호, 이원로(노), 조길재, 지철희, 이재석, 홍승만(이상 목사), 김교인, 이학재, 김길홍, 조춘식, 박오복(이상 장로), 박양순, 최돌연, 김광희, 박정희, 김옥

수, 이희, 김정례, 지재성, 정현매, 권영신(이상 집사) 등을 잇을 수 없는 동료들로 기억하였다.

김정만 목사는 3남1녀를 두었으나 가난하여 제대로 돌보지 못하였다. 한 때는 자녀들을 고아원에 맡기기도 하였다. 목회 중에 성령님의 역사도 많았다. 자만할까 봐 거뒤틀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였다. 교회를 핍박하던 동네 강패를 회개시키기도 하였다. 쌀이건 보리건 들어오면 신도들에게 나눠줬다. 새끼 돼지를 나눠주며 교인들이 살아갈 방안을 제공하기도 했다. 김정만 목사는 안락한 삶을 거부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었지만, 신약성서교회 회복에 힘썼다. 성서에 없는 것은 결코 따르지 않았다. 그 단적인 예가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권사를 세우지 아니한 것이었다.

## 12) 장주열 목사(1923.5.4-1983.12.18)

장주열은 최요한 목사의 큰 동서로 불교가정에서 자랐으나, 결혼하기 위해서 선을 본 여자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혼을



뒷줄 힐 선교사 좌측 장주열 목사, 우측 김찬명 목사(통역)

할 수 없다가  
에 그 여자와  
결혼할 욕심으  
로 예수를 믿  
겠다고 약속하  
였다. 장주열은  
약속대로 전남  
함평군 엄다면  
영흥리 영흥교  
회에서 학습세  
례를 받고 김

순례와 혼인을 하였다.

1946년 1월에 전남지방을 순회하며 부흥회를 인도하던 김은석에게 큰 은혜를 받고, 영흥교회 장로를 설득하여 1946년 2월

에 영흥교회에서 김은석이 인도하는 부흥회를 갖도록 하였으며, 손아래 동서인 최요한과 처제 김정녀를 그 부흥회에 초청하였다. 그 부흥회에서 최요한과 사모 김정녀, 장주열과 사모 김순례는 교우들과 함께 큰 은혜를 받았다. 그로 인해 일주일 하려 했던 부흥회가 열흘로 연장되었다.

이후 장주열은 최요한이 전남 함평군 손불면 신흥리에서 신흥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할 때 직접 교회당을 지었고, 10여리 떨어진 곳에서 신흥교회를 걸어 다니며 봉사하였다.

장주열은 동서 최요한, 함태영, 김재순과 함께 광주와 목포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공부하였고, 1951년 늦봄에 광주에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교역자회로부터 김은석의 주례로 최요한, 김재순, 함태영, 이신, 김동열과 함께 목사안수를 받았다.

장주열이 충북 괴산군 소수면 수리교회에 부임하여 목회할 때 아들 장복남이 폭격을 맞아 위급한 상태였는데도, 기도하고 교회에 뛰어 놓고 전도를 나갔으며, 15일이 지나자 깨끗하게 치유되었고, 주일 날 성만찬을 하려고 잔에 물을 부으면 곧 예수님의 피같이 되었다고 김순례 사모는 회고하였다. 또 공산군에 잡혀 인민재판 중에도 몇 번이고 풀려났으며, 부산에서 성령대 부흥회를 인도할 때에는 조용기 목사까지도 장주열의 안수를 받았다고 김순례 사모는 회고하였다.

이후의 행적을 보면, 그는 1958년 5월 5일에 김은석 목사로부터 집중강의 일정을 통보받았고, 1961년 8월 17일 부강교회에서 '신약교회로의 환원'이란 주제로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가 개최되었을 때 참석하였으며, 60년대 중반에 한국성서신학교에서 개최된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에도 참석하였다. 1961년 3월 19일에는 힐 요한(통역 김찬영)을 초청하여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 내천동 706번지에 소재한 안양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침례식을 거행하였고, 이듬해인 1962년에는 안양교회 예배당을 건축하였다.

장주열 목사는 청주교회, 수원교회, 안양교회 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1983년 소천 하였다. 자녀로는 복남, 성순, 성례, 성



님이 있다.

### 13) 최요한(용환) 목사(1923.01.20-1998.03.28)



최요한(용환) 목사(1923.01.20-1998.03.28)

최요한은 전남 함평군 대동면 용성리에서 장로교인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고종황제시절부터 친가와 외가 모두가 3대에 걸쳐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다. 1944년 1월 20일 역시 장로교인인 김정녀와 목포장로교회에서 결혼하였다. 세례교인이었지만, 1947년 7월 중에 전남 영광지역을 순회하던 중에 침례가 성서적임을 깨닫고 김은석 목사에게 침수세례를 받았다.

#### (1) 자생적 신약성서교회 활동

최요한은 재건파와 고려파 신앙과 맥이 같이 하였다. 최요한이 김은석을 처음 만난 것은 큰 동서인 전남 함평군 엽다면 영흥장로교회 장주열 집사가 우연히 김은석의 순회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큰 은혜를 받았고, 김은석을 초청하여 부흥회를 열자고 교회 장로를 설득하여, 그 날짜를 1946년 2월초로 잡았다. 장주열은 부인과 함께 은혜를 사모하는 손아래 동서 최요한 부부를 찾아가 부흥회 소식을 알리고 참석을 권유하였다.

부흥회 다섯째 날에 진리의 영이 최요한에게 임하였다.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370쪽에 의하면, 최요한은 이날 자기 마음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분쟁은 죄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니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강한 음성을 듣는 것 같았다고 한다. 참석한 100여

명의 신도들에게도 큰 은혜가 임하였다. 그로 인해 일주일 하려 했던 부흥회가 열흘로 연장되었다. 이 부흥회 기간에 최요한, 김정녀 부부는 김은석을 집으로 초청하여 성경강의를 들었다.

그로부터 2개월 후 최요한은 전남 함평군 손불면 신흥리 자택에 ‘신흥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간판을 내걸고 교회를 개척하였다.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는 최요한이 김은석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자택에서 ‘신흥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한 것은 김은석의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보다 7개월이나 앞서는 것이고, 충청이남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자생적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김은석이 김교인 장로의 초청으로 부강 오데골 장로교회에 부임한 것은 해방직후인 1945년 가을이었다는 전통적인 주장에 반해, 김규상 목사의 증언에 의존하여 그보다 일 년이 늦은 1946년 가을이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최요한은 1946년 2월 영흥장로교회 부흥회 때 혹은 자신의 집에 성경을 공부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듣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김정만 목사는 1945년 12월 하순경에 정찬성과 김은석으로부터 침례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김정만은 1946년 반농교회를 섬기던 중에 담임 정찬성의 권유로 부강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공부하였고, 1946년 가을에는 정찬성, 김은석 두 목사들과 함께 서울 필운동교회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가르치는 성낙소, 최상현와 성령론에 관한 논쟁이 있음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하였다. 이 증언은 김은석이 1945년 가을에 부강장로교회에 부임하였다가 1946년 어느 때에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다는 증거가 된다. 또 박점상 목사는 1946년에 김은석과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정찬성 목사는 1946년에 공부한 신화신학 성경연구회 제1기생으로 알려져 있다. 정찬성은 김은석에게 오데골 장로교회를 나온 후 새로 시작한 부강교회의 이름을 로마서 16장 16절을 들어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로 부를 것을 권하였다는 김정만 목사의 증언이 있으나 명확하지는 않다.

이러한 자료들은 김은석이 부강장로교회에 부임한 것이 1945년 가을이었고,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가 1946년 어느 시점에 시작되었다는 점을 부정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만일 목포교회의 주장처럼, 1946년에 시작된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와 신흥 그리스도의 교회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존재여부를, 다만 몇 개월간이라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된 교회들이라면, 성낙소에 의해서 1927년 충남 부여군 세도면 화수리 2구 290번지 사랑채에 세워진 ‘기독교교회’(基督之敎會)에 이어 충청이남 지역에 자생적으로 생긴 신약성서교회 운동이 될 것이다.

최요한은 1946년 4월에 시작한 전남 함평군 손불면 신흥 그리스도의 교회가 10월에 50여명에 이르자 김재순에게 위임하였다. 그리고 10월초에 전남 함평군 손불면 주포리 동네 창고를 대여 받아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였다가 석성리 청학동으로 이사하여 예배당을 짓고, 이름을 ‘석성리 그리스도의 교회’로 정하였다. 1950년대 중반에는 이 교회의 창립멤버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노의수 집사가 석성리 신생동 교회와 청학동 그리스도인 집회소를 인도하였으나 발전하지 못하다가 김재순이 석성리 청학동으로 옮겨와서 신앙촌을 만들어보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교회 터가 김재순의 부친 김교인 장로 앞으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이 무렵에 김교인은 전남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는 석성리 그리스도의 교회를 순복음교회로 이적 시켰고, 700평 땅을 기증하여 50평 예배당을 짓게 하였다.

김교인은 1956-57년경에 순복음교회로 이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김교인이 김은석의 성서통독메모에서 1957년부터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김은석의 1954-56년 성서통독메모에 의하면, 전남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 ‘청학동 그리스도인 집회소’와 ‘신생동 교회’가 여전히 노의수 집사(전도사)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었고, 김은석이 내려와 이 두 교회에서 백일 성경연구회를 개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은석의 1954년 6월 14일(월) 성서통독메모에 의하면, 김은석이 전남 함평

군 함평면 석성리 김교인의 집에 잠시 들리고 있고, 8월 8일 (일)자 성서통독메모에 의하면, 김은석이 오전에 전남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 김교인 장로택에서 아가서 4장을 읽고, 오후에는 손불면 신흥교회 주택에서 아가서 4-6장을 읽고 있다. 1956년 7월 16일(월)자 언급에 의하면, 김은석이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산18번지 김교인 장로택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1956년 12월 13일(목)에는 김은석이 김교인과 함께 전남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 신생교회 노의수의 객실에 머물렀다.

김은석은 1955년 10월 15일부터 1956년 (2월까지 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1월까지 이 두 교회당에서 백일성경연구집회를 열어 노의수 집사 등을 헌신적으로 가르쳤다. 이 백일성경연구집회 때는 유난히 추웠는지, 10월 20일(목)에 일기가 차서 고생이라고 하였고, 12월 16일(금)은 크게 추웠다 (“今朝는 大寒이 되었슴)고 적었다. 이날 아침 김은석은 대전에 갈 계획이었다. 그런데 “간다고만 하면 섭섭해 하니 답답함.”이라고 적었다. 김은석의 이런 헌신에도 불구하고, 청학동 그리스도인 집회소에 대한 언급은 백일성경연구집회 중이었던 1955년 10월 21일(금) 이후에, 신생동 교회는 1956년 12월 13일 이후에 끊겼다. 김교인과 노의수에 관한 언급도 끊겼다.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김은석의 헌신적인 수고에도 불구하고, 순복음교회로 이적한 김교인의 뜻대로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다음은 김은석이 남긴 1956년 12월 13일자 성서통독메모이다.

1956년 12월 13일 새벽(목) 2시부터 전남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 신생교회 노의수 형제 객실에서 김교인 장로님과 임남규 형제와 동숙하던 중, 起坐禱하다가 나의 사명인 주님이 맥기신 일을 하는바 앞흐로 서울성경신학교로 간다고 한말을 대답한 후 또한 들이난 일리 있음으로 그만 둘 것을 다시 뉘에 작명하고 김재순 목사께 편지 하고서 지금 이 신생동서 1월시까지 공부한다고 광고하여 사람들리 오난 일과 여러 가지로 생각 중에 엇지할가 하다가 성경 빌서를 보난 중 1장 27-2:1-2,14을 생각하는 중에서 지금 갖치 하는 일은 마음을 갖치 하는 일리 되지 못하고 원망과 시기와 분쟁이 표현하는 것을 보아 아무리 생각하여보아도 나는 갖치하지 못하고 따로 떠러

저서 내게 맥기신 주님 명령을 실행하여야 갯다는 생각이다. 내가 기도드리다가 성경 보면서 생각하여 이 일을 기록하는 시간은 3시 20분이었다. 신생동 노의수 집사댁 객실에서 記함. 김은석 止.

## (2) 1946-50년 기간에 세워진 교회들

최요한은 1946년 4월 전남 함평군 손불면 신흥리에 그리스도의 교회, 동년 10월 전남 함평군 손불면 주포리(석성리 청학동으로 이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 후, 이듬해인 1947년 1월초에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박점상의 처가 마을, 1951년 음력 8월 13일부터 이곳에 거주한 박점상은 자신이 건축하여 개척하였다고 증언함) 김광음(정귀남의 모친) 집사 집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평산리 교회에 관한 언급은 김은석의 성서통독메모(1953-58)에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임춘봉, 박점상, 지철희 등이 목회하였고, 정귀남(지철희의 장인, 정일홍 목사의 부친) 집사(전도사)가 예배를 인도하던 중에 갈라져 오늘에는 무안 현경현화 그리스도님의 교회로 이어가고 있다.

참고로 성낙소 목사는 단기 4286(1953)년 7월 3일에 <신약 교회 목회학>를 발행한바 있다. 이 귀한 책을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가 지철희 목사로부터 기증받아 매우 어렵게 편집한바가 있다. 지철희는 이 책을 정귀남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책 뒷장 겉표지에는 “평산 그리스도의 교회 1958년 2월 10일 구입 지철희”라고 적혀 있다.

최요한은 1947년 7월에 영광 무영교회 임장로 가정과 김집사 가정을 환원시켜 영광 무영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여 김재순에게 위임하였다. 임장로의 딸은 그 후에 김재순의 제수가 되었고, 건축업자였던 임장로가 예배당을 건축하였다.

최요한은 1948년 3월초에 광주 사동에 김운선 집사의 소를 팔아 2층집을 세내어 광주 사동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이 무렵 최요한, 장주열, 김재순, 김동열 등은 광주에서 노방전도에 전념하였다. 김은석의 성서통독메모에 광주 사동 교회는

1954년 9월 한 달 동안만 언급되었으며, 주소는 광주시 남구 사동 22번지였다. 이후 김동열이 광주 금동 그리스도님의 교회로 명칭을 바꿔 이어가고 있다.

1951년 늦봄에는 광주에서 최초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교역자회가 조직되었고, 초대회장에 김은석이 선출되었으며, 김은석의 주례로 최요한, 장주열, 김재순, 창현 함태영, 이신(이만수), 김동열이 목사안수를 받았다. 추측컨대 안수 장소는 사동 교회가 아니라, 함태영이 1951년 5월에 광주 사직동공원 및 방송국 입구에 사재를 처분한 돈과 부친의 지원금과 영광 무영의 임장로의 현금으로 구입한 일본 적산가옥 2층이었을 것이다. 이 건물은 광주 그리스도의 교회 겸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로 사용되었다. 이 건물에 강순명이 1952년 7월 13일에 천혜 경로원을 설립하였다.

최요한은 1950년에 전북 고창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김윤선 집사와 김남수 집사가 영광무영교회가 너무 멀어서 고향인 고창 김윤선 집사 집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6.25전쟁 중에 8명의 순교자를 낸 곳이다.

이상 언급된 6곳의 교회들은 최요한이 1946년부터 1950년까지 세운 교회들이며, 오늘까지 남아 있는 곳은 김동열 계열의 무안 현경현화 그리스도님의 교회와 광주 금동(사동) 그리스도님의 교회뿐이다.

### (3) 1951-55년에 세워진 교회들

최요한은 1951년 봄에 목사안수를 받고나서 장성기도원을 맡아 8개월간 시무하면서 침례와 성만찬예배를 드리며, 200여명이 함께 먹고 자며 기도하는 은혜의 동산을 만들었지만, 조순례 원장이 환생론을 주장하기 시작하자 1952년 1월초에 기도원을 박차고 나와 기도하던 중에 목포시 남교동 큰 시장 골목상가 2층을 전세 내어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그러나 최요한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1953년 4월 8일 광주에서 개최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창립총회 때 (추측컨

대 정찬성, 김상호와 함께, 김교인은 그보다 3-4년 후에) 이적하여 1953년 초에 전남 목포시 죽교동 391번지에 목포 유달교회(순복음)를 개척하였다. 이곳은 전남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 진성구 장로가 구입한 건물의 2층이었다. 그러나 최요한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고 성찬예배에 대한 신념도 확고해서 그리스도의 교회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는 않았다. 김은석은 성서통독메모에서 1954년 6월 14일부터 전남 목포시 죽교동 39번지 2통 4반 해병대 앞 유달 교회당에 '그리스도의 교회 성경연구처'라는 간판을 붙이고 백일성경연구집회 등을 인도한 것으로 적고 있기 때문이다.

1955년 9월 25일에는 김사라 집사가 개척한 목포 복음교회를 시무하였다. 교회가 크게 성장하여 기공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건축이 된 상황에서 교회명칭에 대해 고민하던 중 최요한은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로 정하기를 원했고, 제직자들의 투표에서도 그렇게 결정되었으나 창립자인 김사라 집사 측과 교회명칭으로 인해서 갈등이 커지자 1957년 10월 5일에 사임하였다. 그러나 이 교회는 지금도 침례와 주의 만찬을 소중히 여기는 대형 독립교회로 남아있다.

#### (4)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최요한은 1957년 8-9월의 집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복귀하기로 마음을 확정하고 10월 5일 목포 복음교회를 사임하기 직전에 목포시 대안동 11번지에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교회는 당회를 통해서 창립연월을 일 년 앞당겨 1956년 10월 1일로 확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최요한 목사가 장성기도원을 박차고 나온 후, 1953년 초 목포시 죽교동 391번지에 유달 교회(순복음)를 개척할 때까지, 1952년 1월초에 목포시 남교동 큰 시장 골목상가 2층을 전세 내어 1년 정도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한바가 있어서 이점을 감안한 결정이었다.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는 1957년 9월말부터 사택에서 20여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1961년

이로서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던 중에 최요한을 만나 1952년에 상월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시켰고, 1953년에는 자신의 건물 2층을 유달 교회당으로 쓸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57년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가 개척될 때에는 창립멤버로 전 가족이 헌신하였다. 그러나 그는 1968년에 목포 복음교회로 이적하였다.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듬해인 1958년에 적산가옥을 개조하여 예배당 16평, 사택 10평을 마련하였다. 이 가옥은 크기가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1971년

가정이 모여 기도  
에 전념하면서부터  
잉태되었다.  
진성구 장로가 큰  
힘이 되어 오늘의  
목포교회가 시작  
될 수 있었다. 그  
는 장로교회에서  
장로안수를 받은

200평이나 되는 건물로써  
교회가 차지한 공간은 왼쪽  
가장자리 26평이었다.  
1961년에 이 가옥 뒤편  
24평을 구매하였다. 이에  
최요한은 50평 크기의 석  
재건축의 필요성을 강조하  
기 시작하였고, 이에 반대  
하여 1968년에 진성구 협  
동장로, 1969년에 세 명의  
장로들이 목포복음교회로  
이적하였다. 최요한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50평 석재 본관건축을 착



공하였다.

1971년 말에 1층 50평, 이어서 이층 25평의 석재 예배당의 공사를 완료되었다. 1972년 4월에는 현관을 아치형으로 개조하였고, 1977년 3월부터 3층 25평 증축공사를 시작하여, 총 건평 100평이 완공되었다. 1984년 11월 11일에 26평 아파트 한채를 목사관으로 구입하였다. 1989년 10월부터 시작하여 교육관 50평을 확장하였다. 1995년 2월 27일에는 산정동 1112-3 대지 1500평을 매입하였고, 1995년 11월 6일에 착공하여 4층 720평의 예배당 건축을 완료하였으며, 1997년 11월 27일에 현당예배를 드렸다. 1967년에는 고하도 그리스도의 교회가 설립되었고, 고하도 교회 옆 자리에 1971년 감람산 기도원이 설립되었다.

최요한은 슬하에 6남 2녀를 두었다<목회자3, 장로2(교수1), 사모1, 집사2(안과의사1)>. 동생 최요열은 순복음신학교(현 한세대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서 서울 이태원 순복음 교회에서 시무하다가 1960년대 기간에 힐 요한 선교사가 막 시작한 한국성서신학교에서 교수로 섬겼다. 1965년 12월 5일부터 부천시에 위치한 새소망교회(순복음)를 맡아 크게 성장시켰다.

최요한 목사는 1992년 12월 29일 은퇴 후 1998년 3월 28일(토)에 소천 하였다.



##### (5) 최요한의 신학적 신념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333-359쪽에 의하면, 최요한은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여 40여년을 섬기는 동안 줄곧 3생명, 즉 말씀의 생명, 성령의 생명, 성찬의 생명을 선포

하였다. 이는 말씀 속에 성령님의 능력이 더해지고, 속죄와 구속을 상징하는 주의 만찬이 더해져야 비로소 생명의 완전성이 확보된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이 믿음을 떠받치기 위해서 최요한은 1년에 몇 차례씩 주일 예배 때 구약의 성막도를 강단 벽에 걸어놓고 지성소의 언약궤는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고, 그 속에 들어있던 돌비들은 말씀의 생명을, 아론의 싹 난 지팡이는 성령의 생명을, 향아리에 담긴 만나는 성찬의 생명을 예표한다고 가르쳤다. 여기서 생명은 상징이나 기념 또는 형식 그 이상의 것,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이며, 구원과 직결되는 생명이다. 따라서 신약성서교회처럼 기도예 전념하는 동시에 신령의 예배, 진리의 예배, 진정의 예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 되게 하는 예배를 드릴 것을 강조하였다.

#### (6) 최요한 목사와 전남지역 그리스도의 교회들

1950년대 충청이남지역에서 김은석 목사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1960년대는 힐 요한 선교사와 대전에 세워진 한국성서신학교의 영향력이 상당하였다. 힐의 영향력은 충청권에서 김은석의 것에 못지않았지만, 전남에서는 김은석만큼 크지 못하였다. 반면에 목포교회 최요한 목사의 영향력이 전남에서 점차 커져갔다. 힐 선교사가 은퇴하고 30대 중반의 김찬영 목사가 한국성서신학교의 교장이 된 1970년대부터는 김찬영과 한국성서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전북을 포함한 충청권과 최요한과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전남권의 영향력이 점차 양분되어졌다.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548-550쪽에 의하면, 최요한 목사는 1946년 4월 전남 함평군 손불면 신흥리(공산리)에 그리스도의 교회, 동년 10월 전남 함평군 손불면 주포리(석성리 청학동으로 이전)에 그리스도의 교회, 이듬해인 1947년 1월 초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에 그리스도의 교회, 1947년 7월에 전남 영광군에 무영 그리스도의 교회, 1948년 3월 초 광주 사동에 그리스도의 교회, 1950년에 전북 고창에 그리스도의 교

회, 1952년 1월초에 전남 목포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여 총 7개 교회를 개척하였다.

5년 후인 1957년 10월 1일에 오늘의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이 무렵에 전남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 교회를 환원시켰고, 이어서 진도 군내 그리스도의 교회, 신안 매화 그리스도의 교회, 여수 백초 그리스도의 교회도 환원시켜 총 4개 교회를 환원시켰다. 이후 1963년에 목포 고하도 그리스도의 교회, 1969년 해남 상공 그리스도의 교회, 1970년 목포 외달도 그리스도의 교회, 1973년 목포 달리 그리스도의 교회, 그밖에 여수 화정 중앙 그리스도의 교회, 충남 금화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여 총 6개 교회를 개척하였다. 1972년 최수신 전도사의 광주 발산 그리스도의 교회, 1981년 광주 무등산 그리스도의 교회, 1986년 광주 그리스도의 교회, 이상 3곳은 최요한 목사의 지원에 의해서 개척되었고, 새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목포 죽교동 그리스도의 교회, 목포 형제 그리스도의 교회, 이상 3곳은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가 모태가 되어 개척되었다.

이밖에도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신 그리스도의 교회, 해남군 화산면 마명리(화산 중앙) 그리스도의 교회, 해남군 화산면 사포리(화산 반석) 그리스도의 교회, 해남읍 부호리 그리스도의 교회, 신안 압해면 고이 그리스도의 교회, 목포 서남 그리스도의 교회, 영암군 영암읍 평리 그리스도의 교회, 이상 7곳이 최요한 목사의 영향을 받아 환원한 교회 또는 개척된 교회들이다.



##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

A Story of Korean Christian Churches: Missionary John  
J. Hill and His Korea Bible Seminary

조동호(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 제5부 힐 요한 선교사와 한국성서신학교

1950년대 충청이남지역에서 김은석 목사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김은석은 1963년 1월 21일 충남 논산군 부적면 충곡리에서 소천 하였다. 이때는 이미 힐 요한 선교사가 대전시 도마동 가장동에 터를 잡고 한국성서신학교를 시작한지 2년이나 지남 시점이었고, 김은석도 함께 동역했던 기간이어서 김은석의 사역은 힐 요한에게 충분히 인계된 셈이었다.

1960년대는 힐 요한과 한국성서신학교의 영향력이 충청이남 지역에 크게 미친 기간이었다. 전남에서의 힐의 영향력이 김은석만큼 또 충청권에서만 크지는 못했지만, 학생들의 상당수가 전남 출신이었다. 이 시기에 힐의 영향력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다른 선교사들과 신학교들보다 훨씬 더 컸다. 또 이 시기는 힐 요한 선교사의 생애 절정기였다. 일제의 탄압도 더 이상 없었고, 6.25와 같은 전쟁도 더 이상 없었다. 학생들과 목회자들로 부터 사랑과 존경도 받았다. 다만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턱없이 부족한 선교지원금이였다. 그는 1972년 6월, 한국 나이로 60세 때 한국에서 은퇴하였다. 그의 은퇴가 조금 빨랐던 이유는 모금의 어려움이 다른 현실적인 이유들 속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 1. 힐 요한 선교사(1913.03.22-2009.11.04)

## 1) 힐 요한과 제인의 생애



JOHN AND JANE HILL  
Pioneer missionaries  
to Korea, with mission-  
ary daughter Miss  
Virginia Hill and  
children Danny and  
Tina. Adopted Korean  
boys are "Line"  
and "Doug".  
CHRISTIAN MISSION TO  
SOUTH KOREA  
Taejon, Korea  
September 1968

힐 요한 선교사는 미국 오클라호마 주 애피톤(Apeatone) 근교 농장에서 제임즈 해롤드 힐(James Harold Hill)과 티나 비거스태프 힐(Tina Biggerstaff Hill) 사이에서 1913년 3월 22일 태어났다. 아래로 여동생이 두 명 있었다. 부친은 농부였고, 모친은 교사였다.

힐은 1923년 6월 10일(10살) 침례를 받았다. 로웰(Lowell) 고등학교를 우등생으로 졸업하였고, 테네시 주에 소재한 유서 깊은 존슨성서대학(Johnson Bible College, 현재 Johnson University)을 1936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다. 동년 7월에 로웰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캐나다 온타리오 주 에일머(Aylmer) 소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2년간 목회하였다. 1947년에 버틀러대학교(Butler University) 신학대학원에서 M.A. 학위를, 1963년에는 버턴신학교(Burton College &

Seminary)에서 명예신학박사를 받았다.

존슨성서대학 채플에서 선교사들로부터 설교를 듣고 해외선교에 대한 관심을 키워가던 중에 한국에서 사역하던 존 채이스(John T. Chase)의 설교에 큰 감화를 받았다. 1938년 여름에 인디애나 주에서 열린 그리스도인 실천대회(Christian Action Conference)에 참석하여 영적인 각성을 체험한 직후 미국과 캐나다의 교회들을 순회하며 한국에 선교사로 나가기 위한 모금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당시 두 사람의 생활비로 최소한 100불이 필요하였다.



힐 요한과 에스더 비반즈 선교사 부부  
John Hill and Esther Evelyn Beavans

1939년 4월에 에스더 에벌린 비반즈(Esther Evelyn Beavans)와 결혼하였다. 동년에 미국에서 일본 동경에서 활동했던 W. D.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 1864-1936) 선교사 부부의 전기, <타오르는 횃불>을 읽었고, 한국선교와 관련된 부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힐 요한과 에스더는 1939년 6월경에 한국에 입국하였다. 1924년 이후 한국에는 동경주재 커닝햄 선교부의 파송을 받아 일하던 한국인 전도자가 있었으나 그는 후임 선교사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1935년 3월에 최초로 미국교회에서 파송된 마이클 셸리(J. Michael Shelley) 선교사와 그의 가족이 입국하였으나 가족의 건강문제로 그해 11월에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 후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출신의 토마스 G. 히치(Thomas G. Hitch) 선교사와 그의 가족이 한국에 세워진 커닝햄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입국하였으나 그들 역시 1939년 힐 요한 선교사 부부가 한국에 도착한 직후 수개월이내에 출국한 상태였다. 1936부터 1940년까지 약 4년 동안 한국에서 활동했

던 채이스 선교사 부부도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서 외국인 선교사로서는 힐의 가족만 남게 된 상태였다.

힐 요한 선교사는 존 채이스의 선교부와 사역을 인수받았기 때문에 출발이 좋은 편이었다. 힐은 사역준비를 마친 1940년 가을부터 채이스 선교사가 설립한 목회자 양성소를 개교하였다. 그러나 일제말기의 발악적인 기독교탄압으로 인해서 수개월도 유지시키지 못한 채, 그해 11월, 한국에 온지 1년 반도 못 채우고 짐을 꾸려서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서울주재 미국 대사관의 권고를 받아들여 대부분의 다른 미국인들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갔다.

미국인들의 철수 후 일 년이 조금 지난 1941년 12월 7일 아침에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폭격함으로써 미국이 일본과의 태평양 전쟁 및 제2차 세계대전에 휘말리는 불행한 일이 발생되었다. 힐은 1943년 웨스트버지니아 주 파덴시티(Paden City) 그리스도의 교회를 비롯해서 인디애나 주 등에서 목회활동을 하다가 미 육군 군목(중위)이 되어 미국, 필리핀, 일본에서 복무하였다. 1945년에 일본과 독일과의 전쟁으로 필리핀 섬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맥아더 장군의 명령으로 힐이 소속한 부대가 일본군을 향해 진격하던 중에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됨으로써 일본이 항복하게 되어 목숨을 건졌고, 대위로 예편되었다.

힐은 전후에 버틀러대학교(Butler University)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1947년에 M.A. 학위를 받고, 1940년 11월에 한국을 떠난 지 8년 3개월만인 1949년 2월 18일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서울 연지동에 살면서 3월 15일에 서울성서신학교(Korea Bible Seminary)를 개교하여 본격적으로 목회자 양성에 들어갔다. 이때 공산군에 납치된 후 행방불명이 된 돈암 그리스도의 교회 최상현 목사가 통역을 겸한 교수로 수고하였고, 한의사였던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 성낙소 목사 및 공산군에 피살된 백낙중 목사가 힐 요한 부부와 함께 교수로 수고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의 갑작스런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일본으로 피난하였다.

힐은 일본에 머무는 일 년여 동안 한국어 공부에 주력하였다. 그해 서울이 수복되자 11월에 한국에 돌아와 5주간 머무는 동안 서울 장충동의 임대건물에서 신학교를 개교하였으나 전쟁의 악화로 그해 12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다. 포기를 모르던 힐은 이듬해 1951년 7월 3일 한국에 돌아와 서울 송월동 선교부에서 8월 4일 전쟁고아들을 돌보는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Christian Mission Orphanage)을 시작하였고, 이후 선교부에 제휴된 여러 고아원들의 설립과 유지에 도움을 주었다.

1954년에 부인 에스더 비반즈가 신학생 2명과 부적절한 혼외관계에 빠졌다. 그 중 한 명은 결혼한 두 아이를 가진 아빠였다. 1955년에 에스더는 4명의 자녀를 가진 한국인 남자 친구와 살기 위해 둘 사이에서 난 아이를 데리고 가출함으로써 선교사역이 위태롭게 되는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되었다. 젊은 여선교사들이 젊은 한국인 남성과 연애하여 결혼한 사례는 종종 있는 일이었지만, 가정까지 버린 경우는 흔치 않아서 타격이 컸다.



힐 제인 키넬트(Jane Kinnett Hill)  
1921.10.23-1982.06.29)

힐은 1955년에 후임자인 해롤드 테일러(Harold and Ada Taylor) 선교사 부부에게 새로 지은 신학교 건물을 포함한 송월동 선교부 재산을 모두 물려주고, 쫓기다시피 한국을 떠나야 했다. 곧 이어 힐은 중국, 미얀마, 일본, 한국에서 선교사역을 경험한 미혼여성 제인 키넬트(Jane Kinnett)와 재혼하였고, 1959년 8월에 부산을 통해서 재입국하여 알렉스 빌즈 가족과 함께 2

개월을 지낸 후, 선교사가 없던 대전에 정착하였다.

힐 제인은 1921년 10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출생하여 1946년 오리건 주 유진(Eugene)의 노스웨스트 기독교대학교를 졸업하였다. 졸업한 1946년 10월 31일부터

중국 쿤밍에서 선교사 사역을 시작하여, 1949년에는 미얀마 북부에서 1년간 사역하였다. 그리고 1951년 9월부터 1955년 여름까지 일본 오사카 성서대학에서 교수로 가르치다가 1955년 6월부터 10월까지 서울에 있는 한국 크리스천 미션에서 힐의 선교업무를 도왔다.

1955년 11월 로스앤젤레스에 돌아가 1956년 5월 25일 힐 요한과 결혼하여 1남 1녀를 낳은 것으로 추정된다. 힐에게는 전처소생으로 추정되는 장녀 버지니아(Virginia), 제인으로부터 낳은 아들 데니(Denny)와 딸 티나(Tina) 그리고 한국에서 입양한 쌍둥이 형제 리노(Lino)와 더그(Doug)가 있었다.

제인은 초등부터 중등과정까지 가르치는 크레스톤 그레이드 학교(Creston Grade School)에서 교사로 일한바 있으며, 힐과 결혼한 후인 1956년부터 1959년까지 인디애나 주 레이크 카운티 소재 초등학교에서 가르쳤다.

1959년 8월에 한국으로 돌아와 대전에 정착하였으며, 1972년 6월 은퇴 후 미국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1973년 9월부터 1976년 6월까지 학교 요리사로 일하였다. 제인은 B형 간염으로 1982년 6월 29일 소천 하였다.

힐 요한 선교사는 제인과 함께 생애 50대를 한국에서 보낸 1960년대가 가장 성공적인 절정기였다. 그들 부부는 이미 선교사들이 정착한 서울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대전에 정착하여 가장동에 한국성서신학교와 한국 크리스천 미션을 세워 1972년 6월까지 10여년 넘게 교장으로 봉직하면서 주일마다 제자들의 교회들을 찾아가 필요한 도움을 베풀고 설교하며 침례를 베풀었다. 그는 1939년에 시작한 파란만장한 한국에서의 대역사를 마치고, 1972년 6월에 영구 귀국한 후에도 소천 때까지 미자립 교회들을 후원하였고, 한국교회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기도했던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산 증인이자 역사 그 자체이다.

제인이 소천한 후 이듬해인 1983년에 미조리 주 조플린(Joplin)에서 아이린(Irene)을 만나 재혼하였다. 미국인들은 노년에 혼자 남게 되는 경우, 짝을 만나 재혼하는 일이 매우 흔하

다. 힐 요한 선교사는 2009년 11월 4일 97(만 96세)세로 소천 때까지 에텐보육원과 한국의 열악한 5개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매월 후원하였고, 러시아 단기전도사역에도 참여하였다.

## 2) 힐 요한 선교사의 유품



좌측부터 이길수 목사, 정영현 목사, 조동호 목사, 최금생 목사, 박운배 목사, 김순철 목사, 라명환 목사, 권드보라 목사, 민동규 목사

힐 요한 선교사의 유품이 추모 2주기를 맞이하여 2011년 11월 19일 오전 11시에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 산하 한성신학교에 전달되었다. 전달식은 대전시 동구 용

전동 소재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 사무실에서 있었다. 힐의 맏딸 버지니아(Virginia) 여사가 이 유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시카고 한인 기독교 방송국장으로 2001년부터 수고하고 있는 한성미 주동문화 회장 김순철 목사와 상의하여 한국에 넘기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김순철 목사가 직접 한국까지 가지고와서 총회에 전달하는 노고와 희생을 감수하였다.

유품의 내용은 사진첩 2개, 다수의 슬라이드 사진, 네거티브 필름, 소수의 선교서신 복사본들이다. 이 유품은 1960년대의 것들로써 한국성서신학교의 초기 상황과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당시의 형편을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유익한 자료들이다.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는 이 유품을 전달받아 내용을 정리한 후 화보집 성격의 소책자인 <힐 요한 선교사(John Hill)>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1)을 편집하여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홈페이지에 소개하였다.

*W. J. Hill*

Dec. 7th, 1991 Annual Board Meeting of the Christian Mission to the Rep. of Korea

The roll was called at 8 p.m. (CST) by John J. Hill, and those present were: Mrs. Norma Thomas, Mrs. Virginia Bendure, Bruce Hill, Mrs. Louise Allen, David Warner; (absentees were: Samuel Kim, the Young Kim, Carl Lazzareschi, and Loretta Warner).

The opening prayer was given by Norma Thomas.

Thanks to each of you for giving up a whole evening to be in this meeting. As you know, we are required to hold an official board meeting at least once a year, in order to keep our tax-exempt status for the benefit of tax-exempt gifts of all who contribute. And thank you for your gifts and prayers for the Korean work! We appreciate all the churches, Bible classes, and individuals who, by your help, have kept this work going! And of course the GREATEST PRAISE goes to our Heavenly Father! And we also need to thank the Korean preachers, the orphanage staff members, and especially our hard-working and capable forwarding agent, Mrs. Norma Thomas; and our Korean agent and preacher, Brother Il Seung Ahn; and the Gordon Pattens, in Seoul, Korea, for "hanging in there", though the going has been very tough for them. (Today's letter from them shows a little improvement in their income, and we thank God for that, and pray for much greater blessings).

The minutes of last year's meeting of Dec. 8th were read and approved.

<u>Financial Report</u> for a year, Dec. 7, 1990, to Dec. 7th, 1991:	
Funds on hand Dec. 7, 1990.....	\$3261.25
Received during said year.....	9172.56
Total to account for... 12,433.81	
Total expenditures in said 12 months, 8,509.51	
Balance on hand Dec. 7, 1991....	3,924.30

<u>Itemized Expenditures:</u>	
Korean preacher aid.....	\$7014.00
To two orphanages.....	816.00
To the Pattens.....	130.00
Bank fees.....	20.00
Postal fees, registrations, .....	52.50
Newsletters Printed.....	200.85
Stamps.....	40.20
Printed envelopes.....	46.58
Annual telephone conference call of Dec. 8, 1990....	47.24
Wash. State filing fee, '91, .....	5.00
Name labels at A.R.....	2.14
Designated to Russian trip, .....	135.00
TOTAL EXPENDITURES.....	8509.51

Progress Report for the Korean churches, etc.

One-year report, for the last half of '90 and first half of '91: We were aiding 13 Korean preachers and churches in 1990; 12 preachers in the first half of 1991; and now just 11 churches each month. To Brother Il Seung Ahn, the preacher at the Sam Kwang Church of Christ (instrumental), who is also our mission agent in Korea, we pay a salary of \$170. a month, a very small salary for Koreans these days. For the other ten churches, we give only aid money each month, ranging from \$50. to \$40. to \$30. per month.

The one-year combined report for the 13 churches helped the last half of 1990 and first half of 1991, shows a total of 335 members

	92 newcomers
	43 baptisms
Total of smaller Bible School pupils.....	700
Total of Jr. and Sr. H.S. students.....	396

A motion was made and seconded, and a vote taken, electing Mrs. Louise Allen, of the church at Gladensburg, Ohio, to our board (unanimously)

An election of officers took place, as follows: John J. Hill, Pres.; David Warner, Vice-president; Dale Masley, Secretary; and Mrs. Norma Thomas, Treasurer and Forwarding Agent.

John J. Hill reported on a very successful and gratifying trip to Russia the past Sept. 10--16th, thanking all who helped make it possible. By the help of offerings already taken, by preachers (150, in Korea last August, and by Gordon Patten's Korean board members, John hopes and prays that he can go to Moscow again next May, possibly to stay and teach and evangelize for four or five weeks.

"Christmas and New Year's Greetings to you all! Thank you again! Please keep helping! And may God bless us all, and the Korean workers!". Bruce Hill gave the closing prayer.

1991년 12월 7일자 한국 크리스찬 미션 이사회 회의록

힐 요한 선교사는 본국에 돌아간 후에도 지속적으로 한국을 돕고 있었음을 그가 남긴 몇 장의 카본카피(cc.: 타자기에 두 장의 용지와 그 사이에 먹지를 넣어 복사본을 만든 것)와 1991년 12월 7일자 한국 크리스찬 미션 이사회 회의록(사진)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

남겨진 카본카피에 의하면, 1978년 5월과 7월에는 밥 워릭(Bob and Joyce Warrick) 선교사 부부 앞으로 편지와 돈이 송금되었고, 1978년 9월에는 노봉욱 장로, 1982년 1월에는 조가맨(Joe R. Garman) 선교사 그리고 1989년 10월에는 안일승 목사 앞으로 힐 요한 선교사의 편지와 돈이 송금되었다.

1991년 12월 7일자 회의록에 따르면, 이사회는 일 년에 한 차례 12월 7일경에 있었고, 이사들의 이름과 회의내용을 볼 수 있다. 재정보고에 따르면, 1990년 이월잔액이 3,261불 25센트였고, 1991년 수입이 9,172불 56센트였으며, 지출이 8,509불 51센트였다. 1990년에는 2곳의 보육원과 13명의 목회자와 교회들을 도왔으나, 1991년의 전반기 6개월은 12교회, 후반기 6개월은 11개 교회를 도왔다. 도움을 준 액수는 목회자의 경우 매월 50불에서 30불까지였다. 삼광 그리스도의 교회 안일승 목사가 매우 적은 액수의 급여(후원금)를 받고 대리인의 역할을 여러 해 동안 수행하였다.

### 3) 재단법인 한국 크리스찬 밋손

재단법인 한국 크리스찬 밋손은 1964년 4월 17일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선교재단이었다. 노봉욱 에덴보육원 원장이 발로 뛰어 어렵게 받아낸 것이었다. 인가장소는 충남 대전시 가장동 79-5(구획정리 후 21-5)번지였으며, 설립이사들은 힐 요한, 힐 제인, 해롤드 디바(Harold DeBar), 에스더 디바(Esther DeBar), 임명진 장로, 노봉욱 장로 였다. 이후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유지재단'으로 개명되었으며, 현재 32개의 교회들이 가입되어 있다.

### 4) 모금의 어려움

힐은 1964년 5월 2일자로 미국의 대리인인 디바(De Bar)에게 소식지 제작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냈다.

(1)대전 유천동 교회건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300불이 즉시 필요하다. (충남 대덕군 유천면 도마리 소재, 현재의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한다. 63년 9월경에 시멘블록과 스테트로 40평 교회를 신축하고 있었고, 이 무렵부터 도마기독지교회로 불렸다.)



1963년 9월경에 시작한 40평 크기의  
현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 신축 모습(1964년 8월 26일 촬영)

(2)섬에 보낼 신약성경, 전도지, 복음서, 연필 등이 필요하다.

(3)내동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3명의 남성이 침례를 받았고, 2명의 여성 신학생들(이영선, 하봉례)이 가서 설교하고 있다.

(4)최요한은 성공적인 부흥목사이며, 많은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 부흥집회들을 인도하는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담임자이다.

5)마명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있었던 결혼식과 신혼부부를 소개하였다.

(6)성공적인 시골 교회로써 마명리 그리스도의 교회당과 성도들을 소개하였다. 힐은 1964년 4월에 그곳을 방문하여 설교하였고, 6명에게 침례를 베풀었으며, 결혼식에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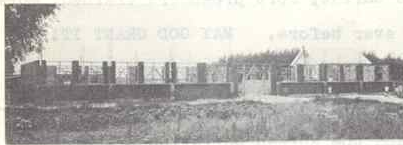
(7)목포 인근의 압해도를 방문하여 순복음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교회에서 3일간 설교하였다. 안방이 비좁아 마당에 명석을 깔고 예배를 드렸다. 힐 요한 선교사는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사진첩에서 발견된 1965년 선교 소식(Newslatter) 쪽지에 의하면, 모금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보여준다. 한국에 돌아가는데 필요한 경비 3,500불 가운데서 석 달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모금된 돈이 불과 5불에 불과하다면서 2,500만 한국의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필요한 가전도구들을 대전에 실어 보낼 수 있을지를 소식지를 받아보는 이들에게 묻고 있다. 아래의 글(그림)은 1965년 재입국을 앞둔 상황에서 모금이 얼마나 힘겹고 눈물겨운 싸움이었는지를 잘 보여 준다. 힘은 이 험난한 가시밭길을 한국인과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걸었다.

SEVERAL VERY TOUGH JOBS NOW FACE US

Can we make it back to Korea? Can we haul our big family and baggage to the West Coast? Can we ship a water heater, a washer, a dryer and a cooking stove all the way to Taejon, Korea? FIVE DOLLARS only has been received for the RETURN TO KOREA FUND. That leaves about \$3,495 yet to come, with barely THREE months left. Our faith says, "YES, GOD WILL PROVIDE." But, we need a quick response from everyone who reads this; EVERY ONE, YES, EVERY ONE. We are willing to go in your place (or will you come over and help us?), So, please help us step through this OPEN door to our great unfinished task in Korea -- a little country with over 25,000,000 souls to be reached for Christ.



AT THE SAME TIME WE RAISE THESE FUNDS AND PREPARE TO GO BACK

- can we also continue to send funds to Korea twice a month to keep our KOREA BIBLE SEMINARY in operation, training preachers of the Gospel? Can we continue aiding many starving Korean preachers and their families? Can we help the many weak Korean churches, so they will not 'fold up'? Can we assist the four Christian Jr. Hi's. and the school for blind children?

CAN WE FINISH THE NEW SEMINARY BUILDING (one-third completed above)? Only \$9,500 are needed to finish and furnish it. The 'Old Devil' says, "No, you can't do it. You will never get back to Korea" Help us prove he is wrong! With God's help, we proved him wrong in 1959 and again in 1965. With our readers and 'Prayer Warriors' on God's side, we must EXPECT to win. We must say with Paul, "We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ich strengtheneth us."

God bless you all! *John*

사진첩에서 발견된 1965년 선교서신(Newsletter) 쪽지

###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몇 가지 난관들

우리가 한국에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대가족과 짐 가방을 서부 해안에 끌어 옮길 수 있겠습니까? 온수기, 세탁기, 건조기, 요리용 스토브를 한국 대전까지 실어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 돌아가기 위한 기금이 겨우 5불밖에 모금되지 않았습니다. 겨우 석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3,495불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야." 그러나 우리는 이 소식지를 읽는 모든 이들로부터 신속한 응답이 필요합니다. 모든 분들, 예, 모든 분들이요. 우리는 기꺼이 여러분이 계신 지역에 방문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이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이 열린 문을 통해서 - 그리스

도를 위해서 찾아가야할 2,500만 명이 넘는 영혼들이 사는 한 작은 나라 - 한국에 펼쳐놓은 우리의 끝내지 못한 대사업으로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꼭 우리들을 도와주십시오.

동시에 우리는 이들 기금들을 모금하며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의 한국 성서 신학교를 보존하여 운영하고 복음 전도자 양성을 위해서 한 달에 두 번씩 한국에 계속해서 기금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굶주리고 있는 많은 한국인 목회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계속해서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연약한 한국의 교회들을 도와서, 그래서 교회들이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네 개의 기독교중학교들과 맹아어린 이학교를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학교 신축건물을 끝낼 수 있겠습니까?**(위의 사진: 3분의 1의 공정을 보인 신축건물) 그것을 끝내고 설비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고작 9,500불입니다. '옛 마귀'는 말하기를, "안 돼. 년 그것을 할 수 없어. 년 결코 한국에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가 옳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가 옳지 않았다는 것을 1959년에 입증하였고, 또 다시 1965년에 입증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우리의 독자들들과 '기도의 용사들'과 함께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말처럼,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서명) 존(Joh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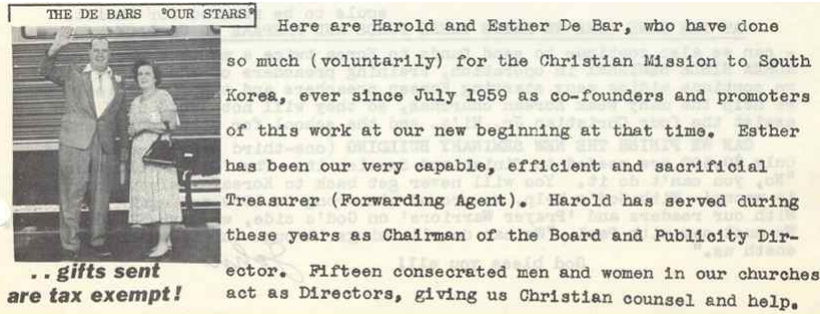
쪽지 뒷면에는 1959년 힐 요한, 힐 제인 선교사부부가 한국에 나와 대전에 정착할 시점부터 힐 선교사 부부를 미국 대리인들로서 자원하여 도운 해롤드와 에스더 디바(Harold and Esther De Bar) 부부에 대한 소개도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리의 스타' 디바 부부

해롤드와 에스더 디바 부부입니다. 그들은 1959년 7월 이후로 우리가 새로 시작한 때인 그 당시 이 사역의 공동 설립자들이요 발기인들로서 남한 크리스천 미션(Christian Mission to South Korea)을 위해 (자원하여)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에스더는 우리의 매우 능력 있고, 능률적이며, 헌신적인 재정담당자(발송 대리인)이었습니다. 해롤드는 그동안 선교이사회 회장과 홍보 담당자로서 섬겨오셨습니다. 우리의 교회들에서 15명의 남녀 성별된 분들이 이사들로서 활동하



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조언과 도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보내진 기부금은 세금감면이 됩니다.>



해럴드와 에스더 디바(Harold and Esther DeBar)

## 5) 1960년대 충청이남지역 교회 상황

해롤드 태일러 선교사의 선교보고에 의하면, 1955년까지 전국에 75개 교회가 있었다.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가 324쪽에서 인용한 <기독교 연감(1957)>에 의하면, 1956년 충북에 13개, 충남에 6개, 전남에 17개, 총 36개의 교회가 있었다. 1965년 <기독교연감>에 의하면, 1964년 충북에 16개 교회, 충남에 19개 교회, 전남에 24개 교회, 전북에 1개 교회, 도합 60개의 교회가 있었다. 1956년에 36개였던 것이, 헐 요한에 의해서 대전시 서구 가장동 21-5번지에 최초의 한국성서 신학교 교사가 지어지던 1964년까지 만 8년 만에 24개가 더 늘어나 60개가 되었던 것이다.

김은석이 성경에 삽입시킨 주소록에 적힌 교회들로는 경기 2, 경남 3, 경북 4, 서울 7, 전남 29(30), 충남 10, 충북 14, 장소 미확인 2, 도합 72곳이었다. 그러나 이들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명기하지 않았고, 또 1955년 해롤드 태일러의 선교보고와 1956년 <기독교연감>의 시기가 거의 같고, 김은석의 1953-58년의 주소록과도 시기가 같기 때문에 김은석의 자료를 도표에 넣지 않았다.

힐 선교사의 주소록에는 총 88개의 주소가 영어와 한글이 섞인 자필로 실려 있다, 그 가운데 접친 주소가 2개, 교회가 아닌 주소가 4개, 따라서 총 82개가 그리스도의 교회주소들이다: 서울10, 전남26, 전북2, 충남21, 충북14, 경북2, 강원2, 경기5. 이들 가운데서 김은석 목사의 주소록과 겹치는 주소는 21개(전남10, 충남3, 충북8개)이다. 이것은 김은석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1946-1959년 사이에 충청도와 전라도지역에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1971년까지 최소한 21개 정도가 생존해 있었다는 증거이다.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소계	서울	경기	강원	경남	경북	부산	합계
1924-1941년 커닝햄선교부												17
1955년 태일러 선교사												75
1956년 기독교연감	6	13	17	0	36							
1965년 기독교연감	19 (+13)	16 (+3)	24 (+7)	1 (+1)	60 (+24)							
1971년 힐 선교사	21 (+2)	14 (-2)	26 (+2)	2 (+1)	63 (+3)	10	5	2		2		82
증감	+15	+1	+9	+2	+27							+7

1946-59년까지의 김은석 목사의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의 영향으로 충청과 전남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고, 1960-71년까지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성서신학교의 영향으로 역시 충청과 전남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 이 통계는 타교단으로 이적한 교회들과 생존에 실패한 교회들의 숫자가 빠져 있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었을 것이다.

대전시 가장동에 세워진 한국성서신학교의 영향 때문이었던지, 충남에서 교회수가 배가 넘는 15개가 증가하였고 충북은 1개, 전남에서 9개, 전북에서 2개가 증가하였다. 합계에서 1955

년부터 1971년까지 16년 동안 7개 교회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숫자는 1956년부터 1971년까지 15년 동안 충청도와 전라도지역에서 합계 27개가 증가한 것에 비해 차이가 무려 20개나 난다. 이것은 그만큼 많은 숫자의 교회들이 타교단으로 이적하였거나 문을 닫아야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충청도와 전라도지역에서 27개의 교회가 증가한 것은 1950년대 김은석 목사의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와 1960년대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성서신학교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소폭으로나마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은 부침이 극심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그나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1) 힐 요한의 주소록에 명기된 목회자들(50명)

강경준, 고광석(윤식), 고재윤, 김동식, 김동열, 김봉섭, 김상식, 김상신, 김순철, 김영신, 김용순, 김은성, 김일순, 김재술, 김재업, 김정만, 김중현(장로), 김치연, 김칠성, 김현경, 김형주, 라명환, 명연재, 명철재, 민홍기, 박옥채, 설하운, 송영희, 심영진, 안병호, 안일승, 양정식, 오현팔, 유덕례, 이규승, 이백호, 이사돈, 이순애, 이안식, 임병선, 장주업, 장휘명, 조규석, 조충연, 최요한, 최용호, 최이선, 최대시, 함명덕, 함태영(창현),

(2) 힐 요한의 주소록에 명기된 교회들

강원도 강능(릉)시 병산리 병산 그리스도의 교회  
 강원도 강능(릉)시 옥천동 사서함8호  
 강원도 명주군 주문진읍 교항리 ---주문진 그리스도의 교회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 내천동 706 안양 그리스도의 교회 장주열 목사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 신갈리 신갈 그리스도의 교회 김재업 목사  
 경기도 이천군 장호원읍 이황리 장호원(황정) 그리스도의 교회 안병호 전도사  
 경기도 인천시 부평동 655, 부평 그리스도의 교회 설하운 전도사  
 경기도 인천시 송의동 231 송의 그리스도의 교회 김영신(?) 목사  
 경북 안동군 풍산면 상리 안동복음중학교 양정식 목사  
 경북 안동군 풍산면 죽전동 그리스도의 교회 송영희 전도사

경북 영양군 영양면 서부동 영양 그리스도의 교회 오현팔 목사  
 부산시 부산진구 글성---개척관 내, 김봉섭 목사  
 부산시 중앙 YMCA내 - - - -  
 서울 마포구 대흥동 18 신촌 그리스도의 교회  
 서울 서대문구 갈현동 산 53 갈현 그리스도의 교회  
 서울 서대문구 역촌동 산 42-2 역촌 그리스도의 교회 김상식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99 홍제동 그리스도의 교회 조충연 목사  
 서울 성북구 삼선동 1가 274 돈암 그리스도의 교회 민홍기 목사  
 서울 영등포구 외발산동 197-3 광명 그리스도의 교회  
 서울 용산구 도원동산 10, 도원동 그리스도의 교회  
 서울 용산구 효창동 5의 198 중앙 그리스도의 교회  
 서울 종로구 명륜동 4가 85-4 대학 그리스도의 교회  
 서울 종로구 필운동 289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강진군 군동면 삼신리 연화동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강진군 기룡리 103 기룡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강진군 작천면 중앙리 작천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강진읍 서성리 103 강진읍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광주시 금동 46 금동 그리스도의 교회 김동열 목사  
 전남 광주시 학익동 그리스도의 교회 김동열(?) 목사  
 전남 목포시 고하도 고하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목포시 대안동 11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최요한 목사  
 전남 무안군 이로면 외달리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신안군 압해면 매화리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여천군(여수시) 돌산면 우두리 세구지 백초 그리스도의 교회  
 장휘명 전도사  
 전남 여천군(여수시) 화양면 장등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 그리스도의 교회 최이선  
 전남 영암군 학산면 평리 그리스도의 교회 이순애  
 전남 진도군 군내면 대사리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함평군 손불면 궁사(산)리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해남군 계곡면 여수리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해남군 송지면 매화리 그리스도의 교회 김형주 전도사  
 전남 해남군 옥천면 동리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해남군 옥천면 화당리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해남군 현산면 상구신리 구신리 그리스도의 교회 김일순 목  
 사  
 전남 해남군 화산면 마명리(방축리) 그리스도의 교회 김중현 장로

전남 해남군 화산면 사포리(평호리) 그리스도의 교회 명연재 전도사

전남 해남군 화(황)산면 삼호리(옥동리) 삼호 그리스도의 교회 김상신 전도사, 유덕래

전북 김제군 백산면 조종리 태매, 대산 그리스도의 교회 라명환 전도사 <전북 김제군 공덕면 공덕리 금아 (대산교회), 김일수 남자집사, 염소키우는 분>

전북 전주 금암동 728-156 그리스도의 교회 최용호

충남 논산군 부적면 충곡리 그리스도의 교회

충남 논산군 부적면 탑골리 금성 그리스도의 교회 함명덕 목사

충남 논산군 연무읍 동사(산)3동 880 그리스도의 교회

충남 논산군 양촌면 산적2구 신정 그리스도의 교회 이백호 전도사

충남 대덕구 탄동면 내동리 그리스도의 교회 명철재 전도사

충남 대덕군 북면 석봉리 신탄진 그리스도의 교회 김용순 목사

충남 대덕군 유성면 죽동리 그리스도의 교회 김철성 전도사

충남 대전시 가양동 그리스도의 교회 김재술

충남 대전시 대사동 그리스도의 교회 이사돈 목사

충남 대전시 대화동 그리스도의 교회 김동식 전도사

충남 대전시 도마동 그리스도의 교회 심영진 목사

충남 대전시 산성동 450 그리스도의 교회 임병선 목사

충남 대전시 석교동 그리스도의 교회 박옥채 전도사

충남 대전시 선화동2구 315번지 선화동 그리스도의 교회 김치연 목사

충남 대전시 신흥동 161-33 신흥동 그리스도의 교회 김현경 목사

충남 대전시 판암동 476 판암 그리스도의 교회 고재윤 목사

충남 마산군 은봉면 산동리 그리스도의 교회

충남 보령군 주포면 마강2리 구슬 그리스도의 교회 최태시 전도사

사

충남 연기군 남면 월산리 황골 그리스도의 교회

충남 천원군(천안시) 병천면 병천리 그리스도의 교회 김순철 전도사

사

충남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그리스도의 교회 강경준 전도사

충북 괴산군 불정면 과전리(외령리) 영촌 그리스도의 교회

충북 괴산군 불정면 영천리 반능 그리스도의 교회 김정만 목사

충북 괴산군 소수면 수(소)수리 그리스도의 교회 이안식 목사

충북 보은군 산외면 이식리 그리스도의 교회 고광석(윤식) 목사

충북 주원군(충주시) 노은면 수용(룡)리 노은 그리스도의 교회

충북 증원군 동양면 조동리 그리스도의 교회 조규석 목사

충북 증원군 소태면 덕은리 덕은(조기암) 그리스도의 교회)  
 충북 증원군 소태면 복탄리 그리스도의 교회  
 충북 청원군 강서면 문암리 그리스도의 교회 안일승 목사  
 충북 청원군 남이면 양촌 그리스도의 교회 김은성 목사  
 충북 청원군 남일면 방서리 방서리 그리스도의 교회 함태영(창현)  
 목사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그리스도의 교회 이규승 전도사  
 충북 청원군 북이면 송정리 송정 그리스도의 교회, 치 전도사  
 충북 청원군 옥산면 사정리 그리스도의 교회

## 6) 힐 요한 선교사가 후원한 기독교 학교들



경북 안동군 풍산면 상리 안동복음중학교



충남 논산군 연무읍 논산 순리도 중학교

힐 요한 선교사는 충남 논산군 연무읍 에덴보육원의 설립자

노봉욱 원장이 미국 미시건 주립대학 철학과 교수로 정년퇴임한 로버트 스나이더(Robert M. Snyder) 박사의 지원을 받아 설립한 논산 순의도 중학교, 양정식 목사가 운영한 경북 안동군 풍산면 상리 안동복음중학교, 장호원과 충주에 세워졌던 총 네 개의 기독교 중학교들과 이리 맹아 어린이학교를 지원하였다. 그가 지원했던 이들 학교들 가운데는 자금부족으로 두 곳이나 문을 닫았지만, 1965년의 선교소식지에 의하면, 힐 선교사는 이들 수백 명의 가난한 소년 소녀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모금에 힘썼다.

### 7) 힐 요한 선교사가 설립했거나 후원한 보육원들



대전 판암동 그리스도의 교회 애생원



충남 논산군 연무읍 개면 보육원

힐 요한 선교사는 1951년 8월 4일 서울 송월동 선교부에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Christian Mission Orphanage)을 시작하였고, 이종만 목사가 1952년 8월 1일에 설립한 인천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 1950년대 초에 설립된 대전 판암동 그리스도의 교회 애생원, 1952년에 설립된 대구 배성보육원, 1959년 이후 홍경채가 설립한 부산 성광원, 노봉욱 장로가

1959년 10월 15일에 설립한 논산(연무) 에덴보육원에 지속적으로 후원금을 보냈다. 또 자신의 딸딸 버지니아가 대전 선교부에 1968년에 설립한 보육원(Taejon Christian Orphanage)을 직접 관리하였다. 이밖에도 충남 부여군 합송리에 구애보육원이 있었다. 이 무렵 고아들의 미국 입양에도 힘을 썼다. 충남 논산군 연무읍 순의도 중학교 설립기금의 3분의 2를 지원한 로버트 스나이더(Robert M. Snyder) 박사는 부산 성광원 법인 설립과 대전 선교부 보육원 건물건립도 지원하였다.

미국 시카고의 김순철 목사의 회고대로, 힘 요한 선교사는 일제치하와 전쟁후유증으로 궁핍하고 고단했던 한국에 와서 신학생들을 “아버이가 된 심령으로 가르치시고 입히시고 양육하셨으며.... 먼 앞날을 내다보시며 된장국의 국거리를 사 나르시던 정성 어린 손길”을 가졌던 심성이 매우 따뜻한 분이였다. 1961년 3월 2일에 쓴 춘선(春善)의 감사서신에 따르면, 힘 요한 선교사는 일기가 불순했는데도 불구하고 춘선의 결혼식이 있었던 인천까지 찾아가 축하하고 선물까지 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정성과 생명의 손길이 오늘의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를 있게 하였던 것이다.

## 2. 한국성서신학교

1955년에 가정문제로 한국을 떠났던 힘은 이듬해인 1956년에 제인과 재혼하였고, 3년 후인 1959년 8월에 제인과 두 살이 다 된 아기 대니를 데리고 부산을 통해서 재입국하였다. 부산에서 두 달 동안 알렉스 빌즈 가족과 함께 지내다가 선교사가 없는 대전에 정착하였다. 알렉스 빌즈(Alex V. Bills) 가족은 1956년부터 부산에서 기독교 방송 선교부를 창립하여 전파선교를 감당하면서 방송국설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던 때였다. 1950년대 말까지 부강교회와 선화교회를 설립하는 등 충청과 전라권에서 목회자 육성과 교회개척에 힘을 쏟으며, 수십여 개 교회들을 자신의 영향권아래에 두었던 김은석 목사와 논산(연



무) 에덴보육원과 순의도 중학교 설립자 노봉육 장로가 힐 가족의 대전 정착에 큰 힘을 보탰다.



최초의 신학교 교수 및 학생들 (1959-60년 겨울)  
 대덕군 유천면 도마리 심영진 목사 시무 성화교회당 앞(현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  
 앞줄 왼쪽부터 힐 제인, 힐 요한, 김은석, 심영진, 김택수,  
 뒷줄 왼쪽부터 오재건, 고재균, 뒷줄 오른쪽부터 고광석, 김찬영



최초의 신학교인 성화교회당에서의 수업장면(연통우편뒤 고광석, 난로우편앞 김찬영)

한국성서신학교는 '대전성서신학교'라는 이름으로 힐 요한

(John Hill) 선교사에 의해서 1959년 12월 1일에 개교되었다. 첫 수업은 대전광역시 도마동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당 (당시 충남 대덕구 유천면 도마리 성화교회, 심영진 목사시무. 1958년에 신축된 20평 흙벽돌집)에서 20여명의 학생으로 시작되었으며, 교수진은 힐 요한 선교사 부부, 김은석 목사, 심영진 목사, 김태수 목사(통역), 김찬영(통역) 등이었다. 이듬해인 1960년에 부산에서 이신 목사가 교수진에 합류하면서 대전역에서 가까운 선화교회(고광석 목사시무)로 옮겼다. 이신은 1959-60년에 부산문화방송에서 방송설교를 하고 있었다.

힐은 1961년에 가장동 유등천변의 큰 부지를 매입하여 천막 교회를 시작하였고, 선교사 주택, 예배당, 학생숙소 등을 짓기 시작하였다. 이때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은 근로 장학 명목으로 학비와 기숙사비를 면제 받을 수 있었다. 가장동 캠퍼스시대가 열리면서 1962년 3월에 교명을 서울에서 쓰던 한국성서신학교 (Korea Bible Seminary)로 바꿨고 이 명칭은 20년간 사용되었다. 당시 테일러 선교사가 송월동 선교부 재산을 모두 팔았고, 현 서울기독교대학교 캠퍼스 부지와 건물을 매입할 때까지 수년 동안 신학교 운영이 중단되고 있었다. 이로써 1940년대에 간헐적으로 운영되었던 신학교의 맥을 잇는 동시에 1950년대 기간에 김은석 목사(1963년 1월 21일 소천)의 신화신학 혹은 그리스도의 교회 성경연구회 영향권 아래 있었던 충청 전라권의 교회들과 목회자들은 한국성서신학교와 힐 요한 선교사의 지도력아래 놓이게 되었다.



힐 선교사는 1964-65년 사이에 생애 두 번째 안식년을 보내기까지 가장 긴 5년의 기간을 선교사로서 가장 활동적이고 가장 보람차게 보냈다. 이때의 교수들은 힐 요한과 제인,

김은석, 심영진, 이신(1966.09 미국유학), 최요열, 김이영(김찬

영, 통역, 1962년 말 입대, 1965.09 미국유학), 소교민(통역), 리처드 래시(Richard and Melba Lash), 김히영(통역 및 음악), 임춘봉 등이었다. 이 무렵 화가였던 이신 목사는 메노라(일곱 줄기 등대)를 양각한 신학교 현판을 제작하였고,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 그리스도의 교회를 시무한바 있는 임춘봉 목사는 교가를 작사하였으며, 부산에서 알렉스 빌즈의 방송선교부 PD로 있다가 군에 입대한 김찬영 통역의 후임으로 교수진에 합류한 김히영 교수는 교가를 작곡하였다. 대전교도소 교무과장 김치연 및 졸업생들 가운데 이은수, 김은석의 양자 김성철(충남대 졸업), 최용호(80년대 초 미국유학), 천명화(목원대 졸업), 인원영, 최금생(YMCA 간사), 박태규(통역) 등이 19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초에 합류하였다. 선교사들로는 프레드 호프만(Fred and Ellie Hoffman)과 힐의 딸 버지니아(Virginia)가 합류하였다. 힐의 지도력으로 1960년대에 90여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고, 상당수가 교회를 개척하거나 기존교회들을 섬김으로써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 일부는 미국으로 건너가 한인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설립하였다.

힐이 재임했던 1960년대 기간에 가장동 캠퍼스에는 선교부와 선교사들을 위한 2층 저택과 단층 주택(소실), 학생들이 만든 시멘트블록 교회당과 기숙사와 몇 채의 작은 직원 숙소들 및 고아들을 위한 단층 벽돌슬래브주택이 있었다.

1961년경에 힐 선교사 가족과 선교부를 위한 2층 주택과 또한 채의 단층 주택 및 신학교 기숙사가 지어진 다음, 1962년에 가장동 그리스도의 교회당이 신학교 강의실 겸용으로 지어졌다. 이 교회당은 교사가 건축될 때까지 1960년대 전반기 동안 신학교 원룸강의실로 쓰였다. 처음 지을 때는 마룻바닥이었으나 마루를 들어내고 시멘트바닥으로 바꾼 후 책상을 곁할 수 있도록 책받침을 넓게 만든 강의자를 사용하였다. 교실이 급했기 때문에 안팎의 벽을 시멘트로 미장도 하기 전부터 강의실로 쓰였다. 비록 장소가 누추하고, 책상은 열악하며, 좁고 덥고 배고픈 시절이었지만,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만큼은 그 어느 때

보다 뜨겁던 때였다. 근로와 학업을 겸했던 이 시대의 청장년들은 오늘날의 청장년들보다 정신적으로 월등히 성숙했었다.



1960년대 초의 원룸강의실 겸 가장동 그리스도의 교회 예배당 시멘트 미장을 한 후에 십자가 밑에 이신 목사가 제작한 현판을 매달았다.



1960년대 초의 원룸강의실 겸 가장동 그리스도의 교회 예배당 원래 마루바닥이었으나 걷어내고 시멘트 미장을 한 후에 사진에서처럼 강의자 형태로 교체하였다. 교사가 지어진 후에는 예배당으로만 사용되었다.

힐은 1964년에 최초의 교사건물을 짓기 시작하였는데, 현관이 딸린 사무실 2칸, 교실 2칸짜리 본관건물이었다. 1959년 여름에 한국에 나와 대전에서 사역을 시작한 힐 요한 선교사 가족은 힘겨운 5년을 보낸 후 미국에 돌아가 안식년을 보내고

1965년 한국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면서 선교소식지를 후원자들에게 보낼 때, 3분의 1의 건축공정을 마친 본관건물의 사진을 실었다. 힐 선교사는 이 건물을 완전히 끝내는데 필요한 경비가 9,500불이라고 적었다. 힐 선교사 내외는 이 건물을 끝내기 위해서 힘겨운 모금전쟁을 펼쳐야 했다.



1964년에 짓기 시작한 현관이 딸린 사무실 2칸, 교실 2칸짜리 본관건물



1965-66년경에 힐 요한 선교사가 완공한 본관 건물

힐은 건축공정을 끝내고 커튼까지 드리운 이 건물을 몇 년간 교사로 사용하다가 선교사역 30년 주년이 되던 1969년 봄에 2층으로 올리는 증축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자금이 부족하여 1971년 초여름까지 지연되다가 선교사 조 가맨(Joe Garman)과 김찬영의 도움으로 1972년 초여름에 완공되었다. 그해 1972년 6월에 힐과 그의 가족은 한국에서의 선교사역을 완전히 접고 모든 사역을 김찬영과 패츄리샤(Patricia) 선교사내외에게 위임하고 귀국하였다. 이때로부터 90년대 말까지 근 30년

간 충청이남지역의 교회들과 목회자들은 김은석 목사와 힐 요한 선교사에 이어 김찬영 목사의 지도력아래 놓이게 되었다.



1972년 3월 봄학기를 개강하면서 찍는 단체 사진.  
힐요한 선교사의 마지막 학기였다.



1972년 6월 힐 선교사 가족 송별 단체 사진.

<사진설명> 위의 사진들은 힐 요한 선교사의 마지막 학기였던 1972년 3월과 6월에 각각 찍은 것이다. 3월 개강기념 사진(상)에서는 현관 2층 상단에 교명을 새기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인 것을 볼 수 있고, 6월 송별 사진(하)에서는 2층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 사진은 힐 요한 선교사 내외가 한국

에서의 선교사역을 완전히 접고 모든 사역을 김찬영 목사 내외에게 위임하고 귀국하기 직전에 촬영한 송별사진이다. 2층의 창밖으로 커튼이 휘날리고 있다. 중앙 상단은 한글로 반달 모양으로 ‘한국성서신학교’라고 음각(陰刻)하였고, 밑에는 일직선으로 ‘KOREA BIBLE SEMINARY’라고 새겼다.



1960대 초의 교수진  
좌측부터 김찬영, 윌 요한, 이신, 최요별



1960대 초중반의 교수진과 이사들  
앞줄좌측부터 최요한, 김허영(사모), 윌 제인, 김현숙(집사), 이종만  
뒷줄좌측부터 심명진, 정인소(박사), 이신, 임명진(장로), 임준봉, 최요별, 윌 요한

# 교 가

입춘봉 작사  
김희영 작곡



계 룡 의 푸 른 줄 기 너 른 가 슴 에  
버 드 내 맑 은 물 예 불 의 를 씻 고  
색 각 의 차 별 이 나 돌 담 을 험 고



백 제 의 얼 이 서 - 린 무 발 이 있 다  
주 님 의 떡 을 나 - 뉘 한 형 제 되 니  
세 계 로 이 웃 삼 - 아 인 류 를 뭉 처



진실과 의기앞에 청춘을바친 아 - 우리 는 평  
새로운 회개운동 개혁의햇불 아 - 우리 는 진  
전쟁의 비참에서 구원해낼 자 아 - 우리 는 복



화 의 수 호 자  
리 의 파 수 군 이 계 녹슨칼로 모습 을 처서 영원한  
음 의 전 도 자



사랑의씨이땅에심 자 한 국은 우리의집성 서는 무



기 나 가 자 거 친 들로 한성 의 용사



### 3. 힐 요한 선교사의 제자들(1960-71년)

1960년대를 대전시 서구 가장동 21-5번지 신학교에서 보낸 학생들이 정확히 몇 명이나 되는지는 알 수 없다. 1972년에 힐은 졸업생이 90여명에 이른다고만 하였다. 힐 요한 선교사가 1960년대 기간에 찍은 사진들을 살펴보면, 연대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한 가지 도움이 될 수 있었던 팁은 김찬영 목사(한양대 교육학 박사), 이신 목사(밴더빌트대 신학박사), 김희영 교수의 도미(渡美)시점이다. 김찬영 박사는 힐과 함께 부산에서 올라와 한국성서신학교에서 힐 요한 선교사의 통역관으로 일하면서 영어를 가르치다가 1962년 말 혹은 63년 초경에 입대하였고, 1965년 9월 5일에 도미(渡美)하여 학업을 마치고 70년 11월 15일 귀국하였다. 이신 박사는 1966년 9월에 도미하여 71년 8월에 신학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다. 그리고 김희영 교수는 63년 봄부터 71년 8월 12일 음악선교사로 미국에 이민 갈 때까지 힐 요한 선교사의 통역과 음악교수를 맡았다. 따라서 김찬영 목사가 함께한 사진은 59년 말부터 62년까지이며, 이신 목사가 함께 사진은 65년까지이며, 김희영 교수가 함께한 사진은 63년 이후 70년까지이다.

이곳에 실린 졸업 또는 재학생들의 이름은 파악 가능한 경우에 한한 것이며, 졸업생만 95명에 이른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 가운데 대략 25퍼센트 정도만 그리스도의 교회에 끝까지 남아 사역하였다. 이 25퍼센트는 70년대 이후 한성신학교 또는 한민학교 졸업생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잔류한 수치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다.

1970-80년대는 한국에 전도 폭발이 있었던 시대였으므로 졸업생들 가운데 다수가 타 교단에 들어가 성공적으로 목회사역을 이어갔고, 학업을 지속하여 학위를 갖추는데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들 중에는 복음교회의 윤기열 목사, 라명환 목사, 흥성교회의 유기성 목사, 인천장로교회의 최정성 목사(한성신학교 교수 역임), 대천교회의 장세동 목사, 예산교회의 신성철 목사,

인천감리교회의 천명화 목사(한성신학교 교수 역임) 등이 있다.

1970년대에는 미국으로 이민을 간 졸업생들이 꽤 많았다. 이들 중 다수가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여 시무하였고, 사업에도 성공하였다.

(1)추정 가능한 졸업생 명단

제1회(61년 12월): 고재윤, 윤기열, 김영애

제2회(62년 6월): 김송차, 조사환(태영)

제3회(62년 12월): 안일승, 인원영, 남충열, 유정숙, 최명순

제4회(63년 12월): 신영기, 최창운, 송명희, 이은수

제5회(64년 12월): 임홍만, 박병문, 최용호

제6회(65년 6월): 이영선, 하복례, 박경식, 김인숙, 김도영, 김은영, 남동식, 최금생, 강신웅, 김승일, 한옥동, 박문자

제7회(65년 12월): 유근희, 최태시, 천명화, 유문자, 김재업, 라명환, 박영자

제8회(66년 6월): 고원필, 김경주, 조규석

제9회(66년 12월): 송행자, 김영애, 이백호, 김준배

제10회(67년 6월): 최정성, 이덕환, 박태규, 조오환, 박근화, 유기성

제11회(67년 12월): 김은미

제12회(68년 7월): 김재술, 석만영, 최중원, 이용복, 임병선

제13회(68년 12월): 현정규, 김호규, 이정식, 김규화,

제14회(69년 6월): 안병호, 박근혜, 나몽기, 최이선

제15회(69년 12월): 장휘명, 채동수, 김수영, 정진성, 김용임, 최세동, 김순철, 이영호

제16회(70년 6월): 함태욱

제17회(70년 12월): 김영현, 전금자, 최송희

제18회(71년 6월): 송완현, 김정례, 순동식, 김동식

제19회(71년 12월): 오순덕, 박옥채, 강신의, 이사운, 장건일, 지정자, 조정숙, 엄정자, 유덕례

제20회(72년 12월): 박종서, 안승학, 이선재, 조남중, 권영옥,

주형근, 오홍련. <총 95명>

(2)힐 선교사에게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가나다순)

강신웅, 강신의, 고원필, 고재윤, 권영옥, 권오천, 김경주, 김규화, 김도영, 김동식, 김복례, 김성철, 김송차, 김수영, 김순철, 김승일, 김영애, 김영현, 김용임, 김은미, 김은영, 김인숙, 김재술, 김재업, 김정례, 김준배, 김형주, 김호규, 김효자, 나몽기, 남동식, 남충열, 라명환, 문안심, 박경식, 박근희, 박근화, 박남용, 박문자, 박병문, 박영자, 박옥채, 박종서, 박태규, 서광석, 석만영, 송명희, 송완현, 송행자, 순동식, 신성철, 신영기, 안병호, 안승학, 안일승, 양태윤, 엄정자, 오순덕, 오홍련, 유근희, 유기성, 유덕례, 유문자, 유정숙, 유창운, 윤기열, 이덕환, 이백호, 이선재, 이사운, 이영선, 이영호, 이용복, 이은수, 이정식, 이종대, 이춘만, 이춘식, 이홍렬, 인원영, 임병선, 임영일, 임홍만, 장건일, 장휘명, 전금자, 전상희, 정수모, 정진성, 조경숙, 조규석, 조남중, 조동호, 조성식, 조사환(태영), 조순례, 조오환, 주형근, 지정자, 지철희, 채동수, 천명화, 최금생, 최명순, 최세동, 최송희, 최용호, 최이선, 최정성, 최종원, 최창운, 최태시, 최창효, 하복례, 한규덕, 한옥동, 함태욱, 현정규, 홍순기  
<총 119명>

(3)미국에서 활동 중인 동문들

이은수 목사(본과1회, 뉴욕 동산교회), 신영기 목사(제4회, 일리노이 병원 정신과 상담의사), 박경식 목사(제6회, 목회은퇴 후 기도원 사역), 김희영 교수(국제 와이즈맨 클럽 총재 역임), 유근희 박사(제7회,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 아시안/태평양 교회 담당자 역임), 이영선 사모(제6회), 하복례 전도사(제6회), 최태시 목사(제7회), 고원필 목사(제8회), 이백호 목사(제9회), 현정규 목사(제9회), 오순덕 사모(제19회), 유정숙, 최창효, 장휘명 목사, 김순철 목사(제15회), 시카

고 기독교 방송국 국장) 등이 있다. 이영선(6회) 사모의 남편은 미국 C.M.A 교단 감독을 역임하였다.



1961년 12월 12일, 제1회 졸업식 기념사진  
좌측부터 고재훈, 김영애, 윤기열, 힐 쇼한



1961년 12월 12일, 제1회 졸업식 기념사진  
앞줄 좌측부터 이근수, 소교민(?), 김찬영, 힐 쇼한, 이신, 최효열,  
김영애, 송명희, 가운데 줄 우측부터 최명순, 유정숙, 한 사람 건너 남중열,  
한 사람 건너 박태규, 조사환, 임홍만, 김송차, 뒤줄 우측 첫 번째 박병문,  
좌측부터 신명기, 최창문, 안일승, 인현영.



한국성서신학교본과제2회성서과제5회졸업기념  
서기 1964. 12. 18일

앞줄 우측부터 2번째 최수호, 김희영, 심영진, 이신, 래쉬,  
 앞줄 좌측에서 2 번째 박병문, 3번째 임종만, 4번째 최요열,  
 맨 뒷줄 우측부터 6번째 함두진(제일학교 은 머리함),  
 셋째 줄 좌측부터 최정섭, 4번째 김순철, 5번째 박문자(맹인), 6번째 최금생,  
 4번째 전영과, 최중원, 둘째 줄 1번째 박문자(맹인), (필 선교사 안식년)



한국성서신학교 제7회 졸업기념  
1965. 12. 23

최요열 목사는 65년 12월 5일자로 부천시 덕곡동 소재 새소망 교회(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순복음  
 새소망 교회)에 부임하였으나 신학교와의 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앞줄 좌측부터 박영자,  
 유문자, 김치연, 심영진, 이신, 필 재인, 필요한, 최유호, 김희영, 이은수, 둘째 줄 좌측 4번째  
 전영과, 라명관, 유근희, 김계집, 셋째 줄 2번째 최태시, 7번째 김순철,  
 4번째 김계술, 끝줄 좌측부터 최정섭, 한사람 건너 최중원, 이백호.



앞에서 2번째 줄 좌측부터 최홍호, 임준봉, 김치연, 임명진, 노봉우, 필요한,  
 필계진, 이준만, 최요철, 김희영, 이은수, 둘째 줄 중앙 졸업자 좌측부터  
 조규익, 고현필, 김경우, 셋째 줄 왼쪽 김성철, 뒤줄 우측 5번째 최중원.



앞줄 좌측부터 버지니아 힐, 심경진, 김치연, 중앙 필요한, 제인 힐, 렉시(선교사),  
 임명진(장로), 이준만, 최순국, 김희영(교수), 최홍호, 최요철, 두 번째 줄  
 우측 이은수, 필 김성철, 둘째 줄 졸업자 좌측부터 송행자, 김명애, 김준배, 이백호.



1971년 6월 제18회 졸업식 기념사진.  
 좌측부터 손관현, 김성래, 손동식, 김동식,  
 뒷줄 좌측부터 더 래시, 힐요한, 힐제인, 패츄리샤 김, 김찬영  
 (1969년에 시작한 2층 증축공사가 거의 진척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 4. 힐 요한 선교사의 교회 후원

힐 요한 선교사는 많은 돈을 모금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늘 선교비가 부족하였다. 그가 활동했던 시절은 한국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도와야할 곳이 너무 많았다. 이런 사정 때문에 힐은 생활비를 줄여야 할 때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힐은, 노봉욱의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 14-15쪽, “발간사”에 의하면, “나는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일(한국 교회 후원)을 계속 할 것이다”(I will continue to do this work until I go into Heaven)고 한 자신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냈다.

힐 요한 선교사는 1960년대 기간에 충청이남지역에서 일생 중에 가장 활발한 사역을 펼쳤고, 생애 절정기인 50대를 보냈다. 거의 매주일 지방의 교회들을 방문하여 설교하고 침례를 베풀

풀었으며 예배당 건축과 목회자들의 생활을 도왔다. 여기에 그가 남긴 1960년대 사진들 가운데 몇 장만 골라서 소개하였다.



1962년 건축 중인 안양 그리스도의 교회, 좌측부터 힐요한, 장주열, 김찬영



1965년 건축 중인 대전 선화동 그리스도의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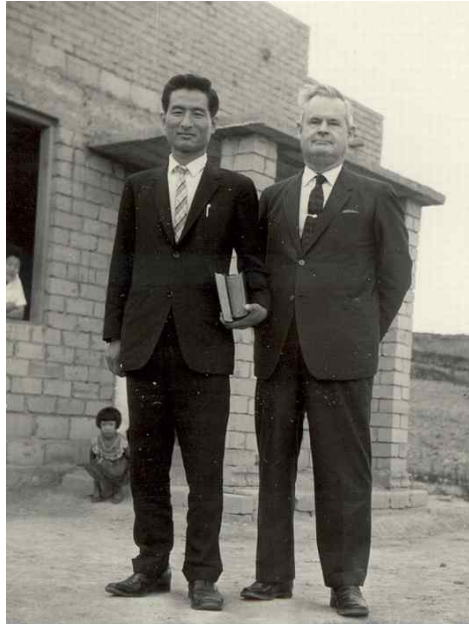




1969년 건축 중인 대전 신탄진 그리스도의 교회



1969년 신탄진 그리스도의 교회  
우측부터 김희영 교수, 김용순 목사, 리처드 래쉬 선교사, 박태규 교수



건축 중인 전주 금암 그리스도의 교회, 좌측부터 최용호, 칠요한



1972년 건축 중인 중북 정천군 남이면 양촌 그리스도의 교회  
윗줄 우측 끝 박태규(목역), 좌측 끝 인현명 목사.



1968년 달전 그리스도의 교회, 우측에서 두 번째 박태규 교수(통역)



1960년대 황정 그리스도의 교회, 우측 김희영 교수



1960년대 대전시 죽동(유성) 그리스도의 교회  
우측부터 김성철 목사, 힐 요한 선교사, 김철성 목사, 좌측 끝 김희영 교수



1960년대 충북 청원군 현도면 벨엘(상삼) 그리스도의 교회, 우측 석만영 목사

## 5. 힐 요한 선교사의 동료들

힐 요한 선교사의 동료들은, 김은석 목사의 동료들도 그렇지만, 대부분이 20-30대의 젊은이들이었다. 사진만으로 볼 때는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모두 성숙해 보이지만, 그들의 출생연도를 따져보면, 20대 또는 30대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은 대부분 이처럼 젊은 청장년들이었다. 아래에 소개한 사진들 속의 인물들도 성낙소, 김은석 등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0-30대 청장년들이다.

아래의 사진은 연대와 장소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몇 장 안 되는 성낙소 목사의 사진이다. 성낙소는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1940-50년대 기간에 힐 요한 선교사를 도와 신학교 교수로 섬겼다.



힐 요한 선교사의 동료 성낙소 목사(좌측)

다음의 사진 역시 연대와 장소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몇 장 안 되는 김은석 목사의 사진이다. 이 사진 속에서 김은석의 유일한 유품인 성경과 가방을 볼 수 있다. 사진 속의 교회는 높은 산 아래 위치하고 있고, 부강교회와 선화교회와도 모습이 달라서

자신이 목회한 교회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필요한 선교사(첫줄 중앙)의 동료 김은석 목사(첫줄 우측 두 번째)



필요한 선교사의 동료들  
뒷줄 우측부터 두 번째 장성만, 네 번째 김한영 (1960년대초)



1960년대 초반의 칠요한 선교사의 동료들  
 앞줄 가운데 최요열(1930년생), 한송자 부부, 우측 심영진, 좌측 이종만,  
 뒷줄 우측부터 칠요한, 반 사담 건너 임준봉, 정인소(박사), 정낙소(64년 11월 소천),  
 이신, 고광석, 장주열(최요열 목사 큰 동서)



60년대 초중반에 한국성서신학교에서 열린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  
 뒷줄 우측에 리처드 래시, 칠요한, 8번째 최용호, 좌측에 힐 제인, 셋째 줄 우측부터  
 6번째 김중현, 8번째 고광석, 14번째 전명화, 둘째 줄 우측부터 장주열,  
 노봉욱, 임준봉, 장성만, 최요한, 9번째 조규석, 앞줄 우측부터 이종만, 4번째 안일승.

## 1) 고광석 목사

고광석 목사에 대한 자료는 많지 않다. 그러나 그는 1950년대 중반부터 김은석 목사의 제자와 동역자로 활동하였고, 힐 요한 선교사가 대전에 정착한 1959년 초창기부터 시작하여 60년대 내내 힐 선교사의 사역에도 적극 동참하였다. 김은석의 성서 통독메모(1953-59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김은석 목사의 제자이자 힐 요한 선교사의 동역자였던 고광석 목사  
1960년대 장소 미상의 교회(상)와  
대전 신촌 그리스도의 교회(우측하), 우측부터 최효열, 고광석, 힐 요한, 임춘봉(좌측하)

첫째, 고광석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 학생이었다. 고광석은 1955년 충북 괴산군 소수면 소수교회에서 진행된 백일집중공부에 참여하였다. 김은석은 이때 이미 그를 전도사로 호칭하였



다. 1955년 5월 27일자 메모에 의하면, 이날 남녀 합하여 18 명이 공부하였는데, “소수교회당에서 백 일간에 공부하는 중에 공부함. 김재순 목사 서울 가심. 고광석 전도사님은 권영수, 전도회 두 분과 전도 가심.”이라고 적었다.

둘째, 고광석은 바울의 디모테처럼 김은석의 충실한 제자였다. 김은석이 가는 곳에 바늘과 실처럼 동행하였다. 1955년 6월 18일(토) 오후에 김은석, 김완례 부부와 동행하였고, 7월 8일에는 김은석과 함께 청주에서 소수교회로 향하였다. 또 12월 21일(수) 아침에는 김은석과 함께 서울성서신학교 숙사에서 지냈다. 1957년 4월 27일(토)에는 고광석이 김은석, 김규상 등과 함께 전남 해남군 마산면 장성리에 머물렀다. 김은석 목사의 병문안 또는 부름을 받고 자택을 방문한 기록이 1958년 1월 27일까지 몇 차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셋째, 고광석은, 김은석의 성서통독메모들을 근거로 볼 때,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 출신이었거나 충북 청주시 영운동이 거주지였거나, 1956년 어느 시점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영운동에 개척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은석 목사는 1956년 6월 23일(토) 아침에 청주역에서 기차타고 소수교회로 가기 위해서 강신규 자매와 함께 영운동 고광석 전도사 집에서 나온 것으로 기록하였고, 8월 17일(금)자 기록에 의하면, 김은석이 김은영, 고광석, 노의수와 함께 충북 청주시 영운동 교회당에 머문 것으로 되어 있다. 참고로 영운동 그리스도의 교회는 김은석의 주소록에 남아있지만, 힐 요한의 주소록에서는 찾을 수 없다.

넷째, 고광석은 병약하였다. 1955년 7월 19일 아침에 김은석이 대전 자택에서 부강으로 향하였는데, 부강에 도착해 보니, 고광석 형제가 병중이어서 수리교회에 가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다. 1955년 8월 16일 김은석은 사모 김완례와 김옥여, 이원노, 강신규와 더불어 병원에 입원한 고광석 전도사를 병문안하고, 대전 판암동 그리스도의 교회 애생원(愛生園)을 방문하였다.

고광석 목사는 1960년대 힐 요한 선교사의 선교사역에도 적극 동참하였다. 힐 요한 선교사는 가족과 함께 1959년 8월에

부산을 통해서 입국하여 대전에 정착하였다. 1959년 12월 1일 심영진 목사가 시무하는 충남 대덕구 유천면 도마리, 성화교회에서 신학교를 개교하고 예배당 앞에서 기념 촬영한 사진에 고광석이 힐 요한 부부, 김은석, 심영진, 김태수, 오재건, 고재윤, 김찬영 등과 함께하였고, 수업시간 혹은 개강예배에도 참석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듬해 1960년에는 고광석이 시무하던 선화동교회로 옮겨 수업을 계속하였다. 이후 1960년대 중반에 한국 성서신학교에서 개최된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에 참석하였고, 힐 선교사가 남긴 사진들에서 그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 2) 지철희 목사



지철희 목사

지철희 목사는 1937년 8월 29일생으로써 소년 시절부터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들을 자주 접할 기회를 가졌다. 12세 무렵에 정찬성 목사가 충북 괴산군 불정면 외령리 교회를 지철희의 누나 집에서 시작한바가 있고, 20

대에는 박점상 목사로부터 전남 무안군 현강면 평산리 교회의 정귀남 집사의 딸을 소개받아 김재순 목사의 약혼식 주례와 김은석 목사의 결혼식 주례로 1957년 11월 말에 결혼하였다. 김정만 목사도 결혼식에 참석하여 축하해 주었다.

지철희는 젊어서 김은석 목사를 비롯하여 다수의 초기 목회자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교회와 충북 괴산군 소수면 소수교회에서 이뤄진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 참석하여 강의와 설교를 듣고 목회자가 되었다. 이 무렵 함께 공부한 사람들은 이해순, 나연찬, 김태수, 김철수, 심영진, 박병우, 김정만, 박점상, 김은성, 김은영, 모갑경 등이었다. 지철희

목사는 이 당시를 이렇게 회고하였다.

당시 부강에서 성경공부를 하려고 모인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가난했다. 나도 그랬지만, 대략 모인 사람들이 100-150명 이상이었는데, 항상 있는 사람은 7-8명 정도로써 대략 식량을 가져오는데 1-2말 가져오고 반찬도 제각기 가져오고 그래서 부족한 식량을 채우기 위해서 부강 근처 들녘으로 가서 버려진 배춧잎 무청, 고구마줄기 같은 것 그리고 장날이면 장터에 버려진 먹을 만한 것들을 주어가 충당하고 없으면 금식하고 그러다가 힘들면 집으로 돌아갔다. 마치 전기충전소와 같이 은혜와 말씀이 그리우면 또 약간의 양식을 가지고 찾아왔다. 그러면서도 불만이 없고 그저 형제자매 모매님 하면서 걱정해주고 위로하였다. 환자가 많이 왔는데, 함께 간호하고 기도하며 누가 무엇을 시키지도 않고 무엇을 하라는 감독도 없었다.

전남 지방에서 많은 성도들이 왔고, 주로 청주와 대전근방에서 왔다. 충주에서 이종석, 이갑수, 정석기, 이원로(노), 조춘식, 김정만, 지철희, 이안식, 이학재 등이 왔다.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설교를 듣다가 너무나 기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찬송이 나오고, 결국에는 설교자나 듣는 이가 자연히 합창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 하시면 무릎을 꿇은 채로 30-40cm 까지 뛰기도 하였다. 얼마나 뛰었는지 결국 마루 장까지 꺼졌다 한다. 그러다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부강 장날 거리를 급히 오고 가면서 외치기를 이 썩은 보리 찬밥 덩어리들아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생명 떡으로 배불림을 받고 쉼을 받으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외쳤다.

고 김은석 목사님의 설교는 대략 열변이 아니고 조용한 강의식이었다. 신구약 성경을 오가면서 구약에서 물으면 신약에서 답을 하고 신약에서 물으면 구약에서 답이 나오는데 정확하고 일반적으로 아는 답보다 훨씬 새로웠다. 그래서 듣는 이가 무릎을 치며 기뻐하고 감사하곤 했다. 내가 보기로는 어느 성경학자보다도 더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통달한 분이였다.

어느 산이든 풀밭이든 앉으면 그 자리에서 밤새워 기도하고 쉬고 먹는 시간외에는 성경을 보고 찾는데, 성경이 곁레쪽같이 낡고 찢어진 것을 보았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존경하고 그에게 모인 것 같다. 그 당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가장 엄격히 가르친 것

은 동참 죄를 가르친 것 같다. 그리고 우상타파와 그리고 기성교회 목사들은 바리새인들이다. 그리고 세례 성찬을 왜곡함으로 구원받는 문제도 그들은 어렵다고 하셨다. 그래서 일반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단이라고 했을 것이다.



1960년대 조기암 그리스도의 교회, 우측 지철휘 목사

지철휘 목사는 최요한 목사가 평산리 처가 마을에 1947년 1월초에 세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결혼한 1957년에 첫 목회를 시작하였다. 평산리 교회는 1960년대에 대전 한국성서신학교에서 가르친 임춘봉 목사와 박점상 목사가 목회하였고, 지철휘의 장인인 정귀남 집사(전도사)가 예배를 인도하던 중에 갈라져 오늘날에는 무안 현경현화 그리스도님의 교회로 이어가고 있다.

참고로 성낙소 목사는 단기 4286(1953)년 7월 3일에 <신약 교회 목회학>를 발행한바 있다. 이 귀한 책을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가 지철휘 목사로부터 기증받아 매우 어렵게 편집한바가 있다. 지철휘는 이 책을 장인 정귀남 집사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하였으나 책 뒷장 겉표지에는 “평산 그리스도의 교회 1958년 2월 10일 구입 지철휘”라고 적혀 있다.

김은석 목사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 집중강의 일정을 통보하기 위해서 보낸 1958년 5월 5일자 전보수신자에 지철휘 목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김은석은 1958년 7월

10일부터 소년성경학이 개설된다는 것과 8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성경공부가 있다는 통신문을 총 54명과 6곳의 교회에 보내었는데, 그 속에도 지철희 목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후 지철희 목사는 한국성서신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였고, 1973년에 제21회로 졸업하였다. 지철희는 일평생 교회개혁에 힘을 썼으며, 개혁 후 교회가 성장하면 미련 없이 새로운 개혁지를 향하여 떠나곤 하였다.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성당리 벤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오랫동안 시무하였고, 암으로 투병 중에 73세의 나이로 2010년 11월 21일 소천 하였다.



<필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를 출판한 다음 해인 2007년 1월 25일 노봉욱 원장의 초청으로 이뤄진 회식모임 좌측부터 노봉욱 장로(에덴 보육원 설립자), 심명진 목사(현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 개혁자), 김지현 목사(대전교도소 교무과장 역임), 심명진 목사와 김지현 목사는 한국 성서 신학교에서 다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다.

### 3) 노봉욱 장로

노봉욱 장로는 1959년 10월 15일 충남 논산군 연무읍 동산리에 에덴 보육원을 설립하였다. 이어 연무 그리스도의 교회, 세광고등공민학교, 학교법인 순의도 학원, 충남 보육교사 교육원 등을 설립 운영하였다.

에덴보육원 원장 또는 이사장으로 서 노봉욱 장로는 40여 년간 700여 명의 고아들을 길러냈다. 노봉욱 장로는 나희화 사모로부터 3남 2녀를



노봉욱 장로(에덴보육원, 순의도중학교 설립자)

났으나 원생들과 똑같이 생활하며 형 동생 누나 언니 등으로 친형제자매의 의를 맺도록 하였다.



에덴보육원 건축

노봉육은 원주대학 사회사업과를 졸업하였고, 중앙대 사회개발 대학원 사회교육과를 수료하였다. 오신초등학교와 서울 호제초등학교에서 교사로서 가르쳤고, 세광고등공민학교 설립 및 동교 교장, 학교법인 순의도 학원 설립 및 순의도 여중(현 연무여중) 교장, 충남 보육교사 교육원 설립 및 동원장, 사회복지법인 에덴원 이사장 및 에덴보육원 원장, 사단법인 한국 아동복지시설 연합회 충남도지회장,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충남도 부회장, 재단법인 한국그리스도의 교회 유지재단 이사 및 이사장,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 부회장, 논산 YMCA 설립 및 초대이사장, 중국 조선족 어린이 사랑 회장을 역임하였다. 상훈으로는 충남도지사 공로표창 2회, 보건복지부장관 공로표창 2회, 국무총리 공로표창, 제3회 전국사회복지대회 대회장상, 국민포장 수훈,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하였다.

노봉육은 평남 용강군 오신면 내덕리 노촌 (노씨만 모여 사는 마을) 부락에서 태어나 거기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초등학교



에멘보육원 전경

교 1학년 때부터 집에서 약 4Km 떨어진 덕해 장로교회를 다녔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노봉옥은 15세에 서울로 올라와 휘문중학교에 입학하여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하숙을 정하였다.

중학교에 입학한 1939년 봄 첫 주일 때 성경 찬송가를 옆에 끼고 골목길을 나선 후 찬송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긴 곳이 돈암 그리스도의 교회였다. 그곳에서 담임 목사였던 최상현 목사와 힐 요한 선교사를 만났고, 그분의 자녀인 최윤권 목사, 최윤모 장로도 거기서 만났다. 이후 노봉옥은 힐의 동료로서 일평생을 동역하였다. 노봉옥은 돈암교회와의 관계를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 92쪽 “나와의 만남”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나의 인생은 돈암 그리스도의 교회로부터 빛나게 펼쳐졌다. 나는 돈암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집사가 되었고, 주교 반사, 유년부 부장도 지냈다. 최상현 목사님으로부터는 너무나 큰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도 지어주셨고, 큰 병이 났을 때면 병원비도 대어 주셨고, 그러던 분이 6,25사변 때 이북으로 납치 당하셨으니....

그뿐 아니라 지금도 최목사님 맥과 사돈관계까지 맺고 있고, 이렇게 굳게 맺어진 인연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뿐 아니라 John J. Hill 선교사님과도 그 때부터 지금까지 (그분 연세 93세) 주안에서의 사랑의 교제, 그분 선교 사업을 돕게 되었으니...

이상의 돈암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놀랍고 나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을 믿고 그분께 감사 찬송을 드리는 바이다.

#### 4) 심영진 목사(1921.2.28-)



심영진 목사

심영진 목사와 김은석 목사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근거는 몇 장의 사진들뿐이다. 1958년 4월 13일 산상연합집회 중에 김은석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고, 한국성서신학교가 설립된 직후, 교수로서 1959-60년 겨울에 힐 선교사 부부, 김은석, 김태수 및 오재건, 고재윤, 고광석, 김찬영 등과 함께 자신이 시무한 충남 대덕구 유천면 도마리 성화교회(현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 앞에서 찍

은 사진이 있지만, 심영진의 이름은 김은석의 성서통독메모나 통신 및 신화신학 성경연구회 명단에서 찾을 수 없다.

심영진은 유교와 불교를 전전하며 10여년을 방황하다가 계시를 받고 개종하였다.

1953년 충남 대덕군 유천면 도마리 309번지 유천면장 손기섭씨 가정에서 성도 9명으로 장로교회를 창립하였고, 1954년 4월에 현재의 대전 그리스도



1954년 도마동 그리스도의 교회

의 교회 장소로 옮겨 천막교회를 세웠다. 1958년 8월에는 흙벽돌로 20평 교회를 신축하고 교회명칭을 성화교회로 하였다. 한국성서신학교가 1959년 12월 1일에 시작된 장소가 바로 이 건물이었다.

심영진은 바로 이 무렵, 즉 1958년경에 김은석을 만나 환원하였다. 성경을 읽고 세례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그가 받은 약식 세례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그 일로 고심하고 있던 차에 마침 김은석 목사가 대전 은행동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





1958년 8월에 흙벽돌로 건축된 20평 규모의 성화교회(현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

가 저물도록 세례에 관해서 토론하였으며, 그 후 일주일간 매일 만나 성경을 놓고 토론하던 중에 더욱 침례를 받아야겠다는 결심을 갖게 되었다. 같은 주간에 방서리 교회에서 김

은석 목사가 인도하는 부흥회가 있었는데, 함께 가자는 권유를 받고 참석하여 은혜를 받고 돌아왔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심영진은 1958년 4월 13일 산상연합집회에 참석한 기념으로 김은석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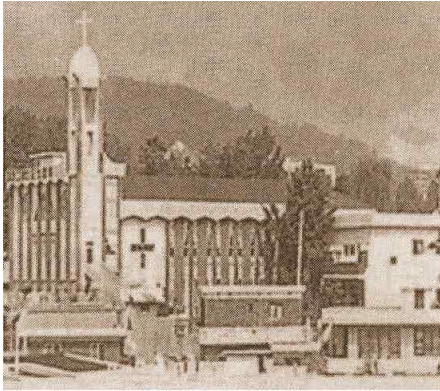
집회에서 돌아온 심영진 목사는 김은석 목사로부터 부부가 대전 유등천에서 침례를 받았다. 심영진은 이 사실을 교회에 알리고 양심상 장로교회를 할 수 없다고 설득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시켰다. 1963년 9월에 시멘블록과 스테트로 40평 교회를 신축한 후 성화교회(聖火教會)를 도마기독지교회로 개명하였다.



1960년대 도마동(대전) 그리스도의 교회 좌측부터 김순철(목사), 심영진 목사, 오재건(장로)

그리고 1975년 12월 4일에 연화 벽돌로 91평 교회를 신축하고 교회명칭을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로 변경하였다. 그 후 5년 만에 현재의 건물인 500평 규모의 예배당을 건축하였다.

1958년에 환원한 심영진 목사는 1960년대 기간에 한국성서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에서 교수로서 가르쳤고 힐 요한 선교사와 협력하였다. 또 심영진 목사는 1959년에 개최된 제1회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에 성낙소, 장성만, 최요열, 이신등과 함께 참석하였고, '신약 교회로의 환원'을 주제로 1961년 8월 17일 부강교회에서 개최된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에도 힐 요한, 장성만, 박재관, 김동열, 이종만, 정인소, 김찬영, 김성철, 이신, 장주열, 성낙소, 안일승, 고재윤 등과 함께 참석하였다.

심영진은 현재의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30여 년 동안 사역하면서 <계시록 연의>, <계시록 서기>, <성막 조성론>, <선지자의 사명>, <창조와 섭리>를 저술하였고, 은퇴하고 서울 돈암동교회를 담임하다가 다시 대전으로 내려와 개척교회를 섬겼다. 사모 박영자로 더불어 일곱 남매를 두었다.

## 5) 김치연 목사

김치연 목사는 평안남도 중화군 (당시) 출신으로 감리교신학대학을 졸업하였다. 오랫동안 대전교도소 교무과장으로 있으면서 선화동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겼고, 1965년부터 1970년대 기간에는 한국성서신학교에서 교수로서 가르쳤다. 퇴임 후 대전 시온 그리스도의 교회를 시무하였다.

김치연은 1949년에 교도관의 일



김치연 목사

을 시작하였으며, 1967년 10월 28일자 동아일보 7면 보도에 의하면, 교도관의 날을 맞아 대전교도소장이 18년 동안의 교도관생활에서 1백46명의 죄익수들을 전향시키고 무의무탁한 남녀 수형자들에게 짝지 맺어준 공로를 인정하여 “대전교도소 교무과장 金致淵(김치연)(44)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는 기사를 실었다.



1960년대 선화동 그리스도의 교회 침례식

또 1984년에는 대전, 대구, 전주, 청주 등을 돌면서 무려 1050명의 죄익수를 전향시킨 공로로 법무부로부터 교정대상 교화부문을 수상하였다. 이 일로 김대중 노무현 문민정부 때, 여러 차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는 증언을 들었다.

1974년 8월 15일 국립극장에서 거행된 광복절 행사 도중에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려다가 육영수 여사를 사망케 한 23세의 재일교포 문세광에게 1974년 11월 14일 사형이 집행될 때 김치연 목사가 3분 동안 문세광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 문세광은 두 손을 마주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계속 울먹였다고 전한

다. 김치연 목사는 노환으로 2013년 10월 29일 소천 하였다.



1969년 3월 30일 선화동교회,  
안길 우측 버지니아 힐, 뒷줄 우측부터 김희영, 함명덕, 존 힐, 제인 힐,  
폴린과 마크 맥시(일본 가고시마 선교사), 김치연, 고광석, 심영진

## 6) 김희영 교수



김희영 교수  
1998-99년 와이즈먼 클럽 국제 총재

김희영 교수는 김찬영 목사가 군에 입대하면서 그의 후임으로 1963년 봄에 힐 요한 선교사의 부름을 받고 한국성서신학교에서 통역과 음악교수로 수고하였다. 이 무렵 신학교의 이사들은 이종만 목사, 김현숙 전도사, 임명진 장로, 노봉욱 원장이었고, 교수들로는 이신 목사, 임춘봉 목사(교가작사자), 심영진 목사, 최요열 목사 등이었다. 김희영 교수는 교가를 작곡하

였다. 그의 지도아래 최정성, 이백호와 같은 재학생들로 구성된 남성4중창단이 결성되었고, 찬양사역에 힘썼다.

한국성서신학교에 오기 전 김히영은 1957년 이래 알렉스 빌즈(Alex and Betty Bills)가 창립한 부산 소재 기독교 방송 선교부(Korea Christian Mission)에서 방송 프로제작, 음악편집을 맡아 일하였다. 방송선교부에 근무하는 동안 기독교 방송 선교부 전속 한국 최초의 남성 사중창단, '넷소리'를 창립하였고, 설교 통역 등을 담당하였다. 1959-60년 무렵에 이신 목사도 부산에 내려가 방송설교를 하였다. 빌즈 선교사는 방송국 허가를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끝까지 허가를 받지 못하자 크게 실망한 나머지 가족과 함께 1961년에 고향인 미국 텍사스 주로 돌아갔다.

김히영은 1971년 8월 12일 음악선교사로 가족과 함께 미국 미주리 주 조플린 소재 오자크 신학대학으로 이민하였다. 조플린에서 1974년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여 근 20년간 봉제공장을 운영하면서 와이즈멘 활동을 하였다. 이후 그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월서

와이즈멘 클럽회장(197-78), 미주 남서 지구 후리웨이 지방장(1981-82), 미주 태평양 남서지구 총재(1987-88), 미주 지역 총재(1955-96), 국제 총재(1988-99) 등을 동양인 최초로 역임하였다.



김히영 교수  
1998-99년 와이즈멘 클럽 국제 총재

## 7) 고재윤 목사



1960년대 장소 미상의 그리스도의 교회, 우측부터 힐 요한 선교사, 고재윤 목사

고재윤 목사는 한국성서신학교를 1961년에 제1회로 졸업하였다. 그는 한국성서신학교가 개교된 1959년 12월 1일부터 수강한 첫 학생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개교직후 충남 대덕구 유천면 도마리, 성화교회(현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 예배당 앞에서 기념 촬영한 1959-60년 겨울 단체 사진 속에서 고재윤이 발견되고 있다. 고재윤은 졸업 후 목회를 시작하여 문암 그리스도의 교회, 신갈 그리스도의 교회(1983-1987년) 등에서 사역하였다. 1970년대에는 한국성서신학교에서 다년간 근무하였다.

고재윤 목사는 한국성서신학교를 1961년에 제1회로 졸업하였다. 그는 한국성서신학교가 개교된 1959년 12월 1일부터 수강한 첫 학생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개교직후 충남 대덕구 유천면 도마리, 성화교회(현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 예배당 앞에서 기념 촬영한 1959-60년 겨울 단체 사진 속에서 고재윤이 발견되고 있다. 고재윤은 졸업 후 목회를 시작하여 문암 그리스도의 교회, 신갈 그리스도의 교회(1983-1987년) 등에서 사역하였다. 1970년대에는 한국성서신학교에서 다년간 근무하였다.

## 8) 안일승 목사

안일승 목사는 한국성서신학교를 1962년에 제3회로 졸업한 후 문암, 삼광 등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사역하였다. 특히 그는 힐요한 선교사가 미국에서 보낸 후원금을 해당 교회들에 보내하는



1960년대 문암 그리스도의 교회, 좌측 안일승 목사

안일승 목사는 한국성서신학교를 1962년에 제3회로 졸업한 후 문암, 삼광 등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사역하였다. 특히 그는 힐요한 선교사가 미국에서 보낸 후원금을 해당 교회들에 보내하는

업무를 오랫동안 맡아 보았다.

## 9) 김순철 목사



김순철 목사

김순철 목사는 한국성서 신학교를 1969년에 제15 회로 졸업하였다. 그는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 출신으로써 졸업 후 충남 병천에서 목회하였다. 미국으로 건너가 1982년부터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서 새소망교회를 개척하여 18년간 사역하다가 2001년부터는 1978년에 개국하여 20만

한인 동포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카고 한인기독교방송국을 맡아 수고하고 있다. 이 방송은 주변 위스콘신 주부터 인디애나 주까지 청취가 가능하다. 채널 임대비용으로 매월 2만 5천불이 들어가는 큰 선교 사업이다.

시카고기독교방송은 아침 6시부터 밤12시까지 송출되며, 선교사 인터뷰, 선교사의 시간, 설교, 선교현장 리포트, 찬양 등으로 꾸며진다. 김순철 목사는 방송선교의 위력에 대한 간증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어떤 분이 복잡한 일 때문에 자살을 결심하고 미시간호수에 빠져 죽으려고 차를 몰고 가다가 기독교방송 설교를 듣고 자살을 포기했대요. 호수로 차를 몰고 가면서 들은 방송설교 내용이 “자살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인간적으로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이다. 죽을 마음을 가질 정도로 독한 생각을 품었다면, 반대로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는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해요.

김순철은 시카고지역교회 협의회장, 교역자회 회장, 지역평통 자문위원 8년, 그리스도의 교회 미주한인교회총회 총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한성미주동문회 회장과 맥코믹 신학교 동문회장을 맡고 있다.



1960년대 병천 그리스도의 교회, 중앙 김순철 목사, 좌측 중앙 두 번째부터 김희영 교수, 심영진 목사

2011년 11월 19일에는 한성미주동문회 회장의 자격으로 힐 요한 선교사 추모 2주기를 맞이하여 힐 요한 선교사의 1960년대 유품(사진, 등)을 한국에 가지고 나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총회에 전달하는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



1960년대 좌측부터 심영진 목사, 김순철 목사, 힐 요한 선교사

고재윤, 안일승, 김순철 이외에도 최용호(64년, 제5회, 한성 신학교 교수, 다락 그리스도의 교회 은퇴), 최금생(65년, 제6회, YMCA간사, 한성 신학교 교수, 대전횃불회장 역임, 열린 그리스도의 교회), 박문자(65년, 제6회, 부곡 그리스도의 교회), 유근희(65년, 제7회, 박사,



북미주 태평양/아시아 제자들 그리스도의 교회 담당자 은퇴), 최중원(68년, 제12회, 장수 세월 그리스도의 교회), 김호규(68년, 제13회, 경남정보대학 교목실장 및 학장, 대학교회 목사 역임), 안병호(69년, 제14회, 장호원 그리스도의 교회), 장휘명(69년, 제15회, 미국), 김동식(71년, 제18회, 주월 산돌 그리스도의 교회 은퇴), 박옥채(71년, 제19회, 소망 그리스도의 교회), 조남중(72년, 제20회, 평리 그리스도의 교회), 주형근, (72년, 제20회, 초대 그리스도의 교회) 등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였거나 하고 있다. 이들 중 몇 사람은 제3부에서 다뤄지게 될 것이다.

#### 10) 오재건 장로(1938.5.15- )



성화 그리스도의 교회 오재건 장로

오재건 장로는 대전에서 가장 큰 두 개의 그리스도의 교회, 대전교회와 성화교회의 창립멤버이자 공로자이다. 16살 때인 1953년 대전교회가 가정에서 시작될 무렵부터 출석하였다. 1952년 15살 때 부친을 여윈 14대 종손이었지만, 교회를 출석하면서부터는 제사를 거부하는 예수쟁이로 소문이 났고, 군에 입대해서도 온갖 핍박을 견디며 교회에 출석하여 목사라는 별명을 얻고, 교사와 성가대원으로 섬겼다. 극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온갖 고생을 무릅쓰며 주경야독하였고, 모친께 효도하며 동생들을 보살피 노인회의 추천으로 효자 상을 받기도 하였다.

집안의 어른들이 14대 종손이 되어 제사를 거부하는 예수쟁이가 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심하게 핍박하였으나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여 입교한지 9년 만에 모친을 시작으로 친인척들을

모두 구원시켰고, 집안에서 목회자와 교회의 중직들이 배출되게 하였다. 그는 입교한 날로부터 미신을 타파하고 철저히 주일을 지켰으므로, 궁핍한 생활에도 불구하고, 주일날에는 품을 팔리까지 않았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주셨고, 수많은 신앙체험들을 갖게 하셨다. 그에 관한 이야기는 1999년에 작성한 신앙 체험기,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에 실려 있다.



1958년 도마동 그리스도의 교회, 중앙 오재건 (장로)

오재건은 대전교회가 천막교회, 흙담교회, 20평 흙벽돌교회, 33평 시멘트블록교회로 바뀔 때마다 앞장서서 건축 일에 헌신하였고, 28

년간 출석하는 동안 주일학교 교사, 구역예배 인도자, 네 번의 교회당 건축, 재무, 염 등 온갖 꾀은일을 도맡아 하였다. 그러나 대전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교회재산의 공동소유화 및 재정관리의 합리화를 건의하였다가 담임목사의 반발로 갈등을 빚던 중 1981년에 이미 9년 전에 대전교회를 떠났던 방봉권, 임춘자, 정삼규 등, 옛 교우들과 재결합하여 탁구장으로 사용했던 큰 도로가 사택 2층에 성화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자를 모신 후 발전시켜 나갔다. 1983년 5월 20일에는 3층으로 확장하여 2층은 사택 20평 교육관 20평으로 쓰고 3층 40평을 본당으로 사용하다가 건평 약 250평을 새로 건축하여 1992년 6월 20일 헌당하였다.

이밖에도 오재건은 교파를 초월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국내외 여러 교회들과 미국,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키르기스스탄, 타지크스탄, 필리핀, 미얀마, 태국, 베트남, 대만, 중국 등 해외의 많은 나라들에서 ‘사랑의 터치’라 일컫는 일종의 의료봉사를 통



오개건 장로, 1996년 3월 필리핀 단기 선교 때의 모습

해서 많은 이들의 병을 고쳤으며, 200여 개 교회들의 전도활동에 큰 유익을 끼쳤다. 그는 또 1977년 봄에 정일호 목사가 충주시 교현동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할 당시, 교현동 산등성이에 대지 60평, 건평 25평되는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을 헌금하였고, 이 건물은 오랫동안 충주교회의 교육관으로 쓰였다. 동년에 부강교회에 남아있던 147평의 대지가 소송에 휘말려 빼앗기게 되었을 때 소송비를 부담하여 승소판결을 받게 하였고, 소유권자인 김태수 목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갈 당시 등기관리자로 있다가 연이어 부지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재단법인 크리스찬 미션에 넘겼다. 또 경북 영신 근처 상원 그리스도의 교회가 개척될 당시 200평대 지 구입을 주선하였고, 성화교회의 일부 성도들과 함께 상원교회당과 사택의 벽을 쌓았다.

### 11) 버지니아 힐(Virginia Hill)

힐 요한 선교사의 맏딸로서 미국 미주리 주 조플린 시에 소재한 오자크기독교대학(Ozark Christian College)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였다. 졸업 후 한국 크리스찬미션(Christian Mission to South Korea)의 선교사로 1966년 8월 29일 입국하여 3년만인 1969년 5월 30



버지니아 힐(Virginia Hill)

일 귀국하였다.

한국성서신학교에 머무는 동안 기독교교육, 영어회화, 영어성경을 강의하였고, 여성3중창을 지도하여 조 가맨 선교사의 부흥전도여행(1967년 10월 18일부터 12월 30일까지) 때 찬양을 불렀다. 버지니아 힐의 서신에 의하면, 부흥전도여행기간에 결신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이 일천 명이 넘었다고 한다. 또 충남대학교에서 영어회화를 매주 4시간씩 강의하였고, 매주 화요일 저녁에 6명의 그리스도인 의사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으며, 매주 수요일 저녁에 믿지 않는 직업군인 두 명과 몇몇 여성들에게 전도목적으로 영어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회심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였다. 또 매주 목요일 저녁에는 30여명의 간호실습생들에게 영어성경을 가르쳤고,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50여명이 참석하는 대학생친목회(University Bible Fellowship Club)에서 영어성경을 가르쳤다. 이밖에도 선교사 자녀들을 가르쳤다.

가르치는 일말고도 틈틈이 영아원, 논산 에덴 보육원, 부산 성광원, 임흥만 목사의 장호원 기독교중학교, 교회들을 방문하고, 극빈 속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신학생들, 목회자들, 영아들, 고아들, 복음중학교 학생들, 대전 수침교 아래 거지들의 의식주를 걱정하며 지속적으로 미국의



임흥만 목사의 장호원 기독교중학교

형제들에게 목적헌금(임흥만 목사의 기독교중학교, 논산 에덴 보육원, 부산 성광원, 한국성서신학교운영기금, 목회자후원기금 등), 특별지원(현웃가지, 겨울웃가지, 기독교서적, 각종 사전류, 성서지리궤도, 성경, 카메라필름 등) 등을 요청하였다.

버지니아 힐의 서신에 의하면, 1966년에 마크 맥시 일본 주재 선교사가 한국성서신학교를 방문하였고, 한국성서신학교는

1967년 봄 학기에 52명이 등록하였으며, 6월에 남학생 5명, 여학생 1명이 졸업하였다. 동년 8월에 고하도에서 목회자 수련회가 개최되었고, 약 65명의 목회자들과 15명의 여전도사들이 참석하였다. (딤킨 래쉬에 의하면, 1971년의 목회자 수련회는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경남정보대학에서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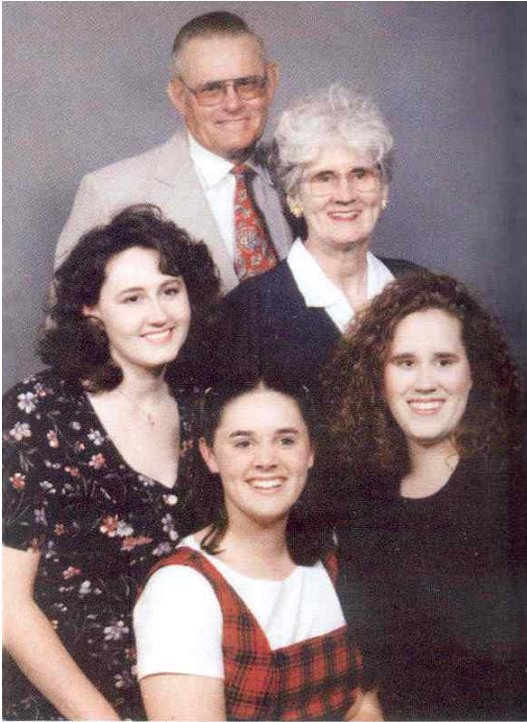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버지니아 힐은 1968년 4월 18일에 논산에덴보육원으로부터 15명의 고아들을 인수받아 대전 크리스천 보육원(Taejon Christian Orphanage)을 개원하

였다. 보모로는 김은미, 김부금, 조선희, 김은희, 유문자 등이 수고하였고, 고아원은 세계보건기구 공무원인 엘리자베스 뎀이 세내들어 거주하던 선교부의 일층에 있었다. 그 후 한국성서신학교 교내에 ‘스나이더 홀’이라 명명한 단층 주택이 건립되었는데, 대전 크리스천 보육원이 이 건물에 입주하였다. 미국 미시건 주립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정년퇴임한 로버트 스나이더(Robert M. Snyder) 박사는 이 건물이외에도 충남 논산군 연무읍 순의도 중학교 설립기금의 3분의 2와 부산 성광원 법인설립을 지원하였다.

보육원을 설립한 지 만 일 년이 지난 1969년 4월 30일에 버지니아 힐이 쓴 서신에 의하면, 보육원에 아이들이 23명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버지니아는 한국에서의 모든 사역을 접고 그해 5월 30일에 본국으로 돌아갔다. 안식년을 맞아 미국으로 돌아가는 부모인 힐 요한 선교사 내외와 함께 귀국한 것으로 보인다. 3개월 후 한국에 나온 조와 린다 가맨(Joe and Linda Garman) 부부가 보육원과 신학교 관리를 안식년을 맞은 힐 선교사 내외를 대신해서 10개월간 책임졌다. 미국에 돌아간 버지니아는 하비 벤두어(Harvey Bendure)와 결혼하여 슬하에 세명의 딸을 두었다.



하비와 버지니아 벤두어(Harvey and Virginia Bendure)  
좌측부터 아이미(Aimee), 수잔나(Susannah), 롯(Ruth)

버지니아 힐은 1967년에 한국의 주일 예배의 특징을 미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그녀가 경험한 독특한 한국의 예배문화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조차, 노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련한 추억을, 젊은이들에게는 생소한 느낌을 줄 수 있고, 또 언젠가는 잊힌 문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에 남기기로 하였다.

#### 한국인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주일'(주님의 날)

주일은 한 시간가량 걸리는 새벽 4시30분 기도회(찬양과 기도)로 시작된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밥, 김치(맵게 절인 배추), 김 혹은 콩나물국, 그리고 종종, 운이 좋은 날이면, 계란 또는 말린 작은 생선으로 아침을 준비한다.

오전 9시에 어린이 주일학교가 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성인주일학교가 없다. 대신에 주중에 모임을 갖는다.) 어린이 주일학교는 새신자 그리스도인 고등학교 소녀들 또는 청장년들에 의해 인도된다. 이 예배는 10시까지 이어진다. 대예배가 10시 30분에 시작된다. 그러나 찬양은 10시 15분 혹은 교인들이 오는 대로 곧바로 시작된다. 그들은 목회자를 위해 성미(쌀)주머니들을 들고 와 예배당 뒤쪽 성미상자에 넣는다. 그리고 남성은 예배당 한편 바닥에 그들의 자리를 잡는다. 반면에 여성들은 다른 편 바닥에 그들의 자리를 잡는다. 그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머리를 숙여 각자 기도를 한다. 개개인은 아끼고 또 아껴서 마련한 각자의 소중한 성경과 찬송가를 지참한다. 그들은 찬송가를 부른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구주의 십자가 보

혈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기타 다른 자주 부르는 찬송가들을 부른다.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 작은 흙벽 건물이 폭발할 지경에 이른다. 그리고 나면 한 교인이 대표로 나와 기도한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따라 높낮이가 달라진다. 교인들, 특히 나이든 남성과 여성들은 감동에 따라 요동치며, 아멘으로 화답한다. 설교자는 성경을 봉독한 후 힘 있게 설교하며,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초청한다. 초청송을 부른 후, 헌금송과 헌금기도를 드린다. 헌금을 걷기 위해 긴 막대기가 달린 헌금바구니를 남집사와 여집사들이 돌린다. 마지막으로 주의 만찬이 있는데, 대개의 경우 목사들이 집례한다. 장로들은 남성들에게, 여집사들은 여성들에게 분병과 분잔을 제공한다.

침례식은 날씨가 따뜻할 때 (때로는 심지어 겨울에도) 개울이나 강에서 집례된다. 때때로 가까운 목욕탕(‘오프로’ 혹은 커다란 일본식 욕탕)에서 집례된다.

점심식은 아침식사와 거의 동일하다. 저녁식사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7시 30분 혹은 여름인 경우 9시에도 시작되는 저녁예배에 참석한다. 저녁예배는 주의 만찬이 없는 것만 빼고는 오전 예배와 거의 동일하다.

## 12) 해남 그리스도의 교회





해남 그리스도의 교회 설립자 김동수 목사



해남 그리스도의 교회 담임 목사 주경림(좌측)  
 좌측부터 강희규, 박옥채, 강희명, 장성우, 명재석, 조남중, 박무행, 장성식, 백병현, 김수삼(이상 목사)



## 6. 힐 요한 선교사의 1976-77년 복귀

1972년 6월에 은퇴하고 미국으로 돌아갔던 힐 요한 선교사 부부가 불과 4년 만에 미국에서 하던 사역들을 접고 1976년 8월 16일 한국에 돌아와 이듬해 1977년에 돌아간 일이 있었다. 선교부와 신학교를 되돌려 받기 위해 왔다가 실패하고 돌아간 사건이었다. 김찬영 교장이 신학교를 불법으로 운영하고, 교회에 지원해야 할 일부 후원금을 유용한다는 투서가 힐에게 보내졌던 것 같고, 의심을 품은 힐이 분개하여 한국에 나와 선교부와 신학교를 되찾아 이신, 심영진, 김태수 등 다른 동료들에게 넘기려고 했던 것이다. 노봉욱 장로의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 78-79쪽에 의하면, 한국에 돌아온 힐 선교사부부는 당시 기획실장의 방해로 신학교에 들어오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듣고 미국에 출장 중이던 김찬영도 급히 귀국하여 서로 마주보고 앉게 되었다. 노봉욱 장로의 증언에 의하면, 힐과 김찬영의 대화는 싱겁게 끝났다고 한다. 신학교 교장직과 운영권을 내놓으라는 것과 문전박대를 했던 최 모 기획실장을 해임하라는 힐의 모든 요구를 만 40세였던 김찬영이 순순히 응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때의 일에 대해서 노봉욱은 79쪽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다음 과제는 학교 운영권 문제요, 김찬영 학장 거취문제였다.... 김찬영 학장이 학교 운영하는 동안 시행착오와 잘못도 있지만, 그간의 공도 인정해야 하는 것은 그가 학장 재직 시 학교 부지 확장과 교사 증축 등 이룩한 공도 있고 하니, 그것을 인정 그와 함께 협력하고, 이사장직과 학장직을 안배키로 하되, 우선 Hill 선교사께서 택일토록 권유했다. 드디어 Hill 선교사의 승낙을 얻어 운영권 문제는 일단락 된 듯 했으나, 그 후 곧 번복 백지화되어 원상태로 강경노선으로 선회되었다.

1977년 봄 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이신 박사, 심영진 목사, 김태수 목사, 김정한 목사 등이 힐 요한 선교사와 함

께 학교를 접수하기 위해서 찾아와 재학생들을 강의실에 모아 놓고 설득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교직원과 재학생들이 강력히 항거함으로써 그들의 뜻이 무산되고 말았다. 이때의 일을 노봉욱은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이렇게 엇치락뒤치락 난항을 거듭하게 된 배후에는 Hill 선교사의 또 다른 측근자 L. 목사 제의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으며 급기야는 나와 의견이 다른 그분들과 Hill 선교사집 응접실에서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는 Hill 선교사 내외분도 함께 했다.

토론이 극에 달하자 쌍방은 감정이 격해져 인신공격 등 고성이 오고 가게 되는 상황에 이르자, Jane Hill 사모님이 갑자기 대성통곡 하면서 문을 박차고 내실로 들어갔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Hill 선교사 사모님은 본국으로 단신 귀국했고, 뒤를 이어 Hill 선교사도 귀국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로써 한성신학교 운영권은 그대로 김찬영 학장 몫으로 남게 되었다.

힐은 미국으로 떠난 대신에 견제장치로 일본에서 사역하던 밥 워릭(Robert and Joyce Warrick) 선교사 부부를 1977년에 한국에 초청하여 한국성서신학교에서 근무케 하였다.

선교사들의 후원비 유용에 대한 의심은 언제나 있어왔다. 일본에서 커닝햄과 채이스의 분열도 그래서 일어났고, 강명석 목사(전도자)도 주변 인물들로부터 비슷한 유형의 모함을 받고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여 47세에 요절하였다.

김찬영 목사는 1972년 36살의 젊은 날에 교장의 일을 맡아 그 어렵던 1970년대에 학교를 키워보려는 열망에 학교 부지를 확장하고 교사를 증축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행착오나 실수가 있었을는지 모른다. 밀가루 한 포대만 집에 있어도 감지덕지하던 시대에 먹고사는 수준이 확연히 달라 보여 동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던 점도 한몫했을 것이다. 교회후원금 유용에 대한 의심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힐 요한, 이신, 심영진, 김태수, 김치연, 노봉욱 등의 선배 목사들의 지지와 협력을 얻지 못한 것은 그 후로도 두고두고 가슴 아픈 일이 되고 있다.

1977년에 일본에서 대전으로 건너온 밥과 조이스 워릭 선교



**Missionaries, Robert & Joice Warrick**

사 부부는 한국 실정을 잘 이해하고 협력하다가 별반 문제점이 없어 보였는지 1978년에 일본으로 다시 돌아갔고, 1981년에 은퇴한 후 미국 인디애나 주로 돌아가 궁핍한 생활을 하다가 소천 하였다. 밥과 조이스 위릭은

1965년에 일본에 건너가 고아원을 시작하였다. 일본의 베테랑 선교사인 마크 맥시(Mark Maxey)의 “일본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 백년”(Christians in Japan 100 Years, 1883-1983)에 의하면, 밥과 조이스가 운영한 고아원은 도쿄에서 멀지 아니한 사이타마 현 사야마(Sayama)에 있었고, 줄리어스와 버지니아 플리노어(Julius and Virginia Fleenor) 부부가 함께 사역하였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돌아간 후에는 도쿄 변두리에 소재한 크리스천 아카데미(Christian Academy)에서 일하였다. 딸 바버라(Barbara)가 1971-72년 사이에 일 년간 그들과 함께 일본에서 사역하다가 돌아갔고, 1977년에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정규 교사로 사역하였다.

힐은 자신이 보내는 교회후원금을 밥 위릭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였고, 이후 노봉욱 원장, 안일승 목사, 조동호 교수(한성신학교 교회개척후원회), 다시 안일승 목사에게 이 일을 맡겼다. 힐 선교사의 교회후원금은 작은 액수로서 한 푼도 착오가 있을 수 없는 목적기부금이어서 대리인은 그 돈을 환전하여 전달하면 끝이었다. 1960년대 힐 선교사의 모금형태를 보면, 대부분 목적후원금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 경우 후원자가 지정한 목적대로 써야하므로 힐 선교사가 임의로 쓸 수 없는 돈이었다.



##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

A Story of Korean Christian Churches: Missionary C. Y.  
Kim and His Hansung Theological College

조동호(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 제6부 김찬영과 한성신학교

1950년대 충청이남지역에서 김은석 목사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는 할 요한 선교사와 한국성서신학교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 전남에서의 할의 영향력이 충청권에서만 크지는 못했지만, 학생들의 다수는 70년대 중반까지도 전남 출신이었다. 이후로는 학생들이 고든 패튼(Gorden and Sharon Patten) 선교사의 서울성서신학교와 최윤권 목사의 대한기독교신학교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 무렵인 1972년 12월 22일 대한기독교신학교가 각종학교 설립인가를 받았고, 1973년 12월 29일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신학교가 그리스도신학대학으로 인가를 받았으며, 1981년에는 서울성서신학교와 대한기독교신학교가 통합하였다. 그리고 1997년 12월 5일 대한기독교신학교는 대한기독교대학교로 승격되었고, 1999년 12월 28일에는 서울기독교대학교로 개명되었다. 그리스도 신학대학교는 2005년 12월에 그리스도대학교로 개명되었다.

이들 대학에로의 쏠림현상은 인가도 있고, 서울에 소재한다는 매력 때문이기도 했지만, 할요한 선교사의 은퇴 이후 한국성서신학교가 할요한 선교사를 존경하는 목회자들로부터 신뢰를 얻는데 실패한 때문이기도 했다. 여기에는 1976-77년에 있었던 사건이 큰 몫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이후 가장 오랜 기간인 30년간 충청이남지역은 김찬영 목사와 한국성서신학교 혹은 한성신학교의 영향력아래 있었다. ‘한성’은 ‘한국

성서'의 줄임말이다.

## 1. 1970-1990년대의 김찬영 목사와 한성신학교



김찬영 목사/교육학박사

김찬영 목사는 1936년 경상남도 밀양에서 출생하였다. 김찬영은 부산에 내려가 장성만 목사가 세운 대교 그리스도의 교회에 출석하며 세족회 회원이 되었다. 1959년 8월에 힐 요한 선교사가족이 부산을 통해 입국하였을 때, 통역이 되어 힐의 가족과 함께 대전으로 올라왔다. 대전에서 1962년까지 힐 선교사의 대전에서의 사역들을 돕다가 군에 입대하였다. 제대 직후 1965년 9월 5일 힐과 장성만의 도움으로 미국에 건너가 존슨성서대학(현 존슨대학교)에 입학하였다. 그곳에서 같은 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패츄리사를 만나 1967년 8월 25일 결혼하였다.

존슨성서대학을 졸업한 후 신시내티 크리스천 대학교 성서대학원에 입학하여 1969년 5월 10일 졸업하였다. 이후 신시내티 대학교와 루이빌 장로교 신학대학원에서 1년간 수학한 후, 부인 패츄리사(Patricia A.)와 자녀들을 데리고 1970년 11월 15일 귀국하였다.

김찬영 목사는 1972년 6월에 힐 요한 선교사가 정년으로 퇴임함에 따라, 가장동 유등천 변에 교실 2칸, 교회당



김 패츄리사 선교사

1채, 선교사 사택 2채, 보육원 단층 1채, 기숙사 1동을 물려받고, 1972년 1월 21일 36살의 나이로 한국성서신학교의 제2대 교장으로 취임하였다. 이 무렵인 1971년에 프레드와 엘리 호프만(Fred and Ellie Hoffman) 부부가 내한하여 한국 크리스찬

밋손에 소속되어 사역하면서 프레드는 신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엘리는 대전 오정동 외국인 학교에서 가르쳤다. 한국성서신학교의 운영을 맡게 된 김찬영 교장은 1970-80년대 기간에 힐이 1969년에 시작한 본관 2층 공사를 완공하는 일로부터 시작하여 3층 증축, 우측으로 잇대어 지은 3층 신축교사, 신축교사에 잇대어 북쪽 방향으로 지은 3층 신축 선교관, 1968년부터 보육원으로 사용되던 1층 별관의 3층 증축과 부지확보에 온 힘을 쏟았다.



1986년 대전시 가장동 한성신학교 캠퍼스(배구대항)

1977년 2월 16일 보건사회부 장관으로부터 그리스도의 교회 한국선교회를 설립인가 받았고, 다음 해인 1978년에는 부설 한성고등기술학교

와 한성유치원이 설립되었다.

김찬영 교장은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득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박정희 정권하에서 10년이 넘도록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었다. 전두환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비로소 4년제 대학령에 준한 각종학교 인가(문교 1041.4-133)를 받을 수 있었다. 1981년 2월 16일에 사립학교 법에 의해 학교법인 성령학원이 설립되었고, '한성신학교'란 교명으로 모집정원 신학과 40명과 기독교육과 30명 총 70명의 인가를 받았다. 교명을 '한국성서'의 줄임말인 '한성'으로 바꾼 이유는 서울 노원구에 이미 같은 이름의 4년제 각종학교가 있었기 때문이다. 곧 이어 1983년 10월 5일에는 교육부로부터 대학학력인정교로 승격되었



대전시 가장동 한성신학교 동판

고(문교 1020-1646), 모집정원 60명(야간부 신학교 30명, 기독교교육과 30명)이 증원됨으로써 한성고등기술학교가 폐교되고, 유치원만 유지되었다. 1986년 말에 학과증원(주간부 종교음악과, 야간부 사회복지과)과 1987년 말에 모집인원증원으로 입학정원이 총 180명이 되었다. 1998년 9월 8일 이후부터는 고등교육법에 의해 졸업생들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였다.

이 무렵 한성신학교에 그리스도의 교회(총회) 소속 신학과 교수들로는 최용호, 장성우, 김상호, 조동호가 있었고, 선교사들로는 1981년에 입국하여 1983년에 귀국한 케리 옥스버거(Keri Augsburg), 1982년에 입국하여 1984년에 귀국한 마이크와 조안 노엘(Mike and Joan Noel), 1983년에 입국하여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후 1984년에 귀국한 비키 존스(Vicki Jones), 1987년에 입국하여 1989년에 귀국한 짐과 수지 몽고메리(Jim and Suzy Montgomery), 1987년에 입국하여 1989년에 귀국한 코리 프라이(Kori Frye), 1990년에 입국하여 1992년에 귀국한 캐런 터훈(Karen Terhune)이 있었다.



1990년대 충남 논산시 연산면 신양리 한성신학교 캠퍼스

증원증과로 포화상태에 이른 한성신학교는 1986년 말에 충남 논산군 연산면 신양리에 12만평 교지를 확보하고, 1988년 4월 30일에 기공식예배를 드렸으며, 1989년 8월까지 본관 4층, 별관 4층, 기숙사 3층, 운동장 및 주차장을 갖춘 새 캠퍼스로 이



전을 완료하였다. 공교롭게도 동년에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



제54차 총회 때 불협 화음이 있었고, 이듬 해인 1990년 2월 한 성교역자들의 모임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가 발족되었다. 출신학교별 친목단체인 기목회와 한성교역자회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된 것이었

다. 동년 4월 3일에 협의회 심의위원회가 총회에 가입한 회원들을 제명하였고, 4월 30일 <환원>지가 분리를 발표함으로써 분열이 고착되었으며, 여러 번의 통합을 위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김찬영 박사의 영향력아래서 30년간 배출된 수백 명의 졸업생들은 교회성장의 붐을 타고 교회를 개척하거나 기존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개척후원회'가 김찬영, 조동호, 김상호를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또 정부의 복지시책에 따라 충남권 최초로 배출된 수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공무원이 되거나 각 기관에 진출하였다. 음악학과 졸업생들 역시 각자의 지역에 음악학원을 개설하여 학원장으로서 미래의 꿈나무들을 양성하였다. 다수의 졸업생들이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몇 사람은 정규대학에 교수로 임명되었다. 김찬영 박사 체제에서 교장을 역임한 인물들은 김진문(1982-84), 김찬영(1985-91), 문원섭(1991-94), 이충구(전 공주교육대 학장, 1994-95), 박영배(직무대리, 1995-96), 최찬규(직무대리, 1996-97), 백형린(1997-99) 순이었다.

학교가 새 캠퍼스로 이전한 1990년대는 대학개편의 기회이자 위기였다. 캠퍼스 이전 초기 수년간은 입학정원 180명을 채우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캠퍼스가 대전권

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는데다가 무리하게 충원된 교수진과 교직원, 노조설립, 대학개편을 바라는 학생들의 잦은 시위, 대학개편에 필요한 재원부족, 무엇보다도 캠퍼스 이전직후에 터진 내부 갈등은 지루한 법정공방으로 이어져 20여개 이상의 각종대학들 가운데 대학개편 1순위로 꼽히던 학교를 수렁에 빠지게 하였고, 장로교 목사 조준상이 1999년 9월 30일 이사장에 취임함으로써, 세기가 바뀐 2000년대는 2013년 8월 폐교 때까지 그리스도의 교회와 무관하게 운영되었다.

이로써 30여 년간 한성신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았던 김찬영 박사 및 패츄리사 선교사 내외는 내부갈등이 빚은 법적제약으로 학교를 떠나야했고, 1998년 이후로 베트남과 중국 및 북한선



김찬영 박사(중국 훈춘)

교에 진력하였으며, 주로 중국에 거주하면서 중국 훈춘에 특수교육학교, 희망외국어학교, 복음식품유한회사(장애자 제빵기술교육 및 간식용 제빵공장), 희망농목개발유한회사(장애아동 재활승마 목장, 가축 목장, 옥수수 콩 경작지)를 설립하였으며, 2014년에는 중국 양포에 장애인, 고아원 및 양로원을 개원하였다. 또한 북한 나진시에 진료소 3곳(신해, 유현, 비파)과 120명을 수용하는 나선고아원을 헌당하였으며(2006년 5월 17일), 선봉시에 빵공장을 건립하여 매일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빵과 콩우유를 공급하고 있으며, 신해 목장과 유치원 2곳 및 탁아소 2곳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도 부모 없는 북한 청소년수용기술학교와 비즈니스텔을 건설 중에 있다.

김찬영은 한양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 - William D. Cunningham의 생애를

중심으로 - 1864-1936>, <예배학>, 설교집 등을 저술하였고, <예수의 마지막 주간>을 번역 출간하였다. 대전에 체류하는 동안 4년제 대학학력인정교 학장협의회 회장, 대전 외국어 학교 이사장,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 회장, 사단법인 한국 기독교 교역자 협의회 재단 이사장 및 대표회장, 재단법인 한국 크리스찬 밋션 이사장, 대전 기독교 연합회 회장, 충청남도 도정자문 위원, 대전직할시 시정자문 위원, 대전 YMCA 이사장, 사회복지법인 대전 생명의 전화 설립 이사장, 충남 경찰국 교목, 국제와이즈멘 한국서부 지구 총재 등을 역임하였다.

한편 부인 김 패츄리사는 슬하에 2남 2녀를 두었고, 신학교 영내에 있었던 보육원에서 2남 2녀, 월남에서 온 남자아이 1명을 입양하여 미국에 보내는 등 큰 도움을 주었으며, 논산 연무읍의 에덴 보육원과 대전 자양동에 있는 피얼스 영아원을 도왔다. 또 패츄리사는 고아들의 외국 입양과 병든 아이들을 미국에 보내 무료수술을 받도록 주선하였다. 이런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1982년 대전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1989년 5월 5일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표창장을 수여 받았으며, 1991년 5월 5일에는 보건사회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 받았다.

## 2. 2000년대의 조준상 목사와 한민학교

장로교 목사 조준상이 1999년 9월 30일 이사장에 취임함으로써, 세기가 바뀐 2000년대는 2013년 8월 폐교 때까지 한성신학교가 그리스도의 교회와 무관하게 운영되었다. 조준상 이사장은 교장 내정자 원동연 박사(2000년 2월 14일 교장에 취임)와 더불어 1999년 10월 28일 이사장 취임식을 겸한 ‘가칭 한국대학교 설립 감사예배’와 여러 행사를 성대하게 치른 직후 - 이때 설립자 힐 요한, 재단법인 크리스찬 밋손 이사장 노봉욱도 초대되었다. - 기독교교육과를 폐과시켰고, 증과 및 증원을 통해 입학정원을 280명으로 늘리는 한편, 다수의 교수충원과 시설보수에 재원을 투입하였으나 대학개편자금이 없어 실패하였

고, 원동원 박사는 직접 영입한 교수들과 함께 중도 사퇴하였다. 원동연 박사는 교장 내정 직후 학과를 신설하고(국제관광학과 주간 40명, 야간 30명, 테크노경영정보학과 40명), 학생을 증원(국제사회복지학과 주간 10명, 신학과 야간 10명)하였으며. 이듬해 2월 14일 교장에 취임한 다음 멀티미디어학과와 생명식품공학부를 추가로 증과하였다.

2000년 12월 21일 학교법인 성령학원 및 학교명 한성신학교가 각각 한민족학원 및 한민학교로 변경되면서 한성신학교로써 20년간 쌓아온 명성을 잃게 되었고, 학생수 감소와 부실운영 등으로 재정난은 날로 커져갔으며, 학과와 정원에 대한 재편이 불가피하였다. 2001년 1월 4일에 국제사회복지학과를 사회복지학과로 다시 변경되었고, 2003년 6월 12일 레저스포츠경영학부가 신설되었으며, 2005년 10월 20일 레저스포츠경영학부 레저스포츠경영학전공이 스포츠경영학과로, 경찰경호행정학전공이 경찰행정학과로 변경되었다. 이 와중에도 2004년 2월 27일자로 기관장 명칭이 교장에서 총장으로 바뀌었다.



2000년대 충남 논산시 연산면 신양리 한민학교(전 한성신학교) 캠퍼스

2001년에는 한민학교를 기반으로 세계사이버대학이 설립되었다. 이후 두 학교는 한민족 어린이 문화 축제, 한민족친선 문화 축제 등에 동원되었다. 2006년 미국 LA에서 개최된 제1회 한민족 국제학술대회를 시작으로 전 소비에트 연방의 서기장 미

하일 고르바초프가 초청된 가운데 2008년 10월 첫 주에 국제 환경포럼, 국제평화포럼, 국제대학자선축구대회, 국제할렐루야대회가 개최되었으며, 2008년 12월 12일에는 황산벌전투 최후전적지비가 한민학교 평화의 동산 앞에 세워졌다. 2009년 제2회 한민족 평화포럼, 2010년 제7차 한민족 국제학술대회, 터키에서 제8차 한민족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었고, 2010년 3월에 한글사랑 세계사랑본부가 출범되었다. 2010년 10월에는 제2회 한민세계신학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와 같은 학술대회들의 논문집 및 결과집들이 출판되었다.

한민학교는 야구부와 축구부가 운영되고 있었다. 국제할렐루야대회 준비와 때를 맞춰 캠퍼스 정비와 함께 운동장이 인조잔디구장으로 변모되었다. 건물은 낡은 채 처음 그대로였지만, 대강당과 본관 1층이 큰 행사들을 치르면서 리모델링되었고, 폐교 직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정돈되고 잘 가꾸진 넓은 캠퍼스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을 위한 내실이나 교육의 질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대외행사에만 치중함으로써 극심한 경영난과 학생감소를 겪었고, 2011년 말에는 다시 한민문화예술학교로의 개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잦은 학과변동 속에서도 폐교 때까지 살아남은 학과들로는 신학과, 사회복지학과, 음악학과, 경찰행정학과, 스포츠경영학과, 태권도외교학과, 글로벌새마을학과, 한민족전통문화예술학과, 액션영화학과, 재활승마학과가 있었다. 뒤쪽의 네 개 학과는 폐교 직전에 증과된 것들이다.

2012년 한민학교에 대한 다각도의 종합감사가 이뤄졌고, 2013년 5월 29일 교육부는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이 신청한 한민학교 폐교신청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한민학교는 8월 31일 자로 폐교하였고, 재학생은 타 대학교 유사 학과에 특별 편입학하였다. 조준상 체제에서 총장을 역임한 인문들로는 원동연(2000-01), 장성우(직무대리, 2001), 심태섭(2001-05), 최찬규(직무대리, 2005), 김병우(전 홀트아동복지회 회장, 2006-2008), 조준상(2008-12), 박영술(직무대리, 2013) 순이었다. 학교설립이후 재단법인 한국 크리스찬 밋손 이사장으로는 힐

요한(64-75년), 김 패츄리사(75-76년), 힐 요한(76-77년), 밥 위릭(78-81년), 김찬영(81-89년), 학교법인 이사장으로는 성완용, 김 패츄리사, 김찬영, 전영권, 조준상, 심정지(폐교 결정) 등이었다. 이 시절 유일한 그리스도의 교회 소속 교수로 남았던 조동호는 김병우 총장과 조준상 총장 재임 때 부총장으로 재직하다가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와 목회에 전념하기 위해서 2008년 12월 말에 명예 퇴직하였다. 퇴직한 후에도 명예교수의 직함을 가지고 2013년 8월 폐교 때까지 신학과에서 강의를 계속하였다.

### 3.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의 출범

1990년 7월에 발행된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회보에 실린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환원운동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란 글에서 장성우 목사는 다음과 같이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분열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각 지방마다 조직된 교역자회는 상호간의 목회정보 및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으로 존재하였으나 1960년에 조직이 강화되고 목사 안수식을 거행하였으며, 1973년 김찬영 목사, 김규상 목사 등이 주도하여 대전에서 연합총회를 구성하였고, 이신 목사와 연합활동의 유대관계를 유지하여 그 명맥을 이어왔으나 최윤권 목사 등 대한기독교신학교측은 참여하지 않음으로 이신 목사측의 연합회는 1974년(3월 25일) 한국적 그리스도의 교회 토착화를 위한 그리스도의 교회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1975년(3월 4일) 김찬영 목사, 김규상 목사 주도하에 연합총회측과 “이 선언문 취지관철을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로 총회와 연합회가 통합하여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로 발족하여 환원운동의 대열을 정비하여 나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날인 1975년 3월 5일에 최윤권 목사 측은 이제까지의 침묵을 깨뜨리고 대한기독교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교역자회”를 따로 조직함으로써 단일화된 연합 활동은 무너지고 말았다.

그 이유는 교리적으로 환원운동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조직을 배제하는데 왜 그런 교권화된 조직을 갖느냐 그런 교권화된 조직을

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지도자급에 속한 목사들 사이에 자기세력 확장을 도모하며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으며 권모술수가 난무하였지만, 그 진통 끝에 1978년 10월에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라는 명칭으로 다시금 통합을 보았던 것이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는 특정 소수인들의 교파화로 전락되는 우려 속에 불안이 가중되었고, 심한 교회성의 상실과 소외를 경험하면서 1984년 4월에 세계사적인 유무약기의 통합을 서울 유스호텔에서 가집으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미래를 기대하게 되었다.

그 통합전문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으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나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서두에 명시한 바가 있었지만은 통합의 주역일치와 단결을 저해하고 분열을 조장하여 1984년 10월 22일에 소집된 협의회는 회원제명과 자격정지에 관한 보고로 대동단결된 회원권에 대한 축소와 이중 억압 장치는 중요 인물의 등장을 사전제제를 함으로 교회분열을 가속화시켜 1984년 11월 (26일)에 서울 지방회는 김용웅 목사를 주축으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쇄신에 대한 백서”를 발표함으로 분열의 기미를 보임으로 유무약기의 통합은 사실상 깨어지고 말았다.

1989년 9월에 대전에서 개최된 54차 협의회 총회는 출신학교간의 갈등을 표면화 하였으며 1990년 2월에 유성 경하장에 모인 한성교역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를 창립하게 되면서 3월에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에 가입 청원을 하여 실행위원회에서 허락을 받게 되었다.

보수교단인 그리스도의 교회가 KNCC 가입은 한국 교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면서 협의회측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총회측 임원 9명을 교단분리자로 또한 총회측 증진목사를 불법안수자로 제명 처분하여 크리스찬 신문에 공고하였는데 안수에 같이 참여한 서울 출신 김종진 목사는 웬지 그 명단에서 제외를 시키고 발표하였던 것이다.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는 끝내 KNCC에 가입하지 못하였음. 가로 속 글자는 인용자의 것임)

이후 1992년 9월 1일 협의회와 총회로 같은 출신교역자들이 양분되어 있는 것이 합당치 않아서 모교인 한성신학교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라는 명칭으로 재통합되었으나 해를 거듭하면서 다수가 협의회로 되돌아가거나 타 교단으로 이적하였다.

## 1)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 인준 한성신학원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 인준 한성신학교 입구. 힐 선교사 유품 전달식 기념사진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는 한성신학교를 잃은 아픔을 딛고, 학교의 50년 전 통과 뿌리를 잇고, 목회자 수급에 대처하기 위해서, 1990년 7월 12일 총회 임직원회의에서 한성신학연구원 개설을 가결하여, 이미 법인과 교명이 변경된 때로부터 총회직영 한성신학원을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총회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총회 소속 수십 명의 목회자들이 이 총회직영 한성신학원을 통해서 배출되었다.

## 2) 1970-90년대 한국성서(한성)신학교 졸업생들

1970년대 이후 한국성서신학교 또는 한성신학교 졸업생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교회에 끝까지 남아서 사역하다 소천 했거나 여전히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은 다음과 같이 대략 120여명에 이른다.

강빌립, 강성기, 강신봉, 강희경, 강춘원, 강희수, 고문석, 곽순식, 구계남, 권선이, 권순영, 권영신, 권인만, 권한임, 김광호, 김근만,



김길태, 김대희, 김덕전, 김복철, 김선국, 김영수, 김영태, 김원섭, 김원철, 김용강, 김용순, 김정한, 김종기, 김종현, 김진만, 김진산, 김현민, 김호규, 김홍덕, 나혜찬, 노양호, 도재호, 명달재, 명재석, 문광석, 문대호, 문원섭, 민동규, 박광덕, 박남용, 박병호, 박문자, 박옥채, 박용규, 박운식, 박운배, 박운성, 박인용, 박재규, 박종덕, 박종식, 박형용, 배성용, 배수인, 배용호, 백장현, 서상열, 시계수, 신경자(사모), 신득규, 신용문, 심상중, 심충재, 심혜전, 안건홍, 안수중(사모), 오경세, 오광은, 오세영, 오일영, 오호진, 오홍근, 원구범, 유수형, 유일중, 이금숙, 이두식, 이복동, 이석원, 이선길, 이우찬, 이원재(2014년 이직), 이일로, 이재수, 이재청, 이정기, 이창우, 이춘식, 이현담, 임계화, 임원혁, 장동혁, 장생규, 장성식, 전미식(사모), 전승중, 전용재, 정기덕, 정덕규, 정영심, 정일호, 조남중, 조남춘, 조동숙, 조동호, 조억만, 주경림, 주형근, 지원용, 지철희, 창영수, 최창업, 한기현, 한명호, 한정석, 한창섭, 홍근배, 홍기욱, 홍진기<총125명>

### 3)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를 통해서 개척된 교회들

1985년에 전체 그리스도의 교회 숫자는 286개에 달했다. 1998년에는 그 숫자가 증가해서 전체 그리스도의 교회가 364개에 달했고, 2003년에는 403개에 도달하였다. 2003년도 총회 소속의 교회가 61개, 협의회 소속이 237개, 교역자회 소속이 105개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성신학교에서는 조동호 교수의 제안으로 김찬영 학장, 조동호 교수, 김상호 교수가 주축이 되어 1987년 12월에 한성신학교 교회개척후원회를 조직하였다. 졸업생들의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성신학교가 1989년 8월 연산캠퍼스로 이전한 이후로 10여 년간 김찬영 학장과 김상호 교수가 분쟁에 휘말려 학교를 떠나게 됨으로써 후원회의 운영이 중단되었다. 이후 후원회 결성을 제안했던 조동호 교수는 이 후원회를 개인적으로 지속시켜나갔다.

아래의 도표는 한성신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들이 1988년부터 2008년까지 21년간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 소속으로 교회를 개척한 숫자와 1990년부터 2011년까지 총회가 개척예배를 주

관한 숫자를 표시한 것이며, 가로( ) 속의 숫자는 비한성신학교 출신 목회자들이 교회를 개척한 숫자이다. 총회개척 숫자와 남녀 목회자 숫자는 연도별로 추적 가능한 범위 내에서 표시한 것이므로 정확성이 다소 떨어진 것일 수 있다. 교회숫자에는 기관이 포함되었다. 목회자 숫자에는 전도사가 포함되었으나 장로 회원들은 제외되었다.

연도	한성신학교 졸업생개척	총회 개척	총회 교회수	협의회 교회수	교역자 교회수	총회목회자			교단 합계
						합계	남	여	
1985									286
1988	9								
1989	2								
1990	7	5(1)							
1991	5								
1992	4								
1993	4	8(3)				85	83	2	
1994	2	2(1)				78	73	5	
1995	2								
1996	2								
1997	1								
1998	5								364
1999	4	7(1)				76	71	5	
2000	4	4(1)				76	70	6	
2001	3					60	52	8	
2002	1	2(1)							
<b>2003</b>			<b>61</b>	<b>237</b>	<b>105</b>				<b>403</b>
2004		2(1)	61			73	57	16	
2005	1	3(2)	68			77	58	19	
2006	4	7(5)	74			86	65	21	
2007	1	4(3)	69			91	68	23	
2008	1	3(3)	72			94	68	26	
2009		3(3)	73			109	68	41	
2010		1(1)	92			114	70	44	
2011		3(3)	92			108	65	43	
합계	62	54(29)	+31			+23	+13	+41	+117

이 표가 보여주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목회자는 줄어든 반면 여성목회자는 큰 숫자로 늘어났다. 1993년 남성 목회자가 83명이던 것이 2001년에는 52명으로까지 줄었다가 이후 서서히 늘어나 70여명의 수준을 회복하였다. 1993년부터 2001년까지의 급격한 숫자의 변화에는 두 가지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하나는 아직 여성목사안수가 없던 때라 여성목회자의 숫자가 한 자리 수에 불과하다는 점이고, 또 한 가지는 1990년 총회가 결성된 직후 총 85명의 목회자 숫자에는 협의회 소속 한성신학교 출신들이 다수 포함되었다가 총회와 함께 하지 않고 협의회에 남기로 한 회원들을 제외시켰기 때문이란 점이다. 한성신학교 출신 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빠진 2000년대 이후에는 총회의 남성 목회자들의 숫자가 서서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남성 목회자들의 숫자는 2011년 이후 은퇴 또는 타 교단 이적으로 다시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반면에 여성 목회자들의 숫자는 1993년에 2명에 불과했던 것이 2011년에 43명까지 된 것에서 보듯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는 총회가 여성목회자 안수를 전향적으로 받아드린 때문이었다.

둘째, 개척된 교회숫자에 비해서 교회숫자는 실제로 크게 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해마다 다수의 목회자들이 밀물처럼 총회에 가입했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 교단의 전체 교회숫자는 협의회가 분열되기 이전인 1985년에 286개, 협의회가 분열된 이후인 1998년에 364개로 78개나 증가하였고, 2003년에는 403개로 1998년보다 39개나 늘어났다. 이 증가 수치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개척교회 수치가 보여주듯이 많은 교회들이 새로 생겨났기 때문이다.

셋째, 1988년부터 2008년까지 21년간 한성신학교(한민학교) 졸업생 및 교수들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가 62개이다.

넷째, 확보 가능한 총회회보에 실린 개척교회는 1990년부터 2011년까지 54개이다. 그 가운데 29개가 비한성신학교 출신의 목회자들이 세운 개척교회 숫자이다. 표에서 빠진 1991-92, 1995-98, 2001, 2003년도까지 총 8년간 비한성신학교 출신

목회자들에 의해서 설립되었을 교회들을 추정한다면, 40여개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1988년부터 2011년까지 24년간 총 100여개의 개척교회가 총회 소속으로 세워졌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100여개 개척교회들 가운데 총회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숫자는 그리 많지 않다. 다수가 실패했거나 타 교단으로 이적한 때문이다.

다섯째, 2009년 총회회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총 73개의 교회들 가운데 한성신학교 졸업생 및 교수들이 세운 교회들이 22개 정도, 총회신학원에서 공부한 목회자들이 40여명, 기존교회들이 13곳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것은 한성신학교 졸업생 및 교수들이 세운 교회들 총 62개 가운데 40여 개가 생존에 실패 또는 타 교단으로 이전하였고, 35퍼센트인 22개 정도만 남았다는 뜻이 된다. 반면에 총회신학원을 통해서 총회에 가입한, 다수의 여성들을 포함한 목회자들은 대부분 총회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개척된 교회들의 대다수가 생존에 실패했거나 이적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부터 2011년까지 교회숫자가 조금씩 늘어나 31개까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교단합계에서도 1985년에 286개이던 것이 1998년에는 364개, 2003년에는 403개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1985년부터 1998년까지 14년 동안 78개가 증가하였고,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 동안 39개가 늘어 19년 동안 총 117개가 증가하였다. 발전이 더디기는 해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일곱째,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신학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은석의 신화신학 성경연구회, 힐 요한과 김찬영의 한국성서(한성)신학교, 현재의 서울기독대학교와 그리스도대학교 및 협의회와 총회에 목회신학원이 존재해왔기 때문이다. 이곳 교육기관에서 배출된 학생들 대부분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남아 헌신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남은 자들을 예비하셨다.

#### 4. 김찬영 목사의 동료들

##### 1) 이춘식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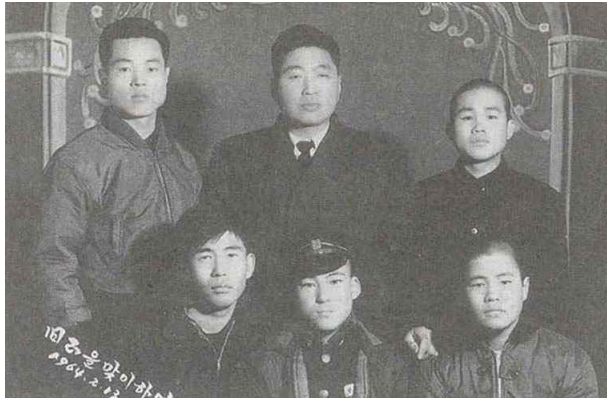


실천처장 이 춘 식 교수

이춘식 목사는 젊은이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보인 교육자였다.

첫째, 이춘식은, 선배이자 스승인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 함태영이 1952년 11월 15일에 충남 논산군 부적면 신교리 마을회관을 빌려 복음 공민중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1953년 3월과 7월에 각각 부친과 부인을 사별할 뿐 아니라, 재정을 후원하던 동생 함태중까지 중병으로 사경을 헤매게 되었고, 경기도 광주군 분

원리 소재 송실중학교의 교장과 교목을 맡아 떠나게 되었을 때, 복음공민중학교를 인수하였고, 장소를 옮겨 이름을 대명중학교로 바꿔서 운영하였다. 이 학교는 이후로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둘째, 이춘식은, <양촌소망교회 104년 역사> 69-70쪽에 의하면, 1956년 11월 13일 충남 논산군 양촌면 인천리 기독교대한감리회 인천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하여 1973년 8월까지 17년간 사역하는 동안 청년사역에 정성을 쏟았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교회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그의 재임 시 그의 영향으

로 10여 명의 청년들이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여 신학교에 입학하였다.



셋째, 이춘식은 그가 17년간 담임을 맡았던 충남 논산군 양촌면 인천감리교회(현 양촌소망교회)를 떠나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한국성서신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1973년부터 1986년까지 한국성서신학교 교수로 재임하는 동안 학생들에게 열정적으로 환원정신을 가르쳤고, 학생들에게 늘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구원의 15단계 등의 저서를 남겼다.

이춘식은 성공적인 목회자였다.

첫째, 그가 김찬영 목사의 권유를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기 직전 인천감리교회에서 17년간 사역하는 동안 기도처를 설립하였고, 예배당건축을 두 차례 하였다. 재임기간에



이춘식 목사(중앙)  
충남 논산군 양촌면 인천리 기독교대한감리회 인천교회

재적인원이 223명까지 늘어나 자립의 기반을 닦기도 하였다.

둘째, 1973년 8월 인천감리교회를 사임하자마자 바로 그달 5일에 대전 산성 그리스도의 교회에 담임목회자로 취임하여

1980년 4월 27일까지 시무하였다. 1981년 3월 1일 만목 그리스도의 교회에 취임하였고, 같은 해에 인근 어곡리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1985년부터는 한성신학교 교수이자 신흥 그리스도의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던 최용호 목사가 미국에 유학을 떠나 있는 동안 동료 최용호를 대신해서 신흥교회를 맡아 보살피던 중 1986년에 소천 하였다.

## 2) 정일호 목사

정일호 목사는 1939년 1월 24일 부친 정재관, 모친 권자자 사이에서 6남 2녀 중 차남으로 대전시 서구 변동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일찍이 복음을 받아 들여 예수님을 믿고 태평감리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감리교회 권사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기자로 사업가로 활동하였으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여 1971년부터 목회를 시작하였다. 충주 중앙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여 담임 목회자로 섬기던 중 지병인 당뇨로 인하여 2011년 5월 11일 대전선병원에서 소천 하였다.



정일호 목사(1939.01.24-2011.05.11)



총회장 정일호 목사(좌측), 조동호 목사(우측)

을 주장한 부흥사였다.

정일호는 충청이남지역에서 크게 활약했던 김은석 목사 이후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는 기도와 성령 충만을 모토로 환원운동을 펼친 성령운동가였으며, 성령운동에 기초한 한국적 환원운동을

정일호는 교회 개척가였다. 그는 상삼교회, 충주중앙교회, 창동중앙교회, 당우리교회, 팔봉교회, 원평교회, 은혜로운 교회 총 7개 교회를 개척하였다. 한성 교역자회를 이끌기도 하였으며,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 총회장을 1990-2008년 사이에 총 13차례 역임하면서 총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정일호는 1982년에 한성신학교를 졸업하였고, 1986년에 캘리포니아 신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1992년에 명예신학 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정옥춘 사모 사이에서 3남 1녀를 두었다. 초대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여 시무하는 정영현 목사, 정영민(캐나다 선교), 충주중앙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어받아 시무하는 정영성 목사, 정영심이 있다.



### 3) 장성우 목사

(1) 주의 손에 이끌려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다

장성우 목사는 1939년 1월 28일(음력) 충북 청주에서 부친 장병호(張秉浩), 모친 연옥순(延玉順) 사이에서 2남2녀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났다. 부친 장병호는 충북 괴산군 청안면 효근리에 소재한 500년 역사의 장씨 가문에서 태어나 성장한 후 고향을 떠나 청주에 자리를 잡고 사업에 종사하였다.



젊은 날에 장성우 목사

장성우는 청주에서 태어나서 주성초등학교, 청주중학교, 청주고등학교를 다녔다. 중학교 2학년(15세) 때 친구를 따라 당시 청주 석교동에서 가까운 기독교장로회소속 청주제일교회(당

시 구연직 목사 시무, 후임으로 기독교서회 조선출 목사가 부임)에 출석하였다. 이 일은 장씨 가문에서 처음 있는 일로써 장성우의 인생에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다. 장성우는 소문난 기독교학생이 되었고, 부친을 비롯하여 가정 전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가문에서 다수의 목회자가 배출되었다.

장성우는 성균관대학교 경제과를 나온 후 군복무를 마치고 체신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에 다니던 중에 대한기독교신학교(현 서울기독교대학교) 제1회 졸업생인 김순옥을 만나 교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교회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청혼을 하자 장모 김묘암 권사(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 집사, 성낙소 목사 시무)가 사위될 사람이 침례를



대한기독교신학교 제1회 졸업사진

받지 않고 약식세례를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결혼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 기막힌 반대 사유에 “도대체 당신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제대로 교육받은 목회자가 있느냐? 만나게 해 달라. 만일 그 목회자가 반대하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당시 기독교신학교 교장이었던 최순국 목사(시카고에서 작고하셨는데, 최순운 목사의 형)를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성경말씀에서 세례를 연구하여 침례를 받으라는 조건으로 결혼승낙을 받았다.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하고 대한기독교신학교(교장, 최윤권 목사) 신학과 야간에 편입하여 졸업을 하게 되었다. 이때 교수



대한기독교신학교 제6회 졸업식 기념  
김모압권사, 김순옥 사모, 장성우 목사, 최윤권 목사, 김중부 장로

들로써 환원운동을 가르친 최윤권 목사, 사도행전을 가르친 성낙소 목사의 아들인 성수경 목사와 구광서 목사, 강병천 목사, 김진문 목사를 만나게 되었다. 후에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1967년 1월 4일에

최윤권 목사로부터 침례를 받았다.

장성우는 육군하사로 제대한 직후 얼마동안 한양신학교가 소속된 하나님의 교회(현 대한예수교장로회)에 다닌 적이 있었다. 이 무렵에 장성우는 교단 중앙위원회의 집행위원회가 서울 서대문에 소재한 영천교회(이현래 전도사 시무)의 담임목회자를 일방적으로 징계하고 해임하는 것을 보았다. 이에 장성우는 중앙집권제의 병폐를 깨닫고 신학교 동기가 시무하는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박시래 전도사 시무)로 환원하였다.

성수경 목사의 저서 <초대교회 신앙교리>를 편집하여 출판하면서 성경이외의 어떤 인위적인 교리나 신조도 거부하는 순수한 복음주의 신앙을 배웠고, 가장 옳고 이상적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침례를 행하고, 매주 성만찬을 행하며, 개교회 중심의 초대교회(사도행전 2장)로 돌아가

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믿게 되었다.

장성우는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장로로 장립 받고 섬기면서 서울성서신학교에서 강사로 가르쳤다. 이때부터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에 참여하여 총회이사, 회계를 맡아서 그리스도의 교회 개척교회를 후원하였다.

이후에 운영하던 사업이 부진하여 고뇌하던 중에 해남의 동리 그리스도의 교회에 머물면서 10여명의 교인을 데리고 목회를 시작하였다. 이것이 첫 목회였다. 그 후 서울로 올라와서 신월동에 1978년 12월 10일 강남제일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여 첫 예배를 드렸고, 이듬해인 1979년 2월 11일에 창립예배를 드렸다.



강남제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침례를 철저히 실행하고 매주 빠지지 않고 주의 만찬을 시행하였으며, 이상적 그리스도의 교회의 목표로 열심히 목회하여 성도들이 늘어나서 150여명이 모였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성장하였다. 장성우 목사는 문서선교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회 이사장 패튼(배도은) 선교사와 깊은 인연을 맺고 활동하였다.

장성우는 창립예배를 드린 1979년에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총회장 조충연, 목사고시위원장 강병천, 심사위원장 김동수, 안수위원 조충연, 김동수, 김진문, 김정만, 최순운)로부터 목사안

수를 받았다. 이 뜻 깊은 해에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의 교회는 총회(현 총회가 아님)와 협의회로 나뉘졌다. 총회에서 조충연 목사가 총회장으로 선출되자, 최윤권 목사가 중심이 되어 대한 기독교신학교측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교역자회를 구성하였기 때문이다.



제16회 그리스도의교회 총회

총회측에는 김찬영, 이종만, 김규상, 김진문, 김태수, 김정만, 최순운, 김철수, 김용웅 등이 함께하였고, 이신 박사도 미국에서 귀국한 후 합류하였다.

장성우 목사는 목회를 하면서 학업에 정진하여 미국 필라델피아 웨이스신학대학원에 유학하여 목회학박사를 취득한바가 있다. 미국에서 방을 함께 쓴 한국에서 큰 장로교회를 맡아 시무하던 목사가 이르기를, “서울에서 일반대학교를 나온 장목사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학위를 제대로 갖춘 사람이 거의 없는 줄로 알고 있었다고 말하였다. 장성우는 그때 충격을 받고 귀국한 후로는 방송, 연합단체, 신문 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홍보하는 일에 힘을 쏟았다.



한교협 임원단. 회장 최훈, 총무 문은식, 서기 장성우, 회계 허송



한국기독교교역자협의회 연두기자회견(1984년)

1982년에 출판된 설교집 <일곱 촛대의 비밀>이 3판까지 출판되는 인기를 얻었고, 그로 인해서 교파를 초월하여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다. 대외적으로는 12개 교단으로 구성된 ‘한국기독교교역자협의회(한교협)’에 그리스도의 교회 대표로 참여하였다. 한교협의 실행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서기를 맡아 활동하면서 신문, 잡지, 방송과 같은 매스컴에 글을 발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교회를 널리 홍보하였다. 이 당시 한교협에는 한경직, 정진경, 이영수, 최훈, 조원길, 문은식, 정인도, 허송 등의 목사들과 한동숙 집사(현 웨스민스터대학원 이사장) 등이 지도자로 참여하였다.

강남제일 그리스도의 교회는 다수의 목사들을 배출하였다. 장로로 시무했던 김종기(만목 그리스도의 교회), 후임자인 김종현(강남제일 그리스도의 교회), 전도사로 시무했던 김점용(신갈 그리스도의 교회), 오세황(호주 거주, 맵인선교회), 박영완(그리스도의 교회 칠레선교사), 정기영 선교사(박영완 목사 사모), 한문희(천안, 감리교), 반현구(청주, 성결교), 김춘기(인천, 성결교), 장혁(대전, 기독교장로회), 장지은 전도사(대전, 온누리교회, 그리스도대학교 강의) 등이 그들이다. 그 무렵 서울시 강서구에는 강남제일교회 이외에도 신월중앙 그리스도의 교회(배홍옥 목사 시무)와 신성 그리스도의 교회(장휘명 목사 시무)가 있었다.

(2) 주의 손에 이끌려 한성신학교 교수로 부임하다

1980년대 초 대전의 한국성서신학교는 1981년 2월 16일 교육부로부터 학교법인 성령학원 한성신학교를 인가받고, 1983년 10월 5일 4년제 대학학력인정교로 승격된 더 나은 인가를 위한 교수인력의 충원이 불가피한 상태였다. 이때 장성우 목사는 한성신학교의 전임교수로 임명을 받고 후진양성을 위해서 서울 소재의 강남제일 그리스도의 교회를 전도사로 시무하던 김종현에게 맡기고 거주지를 대전으로 옮겼다. 신학교에서는 실천신학 교수로서 예배학, 성례전, 환원운동사 등을 가르쳤다. 이 기간에 학업을 지속하여 부산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행정학 석사를 받고, 2급 교사자격증을 받았다. 1987년 10월 15일에는 두 번째 설교집 <고독한 승리>가 발간되었는데, 역시 좋은 평판을 받았다.



한성신학교 교수 시절에 졸업식에 참석하며

한성신학교는 1987년 말까지 입학정원 180명에 신학과(주야), 기독교교육과(주야), 음악과(주), 사회복지학과(주야)로 발전하였다. 신학과는 주야간 각각 40명씩 80명이 입학정원이었

고, 별도의 목회학과도 운영하고 있었다. 이 무렵 주간에는 젊고 활기찬 젊은이들로 캠퍼스를 메웠고, 야간에는 직장인, 공무원, 군인 등 좋은 인재들로 강의실이 채워져 있어서 그들을 가르치는 보람이 대단하였다.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왜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 교인인가>와 <21세기 교회개혁의 이상>를 번역 출판하였으며, <환원교리와 역사>를 저술하였다.

장성우는 1995년에 대전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 과정에 입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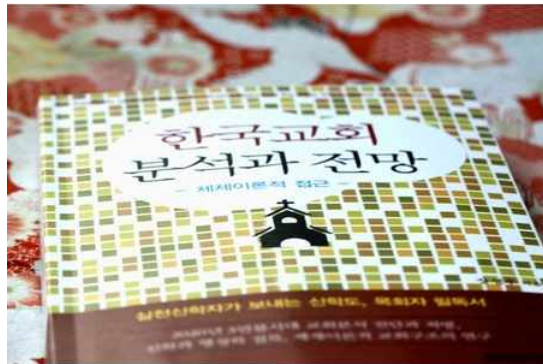


대전대학교행정학박사학위수여식에서

하여 연구를 시작하였다. 실천신학분야인 교회행정을 일반행정에 접목시켜 발전시킬 방안을 찾는 학위논문을 위해서 행정학을 연구하기로 결심하였던 것이다. 1998년 2월에 “한국교회 분석-체제이론적 접근”의

논문을 완성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2012년 1월 10일에는 성광문화사를 통해서 책으로 출판하였다. 2004년 3월 1일 21년에 걸친 교수생활을 정교수로 정년퇴임함으로써 마감하였다.

장성우는 신학교 재직시절 적극적으로 자료를 찾아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에 제공하였고, 운영자를 격려하였을 뿐 아니라, 동료 교수들인 최용호, 조동호와 협력하여 졸업생 또는



책 표지

재학생들을 독려하여 교회를 개척토록 하여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 소속 중부지방회를 설립하였다.

장성우 교수는 강의실에서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시켰던 목회경험과 머릿속에 담아왔던 이상적인 신약성경교회를 학생들에게 유감없이 피력하였다. 교회는 “성경이외의 인위적인 교리, 신조, 교파를 배격해야한다. 신약성경의 순수한 복음에로 돌아가야 한다. 사도전통대로 매주 주의 만찬과 침수세례를 시행하여야한다.”고 외쳤다.

그의 신앙의 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시대에 필요한 이상적 교회이다. 교파분열은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다. 모든 교파들은 성경이외의 조직과 신조와 헌법을 버리고 교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각 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교회는 회중 중심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감독정치, 장로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위적 신조와 교리에서 벗어나 신약성경으로 돌아가 단순하고 양심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 교파교회는 중앙집권의 횡포를 버려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산산 조각난 주님의 교회를 본래적이고 순수한 사도들의 전통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셋째,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는 그리스도의 교회, 오직 그리스도인이 구성원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리, 그리스도인의 예배, 그리스도인의 침례 등, 그리스도인이 인정되고 강조되는 교회, 오직 그리스도만을 구세주로 인정하는 교회, 그래서 다른 이름들이 쓸모없게 되는 교회, 곧 그리스도의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넷째,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것을 침묵하자.”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일치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인위적인 조직과 교권, 인간이 만든 신학과 신조와 전통,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성경말씀, 특히 신약교회의 기초인 사도전통으로, 신약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진정한 교회통합은 신약교회로 돌아갈 때 가능해진다. 신약교회로 돌아가 한 분 성부 하나님, 한 분 성자 예수님, 한 분 성령님, 한 몸 교회공동체, 한 믿음, 한 침례, 한 소망으로 돌아가야 한다.

### (3) 주의 손에 이끌려 노숙자 교회를 개척하다

장성우 목사는 정년퇴임을 1년 앞두고 안식년을 얻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여생을 무엇으로 보답할까를 고민하였다. 그 무렵 대전역 주변에 노숙자들이 많았다.





노숙자 사역을 하는 중부그리스도의 교회가  
마포에서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갈 때로 사향을 묻고 침식을 해결해 주려고 애썼다. 그러나 물질로는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기도

중에 깨닫고 노숙자를 위한 교회를 세우기로 결심하고, 제자들인 도중교(선천장로교회 시무), 홍기욱(상삼 그리스도의 교회 시무)과 함께 중리동에 지하 40평을 얻어 중부 그리스도의 교회를 시작하였다. 이성현 장로가 합류하였고, 김영태(신정 그리스도의 교회 시무), 노태석(참빛 그리스도의 교회 시무), 박무행(기아대책 대전충남본부장)도 합류하여 노숙자 목회를 도왔다.

장성우는 목사와 교수로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을 쉬지 않았고, 강남제일 그리스도의 교회, 중부 그리스도의 교회, 사랑 그리스도의 교회, 명성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여 시무하였다.

#### (4) 주의 손에 이끌려 시인으로 활동하다

새빛 장성우 목사를 시인으로 만든 것은 ‘보리피리’로 천형인 나병의 처절함을 읊어 주목을 끌었던 시인 한하운이었다. 그를 만난 것은 4.19후에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청량리에서 흥국직업소년학교를 운영할 때였다.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를 보고 그가 격려차 찾아와 손을 잡아주었을 때였다. 그와의 만남을 계기로 글을 쓰기 시작하여 10권의 책을 펴냈다. 제40회 <월간아동문학> 번역부문 신인상에 1997년 6월에 당선되었고, 2006년 1

월 20일 <크리스찬문학>과 동년 4월 28일 <문학사랑>에서 시로 신인상을 받고 시인으로 등단하였다. 동년 4월 6일 한국 문인협회(Korean Writers' Association) 아동문학부문과 7월 27일 국제펜클럽한국본부(Korean Center PEN International)에 외국문학번역부문에 각각 회원으로 허입되었다. <대전문학사랑>에서는 2010년 6월 1일 인터넷문학상도 받았다. 시인으로서 시집 <카이로스의 만남에서>를 출판하였고, 국제크리스찬작가협회 중부지회장, 계간크리스찬문학 운영이사, 대전펜클럽 운영위원을 역임하였다.



동아일보 투고

기독교신문에는 정론 '편견을 넘어 더불어 사는 사회로'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 '더불어 생각한다'란에 '근본으로 돌아가자' '인간 생명 존엄에 앞장서자' '교회는 영적각성으로 자정능력을 회복할 때'를 쓰고, 기독교신문 칼럼에 '기독교인 윤일병을 보는 눈'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교회의 과제' 등 수

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아침이면 인터넷 시마을에 시를 쓰고 사진을 올리며, 좋은 문인들과 교류함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지낸다. 평생 목회를 했고, 신학대학교수로 목회자를 양성 했고, 저술활동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장성우는 목회자로서 두 권의 설교집을 펴냈는데, 큰 인기를 얻었다. 그는 첫 번째 설교집 <일곱 촛대의 비밀>(태광출판사, 1982) 서문에서 “이 땅에 종식되어야 할 교회의 외형화, 대형화의 비극을 바라보면서 서글픈 미래도 생각했다. 교회가 만일 내일을 바라보는 눈과 냉정한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살아있는



'일곱축대의 비밀' 설교집

것처럼 보이거나 죽은 것이다. 호황이 지나면 불황이 오듯이 반드시 역사의 과거를 결코 헛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겠다.”라고 썼는데, 교회가 호황을 누리던 시대에 미래를 정확히 예측한 예언자적인 안목이 돋보인 글이다. 두 번째 설교집 <고독한 승리>(태광출판사, 1987) 역시 호평을 받았다.

그는 또 교수로서 여러 교재들과 번역서들을 펴냈는데, 교재들로는 <환원교리와 역사>, <예배학>, <기독교 변증학>, <성례전>, <그리스도의 교회 조직신학>이 있고, 번역서로는 마셜 레게트의 <21세기 교회개혁의 이상>(태광출판사), 레로이 부라운로우의 <왜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 교인인가>(태광출판사)가 있다. 그밖에 시집 <카이로스의 만남에서>가 있고, 환원운동과 행정학에 관련된 논문들이 다수 있다.

#### (5) 주의 손에 이끌려 살아온 생애에 감사하다

장성우 목사는 주의 손에 이끌려 살아온 생애를 감사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함께 동역한 훌륭한 목회자들에 대해서 늘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 그들 가운데 한



미국 L.A. 그리스도의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김정만목사와 김길홍장로는 방문중이었다)

성신학교 교수로 불러준 중국 훈춘의 김찬영 박사, 미국 시카고

의 최순국 목사, 최순운 목사, 김순철 목사, 로스앤젤레스의 안재관 목사, 이종만 목사, 고 양정식 목사, 김성철 목사, 한명철 목사, 이성학 목사, 김태수 목사, 김철수 목사, 김정인 목사, 최태희 목사, 안대진 목사, 서울의 신조광 목사, 인천의 장성영 목사가 있다. 또 늘 존경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최윤권 목사, 김정만 목사, 조충연 목사가 있다. 오랜 기간 함께 사역한 신학과 동료들인 박영배 박사, 최용호 교수, 김상호 교수, 조동호 교수에게도 한결같은 우정에 감사하고 있다. 그는 또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돌아와 일찍 소천한 몇몇 신학자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지 않는다. 기도원에서 암 투병이던 이신 박사를 문병하였고, 금호동 그리스도의 교회(현, 신설동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고, 한성신학교 교장을 역임한 김진문 목사가 간암으로 소천하였을 때 가슴아파하였다. 특히 김진문 목사는 장성우 목사가 강남제일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할 당시 매월 선교비를 지원했던 분이였다.

장성우 목사는 슬하에 1남 2녀를 두었다. 큰 딸 장지은 전도사는 그리스도대학교 신학과 및 이화여자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백석대학교에서 선교학박사를 받고 그리스도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고, 둘째 딸 장지나 집사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다. 아들 장혁 목사는 대전 주님의 은혜와사랑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다.

#### 4) 최용호 목사

최용호는 1938년 4월 10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아버지 최기추와 어머니 이채덕 사이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가 일본에서 작은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지냈다. 어머니는 신앙이 좋은 분이셨다. 그 어머니를 따라 최용호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다. 일본에서 다녔던 교회는 일본인 목사 마쓰바라가 시무하던 오사카 그리스도의 교회였다. 교인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목사님은 헌신적이었고, 분위기는 가정적이었



최용호 목사는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의 창립교인이며,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후학양성과 목회에 헌신하였다.

다. 교인들 가운데 아무도 한국인을 차별하지 않았다.

최용호는 해방된 1945년에 7살이었다. 일본에서의 삶은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해방이 되자, 고국에 돌아가 살아야한다며 가족을 이끌고 고향인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존포리 섬마을로 돌아왔다. 최용호는 안좌도 바닷가 마을 존포리에서 일 년간 즐거운 유년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아버지는 외진 섬에서 별이가 마땅치 않자, 이듬해인 1946년에 목포로 이사를

하였다. 최용호는 자연스럽게 목포 유달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아직은 우리말이 서툴렀던 최용호는 처음 일 년 동안 다른 학생들로부터 많은 놀림을 당하였다.

최용호는 어머니를 따라 목포 온금동교회에 출석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 때 6.25가 터졌으나 이듬해 1951년 2월 28일에 무사히 졸업하였다.

최용호는 1951년 3월에 목포제일중학교에 입학하여 다녔고, 1954년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다녔던 목포상업고등학교에 입학하여 다녔다. 이때 최용호는 어머니와 함께 목포



최용호 목사는 목포상고에 입학 후 목포양동교회(이날귀 목사 시무)에 출성하여 학생회장을 지냈으나 모친을 따라 초보한 목사가 시무하는 복음교회로 옮겼다.

양동장로교회(당시 이남규 목사 시무)에 출석하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학생회장을 맡을 정도로 신앙생활에 열심이였다.



최용호 목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다녔던 목포상고를 나왔다. 그는 친구들에게 외국어를 잘하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각인되었다.

최용호는 목포상고 재학 때 외국어에 관심이 많았다. 그 때문에 그는 친구들에게 외국어를 잘하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각인되었다. 외국어에 대한 관심은 훗날 잠깐 동안이었지만 목포에 있는 영어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계기가 되었고, 한국성서신학교(한성신학교, 한민학교)에서 히브리어와 헬라어 교수로 교편을 잡게 되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전 총회장이자, 전주중앙교회를 시무했던 김옥남 목사는 최용호 목사의 목포상고의 동기동창으로서, “최용호는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이 좋은 신실한 학생이었으며, 특별히 외국어에 능통한 학생이었다.”고 증언하였다.

1955년 무렵 목포지역에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특히 김은석 목사, 최요한 목사, 이신 목사 등이 인도하는 집회에서는 사람들이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불이 임하여 초대교회에서처럼 능력과 놀람과 표적이 나타나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곤 하였다. 최용호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인 어느 날 김은석 목사가 인도하는 사경회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던 중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갈 수 없다.”(요 3:5)는 말씀에 붙잡히는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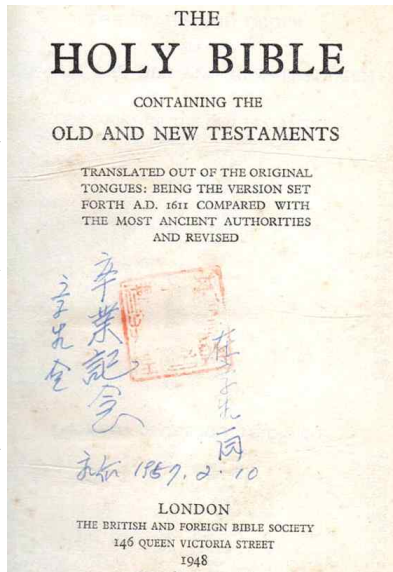
이 무렵에 목포 차남수병원 원장부인인 김사라 집사가 고질병으로 고통을 받다가 최요한 목사의 기도로 고침을 받고 복음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 이 교회는 1955년 9월 20일 목포시 북



최초로 목사는 목포상고 3학년 때 최초의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에서 학생회장을 지냈다.  
1957년 2월 10일 재학생들이 졸업기념으로  
선물한 영어성경책을 보물로 여기며 간직해왔다.

으나 1953년 4월 8일 광주에서 성회 창립총회 때 교단을 옮겨 목포시 죽교동 391번지 진성구 장로의 건물 2층에 유달교회를 개척하였다. 그러나 최초의 목사는 이 유달순복음교회 예배당에서 김은석, 이신 등과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 성경연구회'(신학교)를 운영하였다. 1955년 9월 25일부터는 김사라 집사가 개척한 지 5일밖에 안 된 복음교회를 맡아 시무하였다. 복음교회가 크게 성장하여 기공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건축이 된 상황에서 교회명칭에 대해 고민하던 중 최초의 목사는 목포 그리스도의 교

교동 정분임 집사 가정에서 시작하여 10월 16일 차남수 병원 안집을 개조하여 예배를 드렸다. 최초의 목사는 1946년 초에 김은석 목사에게 은혜를 받고 다수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세웠다. 또 1951년 늦봄에 광주에서 개최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교역자회 창립총회 때 목사 안수를 받고 장성기도원을 맡아 8개월간 사역하였다. 1952년 1월초에는 목포시 남교동 큰 시장 골목상가 2층을 전세 내어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



목포복음교회(최초 목사 시무) 학생회 회원들이  
1957년 2월 10일 졸업선물로 준 영어성경책.

회로 정하기를 원했고, 제직자들의 투표에서도 그렇게 결정되었으나 창립자인 김사라 집사측과 교회명칭으로 인해서 갈등이 커졌다. 이에 최요한 목사는 1957년 10월 5일에 복음교회를 사임하였고, 9월말부터 목포시 대안동 11번지에 마련한 예배처소에서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시작하였다. (목포복음교회는 지금도 침례와 주의 만찬을 소중히 여기는 독립교회로 남아있다.)



졸업을 앞둔 고등부 학생회 회원들(1957년)  
최요한 담임목사(앞줄 중앙), 최용호 목사(뒷줄 좌측 끝)

김은석 목사가 인도하는 집회 때 큰 은혜를 체험한 최용호와 모친은 유서 깊고 전통 있는 양동장로교회를 떠나 김사라 집사가 개척하고 최요한 목사가 시무하는 복음교회로 옮겼다. 양동교회에서는 학생회 회장을 하던 학생이 교회를 옮겼다는 논란이 일어났다. 최용호는 복음교회로 옮긴 후 1956년 여름 목포 대방동 바닷물에서 최요한 목사에게 침례를 받았고, 최요한 목사의 지도아래 목포상고 3학년 때 목포복음교회에서 학생회장을 맡아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다. 젊은 최용호를 그리스도의 교회의 목사와 신학교 교수가 될 수 있도록 신앙을 지도하고 중매하여 주례까지 서준 최요한 목사는 설교 때마다 열정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였고, 매주 행하는 성만찬 때 눈물을 흘리며 회개



를 촉구하였으며, 절절한 성만찬기도에 많은 이들이 은혜를 받았다. 최용호 목사는 청년 때 최요한 담임목사와 김은석 목사로부터 받은 신앙체험들을 소중히 간직하여 목회생활에 적용하였다.

목포복음교회 학생회장이었던 최용호는 유달교회에 초청을 받아 설교할 기회가 있었다. 이날 설교 후 최용호는 진성구 장로에게 유달교회와 복음교회가 통합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였는데, 결국 진성구 장로가 큰 힘이 되어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다. 진성구는 장로교회에서 장로안수를 받은 이로서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던 중에 최요한을 만나 1952년에 상월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시켰고, 1953년에는 목포에 있던 자신의 건물 2층을 유달 교회당으로 쓸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57년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가 개척될 때에는 창립교인으로서 전 가족이 헌신하였다. 그러나 그는 1968년에 목포복음교회로 이적하였다.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는 개척 이듬해인 1958년에 적산가옥을 개조하여 예배당 16평, 사택 10평을 마련하였다. 이 가옥은 크기가 200평이나 되는 건물로써 교회가 차지한 공간은 왼쪽 가장자리 26평이었다. 1961년에 이 가옥 뒤편 24평을 구매하였다. 이에 최요한은 50평 크기의 석재건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반대하여 1968년에 진성구 협동장로가, 1969년에는 세 명의 장로들이 목포복음교회로 이적하였다. 최요한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50평 석재 본관건축을 착공하였다.

최용호는 목포상고 졸업 후 목회에 뜻을 두고 1957년 4월 7일부터 현재 서울 노원구에 소재한 한국성서대학교(학장 강태국 박사)에서 1958년 7월 15일까지 1년 반을 수료한 후 군에 입대하였다. 이 시기에 대전의 한국성서신학교(1959년 12월 개교)는 아직 개교이전이었고, 서울 송월동 신학교는 캠퍼스 이전 준비로 임시 폐교된 상태에서 1959년 6월 3일 팔렸으며, 1963년 3월에 가서야 새 캠퍼스(현 은평구 서울기독대학교)에서 서울성서신학교라는 교명으로 개교되었기 때문에 최용호 목

사가 입학할만한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가 없었던 때였다.

최용호는 1959년 8월 21일 육군으로 입대한 후에 39사단에서 포병단 인사과와 사단병참 참모부에 근무하였고, 하사로 1962년 5월 3일 제대하여 당시 김은석 목사가 자주 집회를 열었던 해남의 마명리 그리스도의 교회(담임 김종현 목사)에 출석하던 박정자와 1963년 2월 22일 최요한 목사의 주례로 결혼하였다. 동년에 최용호는 담임목사 최요한의 권유로 대전에 세워진 한국성서신학교(교장 힐 요한 선교사) 본과 3학년에 편입을 하였다. 당시 교수로는 힐 요한 선교사, 힐 제인 선교사, 임춘봉 목사, 최요열 목사(최요한 목사의 동생이자, 조동호 목사의 초중고시절 담임목사), 이신 목사, 심영진 목사, 김희영 교수가 가르치고 있었다. 최용호 목사가 한국 선교에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교장 힐 요한 선교사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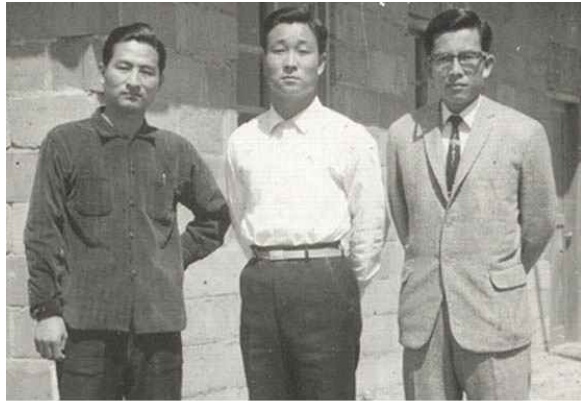


한국성서신학교 재학생들(1963-64년경)  
가운데 줄 좌측에서 다섯 번째가 최용호 목사이다.

한국성서신학교는 1959년에 개교하였기 때문에 1963-64년 당시에는 변변한 교사도 갖추지 못한 열악한 환경에서 수업이 이뤄졌다. 이뿐 아니라, 재학생들의 대다수가 생활이 어려워 학교에서 제공하는 근로 장학금을 받고 있었다. 이 무렵 신학교들은 신학을 공부하는 학교이자 학비를 해결하는 노동현장이었다.

최용호는 1964년 12월 18일 본과 2회로 한국성서신학교를

졸업하였다. 졸업 후 바로 모 교회인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로 내려가서 교육전도사로 일하였고, 1965년에 진도 대사에 소재한 대사 그리스도의 교회에 초빙되어 전도사로서



한국성서신학교 재학시절(1963-64년경, 좌측부터 최용호, 최금성, 박경식)

첫 목회를 시작하였다. 대사 그리스도의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였다. 그러나 그 기간은 길게 이어지지 못하였다. 한국성서신학교 교수였던 이신 목사가 1966년 9월 마흔 살의 늦은 나이에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되어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가르칠 후임으로 초빙을 받아 1966년 3월 31일 한국성서신학교 교수로 부임하였기 때문이다. 최용호 교수는 동년 9월 18일 전주 금암 그



최용호 목사는 1966년 9월부터 전주 금암 그리스도의 교회를 맡아 시무하면서 예배당을 건축하였다(우측 할로한 선교사)

리스도의 교회를 맡아 시무하는 동안 예배당을 건축하였고, 30여명의 성도를 섬기며 역시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으며, 이듬해인 1967월 9월 5일 신학교 강당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최용호 교수는 한국성서신학교에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가르치면서 대전 신흥 그리스도의 교회를 비롯한 몇몇 교회들에서 목회를 겸하였다. 이뿐 아니라, 1980

년 3월 12일 침례신학대학 목회대학원에 입학하여 1982년 2월 16일 목회학석사를 받았고, 1985년 2월에는 45살의 늦은 나이에 미국 유학을 떠났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소재 윈스턴세일럼 성서대학에서 1986년 8월 17일 문학사 학위를 받았고, 동년 9월에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동석기 목사, 장성만 목사, 김찬영 목사, 조동호 목사 등이 수학한,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성서대학원에 입학하여 1988년 5월 7일 석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였으며, 한성신학교에 복직하여 가을학기부터 구약학교수로 재직하였다. 한성신학교(한민학교)에서는 신학과장을 비롯하여 여러 보직을 두루 맡아보았고, 이외에도 1980년 5월 1일부터 성령학원에서 감사직과 1998년 9월 19일부터 재단법인 한국 크리스찬 밋손 이사직을 다년간 역임하였다. 최용호 교수는 한성신학교가 한민학교로 바뀌고 3년이 지난 2003년 8월 31일 신학부 정교수로 정년퇴임하였다. 퇴임 후 다락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던 중에 은퇴하였다.



최용호 목사는 1963년에 한국성서신학교 본과 3학년에서 편입하여 1964년 12월 18일 졸업하였다.(앞줄 우측 두 번째).

최용호 목사는 학창시절 김은석 목사와 최요한 목사로부터 영향을 받은 목회자로서 침례와 매주 행하는 주의 만찬을 매우 중요한 의식으로 인식하고 시행하였다. 또 그는 미국 유학기간을 뺀 33년간 신학교에서 구약성서 과목들과 성서언어를 가르

쳐온 교수로서, 휴대용 돋보기로 포켓용 헬라이어신약성서를 읽었으며, 신약성서교회로의 회복(환원)이 왜 그토록 중요한 기독교 개혁의 과제인지를 강조해왔다.



최흥호 목사는 1966년 3월부터 2003년까지 4년간의 미국유학 기간을 뺀 33년간 한성신학교에서 후학양성에 힘썼다(1981년 3월 6일 제28회 졸업사진)

박정자 사모 또한 청년 때 김은석 목사로부터 영향을 받아 그리스도의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린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녀는 교우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긴 그리스도의 일군이었고, 가난과 역경과 온갖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한 오남매의 사랑스런 어머니였으며, 모든 교우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모였다. 슬하에 3남(준오, 준곤, 준기)과 2녀(미애, 은애)를 두었다.

\*\*\*김찬영 목사의 다른 동료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이곳에 추가될 것이다.



##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

A Story of Korean Christian Churches: Minister  
Sungman Jang and His Dongseo University

조동호(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 제7부 부산, 경상도, 광주

#### 1. 장성만 목사와 동서대학교

##### 1) 민석(民石) 장성만(張聖萬) 목사의 생애와 업적



회갑을 맞는 民石 張 聖 萬 博士

민석(民石) 장성만 목사는 1932년 11월 2일(음력) 부산시 토성동에서 장용환(張容煥) 씨와 박보질(朴甫質) 씨의 장남으로 기독교 가정에서 출생하였다. 중학교 2학년(15세) 때에 사업가이시던 아버지를 잃고 여덟 식구의 장남으로서 어려운 시절을 겪어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중학교(당시 6년제)를 마칠 무렵 6.25전쟁이 터졌다.

장성만은 원래 장로교 교인이었으나, 6.25전쟁 중에 부산으로 피난 온 백발의 동석기 전도자(목사)가 미국 문화원 강당을 빌려 행한 기독교 강연회에 자주 참석하여 새로운 기독교 교리를 들었고, 동석기 목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게 되었다. 이후 그는 성서이외의 어떤 인위적인 교리나 신조도 거부하는 순수한 복음주의 신앙을 갖게 되었다. 침례를 행하고, 매주 성만찬을 행하며, 개교회 중

심의 초대교회(사도행전 2장)로 돌아가는 것이 성서적이라고 믿게 되었다.

이때부터 장성만은 장로교 교인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교인이 되었고, 서울에서 피난 온 신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에 매진하다가 낙동강 전투 때 국군에 입대하여 전투에 참가하였고, 죽을 고비를 두 번이나 넘겼다. 제대 후 다시 신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면서 부산 그리스도의 교회의 전신인 대교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는데, 이것이 1953년 1월 3일 첫 주일이였다. 자신의 집 2층 8조 다다미방에서 7명의 성도가 모여 성찬식을 행하며 감격스러운 첫 예배를 드렸다.

장성만은 학업과 목회를 겸하면서도 뜬 눈으로 새벽을 밝히면서 공부하고 기도하며 글을 썼다. 각종 청년집회에서 강연하는 것을 필두로 부산과 경남지방의 솔한 교회에서 전도 강연회를 열었고, 신문, 잡지, 방송 등을 통하여 글을 발표하였다. 이때 발표했던 글들을 모아 훗날 <생각 잃은 갈대>라는 첫 수필집을 발행하였다.

이후 교회는 발전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참석하였는데, 미국 선교사들도 내한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들이 바로 기독교 방송 선교를 위해 한국에 온 알렉스 빌즈(Alex and Betty Bills, 1956-1961) 가족, 조 세겔키(Joshep and Maxine Seggelki, 1958-1961) 가족, 버트 엘리스(Bert and Marjorie Ellis, 1958-1983) 가족들이다. 그 외에도 일본에 주재하는 마크 맥시(Mark Maxey), 데이비드(David), 심즈(Sims), 오사카 성서신학교 교장 클라크(Clark) 등이 자주 찾아와서 격려하였다.

장성만은 신학을 마치고 1960년에 목사안수를 받았다. 그 후 1964년 1월에 교회는 부산 YMCA 3층 강당으로 옮겼다. 한편 장성만 목사가 부산시 북구 주례동 167번지에 세운 '동서기독교실업학교'의 강당에서 1966년에 그의 동역 선교사였던 리처드 래쉬에 의해 대학교회가 시작되었는데, 1967년 10월부터 윤금하 목사가 담임하고 있었다. 그런데 1970년 3월에 학교 캠



퍼스 내에 새로운 예배당을 세운 후 위의 두 교회를 통합하여 명칭을 부산기독교교회로 개명을 하고 장성만이 담임목사, 윤금하



장성만 목사가 지도한 세족회 일부 회원들  
좌측 뒷줄부터 알렉스 빌즈, 장성만, 김홍근 목역, 우측 끝 김한영

가 부목사로 시무하다가 1978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게 될 때까지 장성만 목사는 이 교회에서 무급으로 25년간을 목회하였고, 7명의 청년들로 세족회를 조직하여 특별 신앙 훈련을 시켰다. 여기에 김찬영, 신용철, 이동발, 박구하, 김동렬, 안대현, 양군(작고) 등이 참여하였는

데, 이들 중에 두 사람이 목사가 되었다.

1978년부터는 부산기독교교회를 윤금하 목사, 김호규 목사, 이우찬 목사, 송경언 목사가 차례대로 시무하였다. 그 후 2002년 연건평 800여평, 600여석의 본당을 비롯한 소예배실, 교육관,

식당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춘 현대식 교회를 신축한 후 학교법인 동서학원 대학교회로 개칭하여 설립목사인 장성만이 담임을 맡았다.



부산 동서대학교 및 경남정보대학 대학교회

이밖에 1960년대 이후 경상남북도의 교회들로써는 양정식 목사가 시무한 경북 안동군 풍산면 상리 안동복음중학교 및 안동그리스도의 교회, 송영희 전도사가 시무한 경북 안동군 풍산면

죽전동 그리스도의 교회, 오현팔 목사가 시무한 경북 영양군 영양면 서부동 영양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다. 1970-80년대에 세워진 교회들로는 성결교회에서 환원한 이병우 목사가 시무한 진영 그리스도의 교회와 강나루 목사가 시무한 동부제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다. 진영 그리스도의 교회는 장성만에 의해서 1975년에 경남 김해시 진영읍 좌곶리 462번지에 세워졌고, 동부제일 그리스도의 교회는 부산시 동래구 사직1동 100-2번지에 장성만의 제자로서 대한기독교신학교를 졸업한 강나루(본명 강병기)에 의해서 1983년에 세워졌다.

장성만 목사는 그의 에세이집에서 자신의 신앙적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신약성서의 신앙에 입각하여 환원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다음 몇 가지 나의 신앙적인 입장을 밝혀둔다.

첫째, 교파의 분열은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현존하는 교파들이 진정으로 하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둘째,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종류의 신조나 교리를 우리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직 모든 인위적인 문서를 버리고 성경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셋째,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어떤 다른 이름도 우리의 흥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인위적인 명칭을 청산하고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돌아오기를 원한다.

넷째, 인간의 머리 속에서 짜낸 어떤 조직도 우리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조직 이외는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성경이 말한 것만 말하고, 성경이 침묵한 것은 우리도 침묵하자.' 이 표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보겠다는 환원 운동자들의 절규이다. 진정 교회의 단일화를 원한다면 인위적인 조직과 정치, 인간의 신조와 유전, 이 모두를 던져 버리고 성경에 절대 순응해야 한다. 진정 교회의 통합을 원한다면 새 교파, 새 신조, 새 교리를 만들지 말고 신약교회로 돌아가서 하나의 이름, 하나의 믿음, 하나의 세례, 하나의 소망으로 결속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거대한 운동에 참가하여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 이 운동이 완수되는 날까지 우리는 잠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다. 우리 앞에는 살아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손엔 진리의 말씀이 쥐어져 있기 때문이다. (장성만의 <에세이전집> 중에서)

장성만은 이후 일본주재 마크 맥시(Dr. Mark G. Maxey, Kyushu Christian Mission) 선교사의 주선으로 일본에 건너가 클라크(Clark) 선교사가 교장으로 재직했던 오사카성서신학교에서 공부하였다. 이때가 5.16 군사혁명 당시였다. 그는 일본에서의 학업을 마치고 약혼녀(朴東順 여사, 이화여대 영문과 및 신시내티 성서 대학원 졸업, 경남전문대학 교수 및 이사장, 동서대학교 총장 역임)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신시내티 성서 대학원에서도 공부하였다.



동서대학교 및 경남정보대학

1964년 늦은 여름 미국에서 귀국 후, 미국인 선교사 리처드 래쉬(Richard Rash) 부부와 함께 동래 온천장에 작은

2층 건물을 세 얻어 1965년 2월 1일 영남기독교실업학교로 2년제 대학과정을 출범시켰다. 래쉬는 장성만 목사가 귀국하기 전에 강원도에서의 사역을 정리하고 그가 미국에서의 학업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부산에서 함께 이 일을 하기로 이미 오래 전에 약속한바 있었다. 같은 해 11월 20일에는 부산시 변두리(당시는 동래군 사상면 주례리 냉정부락)에 땅을 임대하여 이층건물 '알과 흙'(후에 래쉬기념관으로 변경)을 건축하는 기공식

을 거행하였고, 1966년 4월 2일 이곳으로 이사하면서 동서기독교실업학교로 개명하였다.

이 일이 나날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에 조직된 이 학교 재단이사회의 후원 때문이었다. 장성만 목사는 1969년 8월 5일 미국에 들어가 20개 주를 6개월간 순방하면서 도움을 호소한 결과 1969년 12월 1일 재미 재단이사회를 구성하였고, 1970년 5월 28일에는 교육부로부터 학교법인 동서학원 설립인가를 받아냈으며, 같은 해 12월 16일에는 부산실업전문학교의 정식인가를 받아냈다. 이렇게 해서 부산실업전문학교가 1971년 3월 1일 정식 개교되었다. 이후 부산실업전문학교는 1977년 8월 26일 경남공업전문학교, 1979년 1월 1일 경남공업전문대학으로 개편되었고, 1991년 11월 15일에는 또 하나의 4년제 동서공과대학 설립인가를 획득하여 1992년 3월 3일 개교하였고, 현재의 종합대학인 동서대학교로 크게 발전하고 있다.

장성만은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으며, 모두를 훌륭한 인물로 키워냈다. 그는 또 글쓰기를 좋아하여 1950년대에 기독교 문인들을 중심으로 부산 기독교문인협회를 창설하였고, 1963년 7월에는 수필동인회를 발족시켰으며, 동인지로 <隨筆>을 발행하였다. 이 밖에도 그는 1960년대에 <基督教文藝>라는 계간지를 발행하였으며, 개인적으로도 월간 <아가페>지를 프린트 판으로 발행하다가 후에는 월간 <로고스>지에 기독교사상과 생활지라는 부제를 부쳐 발행하였다. 이런 이유들로 그는 10권의 책을 펴냈다.

그는 또한 정치에도 입문하여 제11대, 12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민정당 부산시 지부위원장(2회), 민정당 집행위원, 민정당 노동특위위원장, 국회예산결산위 제4분과위원장, 민정당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부의장(12대)를 역임하였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하는 장성만 목사

다. 2015년 12월 6일 향년 83세를 일기로 소천하였다.

(1)학력

부산 부민초등학교, 부산제일공업중학교(6년제, 현 부산공고), 일본 오사카성서신학교, 미국 신시내티 성서대학원, 미국 미드웨스트대학에서 신학박사(D.D.),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발전정책과정.

(2)경력(종교계)

대교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목사안수 받음), 부산 그리스도의 교회 시무(1953-1978년), 부산 기독교교회 협의회 부회장(1970년), 부산 기독교 문인협회 회장, 기독교 사회윤리 위원회 위원장, 부산 기독교 방송국 운영위원장, 목양회 창설 초대회장, 명예회장, 북구 교회 지도자협의회 회장, 명예회장,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교역자 회장, 성목회 명예회장.

(3)경력(교육계)

동서기독교실업학교 설립, 교장(1965-1970년), 부산실업전문학교 교장(1971-1977년), 경남공업전문대학 학장(1977-1982년), 부산 경남 전문대학장 협의회장, 동서공과대학 설립(1992년), 학교법인 동서학원(경남전문대학, 동서공과대학)이사장.

(4)경력(정계)

국회의원(11대, 12대), 민정당 부산시 지부위원장(2회), 민정당 집행위원, 민정당 노동특위위원장, 국회예산결산위 제4분과위원장, 민정당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부의장(12대).

(5)저서

장성만 에세이전집(1978년)(전5권): <생각 잃은 갈대>, <저 피안의 언덕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갈가는 나그네>, <피리를 불어도>, 공저, <씨 뿌리는 사람들>.

수상집: <세 번째 부름>(1983년), <議政活動과 政策課題>(1984년), <民意와 政策사이>(1988년), <도전과 시련 그리고 새로운 약속>(1991년).

잡지: 월간 <아가페>발행인, 월간 <로고스> 발행인, 계간 <地域社會> 칼럼집필, <聖書文學>(1979년).

(6)상훈

대통령 표창(교육공로/1978년), 부산시 문화상(지역사회 개발 부문/1977년).

(7)국제회의

APPU 제20차 총회 한국대표, 최고정책과정 세미나 참석(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 및 소련 극동문제 연구소), 대통령 특사로 노르웨이 방문(1991년), 國會議員 使節로 구라과(프랑스, 스웨덴, 영국, 독일) 의료보험제도 시찰, 미국 레이건 대통령을 위한 국가 조찬기도회 국회대표로 참석, MRA 세계대회 한국대표(스위스 코오 및 일본 오다와라), 크리스천 대회(일본 가고시마)에 특별강사로 참석, 기독교사절로 성지순례(요르단 및 이스라엘).

(8)기타

수필 동인회 동인, 부산 문협 수필분과 회원, 부산 수필가협회 이사, 사단법인 한국 지역사회연구소 이사장, 민정동우 회장, 정우회 회장.

2) 리처드와 멜바 래쉬(Richard and Melba Lash) 선교사



1957년 1월말에 딕과 멜바 래쉬(Richard and Melba Lash) 부부는 일본 오키나와로 가기로 했던 선교계획을 한국으로 바꿨다. 이 결정에 해롤드와 에이다 테일러(Harold and Ada Talor)의 영향이 컸던 것 같다. 이때 래쉬 부부는 링컨성서신학교(현 링컨기독교대학교)에서 추가 수업을 받고 있었다. 테일러 부부는 1955년

래쉬선교사

11월 13일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줄곧 래쉬 부부가 한국으로 오게 되기를 바랐다. <참고로 1950년대에 한국에 온 미국선교사들 가운데 링컨성서신학교 출신들이 꽤 많았다. 래쉬와 절친했던 조 세걸키 또한 링컨성서신학교 출신이었고,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 모교에서 일하였다. 따라서 한국

인 지도자들 중에도 최윤권, 최순국, 안재관 등 링컨성서신학교 출신들이 많았다.>



멜바(Melba Lash), 돈(Dawn), 도로시(Dorothy)

래쉬 선교사는 1957년 한국에 도착해서 약 1년간 서울에 머물면서 테일러 선교사의 주선으로 한국말을 공부했고, 테일러 선교사가 교장으로 재직했던 서울성서신학교에서 가르치다가 1958년 5월 10일 강릉으로 선교지를 옮겼다.

선교지를 서울에서 강릉으로 옮긴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었겠지만, 첫째는 테일러 선교사가 존 채이스 선교사 및 존 힐 선교사가 키워온 선교부 건물과 부지 및 신학교 건물과 부지를 1958년에 팔았기 때문이다. 신학교는 새 부지와 건물이 마련되기까지 운영이 중단되어 가르칠 수 없게 되었다. 래쉬의 사모 멜바는 1958년 4월 24일에 쓴 선교서신에서 테일러가 3월 31일자에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사람을 만난 것으로 언급하였고, 자신들도 4월 하순에 강릉에 거처를 계약했다고 적었다. 둘째는 한반도 남서쪽에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제법 많지만, 강릉에는 한 곳도 없었기 때문이다. 강릉에서 북쪽으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어촌에 가정교회가 한 곳 있었고, DMZ에 가까운 곳에 또 한 곳이 있었으며, 강릉에서 남쪽으로 75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또 한 곳이 있었지만, 건물이 팔리고 교인들이 흩어졌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적었다. 더 남쪽으로 내륙 산악지역 한 곳에 교회가 있었고, 또 다른 지역의 부잣집에서 6-7명이 모인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목사는 동해안 연안에 한 명밖에 없다고 적었다. 래쉬 가족은 동해안 최북단에서 부산까지 그리스도의 교회 상황이 이처럼 열악한 강릉지역을 선교지로 선택하였던 것이다. 당시에는 도로 사정과 교통편이 좋지

않아서 서울에서 강릉까지 자동차로 17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1960년 6월 16일 덕이 쓴 서신에 의하면, 래쉬 가족, 특히 멜바는 강릉에서 얻은 선교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5.16군사혁명으로 인한 사회불안, 과중한 업무, 각종 질병, 문화충격, 언어충격, 사단의 방해까지 겹쳐 좌절과 실망으로 우울증과 신경쇠약에 시달리곤 했으며 특별 기도를 부탁하였다. 다음 달 1960년 7월 20일자 서신에서 멜바는 이렇게 적었다.

친구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의 매일 드리는 신실한 기도후원이 없이는 여기서 우리의 일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좀처럼 누그러질 것 같지 않은 엄청난 압박에 날마다 직면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매일의 전투에서 기꺼이 기도으로써 우리와 함께 싸우시겠습니까? 우리는 임무를 띠고 이곳 “최전선”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배후에서 신실하게 “실탄”을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임무를 수행해나가겠습니까? 또 여러분의 편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언어를 쓰는 분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친교로 격려를 받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영광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모국어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찬양하지 못한 채 수개월씩 지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 같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이 보내신 서신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온기가 되는지를 상상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편지가 중요치 않을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래쉬는 1958년 8월부터 강릉시 옥천동에 장소를 마련하고 복음전도를 시작하였으며, 초등, 중등 및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다. 그 당시 대전에서 이름을 떨치던 김은석 목사가 강릉에서 집회를 열어 래쉬의 선교 일을 도왔다. 주문진 교회는 서울성서신학교에 다녔던 어느 여학생에 의해서 설립되어 자립의 길을 걷고 있었으며, 영동교회는 어느 석탄 광부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강릉교회는, 1959년 11월 25일자 서신에 의하면, 주일날 70-100명 정도가 모였고, 여름성경학교



때는 아이들이 평균 80여 명씩 모였다. 동년에 한국인 전임목회자가 부임하였다.

래쉬의 통역은 최종목이 맡아 수고를 했는데, 통역으로 사역하는 동안 평산교회를 개척하여 설교하다가 래쉬 가족이 부산으로 옮겨간 1964년부터는 전임 목회자로 사역하였다. 그리고 1967년경부터는 강릉교회를 담임하였다. 강릉교회는 1969년 말에 선교보조금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통보할 만큼 성장하였다. 1964년 2월 11일자 서신에 의하면, 평산교회는 250여명이 출석하였는데 대다수가 초신자들이었다.

래쉬는 1963년부터 한국인교회지원자클럽(Korean Church Helpers Club, KCHC)을 만들어 운영하였다. 이 클럽에 자신을 포함해서 세 명의 지도자를 두고, 선교헌금 100불을 종자돈으로 삼아 시작하였다. 이 돈이 매월 조금씩 불어나기를 바랐고, 미국의 후원자들뿐 아니라, 모든 한국교회들이 이 클럽에 동참해 주기를 바랐다. 매년 다섯 번째 주일을 KCHC의 날로 정하여 지키자고 하였다. 덕은 이 무렵 한국에서는 1천불이면 꽤 괜찮은 예배당을 지을 수 있었다고 적었다. 1967년 9월 25일자 서신에 의하면, KCHC에 모금된 돈이 탄광(영동)교회 건축에 쓰였다.

1963년 11월 20일자 서신에 의하면, 강릉에서의 사역의 제한성, 두 딸의 교육문제, 장성만 목사가 지속적으로 부산에서 함께 일하자는 권유 등으로 인해서 부산으로 선교지를 옮기기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196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부산에서 활동하였다. 래쉬는 장성만 목사가 귀국하기 전에 강원도에서의 사역을 정리하고 그가 미국에서의 학업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부산에서 함께 대학설립을 하기로 이미 오래 전에 약속한바 있었다. 장성만 목사는 미국 신시내티성서신학대학원(Cincinnati Bible Seminary)에서 학업과 교회순방을 마치고 1964년 늦은 여름에 귀국하였다. 그 공백 기간에 래쉬는 부산에서 대전 한국성서신학교로 출강하였다. 1964년 12월, 1966년 12월, 1971년 6월 졸업사진에서 덕 래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래쉬는 장성만 목사와 함께 1964년 가을에 동래 온천장에 작은 2층 건물을 세 얻어 1965년 2월 1일 영남기독교실업학교로 2년제 대학과정을 출범시켰다. 같은 해 11월 20일에는 부산시 변두리(당시는 동래군 사상면 주례리 냉정부락)에 땅을 임대하여 이층건물 ‘알과 흙’(후에 래쉬기념관으로 변경)을 건축하는 기공식을 거행하였고, 1966년 4월 2일 이곳으로 이사하면서 동서기독교실업학교로 개명하였다.

1965년 2월 2일(화요일, 설날) 자 래쉬의 서신에 의하면, 2월 1일에 기독교실업훈련학교(Christian Worker's Training Institute)가 개소되었다고 썼다. 1월 30일 토요일에 입학시험과 면접이 있었고, 20명 모집에 33명이 지원하였다. 31일 주일에 부산시내 교회에서 특별 감사예배가 드려졌고, 2월 1일 월요일에 개강예배가 있었다. 강의는 수요일 3일부터 시작되었다. 2일이 설날이었기 때문이다. 수업방식은 오전에 신학교 커리큘럼과 유사한 과목들을 가르쳤고, 오후에는 농장에서 실습을 하였다. 농장의 첫 프로젝트는 돼지사육이었다. 이 학교는 현재의 경남정보대학교와 동서대학교의 발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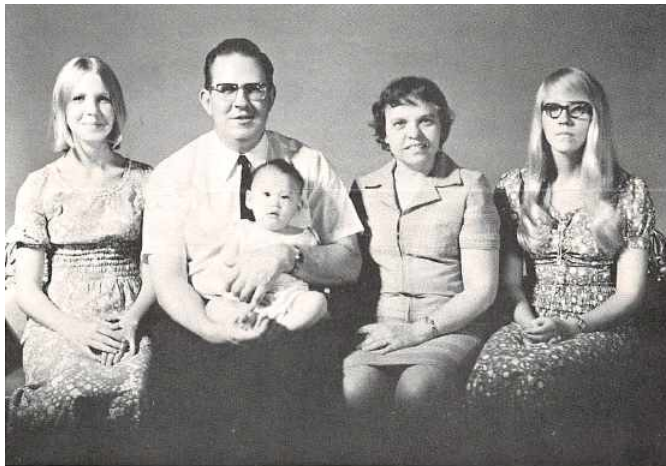
1965년 11월 래쉬 선교사 부부와 장성만 목사 부부(오른쪽)가 학교 건축을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 이것이 역사적인 교육사업의 첫 출발이었다.

래쉬는 1971년 5월 1일자 서신에서 15년간의 한국 사역을 끝내고 8월경에 한국을 완전히 떠나겠다고 선언하였다. 안식년을 가진 3년을 제외하면 4년씩 세 차례 총 12년간 사역하였다. 그 일을 래쉬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바쁘게 살았던 기간이었고, 기쁨과 역경이 함께한 나날들이었다. 그 기간에 우리는 가볍게 깎 수 없는 많은 관계들을 형성시켜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과 단절해야할 시간이 가까이 온 것이다. 그게 아니면, 나는 “스트레칭”이란 말을 대신 써야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나는 대양을 가로지르는 작별여행에서 살아남을 또 우리가 미국 어느 곳엔가 안전하게 자리를 잡은 후에도 여전히 때로는 우리를 잡아당길 꽤 많은 관계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정한 데에는 학교 인가(승인)가 생각보다 빨리 났고, 따라서 입학정원의 증가와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 수입으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해졌으며, 외국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제한적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라면 발전하는 학교에 남아 그 공을 함께 누릴 수 있겠지만,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자신보다 더 유능한 인물이 자기가 차지한 자리에 대신 설 수 있도록 자신이 빠져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목회 경험은 없지만, 목사관에서 보고 자랐으니 가능하지 않겠느냐, 혹은 지난 14년간 11,000통, 거의 매일 2매 정도의 편지를 쓰느라 타이핑을 했으니 작가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미국으로 돌아가



Left to right: Dawn, Dick (with Kevin on lap), Melba, and Dorothy.  
(taken 2 days before we left Pusan)

이후의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스스로 위로하였다. 래쉬 가족은 한국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기 얼마 전

‘케빈’이라고 이름을 지은 미숙아를 입양하였다.

한국을 떠나기로 작정한 1971년 8월 첫 주에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당시는 동래군 사상면 주례리) 교정에서 전국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 수련회가 개최되어 한꺼번에 작별인사를 할 수

있었고, 둘째 주부터 강릉지역을 방문하였다. 그곳에서 다섯 개 교회가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기쁨으로 둘러볼 수 있었다. 주문진교회는 출석교인이 거의 100명에 가까웠고, 탄광(영동)지역 교회는 새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으며, 래쉬가 방문하기 전날 5명의 새신자가 침례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아름다운 산중에 새로 세워지고 있는 교회도 방문하였다.

비행기 샅을 아끼기 위해서 래쉬는 두 딸과 함께 멜바와 케빈보다 먼저 8월 31일에 한국을 떠났다. 멜바와 아기 케빈은 며칠 뒤에 한국을 출발하였다. 래쉬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 미네소타성서대학에 시간제 선교학 교수로 채용되었고, 동시에 학교가 소재한 로체스터 프레전트 그로브(Pleasant Grove)에 소재한 60-70명 정도의 교인을 가진, 그러나 100여명이 출석하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설교자로 채용되었다. 교회소유의 큰 목사관이 있어서 주택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

## 2. 부산에서의 라디오 방송선교

### 1) 알렉스와 베티 빌즈(Verlen Alex & Betty Bills)

#### (1) 알렉스 빌즈의 생애와 방송선교에의 비전

1950년대 이후 부산에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관련하여 두 개의 원대한 꿈이 펼쳐지고 있었다. 하나는 한국인 장성만 목사가 펼친 교육 100년 대계(大計)의 성공한 꿈이었다. 그의 꿈은 오늘날 동서대학교, 경남정보대학, 동서사이버대학교로 실현되었다. 또 하나는 벌렌 알렉스 빌즈가 펼친 실패한 기독교라디오극동방송국의 꿈이었다. 자금 부족으로 알렉스의 꿈이 비록 실패로 끝나긴 하였으나 그의 꿈은 아름답고 옳았으며 원대한 것이었다. 그가 실패한 기독교극동방송국의 꿈은 그도 그리스도

의 교회도 아닌, 1954년 5월 1일 재단법인 한국복음주의 방송 협회 창립(초대 이사장 황성수)으로 시작된 오늘의 '극동방송'(FEBC)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다. 오늘의 FEBC는 알렉스의 꿈이 옳았고, 반드시 성공했어야 할 위대한 과업이었다는 점을 잘 웅변한다.



좌측부터 Becca, Betty, Brian, Kathleen, Verlen Alex Bills, Guy Don

알렉스 빌즈(Verlen Alex Bills)는 1921년 4월 12일에 태어나 2002년 5월 14일에 소천 하였고, 베티 페이 빌즈(Betty Fay Bills)는 1927년 8월 10일 태어나 2012년 3월 2일(금)에 소천 하였다. 두 사람은 교회 캠프에서 만나 결혼

하였다. 알렉스는 그곳 캠프에서 매일 저녁 말씀을 설교한 전도자였고, 베티는 예배 때 반주를 한 피아니스트였다. 그들은 1947년에 결혼하여 55년간 함께 살았다.

알렉스와 베티는 '크리스찬 라디오 미션'(Christian Radio Mission, CRM)을 세워 일본에서 5년, 한국에서 5년간 방송전파선교사로서 선교방송프로그램의 기획과 제작뿐 아니라, 후속사업(follow-up work)으로 성경통신강좌, 교회개척, 지도자육성 등의 선교사역에 전념하였다. 반면에 베티는 음악 사역자로서 라디오선교방송 프로그램을 위해서 노래한 합창단과 앙상블을 지도하였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베티는 마을이 태풍으로 위태롭게 되자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구출하였다. 이에 정부는 그녀의 용감한 행동을 칭송하며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빌즈 가족은 1961년에 CRM사역을 완전히 접고 고향 미국 텍사스로 돌아갔고, 후일 텍사스 주 휴스턴 소재 트리니티 교회(Trinity Church)에서 사역하였다. 이때 트리니티 성서신학교/

사우스텍사스 성서신학교를 세워 교수로도 활동하였다. 그는 후일 오순절 은사운동의 역사가와 자료수집가로 변신하였고, 그가 소장했던 4천권의 서적은 풀러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 데이비드 알렌 허버드 도서관 특별서고(David Allan Hubbard Library's Special Collections)에 기증되었다.



벤티는 선교사, 목사, 교수였던 알렉스의 아내요, 목회파트너로서 미국으로 돌아간 후 아마릴로(Amarillo)고등학교에 조지 거슈윈회(George Gershwin Society)를 창립하여 회장을 역임하였다. 벤티는 40년간 피아노교습을 하였으며, 전국 피아노 교사 협회(National Guild of Piano Teachers)와 다른 전국 음악조직들에서도 오랜 기간 회원

으로 활동하였다.

벤티는 오클라호마 대학교에서 음악과 피아노를 전공하여 학사학위를, 오클라호마시티 대학교에서 '제2언어로써의 영어교육'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벤티는 또 제2언어로써의 영어교육제공사의 교사로서 근무하며 많은 외국인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그녀는 다년간 텍사스 주 휴스턴에 소재한 한 사립기독교학교에서 교장을 역임하였다. 이뿐 아니라, 벤티는 라이프송 합창단(LifeSong Choir)에서도 20여 년간 봉사하였다. 현재 그의 자녀들 가운데 세 사람(Becca Bills Upham, Guy Don Bills, Kathleen Harder)이 라이프송 합창단에서 활동하며, 2006년 선교연구여행 때에는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집회를 가졌고 방송도 되었다.

알렉스와 벤티는 슬하에 다섯 자녀를 두었다. 그중 캐스린(Kathleen Harder), 베카(Becca Bills Upham), 벨렌 알렉스 빌즈 2세(Verlen Alex Bills II)는 일본 오사카에서 나서 일본과 한국에서 자랐고, 가이 돈(Guy Don Bills), 브라이언(Brian L. Bills)은 한국에서 나서 자랐다. 캐스린과 베카는 미주리 주 조

플린에 소재한 그리스도의 교회 소속 오자크 기독교대학(Ozark Christian College)을 졸업하였다.

## (2) '크리스찬 라디오 미션'(Christian Radio Mission)

일본의 베테랑 선교사인 마크 맥시(Mark Maxey)의 “일본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 백년”(Christians in Japan 100 Years, 1883-1983)에 의하면, 알렉스와 베티 빌즈 부부는 1951년에 일본 오사카(Osaka)에 선교사로 부임하였다. 빌즈 가족이 일본에 건너간 것은 라디오전파선교를 위한 것이었다.

알렉스 빌즈의 비전은 기독교복음을 전할 라디오방송국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그가 처음에 선교방송국을 세우려고 계획했던 곳은 중국 서부지역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공산국이어서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일본을 택하였다. 일본이 상업방송국을 허가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에서 일본으로 갔지만, 일본정부도 허가할 생각이 없었다. 알렉스는 그 대안으로 상업방송국들의 시간을 사서 자신이 직접 제작한 라디오선교프로그램을 방송하였다.

일본 그리스도의 교회 라디오선교방송은 이미 1947년에 시작되었다. 오사카성서신학교의 해롤드 콜(Harold Cole)이 안식년을 맞아 미국에 갔을 때 기금을 모아 오사카에서 가장 큰 방송국의 시간을 사서 첫 방송 프로그램을 송출한바가 있었다. 알렉스가 1951년 일본 오사카에 온 이후로는 '크리스찬 라디오 미션'(Christian Radio Mission, CRM)이 선교방송을 총괄하고 주도하였다. 이후 호카이도에 있는 미군 군목들이 기금을 모아 그곳에서 일본어 프로그램을 방송하였는데, 이것을 주도한 인물은 로버트 스코트(Robert Scott)였다. 그 사이에 마닐라의 DZAS 단파방송국들이 CRM에 프로그램의 제작을 요청하여왔다. 그들은 그것을 일본(인)을 향해서 송출하는 방송국들에 넘겼다. 또 다른 진전은 인디애나 주 가레트(Garrett)의 월터 코블(Walter Coble) 형제자매가 영어프로그램의 제작을 CRM에

의뢰하였다. 그들은 그것을 유럽 라디오 룩셈부르크에서 방송하였다. 이것과 관련해서 CRM은 후속(follow-up) 서신을 관리하고 성경통신과정을 청취자들에게 제공하였다. 오사카성서신학교의 마틴 클라크(Martin Clark)가 독창(solo)과 프로그램의 아나운서로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였다. 1952년 가을에 엑시 폴츠(Exie Fultz)가 일본에 주재한 알렉스 빌즈를 돕기 위해 합류하였고, 특별히 전파선교방송의 후속사역과 성경통신과정의 사역을 맡았다.

‘크리스찬 라디오 밋손’(CRM)의 최종 목표는 방송국을 설립하여 자신의 방송을 송출하는데 있었다. 그렇게 되면, 상업방송국의 시간을 비싼 가격에 사서 일주일에 몇 번 짧은 시간 전파를 쏘는 대신에 매일 몇 시간씩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최적지에 기독교라디오방송국을 세우도록 허가를 내주는 국가를 찾는 것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한국정부였다. 1954말에 한국정부는 부산에 기독교라디오방송국을 세워 운영해도 좋다는 허가서를 내주었다.



알렉스는 일본에서 월간소식 <파장>(Wave Lengths)을 발행하였다. 또 베티와 함께 오사카성서신학교에서 가르쳤다. 알렉스는 기독교라디오방송 관련 과목들(기독교라

디오, 시청각매스컴)을 가르쳤고, 베티는 음악을 가르쳤다. 두 사람의 강의는 모두 미래의 방송요원을 육성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밖에도 중고등학교 등에서 영어성경을 가르쳤다.



CRM이 기독교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작하여 FM상업방송국의 시간을 사서 방송하기 위해서는 스튜디오가 필요하였다. 알렉스와 엑시 폴츠는 오사카에 스튜디오를 마련해보려고 애를 썼다. 1954년 말에는 오사카성서신학교가 캠퍼스에 부지를 제공하고, CRM이 스튜디오와 사무실로 쓸 건물을 짓기로 합의를 보았다.

한편 알렉스는 일본에서 전파선교를 시작한지 만 일 년 만인 1952년 1월에 이미 한국과 오키나와가 방송국 설립의 최적지라는 확신을 갖기 시작하였고, 한국과 일본 오키나와에 라디오 선교방송국을 세우려는 의지를 불태웠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이것이 삶이다”(This Is Life)라는 방송선교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주일 아침 6:30-7:00시에 NJB\_JOOR을 통해서 전파선교를 시작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독창, 뚜엣, 여성합창, 라디오 성경드라마, 설교 등으로 꾸며졌으며, 이후 홋카이도를 비롯한 일본 전역과 필리핀 마닐라에서 일본어로 방송되었다. 유럽에서는 “성경 그리스도인 프로그램”(The Bible Christian Program)이 매주 월요일 밤에 영어로 유럽의 17개국에 방송되었으며, 2백만 명이 청취하였다.

알렉스 빌즈는 1953년 9월에도 선교사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호의를 강하게 신뢰하며 인천에 라디오기독교방송국 설립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1954년 4월에는 극동방송이 자신들에게 정기적인 한국어 방송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1954년 11월 월간 소식지에서 알렉스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계획을 피력하였다.

#### 한국(KOREA)

한국은, 작금의 세계에서 기독교선교에 가장 큰 기회의 나라로써, 우리가 행동해 주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들은 준비를 마쳤고, 빌의 가족은 부산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도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건물매입도 가능합니다. 동양선교회는 전시(戰時)에 본부로 사용했던 건물을 우리에게 4천불에 매도하고자 합니다. 기회가 그곳에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리가 라디오선교방

송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또 정부는 즉시 국영방송국들의 시간을 우리에게 할애해 줄 것이며, 우리가 한국인 방송직원들을 훈련하고 다른 필요한 기초 작업을 펼치는데 동안 준비될 기독교복음프로그램들을 송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주택 매입에 필요한 돈의 절반 이상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사역에 교우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신다면, 이 일은 착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부금은 동시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일을 시작하게 할 수 있는 주택을 매입하려는 이 기회는 두 번 다시 없을 것입니다.

일본에서 우리가 하던 일은 역시 폴츠와 우리의 훌륭한 일본인 직원들이 지속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유럽에서의 영어방송도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것도 내려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사역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서 크게 확장시켜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신이 소유한 라디오선교방송국을 세운다는 궁극적인 목표에 한발 더 다가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방송국 허가서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부산은 우리가 전파사역을 펼쳐나갈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한국 정부는 기독교사역에 대해서 아마 세계에서 가장 호의적일 것입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전파를 송출하기에 최적인 바다에 인접한 곳들, 무관심지역인 일본의 서부연안에 일본어 방송을, 광둥, 상해, 대만에 이르는 중국의 연안 도시들에 중국어 방송을 송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어 프로그램들은 남쪽 대한민국을 커버할 뿐 아니라, 심지어 북한의 죽의 장막까지 침투해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고, 절실하며, 호응도가 높은 심장부에 세 나라의 언어로 방송할 기독교라디오방송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알렉스는 1955년 3월 소식지에서 1954년 말에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정부로부터 부산에 기독교선교라디오방송국 설립허가서를 받고 일본으로 돌아왔다고 전하였다. 특히 1956년 4월 서신에서는 허가서에 대해서 언급하며 이렇게 적었다. “그 문서는 한국 정부가 부산에 라디오선교방송국을 세우고 운영하는 것을 승인한 허가서였다.”(That paper was a written approval from the government of Korea to erect and operate a missionary radio broadcasting station in Pusan, Korea.)

이것은 과거 10년간 이 목적으로 노력하고 기도한 결과라고 피력하였다. 부산 라디오기독교방송국의 설립은 대한민국만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의 장막인 북한, 중국, 러시아를 커버할 수 있는 최고의 선교도구라고 확신하였다. 알렉스는 부산에 선교방송국을 설립해도 좋다는 허가서를 받자마자 안식년으로 미국으로 돌아가 한국에서 함께 사역할 선교사들의 모집과 기금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였다.

알렉스는 1956년 3월 소식지에서 자신의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첫 단계로써 1956년 6월(실제로는 12월 13일에 서울에 도착하였다.)에 부산으로 이사하여 땅을 사고, 이미 매입이 끝난 부산의 주택을 수리하며, 작은 방송기지과 선교사들의 주택들을 짓기 시작하여 가을이나 겨울쯤에 건축을 끝내면 방송장비들을 구입하여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한국어 프로그램을 부산지역에 방송한다는 것이었다. 여기까지에 필요한 기금이 5만2천불이고, 이후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방송을 제작하여 한국 전역, 중국, 일본에 전파를 송출하는데 4만8천 불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였다. 알렉스가 10만 불을 목표로 모금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알렉스의 또 다른 서신에 의하면, 10,000와트(watt)를 송출할 수 있는 방송국을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이 10만 불 정도라고 보았다. 당시보다 10년 혹은 20년 후까지 버트 엘리스와 조 세걸키 가족의 급여가 4-5백 불이었고, 싱글이었던 버지니아 힐의 급여가 150불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액수였다. 오늘날의 원화가치로 보면 10-12억 원에 해당되는 액수였다. 1950년대에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개 교회와 개인들을 상대로 이 정도의 큰돈을 모금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 큰돈은 이미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역에 필요한 비용과는 별도로 추가로 필요한 돈이어서 더더욱 모금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알렉스는 1와트당 10불이 필요하며, 그 돈이면 200명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계산에 따라 5천불이면 500와트를 살 수 있고, 10만 명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고 선전하였다.

또 알렉스는 1956년 3월 소식지에서 한국선교의 중요성을 제차 피력하였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선교지들 가운데 한 곳이며.... 지금은 모든 선교지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곳이다.”고 하였다. 그는 또 “한국은 선교역사가 8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극동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다. 일본이 인구의 0.5퍼센트, 인도가 1퍼센트인 것에 비해 한국은 7퍼센트에 이른다”고 하였다. 그는 또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한국에서 종교는 애국심과 무관하지만, 일본에서는 다수가 종교인을 애국심이 약한 자로 간주한다.

둘째, 교단의 선교회들이 정책적으로 한국에는 보수주의 선교사들을 보낸 반면, 일본과 중국에는 진보주의 선교사들을 파송하였다.

셋째, 한국에는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이 많았다. 이들이 끼친 영향이 크다.

넷째, 오늘날 한국에 부흥운동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바치는 충성심 가득한 우리의 메시지를 들어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기를 배워야 한다. 이 사역은 그들이 분열을 일으키는 근대 교파주의 교단들에 인도되기 전에 이뤄져야 한다.”

1956년 5월 소식지에 의하면, 알렉스는 켄터키 주 루이빌에서 개최된 북미주그리스도인대회(North American Christian Convention)에 참석하였고, 5월 9일(수) 저녁에 일백여 명 정도가 모인 한 세션에서 자신의 방송선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알렉스의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난 직후에 인디애나 주 윌리엄스포트(Williamsport)에 소재한 그리스도의 교회의 더글러스 딕키(Douglas Dickey)란 목회자가 일어나 제안하기를, 각각의 교회에서 50명 단위의 후원클럽을 만들어 각 사람이 향후 20개월 동안 매 주 25센트씩 기부하게 하자고 하였다. 계산상으로는 매 클럽 당 1,083불의 모금이 가능한 제안이었다. 이 ‘50클럽’(50 Clubs) 제안에 알렉스는 한껏 고무

되었다. 이런 클럽이 100개만 매월 운영된다면, 자신의 구상은 성공할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이 모임을 마치자마자 알렉스는 이 모임에서 25명의 설교자들과 지도자들이 6만5천 불의 기부를 CRM에 약속하였다고 소식지와 서신을 통해서 선전하였고, 이후 각 교회가 이런 형식의 후원클럽을 운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다. '50클럽'을 통해서 후원금이 당도하긴 했어도 그 액수는 미미하였다.

### (3) CRM 법인설립



1956년 9월 24일 알렉스 빌즈가 법인정관에 서명하는 모습  
 뒷줄좌측부터 Bert Ellis, Douglas Dickey, Robert Lillie, James Furniss  
 앞줄좌측부터 Marjory Ellis, V, Alex Bills, Exie Jane Fultz

알렉스 빌즈 가족은 1954년 말에 한국정부로부터 부산에 라디오 선교방송국을 세우고 운영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허가서를 받고 미국으로 건너갔고, 1956년 12월 소식지에 의하면, 무려 22개월간의 미국 체류를 끝내고 1956년

11월 16일에 한국을 향해서 샌프란시스코 항에서 배를 탔다고 적었다. 미국 체류기간이 길어진 것은 함께 일할 선교사 모집과 기금모금이 원활하지 못한 탓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 기간에 법인의 설립과 9명의 새로운 사역자들을 모집하는데 성공하였다. 여기에는 네 가족과 한명의 독신 여성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CRM의 가족은 12명의 성인과 12명의 자녀들로 구성되게 되었다. 알렉스 빌즈 가족은, 1956년 12월 서신에 따르면, 11월 20일에 일본 도쿄에 도착하였다. 1957년 1월 소식지에 의하면, 1956년 12월 13일에 서울에 도착하였다. 한국 상륙이 늦어진 이유는 미국 내 위원회와 새로 모집된 사역자들과의 좌담

이 있었고, 출발 전까지도 기금의 모금이 원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 라디오 사역 관계로 하와이 호놀룰루에 내려 며칠간 머물러야 했으며, 일본에 거주하는 선교사들과 사역자들과의 좌담 때문에도 두 주간 머물러야 했다.

1956년 9월 24일 일리노이 주 댄빌(Danville)에 소재한 제2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CRM Incorporated'의 법인설립정관에 서명하는 모임이 있었고, 일리노이 주 국무장관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인 법인이사가 출범되었다. 이 서명식에 별렌 알렉스 빌즈(V. Alex Bills), 엑시 폴츠(Exie Jane Fultz), 더글러스 디키(Douglas Dickey), 로버트 릴리(Robert Lillie), 제임스 퍼니스(James Furniss), 버트와 마조리 엘리스(Bert & Marjory Ellis)가 참석하였다.

#### (4) 한국 CRM의 성과

한국에서의 사역은 생각보다 진척이 매우 더뎠다. 1957년 1월 16일 서신에서 알렉스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다시 생각해 보니, 토지매입이 다음 단계는 아닙니다. 다음의 일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토지매입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한 건에만 14,000불의 비용이 듭니다. 우리가 기금을 확보하기까지는 사실 아무 것도 더 이상 진척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교우들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건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긴다면, 정확히 필요한 만큼의 돈이 정확히 필요한 시간에 수중에 들어올 것입니다.

'50클럽'을 통한 모금도 물론 토지매입에 필요한 시간 내에 충분히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능한 빠르게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리스찬 라디오 밋손' 교우들에게 우리와 함께 앞으로 한 거름 내딛기를 요청합니다.

1957년 4월 소식지에서 알렉스 빌즈는 한국에서의 사역을 다소 서두른 경향이 있지 않았는가를 의심하였다.

기초부분은 건물의 다른 부분에 비해서 눈에 거의 띄지 않습니다. 건축자는 종종 기초가 구조물의 다른 부분을 잘 떠받쳐줬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위기가 크게 닥치면, 기초는 무시당하거나 지나치게 서둘러집니다. 기초는 친구들에게 보여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이곳 한국에서 우리가 직면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공적인 라디오사역을 위해서 수년간 기초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면한 현실만을 볼 때는 거의 이론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1958년 1월 9일 부산시 광안동 부지에서 기공식을 가졌다. 좌측부터 김홍균, 알렉스 일즈, 장성만, 그밖의 부산의 지도자들

1957년 7-9월호 소식지에 의하면, 한국에 도착한지 7개월 만에 토지매매계약서에 서명하였고, 1958년 2월 소식지에 의하면, 1958년 1월 9일에서야 부산시 광안동 부지에서 기공식을 가졌다. 여기까

지 오는데 만 13개월이나 걸렸다. 알렉스는 부지선정의 신중과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실은 기금이 부족해서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었다. 계획(작전)도 좋았고, 조직과 노하우(실전경험)도 있었지만, 돈(실탄)이 부족하였다. 오사카에서 해오던 사업의 유지에다 큰 자금을 요하는 부산에서의 새로운 사업을 위한 모금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무렵 미국도 경제사정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 제1세계대전, 1930년대 경제대공황, 태평양전쟁과 제2세계대전, 한국동란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였다.

알렉스가 부산에서 진행시킨 건축도 대부분 시멘트블록을 찍어 말린 후 집을 짓는 수작업이었다. 1958년 9-10월경에 비로서 기초 작업을 시작하여 12월 소식지에서야 비로소 기초를 완성하고 블록을 쌓기 시작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12월 26일은 마룻대(ridgepole)를 올리는 상량식을 가졌다. 알렉스가 부

산에 온지 만 2년이 되는 때였다. 이 상량식에 목수들과 김홍균(CRM 매니저), 장성만(CRM 설교담당, 대교교회 목사)과 김히영(CRM 번역과 음악보조)도 참석하였다. 통역 김히영은 CRM에서 PD로 사역하다가 1963년부터 대전에 올라와 김찬영을 대신해서 힐 요한 선교사의 사역을 도왔다.



1958년 12월 26일 상량식 모습  
우측에서 2번째 장성만 CRM 설교 및 대교교회 목사,  
4번째 김히영 CRM 번역 및 음악보조

그러나 이 상량식에 알렉스가 한국에 불러들인 다른 선교사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리고 CRM 소식지도 1959년 2월(47번)호를 끝으로, 그것이 마지막 소식지는 아니었겠지만,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결과론적으로 알렉스 빌즈가 추진한 부산에서의 사역은 계획대로 진척되지 못했고, 이에 실망한 선교사들과 미국의 지원자들이 CRM을 탈퇴함으로써 실패로 끝난 허황된 꿈이 되고 말았다.

## 2) 알렉스 빌즈의 동료들

### (1) 엑시 제인 풀츠(Exie Jane Fultz)

엑시는 부친 밀턴 월터스(Milton Walters)와 모친 내니 밴스



엑시 풀츠(Exie Fultz)

(Nannie Vance) 사이에서 1918년 2월 14일 미국 일리노이주 마셜(Marshall)에서 출생하여 11살 때 그리스도의 교회



에서 침례를 받았고, 마셜 타운쉽 고등학교를 1935년에 졸업하였다. 25세 때 결혼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때 남편과 사별하였다. 엑시는 스마트 어피어런스 뷰티(Smart Appearance Beauty) 대학을 1945년에, 신시내티성서신학교를 1949년에 졸업하고, 버틀러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재학하던 중에 방송선교사의 소명을 받았다. 1951년에 선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여 1952년 11월 6일에 알렉스 빌즈(Veren Alex Bills)가 창립한 크리스찬 라디오 미션(Christian Radio Mission, CRM)에서 사역하기 위해서 일본 오사카에 상륙하였다. 오사카에서 편지업무와 일본어 성경통신강좌와 유럽인을 위한 영어 성경통신강좌를 담당하였으며, 1953년 4월에 고베로 옮겨가 CRM의 전파선교방송 고베 통신원들과 함께 후속사역(follow-up work)을 담당하였다. 일본인들의 반응은 대체로 냉담하였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는 이들이 고베에서도 생겨났고, 고베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다. 알렉스 빌즈는 방송국 설립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국으로 옮겨가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엑시가 서서히 그의 업무를 이어받아 일본 전파선교방송을 책임지기 시작하였다.

엑시 폴츠에 의한 CRM 소식지는 1959년 2월(47번)호까지만 남아있다. 이후 엑시 폴츠는 자신이 1958년부터 계획한 ‘니폰 크리스천 방송 협회’(Nippon Christian Broadcasting Association)를 1959년 6월 8일에 설립하여 독자적인 길을 걸었다. 1960년 1월부터는 방송진행표를 뜻하는 <큐시트>(The Cue Sheet)란 소식지를 2개월마다 한 번씩 발행하였다. 엑시 폴츠는 일본 CRM의 사역을 사실상 책임졌던 인물로서 알렉스 빌즈가 일본에서 펼쳤던 모든 사역을 그대로 이어갔다.

알렉스 빌즈의 충실한 사역자였던 엑시 폴츠(우측 끝 사진이 1959년 때의 모습)는 고베 근처 아와지 섬(Awaji Island)에 토지를 매입하고 그곳으로 옮겨 은퇴할 때까지 사역을 이어갔다.

## (2) 플로라 메이 구른지(Flora Maye Guernsey)

플로라 메이 구른지(Flora Maye Guernsey)는 1934년 3월 10일 미국 인디애나 주 헤브론(Hebron)에서 출생하였으며, 한국에 나올 당시 갈색 머리에 푸른 눈을 가진 23세의 독신 여성이었다. 1952년에 헤브론 고등학교를, 1957년에 링컨성서신학교를 졸업하였으며, 링컨신학교에서는 기독교교육을 전공하였다. 그녀는 업무비서, 음악보조, 성서강의를 위해서 1957년 10월에 한국에 입국하였다. 그러나 알렉스



플로라 메이 구른지(Flora Maye Guernsey)

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자 플로라 메이 구른지는 심사숙고 끝에 1959년 2월 25일 배로 부산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갔다. 부산을 떠나기 직전에는 조 세겔키와 버트 엘리스의 새로 막 시작한 방송선교를 도왔다. 조와 맥신 세겔키에 의하면, 그녀는 1958년 10월에 한국에 머문 선교사들과 미국에 대기 중인 가족들이 모두 탈퇴함으로써 장래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다행히 그녀는 일리노이 주 졸리엣(Joliet)에 소재한 선교단체(Mission Services)에 직원으로 초빙되어 1959년 2월 25일에 한국을 떠났다.

### (3) 조와 맥신 세겔키(Joshep & Maxine Seggelki)

조 세겔키(Joshep Seggelki)는 태평양 전쟁 때 항공모함에 승선하여 전기기사로 복무하였다.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맥신 앰버그(Maxine Amberg)와 결혼하여 1946년부터 일리노이 주 링컨에 거주하면서 링컨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집사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다가 링컨성서신학교에 입학하여 1957년에 졸업하였다. 이때가 32살이었다. 조는 1956년 9월 9일에 안수를 받

왔고, CRM의 업무추진담당자(Traffic Manager)로 1958년 1월 31일에 한국에 입국하였다.



조 세걸키 가족  
좌측부터 에디(Eddie), 보니 조(Bonnie Jo), 조와 맥심, 토미(Tommy), 마크(Mark)

1957년 12월 26일 오후 3시 30분에 미국 일리노이 주 링컨을 출발하여 1958년 1월 7일 오후 6시 30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탔고 1월 26일에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하였다. 일본의 첫인상은 깨끗하고 매력적인 나라였다. 1월 28일 짐을 찾아 고베로 가는 배를 탔다. 고베에는 엑시 폴츠(Exie Fultz), 마틴 클라크(Martin Clark), 이사벨 디트모어(Isabell Dittmore) 등이 마중을 나와 있었다. 다음 날 아침에 오사카성서신학교를 방문한 후 오후 1시 배를 탔고 다음 날 아침 8시에 일본 시모노세키 인근의 모지(Moji)에 도착하였다. 다시 출발하여 부산 만에 31일 아침 8시에 도달하였다. 멀리 보이는 부산의 모습은 컬러풀한 일본과는 확연히 다른 음울한 모습이었지만, 한국의 이민국 직원들은 일본인들보다 훨씬 친절하였다. 부산항에는 플로라 메이 구른지(Flora Maye Guemsey) 양과 알렉스 빌즈(Alex and Betty Bills) 가족이 마중 나와 있었다. 출입국관리소를 빠져나오니 '크리스찬 라디오 미션'(Christian Radio Mission)의 중창단이 환영하였다. 그들에 대한 첫인상은 매우 좋았고 친절하였다.

부산에서 처음 출석한 교회는 장성만 목사가 시무하는 대교 그리스도의 교회였다. 조와 맥신 세걸키는 미국에 보낸 두 번째 서신(1958년 5월)에서 대교교회의 색다른 예배풍경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버트 엘리스 가족이 5월 3일에 도착하였다는 것과 아울러 굳맨 가족, 클레멘스 가족, 클레어 포웰이 한국에 도착할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피력하였다. 다른 한편 엘리스 가족이 오던 날 집에서 준비한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항구에 마중을 나가기 전에 한 달 치 급료와 각종 청구서를 해결할 300불을 은행에서 찾아 빌즈의 요리사에게 맡겼는데, 엘리스 가족을 데리고 빌즈의 집에 돌아와 보니 식사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돈도 요리사도 사라지고 없었다는 황당한 경험을 소개하였다. 또 다른 한편 장성만 목사의 대교교회가 4월에 14명에게 침례를 베풀었는데, 조 세겔키가 7명, 장성만 목사가 7명씩 침례를 베풀었다는 기쁜 소식이었다.

조와 맥신 세겔키는 1959년 1월경의 쓴 세 번째 서신에서, 자신들이 선교와 선교지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갖고 부산에 온지 일 년이 조금 지났지만 실망이 컸던 것과 CRM에서 탈퇴하게 된 사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계획은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만큼 결코 이뤄지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우에서도 동일하게 사실이었습니다. CRM에 대한 실망감은 정말 커져갔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과 서신을 주고받았습니다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 즉 우리가 CRM에서 사임했다는 소식을 처음 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지난 1958년 10월 25일, 국내 위원회의 여섯 분..., 국내 사역자들 (Ray Goodman family, Bob Clemens family, Lewis Myers family, and Clair Powell), 그리고 선교지의 선교사들은 (Bert Ellis family, Flora Maye Guernsey, and the Seggelke family) 별렌 알렉스 빌즈에 대한 신뢰의 부족과 CRM의 사역방법이 우리와 국내에 계신 분들에게 잘못 전달되었기 때문에 사임하였습니다.”

또 다른 전단에서 조 세겔키는 말하기를, 그들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프로젝트는 예상되었던 것대로 되지 않았고, 실망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적었다.

이런 상황에서 세겔키 가족과 엘리스 가족은 자신들이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으려고 힘썼고, 한국에 오려고 준비

중인 미국의 예비 선교사들의 앞날도 불투명해졌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플로라 매이 구른지는 1959년 2월 25일에 본국으로 돌아갔다. 1959년 초부터 버트 엘리스 부부와 조 세겔키 부부는 합심하여 '한국방송선교'(Korean Broadcasting Mission)를 설립하고 부산문화방송(HLKU)에서 시간을 임대하여 4월 16일부터 매일 하루 두 번, 일주일에 세 시간씩 방송을 시작하였다. 소요비용은 급여를 포함해서 하루에 23불씩이었다. 부산문화방송 사장과의 친해져서 조와 버트는 부산문화방송국 자문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하였다. 1958년 12월에는 테일러 부부, 래쉬 부부, 여러 한국인 사역자들의 추천을 받아 방송설교자로 이신 목사를 채용하였다. 선교방송과 함께 걸려오는 전화상담, 가정에서의 성경공부, 전도용 문서발송을 통해서 후속선교를 이어갔다.

KILOCYCLES  
 한국 방송 선교 회  
 Korean Broadcasting Mission  
 Pusan, Korea  
 THE BERT ELLIS FAMILY THE JOE SEGELKE FAMILY  
 Volume 1, Number 2 Pusan, Korea July, 1959



Rhee Shin (left) delivering a sermon copy to one of our regular listeners, a promising young farmer. He insisted on our taking some cucumbers and squash.



Rhee Shin and Ko Jae Chun with staff announcer during one of the Wednesday night question and answer program.

**EVENING PROGRAM**

**I**N negotiations with HLKU for the second quarter of air time we have been able to secure a much better spot for the evening program. This means that both of our daily programs are now reaching a large percentage of the radio listeners in the HLKU service area. For some time we have been concerned over the fact that the evening program was very late for some people; but on the new schedule beginning August 15th, it will be at 10:40 p.m. for the remainder of the summer season. When the time changes for winter it will be on at 9:40 p.m.

We are also well pleased with the present spot for the morning program which is at 6:10 a.m. According to a recent survey made in Seoul these two programs will be heard during the peak listening hours for most of the year. Since going on the air on April 16th, the Gospel has been aired twice daily over HLKU. This means that by the time you read this we will have produced and broadcast more than 250 programs. This would not be possible without your support both through prayers and money.

'한국방송선교'(KBM)는 1959년부터 계간으로 <킬로사이클>(Kilocycles)이란 이름의 소식지를 발행하였다. 비용은 세겔키 가족과 엘리스 가족이 공동으로 부담하였다. 알렉스 빌즈를 도왔던 더글러스 딕키(Doug Dickey, Williamsport, IN) 목사가 회계를 맡아주었다. 이들은 주일 저녁에 별도의 예배모임을 시도하였고, 설교 때 통역을 사용하였다. 매주 평균 35명 정도 참석하였다고 한다. 조와 버트는 방송선교와는 별도로 각각 별도의 성경공부반도 운영

하였고, 1959년 9월에는 교회를 개척하였다. 출석인원은

50-70명 정도였다고 한다. 버트와 조의 가족 역시도 자금 부족으로 애를 먹었다. 특히 버트 가족의 경제난이 심하였다. 날이 갈수록 빚이 늘었기 때문에 1959년 9월부터는 방송을 하루 한번으로 줄였다. 조의 경우 1960년 서신에 의하면, 매월 200불 정도의 후원금이 채워지지 않고 있었다.



이신 목사 - 라디오방송을 청취하는 한 젊은 농부에게 설교 복사본을 건네고 있다. 이에 농부는 오이와 호박으로 보답하였다.

가 서울에 올라가 목회하기 위해서 사임하였다고 적었다. 이신은 이때 부산문화방송을 통해서 매일 밤 10시에 행한 설교들을 모아 기독교문사에서 1980년에 <산다는 것, 믿는다는 것>을 펴냈다. 이때 이신 목사는 방송뿐 아니라, 두 개의 신문에도 기사를 실었다.



이신과 고재천 목사가 부산문화방송 아나운서와 함께 수요일 밤 질의응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습

조와 맥신 세겔키 가족은 1961년 7월에 안식년을 맞아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1962년 7월에 한국으로 돌아와 더욱 활기차게 선교할 계획이었고 결코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1962년 6월 서신에 의하면, 한국으로 돌아올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있고, 샌프란시스코 항에서 출발할 때까지 예약해 둔 상태였다. 그러나 그들에 관한 자료를 더 이상 구하지 못해서 그들이 무엇 때문에 한국에 돌아오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없었다. 다만, 리처드 래쉬의 서신에 의하면, 세겔키는 1962년 한국정부로부터 비자를 거부당하였고, 링컨기독교대학에 취직이 되어 미국에 남았다고 한다.

#### (4) 버트와 마조리 엘리스(Bert & Marjory Ellis)



좌측부터 버트(Bert), 존(John), 마조리 엘리스(Marjory Ellis)

버트 엘리스 가족은 알렉스가 한국정부로부터 선교방송국 설립 허가서를 받고 나서 부산에 세우려고 한 방송국의 프로그램제작부 담당자로 입국하였다.

버트는 신시내티성서신학교, 링컨성서신학교 및 밀리건 대학에서 수업을 받았고, 플로이드 존스 종교음악학교(Floyd Jones School of Sacred Music, Indianapolis, IN)에 입학하면서부터 목회를 시작하여 한국에 오기 직전에는 미주리 주에 소재한 카불(Cabool) 그리스도의 교회를 3년째 담임한 것을 비롯해서 총 18년간 목회사역을 하였다. 그는 목회자로서 다년간 크고 작은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감독한 유경험자였다.

1958년 3월 소식지에 의하면, 엘리스 가족은 1958년 4월 7일 혹은 9일에 샌프란시스코 항에서 올드 콜로니 마리너(Old Colony Mariner)에 올라 5월 3일에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1958년부터 1962년까지 버트 엘리스 가족이 한국에서 행한 사역은 조 세겔키와 함께 한국방송및손(Korean Broadcasting Mission)을 설립하고 부산문화방송(HLKU)에서 시간을 임대하

여 매일 3년간 전파선교를 한 것이었다. 다섯 개의 성경클럽을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상대로 운영하였고, 이들 클럽에 125명 정도가 등록하였다. 또 라디오 방송 청취자들과 기타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경통신강좌를 개설하였으며 한번에 100명 정도 등록하였다. 시내 선교부 건물 채플에 동광 그리스도의 교



학생부 성경공부반

회를 개척하여 예배를 드렸고, 평균 40여명, 최고 100명까지 참석하였다. 어린이 주일학교는 참석인원이 평균 300명이 넘었다.

버트와 마조리 엘리스 가족은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년 정도의 안식년 끝에 1964년 4월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 때 학생성경클럽이 4개였고, 참석인원이 100여명에 이르렀다. 동광교회는 여전히 지속되었고, 어린이 주일학교에 참석하는 어린이의 숫자는 1965년에 평균 425명, 12월 19일에는 510명, 성탄절에는 550명까지 참석하였다.

1966년 1월에는 동아 그리스도의 교회가 부산에 개척되었다. 1966년 5월에 이 교회의 주일학교에 참석하는 어린이는 350-400명에 이르렀다. 엘리스 부부는 초교파인 부산 연합신학교에서도 가르쳤다.



침례식 기념사진, 마조리(좌), 버트(우)

엘리스 가족은 1982년 6월경에 미국으로 돌아갔다. 미국에서 18년 목회, 한국에서 25년 선교를 비롯해서, 1983년 6월 서신에 의하면, 47년 가까이 사역하였다. 1983년 11월은 버트가 65세가 되는 해였다. 아들 존은 밀리건 대학을 나온 후 한국에서 선교사로 일할 계획이었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한 것 같다.



### 3) CRM 선교사가 되려고 준비 중이던 가족들

#### (1) 레이와 로레타 굤맨(Ray and Loretta Goodman)



레이 밀튼 2계(Ray Milton Jr.), 로레타(Loretta), 폴라(Paula), 레이 굤맨(Ray Goodman), 팜밀라(Pemela), 기술부담당(Technical Department)

레이와 로레타 굤맨(Ray and Loretta Goodman)은 미 공군에서 8년간의 전자기술자로 일하였다. 일리노이 주 벨리빌(Belleville) 소재 제일 그리스도의 교회에 소속한 집사(1961년에는 장로)로서 링컨성서신학교를 졸업

하는 1958년에 한국에 올 계획이었다.

#### (2) 밥과 필리스 클레멘스(Bob and Phyllis Clemens)



제이넬(Janele), 필리스(Phyllis), 밥 클레멘스(Bob Clemens), 공학부담당(Engineering Department)

밥과 필리스 클레멘스(Bob and Phyllis Clemens)는 1958년에 발파라이소(Valparaiso) 기술학교를 마치고 전자기술준(準)학사를 1958년 10월에 받으면 한국에 입국할 계획이었다. 해군에서 전자학 분야에 복무하였다. 밥은 CRM이 내분을

겪자 일리노이 주 스프링필드에 소재한 WICS-TV에 엔지니어로 취업하였고, 밥과 필리스는 버트와 조가 새로 시작한 한국방송선교(KBM)의 미국 대리인(representatives)으로 봉사하였다.

### (3) 클레어(Clair Powell)



뒷줄좌측부터 클레어 포웰(Clair Powell), 스티븐(Stephen), 헬렌(Helen)  
앞줄좌부터 캐롤(Carol), 앤(Anne), 에이린(Aileen)

클레어 포웰(Clair Powell)은 엔지니어링과 기계설비 분야에서 감독과 자문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클레어는 하와이에서 단기 선교사로 사역한 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라디오 엔지니어 일급 자격증 소유자로서 가족을 미국에 두고 부산에 와서 일 년간 머물 계획이었다.

### (4) 루이스와 돌로레스 마이어스(Lewis and Dolores Myers)

루이스와 돌로레스 마이어스(Lewis and Dolores Myers) 부부는 교육업무를 맡아보기 위해서 1959년에 부산에 오려고 계획하였다.



루이스와 돌로레스 마이어스(Lewis and Dolores Myers)

## 4) 한국 CRM의 실패의 원인

1972년에 힐 요한 선교사는 그 원인이 “심한 내분과 버트 엘리스와 조 세걸키의 반대” 때문이었으며, 그로 인해서 한국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정 반대였다.

첫째, 선교사들 간의 친분을 보면, 힐 요한과 제인 부부는 1959년 8월 부산에 입국하였을 때 알렉스 빌즈의 집에서 2개월을 체류하다가 대전으로 올라왔다. 대교교회 장성만 목사는

방송설교자로, 한국성서신학교에서 교수와 힐 요한 선교사의 통역이 되기 직전에 김히영은 알렉스의 CRM에서 번역과 음악PD로 사역하였다. 반면에 장성만 목사와 함께 동서기독교실업학교를 개척한 리처드 래쉬 가족은 조 세걸키 가족과 절친하였다. 래쉬는 세걸키 가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였지만, 빌즈 가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래쉬 가족은 세걸키 가족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여름휴가 등을 함께 보내곤 하였다. 서울에 주재한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 가족은 알렉스 빌즈나 조 세걸키 가족 모두와 대체적으로 잘 어울렸다.

둘째, 알렉스 빌즈는 한국 정부로부터 부산에서의 라디오선교 방송국 설립과 운영에 대한 허가서를 받고, 그 허가서를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22개월간 모금운동을 펼쳤고, 그 허가서를 가지고 1956년 12월 13일에 부산으로 옮겨왔다.

셋째, “심한 내분”이란 설립자와 협력자들 사이에 있었던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갭을 좁히지 못한데서 비롯되었다. 알렉스는 방송선교라는 비전을 품은 이상주의자였고, 그 비전을 이미 5년 넘게 현실로 옮기고 있었던 강력한 추진자였다. 알렉스는 실제로 많은 업적을 쌓았다. 그러나 버트와 조는 알렉스의 사업을 돕기 위해서 한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아니한 냉철한 현실주의자들이었다. 버트는 1960년 전반기에 필립스에게 쓴 KBM서신에서 “그 이상은 비현실적이었고, 그 프로젝트를 고안한 사람은 전혀 믿을만하지 못했다.”(the idea was impractical and the man who had originated the project was completely untrustworthy)고 말하였다. 자신들이 CRM에서 탈퇴한 것은 “일을 엉망으로 만든 헛짓들 끝에”(After vain attempts to do something with the mess) 내려진 결단이라고 하였다.

넷째, 그들 사이에 있었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자금부족이었다. 거대한 프로젝트에 비해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였던 것이다. 지난날 한성신학교가 대학개편이란 비전을 품고 캠퍼스를 충남 논산시 연산면 신양리로 옮기고 나서 근 20년간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기대와 실망으로

파도타기를 시키다가 끝내는 폐교에 처한 상황과 하나도 다를 게 없었다. 한성신학교 재학생, 동문, 교직원들이 겪었던 실망과 좌절감은 필설로 다 표현될 수 없는 것이듯이, 알렉스의 설교와 프레젠테이션에 감동받아 그와 그의 선교를 돕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또 모든 난관을 무릅쓰고 한국에 건너온 선교사들이 선교방송국 공사의 진척과 진행과정을 보고나서 느낀 실망감과 좌절감 또한 그에 못지않았을 것이다. 조 세걸키의 1959년 1월 경의 서신에 의하면, 선교에 선교지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갖고 부산에 온지 일 년이 조금 지났지만, “계획은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만큼 결코 이뤄지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우에서도 동일하게 사실이었습니다. CRM에 대한 실망감은 정말 커져갔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과 서신을 주고받았습시다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 즉 우리가 CRM에서 사임했다는 소식을 처음 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지난 1958년 10월 25일, 국내 위원회의 여섯 분... , 국내 사역자들... , 그리고 선교지의 선교사들은... 별렌 알렉스 빌즈에 대한 신뢰의 부족과 CRM의 사역방법이 우리와 국내에 계신 분들에게 잘못 전달되었기 때문에 사임하였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실망은 곧이어 알렉스의 사업을 비현실적이고 믿을만하지 못하다고 비판한 그들 자신에게서도 찾아왔다. 버트와 조는 선교운영자금의 부족으로 이신 목사를 비롯한 직원들을 퇴사시켜야 했고, 부산문화방송에서 시간을 사서 송출하던 방송 횟수를 매일 2회에서 1회로 줄였으며, 끝내는 방송선교를 접어야 했다. 총회나 총회산하의 선교국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개교회가 선택한 선교사들에게 직접 선교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모금에 탁월한 재능을 갖추지 않는 한 누구나 자금부족을 겪게 될 것이고, 결국 중도에 선교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알렉스에게도 닥쳤을 것이다. 동료들의 부정적인 견해는 미국 교회들에 알려졌을 것이고, 그것이 알렉스에게는 진행하던 사업을 접어야 할 만큼 치명적이었을 것이다. 결국 알렉스 빌즈 가족은 1961년에 본국

으로 돌아가야 했다. 1983년까지 부산에 남은 버트 엘리스 가족도, 1962년 5월 서신에 의하면, 선교자금의 부족으로 1년 반 동안을 생활비의 절반을 빚을 갚는데 쓰면서 버텼으나 집세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엘리스 가족은 1962년 7월경에 본국으로 돌아가 긴 안식년을 보내다가 1964년에야 돌아왔고, 1983년까지 부산에서 사역하였다.

크든 작든 하나의 조직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조직 안에 일치와 평화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다. 1953-55년 사이 힐 요한과 폴 잉그람(서울 선교부)과의 내분, 1958년 한국 CRM의 내분, 1977년 힐 요한과 김찬영의 내분,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된 한성신학교의 내분은 조직의 순수성을 빙자로 내분(개혁)을 일으키는 것과 순수성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해하고 포용함으로써 일치와 평화를 지키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유익한가에 대해서 숙고하도록 만드는 사건들이다. 빈대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속담이 있다. 그리스도의 교회 운동은 신약교회 본래의 순수성을 회복하자는데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한 분열이 자주 있어왔다는 것을 환원운동사는 말해준다. 이것은 비단 그리스도의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조직의 순수성에 관한 논쟁은 초대교회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1950년대 한국 장로교회의 분열도 이 문제의 연속이었다. 다른 한편 순수성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포용함으로써 평화와 일치를 지킨 때도 많았다는 것을 환원운동사는 보여준다. 순수성의 문제는 분열을 가져오고, 일치와 평화의 문제는 순수성을 해친다. 이 두 가지 순수성과 포용 사이의 갈등, 그리스도의 교회식으로 말하자면, 교회일치와 신약교회회복 사이의 갈등을 3세기에 걸쳐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했던 단체는 이 지상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빼고는 아무도 없다. 우리는 일치와 순수성 사이에 늘 갈등이 있어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건하게 고민하면서 끊임 없이 조절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우리는 이 능력이 부족할 때 조직이 와해될 수 있다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3. 김동열 목사와 광주 그리스도님의 교회



김동열 목사(1922.09.05-2008.08.23)

이 글은 필자와 몇몇 목회자들이 2002년 11월 22-23일 양일간 김동열 목사를 직접 찾아가 보고 듣고 읽고 정리한 내용임을 밝힌다.

첫째, 김동열 목사는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나 협의회 또는 교역자회에 소속된 그리스도의 교회 소속 목사가 아님을 밝혀

둔다. 김동열 목사가 2002년 11월 22-23일에 건넨 명함에 의하면, 소속이 “그리스도님의 교회교역자회 광주 그리스도님의 교회(Kwang Ju Church of Christ)”로 되어 있다. 이는 김동열 목사가 ‘그리스도님의 교역자회’란 모임을 오랫동안 따로 주도해 왔고, 또 그들만의 모임을 따로 갖고 있었으며, 1940-50년대를 제외하고는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에 소속된 목사로서 활동하지 않고, ‘그리스도님의 교역자회’ 소속으로 활동하였음을 말해 주는 것이었다.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381쪽에 의하면, 김동열 목사의 “폐쇄적 근본주의 노선”을 타 교단에서 이단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광주와 전남지역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발전하는데 있어서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한다.

둘째, 김동열 목사의 부친 김용수는 장로회 소속 목회자였으나 세례를 매우 중요시 하여 김동열 목사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요한복음 영해(하2)>, 120].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1990년 12월 26일자로 건국훈장을 받으셨고, 2002년 8월 15일 광복절에는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애국지사의 가족에게 드리는 감사의 편지를 받은바 있는 뼈대 있는 집안이었다.

김동열의 부친에 대해서 상이한 자료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먼저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289쪽에 의하면,



김동열 목사의 부친 김용수 목사  
국가로부터 받은 건국훈장증과 대통령의 감사편지

1940년 3월 25일에 김요한, 최상현, 김문화, 성낙소, 박관조가 기독교 교회 신학을 제1회로 졸업하였고, 이 가운데 김문화는 “김동열의 아버지”라고 하였다. 또 지철희 목사의 글에 의하면, 김용수를 김용환이라고 호칭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김용하를 잘못 기억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용하는 김용수 목사의 자이다. 김문화가 김용수의 또 다른 이름인지는 확실치 않다. 다음은 지철희 목사가 김용수 목사에 대해서 남긴 글이다.

김동열 목사님의 부친은 순교를 하셨는데, 김용환 목사님이시다. 김용환 목사님은 일제말엽 때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신사참배 거부 문제로 투옥을 당하셨고, 많은 고문과 고통을 받던 중에 해방을 맞이하여 출감하셨는데, 오갈 때가 없어서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 사택에서 간호를 받으시면서 기거를 하실 때에 내가 딱 한번 뵈는 기억이 난다. 연세는 어떻게 되셨는지는 모르고 후리후리한 키에 깡마른 얼굴과 움푹 들어간 눈, 뽀족한 턱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기운이 없어서 사람들이 옆에서 부축하여야만 걷고 일어설 수가 있었는데, 그 분의 설교하시는 목소리는 장정이 힘 있게 말하는 것처럼 낭랑하였고 우렁찬 목소리였다. 그 당시 내가 들은 설교는 신천신지를 말하는 천국론이었다 그 당시 나는 어려서 몰랐는데 들은 사람들은 꼭 천국에 온 것처럼 기뻐했다고 한다. 그 당시 내가 듣기로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아주 귀하고 유명한 목사님이시었다. 또 들은 바로는 김동열 목사님이 저렇게 성경을 잘 알고 그 어느 학자보다도 유명한 것은 그의 부친이신 고 김용환 목사님이 연구해서 기록한 노트를 보고 깨닫고 안 것이라고 하였다. 사람들은 또 성경주석가인 박운선 목사나 바클레이 목사의 주석 학문보다 한 단계

더 앞선다고 한다고도 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귀하신 그의 부친이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순교를 하셨다는 소식을 소문으로 알았다. 그래서 우리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산실은 부강교회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부강교회에서 김용환 목사님이 순교하신 것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



"예수님을 찬양하세, Amen Hallelujah!"라고 명명한 수석

셋째, 김동열은 두뇌가 명석하고 과학과 수학에 뛰어나 젊어서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원리를 원고 없이 자유자재로 강의하였으며, 한학과 한자에도 박식하고, 예술적인 감

각을 겸비하였을 뿐 아니라, 취미활동으로는 수석과 괴목을 수집하였고, 성석회(聖石會)란 모임의 회장직도 맡았다.

넷째, 과학과 수리적인 논리에 밝은 만큼 합리적이고 귀납적인 성경이해를 추구하였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문시대를 거쳐 오신 분이므로 많지 않은 그분의 저술과 직접 가사를 쓰시고 편집한 성가집, 「주 예수님을 찬양하세」에는 한문과 한자로 된 부분이 많았고, 오늘날의 청장년들에게는 이질적인 부분들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또 김동열은 성경말씀을 가감할 우려가 있고, 기록은 율법과 같이 죽이는 의문에 해당되는 것이며, 마음을 피곤케 한다는 솔로몬의 말처럼 기록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 명령을 실천하고자 저술을 삼갔다고 진술하였다. 성경 66권에 더 보탬 책이 없고, 주님의 말씀만 말하고 전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설교도 강연도 강의도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야하는 방송설교에서조차도 항상 원고 없이 성령님의 감동만으로 행하여왔으므로



철술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김동열은 그간 펼쳐온 환원운동을 성령님의 영감을 통한 운동이라고 확신하였는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었다.

1) 주님의 책에로의 환원 - 주님의 책의 말씀만 말하고 전하지.

철저하게 성경의 말씀대로만 가르치고 행한다는 신념이 강하였다. 해석상의 차이와 실행의 차이, 곧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성구를 줄줄 인용하실 뿐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대로만 주장하고 강조한다는 느낌이였다.

2) 하나님에게로의 환원 -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3) 주님의 권위에서의 환원 -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의 권위에서의 환원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분의 권위를 높이고자한 운동으로써 ‘그리스도님’의 사상이 이에서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 그리스도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으로 높여 부르며, 명함이나 간판 또는 교회이름에도 동일한 높임말로 쓰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광주 그리스도님의 교회’라는 명칭이다.

그리스도님의 권위가 강조되면 될수록, 4세기 이후 가톨릭교회가 오늘날까지도 그래왔던 것처럼, 그리스도님의 사도이자 보냄을 받은 종인 (김동열은 작은 종이란 뜻의 소복小僕이란 한자 용어를 씀.)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간극(間隙)이 생기게 되어 있다. 그 간극은 목회자의 절대적 권위로 인해서 비롯되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교회 내에서 성도들의 목소리가 목사의 목소리보다 더 커진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정당성이 확보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현시대의 조류와는 많은 부분에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광주 그리스도님의 교회에서는 예배가 짧고 일사분란하고 질서정연하며 고요하고 순종적이며 성도들이 밀물처럼 거의 동일한 시간에 입당했다가 거의 동시에 질서정연하게 썰물처럼 예배당을 빠져나간다. 잘 훈련되고 교육된 풍경이었지만, 이 역시 구경꾼들에게는 낯선 모습일 것이다.

광주 그리스도님의 교회에서는 매주일 예배 때에 주님의 만찬을 거행하며, 거의 매일 한번 꼴로 일주일에 여덟 번 30분씩 모여 예배드린다고 한다. 보통 교회의 새벽예배 또는 저녁기도회를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저녁에 집회가 있는 날이면 새벽모임은 생략된다. 또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피곤하지 않도록 밤 9시에 잠자리에 들어 새벽 모임에 나오기까지 최소한 일곱 시간을 수면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헌금이나 구제 사업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은밀히 하도록 가르친다. 헌금과 금전에 관한 설교는 일 년에 한번 성경의 말씀대로만 가르치고, 일체 언급치 아니한다고 강조하셨다. 헌금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 곧 해놓고도 잊어버려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헌금 시간을 따로 두지 않고 헌금기도도 하지 아니하며, 헌금 바구니를 앞줄에 놓고 예배를 시작하면 찬송하는 시간에 헌금바구니에 가까이 있는 이들 가운데 바칠 분들이 헌금을 하고 다른 자리로 옮겨 놓으면 또 다른 사람이 바치고 하는 방식으로 헌금한다고 한다. 따라서 광주 그리스도님의 교회에는 예산이 따로 없다. 그러나 교회에는 아무 빛도 없고 운영에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한 말씀을 철저하게 실천하며 성도들에게는 일체의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다.

기도는 혼자 은밀히 있을 때 자유롭게 마음껏 기도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도록 가르치지만, 집회 때에는 길게는 3분, 짧게는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게 한다. 평소 기도를 많이 하는 자들은 예배시간에 길게 할 필요가 없으므로 중언부언하지 말 것과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 하지 말 것을 강조한다고 진술하였다.

광주 그리스도님의 교회는 매사에 말씀으로 철두철미하게 가르치고 지키기를 가르치나 성도들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일체의 강요나 간섭을 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따라서 매우 자유로운 교회라는 것이 김동열 목사의 주장이다.

또 한 가지 광주 그리스도님의 교회는 행정에 있어서 민주주

의란 방식을 도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님의 권위가 강조되고, 그분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종들에 순종하는 것이 성서적인 것이므로 교회 내에서는 민주적인 방식이나 제도를 거부한다. 민주주의는 복음에 역행하는 거짓된 소리라 하셨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민(民)이고, 오직 한분 예수님만이 주(主)님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예’만하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일꾼들에게 지시내린 대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명령을 따르는 것이 성서적이라 하였다. 주(主)와 민(民)의 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주님의 권위는 더욱 높여야 하고, 백성은 더욱 민화(民化) 내지는 노복화(奴僕化)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천국복음 안에서는 민주화가 용납되지 않고, 교회에 주님 이외의 주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제직회가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김동열 목사는 일찍이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앙은 보장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초교파적으로 많은 교회들에 다니며 설교하셨고, 초창기에는 그 길이 막혀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차 목사만의 독특한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그것들이 일선의 교회들로써는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었을 것이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교회 내에서조차 수용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

남들이 이단이라 하는 경우에는 성경풀이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치명적이거나 잘못된 교리를 가르칠 때도 있고, 단지 그 주장하는 바가 기존의 고정관념과 다르거나 독특하여 듣게 되는 경우도 있다. 전자는 예수님의 신성과 성령님의 인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여호와증인들이 해당될 것이고, 후자는 다수의 횡포로 볼 수 있는 것으로써, 예를 들면, 대다수의 목사들이 전천년설을 주장하는데, 그 가운데 한 두 목사만이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을 주장한다면, 반드시 이단이란 소리를 듣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김동열 목사는 후자에 속한다.

김동열 목사의 평소 소신은 실천에 있었다. 귀로 들을 때 눈으로 보는 듯 하고, 눈으로 볼 때, 귀로 듣는 듯해야 한다. 그러

나 우리 인간은 “백문불여일견, 백견불여일사, 백사불여일행” (빌 4장 9절 -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즉 백번이나 되풀이해서 들어야 한번 보게 되고, 백번이나 되풀이해서 보아야 한번 마음에 생각하게 되고, 백번이나 되풀이해서 생각해야 백번씩이나 듣고 보고 생각한 것을 행하게 된다. 그만큼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대로 실천하기를 힘써야한다고 강조하였다.

김동열 목사는 양력으로 1922년 9월 5일에 태어났다. 광주가 대대로 이어온 고향이며 부친 김용수(자 김용하) 목사께서 일제 때 투옥되어 계시는 동안 일본에서 성장했으며,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학력이나 경력 등에 대해서 기억도 않고 말도하지 않는다 하였다. 침례는 1945년 겨울 혹은 46년 초에 받았고, 조선신학교(한신대학교)를 잠시 다녔으나 신앙이 맞지 않아 그만 두었고, 보수적인 다른 신학교를 마쳤다.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한 후에는 송월동 성서신학교와 서울성서신학교 등에서 성서를 가르쳤으나 테일러 선교사 등과 뜻이 맞지 않아 부강총회이후 신탄진에 잠시 머물다가 광주로 내려와 독자적으로 사역하였다.

김동열 목사의 언행에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가정할지라도, 크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교계 일각에서 김동열 목사를 “자칭 보내신 자”라고 주장하는 이단자로 본다는데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것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겠다고 판단하였다.

광주 그리스도님의 교회에서 만든 책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는 제목의 B5사이즈의 49쪽의 책자가 있는데, 이 책자의 제목은 요한복음 6장 29절을 거의 그대로 옮긴 것이며, 이 성구에 대한 해설을 2003년 4월에 “주 예수님의 소복 김동열” 쓴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책자 목차 중 4장 4절의 제목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며 자기는 종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님이시며 자기는 민(民)이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준행함이라.”로 되어

있고, 본 책자 30-31쪽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2.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님의 말씀을 들으면.

3. 믿게 되는 바이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드님이시오 그리스도님 되심을 알고 믿는 바이다.

4.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님으로 믿는 만큼,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 무슨 말씀 하시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준행하니, 이 사실이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님과 함께 하는 것이요, 결국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친증(親證)하신 바이다.

그리고 49쪽의 결론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八)결론컨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요 3:34)고 하심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요 6:29)고 하신 바 이 두 말씀은 몽침(夢寢)에도 망각해서는 아니 되는 구원의 진리 이시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김동열 목사는 자신을 항상 일컬어 “주 예수님의 소복 김동열”이라 한다는 점이요, 한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님’자 없이 “그리스도”라 호칭하지 않고 언제나 “그리스도님”으로 호칭하여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으며, ‘님’자 없이 “그리스도”라 호칭하는 것을 선생님에게 “선생”이라 호칭하는 것처럼 상스러운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자기 자신을 “자칭 보내신 자” 곧 자칭 메시아로 주장한다는 비판가들의 주장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누가복음의 비유를 설명한 <실상(實相)과 비유(比喩)의 오의(奧義)>라는 시리즈 책자들이 있으며, <문오언이행지자(聞吾言而行之者)>란 A4사이즈 20쪽의 글이 있는데, 이 한문 제목은 마태복음 7장 21-27절의 일부인 중국어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란 뜻이다. 여기서도 먼저의 책자에서와 같이 평소의 소신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보기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그대로 옮겨 실천하자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김동열 목사의 글들은 소천 후 자녀들이 몇 권의 책으로 엮어 출판하였다.

김동열 목사는 여섯 살 아래인 김태희 사모로부터 김환 목사, 김승복 목사를 비롯해서 4남 3녀의 자녀들을 두었다. 자녀들은 결혼하여 자녀들을 낳고 모두가 김동열 목사 내외분과 한 집에서 살았다. 김동열 목사는 당뇨를 지병으로 앓았으나 김태희 사모가 먼저 2005년 5월 3일 소천 하였다. 이에 김동열은 사묘역 근처에 컨테이너를 놓고 자주 왕래하면서 기도생활을 하다가 3년 후인 2008년 8월 23일 소천 하였다. 광주 그리스도님의 교회는 김환 목사, 김승복 목사 등이 이끌고 있으며, 현재 남아 있는 그리스도님의 교회들은 다섯 곳이다.

다음은 지철희 목사가 김동열 목사에 대해서 젊은 시절 직접 보고 또 듣고 한 내용을 근거로 적은 글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 분의 신앙과 성격은 다분히 사도 바울처럼 사도적이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되지 않은 신앙은 모두가 마귀였다. 바로 회개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동참하지도 말라. 부모라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마귀라고 하셨다. 그러니 가지도 말고 절도하지 말라 라고 할 정도로 칼날처럼 아주 예리하고 무섭고 엄하셨다. 그리고 이 분의 강의는 육가원칙에 따라 논리적이었고 질서 정연하였다. 어느 누구도 이 분의 원칙논리를 꺾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 분에게 밀린 사람들은 할말이 없으니까 괴변가라고도 하였다. 괴변가라는 말 속에는 말을 잘하는 말쟁이라는 뜻이 담겨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래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창기 때 내가 아는 김은석, 김재순, 정창석, 장주열, 김상호, 최요한, 최요열, 김주일(이상 목사), 이한성 장로, 김장로 등 많은 분들과 조화되지 못하고, 모이고 만나면 교리문제를 놓고 토론하며 다투고 논쟁하다 헤어지면, 김재순 목사는 이곳저곳을 오가며 눈물로 화해를 시키려고 애쓰셨다.

어느 때였는지 또 어느 교단 목사들었는지 또 어느 역에서였는지

도 모른다. 그러나 목사들이 많이 탄 기차객실에서 김동열 목사가 노방 전도를 하였는데, 때는 한여름인 지라 모두다 시원한 여름 옷차림을 하였는데, 김동열 목사는 겨울 가죽잠바를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러분들이여, 주 예수님을 믿고 나같이 큰 복을 받고 영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큰소리로 외치자 객차 안에 손님들이 듣고 코웃음 치며 폭소가 터져 나왔다는 에피소드가 있다. 차안에 있던 여러 목사들이 비웃고 무시하면서 던지는 말이 “영생은 이생에 있는 거요? 내세에 있는 거요?” 묻는 말에 대답은 그들이 두 번 다시 묻지 못하도록 하는 답을 하였고, 오히려 목사의 설교에 숙연하였고 나중에는 은혜를 받고 더 많은 설교를 들었으면 하고 아쉬워하였다고 한다.

새벽이면 광주 시내 모 공원에 산책을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였는데 전도하는 설교의 말씀에 매료되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들곤 하였다고 전한다.

한번은 헌병 백차가 앞에서 가고 군대가 행군을 하는데 군대 행렬을 멈추게 하고서 군인들도 예수를 믿고 천당에 가야 한다고 전도를 하였는데, 지휘관이 왔다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군 작전을 방해한 죄를 용서받았다고 한다. (군 작전을 개인이 방해하면 즉시 총살형을 받았다고 한다.)

남편이 보따리를 가지고 큰 장사를 하였는데, 부인에게 이 날도 일찍이 장사하러 가야겠으니 새벽 아침을 하여 달라고 하는 남편 말에 쌀바가지를 들고 집 앞 우물가에 쌀을 씻으러 나왔다. 마침 전도를 하러 가는 중에 목사는 이 여자를 만나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였는데,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르고 남편이 부탁한 말도 잊고 목사의 설교말씀 속에 끌려 들어갔다. 남편은 이때나 밥상이 들어올까 저 때나 밥상이 들어올까 기다리다가 아무 인척이 없어서 우물가를 나와 보니 아직도 쌀바가지를 들고 얼굴이 상기된 채 설교를 듣고 있더라고 하였다. 그 일로 후에 남편도 결국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

김동열 목사에게 은혜를 받은 군의관(당시 중위)이 있었다. 이분은 김동열 목사가 직접 데리고 충북 괴산군 소수면에 있는 소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왔을 때 나도 직접 본 사람이다. 전방 모 부대에 근무하는 장교였지만 주일날이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반듯이 전남 광주시 금동 1번지에 소재 한 그리스도님의 교회에 와서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한다고 하는 분이였다.

전남 함평군 손불면 신흥리에 신흥교회가 있다. 그 당시 박모 전도사가 담임하였고, 김동열 목사에게 은혜 받고 그의 심복이 되었다. (이 교회는 나 지철희 목사의 처고모님이 나가는 교회다.) 어느 날 박 전도사의 아들인지 딸인지가 병이 들어 죽었다. 그런데 시체

를 안고 집집마다 거리마다 다니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부활한다.”고 했다고 한다.

처고모님에게 직접 들었는데,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들을 포함한 모든 목사들은 목사로 인정하지를 않고 교인들도 더욱 그러하였으며 오직 당신이 보고 아는 성경말씀대로 알고 믿으면 형제요 자매이고 당신이 가르친 대로 믿어야 된다는 편이 강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든 아니든 교제를 단절하고 오직 나, 여기, 여기라고 하는 편이 강하였다.

하나님의 종이 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자는 마귀의 종인데, 하나님을 안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찌 절을 하며, 어찌 인사를 하겠느냐? 또는 찾아가겠느냐? 라는 식의 사상이 강하였다. 내가 본 견해로서는 그렇다. 그래서 처고모님은 친절예를 못 오고 간혹 와도 마음이 괴롭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카사위 된 나와 토론을 많이 한 적이 있다. 그때 나의 대답은 사람 속에는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고 하신 말씀처럼 악은 죄이다. 그러나 주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셨다고 말한 적이 있다.

김동열 목사는 특히 로마서 강해의 권위자로서 다른 복음서도 위우지만, 로마서는 아침 밥상을 받아놓고 꼭 1장 1절부터 끝장 끝 절까지 다 외운 후에 밥을 드셨다는 말도 있다.

지금까지 쓴 글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아마도 김정만 목사와 미국에 가 있는 양정식 목사에게 들은 것 같다

## 나오는 말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는 아직 미완성이다. 이 책자에 부가되어야 할 준비 중인 일부 목회자들의 약전이 남아 있고, 기존의 자료들도 보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의 영웅적인 이야기들이 아직 기록도 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졸저를 잠정적으로 마치면서 우리 목회자들의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온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사랑하고 계신 것이 매우 분명하다. 그 증거가, 역설적이지만,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겪어온 시련이다. 시련은 하나님



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겪는 운명이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시련을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단련하시고, 진정한 영웅이 되게 하신 후에 때가 차면 해같이 빛나게 하신다. 그러나 그때, 곧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계절이 오기까지는, 아직 시련의 끝은 아니다.

둘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목회자들은 장차 큰일을 맡게 될 자들이다. 그 증거가, 역설적이지만, 작은 것에 충성하였기 때문이다.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마 25:40)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마 25:21)라고 말씀하셨다.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들은 작지만 순수한 신약성서교회를 추구하였다. 그에 대한 이 땅에서의 보상은 지나치리만큼 초라했으므로 저 천국에서 그 보상이 클 것이라고 믿는다.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재물과 명예와 권세만큼 천국의 보물창고에 고스란히 쌓여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목회자들은 시련을 극복한 영웅들이다. 시련을 많이 겪었던 만큼 위로가 클 것이라고 믿는다. 대중으로부터 외면을 받았던 만큼 하늘의 하나님과 천군과 천사들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목회자들이 지난 90여 년간 이 땅에서 걸어온 길은 험난한 가시밭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었다. 선배목회자들은 과연 자신과 세상과 끝없이 싸우며 괴로운 가시밭길을 걸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상의 모든 고뇌를, 지상의 모든 수고를 그들에게 짐 지웠으나, 저 장렬한 최후의 날까지 그들은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이 수고를 훌륭하게 참아냈다. 비록 그들은 한 알의 밀알로써 썩었지만, 그들로 인해서 많은 생명의 열매들이 90여년이 지난 지금도 지속적으로 맺히고 있다.

넷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목회자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였다. 바울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는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그와 그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예수님의 삶에 철저히 잇대어져 본받는 것이었음을 밝혀주었다. 누가는 예수님의 삶의 특징을 예루살렘 시온에로의 오름으로 설명하였다. 이 오름은 배척과 박해가 따르는 십자가와 죽음의 길이었다. 그런 만큼 예수님은 이 길을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완주하셨다. 기독교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에 셀 수 없이 많은 위기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점점 왕성하여 든든히 서 가고 흥왕하여 수가 더 많아져 세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에로의 오름과 기도와 성령 충만한 삶에 잇대어 본받아 살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산 것처럼, 그는 지금 우리에게 자기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산 것처럼, 자신의 삶을 본받아 예수님을 추종하기를 바라고 있다. 필자가 김은석 목사를 한국의 사도 바울이라고 칭한 것처럼,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선배목회자들의 삶은 그리스도와 바울을 본받는 삶이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여 지극히 작은 것들에 충성하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위기들을 기회들로 바꿔나간 영웅들이었다.

다섯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목회자들은 마지막 시대를 위한 남은 자들이다. 온갖 시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제 자리를 지켜온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삶은 지난 2천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남겨두었던 남은 자들에 잇대어져 있다.

여섯째, 한국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더디지만 꾸준히 발전해 왔다. 그 증거가 다음의 표이다.

(1) 1943년에 6개뿐이던 교회가 1950년까지 8년간 36개 증가하여 총 42개, 연평균 4.5개씩 증가하였다.

(2) 1951년부터 1955년까지 5년간 교회가 33개 증가하여 연평균 6.6개씩 증가하였다.

(3)1956년부터 1971년까지 16년간 교회가 7개 증가하여 연평균 0.44개씩 증가하였다.

(4)교회성장의 봄이 일었던 1972년부터 1985년까지 14년간 교회가 204개나 증가하여 연평균 14.57개씩 가장 왕성하게 증가하였다.

(5)1986년부터 1998년까지 13년간 교회가 78개 증가하여 연평균 6개씩 증가하였다.

(6)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교회가 39개 증가하여 연평균 매년 7.8개씩 증가하였다.

(7)1943년부터 2003년까지 61년간 연평균 6.6개씩 증가하였다.

(8)+숫자는 직후연대통계에서 직전연도통계를 뺀 숫자이다. 1971년에 충북에서만 2개 교회가 줄었을 뿐, 중도탈락자들이 그토록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꾸준히 성장하였다.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소계	총회	협의회	교역자	총합계
1941년 커닝햄									17
1943년									6
1950년									42 +36
1955년 테일러									75 +33
1956년 연갑	6	13	17	0	36				
1965년 연갑	19 +13	16 +3	24 +7	1 +1	60 +24				
1971년 힐 요한	21 +2	14 -2	26 +2	2 +1	63 +3				82 +7
1985년 협의회	38 +17	31 +17	58 +32	13 +11	140 +77				286 +204
1998년									364 +78
2003년						61	237	105	403 +39

(9)1924년 10월에 이원균이 한국에 파송되고, 1931년 9월

부터 성낙소 목사가 맡았던 조선포교책임자 직임과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가 1933년 9월에 이인범에게 그 권한이 넘어가 ‘조선선교회 기독교회’로 변경된 후 태평양전쟁직전(1941)까지 이어진 커닝햄 선교부의 후원과 노력으로 거둔 결실은, 서울기독교대학교의 백종구 교수의 2012년 연구논문과 필자가 직접 세밀히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회 17(19)개[서울5, 인천4, 대구1, 마산1, 평북 구성2(3), 정주3(4), 신의주1], 포교소(선교기지) 30개 이상, 사역자 13명, 교인 737명이었다. 연도별로 세분해 보면, 포교소가 1925년 1개, 1929년 4개, 1932년 5개, 1935년 18개, 1938년 6개, 1940년에 30개 이상 있었고, 교회가 1930년 1개, 1933년 7개, 1934년 8개, 1935년 12개, 1938년 14개, 1940년에 17개로 점차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들 17개의 교회들과 사역자들은, 용산교회의 이난기 목사와 아현교회의 윤낙영 목사 (그리고 대구교회?) 이외에는, 커닝햄과 갈라선 채이스가 1936년에 설립한 ‘기독교회 선교부’(Korean Christian Mission) 소속의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에 합류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들 17개 교회들 가운데 현재 확인이 가능한 곳은 1946년 12월 10일에 송현성결교회로 재건된 인천 송현기독교회 뿐이다. 이들 교회의 책임자였던 이인범 목사는, 성낙소 목사의 <자서전>에 따르면, 해방 후 장로교회로 넘어갔고, 금산제일교회(충남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 1394)의 교회연혁에 따르면, 1949년 1월 3일에 금산제일교회에 부임하였으며, 1951년에 금산(혹은 여산)에서 별세하였다.

부록: <신약교회 목회학> 편집자(조동호) 서문  
신약교회의 선구자 성낙소 목사



성낙소 목사(1890.5.16-1964.11.30)

성낙소 목사의 저술 가운데는 <자서전> 말고도 단기 4286년 6월 10일 인쇄되어 동년 7월 3일 발행된 <신약교회 목회학>이 있다. 편집자는 이 귀한 책을 충남 금산군 추부면 소재 벤엘 그리스도의 교회를 담임하였던 지철휘 목사로부터 기증을 받아 공부할 행운을

얻었다. 본서는 본래 지철휘 목사의 장인 정귀남,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 그리스도의 교회의 집사가 소유하였던 것이라고 하는데, 책 뒷장 겉표지에는 “평산 그리스도의 교회 1958년 2월 10일 구입 지철휘”라고 적혀 있다. 참고로 지철휘 목사는 평산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목회한바가 있다.

<신약교회 목회학>은 서언부터 목차까지가 8쪽, 내용이 282쪽이며, 책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각각 12.5, 17센티미터이다. 서언과 제 18장의 판독 및 책 전체의 타이핑 작업은 편집자가 수고하



1961년 8월 17일 부강교회에서 개최된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주제: 신약교회로의 환원)

였고, 제2장부터 17장까지의 판독과 노트에 옮기는 작업은 성낙소 목사의 수제자인 김종기 목사가 수고하였다. 김종기 목사는 내용의 일부분을, 아주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쉬운 우리말로 풀어쓴 경향이 있어서 편집자가 이를 다시 원본과 축자대조(逐字對照)하여 원본대로 옮겨 적었다. 따라서 현대인들에게는

본서의 판독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것이나 그나마 다행스럽게 여길 것은 내용의 모든 명사(名詞)가 한자로 쓰인 것을 한글로 적었고, 정확한 뜻의 파악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한자를 병기(併記)하였다는 점이다. 이 작업을 시도한 김종기 목사나 편집자의 경우는 어려운 한자 판독을 위해서 수없이 옥편을 펼쳐야 했고, 흐려진 글씨 판독을 위해서 확대경을 사용해야 했으므로 수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야 했다. 더욱이 본서는 활자(活字) 인쇄본이 아니라, 손으로 직접 쓴 필사(筆寫) 인쇄본이다. 따라서 끝까지 판독하지 못한 글자, 특히 한자들도 있음을 밝혀둔다.



본서의 가장 큰 특징은 제목을 ‘신약교회 목회학’이라고 한 점이다. 책의 제목에서도 그렇고, 내용에서도 성낙소 목사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격이 ‘신약성경교회’란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의 자서전이나 본서를 통해서 볼 때, 성낙소 목사는 당대에 그리스도의 교회운동의 성격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 신학지식에 있어서도 상당한 수

준에 있었음을 여러 가지 정황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

<신약교회 목회학>에 나타난 성낙소 목사의 신약교회에 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1. 지상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란 인식이 분명하였다.

본서 ‘제18장 그리스도의 교회와 교파교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주장을 읽을 수 있다.

- 첫째, 교회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교회’이어야 한다.
- 둘째, 교파교회의 명칭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
- 셋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 넷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 다섯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 몸의 지체이다.
- 여섯째, 교파적 신앙과 주의를 경계하여야 한다.
- 일곱째, 모든 교파는 신약교회인 그리스도의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 여덟째, 교파분열은 비성경적이다.
- 아홉째, “신앙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침례를 수(受)하고, 신자가되면 주일성찬으로 예배하는 신약 중 그리스도의 교회”가 유일(唯一) 교회이다.

2. 신약성경에 기초한 교회, 즉 신약성경교회에 관한 인식이 분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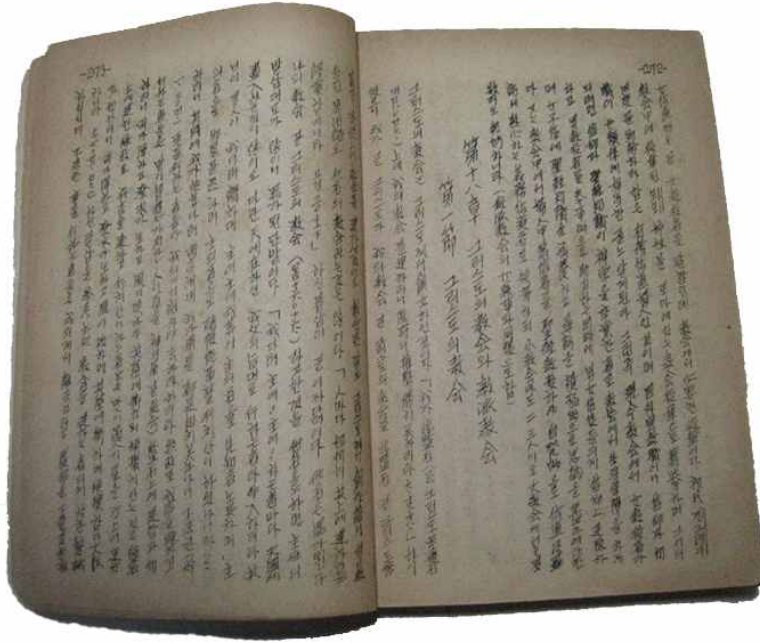
책의 제목을 “신약교회 목회학”이라고 정한 것이나 서언(緒言)에서 “신약교회인 그리스도의 교회”란 표현을 쓴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첫째, 교회는 하나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사도들이 신봉(信奉)하던 그 신경(信經)과 그 교리(教理)와 그 신학(神學)을 성경 그대로 고수(固守)”(제3장, 2절)하는 신약성경교회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둘째, 교회는 신약성경의 가르침과 실천, 즉 사도전통을 모본(模本)하여야 한다는 성경해석학적 인식이 분명하였다. 특히 성서 중 신약시대의 신앙교리를 강조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교회가 주님의 성훈(聖訓)과 사도들의 교훈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제3장, 3절, 3조).

셋째, 교회의 조직과 치리는 인위적인 교리를 배척하고, 신약교회 교리는 성서중교리(聖書中教理)로 할 것을 강조하였다(제3

장, 3절, 3조).



넷째, 그리스도는 교회는 ‘성경이 명한대로’ 혹은 ‘하나님이 명한 대로’ 따라야 한다는 신념(信念)이 철두철미(徹頭徹尾) 하였다.

聖書を 減하지도 말고, 異點을 加하지도 말고, 新約書中에 있는 그리스도의 教會로 還元하여 一教會가 되도록 祈禱하며, 役事할지니다(제18장, 3절).

우리가 聖經中에 있는 聖禮를 行할 때에는 聖經中에 記한 法을 依할지니, 何敎派立法이나 何人의 意見이나 方便을 推尋하지 말고 聖書에 根據하여 如何히 할지니라(제12장, 2절, 3조, 2).

3. 그리스도인 침례(Christian Baptism)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첫째, ‘제12장 목회자와 성례급예식(聖禮及禮式), 제2절 침례(浸禮)’에서 약식세례는 서기 753년에 시작된 것으로써 “일중



(一種) 허명(虛名)의 의식화하여진 것”이므로 “차(此)는 성경위반이다.”고 하였다.

둘째, 침례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깨달아 주님을 믿고 과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한 후에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誰든지 福音을 聽하고, 覺而信主하고, 過去 不信 不義 不法 不行과 其他諸般 罪惡을 眞心으로 悔改하고, 信仰告白하고, 浸禮를 受할 수 있고(제12장, 2절, 1조).

셋째, 침례는 죄로 물든 육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물속에 장사하였다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하여 성결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罪의 몸은 十字架에 釘死하고, 水中에 葬事하였다가 主任의 復活에 合하여 水과 聖神을 重生(新生)하여 上帝의 子女로 道の 乳으로 長成聖潔하나니(제12장, 2절, 1조).

넷째, 침례는 주님께서 친히 받으시고, 합당하게 여기셨으며, 십자가에서 고난의 침례를 받으신 후에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주신 대(大) 사명(使命)이며, 친히 아끼시고, 세우시고, 명령하셨으므로, 인간이 감(敢)히 변개(變改)치 못할 성례(聖禮)임을 피력 하였다.

浸禮를 主께서 當身이 親愛하시고 立하시고 命命하였으니 人間으로서는 敢히 變치 못할 것이요, 變치 못할지니라(제12장, 2절, 2조).

다섯째, “침례는 기독교의 구원방법에 있어서 중대한 성례(聖禮) 중(中) 일(一)이” 된다고 하였다. 한 생명(生命)이 세상에 태어나기까지는 수정, 배아, 태아, 출산, 성장의 과정을 차례로 거치게 된다. 수정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배아단계나

태아단계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수정부터 출산까지 모든 과정이 필수적이다. 또 출산만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죄(赦罪)의 구원도 믿음만으로 혹은 회개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신앙고백하고, 침례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한다. 성낙소 목사는 이런 뜻으로 “침례는 기독교의 구원방법에 있어서 중대한 성례(聖禮) 중(中) 일(一)이” 된다고 하였다.

救援이 곧 赦罪이다. 信仰하고 浸禮를 受하는 人은 救援을 得할 것이오 하였으니, 信仰만하면 다 되는 것이 안이오, 浸禮를 受하여야 한다. 又是 “悔改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名으로 浸禮를 受하고 罪赦함을 得하라. 然하면, 恩惠의 聖神을 受하리니” 하였으니, 悔改만하면 다 된 것이 안이오, 浸禮를 受하여야 한다. 然則 信仰하고, 悔改하고, 信仰告白하고, 浸禮를 受하여야, 救援을 곧 赦罪를 得할 뿐만 안이라, 恩惠로 聖神을 受한다고 主任과 使徒 배드로가 有力하게 말씀하시였다(제12장, 2절, 2조).

여섯째, 그리스도인 침례를 “중생(重生)의 침례,” “죄 사함과 성신을 수(受)하는(행 2:38)” 침례로 인식하였다. 또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고(막 16:16), 죄사(罪赦)함을 받고(행 2:38), 죄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롬 6:3-7), 부활하고(고전 15:29), 중생하고(롬 6:5, 골 2:12, 딤후 3:5, 행 2:38), 그리스도로 옷 입고(갈 3:27),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심왕(尋往)하고(벧전 3:21),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행 2:38) 유익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의 敎는 主 여호와 하나님 創造主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十字架에 犧牲하시고 復活하시어 우리 人類를 贖罪救靈의 光明이 照하여 誰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悔改浸禮를 받으면 聖神이 即時 內住한 重生者가 主의 名으로 祈禱하면 信仰이 점점 長成하여 聖潔의 生活을 할 것이오, 聖神의 結果가 있어야 한다. 異蹟은 赦罪 重生의 大하고 聖經에만 있는 異蹟, 요나의 異蹟과 같이 水中에서 重生의 異蹟이다.(제6장, 2절, 8조, 1)

일곱째, 침례의 집행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목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평신도일지라도 신앙생활이 무흠하면 집행할 수 있음을 성서적인 전거(典據)를 들어 설명하였다.

浸禮 執行者는 浸禮를 受한 者로서 信仰이 聖書中에서 無欠하고, 聖神이 充滿者면 執行할 수 있음. 牧師라도 信仰生活에 聖書的 欠陷이 有한 者는 執禮資格을 喪失하였으므로 執行할 수 없을 것이다. 牧師나 長老나 執事나 平信徒나 聖書的 信仰生活이 無欠한 者가 執行함이 可하고, 牧師만 專行的으로 執行權을 聖書中에 주지 아니하였다(제12장, 2절, 3조, 1).

여덟째, 어떠한 경우에도 약식으로 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되며, 유아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으므로 침례를 줄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幼兒는 天國에 入할 資格이 有함은 예수님이 證明하셨다(太 18:3). 又난 病中에 主의 福音을 覺悟하고 確實한 信仰과 悔改와 告白이 分明하면, 浸禮를 施할 수 있으나, 危篤中 不完全 意識으로 信主한다는 것으로 로마 天主教式으로 하면 안 된다. 浸禮가 안이고 略式 洗禮는 容納할 聖書中에 條件이 없는 까닭이다. 囚獄罪人의게 傳道하여 確實한 信仰 悔改가 分明하면, 何人 男女를 莫論하고 獄官의 承認을 請하여 執行할 수 있나니라(제12장, 2절, 3조, 2).

4. 주의 만찬 중심의 주일예배를 강조하였다.

첫째, 일요일을 성찬예배일로 인식하였다(제12장, 3절, 1조). 구약교회의 5대 제법(祭法) 곧 번제(燔祭), 평제(平祭), 소제(素祭), 죄제(罪祭), 견제(愆祭)가 신약교회에서는 찬송, 기도, 헌금, 성찬, 성경설교로 바꿨으며, 안식일 대신 7일중 수일(首日) 즉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로 바꿨으며, “주님이 일차(一次) 자기를 희생의 제사를 헌(獻)하사 죄를 속(贖)하시고(히 9:26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주님의 성찬예배로 5

대 제전(祭典)을 대신하였다.”고 하였다. 또 “구약예전은 신약의 영자(影子, 그림자)니, 할례는 신(身)의 사(事)요, 침례는 신심(身心)의 사(事)이며, 제례는 의식(儀式)이요, 성찬예배는 영(靈)의 사(事)이다.”고 하였다(제12장, 1절).

둘째, 초대교회에서의 주일예배는 떡을 떼기 위한 모임이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3)주의 晚餐 - 主日 禮拜는 初代教會 創立日로부터 始作한바 主님의 死中復活을 記念하는 無酵餅과 葡萄汁羹으로 主님의 살과 피를 代身하여 祝辭하고 浸禮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參與하여 主님의 十字架 犧牲祭를 記念하는 聖禮이니 初代教會에서 安息日을 바리고 主日禮拜가 主的 晚餐으로 創立하였다. “七日中 首일에 我等이 餅을 擘하려하여 集하였더니”(行 20:7). 日曜集會는 餅을 擘하기 위하여 모였음이라. “恒常 使徒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交際하며 餅을 떼어 먹으며 祈禱하기를 務하더라”(行 2:42). 此는 곧 五旬節에 聖神降臨日, 그리스도인 浸禮 始作日, 그리스도의 教會創立日, 主日禮拜에 聖餐式한 것이다. 故로 모든 集會中에 主日禮拜가 此聖禮로 由하여 聖禮中 首位되는 聖會로 嚴守하는 것이다(제6장, 2절, 6조, 1).

셋째, 주의 만찬은 우리 주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명령하신 것임을 인식하였다.

使徒들이 主的 遺言의 命令을 受하였으므로 教會를 始作하면서 主日인 日曜日集會는 主的 晚餐禮拜로 實行順從한 것을 聖書中에서 明白히 發見하였으므로 우리 그리스도의 教會에서는 그대로 聖書의 命令을 遵行하여 安息日이 안이고 곧 禧日에 神靈과 眞理인 十字架의 記念으로 聖餐의 禮拜를 奉行할지니라(제12장, 3절, 1조, 5).

넷째, 주의 만찬의 집행은 목사, 장로, 집사가 집행할 것이나, 만일 교직자가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집행하여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新約時代 教會創立日인 日曜日에 主님의 遺言이며 命令을 受한 使徒들이 遵守하여 執行하였고(行 2:42), 바울 使徒도 主께 受한 命令을(고전 11:23) 各教會에서 執行하도록 하였으니, 牧師, 長老, 執事가 執行할 것이오, 萬一 敎職者가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이 主日에 執行하면 된다. 主日은 浸禮 받은 信者가 禮拜한다. 緣故로 初代教會에서는 安息日 翌日은 七日中 首日에 餅을 擘하는 禮拜集會(行 20:7)하였음으로, 安息日이 廢하고 主日禮拜가 始作된 것이니, 家庭에서도 信者들이 主日禮拜에 餅을 誠意로 擘하여 食하고 上帝를 讚頌하였다. 今日에도 우리 그리스도의 教會에서 主日은 聖餐禮拜인 故로 牧師가 없는 教會에서는 平信徒들만 모여서 信徒中의 一人이 集禮한다. 大東亞戰爭時와 6.25事變 當時에 各家庭에서 或防空壕에서 山野江邊에서 主日을 當하면 家族的으로 個人的으로 聖餐禮拜를 主日마다 奉行하였다. 牧師가 없으면 家族 個人이 禮拜하지 못할 法이 聖書中에 無한 同時에 信者가 集禮할 것이니라(제12장, 3절, 2조, 1).

다섯째, 주의 만찬에 참여할 자격에 대해서 논하였다.

主日은 男女聖徒가 여호와 上帝께 神靈과 眞理로서 聖晚餐禮拜를 奉行하는 것이 聖旨의 禮典이다. 그러나 聖書中에 注意의 警戒가 嚴然하다(고전 11:30-32). 또 그렇다고 해서 主日 聖餐禮拜를 廢할 수 없는 것일 것이다. 然則 聖書대로 資格者는 堂堂히 參與할 것이니라. 1)浸禮를 受한 者로서 信仰生涯中에 있는 者. 2)良心으로 回顧 곧 自醒하고 悔改한 後에야 食하고 飲할 것이오. 3)主的 몸과 피를 分辨하여 十字架의 釘死와 復活을 記念할 者이니라. 以上 三種의 以外에 處地에서는 絶對로 參與치 못할지니라(제12장, 3절, 2조, 2).

제대로 된 신학서적 한 권 없던 60여 년 전, 그것도 6.25사변 중, 성낙소 목사의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한 신념이 이러했을진대 석박사 학위를 가진 목사가 넘쳐나는 오늘날은 그 수준이 어떠해야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성낙소 목사 정도의 인식을 가진 목회자를 쉽게 찾을 수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깊이 사랑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한 신학도의 탄식을 들어보자.

....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들을 만나면, 그렇게 깊이 “그

리스도의 교회"를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제겐 큰 교만이자 정죄 받아 마땅할 부분이지만), 그리스도의 교회 소속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면서 그들과의 교제가 망설여지기 까지 합니다. (그냥 어린 후배의 푸념으로 이해해 주시길^^) ....

60여 년 전 척박한 한국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고 일궈낸 선배 목사들의 열정과 신념은 대단하였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은 모두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회 등 타 교단에서 환원한 분들이었다.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없어서였지만, 왜 오늘날에서조차 우리 가운데서 환원 2-3세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앓고 있는 가장 큰 고질병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교회를 너무 모른다는 점이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공부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우리의 현실에 비춰볼 때, 동석기, 강명석, 성낙소, 김은석, 이신과 같은 초기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인물들의 역량(力量)이 얼마나 컸는가를 알 수 있고, 오늘의 우리가 그들에 대해 자부심과 존경심을 갖기에 충분하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본서를 읽는 이들에게 신약교회의 선구자였던 성낙소 목사의 깊은 영성과 복음에의 뜨거운 열정이 그대로 전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마지않는다.

## 참고서적

### 서적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총회 신학위원회 편. <최태용의 신앙과 신학> 한국신학연구소, 1995.

김성철. <삶이란, 감사하면 그것으로 O.K다> 도서출판 진흥, 2000.

김세복.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교회사> 참빛출판사, 1969.

김우현. <맨발천사 최춘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규장, 2004.

김익진.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환원운동 - 그리스도의 교회 현황과 연대기적 변천사> 그리스도의 교회, 1987.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 - William D. Cunningham의 생애를 중심으로 - 1864-1936> 한성신학교, 1991.

노봉욱 편저.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 재단법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유지재단, 2006.

대학교회. <대학교회 50년사> 학교법인 동서학원, 2003.

박대순. <간추린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 오늘의문학사, 1998.

부산 중앙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 교회의 반세기사> 남선교회, 1999.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1956-2006)> 2006.

성낙소. <기독교회 목회학>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 출판부, 단기 4286.

성낙소. <기독교의 교회와 성낙소와의 관계> 편집 및 부록: 김종기, 조동호.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0. 자료: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kccs.info).

양촌소망감리교회. <양촌소망교회 104년 역사> 도서출판 멘

토, 2011.

오수강. <기독교의 교회와 성막소와의 관계>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 2007.

이덕주. <나라의 독립교회의 독립: 한국 기독교선구자 한석진 목사의 생애와 사상> 기독교문사, 1988.

이신. <산다는 것, 믿는다는 것> 기독교문사, 1980.

이신 지음, 이은선, 이경 위음. <술리얼리즘과 영의 신학> 도서출판 동연, 2011.

이신 지음, 이경위음. <이신시집: 돌의 소리> 도서출판 동연, 2012.

조동호 편저.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kccs.info), 2011.

조동호.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kccs.info), 2010.

조동호. <힐 요한 선교사>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kccs.info), 2011.

최윤권. <내가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 환원출판사, 1997, 2003년 수정증보판.

최재운.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 태광출판사, 2005.

펜워, M. C. <대한기독교회사: 펜워 선교사의 자서전적 이야기>. 허긴 옮김. 침례신학대학출판부, 1989.

함동진. <창현 함태영 목사 전기> 1993. 자료: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kccs.info).

## 논문

Maxey, Mark. "Christians in Japan 100 Years (1883-1983)."

<http://www.bible101.org/japanmissions/page05.htm>

김경중. '존. T. 채이스(John Trawrick Chase)의 한국선교: 한국기독교선교회(Korean Christian Mission)를 중심으로.'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 2011학년도 석사학위논문, 2012년 7월.



김세복.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 연세대학교연합신학대학원 논문, 1967.

김익진. “그리스도의 교회 환원운동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8.

김홍철.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성장사.” 한국목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백종구. “윌리엄 D. 커닝햄과 한국인 선교-동경 요시야선교회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3집>, 2012년 10월 15일, pp. 123-147.

안병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성장사.” 배뢰안대학원 논문, 1979.

안세희. “환원운동의 교회사적 고찰.” 호서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이덕주. “청빈과 헌신의 독신전도단 운동가 강순명.”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kchmuseum.org).

이덕주. “한국교회의 자존심, 한석진 목사.” 두란노: 빛과 소금, 200년 4월호.

이상훈(Timothy S. Lee), “Japan and Korea for Christ and His Church: The Unexpected Success and Demise of the Yotsuya/William D. Cunningham Mission, a Mission of the Stone-Campbell Movement.” *Journal of Korean Religions*, Vol. 4, No. 1, April 2013, pp. 123-138.

이신.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환원운동의 전개.” <기독교대백과사전> 1980. 자료: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kccs.info).

이호열.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약사.” <문화> 창간호. 그리스도신학대학 출판부, 1987.

장성만. “나의 삶 나의 보람.” <민석 장성만 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정인조. “김은석 목사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연구.” 한성신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자료: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kccs.info).

조동호 역.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 역사.”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kccs.info), 1999.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역사.”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kccs.info), 2005.

조동호. “한민학교(한성신학교, 한국성서신학교) 역사.”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kccs.info), 2014.

힐, 존 J.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 역사”(A Short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Korea). <췌메론 제7호> 한국성서신학교, 1972.

## 기타

"John T. Chase" and "John J. Hill" Carried in the *Christian Standard*. Collected and Duplicated by Dr. Chong Ku Paek of the Seoul Christian University and Digitized by Dr. Dongho Cho of the Christian Church Studies.

Chase, John T. *The Korean Messenger: Korea for Christ*. Digitized by Dr. Scott Seay of the Christian Theological Seminary, Indianapolis, Indiana, 2 July, 2015.

Cunningham, W. D. *Tokyo Christian (1901-1997)*. Published by the Yotsuya (Cunningham) Mission, Christian Churches/Churches of Christ and Digitized by Dr. Scott Seay of the Christian Theological Seminary, Indianapolis, Indiana, 30 June, 2015.

Cunningham, W. D. *Tokyo Christian*. Published by the Yotsuya (Cunningham) Mission, Christian Churches/Churches of Christ and Digitized by Dr. Timothy Lee of the Brite Divinity School of Texas Christian University, Fort Worth, Texas, no date.

Taylor, Harold. *For Christ in Korea*. Digitized by Dr. Scott Seay of the Christian Theological Seminary,

Indianapolis, Indiana, 2 July, 2015.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 회보 1990 - 2011년.

그리스도의 교회 회보. 1984년 여름호.

<기독교 연감> 1964년도

“기독교의 교회 선언문” 경성 사직공원내 그리스도의 교회 간행.

김환영 기자. “영혼의 리더38 ‘그리스도의 교회’ 원로 김정만 목사.” <중앙 선데이> 제151호, 2010년 1월 31일자. 자료: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kccs.info).

선교사들의 선교소식지 및 서신들

이신.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선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 1974년 3월 25일자. 자료: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kccs.info).

장성만. “역경의 열매.” 국민일보, 2009년 4월 5일부터 5월 22일자. 자료: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kccs.info).

<朝鮮の宗教及亨祝要覽> 昭和 16년도 조선총독부 간행.

<종교편람> 1979년도 문공부 간행.

최대용. “비교회주의자.”<天來之聲> 17호, 1926년 10월호.